한국의 민속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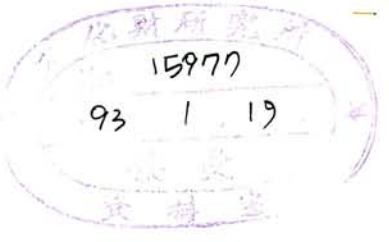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33년사

문화부

386.1
문안홍

한국의 민속예술




15977
93 1 19

한국의 민속예술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33년사

문화부

발간사

민족의 정직한 얼굴 -민속문화

문화부장관 **이 수 정**



향토의 민속 문화는 민족 문화의 뿌리입니다.

수천년을 이어온 겨레의 삶의 모습과 애환, 조상들의 숨결과 신명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민속 문화를 갖고 있고 그것을 함께 하는 정서를 공유하고 있기에 우리 겨레는 민족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속 문화는 우리를 남의 민족과 구분되게 하는 바탕입니다.

서민들의 질박한 생활 현장에서 형성된 민속 문화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직한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속 문화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문화는 인류가 창조한 삶의 총체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각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속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새로운 창조도 풍성한 문화 전통의 토양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삭막한 사막에 울창한 숲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풍부한 전통과 자산의 축적 없이 빛나는 문화의 우람한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민족 문화의 원형을 보존하는 일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독창적인 문화만이 세계의 문명과 인류의 보편적 문화 속에서 인정받고 또 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문화가 가장 세계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올림픽을 통해 우리가 체험한 일입니다.

온세계 인류가 서울올림픽을 통해 독특하고 훌륭한 한국 문화를 보고 놀라와 했습니다.

민속 문화의 보존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인 동시에 새로운 문화 창조의 마르지 않는 샘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세계 속에 우리를 선양하며, 인류 문화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놀이나 의식으로 전래되어온 향토 예술은 일반 서민 대중들과 함께 숨쉬고 살아온 까닭으로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생활상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통해 전승되어온 삶의 모습이 여기서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책무일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는 급격한 변혁의 시대를 살아 왔습니다.

그것은 고향과 같은 자아의 상실을 수반하였습니다.

외래 문화의 범람 속에 우리의 것은 설 자리를 잃어 갔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속에 우리 문화 전통은 소외되고 허물어져 갔습니다.

다른 민족의 식민 통치 아래서도 생명력을 발휘해온 향토 민속 문화가 단절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958년 건국 10주년 경축 행사의 하나로 열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실로 인멸해 가는 민족 문화의 뿌리를 찾는 역사적인 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4년간 이 대회는 사라져 가는 향토 민속 예술을 발굴, 재현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원형을 보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그동안 무려 295종의 민속이 새로 발굴, 공연되었고 그 가운데 34종목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대회가 없었다면 이 소중한 문화 유산은 자취도 없이 일실되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 속에 잃어버린 무형의 민속 문화를 되살려 내는 데는 수많은 분들의 땀과 정성이 쏟아져야 했습니다.

이 대회는 민속 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문화 민족의 긍지를 고취하였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발굴된 민족 문화의 원형은 오늘의 문화 예술 창조에 바탕이 되었습니다.

1986년 아시아경기, 1988년 서울올림픽 개·폐막식의 많은 문화 행사가 이 대회에서 발굴된 종목을 원형으로 하여 창작된 것이었습니다.

문화부는 지난 34년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기록을 집대성하여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발굴하여 재현된 민속 예술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모습과 원형을 잃어갈 우려가 크므로 기록으로나마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이 민속 예술의 전승 발전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서 우리의 전통 문화 진흥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 힘써 주신 필자 여러분과 편집 발간에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2년 12월 31일

한국의 민속예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사

차례

발간사 — 문화부장관 이수정 · 4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 총평
겨레의 영원한 축제 — 신찬균 · 10

제 1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17
하회별신굿놀이/꼭두각시놀음/줄타기/전남농악/전북농악/통영오광대/말뛰기놀이/진주농악/배뱅이굿

제 2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27
봉산탈춤

제 3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31
경기농악/평양다리굿/쾌지나칭칭/안동놋다리밟기/상주모내기/보리타작

제 4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39
화천농악/진도아리랑/작두타기

제 5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43
입춘굿놀이/삼천포농악

제 6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47
동래야류/충북농악

제 7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51
세경놀이/춘성수레싸움/항두계놀이

제 8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57
양주별산대놀이/강릉관노가면희

제 9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61
안동차전놀이/영등굿놀이/은산별신굿/부산농악/함열농기뺏기

제1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69
고싸움놀이/한장군놀이/영양모내기/안동논매기/답교놀이/해녀놀이/강원농악/서울민요/성주풀이/제주민요/오방성주풀이/목우희

제1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83
장흥보름줄다리기/정선아리랑/관등놀이/속리산탑돌이/강령탈춤/거북놀이/노동요/남원용마놀이/거문도뱃노래/조리희

제1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95
아산줄다리기/진도들노래/베틀노래/기와밟기/승전무/남사당풍물놀이/김매기노래/해녀뱃노래/어르마타령/배치기노래/익산농요/서당놀이/강릉오독떼기/연평도놀이

제1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09
탄금대방아타령/우수영부녀농요/익산목발노래/동래지신밟기/송파산대놀이/김천농악/애원성/황해도민요/투호놀이/타구놀이/홍해룡의 노래/횃불쌈놀이

제1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21
좌수영어방놀이/대감놀이/소놀이굿/전주승무/차사영맞이/미호천방축노래

제1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29
고성오광대/나주들노래/옥구들노래/거리제/수영야유/영변가놀량/서도소리/난봉가/톱질놀이/가래질노래/태인민요/괴산백중놀이/달구노래

제1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43
영동설계리농요와 단양매바위골동요/벽골제쌍룡놀이/영동해랑제/안동웅굴놋다리/비바리/한가위놀이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49
해남강강술래/멸치후리는 노래/산유화가/선소리산타령/서도잡가/고무산타령/배따라기/임실삼계농요/도당굿놀이/안동저전동달개놀이/괴산농악/강릉단오굿

제1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63
봉기풍어놀이/익산삼기농요/시선뱃노래/청원농요/진주검무/강진땅뺏기놀이/영덕탈굿/대보름놀이/청도민요/월정사탑돌이/상조계놀이/호미걸이소리/가산오광대/조밭다지는노래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81
위도띄뱃놀이/평창백옥포농악/진도만가/고성농요/은율탈춤/긴아리/북평원님놀이/정수암화전놀이/보부상놀이/검질매는노래

제2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5
예천통명농요/북청사자놀음/강문진또베기/불무노래/청도차산농악/아미산울어리/양진명소오룡굿/진주한량무/궐기타령/달구놀이/거문도술비소리/말천방농요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09
방앗돌굴리는노래/밀양백중놀이/매포민요/등바루놀이/필봉농악/영변성황대제/한양풍물놀이/대동굿/조심기놀이/그물당기는 노래/용연기우제/함평농요

제2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23
현천소동패놀이/입석줄다리기/집줄놓는노래/용대기놀이/청단놀음/제천두학농악/용왕굿/강릉대보름농악/동래학춤/두만강뗏목노래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35
삼동굿놀이/장산도들노래/대구고산농악/음성거북놀이/산신놀이/발방아놀이/화상싸움/경신역마놀이/재가승주지놀이/과천무동답교놀이

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45
의성가마싸움/양양패다리놓기/금산농악/청도풍각민요/날뫼북춤/완주부동농악/태우만드는놀이/까치내상여놀이/보성옥평농악/어베주지춤/달래강망패싸움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59
횡성회다지소리/공주장승제/목계별신굿/금마기세배/금릉빗내농악/통영검무/수영농청놀이/북성포곶창굿/밀양새터가을굿/온달성재밟기놀이/주사손돌공진혼제/용신맞이풍어굿/연신맞이굿놀이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75
이리농악/서산볏가릿대놀이/담양들노래/예천공처농요/이천거북놀이/진주포구락무/명주하평 2 월답교농악/불싸움놀이/비산농악/인제뗏목꾼소리/인천편사놀이/양양귀애파기놀이/호랑이탈춤/낭성산판소리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95
강화용두레질노래/저산팔읍길쌈놀이/가거도멸치잡이소리/양양상복골농요/수영농청농요/범몰이/정읍범패승무/아웨기와흥애기소리/북성지구풍어노래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09
여주쌍용거줄다리기/보은흰돌물다리기/서해안일노래/인제숯둔골숯굽기놀이/연물놀이/욱수농악/다대포후리소리/강진베틀놀이/용암포풍어제/김포두레농요/울산물당기기놀이/경복궁지경닺이/옥구상장농악

제2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25
봉서사영산작법/송천달집태우기놀이/옥천집터다지기는소리/자인팔광대/비산동천왕매기/청양동화제/마산농청놀이/동래고무/서울십이지풍물놀이/고창임리당산제/떼몰이놀이/소촌농악/송포호미걸이/홍천물통방아놀이

제3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43
안성남사당풍물놀이/상주민요/인천주대소리/청주웃다리농악/고흥한적들노래/감내줄다리기/총각대방놀이/동김녕리해녀노래/광산마륵농악/신창탈놀이/금척무/고성명파돌다리놓기/송파백중놀이/공산민요

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61
서우젯소리/연산백중놀이/광산농악/보성장좌리기받이별신제/해주검무/바위절마을호상놀이/마산두레농악/군산용왕굿/요왕맞이굿놀이/디딜방아액맥이놀이/재가승염불삼매놀이/단양띄뱃노래/인간칠십고려장하직굿놀이/지게춤물박장단/주대소리와장치기소리/김포상두꾼소리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71
여수영당풍어굿/금산물페기농요/도포제줄다리기/구미발검들들노래/북청돈돌날이/대전양반상례역귀몰이/안산둔배미놀이/망데기질드리는소리/횡성우밀어러리타령/평양염불과제석방아찧기/건들방우치성굿/남이장군당굿/괴산농요/정읍농악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79
용정리호상놀이/고흥농악/나뭇꾼농목장치기/포천메나리/영동길쌈노래/인천소금밭일놀이/도안동농요/장안골편사놀이/부산영산재/광산들노래/임실삼계고전상여소리/밀양법흥상원놀이/평양검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연도별 수상현황 389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 평가와 분석
대회의 의의 — 임동권 · 406
민속의례 — 장주근 · 416
민속놀이의 변천 — 신찬균 · 424
민속무용 — 정병호 · 432
농 악 — 이보형 · 440
가면극 — 이두현 · 446
민 요 — 권오성 · 449
전국무형문화재 현황 453
색인 461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 총평

겨레의 영원한 축제

신 찬 균
(문화재위원)

1. 대회의 목적과 성격

우리 민족만큼 고유의 민속예술을 풍부하게 생활화하고 간직해 온 민족도 드물 것이다. 일년 24절기를 통하여 어느 때고 그 절기에 따른, 행사와 특유의 풍속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향토민속은 우리민족의 생활양식 그 자체이다. 그 속에는 우리민족의 가치관과 세계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향토민속은 보존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거의 단절시켜 놓았으며, 해방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근대화의 바람은 우리의 것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오히려 전래의 우리 민속예술을 낡은 것,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멸시하고 백안시하는 풍조를 낳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의 고유민속을 발굴, 재현하여 민족문화의 뿌리를 찾고, 이를 보존·육성하여 후세에 길이 전승하고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되어 왔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 대회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유산인 전국 각 지방의 전래 향토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각 지방의 향토민속을 농악, 가면극, 민속무용, 민속놀이, 민요 등 다섯부분으로 나눠 경연 형식을 통하여 재현해 왔다.

이러한 대회의 목적에 따라, 이 대회는 향토민속예술 발굴의 산실 역할을 해 왔다. 민속놀이의 발굴이 그 한계에 이르렀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온 가운데에도 매회 10여개씩의 새로운 종목이 새로이 발굴되었다. 일제 치하와 해방 후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뻔 하였던 우리 겨레의 숨결과 얼을 재발견하는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그만큼 큰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다.

더구나 대회가 연륜을 더해 가면서 민속예술의 저변확대가 이뤄짐에 따라, 민속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 나아가서는 민속예술에 대한 국민적 긍지를 높인 것도 이 대회가 이룩한 성과의 하나이다. 이 대회가 열릴 때마다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어 연일 초만원을 이루며 성황리에 대회를 진행되어 온 것은 민속예술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33회를 거쳐오는 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시켜 왔던 것도 사실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향토민속이 무대화됨에 따라 그것이 본 고장에서 전래되어온 방식

그대로 재현되지 않고 왜곡된 채, 연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이 대회의 운영방식이 경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이 대회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경연방식이라는 이 대회의 성격상, 향토민속의 재현이라는 이 대회의 목적은 시기별로 각기 다른 양태로 저지되어 온 것이다.

민속예술의 원형이 왜곡되어가는 문제들은 시대별로 그 양태를 달리한다. 대체로 1970년대에는 출연종목들이 입상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대형화되거나, 출연종목이 대형화됨에 따라 본고장 연희자들이 직접 출연하기 보다는 학생들을 동원하여 매스게임화하는 경향, 그리고 관중들로부터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현대적으로 변형시키고 「쇼」화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향토민속이 본 고장에서 전래되어 온 방식 그대로 재현되지 않고 왜곡되어 연희되는 문제점을 노정시켰던 데 비해서, 1980년대에는 민속예술의 발굴이 대체로 마무리되어 새로운 종목의 발굴이 어려워지면서 인위적으로 극화하거나 과장 연출하는 경향이 나타났는가 하면, 각 부문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인기종목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민속예술의 원형을 왜곡시키는 문제들을 노정시켰던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한마디로 이 대회가 경연방식을 취하면서 지나친 입상의욕을 자극시킴으로써 야기된 것으로서 민속의 경연이라는 운영방식이 계속되는 동안 향토민속의 원형이 왜곡될 위험성은 늘 상존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회가 횟수를 더해가면서, 그만큼 질적인 향상을 이루어 1970년대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1980년대에 들어서는 대체로 해결되었는가 하면, 1980년대에 제기된 문제들도 그 운영방식의 전환과 함께 크게 개선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시기별로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으며, 또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를 이 대회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검토해 보기로 하자.

1970년대에 제기된 이 대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출연종목들이 지나치게 대형화된다는 것이었다. 민속놀이 종목을 중심으로 출연인원수가 크게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안동차전놀이'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부터이다. 대량인원을 동원하여 박진감 넘치는 연희장면을 보여준 '안동차전놀이'가 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게 되자, 이후 출연하는 종목들이 경쟁적으로 그 출연인원수를 크게 늘려 1970년의 제11회 대회에서는 전북의 '남원용마놀이'에 340명, 전남의 '보름줄다리기'에 300명, 충북의 '속리산탑돌이'에 200명, 경북의 '한장군놀이'에 200명이 출연하는 등 출연인원수의 대형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인위적인 대형화 추세와 함께 민속놀이가 그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민속예술을 원형 그대로 재현하는 것 보다는 다수의 인원을 출연시켜 시위효과를 높이는데 더욱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출연종목의 대형화 추세는 197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지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제17회 대회에서는 출연인원이 100명이 넘는 종목은 '익산금마기세배'와 '해남강강수월래' 뿐이었으며, 오히려 적은 인원으로 원형을 재현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짜임새 있는 종목들이 많았다. 제19회 대회에서는 대형화와 전시효과를 추구했던 과거의 파행에서 벗어나, 출연팀들이 민속의 원형을 보존하는데 비교적 충실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제21회 대회에서는 '밀양백중놀이', '등바루놀이', '영변성황대제', '한양풍물놀이', '대동굿', '조심기놀이' 등 6개의 입상 종목 모두가 대형화를 지양하고 마을 단위의 소박한 놀이로 재현되어 그 전승의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후에도 해를 거듭하면서 민속놀이의 질적 수준이 더욱 제고되면서 출연종목의 대형화 추세는 점차 지양되었다.

출연종목의 대형화와 함께 제기된 또다른 문제는 민속예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연희자로 출연함으로써 향토민속의 원형을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초기에는 인간문화재라고 할 만한 민속예술의 기능보유자들이 이 대회를 통하여 발굴되기도 했을만큼 민속예술을 이해하는 계층에서 주로 출연하여 왔다. 그런데 '안동차전놀이'와 같이 대형화된 종목이 늘어나면서 젊은 학생들의 참여도 급격히

늘었다. 제 9 회 대회에서는 젊은 학생층이 전체 출연자의 80%를 차지할 정도였다. 젊은 학생층의 출연은 세대교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강습을 받은 젊은 학생들이 우리의 고유한 민속을 얼마나 잘 소화해 낼 것이며, 또 이러한 학생들이 과연 우리 민속예술의 전승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대두시켰다.

그런가 하면, 1970년대에는 민속을 전혀 모르는 무용교사가 지도를 맡거나, 특정 연구소의 팀이 계속적으로 출전함으로써 민속예술의 원형을 왜곡시킬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악이나 민속놀이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전문가들이 출연할 경우 놀이는 한결 흥겹고 세련되어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그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 진정한 민속예술은 몇 사람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놀이되는 것보다는 전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놀이되는 데서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민속예술 연희 계층의 문제가 대체로 출연종목의 대형화 경향에 따라 제기된 만큼, 출연종목의 대형화 경향이 점차 지양되어 가면서 민속예술 연희 계층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갔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현지주민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 민속놀이의 원형을 더욱 충실히 재현해 낼 수 있게 되었으며, 제30회 대회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젊은이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문제가 될 정도였다.

1970년대에 주로 지적되었던 이 대회의 문제점으로서 또다른 하나는 민속예술이 무대화되면서 출연 종목들이 지나친 입상의욕에서 심사위원과 관객의 기호에 맞추어 현대적으로 변형되어 감에 따라 민속예술을 원형 그대로 재현한다는 이 대회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빚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속예술의 순수성이나 소박성을 재현하기 보다는 화려하게 매스게임화 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무용교사 등의 지도로 연출효과만을 노려 민속예술이 개직되거나, 의상도 지나치게 화려하게 무대의상화하여 민속예술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 예로서 16회 대회에서는 민속놀이, 민요 심지어는 민속무용까지 극화 구성되어 공연되기도 하였다. 민속격을 같이한다. 즉 1980년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각 지방 향토 민속의 새로운 발굴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내려다 보니 향토 민속예술의 원형과는 거리가 먼 인위적이고 과장된 연출을 하게 되며, 지나친 입상의욕에서 민속놀이부문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민속놀이화하여 출연함으로써 향토민속예술의 원형을 왜곡시키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하면, 1980년대에도 여전히 각 지방의 향토민속은 새롭게 발굴해 낸다는 이 대회의 일차적 목적이 향토민속의 재현이라는 또다른 목적에 비해서 더욱 강조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회가 해를 거듭해 갈수록 향토민속의 원형을 더욱 충실히 재현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에 제기된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는 각 지방 향토민속의 새로운 발굴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과장된 연출과 인위적 극화가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다. 연희종목 가운데에는 입상을 노려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의도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지역의 순수함과 소박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기존의 딴 민속을 모방하거나 외면의 시각적 화려함에 치중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민속놀이는 단순한 옛 풍습을 억지로 놀이화하여 놀이가 갖는 승부도 없고 놀이의 속성인 신명도 나지 않는 억지 연출을 보이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제기된 문제점들 가운데 다른 하나는 종목 선정과정에서 인기분야에 편중되는 경향이다. 즉 지나친 입상의욕에서 민속놀이라고 할 수 없는 종목들을 민속놀이화하여 출연함으로써 본래 민속예술의 원형을 왜곡시키는 데 따른 문제이다. 그 예로서 제30회 대회에서 민속놀이로 출연한 '명파돌다리놓기'는 민요성이 강했고, '신창탈놀이'는 가면극으로 나오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제31회 대회에서 '바위절마을호상놀이'는 민요성이

강한데도 민속놀이로 참가했으며, '인간칠십고려장하직굿놀이'와 '재가승염불삼매놀이' 역시 민속놀이로서 분류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서울 90.10.26). 이러한 현상은 입상경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경연에만 치우친 운영방식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하여 제기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문제 역시 1970년대의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대회의 운영방식이 경연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에도 이러한 경연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민속경연대회를 축제의 마당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어 왔다.

제21회 대회에서는 예총 제주도 지부가 해마다 열어 오는 한라문화제 10여 종목의 행사가 함께 열리어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축제의 마당으로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제24회 대회에서는 대회장 주변에 옛날 난장을 방불케 하는 약장수, 노점상, 향토음식점 등이 생겨나 축제적 분위기를 고조시켰는가 하면, 그후 제25회 대회에서는 「보는 축제에서 즐기는 축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연일 1만 5천명이 넘는 관중으로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대회기간 동안 공설운동장 부근에 특별히 설치된 난장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모처럼 축제의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또한 제26회 대회에서는 「멋과 신명의 마당」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경연 위주의 운영을 탈피, 출연자와 관객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역대 수상작의 시범공연도 2개 종목에서 5개 종목으로 늘려 이번 대회의 축제적 성격을 고조시켰다. 그러던 것이 제29회 대회에 이르러서는 민속경연과 민속축제적 성격을 조성키는 데 중점을 두었고, 행사주제도 「화합의 한마당」으로 정하였다. 즉 대회가 마감되기 직전 출연자와 관중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는 한마당 큰잔치를 뒷풀이로 마련,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특히 제29회 대회에서 과도기적으로 경연형태와 축제적 형태를 병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연형태로만 운영되어 온 이 대회의 성격을 수정한 것은 이 대회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변화이다. 즉 이 대회에 민속축제적 성격을 병행함으로써 우선적으로는 과거 경연형태로 운영되어 온 과정에서 노정시켰던 많은 문제점들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 대회가 경연방식으로만 운영되어 오면서 각지방 향토민속의 새로운 발굴을 자극해 온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지나친 입상의욕을 유발시켜 각지방의 향토민속을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내포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대회에 축제적 성격을 병행코자 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향토민속의 발굴과 재현이라는 이 대회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셈이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과도한 입상의욕이 더이상의 부작용을 낳지 않을 만큼 이 대회의 축제적 성격이 충분히 강조되는 것이다.

2.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성과

우리의 향토민속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다.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를 지나오면서 쌓아온 생활양식 그 자체이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 더나아가서는 생활양식 그 자체를 규정지어 온 문화적 기반이며, 우리 민족을 우리 민족다웁게 하는 민족적 정체성이 스며있는 유일한 현장이다. 따라서 우리의 향토민속은 보존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향토민속은 일제시기에는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흔적도 없이 그 자취를 감추었으며, 해방 후에는 근대화 바람과 함께 낡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서 인식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위기의 국면에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되어 우리의 고유한 향토민속을 발굴해 내고 재현해 온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전통민속예술축제로서 이 대회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첫째는 이 대회를 통해서 전통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재현해 냄으로써 조상의 얼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재인식케 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해 왔다는 것이다. 제33회를 맞이해 오는 동안 총 295개 종목을 발굴해냈으며, 그 가운데 '광산고싸움놀이', '안동차전놀이' 등 34종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동래학춤', '정선아리랑'등 20종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즉 매해 평균적으로 9개 종목을 새로이 발굴해 내었고, 그 가운데 평균 1종목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였던 셈이다. 〈표 1〉은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통해서 발굴된 민속예술 종목의 지역별 분포를 보인 것인데, 서울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종목수인 39종이 발굴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체로 20~30종의 새로운 종목들이 고르게 발굴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향토민속예술의 발굴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표 1〉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통해서 발굴된 민속예술 종목의 지역별 분포

남한지역	발굴종목수	북한지역	발굴종목수
서울경기지역	40종	황해지역	11종
부산경남지역	30종	평남지역	10종
대구경북지역	29종	평북지역	12종
광주전남지역	30종	함남지역	3종
대전충남지역	23종	함북지역	9종
강원지역	26종		
충북지역	21종		
전북지역	28종		
제주지역	23종		
남한지역 계	250종	북한지역 계	45종
합계 : 295종			

이러한 활발한 민속예술 발굴활동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한 것은 이 대회가 이룩한 가장 커다란 성과이다. 이 만한 대회마저 없었더라면, 우리의 많은 전통문화유산들은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더구나 이렇게 어렵게 발굴해 낸 우리의 향토민속예술들이 충실히 보존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국가와 시도에서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각 보존단체에서 연구·보존 및 보급활동을 펴나가고 있어, 이 대회가 단순히 향토민속예술의 발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승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해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서 발굴된 '고싸움놀이', '강강술래', '농악', '바라춤' 등이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행사를 장식하여 세계인을 감동케 했던 것은 이 대회가 이룩한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실로 이 대회를 통하여 이렇듯 우수한 우리의 민속예술이 보존되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세계인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민속예술을 통하여 세계인들을 감동시켰다는 사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재인식케 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켰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은 근대화 과정 속에서 서구화가 바로 근대화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무조건적으로 서양의 것만을 추구해 왔던 한 때의 오류를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 대회가 의미를 갖는 것은 북한지역에서 이미 그 전승이 단절된 민속예술들을 꾸준히 발굴·보존해 왔다는 것이다. 해방 직후까지 북한지역에 전승되어 오던 봉산탈춤,

강령탈춤, 은률탈춤 등 민속극은 1960년대말부터 현지에서의 전승이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굿놀이는 분단이후 완전히 그 전승이 단절되어 있다. 다만 민속놀이와 민요만이 그런대로 전승되어 오고 있을 뿐인데, 그나마 1970년대 이후 김일성 우상화의 도구화되어 민속예술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변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날 북한지역에서는 민속예술의 전승이 단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통하여 북한지역에서 전승이 단절된 민속예술이 월남한 이북 실향민들에 의해서 발굴되고 재현되어 온 것은 이 대회가 이룩한 큰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회가 갖는 또다른 의의는 지역 주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방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왔다는 데 있다.

이 대회는 1961년부터 1966년까지 공연장과 재정상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에서 개최되어 왔으나, 1967년부터는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방침에 따라 지방 대도시에서 순회 개최되어 왔으며, 1983년부터는 지역간, 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문화혜택을 보다 폭넓게 향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연장소 등 여건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순회 개최되어 왔다. 이 대회가 지방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개최됨에따라, 이 대회는 대회 개최지역의 지방축제화 하였으며, 이러한 한마당 축제는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지방 대회장은 시골노인, 부녀자 등의 관람객으로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대회장 주변에는 옛날 난장을 방불케 하는 약장수, 노점상, 향토음식점이 생겨나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특히 제26회 대회를 즈음하여서는 경연위주의 운영을 탈피하여, 출연자와 관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시도하여 지방 주민들의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이 대회를 지방 문화제와 연계지워 개최함으로써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먼저 제주도에서 열린 제21회 대회에서는 제주도에서 해마다 열리는 한라문화제 행사와 함께 열리어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충주에서 열린 제25회 대회에서는 제14회 우륵문화제 행사를 함께 열었으며, 강릉에서 열린 제26회 대회에서는 제24회 대현 율곡선생제 행사를 함께 열었고, 여수에서 열린 제32회 대회에서는 제15회 여수예술제와 제1회 청소년예술제를 함께 열었으며, 구미에서 열린 제33회 대회에서는 '92 구미예술제와 함께 열였다. 이 대회가 이렇듯 지방 문화제와 연계되어 개최됨으로써 지방축제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기 마련이었다.

이 대회가 전국 각도를 순회하면서 개최되어 온 것은 도·농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방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서울을 비롯한 몇몇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불균형 발전의 형태는 도농간의 불균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농간의 불균형 발전은 비단 경제적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그러한 불균형은 확연하게 두드러져 왔다. 소위 대도시를 중심으로한 중심문화와 그러한 중심문화에서 제외된 주변문화가 병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문화행사들이 대체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대회는 비록 초기 몇해 동안에는 서울에서 개최되어 왔으나, 1967년부터는 지방 대도시로, 1983년부터는 지방중소도시로 그 개최지역이 확대되어 그야말로 전국 각도를 순회하면서 개최되어오고 있다. 더구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지방문화제와 연결되어 지방축제의 장을 형성해 오고 있다. 이러한 축제의 장의 마련은 지방문화의 발전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향수권에서 소외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대도시 중심의 문화권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방문화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1

제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58. 8. 13 ▶ 8. 18
육군체육회관 (장충단)

제 1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58. 8.13—8.18.
육군체육회관(장충단)

대통령상
하회별신굿놀이(경북)—민속극
국무총리상
봉산탈춤(황해)—민속극
문공부장관상
양주산대놀이(경기)—민속극
미수상 참가작
꼭두각시(서울)—민속극
줄타기(서울)—민속놀이
안성답교놀이(경기)—민속놀이
춘향전(전남)—민속놀이
풍년놀이(전남)—민속놀이
농악(전남)—농악
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농악(전북)—농악
쾌지나칭칭나네(경북)—민요
안동놋다리(경북)—민속놀이
모내기노래(경북)—민요
성덕왕신종(경북)—민속놀이
통영오광대(경남)—민속극
효자무(강원)—민속무용
정선아리랑(강원)—민요
성황신제(강원)—민속놀이
강릉무당춤(강원)—민속놀이
무당춤(평남)—민속놀이
민요놀이(제주)—민속놀이
말뛰기놀이(제주)—민속놀이
무당춤(제주)—민속놀이
농악(충남)—농악
은산별신굿(충남)—민속놀이
농악(경남)—농악
배뱅이굿(평북)—민속놀이
민요와 놀이(함북)—민요
공로상
노덕팔(서울)
장용기(경남)
박지용(경북)
김진옥(황해)
김성태(경기)
개인상
한애순(판소리)
농악상쇠(충북)
윤영준, 박후식(사자춤, 함남)
강오체(장고춤, 전남)
최남영(무당춤, 평남)

하회별신굿놀이

민속극

유래

하회별신굿놀이는 경북 안동군 풍천면 하회동에서 이 마을의 비동족 주민들이 놀았던 탈놀이이다. 이 탈놀이는 3년, 5년 혹은 10년마다 한번씩 음력 정초에서 대보름까지 행하던 별신굿 때 놀았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면극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회마을의 위치와 지형 그리고 주위의 문물들은 고대 삼한시대의 별읍을 연상시키고, 구신당 조직과 거기서 봉행되던 별신굿은 별읍의 제천의식과 흡사하여 '당방울'이 달린 서낭대는 그때의 소도(蘇塗)와 대목에 방불하다고 한다. 또한 마을 주위에 산재해 있는 고대문화의 흔적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허씨 터전에, 안씨 문전에 류씨 배판으로 하회마을은 행세해 왔다'는 이 지방의 향언에 근거하여 고려시대 절터와 즐비하게 밀집된 기와집으로 미루어 봐서 적어도 고려시대 때부터 허씨가 정주하고 그 뒤 안씨, 그리고 조선초기에는 류씨의 동족촌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마을에서는 하회탈의 제작자가 '허도령'으로 전하여 오는데 이 가면이 안씨나 류씨의 동족촌 시대의 제품이 아니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잃어버린 '별채'탈이 고려시대 송나라의 독우(督郵)제도를 모방한 세리(稅吏)였던 별차에 주격조사 'l'가 붙어 별채가 되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도 하회탈의 제작연대는 조선시대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이 하회별신굿놀이는 조선시대 철저했던 계급사회의 동족부락에서 양반이 아닌 각성받이 농민들에 의하여 전승된 것으로 192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것을, 그때 '각시'탈을 맡아 놀았던 이창희(1978 현재 67세)옹의 기억에 의하여 1978년에 비로소 정확히 복원된 것이다.

특색

이 놀이는 총 10마당으로 연희되는데 탈을 쓴 광대만이 노는 마당은 8마당이며 이 가운데에서도 '혼례'와 '신방'의 2마당은 일반 마을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이뤄지는 비의(秘儀)이다. 그리고 '강신'은 섣달 그믐날 서낭당에서 산주가 별신놀이를 하기 위한 '나림'을 받고 동사까지 내려 오는 농악행렬로 이때는 광대들이 가면을 쓰지 않았으니 마당으로 간주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의 '허청거리굿'은 광대가 참여하지 않는 무당과 유사들만의 굿으로 마을사람들이 함께 즐기던 하회별신굿놀이는 6마당이 된다.

이 6마당을 제외한 4마당을 원시종교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구성

(1) 강신
(2) 무동마당
(3) 주지마당
(4) 백정마당
(5) 할미마당
(6) 파계승마당
(7) 양반·선비마당
(8) 혼례마당
(9) 신방마당
(10) 허청거리굿

내용

(1) 강신

사실상 탈놀이라 할 수 없는 마당으로 섣달 그믐날 별신놀이를 하기 위하여 산주가 '성황님'의 나림을 받고 광대 모두 의관을 정제하고 농악을 치며 서낭대를 앞세우고 무동이 걸립을 하면서 동사 앞까지 내려온다.

(2) 무동마당

무동받이의 어깨 위에 올라선 '각시'가 오금춤을 춘다. 때때로 꽹과리를 받아서 걸립을 한다.

(3) 주지마당

삼베푸대와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꿩털이 하려하게 꽂힌 주지탈을 머리위로 든 한쌍의 주지가 서로 싸우는 형태로 춤을 춘다. 일명 '꿩싸움'이라고도 한다.

(4) 백정마당

백정이 나와서 춤을 추다가 소를 잡는다. 염통과 우랑을 사라 하며 양반들을 조롱하고 야유한다.

(5) 할미마당

할미가 베를 짜며 가사조의 베틀가로 신세타령을 하다가 이가 빠지고 살림을 못산다고 쪽박을 차고 쫓겨 난다.

(6) 파계승마당

유랑하던 중이 길거리에서 '부네'의 오줌누는 것을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하고 파계한다. 초랭이와 이매는 "중놈이 놀아나는 세상 우리도 실컷 춤이나 추자"면서 익살스런 춤을 춘다.

(7) 양반·선비마당

양반과 선비가 부채와 모산대로 얼굴을 반만 가리고 등장하여 부네를 둘러싸고 서로 지체와 학식을 뽐낸다. 결국 선비의 승리로 화해하고 춤을 춘다.


하회 별신굿놀이 (경북)

이때 백정이 등장하여 소의 '우랑'을 팔러 다닌다.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꺼렸으나 양기에 좋다는 말에 서로 "내 불알"이라고 다투다가 떨어뜨린다. 할미가 나와 "소불알 하나가지고… 서로 내 불알이라니 세상에…"하면서 익살을 부리다가 서로 어울려 춤을 춘다.

한창 신나게 놀 때 '이매'가 등장하여 '환재(還子)' 바치라고 외치면 뿔뿔이 흩어진다.

(8) 혼례마당

별신굿놀이의 마지막날 밤 촌민과 광대들도 다 돌아간 뒤 동사 앞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양반의 홀기로 '각시'가 신랑과 혼례를 치른다.

(9) 신방마당

홀기를 부르던 양반도 떠나고 각시와 신랑역을 맡은 광대와의 사이에 꾸며지는 모의성교이다. 이것은 '15세 처자 서낭님'(혹은 과부)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며 '각시'는 서낭의 대역으로 믿어진다.

이 마당은 어둠 속에서 행해진 비의이며 일체 밖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10) 허청거리굿

별신굿이 모두 끝나고 난 뒤, 참여했던 무당들과 유사들이 주재하는 굿이다. 광대는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

놀이기구

1965년 국보 제121호로 지정된 부네, 중, 백정, 선비, 각시, 이매, 초랭이, 양반, 할미의 탈과 주지탈이 사용된다. 기타 꽹과리 등 농악에 필요한 농악기와 의상이 필요하다.

꼭두각시놀음

민속극

유래

꼭두각시놀음은 굿중패 혹은 남사당패라 불리는 직업적인 유랑 연예인들에 의해 전승된 전통적인 인형극이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삼국시대에 중국을 거쳐 수입되어 영향을 받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의 얘기로는 꼭두각시가 농경의식의 하나인 농악굿놀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 어쨌든 외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한가지 사실은 현재 남아 있는 꼭두각시놀음의 내용으로보아 조선시대 후기에 비로소 오늘날처럼 비교적 격식을 갖춘 인형극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삼국시대에 목우희(木偶戱)가 있었음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며 고려에 와서는 서역 및 중국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있음이 보인다. 권문해의 '대동운부군옥'(1588)에 보면 고구려조에 '각목작부인상'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나무를 새겨 부인을 만들다'는뜻으로 오늘날의 꼭두각시놀음의 각시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비슷한 시기에 이수광의 '지봉유설'(1618)에는 고려조에 인형놀이가 있었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이것이 비록 독립된 인형극과 관련된 최고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이로서 그 이전인 삼국시대 또는 그보다 전대까지로 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형태의 발전과정이란 부단히 변화하는 생활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색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부장적 봉건가족제도를 극복·비판하고 있다.

(2) 이시미를 통해 민중의 끈질긴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

(3) 봉건적 지배층을 매도함에 있어 벌거벗은 홍동지를 등장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우스개거리'를 보여 역공세를 상쇄시키고 있다.

(4) 마지막거리에서 절을 짓고 축원을 하며 불교에의 귀의를 뜻하지만 다시 헐어낸다. 이는 불교에서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외래종교에 대한 민중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구성

두마당 일곱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1) 박첨지 마당

①박첨지 유람거리

②피조리거리

③꼭두각시거리

④이시미거리

(2) 평안감사 마당

①매사냥거리

②상여거리

③절짓고 허는 거리

내용

(1) 박첨지 마당

①박첨지 유람거리

박첨지가 8도강산을 유람하던 중 꼭두각시 놀이판에 끼어들어 구경한 얘기를 산받이와 나누며 유람가를 부른다.

②피조리거리

박첨지의 딸과 며느리가 뒷절 상좌중과 놀아나다가 갑자기 나타난 홍동지에게 쫓겨난다. 홍동지도 퇴장하고 뒤이어 나타난 박첨지는 그런 사정을 듣고 홍동지를 혼내준다며 퇴장한다.

③꼭두각시거리

박첨지가 산받이에게 자기 큰마누라인 꼭두각시의 행방을 묻다가 꼭두각시와 만나게 된다. 꼭두각시는 보괄타령(영감타령)을 주고 받으며 지난 일을 묻는다. 박첨지가 그동안 혼자 살기 힘들어 작은 마누라(덜머리집)를 얻었다며 상면시키는데 두 여자는 만나자 마자 싸움판을 벌인다.

박첨지는 싸움을 말린 후 살림을 나눠주는데 덜머리집에게만 후하게 주고 꼭두각시집을 푸대접하자 꼭두각시는 금강산에 들어가 중이나 되겠다며 퇴장한다. 박첨지는 잘 됐다며 덜머리집을 얼싸안고 퇴장했다가 다시 나와 꼭두각시를 찾으며 서럽게 운다. 산받이가 왜 우느냐고 물으니 너무 시원해서 운다며 익살을 떤다.

④이시미거리

박첨지는 청노새(곡식을 축내는 해로운 새)의 등장을 알린다. 그러자 이시미가 나타나 청노새를 비롯하여 등장인물들을 잡아먹고 겁없이 곁에 다가간 박첨지마저 물어버린다. 이때 홍동지가 등장하여 이시미를 때려 잡고 이시미 껍질을 팔아 옷 해 입는다며 퇴장하자 박첨지는 이시미를 잡은 것은 자기라며 홍동지를 찾아 퇴장한다.

(2) 평양감사 마당

①매사냥거리

박첨지가 나와서 평안감사의 출동을 알리며 퇴장한다. 평안감사가 나타나 홍동지를 몰이꾼으로 하여 매사냥을 한다. 꿩을 잡은 평안감사가 박첨지에게 꿩을 팔아오라며 떠난다.

②상여거리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평안감사는 봉변을 당하여 죽

고 이어 상여가 등장한다. 박첨지는 평안감사의 상여 앞에서 거짓울음으로 익살을 부리고 상여꾼들이 길이 험해 모두 다치자 홍동지가 벌거벗고 나와 상주에게 온갖 모욕을 주며 상여를 메고 나간다.

③절짓고 허는 거리

박첨지가 다시 나와 이제는 아무 걱정 없다며 명당에 절을 짓겠다고 하자 상좌 둘이 나와 조립식 법당을 한 채 짓고 다시 그것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들어간다.

놀이기구

인형 19종류, 소도구 7종류, 동물 4종류 등

줄타기

민속놀이

줄꾼이나 줄광대가 줄 위를 걸어다니면서 여러가지 재주를 보여주는 놀이의 하나이다. 고환·무환·환희·주삭·승기·희승·새연삭·답삭회·답삭이라고도 한다.

광대줄타기와 어름줄타기는 그 관객층이 달랐기 때문에 놀이판·놀이시간·놀이방법 등도 각기 달라졌다. 광대줄타기의 줄판은 궁궐 또는 관아나 양반들의 큰 집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울안 마당에 차려진다. 대개 낮에 놀며, 보통 4~5시간이 걸린다. 그 도중에 줄광대(줄꾼)가 쉬는 막간에는 어릿광대가 나와서 논다. 반면에, 어름줄타기의 줄판은 민간 마을의 넓은 마당에 차려지며, 밤에 시작해서 밤새 논다. 따라서, 놀이판에는 장작불이나 횃불을 밝힌다. 어름줄은 남사당패의 여러가지 놀이인 풍물(농악), 버나(사발돌리기), 살판(땅재주), 어름·덧뵈기(탈놀음), 덜미(꼭두각시놀음)중의 네번째 놀이로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다. 줄판에 설치하는 줄은 삼껍질로 꼰 지름 3㎝ 정도의 녹밧줄(동아줄)을 쓰는데 광대줄은 높이가 3m에 약간 못미치나 길이는 10m 정도이고 어름줄은 높이 3m에 길이가 5, 6m이다. 그리고 광대줄을 놀 때에는 잽이로 삼현육각이 동원되며, 어름에는 꽹과리·징·북·장고·날라리가 동원된다. 모든 준비가 되면 어느 줄타기나 줄타기에 앞서 줄고사를 지낸다. 광대줄은 주과포를 진설하나 어름은 대개 술과 북어 몇 마리를 올려놓는다.

줄고사의 고사문은 줄광대나 어름산이(어름 타는 줄꾼)가 읊는데, 그 내용은 돌아가신 스승·선배 또는 줄할머니·줄할아버지에게 사고 없이 줄을 타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다. 줄고사가 끝나면 연희자들은 배례하고 나서 올렸던 술을 양쪽 줄기둥과 줄에 붓고 줄의 동쪽에서 오르기 시작한다. 광대줄의 연희자로는 줄광대와 아울러 배우씨(어릿광대)가 있는데, 그는 줄광대가 줄을 탈 때에 땅 위에 서서 같이 뛰놀며 익살을 부린다. 반면에, 어름의 연희자로는 주로 여자인 어름산이와 아울러 매호씨(반주자)가 있는데, 그는 앉아서 장구를 쳐주며 어름산이와 재담을 주고받는다. 줄광대와 어름산이가 줄타기를 할 때에는 단순히 줄만 타는 것이 아니라 재담과 노래까지 곁들임으로써 줄판을 더욱 재미있게 만든다. 광대줄에서는 이와같이 제대로 된 줄타기를 '판줄'이라고 하며, 그러한 줄광대를 '판줄광대'라고 한다. 그런데 재담의 소재는 주로 파계승과 타락한 양반의 풍자, 그리고 여러 계층 사람들의 걸음걸이나 앉는 모습 등을 흉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담 사이에 부르는 줄타기 노래로는 '중타령', '왈자타령', '새타령' 등이 있는데, 보통 민요보다 세련되어 있다. 물론 두 계통의 줄타기는 부분적으로 상당한 변이를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줄타는 기교는 광대줄타기가 그 기술의 종류로나 솜씨에서 뛰어나며, 반면에 재담이나 오락성은 어름줄타기가 더욱 발달하였다고 평가된다.

전남농악

농악

전라남도 농악은 전라북도 농악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북도의 남원과 남도의 곡성, 그리고 북도의 고창과 남도의 영광은 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봐서 이 점을 알 수 있다. 구례, 곡성 등지 동북지방에서는 전라북도 좌도농악과 같고 영광, 나주, 화순, 보

농악 (전남)



성등 서부지방에서는 전라북도의 우도농악과 같다. 다시 말해서 전라남도는 대부분 우도농악의 특징을 갖는데 같은 전라남도지만 영광, 함평, 영암, 해남, 광주, 화순, 보성, 고흥 등 지방마다 약간 다른 특징이 있다.

전북농악

농악

전라도 농악은 남북의 특징보다 동서지역의 특징이 달라서 흔히 동부지방 농악을 좌도농악, 서부지방 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부른다.

우도농악은 쇠잽이가 상모를 쓰고 쇠잽이를 제외한 전원이 고깔을 쓰는데 좌도농악은 모든 악수가 상모를 쓴다. 우도농악의 쇠잽이는 뱃상모를 쓰는데 좌도농악의 쇠잽이는 부들상모를 쓰고 소고수는 채상을 쓴다. 우도농악은 구성진 쇠가락과 춤사위가 발달했고 좌도농악은 빠른 쇠가락과 곡예적인 기예가 발달했다. 우도농악의 악수는 홍동지기라는 붉은 옷을 입는데 좌도농악의 악수는 흰 바지 저고리에 색띠를 맨다. 좌도농악이 경기·충청·경상도 농악의 특성이 많은 것으로 보아 우도농악이 보다 전라도 농악으로서 특성을 갖는다고 보아진다.

전북농악은 좌우도에 따라 의상이 다르나 편성은 비슷하다. 전북농악에 쓰이는 농기는 꽹과리, 징, 장고, 북(큰북), 소고(법고), 새납(태평소), 나팔 등이다. 전북농악의 편성은 영기, 농기, 나팔, 새납, 꽹과리(상쇠, 부쇠, 종쇠), 징, 장고, 북, 소고, 대포수, 창부, 조리중, 우동, 양반, 할미광대 등으로 되어 있다.

우도농악의 악수는 흰 바지에 '홍동지기'라는 저고리를 걸치고, 발에는 '감발'을 하고, 짚신을 신으며 다리에는 '테데님'을 맨다. 머리에는 '머리수건'과 '청목수건'을 쓰고 그 위에 상모 혹은 고깔을 썼다. 등에는 '일광' '월광' '색수건'등을 달았다. 좌도농악의 악수는 흰 바지 저고리에 감발을 하고 짚신을 신으며 다리에 테데님을 매고 머리에는 머리수건과 청목수건을 쓰고 상모를 썼다. 허리와 어깨에는 청홍황색의 색띠를 띠었다.

우도농악의 판굿에는 우질굿, 좌질굿, 을자진, 오방진, 쌍방울진, 호호굿, 달어치기, 미지기, 짝두름, 일광놀이, 영산 다드래기, 개인놀이, 잡색놀이, 소리굿, 도둑잽이굿, 불넘기굿, 탈복굿 등이 있다. 좌도농악의 판굿에는 앞굿(채굿), 좌우각진, 미지기, 잡색놀이, 영산 소리굿, 호호굿, 개인놀이, 허치자굿, 풍류굿 등이 있다.

전북농악의 음악적 특징은 정색을 중심으로 하는 우도농악에 쓰이는 쇠가락은 외마치질굿, 덩덕궁이, 두마치, 세산조시, 느린 삼채, 오채 질굿과 같은 것이 흔히 쓰이고 이 밖에도 허허굿 풍장가락같은 독특한 가락도 있다. 전주, 남원, 곡성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좌도농악에 쓰는 쇠가락은 우도농악과 비슷하나 우도농악에서 쓰는 오채질굿이 없고, 그대신 채굿이라는 일채에서 칠채까지의 가락이 있다. 우도농악의 가락은 느린 가락 특히 외마치 질굿이나 덩덕궁이를 부드럽게 치며 여러가지 변화를 주어 다채롭게 변주하는 리듬적 기교를 부린다. 좌도농악의 가락은 빠른 가락을 힘있게 몰아 가는 점이 경상도 농악과 닮은 데가 있다.

통영오광대

민속극

유래

통영오광대 놀이가 시작된 시기와 유래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문헌이 없어 자세한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몇 가지의 구전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16세기 말엽, 통영에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된 이후 궁중의 나례와 맞먹는 벽사행사로 매구치기를 하였는데 이 행사에는 이속이나 관노들의 탈놀음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역사적 지역적 바탕에다 19세기 말엽 통영사람들이 마산오광대의 영향을 받아 짜임새있는 민중의 탈놀음인 통영오광대를 정착시켰다고 볼 수 있다.

통영오광대는 처음에 의흥계에 의하여 유지되었고, 그 다음 난사계 노인파들이 놀았으며 50여년 전 중년파로서 춘흥계가 시작되어 난사계의 오광대를 계승하여 오늘에 전하고 있다.

특색

통영오광대의 대사는 일상회화보다 약간 느리고 재치와 풍자가 많은 대화가 낭송조에 가깝다. 통영오광대는 다른 오광대보다 대화가 많고 날카로우면서 직설적이고 합리적인 면이 보이는데 이런 경향은 후대의 변화로 짐작된다.

과장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오광대에 들어있는 벽사의식무인 오방신장무가 빠져 있고, 파계승에 대한 풍자가 약화되어 양반풍자 과장에 통합되는 등

과장수가 줄었고 이름도 많이 틀린 점이 주목된다.

구성

통영오광대는 다음의 다섯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과장 : 문둥이탈
제 2 과장 : 풍자탈
제 3 과장 : 영노탈
제 4 과장 : 농창탈
제 5 과장 : 포수탈

내용

각 과장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둥이탈(제 1 과장)

일명 '벅구탈'이라고도 한다.

법고와 소고채를 들고 얼굴을 가린채 느린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등장한 문둥이가 한바탕 춤을추고 신세타령을 한다. 통영오광대의 문둥이탈 과장은 다른 오광대처럼 문둥이의 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양반이 선대에 죄를 지어서 문둥이가 되었다며 양반 풍자적인 가미된 점이 특이하다.

(2) 풍자탈(제 2 과장)

원양반, 둘째양반, 홍백탈, 먹탈, 손님탈, 비뚜루미, 조리중, 말뚝이 순으로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등장한다. 양반들이 말뚝이를 불러 인사를 받으려 하자 오히려 말뚝이가 반발한다. 그러자 양반들은 한번 호통을 치고 팔선녀와 호색적인 춤을 춘다.

말뚝이는 자기한테 모욕당한 양반이 호통을 치자 양반의 근본을 폭로한다. 말뚝이는 양반들을 근본이 없는 가짜 양반이라 비판하고 자기야말로 대대손손 명문거족이라고 말하여 양반의 굴복을 받은 다음 용서해 준다.

(3) 영노탈(제 3 과장)

영노가 호드기를 불어 '비비'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며 나오고 이어서 비비양반이 등장한다.

영노가 양반에게 양반들의 행실이 나빠서 양반들을 잡아먹으려 왔는데 아흔아홉을 잡아먹고 이제 한명을 더 잡아먹고 백을 채우면 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며 양반을 잡아 먹으려 한다. 양반은 자기는 양반이 아니라며 도포를 벗겠다고 한다. 그래도 영노가 잡아먹으려 하자 양반은 다급하여 있는 것을 다 주겠다며 개구리, 뱀, 올챙이 등을 먹을 줄 아느냐고 물으니 영노는 다 먹을 줄 안다며 그래도 기어이 양반을 잡아 먹겠다고 위협한다. 양반은 영노에게 달려들어 서로 대결하다가 영노에게 쫓겨 들어간다.

이 과장은 양반의 교활성과 비굴성을 잘 풍자하고 있다.

(4) 농창탈(제 4 과장)

이 과장은 다른 오광대에서의 할미·영감과장에 해당한다. 근래에는 이 과장의 서두에 상좌와 첩의 춤을 두어서 중춤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이 겹친 구성으로 전승되고 있다.

할미양반(영감)과 제자각시가 굿거리장단에 춤을 추며 나와서 사랑가를 부르며 어울린다. 세월이 흘러 제자각시에게 산기가 있자 할미양반은 준비물을 사러 간다. 그 사이에 제자각시가 이웃 오입장이들을 불러들여 아리랑을 부르며 한바탕 춤을 추고 어울린다. 할미양반은 이를 목격하도 다툰다.

한편 할미는 집떠난 영감을 찾아 떠돌다가 할미양반과 상봉한다. 때마침 제자각시에게 산기가 있어 봉사를 불러 경을 읽자 옥동자를 낳는다. 할미가 애를 어르자 제자각시가 시샘하여 애를 빼앗으며 할멈을 넘어뜨려 죽게 한다. 상여꾼이 나와서 상여소리를 하며 출상한다.

(5) 포수탈(제 5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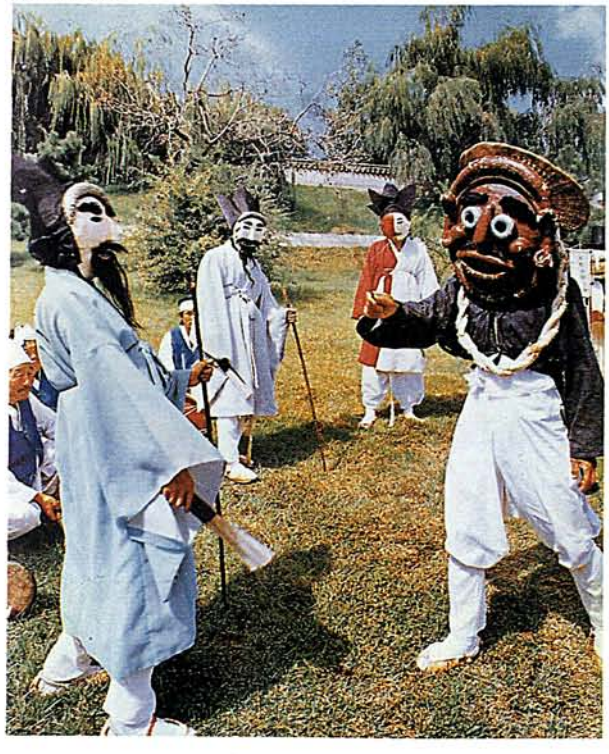
이 과장은 다른 오광대의 사자무 과장에 해당한다.

사자와 담보가 굿거리장단에 춤을 추며 등장하여 서로 싸우다가 사자가 담보를 잡아먹고 포수가 나타나서 총을 쏘아 사자를 쓰러뜨린다. 포수가 기뻐하며 춤을 추고 사자의 길이를 재어보고 퇴장한다.

놀이기구

(1) 탈 : 문둥탈, 양반탈 등 역할에 따른 24~25종의 탈.

통영오광대 (경남)



(2) 반주악기 : 반주음악에 쓰인 악기로는 원래 가야금, 거문고, 당비파, 북, 장구, 해금, 피리, 태평소 등 삼현육각을 썼다고 하는데 현재는 꽹과리, 장고, 북, 징, 피리, 젓대, 호적 등이 사용된다.

(3) 기타 죽장, 부채 등의 소도구들과 역할이 따른 의상이 필요하다.

말뛰기놀이

민속놀이

제주도 한림, 귀덕, 애월, 김녕 등지에는 옛날부터 풍신을 제사하는 연등행사가 있었다. 즉 2월에 들어 1일부터 15일 사이에 장대를 세우고 신을 즐겁게 하여 오신하였으니 이 때에 말머리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 장대위에 달아매고 비단으로 꾸미고 놀았으니 말뛰기 놀이이다.

이렇게 하면 연등을 제사한 것이 되어 바다에 나가도 재난을 당하는 일이 없고 또 각 가정에서도 초복제화할 수 있다고 전한다.

진주농악

농악

유래

진주농악은 삼천포농악과 함께 농악12채로 불린다. 농악에서 1채 2채 하는 것은 본래 쇠가락의 징의 점수를 가리키는 말인데 진주, 삼천포지방에서는 12채라는 말을 전용하여 굿의 순서를 12종으로 가르고 이것을 농악 12채라 하였다.

진주농악은 구경꾼에게 갖가지 농악을 보여주기 위하여 벌이는 일종의 판굿으로 기능보유자 황일백(1976년 작고)상쇠에 의해 다듬어 졌다.

특색

(1) 무용적 특색

치배들 전원이 전립을 쓰고 상모놀이를 하며 상모놀이에는 외상모, 양상모, 사사, 우물놀이 등이 있다.

법고놀이에 있어서 돌아앉기, 한발로 법고차기, 연풍대와 자반뛰기가 있으며 설장고놀이에 있어서 연기가 다양한 가락치기와 연풍대가 있다.

또한 달거리굿과 같은 노래굿이 있다.

(2) 음악적 특색

악기에 있어서 소고와 법고과 구분되지 않고 징과 북을 3~4개 쓰는, 경북농악과 호남농악의 중간형태이다.

쇠가락은 거의 3분의 3박자이며 혼합박자는 잘 쓰이지 않는다. 또한 품앗이 가락과 굿거리를 별로 쓰지 않고 덧배기와 다드래기, 호호딱딱을 쓴다.

진주농악은 빠른 가락이 많아 힘은 있으나 맺고 푸는 기교가 약하여 구성진 흥이 덜하다. 반면 가락이 다채로와 흥겨운 느낌을 준다.

구성

진주농악은 기수, 포수, 양반, 집사, 상쇠, 목쇠, 끝쇠, 수징, 목징, 설북, 목북, 설장고, 목장고, 끝장고, 수법고, 목법고, 삼법고, 끝법고 등으로 편성한다.

판굿에 앞서 당산제, 우물굿, 지신밟기를 하는데, 판굿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열림굿
(2) 길군악
(3) 오방진
(4) 진풀이굿
(5) 영산다드래기
(6) 3채굿
(7) 앉은법고놀이
(8) 호호굿
(9) 등맞이굿
(10) 품앗이굿
(11) 달거리굿
(12) 8진해무진굿

내용

(1) 열림굿

3채를 치면서 일렬로 늘어선 다음 덧배기가락을 치면서 둥글게 늘어서서 구경꾼을 향해 일제히 절을 한다.

(2) 길군악

왼편으로 원진하면서 길군악을 친다.

(3) 오방진

반3채 오방진가락을 치면서 오방에 차례로 진을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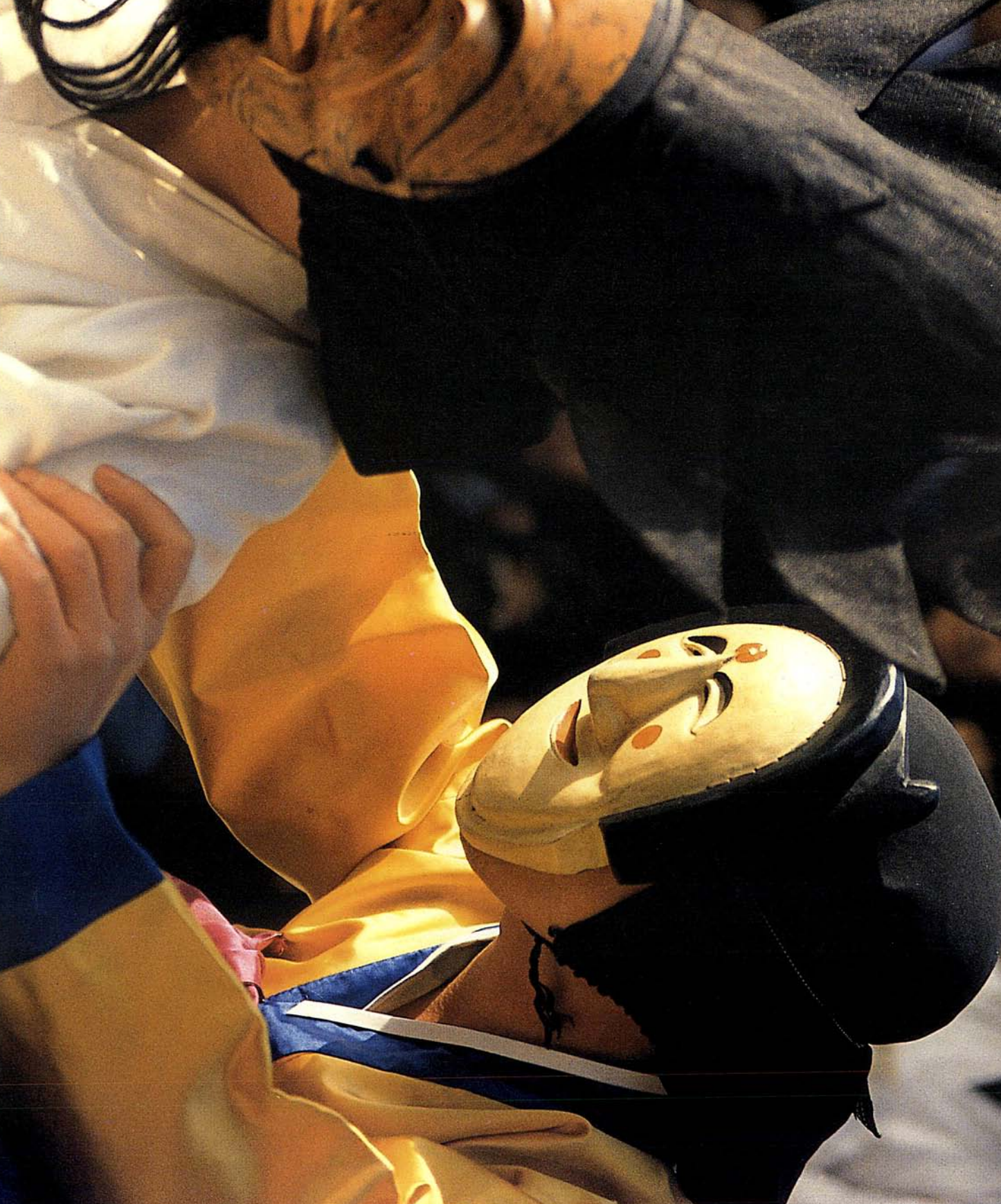
(4) 진풀이굿

길군악을 치며 오른편 왼편으로 번갈아 돌고 춤을 춘다. 끝에는 다드래기로 몰아가며 도는데 법고잡이들은 연풍대를 한다.

(5) 영산다드래기

'자부랑깽'하고 영산다드래기가락을 치면서 소고잡이들은 을(乙)자로 나가면서 소리를 친다.

(6) 3채굿



전원 3채굿을 치면서 연풍대로 돌다가 반3채굿으로 돌아가는데 장고와 북이 춤을 추면서 옆치기로 뛰어간다.

(7) 앉은법고놀이

꽹과리, 징, 장고, 북이 한줄, 소고잡이 한줄, 이렇게 두줄로 마주보고 나서 상쇠는 덧배기가락을 치면서 법고잡이 한사람씩을 따가지고 가운데로 나오면 법고잡이는 외상모, 양상모, 연풍대, 자반뒤지기 등 갖가지 법고놀음을 한다.

(8) 호호굿

왼편으로 원진하면서 상쇠가 호호굿가락을 친다. 상쇠가 '호호'하면 치배들은 악기를 '딱딱'친다. 10회 정도 반복한다.

(9) 등맞이굿

굿거리를 치고 느린 춤을 추다가 3채굿을 치고 퉁퉁가락을 치면서 상쇠와 부쇠가 쇠를 땅에 놓고 앉아서 서로 등을 맞대고 춤을 춘다.

(10) 품앗이굿

상쇠와 부쇠가 등을 맞대고 앉은 채 쇠를 들고 품앗이가락을 친다.

(11) 달거리굿

농악대원들이 빠른 가락으로 3채굿가락을 치면서 법고와 상쇠가 한바탕 놀고 둥글게 돌면서 노래굿을 한다.

(12) 8진해무진굿

굿거리, 덧배기, 3채굿을 치고 상쇠는 쇠를 끊어 "치배꾼들 들어보시오. 우리가 농악만 칠 게 아니라 별도 따고 임도 보고 허튼굿이나 해봅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치배들은 흩어져서 난장판이 된다. 상쇠가 다시 쇠를 끊고 "별따자 별따자 궁성 화성 별따자"하고 쇠를 한동안 친 다음 왼쪽으로 원진하다가 제자리에 서서 인사를 하고 마친다.

놀이기구

농악기(꽹과리, 북, 장고, 징, 법고, 쇄납 등)와 여러가지 의상이 필요하다.

배뱅이굿

민속놀이

한사람의 소리꾼이 장구 반주로 소리와 말과 몸짓을 섞어 배뱅이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공연하는 서도소리. 판소리와 공연방법이 비슷하나 판소리가 북반주로 남도육자배기토리가 주가 되는데 비하여 '배뱅이굿'은 장구 하나를 쓰는 것이나 바라, 파리, 젓대, 해금을 쓰기도 한다. 장단은 굿거리, 볶는타령, 막장단, 중모리(산염불장단) 등으로 되어있고 소리는 수심가토리가 주가되어 경토리 메나리토리도 쓰이는데, 양소운 '배뱅이굿'에는 육자배기토리가 끼어있다. '배뱅이굿'에는 '산염불', '자진염불', '서도무가'등의 서도민요도 있다.

문벌높은 집안의 귀한 무남독녀로 태어난 배뱅이는 태어날 때 어머니 꿈에서 비둘기 목을 비틀어 버렸다고 하여 이름을 배뱅이라 지었다. 귀엽고 곱게 잘 자랐으나 18세에 우연히 병을 얻어 죽었다. 배뱅이 부모가 딸의 혼령을 위로하는데 엉터리 박수무당이 교묘한 수단을 써서 거짓 넋풀이를 해주고 많은 재물을 얻어가진다는 내용이다. 한 사람의 창자가 등장하여 여러 사람의 역할을 도맡아 꾸며나가는 것이 특색이다. 각 과장별 내용을 보면 제1산천기도 제2 꿈이야기, 제3 배뱅이의 출생, 제4 배뱅이의 성장, 제5 배뱅이의 죽음, 제6 배뱅이 부모의 비통, 제7 배뱅이의 장사, 제8 배뱅이굿, 제9 이광옥의 회심, 제10 주막집, 제11 배뱅이의 마지막날 제12 귀로이다. 이의 12과장에서 총 19명의 배역을 박수무당 한 사람의 소리와 재담으로 연출해 내며 굿의 미신적 요소를 풍자적으로 꾸며 흥미를 자아낸다.

2

제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61. 9. 24 ▶ 9. 29
덕수궁

제 2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61. 9. 24-9. 29.
덕수궁

대통령상
봉산탈춤(황해도)-민속극
국무총리상
농악(전북)-농악
문공부장관상
오광대놀이(경남)-민속극
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서도가요(평남)-민요
무용(평북)-민속무용
창(평북)-민요
배뱅이굿(평북)-민속놀이
무용(충남)-민속무용
창(함남)-민요
하회가면극(경북)-민속극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양주산대놀이(경기)-민속극
농악(강원)-농악
농악(충북)-농악
농악(충남)-농악
창(전북)-민요
공로상
양주산대놀이(경기, 김성태)
농악(강원)
사자놀이(함남, 윤영준, 마후섭)
개인상
김덕수(설장고, 충남)
임광식(농악상쇠, 충북)
김오재(설장고, 전남)

봉산탈춤

민속극

유래

봉산탈춤은 세시풍속의 하나로 5월 단오날 저녁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계속된다. 탈춤을 단오에 노는 것은 조선조 말 이래의 일이고 전에는 4월 초파일에 등불놀이와 함께 놀았다고 한다.

황해도 전역에 분포한 해서탈춤의 대표격으로 알려진 봉산탈춤은 그 극본의 과장과 내용으로 미루어 산대도감 계통극의 한 분파임을 알 수 있다.

봉산탈춤의 중흥자는 약 200년전 봉산의 이속이었던 안초목이란 사람으로, 그가 전라도 어느 섬으로 유배되었다 돌아온 후 나무탈을 종이탈로 바꾸는 등 이 놀이를 많이 변화시켰다고 한다.

남쪽으로 중부의 산대놀이 지역과 연결되어 타지방 탈놀이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가며 개량되어 온 것으로 믿어지는 이 봉산탈춤은 벽사의식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종교적 요소보다 오락적 요소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특색

봉산탈춤의 대사는 어느 가면극보다도 한시의 구절을 많이 인용하였고 또 그 시문을 풍자적으로 개작한 것이 많다. 춤은 중부지방에 남아있는 양주별산대놀이 춤이나 긴 장삼소매를 고개너머로 휘두르는 느린 사위의 해서형탈춤의 장삼형춤에 비해 동작이 활발하며 휘어잡고 뿌리거나 한삼을 경쾌하게 뿌리면서 두 팔을 빠른 사위로 굽혔다 폈다 하는 깨끼춤이 기본이 된다.

춤사위는 양주별산대놀이처럼 자세하지는 않지만 팔목이춤의 외사위·곱(겹)사위·양사위·만사위·취발이의 깨끼춤·말뚝이의 두어춤(양반들을 돼지우리에 몰아넣는다 하여 붙인 이름)미얄의 궁둥이춤·까치걸음·팔목중의 뭇동춤 등의 사위 명칭이 있다.

가면의 형태는 보다 사실적인 양주별산대 가면에 비하여 비사실적인 귀면형(鬼面型)으로 요철 굴곡이 심하여(특히 팔목중탈) 목탈이라고 한다.

구성

악기편성은 피리·젓대·북·장구·해금 등 이른바 삼현육각으로 이루어져 연주되며 염불·타령·굿거리 곡에 맞추어 추는 춤이 주가 되어 몸짓·동작·재담·노래 따위가 따르는 가면무극으로 가무적 부분과 연극적 부분으로 크게 나눌수 있다.

연희의 구성은 다음 일곱과장으로 이루어진다.

(1) 사상좌춤
(2) 팔목중춤
(3) 사당춤
(4) 노장춤(파계승놀이, 신장수춤, 취발이춤)
(5) 사자춤
(6) 양반춤
(7) 미얄춤

내용

(1) 사상좌춤

상좌 넷이 등장하는데 모두 흰 장삼을 입고 붉은 가사를 매고 고깔을 썼다. 상좌들은 잽이들이 연주하는 영산회상곡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 도드리곡으로 바뀌면 두 사람씩 동서로 달라서서 대무한다. 다시 타령곡으로 바뀌면 첫째 목중이 등장하여 쓰러지고 상좌들은 계속 타령곡으로 춤추며 퇴장한다.

(2) 팔목중춤

쓰러진 첫째 목중이 일어서려다가 쓰러지기를 몇번 계속하다가 천천히 일어나 타령곡에 맞추어 깨끼춤을 추면서 탈판을 휘돈다. 둘째 목중이 달음질로 등장하여 첫째 목중의 얼굴을 한삼자락으로 치면 첫째 목중은 힐끗 돌아보며 퇴장한다. 둘째 목중이 타령곡을 청하여 춤을 추다가 대사를 외우고 다시 춤을 한참 출 때 셋째 목중이 등장하여 얼굴을 치면 놀라서 퇴장한다. 이렇게 여덟째 목중까지 차례로 등장하여 각각의 대사를 외우며 춤을 추고 나면 여덟째 목중이 나머지 목중들을 불러들여 일제히 장단에 맞추어 뭇동춤을 추면서 놀이판을 한바퀴 돌고 퇴장한다.

(3) 사당춤

사당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거사에게 업혀서(혹은 남여를 타고) 등장하면 거사들이 장구·북·소고를 치면서 뒤따라 들어와 사당과 함께 어울려 가면을 위로 제껴쓰고 놀량사거리를 합창하며 논다.

(4) 노장춤

①제 1 경/파계승놀이 : 목중들이 노장을 모시고 나와 노장을 희롱하며 놀다가 퇴장하면 소무가 남여를 타고 등장한다. 소무가 도드리곡에 맞추어 춤을 추면 생불이라는 칭송을 받던 노장이 소무의 요염한 교태와 능란한 유혹에 빠져 파계하는 과정을 춤과 무언극으로 표현한다.

②제 2 경/신장수놀이 : 노장과 소무가 한창 맞춤을 추고 있을때 신장수와 원숭이가 등장하여 이야기를 엮어나간다.

③제 3 경/취발이놀이 : 취발이가 등장하여, 내기를 하여 소무를 뺏기로 작정하고 노장과 춤을 겨루지만 이기지 못하자 끝내 노장을 때려서 내쫓고 소무를 돈으로 달래 사랑춤을 추고, 소무는 취발이의 아이를 낳는다.

(5) 사자춤

목중 하나가 마부가 되어 사자를 따라 나온다. 놀아난 목중들에게 벌주러 나온 사자에게 용서를 빌고 굿거리곡과 타령곡에 맞춰 사자와 함께 춤을 추다가 퇴장한다.

(6) 양반춤

말뚝이가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한다. 말뚝이는 교묘한 말로 양반을 조롱하고 함께 굿거리장단으로 춤을 추다가 돼지우리에 몰아넣는다. 말뚝이가 나랏돈 잘라먹은 취발이를 잡아오지만 결국 돈을 받고 풀어준다. 양반의 무능과 부패가 폭로되고 조롱당하는 장면이다.

(7) 미얄춤

미얄할멈은 난리통에 헤어졌던 영감을 만나 정회를 푼다. 그러나 영감에게는 돌머리집이란 첩이 있어, 미얄은 살림을 가르자며 소첩과 싸우다가 영감의 실수로 맞아 죽는다. 남강노인이 미얄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무당을 불러 지노귀굿을 해준다.

놀이기구

(1) 탈은 상좌탈 4개, 목중탈 8개, 거사탈 6개, 사당·노장·신장수·소무·취발이·원숭이·맏양반·둘째양반·셋째양반·말뚝이·영감·돌머리집·미얄·남강노인이 있어 보통 26개가 사용된다.
(2) 반주를 위한 삼현육각
(3) 기타 필요한 의상

봉산탈춤 (황해도)





봉산탈춤

3

제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62. 9. 11 ▶ 9. 13
덕수궁, 경복궁

제 3 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62. 9. 11–9. 13.
덕수궁, 경복궁

대통령상
종합우승(경북)
국무총리상
농악(경기)–농악
문공부장관상
봉산탈춤(황해)–민속극
민요부(경북)–민요
다리굿(평남)–민속놀이
장려상
하회가면극(경북)
사자놀이(함남)
미수상 참가작
농악(전남)–농악
농악(충남)–농악
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농악(강원)–농악
민요(전남)–민요
농악(충북)–농악
쾌지나칭칭(경북)–민요
안동놋다리(경북)–민속놀이
상주모내기(경북)–민요
방아타령(경북)–민요
보리타작(경북)–민요
신방가정(경북)–민속놀이
오광대놀이(경남)–민속극
개인상
최다구(농악, 경북)
장재붕(오광대, 경남)
마후섭(사자놀이, 함남)

경기농악

농악

유래

경기농악은 아랫다리가락인 삼남지방 농악에 대하여 스스로 윗다리가락이라 부른다. 경기농악은 안성, 화성, 이천 등지의 남부농악과 광주, 양주, 김포, 강화 등 북부농악이 있는데 이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지방에는 옛부터 걸립패의 걸립굿, 두레패의 두레굿이 성하였으며 특히 안성을 중심으로 남사당패의 농악이 성행했던 곳이기도 하다.

안성농악은 옛 남사당패 연희자들이 안성과 그 부근 지역의 남사당패, 걸립패의 연희자들을 모아서 서울공연을 갖고 이들의 꼭두각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경기농악의 대표격으로 자리잡게 된다.

특색

경기농악에 쓰이는 쇠가락은 길군악칠채, 굿거리, 삼채굿, 자진가락, 덩덕궁이, 마당일채, 동리삼채, 쩍쩍이가락, 취군가락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길군악칠채는 경기, 충청, 강원도 서부에만 쓰이는 가락이다. 경기농악에서 쓰이는 각 가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길군악칠채

경기 남부지방에서 주로 쓰이는 쇠가락으로 행진하는 동안 친다. 또한 징을 7점 친다 하여 칠채라고 부른다. 3분박과 2분박이 혼합된 까다로운 혼합박자이다.

(2) 굿거리

전라도 외마치 질굿과 같은 것으로 3분박, 좀 느린 4박자(8분의 12박자)로 외마치 질굿보다 조금 빠르게 친다. 그리고 징은 4점을 치는 것이 다르다.

(3) 자진가락

전라도 농악의 세산조시와 같으나 징을 2점 친다.

(4) 덩덕궁이, 삼채굿, 동리삼채

전라도 덩덕궁이, 삼채굿과 같다. 동리삼채는 무동놀이에 쓰이는 구성진 삼채굿이다.

경기농악은 전라도농악에 비하여 잡색이 적고 무동이 많은 점이 구성상 특징이다.

구성

(1) 농악대 편성

영기, 농기, 날라리, 꽹과리, 징, 장고, 북, 법고, 무동, 새미, 탈광대로 편성된다.

무동, 새미, 탈광대는 악기를 치지 않고 춤을 춘다.

(2) 판굿의 구성

경기농악의 판굿은 다음과 같이 모두 17단계로 구성된다.

①인사굿
②돌림법고
③소리굿
④겹돌림법고
⑤당산벌림
⑥양상치기
⑦허튼양상치기
⑧당산돌림법고
⑨오방진
⑩무동놀이
⑪쌍줄백이
⑫사통백이
⑬가세벌림
⑭좌우치기
⑮네줄백이
⑯밀치기법고
⑰개인놀이

내용

경기농악의 판굿은 인사굿에서부터 시작된다. 길놀이를 마치고 굿판에 들어선 악수들은 원을 그리고 나서 밖을 향하여 인사를 하고 뱅글뱅글 전원이 돌면서 '돌림법고'를 한다.

이어 소리굿을 하는데, 선소리꾼이 가운데 들어가서 농부가의 앞소리를 메기면 전원이 김매는 시늉을 하면서 '어이 어이 어이 여루 상사뒤여' 하고 일제히 뒷소리를 받는다. 이것은 농경생활을 굿 속에 재연한 것으로 보인다.

소리굿에 이어 법고잽이들의 춤판이 벌어지는데, 겹돌림법고나 양상치기 등이 그것이다.

기수와 쇄납을 제외하고 전원이 한줄로 서서 칠채가락을 치며 나사 모양으로 감았다 풀었다 하는 것을 진을 짠다고 하는데 동, 서, 남, 북 그리고 중앙의 다섯 군데에 차례로 편을 짜면 '오방진'이 된다. 이는 외적의 침입으로 부터 마을을 지키는 방위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오방진에 이어서 무동놀이가 펼쳐지고 쌍줄백이, 사통백이, 가세벌림, 좌우치기, 네줄백이, 밀치기법고 등의 여러가지 대형으로 판굿을 진행한다.

또한, 집단놀이와 별도로 농악수 한명씩 나와서 하는 개인놀이가 있다. 전원이 ㄷ자형으로 늘어선 가운데 상쇠놀이, 징놀이, 북놀이, 장고놀이, 법고놀이, 무동놀이, 호적 시나위 불기, 열두발상모놀이 등을 하면서 굿판을 끝맺게 된다.

놀이기구

영기, 농기, 날라리, 꽹과리, 징, 장고, 법고, 북, 기타 복색 등.

평양다리굿

민속놀이

무속종교의 역사는 분명치 않지만 단군시대 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측되며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중국을 통해서 지배계층에 의해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무당굿의 종류는 크게 수용포수망굿, 평안도 다리굿, 전라도 씻김굿, 제주도 무흔굿, 함경도 망묵굿 등이 이어져 내려왔으며 평안도의 강신무들에 의해 이어져온 다리굿은 평안도 지역의 대표적인 굿으로서 당울림을 시작으로 14가지가 있으나, 이번에 공연되는 다리굿은 당울림, 만세받이, 세경돌기, 다리발내리기, 넉두리 바라춤 등으로 그 내용은 당울림과 주당을 무리는데서 부터 시작하여 망자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사자를 모시고 다릿발에 망자를 올라앉게 한후 염불로 극락천도하는 과정까지를 연희하고 있다.

이 다리굿에서 무녀는 먼저 굿하는 장소, 시간, 목적, 사람 등을 아뢴후 각 신격들을 말로써 호명하여 오시기를 청한 후 춤을 춘다.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했다가 차츰 빨라지고 상하 높은 도물로까지 발전하는데 무당의 공수는 강신무굿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평안도 다리굿에서는 중간에 반복적으로 하는 흘림공수와 마지막에 하는 긴공수가 있다.

특히 평안도 다리굿은 망자 천도를 목적으로 하는 굿으로서 산사람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의례로서 뜻이 깊다.

쾌지나칭칭

민요

'쾌지나 칭칭 나네'는 영남지방 대처에서 해마다 음력 5월 25일 '줄다리기 대회'때에 놀이꾼들이 주로 많이 부르는 노래이다. 줄다리기 대회는 1938년 일제의 중국 침략전 이후 끊긴채 지금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었거니와 이번에 출연하는 이 민속놀이는 끊긴 민속놀음을 하나의 무대예술로서 재생시켜 본 것이다.

오늘날에는 전국적으로 널리 불리는 민요가 되었다.

'쾌지나칭칭'이라는 말은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 나오네'하고 일본 적장이 쳐들어옴을 예고하여 불렀던 것이 '쾌지나칭칭나네'하게 되었다는 설이 내려오고 있으나, 이것은 '강강술래'의 경우와 같이 억지로 지어 붙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경상도 민요 '월이 청청'과 같이 "달이 밝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느린 것과 빠른 것이 있는데, 느린 것은 중중모리장단에 맞고 빠른 것은 자진모리장단에 맞는다. 한 장단에 선소리꾼이 "하늘에는 별도 총총"하고 메기면 놀이꾼들이 "쾌지나칭칭나네"하고 한 장단에 뒷소리를 받으며 춤을 춘다. 흔히 "쾌지나칭칭나네"하고 부르나 본바닥에서는 '처지나칭칭' 또는 '치기나칭칭'하여 가지가지로 다르게 부르고 있다. 노래이름도 '칭칭이소리', '치기나칭칭'등 가지가지이다. 선율은 전형적인 메나리토리(메나리조 : 동부민요조)로 그 구성음이 미·솔·라·도·레로 되어 있고, 주요음은 미·라·도이며 4도+단3도로 되어 있다. '미' 또는 '라'로 마치고 흔히 '미'에서 떨고 '레'에서 '도'꺾는 시김새를 가지고 있다. 매우 경쾌하고 씩씩한 느낌을 주는데, 흔히 춤추고 돌아가며 부르는 경우가 많다.

안동놋다리밟기

민속놀이

유래

경북 안동지방에서는 옛부터 여러가지 민속놀이가 전승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놋다리밟기는 여성들만이 행하던 대표적 민속놀이이다.

음력 대보름날 저녁에서부터 수일간 규중에서 합법적으로 외출이 허용된 수백명의 부녀자들이 반상과 상하의 구별없이 노래부르며 즐긴 놀이로서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답교놀이가 변형 발전했다는 가설이 있다.

기록으로는 동국세시기에 처음 보이니 조선시대 순조조에는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놀이와 관련하여 안동지방에서는 두 가지의 전설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고려말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왕후와 공주를 데리고 조령을 넘어 안동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소야천나루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달려와 부녀자들이 허리를 굽혀 왕후와 공주를 등위로 지나게 해 준 데서 이 놀이가 유래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공민왕이 공주를 데리고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에 머물렀는데 난이 평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공민왕 일행을 위로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놋다리밟기 놀이를 했다는 것이다.

의성에서는 '기와밟기', 군위, 의흥지방에서는 '지애밟기', 영양에서는 '등다리밟기'로 불리우는 이 놀이는 1924년 무렵에 거행된 것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것을 당시 이 놀이에 참가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1968년에 복원한 것이다.

특색

(1) 신앙성이 없고 승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2) 여성들만의 놀이로 남성들의 접근은 일체 금지된다.

(3) 노래를 수반하고 있다.

오락에 음악이 결부되면 부드럽고 정서적인 것이 된다. 놋다리밟기는 여성집단의 놀이로 음악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성특유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4) 다른 지방의 놋다리와는 달리 원형의 '융굴놋다리'로 가장행렬을 할 때 둥글게 원을 지어 거리를 누빈다.

(5) 안동의 차전놀이처럼 동부 서부로 나누어 '꼬께싸움'을 벌이는 것이 특이하다.

구성

(1) 둥둥데미

(2) 실감기

(3) 놋다리

(4) 꼬께싸움

내용

이 놀이는 크게 구분하여 둥둥데미, 실감기, 놋다리, 꼬께싸움으로 나눌 수 있으나 놀이의 주됨은 놋다리이다.

(1) 둥둥데미

동서부의 부녀자가 삼삼오오로 짝을 지어 노래를 제창하며 넓은 벌판에 도달하면 놀이가 시작된다. 각기 손을 잡고 원형으로 앉으면 선두부터 서서히 일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잡은 손을 타넘고 둥둥데미의 노래를 부른다.

어화유리 둥둥데미
둥둥데미 어화유리
저달 봤나 난도 봤다
저별 봤나 난도 봤다
저길 봤나 난도 봤다
(둥둥데미의 노래)

(2) 실감기

둥둥데미의 노래가 끝나면 지문(指紋)처럼 겹겹이 원을 짓고 실감기노래에 맞추어 다시 원을 푼다.

집실로 감아라
당대실로 감아라
(실감기노래)

(3) 놋다리

놋다리에서는 놀이꾼들이 큰 원을 이루고 구경꾼들이 원의 주위에 무리져 모이면 놀이가 시작된다.

놀이꾼들은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힌다. 그러면 어린 공주가 양곁의 시녀의 손을 잡고 원형의 사람다리(人橋) 위를 한바퀴 돈다. 이때 구경꾼들과 놀이꾼들이 놋다리의 노래를 제창한다.

어느윤에 뇨다리로 청계산에 놋다릴세
이터전이 뉘터이로 나라임의 옥터일세
이기와가 뉘기와로 나라임의 옥기왈세
그어디서 손이왔노 경상도서 손이왔네
무슨꼭께 싸여왔노 어깨꼭께 싸여왔네
멧대간을 밟아왔노 쉰대간을 밟아왔네
무슨옷을 입고왔노 지죽바지 입고왔네
무슨띠를 띠고왔노 광목띠를 띠고왔네
(이하생략)
(놋다리의 노래)

(4) 꼬께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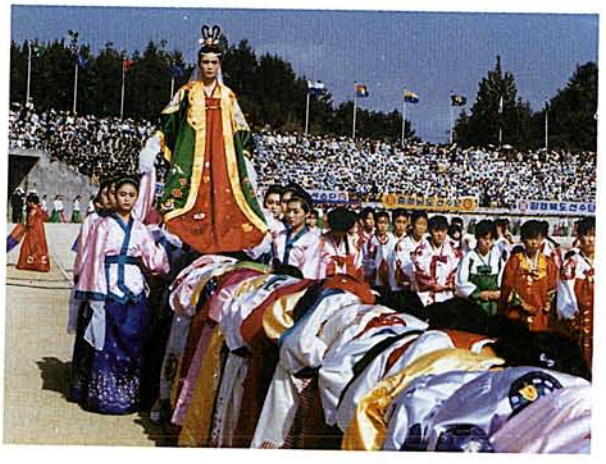
이 놋다리가 끝나면 꼬께싸움이 벌어진다. 고께란 안동지방의 방언으로 두사람이 서로 손목을 잡아 정(井)자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 꼬께 위에 공주를 태운다음 동서부의 공주가 싸운다. 격렬한 싸움으로 한쪽 공주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싸운다. 이때 구경꾼들과 놀이꾼들은 환성을 지르며 응원한다.

승리한 쪽은 행렬을 정비하여 의기양양하게 돌아가고 진 쪽은 길을 뺏기지 않으려고 앞을 가로막는다.

놀이기구

특별한 놀이기구는 없고 궁주와 시녀, 그리고 부녀자들의 의상이 필요하다.

안동놋다리 (경북)



상주모내기

민요

상주는 경상북도의 서북방에 위치하며 태백산맥 줄기의 남쪽으로 속리산과 백화산으로 싸인 산촌과 낙동강변에 연하여 있는 평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산간지방의 밭농사와 평야지대의 논농사가 골고루 있어 농요가 많이 전승되고 있다. 상주모내기소리는 ①모찌는 소리 ②모심는 소리 ③논매기 소리로 구분된다. 전라도 지방의 논매기 소리는 아시, 두벌, 세벌 논매기마다 소리가 다른 경우가 많으나 상주에는 이 구별이 없다. 다만 아시 논맬 때에는 호미끝이 날카로와서 소리도 느리게 하지만 두벌 세벌 논맬 때에는 풍물 즉 농악이 동원되고 흥겹게 놀면서 논을 맨다. 또 논을 다 매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칭칭이'를 부르며 흥겹게 하루의 노고를 잊으며 마을로 돌아간다.

(1) 모찌는 소리

저승아 저승아
강임도령 이못자리
잡아가서 이히히후후
이승아 이승아
이 모판을 잡아가서 이히히후후
삼을삼세 삼을삼세
이못자리 삼을삼세
니가야 무슨 삼일러냐
상추쌈이 삼일러나
상추야 쌈이 삼일러냐
이못자리도 삼일러라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같이 깃을달세
니가야 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일레
초성아 달만 반달인가
그믐달도 반달일레
상주야 성창 공갈못에
연밥따는 저 큰아가
연밥아 줄밥 내따줄께
이내 품안에 잠들어주게
잠들기사 어렵잖으나
연분없는 잠을자지
연분이라 할것 있소
잠만자면 연분되기는 일반이라
우리가 살며는 몇백년 사느냐

요만한 시절에 놀다가 갑시다
호박은 늙어지면
집으로 오는데
사람은 늙으면
산천으로 가네
여기도 꽂고 저기도 꽂고
쥔네양반 독에도 꼽아주세
꼽기야 꼽지마는
음산이라 될지말지 모르겠네
그기서나 옥토라고
도지석점은 메고갔제
우리야 인생이 산다고해도
병든날 잠든날
다 제쳐놓으면
단 사십을 못사는
세상사람 아무나 병이들면
어느 누가 살릴소냐
저승아 채사 강임도령
호출이 오면 가기됩니다.
아이구야 지고야 슬픈세상
밥숟가락 저바리고
깜동아같이 진는곳에
한번아차 가기되면 어떠나
친구가 날 찾느냐
어느 효자식이 날찾는가
뒤똥아 산에 구운밤을 심어
움이 돋으면 살아오거라
일은박에 찐하기이
헤쳐고 울면 살아올까
헤쳐고 울며는 살아오나
가련하고도 그지없네

모내기 소리는 독창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남녀가 여럿이 함께 일할 때에는 서로 교창을 하기도 한다.

(남) 서마지기 이논배미에 모를심어
장잎나기가 장하도다
(여) 방실아 방실이 오는님을
못다보고 해가지네
(남) 지어가네 늦어가네
담배술참 지어가네
(여) 늦어가네 지어가네
점심참이 지어가요
(남) 접시야 닷주어 사발이야 닷주어
심어라고 늦어가네
(여) 찹쌀담아 나의 사위
술더해 먹이느라고 늦어가오
(남녀합창)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게 앉지마라
녹두야 녹두꽃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가네
이히히후후후

이 모찌기 소리는 모를 뽑아내는 이앙가이다. 무대에서는 남녀가 교대로 교창을 하였다.

(2) 모심기 소리
(합창 이하 "합")
이 모판을 들어내세
이 모판을 들어내세
서마지기 논빼미마다
반달같이 지철날세
(선소리꾼 이하 "선")
늦어가네 늦어가네
점심참이 늦어가네
(합) 총지석죽 통발석죽
점심참이 늦었소다
(선) 상주함창 공굿못에
연밥따는 저처녀야
연밥줄밥 내따줄께
이내품에 잠자주게
(합) 연밥줄밥은 못따드라도
연분이 아니라 못자겠네
(선) 연밥줄밥을 내따주께
이내품에 잠자주게
(합) 연분이야 없을망정
연밥보고 잠자겠소
(선) 여기꼽고 저기꼽고
삼백출 자리로만 꽂아주소
(합) 땅은 삼백이 넘는데
일꾼이 부족해 큰일일세
(선) 사래야 지고도 정찬밭에
목화야 따는 저큰아가
(합) 목화야 털몰랑 내따줌세
백년언약을 내캉함세
(선) 넘청넘청아 배리끝에
시눌부올캐 빨래가니
(합) 시누부올캐야 빨래가서
큰물가에 떨어졌네
(선) 오빠 오빠야 우리 오빠
형님껀지고 날안껀져
(합) 날도야 죽어서 저승가서

낭군님버텀 손잡을랑
(선) 이물기 저물기 헝힌어놓고
쥔네야 양반 어델갔노
(합) 문에야전복 양손에 들고
첩으야방에 놀러갔네
(선) 초량아 초령아 영사초령
임의방에 불밝혀라
(합) 임도눕고요 난도눕고
저불끄기가 누길능가
(선) 오날이해가야 어찌됐노
골골마다 연기나네
(합) 우리야 임으로 어드로가고
연기낼주로 모르시나
(선) 유월이라야 새벽달에
처녀둘이가 먼길가네
(합) 석자수건 목에다 걸고
총각둘이가 뒤따르네
(선) 머리야 좋고 실한처녀
울뽕낭게 걸앉았네
(합) 울뽕아 줄뽕아 내따줌세
백년언약을 내캉하세
(선) 이논빼메다 모를 심어
잔잎이 나와도 정자로다
(합) 우리야 부모님 산소들에
솔을 심어도 정자로다
(선) 모야 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열매열래
(합) 이달크고 저달크고
석달커서 열매열지
(3) 논매기 소리
이논도 묽고 매기도 조애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아하 에헤이야 에헤이
에헤이야 에헤이야 가래질도 한다
이 논빼미야 일군네들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아하 에헤이야 에헤이
에헤이야 손이 잘도 한다
일심 받으소 소리들 하시오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네소리를 적다 말고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뒷소리를 팡팡 굴리만 주시오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아하 에헤이야 에헤이
에헤이야 손이 잘도 한다
먼데소리는 듣기도 좋고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곁에 분도 보기도 좋게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글배워서 벼실한다면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농부들 살이 누가 있던가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이 논두락 일하기 좋고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전기불 밝아서 인복도 좋구나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목이 마르면 술한잔 또 먹고 할일이지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팔걸이 서방님 좋다 하더니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헌구두 발질에 정떨어 집니다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새루 양복을 입은 몸에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홑바지 저고리가 웬말인가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삐딱구두나 신던 발이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에와나지 짚세기가 웬말인가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어서어서 심심한 먹든 입에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곰방대 숨소리가 웬말이든가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니잘나 내잘나 다투지 말고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두 손목을 마주잡고 사돈간에 만날일이지 헤이에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신작로 가는 아카시아 뽀뿌란데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아하 에헤이야 에헤이
에헤이야 손이 잘도 한다
자동차 바람에 단풍이 들었네 에헤이
에헤이 손이 잘도 한다
한참 논을 매다가 끝머리에 가서는 조금 빠르게 부른다.
에헤 이러구 저러구 한다
에헤 이러구 저러구 한다

이팔청춘 소년들아 우리 농사가 제일일세
에헤 이러구 저러구 한다
한철 두철 농사지어서
에헤 이러구 저러구 한다
장매자저 미기타고
에헤 이러구 저러구 한다
유월포장 더운데도
에헤 이러구 저러구 한다
더위모르고 일직쉬세
에헤 이러구 저러구 한다
천하보배가 농사로다
에헤 이러구 저러구 한다
얼싸좋다 좋고 좋구나
에헤 이러구 저러구 한다
얼싸좋다 좋고 좋구나
에헤 이러구 저러구 한다
쿵앵딩둥 뚝딱딱쿵 얼씨구나
에헤 이러구 저러구 한다
절씨구나 나락도 좋고 술만 많다
에헤 이러구 저러구 한다
시절도 좋고 풍년도 좋다
에헤 이러구 저러구 한다
우리 농부는 농사나 짓자
에헤 이러구 저러구 한다

(4) 칭칭나네

이 소리를 통속민요에서는 '쾌지나 칭칭 나네'로 부르지만 이 지방사람들은 흔히 '칭칭이'로 부른다. '칭칭이'란 꽹과리를 의음화한 것이다.

(선) 칭이나 칭칭 나네
칭이나 칭칭 나네
노자 노자 젊어 노자
칭이나 칭칭 나네
나이 많으믄 못논다네
칭이나 칭칭 나네
이팔청춘 소년들아
칭이나 칭칭 나네
늙었다고 박해를 마라
칭이나 칭칭나네
우리도 어제는 청춘이더니
칭이나 칭칭 나네
오늘날 백발이 됐다
칭이나 칭칭 나네

이하 사설내용은 이것 저것 끌어다 대어 쓰기 때문에 일정한 것은 없다. 칭칭이는 논매기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한바탕 놀면서 돌아오는 것으로 꽹과리, 징, 장고, 북 등으로 장단을 친다.

선소리꾼은 꽹과리거나 장고를 치면서 메기고 기타 악기들은 받을때 쓰인다. 또 악기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서 어깨춤을 추며 소리한다.

보리타작

민요

경상북도의 민요로써 도리깨로 보리를 타작하면서 부른다. 도리깨로 타작하는 곡식이 주로 보리이기 때문에 '보리타작 소리'라 일컫지마는, 콩·팥 따위도 도리깨로 타작하여 장만하기 때문에 그냥 '타작노래'라 하기도 한다. 또한 도리깨를 쓰므로 '도리깨질노래'라 일컫기도 하며, 타작하는 일이 주로 마당에서 이루어지므로 '마당질노래'라고도 한다. '보리타작소리'는 '모내는 노래'·'김매는 노래' '논매는노래·밭매는노래'와 더불어 전국에 널리 분포된, 농사일에 따르는 주요한 노동요다. 보리타작은 여러 사람이 빠른 속도로 도리깨질을 힘들여 되풀이해야 되므로 일하는 사람들의 행동통일이 필요하여 그 일과 밀착된다. 따라서 '보리타작소리'는 그 사설과 가락 또한 모두 단조롭다. '보리타작소리'는 나란히 마주 서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앞소리를 메기면 여러 사람의 후렴을 받는 선후창 형식으로 부른다. 경상북도 등지에서는 앞소리꾼을 '목도리깨꾼'이라 하고 뒷소리꾼을 '종도리깨꾼'이라 한다. 목도리깨꾼은 앞소리를 부르면서 종도리깨꾼에게 타작할 보리를 젖혀 주고 노래 사설로써 두드릴 곳을 지시하기도 하면서 일을 지휘한다. '보리타작소리' 사설은 대체로 그 일의 실태를 노래하면서 일꾼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억센 일을 치르면서 노래하는 사설이므로 가다가 해학적인 표현도 드러난다.

억만군사야 뚜드려 보자
어허 타작이야
천석으로 뚜드르까
어허 타작이야
만석으로 뚜드르까
어허 타작이야

'보리타작소리'는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으나 경상북도 지역의 소리가 가장 유명하며 널리 알려져 있다. 도리깨질 한번하는 동작이 3분박 둘로 메기고, 3분박 둘에 받는다. 이러한 모습은 노동의 동작과 음악의 리듬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4

제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63. 10. 7 ▶ 10. 9
덕수궁, 창경원

제 4 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63. 10. 7–10. 9.
덕수궁, 창경원

대통령상
함안농악(경남)–농악
국무총리상
가면극(서울)–민속극
문공부장관상
농악(전북)–농악
민속놀이(경북)–민속놀이
가면극(경남)–민속극
장려상
민속놀이(전남)–민속놀이
농악(충북)–농악
농악(충남)–농악
농악(경기)–농악
미수상 참가작
하회가면극(경북)–민속극
농악(강원)–농악
12발상모(전남)–민속놀이
진도아리랑(전남)–민요
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봉산탈춤(황해)–민속극
차전놀이(경북)–민속놀이
오광대놀이(경북)–민속극
살풀이(황해)–민속놀이
굿놀이(황해)–민속놀이
대감놀이(황해)–민속놀이
작두타기(황해)–민속놀이
농악(전남)–농악
안동놋다리밟기(경북)–민속놀이
공로상
백신행(배뱅이굿, 평북)
김진옥(가면극, 경기)
개인상
옥화홍(민속놀이)
박동욱(농악, 경북)
장재붕(가면극, 경남)

화천농악

농악

유래

화천농악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일대에서 성행해온 농악이다. 풍요로운 이 고장은 역사적으로 매우 유서깊은 곳으로, 예로부터 마을의 우순풍조(雨順風調)를 비는 뜻의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 제사때 농악이 주가 되었다.

원래 이 고을은 칠원이라 했는데 칠원이 함안과 합쳐져 칠북, 칠서, 칠원면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화천리는 이중 칠북면 관할이 되었다. 화천마을의 들앞에는 능수버들이 울창하게 늘어서 있어 마을 이름을 유정리라고도 했다.

이 화천 마을에서는 마을 앞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오래된 나무들 중에서 가장 큰 고목을 골라 그 나무를 '서낭나무'로 정하고 해마다 9월 말일 주민 모두가 정성을 드리고 상달인 10월 초하루날에도 대제를 올리며 농악을 울렸다.

이 고장에서는 농악을 '매구친다' 또는 '쐬친다'라고 한다. 정월 초삼일에는 집집마다 돌며 '지신밟기' 매구를 치고 5월 단오, 농번기의 두렛일, 7월 백중등의 절기에 매구를 쳤던 것이 오늘날의 화천농악으로 발전해 왔다.

특색

함안 화천농악은 순수 오락농악이 아니고, 오락을 겸한 지신밟기 및 성주풀이농악이다. 특히 살풀이굿은 상쇠가락이 흥미롭고 춤추는 모양이 독특하며 상모띠의 길이가 3미터 이상으로 긴 것이 특징이다.

원풍대굿은 아주 어려운 것으로 다른 농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화천농악 특유의 장기이며 농사풍년굿은 벼농사의 과정을 흉내낸 것으로 역시 희귀하다.

구성

화천농악은 총 12과장으로 구성된다.

(1) 질굿(길굿)
(2) 인사굿
(3) 살풀이굿
(4) 덧배기잽이굿
(5) 영산다드래기(선낭굿, 성주굿, 정자굿 등)
(6) 진치기굿(4방진치기, 5방토지신굿, 8진치기)
(7) 번버꾸굿
(8) 호호굿
(9) 원풍대

(10) 자반뒤집기
(11) 고사리꺾기
(12) 농사풍년굿(씨뿌리기, 모찌기, 모내기, 논매기, 나락베기, 뒤주모으기)

내용

함안 칠북 화천농악은 고려시대부터 전해온 것으로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와 섣날 보름날 마을의 태평과 농사의풍년을 기원하며 동네앞 서낭나무 밑에서 전 주민이 참여하여 동제를 지내고 행하던 의식의 농악이다.

꽹과리, 장고, 북, 징, 소고 등의 악대가 편성되고 여기에 잡색이 첨가된다. 그 행렬을 보면 농기, 영기 등이 앞장서고 그 뒤에 악대가 뒤따르며 양반이, 포수, 갓놀음쟁이, 땡중, 말뚝이, 가장춤쟁이, 농군춤쟁이 등이 각각의 복색을 차려입고 악대의 뒤를 따른다.

먼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질굿(길굿)을 하며 굿판으로 향한다. 굿판에 들어서면 전원이 둘러서 인사굿을 한다. 다음으로 살풀이굿이 어어지고 영산다드래기로 선낭굿, 성주굿, 정자굿 등이 행해진다.

진치기굿은 다른 지방의 '오방진'과 비슷한 것으로 4방진, 5방진, 8방진 등이 있다.

다음은 소고들이 펼치는 번버꾸굿이 따르고, 전원이 부르고 대답하는 호호굿이 행해진다. 이러한 굿들이 총 12과정에 걸쳐 진행되는데 특히 농사풍년굿은 씨뿌리기, 모찌기, 모내기, 논매기, 나락베기, 뒤주모으기 등의 농사과정을 굿으로 재현한 것으로 화천농악의 백미이다.

농사풍년굿에서는 각각의 농사과정에 따라 상쇠의 앞소리가 메겨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내기앞소리
서마지기 이 논배미 반달같이 더 나가
(2) 논매기앞소리
요바라 농부 말들어 허허 허늘늘 상사디야

놀이기구

농기, 영기, 꽹과리4, 징4, 북6, 장고6, 소고20, 날라리1, 기타 복색(양반, 포수, 갓놀음쟁이, 땡중, 말뚝이, 가장춤쟁이, 농군춤쟁이 등)

진도아리랑

민요

전라남도 진도지방 민요 중의 하나이다. 부요적 성격이 강한 서정민요이다. 현지에서는 '아리랑타령'이라고 부른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발생된 노래이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불린다. 사설의 기본 성격은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하고 있다. 사설 내용에 욕, 상소리, 한탄, 익살 등이 응집되어 부인네들의 야성을 거침없이 노출시키고 있으며, 또한 도서지방의 지역성을 표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사설의 형식은 2행 1연으로 되어 있는 짧은 장절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장체 장가이다. 가창방식은 기존 사설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설이 창자에 의하여 계속 덧붙여질 수 있는 선후창 형식의 돌림노래이다. 돌림노래란 여럿이 부를 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메김소리를 하고, 나머지는 맞는소리(맞음소리)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가창방식은 집단 노동요의 전형적인 가창방식과 일치한다. 대표적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느냐.
날 두고 가신 임은 가고 싶어 가느냐.
(후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문경새재는 왠 고갠고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구나
(후렴)
니정 내정은 정태산 같은데
원수년의 탄광 모집이 니정 내정을 띤다.
(후렴)
저 강에 뜬 윤선은 바람심으로 놀고
점방에 유성기는 기계심으로 논다.
(후렴)
오동나무 열매는 감실감실
큰애기 젖통은 몽실몽실
(후렴)
씨엄씨 잠년아 잠깊이 들어라
문밖에 섰는 낭군 밤이슬 맞는다.
(후렴)
서방님 오까매이 깨벗고 잤더니
문풍지 바람에 설사가 났네.
(후렴)

작두타기

민속놀이

무지개 서기밭을 찾아가니 어느 산골 초막에 어린애기가 발가벗고 밥을 먹으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

니 정한담이다.

네가 나를 따르면 좋은 밥에 고운 옷을 입혀줄 터이니 나를 따라갈 터인가?

좋아하고 서산대사를 따라 빨간 바랑에 넣어서 깊은 산골에 들어가 도술을 가르쳐 무럭무럭 자라서 8세가 되었는데 역적이 될 것 같다 하여 서산대사가 천신한테 장수 하나를 더 탄생시켜 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어느 산골에 장수 하나가 탄생되었는데 무지개 서기밭에 산골에 서서 갔더니 초막에서 옷을 벗고 밥을 먹기에 아이를 보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 어디를 갔느냐 물으니 암난산에 부대파러 갔다.

그러면 나를 따라가면은 좋은 밥, 좋은 옷을 입혀줄 터이니 나를 따라가자. 싫다고 하지 않고 선뜻 따라나선다.

빨간 바랑에 넣어서 깊은 산골에 들어가 무술을 가르쳐 도술을 배워주니 육춘열은 15세, 정한담은 18세

작두타기 (황해)





서산대사가 정한담을 가르치고 육춘열은 사명당이 가르쳐 놓으니 정한담은 나라에 역적이 되고, 육춘열은 나라에 충신 장수가 되니 정한담은 당나라로 추방하고 육춘열은 나라 충신장수라 자주 문무하고 용모 축출하다. 아니나 다를까 정한담은 당나라에서 조선국을 칠려고 군사를 수천을 키우고 군기를 갖추고 조선국을 칠 것을 육춘열이가 미리 알고 조선국에서 광풍과 태풍을 3년 3개월 불게 서산대사가 도술을 부리니 건너올 수가 있으랴.

육춘열이가 천상에 줄을 매고서 발창검을 몸에 품고 두발창검을 발에다 끼고 바람을 타고 당나라로 건너가니 정한담이 그것을 알고 어느 곳으로 도망가서 잡지 못하고 수천명 군사를 다 무찌르고 조선국으로 돌아오니 서산대사와 사명당이 육춘열을 보고 수고했다 하며 압록강 백두산이 3년 3개월 바람이 불어서 만든 산이니 저 산이 굳어지면 정한담이 말을 타고 건너올 것이다.

어서 바삐 군사를 갖추어 백두산 산봉을 지키고 있어라. 아니나 다를까 역시, 정한담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을 육춘열이 정한담의 목을 베니 목이 떨어져 말발굽에 붙고 투구는 압록강으로 떠내려 갔다. 정한담이 탔던 백말이 "잘 죽었다. 나라 역적놈 잘 죽었다" 세 마디를 외치고 말도 죽었다.

정한담이 역적놈 잘 죽었다. 얼싸좋다. 지화자 좋다. 정말 좋다. 정한담 잘 잡았다. 정한담 목베어 나라님께 바치었다.

작두 건네뛰는 육춘열장수 대신에 육춘열장수신을 받은 사람이 돼야 작두를 건너뛴다.(김씨 신어머니 탔는데 장보배가 지도를 받아서 탔으며 이선비한테 넘겼다.)

5

제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64. 10. 29 ▶ 10. 31
경복궁 야외무대

제 5 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64. 10. 29–10. 31.
경복궁 야외무대

대통령상
농악(전남)–농악
국무총리상
민속놀이(경북)–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농악(경기)–농악
하회가면극(경북)–민속극
장려상
민속놀이(제주)–민속놀이
농악(여성, 충남)–농악
삼천포농악(경남)–농악
미수상 참가작
장고춤(황해)–민속무용
북춤(황해)–민속무용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농악(강원)–농악
오광대놀이(경남)–민속극
입춘굿놀이(제주)–민속놀이
허벅춤(제주)–민속무용
상주모내기(경북)–민요
안동놋다리밟기(경북)–민속놀이
쾌지나칭칭나네(경북)–민요
봉산탈춤(황해)–민속극
양주산대놀이(경기)–민속극
공로상
농악(양인석, 전남)
양주산대(김성태, 경기)
봉산탈춤(이근성, 황해)
개인상
김병섭(농악, 전북)
최종식(농악, 경남)
김진중(농악, 충북)

입춘굿놀이

민속놀이

농사를 권장하고 풍년을 축원하는 행사의 하나로 입춘굿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있었으나 오늘날은 이를 볼수 없다. 짚으로 만든 소에다 바퀴를 달고 앞에서 씨 할아비가 씨를 뿌리며 길을 인도하면 쟁기를 쥔 당시의 호장들이 밭갈이 흉내를 하면서 시가를 행진 했었다 한다. 이 놀이에서 무당들이 일제히 징과 북을 두드리며 굿을 하여 풍년을 비는 관과 민의 합동 제희인 것이다.

삼천포농악

농악

유래

농악의 일반적 유래에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첫째, 파종과 추수를 축복하고 그해 농가의 매귀안택(埋鬼安宅)을 신에게 기원한다는 뜻에서 농악을 문자 그대로 매구(埋鬼)굿이라고 한다는 설과 둘째, 농군을 훈련 양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시용 진법 전수를 목적으로 진법을 악무로써 지휘 훈련케 한 것이 점차 농악으로 발전했다는 군악설, 그리고 고려시대 불교융성과 더불어 사찰건립, 중수, 사답 마련을 위해 모금의 방법으로 화주승이 따른 사승 수십인이 한 패를 지어 머리에 불두화를 단 고깔을 쓰고 대금, 소금, 쇄납, 북, 저 등의 악기를 사용하여 민가를 걸립하던 '굿중패'가 생기자 민간에서도 이를 본따 오늘의 농악

삼천포농악 (경남)



으로 발전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삼천포농악은 원형무를 기본으로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고대의 전쟁형태의 기본진법에서 유래했다 하는데 확실치는 않다.

삼천포농악의 정확한 유래는 현재까지 알 수 없으나 경남 진해시에 거주했던 박경호선생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김환노(작고), 문백윤(작고)을 거쳐 1980년에는 이영우가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특색

민속농악의 진본으로 알려진 12차 36가락의 갖가지 놀이를 고전적인 원형무 그대로 보존하면서 전법의 전개형태에 관심을 가진 문백윤씨에 의해 특색있는 형(形)과 음(音)으로 다듬어진 농악이다.

진주농악과 비슷하여 빠른 가락이 많고 힘이 있다.

구성

(1) 1차
- ①열림굿
- ②오방진놀이
- ③다드래기놀이

(2) 2차
- ①덧뵈기놀이
- ②쌍진풀이
- ③덧뵈기 법고놀이

(3) 3차
- ①자진얼림굿놀이
- ②군악놀이
- ③웃물놀이

(4) 4차
- ①반, 군악놀이
- ②영산다드래기

(5) 5차
- ①자진얼림굿도드리
- ②굿거리
- ③양반포수놀이

(6) 6차
- ①덧뵈기놀이
- ②연풍다드래기
- ③먹법고놀이

(7) 7차
- ①삼차법고놀이
- ②자진다드래기
- ③다듬이 품앗이놀이

(8) 8차
- ①재삼차법고놀이
- ②반법고 웃놀음
- ③연풍대얼림굿놀이

(9) 9차
- ①앉은법고놀이
- ②운봉대놀이

(10) 10차
- ①사거리놀이
- ②중거리놀이
- ③달거리놀이

(11) 11차
- ①별거리놀이
- ②호호대문놀이
- ③굿거리 법고놀이

(12) 12차
- ①허치자놀이
- ②날진풀이

내용

(1) 1차

느린 덧뵈기가락으로 구경꾼에게 인사굿을 한 다음 오방진가락을 반삼채로 치면서 동, 서, 남, 북, 중앙에 나선형으로 고동진을 친다. 다드래기 가락에 농악대원 오른편으로 둥글게 돌고 법고잡이들은 연풍대를 한다.

(2) 2차

농악대원들이 둥근 원을 만들어 오른편으로 돌면서 춤추고 그 가운데에서 상쇠가 덧뵈기가락으로 웃놀음을 하고 춤을 춘다. 끝에는 다드래기가락을 치며 빠른 속도로 돌고 소고잡이들은 자반뒤집기를 한 다음 농악대는 두패로 나뉘어 장사진을 치고 춤추다가 선두에서부터 사람사이로 빠져 나온다. 이어서 덧뵈기가락으로 둥글게 늘어선 대열 안으로 들어가 법고놀이를 한다.

(3) 3차

홑다드래기가락을 치며 얼르고 논 다음 삼차길군악을 치며 둥글게 돈다. 이어서 삼차다드래기가락을 치면서 오른편으로 돈 다음 삼차다드래기가락을 벙어리가락으로 치면서 왼편으로 돈다.

(4) 4차

삼차길군악을 빠르게 치면서 둥글게 돈 다음 영산다드래기가락을 치며 상쇠와 소고수들이 외상피놀음, 양상피놀음, 사사웃놀음, 전치기웃놀음, 쌍전웃놀음 등 웃놀음을 하고 영산다드래기로 몰며 오른쪽으로 돌다가 반다드래기, 자진다드래기로 몰아가며 계속 돈다.

(5) 5차

자진얼림굿도드리에 이어 굿거리를 한 다음 양반, 포수, 기타 잡색들이 가운데 들어와 굿거리장단에 흥겹게 춤추고 익살스런 몸짓으로 구경꾼들을 웃긴다.

(6) 6차

상쇠가 가운데 들어가 덧뵈기가락을치고 농악대 전원은 오른편으로 원진한다. 이어서 소고잽이들이 안으로 들어가 둥글게 돌며 다드래기가락에 연풍대놀이를 한 다음 모두 둥글게 늘어서서 자진다드래기가락을 친다. 징은 치지 않고 모든 법고잡이와 상쇠가 하는대로 갖가지 상모놀음을 한다.

(7) 7차

삼채가락을 치며 법고잡이가 안에서 둥글게 서서 법고놀이를 한 다음 자진다드래기가락에 법고놀이가 이어진다. 이어서 상쇠와 목쇠가 서로 품앗이가락을 주고 받으면 농악대원은 전원 좌우로 진퇴한다.

(8) 8차

상쇠는 재삼차가락을 치며 둥글게 돈다. 재삼차가락 둘째박에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나서 회전한다. 이어 상쇠가 다드래기가락을 치면서 양상피놀음을 하면 법고잡이들도 양상피놀음을 한다. 다시 법고잡이가 두 줄로 마주보고 다드래기가락에 맞추어 상모놀이를 하다가 덧뵈기가락에 전후좌우 발 맞추어 진퇴한 다음 다드래기가락에 일제히 생피지를 돌리며 연풍대와 자반뒤집기를 한다.

(9) 9차

법고잡이들이 둥글게 둘러선 다음 상쇠가 치는 얼림굿가락에 법고잡이들의 가운데로 둥글게 앉았다가 덧뵈기가락에 천천히 일어나면서 상모놀이를 한다. 상쇠가 산치기놀음을 하면 법고잡이들도 생피집 물체를 세워서 산치기놀음을 하고 끝에는 다드래기로 연풍대와 자반뒤집기를 하며 오른편으로 돈다. 이어 다드래기가락에 전후좌우 일제히 진퇴한다.

(10) 10차

농악대원들이 굿가락을 치면서 '아하— 아하야'하고 사거리를 부른 다음 굿거리가락에 중거리노래를 함께 제창한다. 이어 농악대원들은 둥글게 늘어서서 '아하 아하 밝은 달아'하고 달거리노래를 부른다.

(11) 11차

다드래기가락을 치다가 상쇠의 신호로 그치고 '별따자 별따자 하늘 얼러 별따자'하고 구호를 외치고 나서 다드래기가락을 친 다음 호호굿가락을 치며 '호호'하고 구호를 부른다. 이어 굿거리가락에 법고놀이가 계속된다.

(12) 12차

다드래기가락을 치고 '허치자 허치자 구경가락 허치자'라는 구호를 부르고 다드래기가락을 친다. '어서 치고 술 먹자. 부포 끌러 술 먹자'하고 부르기도 한다.

6

제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65. 10. 29 ▶ 10. 31
덕수궁

제 6 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65. 10. 29—10. 31.
덕수궁

대통령상
동래야유(부산)—민속극
국무총리상
삼천포농악(경남)—농악
문공부장관상
민속놀이(경북)—민속놀이
봉산탈춤(황해)—민속극
농악(충북)—농악
장려상
민속놀이(제주)—민속놀이
민속놀이(충남)—민속놀이
가면극(강원)—민속극
농악(전북)—농악
미수상 참가작
농악(전남)—농악
제석방아놀이(평남)—민속놀이
사자놀이(함남)—민속극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하회가면극(경북)—민속극
농악(경북)—농악
쾌지나칭칭나네(경북)—민요
안동놋다리(경북)—민속놀이
상주모내기(경북)—민요
양주산대놀이(경기)—민속극
은산별신굿(충남)—민속놀이
입춘굿놀이(제주)—민속놀이
허벅춤(제주)—민속무용
멍석놀이(제주)—민속놀이
공로상
이주환(전남)
허호영(서울)
박정홍(평남)
개인상
김영옥(강강술래, 전남)
고영달(양주산대, 경기)
배갑문(고성오광대, 경남)

동래야류

민속극

동래야류는 수영야류를 본받아 전승되었다고 보는 것이 동래나 수영 사람들이며 역사는 약 120년쯤 된다고들 한다. 정확한 연대고증은 불가능하지만 1933년에 집필한 송석하 백씨의 오광대소고에 의하면 그 전파과정을 초계에 가 있던 수영 사람이 보고 와서 수영에다 전파하였고 동래는 수영의 놀이를 본받았다고 하였고 그 시기는 약 60년 전이라 했으니, 현 동래 사람들이 말하는 1백 20년 전의 유래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이 방면의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가면에 있어서 수영과 동래는 각기 특색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래보다는 수영의 것이 고형이라고 함을 보아도 수영에서 동래로 전파되었으리란 의견을 굳히게 해준다.

동래야류는 1백 70여년의 전통을 가지며 관리출신을 주로 한 친목단체인 기영회의 후원에 의하여 전승되어 왔는데 이것이 다시 약 60년 전에 발족한 신흥계에서 담당하다가 그 이듬해 망순계로 바뀌어 계승되어 왔으나 1935년경 일제의 탄압으로 줄다리기와 함께 중단되었었다. 그러다가 8·15광복 이후 젊은층에서 조직된 남우회의 약 30명 회원은 1946년 음력 정월 초순과 중순 두 차례에 걸쳐서 지신밟기를 하여 희사받은 것을 기금으로 3·1절 경축 들놀음에서 양반과장과 할미과장을 연출하였으니 약 10년만에 동래야류의 전통이 이어진 셈이다.

동래들놀음의 절차는 수영의 그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기록하고자 한다.

(1) 준비과정

예전에 동래에는 정월 대보름날을 전후하여 연행되던 줄다리기와 말놀이가 있었는데 이 연중행사를 하기 위하여 옴 정월 초 3일경부터 지신밟기를 하여 경비를 조달하였다.

(2) 길놀이

14일 저녁이 되면 세병교(현 동래앞 다리)나 만년당(현 동래중학 교정), 또는 연치마당(현 안락동) 혹은 마암곡(온천장 말바우골)에 연희자와 군중이 모여 길놀이의 준비를 하고 어둡기를 기다린다.

길돌이는 탈놀음판인 동래읍 복천동(현 동래구청 앞) 폐문련 마당에까지의 대행렬인 것이다. 맨 먼저 대청계초용 2개가 서고 그 다음 그해의 십이지상의 큰 등이 선다. 5백개나 되는 소등은 일렬로 배열하거나

혹은 적당한 장소에 배치하기도 하며 그 밖에 용등·봉등·학등·구등·가마등·포도등·일산등 등도 간간히 배치한다.

연희자의 행진순서는 다음과 같다.

악사→말을 탄 중군→진군악대(한량과 기생)→팔선녀(선녀는 말을 타고 한량은 마부)→원양반, 말뚝이, 차양반, 모양반, 네째양반, 종가집도령, 영감, 제대각시, 문둥이 1,2 비비양반, 영노 등의 야류패→가마를 탄 할미→우마차를 타고 기생들과 가무하는 한량패→오동풍악→군중.

(3) 군무

길놀이 행렬대가 놀이판에 닿으면 대소의 각종 초롱불을 적당한 곳에 달아 조명되게 하고 모인 군중들이 흥에 겨워 덧뵈기춤에 도취되니 군중의 잔치인 것이다. 동래에서는 특히 각자의 장기에 따라 학춤·장군춤·배춤·궁둥이춤·구불춤·요동춤·꼽추춤이 볼만했다고 한다.

(4) 탈놀음

동래야류는 수영과 같이 4과장인데 1974년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정립하여 현행되고 있는 대본에 의하여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문둥이과장〉

문둥이 두 명이 왼 손에는 소고를, 오른 손에는 북채를 든 채 얼굴을 가리고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등장하여 춤을 추는데 자빠지기도 하고 누워서 뒹굴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은 이 문둥이 과장의 연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1930년대 이후에는 단절된 듯한 감이 있으며 근래에도 동래에서는 이 문둥이과장을 잘 하지 않고 있다가 1974년부터 시작하는 형편인데, 야류계의 수영에 사자무과장이 있는데 비하여 동래에는 문둥이과장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 2 양반과장〉

동래야류는 이 양반과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수영야류나 오광대계와 마찬가지이지만 야류계 양반과장의 형상이 오광대 것보다 멋지다.

하인 말뚝이가 원양반을 비롯한 다섯 양반을 모욕 야유하는 내용인데, 줄거리의 순서에 따라 훑어본다.

양반들이 시끄럽게 말뚝이를 부르면 말뚝이는 욕설로 응답한다.

"이 제기를 불고 금각 대명을 우둥우둥 갈 이 양반들아 오늘 날이 따따무리하니 온갖 짐생다 모았다. 손골목에 도야지새끼 모은 듯, 옹달샘에 실배암이 모은 듯, 논두름 밑에 돌나무생이 모은 듯, 삼도 네거리 히둑새 모은 듯 떨어진 중우 가랭이 신대가리 나온 듯…"

원양반이 개똥상놈 하나를 죽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면, 말뚝이는 십대 조상부터 벼슬한 명문거족이었다고 호통한다.

원양반이 과거때가 가까와 오는데 어디엘 그렇게 돌아다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말뚝이는 생원님을 찾으려고 서울로 올라가서 "……일금정 이목골 삼청동 사직골 오부 육조앞, 칠간안, 팔각정, 구리개, 십자가로 두렷이 다 다녀도 생원님은 커녕 내 아들놈도 없습니다"라 조롱하였으며, 또,

"행여 생원님이 도방에나 계시난지 도방을 썩 들어서서 일월산, 이강경, 삼포주, 사마산, 오삼랑, 육물금, 칠남창, 팔부산……"을 찾아 다녀도 없기에 색주가를 다 찾고 마지막으로 본댁에나 계실까 하여 들어갔더니 대부인 마누라가 녹의홍상에 칠보단장하고 음란하게 앉아 있더라고 야유한다.

말뚝이는 양반들을 계속 희롱하다가 마지막에는 "……원앙침 도도비고 비취금 무릅 쓰고 대부인 마누라도 청춘이요 말뚝이도 청춘이라 청춘홍몽이 겨워 두 몸이 한몸되야 왼갖 수작놀았이니 그 농락 어떠하리"라고 모욕한다. 말뚝이 재담의 멋진 끝맺음이다.

〈제 3 영노과장〉

이 과장도 양반을 모욕하는 내용이다. 얼룩덜룩한 큰 보자기를 뒤집어 쓴 영노가 '비— 비—'소리를 내며 비비양반을 따라다닌다. 양반은 무엇인가고 묻는다. 영노는 양반 99명을 잡아 먹었는데 1명만 더 잡아 먹으면 득천한다고 한다.

양반이 자기는 양반이 아니라고 하며 영노가 묻는 말에 자기는 똥·개·돼지·소·풀새기(쇄기)·구렁이라고 하면, 영노는 그것들도 모두 다 잘 먹는다고 하며 달려든다. 양반은 쓰러져서 영노의 행패를 당하다

동래야유 (부산)



가 마지막엔 함께 어울려서 한바탕 춤을 추며 논다.

〈제 4 할미과장〉

할미가 등장하여 악사(마을사람)에게 어떤 영감이 지나가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마을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고 묻는다. 할미는 색골로 생겼으며 키가 크고 얼굴은 갸름하며 키가 크다고 한다. 마을사람이 조금 전에 지나갔다고 하니 할미가 초조하여 무대를 돌고 있을 때 영감이 등장하여 악사에게 어떤 할미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는다. 악사는 할미의 모습을 물으니 영감은 얼굴이 도르쪽쪽하며 입이 크다고 답한다. 영감은 반대편으로 할미를 부르며 돈다. 할미는 영감 생각이 났는지 오줌을 누는 형용을 한다.

이리하여 상봉한 할미와 영감은 굿거리장단에 맞춰 한바탕 춤을 추다가 영감이 할미를 찾으러 제물포에 갔다가 작은마누라를 얻었다며 제대각시를 불러 소개를 시킨다.

할미의 제대각시에 대한 맹렬한 질투와 영감이 떠날 때 두고 간 아들 삼형제를 모조리 사별한 데 화가 난 나머지 영감은 할미를 발길로 차 눕혔는데 할미는 일어나지 못한다. 영감이 당황하여 의원을 불러서 침을 놓았으나 소생치 않아 이번에는 봉사를 불러 독경을 시켰으나 할미는 결국 죽고 만다.

여기에 있어서 처첩 간의 갈등만을 나타냈을 뿐 생활의 곤궁상에 대한 내용은 없다.

충북농악

농악

유래

농악이란 우리나라 농촌의 대표적인 오락형태의 하나이고 지역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풍장 또는 풍물놀이라고 한다.

농악은 반농반군이었던 농민들의 자치방식 속에서 발전했으므로 진군악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지만 농경생활과 더 밀접하다. 그래서 정월, 보름, 단오, 백중, 추석 등의 명절이나 마을의 경사에도 쓰여왔다.

우리나라의 농악은 각 지역마다 독특한 가락과 움직임과 형태를 간직해왔지만 각 지방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점차 고유한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 충청지방만 해도 인접한 여러 지방의 형태가 섞여들어와 지금은 특성이 많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특색

충북의 농악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타 지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음성군과 조치원 지역은 경기도의 안성, 평택 지역 농악의 영향을 받았으며 대전지역 농악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동지역은 경상도 및 전라좌도와의 절충형이다. 그러나 청주지역만은 충청도지방 농악의 순수성을 지니고 있다.

가락의 단순하고 촌스럽도록 순수한 점이나 투박한 춤사위의 움직임이 크고 독특한 점이 충북농악의 특색이다.

충북농악의 대표격으로는 제천시의 두학농악과 청주농악을 들 수 있다.

구성

(1) 꽹과리
(2) 법고놀이
(3) 장고놀이
(4) 북놀이
(5) 징놀이
(6) 상모돌리기

내용

농악은 꽹과리, 징, 장고, 북 등 타악기가 주가 되고 때로는 피리, 젓대, 나팔, 새잡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음의 고저보다 장단에 따라 연주되며 단조로우나 농부들의 노동에서 겹친 피로를 씻기에 알맞고 신나는 것이다.

농악대는 지휘자인 상쇠가 꽹과리를 잡고 주도한다. 악대의 규모나 편성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충북농악의 편성은 영기2, 농기, 호적2, 꽹과리2~4, 징2, 장고2~4, 북4, 법고6~8, 양반, 대포수, 각시, 무동 등으로 편성되었다.

판굿은 경기농악과 비슷한데 돌림법고, 사통백이, 가세벌림, 오방진, 고사리꺾기 등으로 엮어지고 현대에 와서는 글자그리기가 도입되었다.

개인놀이에는 상쇠놀이, 장고놀이, 법구놀이, 열두발 상모돌리기, 북놀이 등이 있다.

충북 농악의 쇠가락에는 길군악칠채, 꽃냄이장단(꽃나무장단), 다드래기, 굿거리, 장풍장, 신식행진가락 등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경기농악과 비슷하다. 꽃냄이장단은 삼채 및 덩덕궁이와 같은 것이며 다드래기는 자진가락을 가리킨다. 장풍장은 삼채와 비슷한 것으로 두레굿에 쓰는 것이며 신식행진가락은 요즘 생긴 것으로 4분의 4박자 취군가락이다.

농악의 대형은 규모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나 기본이 되는 대형은 꽹과리, 법고놀이, 장고놀이, 북놀이, 징놀이 등이다.

7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66. 10. 22 ▶ 10. 24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

제 7 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66. 10. 22—10. 24.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

대통령상
농악(전북)—농악
국무총리상
차전놀이(경북)—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세경놀이(제주)—민속놀이
농악(충북)—농악
양주산대놀이(경기)—민속극
장려상
수레싸움(강원)—민속놀이
은산별신굿(충남)—민속놀이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항두계놀이(평남)—민속놀이
고성오광대(경남)—민속극
봉산탈춤(황해)—민속극
미수상 참가작
농악(경북)—농악
민속놀이(황해)—민속놀이
불꽃놀이(황해)—민속놀이
해녀놀이(제주도)—민속놀이
상주모내기(경북)—민요
하회가면극(경북)—민속극
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부산아유(부산)—민속극
공로상
항두계놀이(평남, 김정연)
은산별신굿(충남, 이오복)
강강술래(전북)
사자놀이(함남)
부산아유(부산박덕업)
개인상
김순석(민속놀이, 함남)
문백용(농악, 경남)
박상학(양주산대놀이, 경기)

세경놀이

민속놀이

유래

'세경'이란 제주도에서 농신을 뜻하는 말이다. 제주도의 심방들은 굿을 할 때에 '세경본풀이'라는 신화를 노래하는데, 그에 의하면 세경은 '자청비'라는 이름의 여신이다. 세경놀이는 바로 이 농신에 대한 의례인 동시에 연희인 것이다.

세경놀이는 굿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굿만 단독으로 행하는 일은 없고 큰굿을 할 때 거의 끝판쯤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행해진다.

제주도의 굿에서 '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연극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경놀이는 농신에 대한 놀이인만큼 농경행위를 주로 표현한다. 특히 조농사의 경작에서 수확까지의 과정을 연극적으로 실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세경놀이도 다른 민속놀이처럼 그 성립년대나 기원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만 그 내용이 순 제주도식의 조농사 과정을 실연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과 같은 구성이 이뤄진 것은 제주도에서였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특색

(1) 이 놀이는 무속의 굿이면서 종교성과 오락성이 결합한 농경의례이다.

(2) 젯상이나, 신을 청해 들이는 청신의식이 없이 줄곧 연극적으로 전개된다. 그만큼 흥미본위의 굿놀이이다.

(3) 놀이에서의 농경의 내용이 조농사임을 비추어 그 본원이 제주도의 중요작물에 대한 기풍이례임을 생각케 한다.

(4) 대사에 외설적인 표현이 많이 섞여있어 성적 요소가 현저하고, 이것은 구경꾼의 웃음을 자아내기 위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농경의례의 특징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5) 흥미위주의 놀이내용과 더불어 아직도 풍작을 기원하는 주술적 효과를 기대하는 면이 보인다.

(6) 놀이의 연극성이 매우 소박하여 배우와 관객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배역도 불분명하여 한 배우가 장면이 바뀔 때마다 다른 배역으로 나온다. 또 장면과 장면을 무대장치 없이 대사나 독백으로 처리하고 극적 실연이 어려운 부분은 해설로 하거나, 음향효과는 거의 의성적 발성으로 처리해 넘긴다.

구성

(1) 임신부와 소무
(2) 문점(임신부와 수심방)
(3) 출산
(4) 글공부
(5) 농사
  ①개간 및 화전
  ②씨뿌리기
  ③김매기
  ④추수
  ⑤타작
(6) 산판점

내용

먼저 수심방이 등장하여 세경놀이가 시작됨을 알리는 사설을 창한다. 소무들이 북과 장고를 치면서 사설을 받아 복창하고 사설이 끝나면 극이 시작되는데 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부로 분장한 여인이 소무를 찾아와서 배의 고통을 호소한다. 소무는 문점을 쳐보라고 한다. 수심방에게 문점온 여인은 과거를 실토한다. 여인은 시집살이에 혼줄이 나서 몰래 시집을 도망쳐 나오고 들판에서 오줌을 누다가 지나가던 건달에게 당하여 임심이 되었다 한다.

얼마 후 해산을 하고 치성을 올려 아들을 키우는데 아기는 버릇이 나쁘다. 글공부를 시키려 하였으나 아이는 천자문을 읽을 때마다 밥타령이다. 그래서 이놈은 글공부는 못하고 밥이나 처먹을 놈이라 하여 밭농사를 시키기로 한다.

그러나 밭이 없었으므로 애아버지를 찾아가 앙탈을 부려 밭을 얻어낸다. 밭을 돌아보니 잡초며 가시덤불이 우거졌다 하여 낫으로 풀을 베고 태운 다음 밭을 갈아 좁씨를 뿌리고, 마소를 몰아넣어 밭 밟은 장면을 사설과 노래를 섞어 연출한다. 조가 자라 김맬 때가 되어 일동이 호미를 가지고 김매는 노래를 부르며 김을 맨다.

풍년이 들어 거둘 때가 되면 낫을 들고 조 베는 장면과 묶어 거둬들이는 장면을 연기하고 마당에 모아 타작노래를 부르며 타작마당을 연출한다. 타작한 조를 광에 저장한 뒤 산판으로 농사의 흉풍을 점쳐서 끝을 맺는다.

놀이기구

이 놀이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 호미, 낫, 막대기, 돗자리, 채롱, 멱서리, 병 등 아무것이나 얼른 집어들어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관중의 웃음을 자아낸다.

이밖에 북, 장구, 꽹과리, 징 등 악기와 요령, 신칼, 산판 등 무구는 용도 외에도 유사한 형태의 소도구로 활용된다.

춘성수레싸움

민속놀이

유래

춘성 수레싸움은 해마다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춘천의 봉의산을 중심으로 그 앞쪽을 앞뚜루, 뒷쪽을 뒤뚜루로 하여 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서로 외바퀴 수레를 앞세우고 싸움을 벌여 승부를 겨루었던 놀이이다.

춘성 수레싸움은 이 고장에 전승되어 오는 민속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놀이이다.

이 놀이는 고려 태조 왕건이 공산성에서 후백제 견훤군을 맞아 싸우다가 포위되어 생사가 경각에 달렸을 때 당시의 개국공신 신숭겸장군이 태조의 어의에 어차를 타고 적군과 싸워 태조를 구하고 전사한 숭고한 살신성인의 정신과 끝내 어차를 보존한 충의를 기리기 위해 놀이화 되었다.

특색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대부분의 민속이 농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춘성 수레싸움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충의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몽고와 홍건적 등 수 많은 외적의 침입으로 국난을 당했을때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싸워온 주민들의 정신을 놀이에 담아 연례화시킨 것으로 역동적이고 박진감이 넘치는 남성적 놀이로 평가된다.

구성

춘성수레싸움은 대략 다음과 같이 네 마당으로 이루어진다.

(1) 첫째마당 : 출진
(2) 둘째마당 : 시위놀이
(3) 셋째마당 : 격전
(4) 넷째마당 : 승전고와 다짐

내용

춘성수레싸움은 놀이에 쓰이는 수레의 모양을 따서 외바퀴수레싸움이라고도 한다. 외바퀴수레를 만들 때에는 정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한 해 전에 깊은 산중에서 원목을 베어 묻었다가 다음해 행사에 쓸 수레를 제작하는데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하기 위하여 보름 전부터 금줄을 치고 제작했다고 한다.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자기 고을 방위를 다짐한 두 마을 사람들이 각기 외바퀴수레를 앞세우고 출진한다. 여기에는 마을을 대표하는 장수(派將이라 함)가 수레에 올라 지휘하는데 흥겨운 농악으로 사기를 돋우는 가운데 탐색에 의해 상대편 정황을 살피고 수레꾼이 수레를 밀고 나가 서로 겨루다가 격전을 벌여 장수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편이 지게 된다. 승리한 편은 마을을 누비며 마을의 무고와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가 하면 각 가정에서는 미리 빚어 놓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면서 온 마을이 한데 어울려 하루를 즐긴다. 과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진

싸움을 독려하는 징소리를 신호로 앞뚜루와 뒷뚜루 양군이 농악대를 앞세우고 기러기 모양의 대형으로 나온다.

수레꾼들은 농악대를 뒤따르며 자기편의 위용과 단합을 과시하기 위해 요란한 함성을 지르고 장수는 수레 위에서 자기편 수레꾼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지휘한다.

수레가 정위치에 오면 농악대는 자기편 뒷편에 반원형으로 도열하여 1채가락을 친다. 이어서 농악이 삼채변주가락으로 바뀌면 독전장의 지시에 의해 양군은 마주보고 인사를 나누는데 장수들은 건배를 한다.

(2) 시위놀이

양군이 각기 전투준비를 하며 장수의 지휘에 따라 적정을 살펴 전열을 가다듬고 장비와 수레의 속도 등을 시험·점검한 다음 그 위용과 사기를 과시한다. 이때 양군의 농악대는 자기편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빠른 가락으로 농악을 친다.

사기가 오른 양군의 대장이 독전장의 신호에 따라 돌진을 명령하면 수레꾼은 힘찬 함성과 함께 민첩한 동작으로 수레를 밀고 나간다. 양군은 싸움에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탐색전을 벌인다.

(3) 격전

양편이 서로 탐색전을 벌이다가 독전고가 울리면 수레를 힘차게 앞으로 밀고 나가 수레의 머리를 맞대고 상대편의 전력을 측정한다. 그리고 좌우 회전을 반복하면서 결전태세를 갖춘 다음, 총공격의 명령이 내리면 우렁찬 함성과 함께 수레를 맞부딪치면서 승부를 벌인다.

이때 수레가 파손되거나 장수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승부가 난다.

(4) 승전과 다짐

이긴 편은 농악으로 승전고를 울리며 짚신을 벗어 하늘높이 던져 승리를 만끽하고, 진편은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다음 해의 승리를 다짐한다.

놀이기구

농악을 위한 악기, 외바퀴수레, 깃발 등.

항두계놀이

민속놀이

유래

항두라는 말은 계의 평남 사투리로 항두계는 비상작업에 대비하여 조직된 특수 농군계이다. 농군계는 한발이 계속되다가 비가 오거나 기타 불의의 변고로 인하여 농사일이 급하게 되거나 밀렸을 때 농민들을 비상동원하는 제도인데 이는 비단 농사뿐만 아니라 기타 유사시에도 임기응변하는 자위수단으로 쓰였다.

항두계는 혈기왕성한 장정들을 뽑아 조직하고 계수(항두라고도 함)를 지도자로 하여 공수, 조수 등의 역할을 두고, 유사시에는 계수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한다. 한 곳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쾌속도로 돌격작업을 하는데, 이 모임의 규율이 매우 엄격하여 지각하거나 낙오하여 단체행동과 협동정신을 어기면 볼기를 쳤기 때문에 소집하는 박주례(뚝나무로 만든 나발) 소리만 나면 비상사태로 알고 일치단결하여 난국에 임하였다고 한다.

오늘날의 항두계놀이는 그러한 조상들의 항두계 활동이 놀이화하여 전해진 것으로 지금 '기나리'라는 노작가(勞作歌)의 명칭이나 작업중간의 음식을 '계나리'라 하는 것도 '계놀이'라는 어원에서 발생한 말이라 한다.

특색

항두계놀이는 달래강 망패싸움이나 북청사자놀음처럼 외세의 침략에 대비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놀이이다.

남도지방의 들노래나 놀이들은 거의가 그 흥겨움을 힘든 농사일에 조화시키고 있지만 평안남도 지방의 항두계놀이는 우선 진행과정이 군사훈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지방의 많은 민속놀이들이 군사적인 훈련과정과 접맥되어 있음은 그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넓지 않은 농토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놀이가 성행했음을 볼 수 있다. 나발을 불어 마을사람들을 동원하는, 전시를 방불케 하는 체제는 긴박한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공동체 의식을


양주별산대놀이

바탕에 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성

평남 항두계놀이는 다음과 같은 여섯과장으로 구성된다.

(1) 제 1 과장 : 씨앗고르기
(2) 제 2 과장 : 씨뿌리기
(3) 제 3 과장 : 모심기
(4) 제 4 과장 : 항두김매기
(5) 제 5 과장 : 계놀이
(6) 제 6 과장 : 방아찧기

내용

이 놀이는 영농과정을 노래와 춤으로써 형상화한 것으로 과장별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씨앗고르기

파종기를 당하여 주부가 씨앗고르기 준비를 한다. 제석항아리 속의 씨앗을 꺼내 며느리들과 씨앗고르는 작업을 연기한 후 무당을 데려다가 아니리조로 풍작을 기원하는 축원을 올린다.

축원이 끝나면 법고 장단에 맞추어 영신무로 바라춤을 춘다.

(2) 씨뿌리기

용강 '기나리'가락에 맞추어 흥겹게 씨뿌리는 모습을 무용으로 표현한다.

(3) 모심기

역시 기나리타령을 부르면서 논에 모심는 장면을 연출한다.

(4) 항두김매기

항두계놀이의 핵심부분으로 계수, 공수, 조수가 등장한다. 김매기 돌격작업을 하기 위해 조수가 박주례를 불면 동네 농군들이 뛰어나와 점검을 받는다.

점검이 끝나면 계수의 지휘아래 김매기를 시작하는데 김을 매면서 부르는 노래는 느린 호미타령과 자진타령이다.

잠시 작업을 쉬면서 수심가, 양산도 등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 집합, 휴식, 급식, 연락, 오락 등 작업도중의 진행은 모두 공수가 맡아서 진행한다.

(5) 계놀이

김매기가 끝나면 한바탕 들놀이가 벌어지는데 농군들이 온갖 숨은 재주를 자랑하면서 병신난봉가, 사설난봉가, 개타령 등을 흥겹게 불러 환희의 절정을 이룬다.

(6) 방아찧기

자진방아를 찧으면서 아낙네들이 태평성대를 구가한다. 돈타령으로 영복도 빌고 재복도 빈다. 나중에는 관객에게 무병장수 하라면서 명복떡을 던져준다.

8

제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67. 10. 28 ▶ 10. 30
부산공설운동장

제 8 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67. 10. 28-10. 30.
부산 공설운동장

대통령상
민속놀이(제주도)-민속놀이
국무총리상
양주산대놀이(경기)-민속극
문공부장관상
차전놀이(경북)-민속놀이
농악(전북)-농악
충무오광대놀이(경남)-민속극
장려상
들놀이(부산)-민속놀이
띄뱃굿놀이(전북)-민속놀이
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관노가면극(강원)-민속극
승전무(경남)-민속무용
미수상 참가작
해녀놀이(제주도)-민속놀이
농악(충남)-농악
농악(경남)-농악
다리굿(평남)-민속놀이
봉산탈춤(황해)-민속극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공로상
송파산대놀이(서울, 단체)
봉산탈춤(단체, 황해)
개인상
김준홍(다리굿, 평남)
김광숙(띄뱃굿, 전북)
이영철(농악상쇠, 부산)
양소운(봉산탈춤, 황해)
박설자(송파산대놀이, 서울)
김윤수(법고, 충북)

양주별산대놀이

민속극

유래

서울을 중심으로 근교의 애오개, 녹번, 사직골, 구파발, 퇴계원, 가몬돌, 노들, 송파 등지에 산대놀이가 전승되어 왔었는데, 이는 이조의 인조임금 이후 중국 사신의 영접, 또는 궁중행사에 연희되던 산대도감극이 폐지되자 여기에 속해 있던 연희자들이 각기 분산되어 그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여러 파의 산대놀이 집단을 형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애오개, 송파 등지의 산대놀이를 본산대라 부르는데 비하여 양주의 그것을 별산대라 부른다.

양주에서 산대놀이가 처음으로 시작된 때는 임진왜란 끝무렵으로 당시 양주목사가 군사와 관민을 위로하기 위하여 한양에서 본산대를 초청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200년 내지 150년 전에는 양주골에서도 매년 4월초파일이나 단오, 추석 등 큰 명절과 행사 때 대중놀이를 벌이면서 한양 사직골의 딱딱이패를 초청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공연 예약이 밀려 양주에서 공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을축이란 사람이 주축이 되어 한양 사직골 딱딱이패를 본떠 직접 탈을 제작하고 산대놀이 일파를 구성했는데 이것이 발전, 전승되어 온 것이 바로 산대놀이의 대명사처럼 널리 알려진 오늘의 양주별산대놀이이다.

특색

양주별산대놀이의 춤사위는 우리나라 탈춤 중에서 가장 분화 발전된 것으로 염불장단의 '거드름춤'과 타령장단의 '깨끼춤'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각각 10여 종류로 세분되는데 그 속에서 한국 민속무의 기본을

양주산대놀이 (경기)



찾을 수 있다.

춤의 반주악기로는 삼현육각, 즉 피리 두개, 젓대 하나, 해금 하나, 장구 하나, 북 하나로 구성되지만 이밖에 꽹과리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피리와 장고만으로도 춤을 춘다. 반주악은 자진 한잎, 삼현영산회상, 염불, 타령, 굿거리곡 등을 사용한다.

노래는 장단을 청하는 짤막한 불림과 매화타령, 백구타령, 천자풀이, 덕담 등으로 가지수가 많지 못하며 그것도 덕담외에는 첫 허두만 조금 부르다가 곧 재담이나 춤으로 바뀌어 버린다.

양주가면은 봉산가면에 비하여 보다 사실적이며 등장하는 총인원은 32명이나 겸용하는 가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가면수는 보통 22개 내외가 된다.

구성

사람에 따라 10과장 또는 12과장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길놀이와 탈놀이 8과장으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다.

(1) 길놀이 : 서막고사

(2) 탈놀이 : 첫째마당/상좌춤
둘째마당/옴중춤
셋째마당/먹중과 옴중놀이
넷째마당/연잎과 눈끔적이춤
다섯째마당/팔먹중놀이
여섯째마당/노장춤
일곱째마당/샌님춤
여덟째마당/신할아비와 미얄할미놀이

내용

탈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서막격인 길놀이를 먼저 하는데, 서낭대와 탈들을 앞세우고 풍물을 울리며 '집돌이'를 한다. 지신밟기를 겸한 집돌이를 하는 낮동안 집집을 돌며 춤과 덕담을 베풀어 음식을 대접받고 돈과 곡식 등을 추렴한다. 길놀이를 마친 다음 탈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탈판에다 제물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낸다.

고사가 끝나면 음복을 한 다음 탈놀이에 들어간다. 각 과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마당 : 상좌 둘이 등장하여 염불장단의 거드름춤으로 사방에 고하는 의식무를 춘다.

둘째마당 : 옴방망이를 든 옴중(옴이 오른 중)이 어린 상좌에게 희롱당하는 장면이다.

셋째마당 : 팔먹이중이 등장하여 먹중들이 옴중에게 희롱을 당하고 함께 소란을 떤다.

넷째마당 : 고승인 연잎(天殺星)과 눈끔적이의 눈살을 맞으면 생물체가 죽기 때문에 이들은 얼굴을 가리고 등장하여 먹중들과 옴중을 혼내준다.

다섯째마당 : 첫째 거리는 염불 놀이인데 팔먹중이 한사람씩 춤을 추며 한차례씩 등장하고, 완보(신명이 과한 중)는 꽹과리를 뒤허리에 차고 나와 재담을 나누며 논다. 둘째거리는 침놀이로, 침쟁이인 신주부와 먹중, 옴중, 완보, 말뚝이 등이 등장한다. 양반 4대가 양주 산대굿을 구경왔다가 술과 밥을 먹고 관격이 되어 사경에 빠지자 자손들이 완보를 만나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셋째거리는 애사당법고놀이로, 늙은 기생인 왜장녀와 그녀의 딸인 애사당이 등장한다. 팔먹중이 장구, 꽹과리, 징, 제금, 북, 소고를 치면서 왜장녀 모녀를 청하고 말뚝이가 애사당과 어울린다. 애사당이 법고놀이를 하다가 퇴장하면 말뚝이와 목중, 완보가 재담을 나누며 법고를 가지고 논다.

여섯째마당 : 첫째거리는 파계승놀이로 완보와 말뚝이가 노장을 희롱하고 노장은 소무를 어루어 노는 장면이고, 둘째거리는 신장수놀이로, 말뚝이와 원숭이가 등장하여 노장을 희롱하는 장면이다. 셋째거리는 취발이춤으로, 취발이가 등장하여 노장을 내쫓고 소무와 어울려 노는 장면이다.

일곱째마당 : 첫째거리에서는 샌님 일행이 하인 말뚝이를 데리고 과거를 보러가다가 산대굿 구경을 하고 날이 저물어 여인숙을 구한다. 둘째거리는 포도부장놀이로, 포도부장이 샌님의 첩인 소무와 놀아난다.

여덟째마당 : 신할아비와 미얄할미가 등장하는데, 미얄할미가 신할아비의 구박을 받고 죽는다. 미얄할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신할아비와 아들 도끼, 딸 도끼누이가 넋걸이를 한다.

양주별산대놀이는 파계승에 대한 조롱과 풍자, 지배계층의 횡포와 형식적 도덕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반항, 서민생활의 실상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특권계급과 형식적인 도덕에 대한 비판정신을 구체적으로 연출하는 민중극이라 할 수 있다.

놀이기구

배역이 따른 탈, 삼현육각, 기타 필요한 복장과 소지품 등.

강릉관노가면희

민속극

유래

강릉지방에는 기원을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부족국가시대부터 신라, 고려를 거쳐 근세 조선시대에 이르

기까지 단오제가 성행되어 왔다. 단오제에는 대관령국사성황제(속칭 국시서낭)를 비롯하여 산신제, 풍년굿, 가면희, 그네뛰기, 씨름, 농악 등 각종 행사가 1개월여 간 계속되었으며 그 중 관노가면희가 가장 여흥이 컸다.

현재의 가면희는 일제의 한민족 고유문화 말살정책으로 1909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것을 여러 문헌과 고로들의 고증을 종합, 거의 원형에 가깝게 재현한 것이다.(관노가면희는 그 해 연희가 끝나면 기물 일체를 소각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가면 제작과 연희 내용의 복원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징

(1) 관노가면희는 우리나라 가면희 분포로 보아 영남, 경기, 황해 어느 지방과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강릉지방 특유의 습속과 생활 감정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2) 강릉관노가면희는 다른 지방의 가면희와는 달리 대사가 전혀 없는 무언극으로 흥과 기교가 적은, 지극히 소박한 연희이다.

(3) 가면희 연희자가 하층계급이라는 점은 다른 지방과 같지만 연희자 전원이 관노로서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점은 이 연희가 특수계급에 대한 심한 조소보다는 오히려 신사의 의미가 짙다는 것을 말해 준다.

(4) 통상 가면에는 귀가 없으나 관노가면희에 사용되는 것에는 귀가 달려있다.

(5) 가면의 숫자가 적다.

내용

(1) 장자마리 개시

탈놀음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포대자루와 같은 포가면을 전신에 쓴 2명의 장자마리가 연희 개시를 한다.

요란하게 먼지를 일으키며 불룩한 배를 내밀면서 놀이마당을 넓히기 위해 빙빙 돌아다닌다. 관중을 희롱하기도 하고 선 사람을 앉히기도 하며 모의 성적인 행위의 춤도 춘다. 옷의 표면에는 말치나 나리 등 해초나 곡식을 매달고 속에는 둥근 대나무를 넣어 배가 불룩 나오게 한다. 장자마리는 희극적인 시작을 유도, 해학적인 춤을 추며 마당을 정리한다.

(2) 양반광대·소매각시 사랑

양반광대와 소매각시는 장자마리가 마당을 정리한 후 양쪽에서 등장한다.

양반광대는 뾰족한 고깔을 쓰고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점잖고 위엄있게 등장하여 소매각시에게 먼저 구애를 한다. 소매각시는 얌전한 탈을 쓰고 노랑저고리·



관노가면극 (강원)

분홍치마를 입고 수줍은 모습으로 춤을 추며 양반광대와 서로 뜻이 맞아 어깨를 끼고 장내를 돌아다니며 사랑을 나눈다.

(3) 시시딱딱이 훼방

시시딱딱이는 무서운 형상의 탈을 쓰고 양쪽에서 호방한 칼춤을 추며 뛰어 나온다.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사랑에 질투하여 훼방을 놓기로 모의한다. 때로는 밀고 잡아당기며 훼방하다가 결국 둘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시시딱딱이는 무서운 벽사가면을 쓰고 작은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며 놀이 내용상 갈등요인으로 등장한다.

(4) 소매각시 자살소동

시시딱딱이가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사이를 갈라 한쪽에서는 양반광대를 골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매각시를 희롱하며 춤추기를 원하나 소매각시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한다. 이것을 본 양반광대는 크게 노하여 분통해 하다가 시시딱딱이를 밀치고 소매각시를 끌고 온다. 양반광대의 질책에 소매각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양반광대의 긴 수염에 자신의 목을 매려고 한다. 결국 소매각시의 결백 호소에 마음이 움직여 측은한 생각으로 소매각시를 용서한다.

수염으로 목을 감는 모습은 해학적이며 권위의 상징인 수염을 당기어 결백을 증명하는 내용은 풍자적이기도 하며 죽음의식을 초월한 비극적 상황의 희곡화된 표현이기도 하다.

(5) 양반광대·소매각시 화해

수염을 감고 자살을 기도하여 결백을 증명하려 했던 소매각시의 풍자의식과 양반광대의 관용이 화해의 마당으로 이끌어진다. 서로 오해가 풀리고 결백함이 증명되므로 이 놀이는 흥겨운 화해와 공동체 마당으로 끝을 맺는다.

9

제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68. 10. 18 ▶ 10. 20
대전공설운동장

제 9 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68. 10. 18–10. 20.
대전공설 운동장

대통령상
차전놀이(경북)–민속놀이
국무총리상
영등굿놀이(제주도)–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은산별신굿(충남)–민속놀이
강릉성황제가면희(강원)–민속극
장려상
양주산대놀이(경기)–민속극
해녀놀이(제주)–민속놀이
민속놀이(황해)–민속놀이
농악(충남)–농악
농악(부산)–농악
농악(전남)–농악
미수상 참가작
함렬농기뺏기(전북)–민속놀이
농악(충북)–농악
아리랑무용(경남)–민속무용
봉산탈춤(황해)–민속극
북청사자놀이(함남)–민속극
공로상
함렬농기뺏기(전북)
농악(충북)
봉산탈춤(황해)
북청사자놀이(함남)
아리랑무용(경남)
개인상
박영희(영등굿놀음, 제주)
김은미(은산별신굿, 충남)
전춘옥(전남농악)
박철한(전남농악)
이영철(부산농악)
여재성(북청사자놀음, 함남)

안동차전놀이

민속놀이

유래

이 놀이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러가지 설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후백제의 왕 견훤은 원래 지렁이였는데 사람으로 변하여 안동에 내려 왔다고 한다. 그때 주민들은 견훤을 몰아내기 위하여 소금배를 풀어 낙동강 물을 짜게 만든 다음, 모두 나와 팔짱을 끼고 어깨로 밀어 지렁이(견훤)를 강물에 밀어떨어뜨려 죽였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안동 사람들은 손을 쓰지 않고 어깨로 밀어 붙이는 동채싸움놀이를 했다고 한다.

또한 고려 태조 왕건이 견훤과 안동에서 결전하게 되었을 때 세 장군이 왕건에게 가담하여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 후 이 세 사람을 삼태사라 이르고 승리로 이끈데 대한 기념으로 이 놀이를 시작했다는 설도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하면 견훤은 지렁이의 아들로 되어 있다. 고대의 전설이 영웅의 탄생을 신비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견훤의 탄생에도 전설적 요소가 풍부하다.

안동 차전놀이가 견훤을 격퇴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라면 그 본성인 지렁이에 착안했을 것이다. 또 지방인들의 말대로 삼태사의 승리에서 이 놀이가 유래했다고 한다면 놀이역사는 고려초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할 문헌이 없다.

특색

이 놀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차전놀이 (경북)



첫째, 놀이에 쓰이는 동체는 곧고 위아래 굵기의 차이가 없는 참나무라야 하는데 그 재목을 선정, 벌목, 운반,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잡인의 근접을 막아 동체를 신성시하는 것을 볼 때 이 놀이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둘째로, 편을 동·서부로 나눌 때 주거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출생지를 기준으로 한다.

셋째로, 한 지휘자에 의하여 일사불란한 명령체계가 서 있는 점에서 대체로 무질서하기 쉬운 집단놀이를 한층 세련시킨 높은 수준의 모의전투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가자의 집단의식, 단결심, 협동정신의 함양은 물론이고 상무적인 면에서 볼 때 놀이중에 부상자가 생기면 지휘자는 일단 싸움을 중지시키고 그를 보살핀 후에 다시 시작하는 등 신(信), 인(仁), 의(義)를 존중하는 이른바 전승지방의 성격이 잘 드러난 놀이라 하겠다.

구성

안동 차전놀이의 놀이순서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째끼동체놀이

(2) 우군맞이

(3) 대전

내용

가을 추수가 끝나면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서 차전놀이(동채싸움)의 거행여부를 결정한 후 상대편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통보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즉시 동부 서부 쌍방이 싸움을 공포하고 동채를 제작하는 등의 준비에 들어간다.

(1) 째끼동채놀이

정월이 되면 마을의 청소년들이 대보름날의 대전을 앞두고 편을 나누어 함성을 지르며 째끼동채놀이를 한다. 서로 밀고 밀리는 공격을 하면서 행진을 한다. 성급한 사람들은 10일 지나면 자기 출생지인 친척집에 투숙하며 이 놀이에 가담한다.

(2) 우군맞이

동채싸움을 위해 우군이 무리져서 각 면에 도착한다는 기별이 오면 같은 편의 한 패가 마중을 나가 10m 거리를 두고 '동부야', '서부야'하는 우군의 사기를 돋우기 위한 함성을 올린 다음 그 자리에서 동동거리며 손을 높이 올려 춤을 추다가 돌진하여 서로 부둥켜 안고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후 다시 양분하여 서로 힘차게 밀어 놀이꾼 중의 머리꾼을 훈련시킨다. 이때 전체가 회전하기도 하고 양패가 보폭을 달리하여 달리기도 하며 협동과 단결력을 기르는 훈련을 한다.

(3) 대전

대전 당일이 되면 각처에서 모여 든 관중들로 만장을 이루고 놀이꾼들은 각기 우군을 모아서 째끼동채에 사람을 태운 후 대전장으로 합류하여 들어와 연습놀이를 한다. 이어 양군의 정동채가 나타나면 먼저 도착한 놀이꾼들은 자기편 대열에 끼어들어 머리꾼싸움을 한다. 이때 정예 놀이꾼들은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상대편의 주력 동태를 탐지하면서 힘을 축적한다.

머리꾼싸움이 두 세시간 계속되다가 지휘사령부가 결전에 합의하면 지금까지 머리꾼싸움을 지휘하던 부대장과 교체하여 대장이 나선다.

새로 동채에 올라간 대장이 신호와 구호로 '밀어라' 하면 이를 계기로 정예 놀이꾼들이 몰래 대열에 섞여 들어가 점차 최후의 결전태세로 개편된다. 대체로 40~50분만에 승부가 나는데 이때 양패의 농악대는 풍악으로 사기를 돋운다.

싸움의 과정에서 우군이 밀리면 관전하던 사람들도 가세를 한다. 아군이 절대 유리한 순간이라도 적의 머리꾼이 쓰러져 위기에 처하면 즉시 후퇴하여 구출하고 다시 승부겨루기를 계속한다.

영등굿놀이

민속놀이

유래

제주도에서는 예로부터 영등신이 섬김의 대상이다. 이 신은 음력 이월 초하루에 들어와서 보름까지 제주 해변에 많은 해산물을 번식시켜 준다고 한다. 그래서 음력 이월을 '영등달'이라 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신앙이 얽혀있는 영등신에 대한 굿이 바로 영등굿이다.

동국여지승람이나 동국세시기 등에도 영등굿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영등굿의 기원은 다음의 전설에서 비롯된다.

옛날 한 어부가 풍랑에 쫓겨 외눈박이섬에 표류했다. 이 섬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외눈박이 괴물이 살고 있었는데 어부는 다행히 죽지 않고 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얼마 뒤에 다시 한사람이 표류해 왔다. 먼저 표류된 사람은 나중 사람을 살려보내며 이르기를 "내가 당신을 살려보내면 나는 외눈박이 괴물들에게 죽게 된다. 해마다 정월 그믐에 우도에 도착하여 이월 초하루에 나와 당신의 고향으로 갈 것이다. 내가 가는 증거로 보말을 까먹으며 갈 것이니 보말 속이 비었거든 내가 가는 줄 알고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 그래서 해마다 이월이면 보말 속이 비고 영등굿을 시작하게



영등굿놀이 (제주)

되었다고 한다.

특색

제주도의 무당굿 형식에 '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화의 내용을 극적으로 실연하는 것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영등굿은 그런 극적 실연이 희박하다.

영등굿놀이의 특징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영등굿은 맞이굿 형식이 중심이 된다. 영등신을 맞아들이기 위해 신이 내림할 길을 돌아보고, 거친 길을 닦아 무명으로 다리를 놓는 과정을 맞이굿이라 하는데 영등굿에서도 이를 섬세한 가무로 표현한다.

둘째, 영등굿은 생산의례적 성격이 강하다. 해산물의 증식을 위한 제례적인 요소가 많다.

셋째, 영등굿은 해양민속적 색채가 짙다. 해녀와 어부들의 해상안전을 빌고 풍요로운 생산을 기원하는 것이다.

구성

영등굿의 구성은 마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1) 초감제
(2) 요왕맞이
(3) 씨드림(씨점)
(4) 산받음
(5) 액막이
(6) 배방선

내용

굿날 아침에 심방들과 마을의 대표들이 당에 모여와서 먼저 '삼천뱅맷대'라고 하는 큰대를 세우고 그 밑에 젯상을 마련한다. 그리고 수심방이 나와서 과정에 따라 굿을 진행한다.

(1) 초감제

초감제는 여러 신들을 청해 앉히고 소원을 축원하는 것이다. 수심방은 여러 신들을 청하는 노래를 부르고, 노래의 단락과 단락 사이에 무당춤과 악기연주가 들어간다. 신을 청해들이면 수심방은 참가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일일이 아뢰어 축원해주고 참가자들은 모두 신전에 나아가 배례를 한다.

(2) 요왕맞이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치워 닦는 맞이굿에 해당되는 대목이다. 요왕길을 치우는 의식은 섬세하고 다채롭다. 긴 무명을 깔아 다리를 놓은 뒤 모두 꿇어엎드려 소지를 살라 축원한다.

(3) 씨드림(씨점)

씨드림이란 번식시키는 것을 말하며 미역, 소라, 전복 등 해녀 채취물의 씨를 바다에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악기소리에 맞추어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 좁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고 다시 당에 돌아오면 씨점을 한다. 수심방이 돗자리 위에 좁씨를 뿌리고, 흩어진 모양새로 해산물 채취의 길흉을 점친다. 씨점이 끝나면 수심방이 서우젯소리를 흥겹게 불러대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며 신을 즐겁게 한다.

(4) 산받음

굿에 참가한 마을 사람들이 각 가정별로 그해의 길흉을 점쳐보는 의식이다. 심방이 한사람씩 차례로 산판점을 쳐준다.

(5) 액막이

마을 전체의 1년간 액을 막기 위한 의식이다.

(6) 배방선

굿이 끝났으니 영등신을 배에 태워 보내는 대목이다. 짚으로 만든 조그만 배에 갖가지 제물을 조금씩 싣고 바다에 띄워보냄으로써 끝을 맺는다.

놀이기구

큰대, 젯상, 제물, 신칼, 산판, 요령, 퇴송선(짚으로 만든 조그만 배), 악기(북, 장고, 징, 꽹과리) 등.

은산별신굿

민속놀이

유래

은산의 별신제는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지내게 되었는지 그 기원이나 유래에 대하여 고증할만한 문헌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별신제에 대한 전설은 여러가지로 전해오고 있는데 이런 전설들은 종합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

즉 옛날 은산에는 몹쓸 병마가 퍼졌으며, 마을 노인의 꿈에 신선 또는 백제장군·노장군이 나타나서 억울하게 죽은 자기의 백골을 잘 매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마을 사람들이 현몽대로 백골을 안장하고 위령제를 지냈더니 병마도 물러가고 마을이 태평해졌다는 것이다.

별신당에서 매년 한번씩 소제를 지내는데 이를 산제라 하고, 3년마다 한번씩 대제를 지내는데 이를 별신이라 칭한다.

특색

위의 유래에서 살펴보았듯이 은산 별신제는 위령제로부터 출발했다. 원귀를 진정시켜 나쁜 병을 몰아내고 동네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호신제였음이 주목된다. 그 시기는 월동하는 뱀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 지내는데 윤달은 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별신제 기간중에는 시종일관 엄격한 금기가 행해지는 점도 특이하다.

구성

은산별신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진대베기
(2) 꽃받기
(3) 행군
(4) 제사
(5) 하당굿
(6) 독산제
(7) 장승제

이밖에 인원구성은 대장, 중군, 사령집사, 선배비장2, 후배비장2, 통인, 화주, 육화주, 별좌3, 축관 등의 임원과 무당, 조화자, 삼현육각을 갖춘 6인의 공인, 꽹과리·징·북·장고를 갖춘 농악대, 기수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수는 모두 31명으로 영기1, 농기1, 사령기1, 24방기 24, 음양기4로 구성된다. 이외에 또 나팔수2, 구등6, 화속6인 등 모두 100여 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된다.

은산별신굿 (충남)



내용

별신제를 지내려면 먼저 별신제 기성회를 구성하고 이 기성회에서 날짜와 임원, 제반 행사내용을 결정한다. 별신제의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제1일 : 진대베기, 제2일 : 휴식, 제3일 : 꽃받기, 제4일 : 휴식, 제5일 : 별신올리기, 제6일 : 행군과 축원, 제7일, 제8일, 제9일 : 행군과 축원, 제10일 : 별신내리기·하당굿, 제11일 : 별신내리기·하당굿, 제12일 : 화주만의 독산제, 제13일 : 장승세우기

각 과정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대베기

임원 일동이 성장을 하고 공인들이 악기를 요란하게 울리며 광대들이 땅재주를 해가면서 행군하여 진대를 베러 간다. 진대란 3m정도의 작은 참나무 4그루를 베는 것을 말하는데 별신대라고도 한다. 베어온 날 사방 길목에 세워져 있는 장승 옆에 세워 잡귀를 예방한다.

(2) 꽃받기

별신제 2일 전에 꽃을 받으러 가는 꽃받기기 행해진다. 꽃은 가까운 절에 미리 주문했다가 받아오는데, 임원 일동이 행군을 해서 신중히 모셔다가 깨끗한 방에 제사일까지 두는데 여기는 출입이 금지된다.

이 꽃은 제사일 아침에 화주집에 옮겨놓았다가 제물의 선두에서 별신당으로 올린다.

(3) 행군

별신제에는 역원 일동과 대장·중군·선배비장·후배비장·통인은 정장하여 말을 타고 행군한다. 행군은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대베기, 꽃받기 때와 별신 올릴때, 내릴때, 하당굿을 할 때 등 3~4일 동안은 매일 한 두 차례씩 시내를 돌고 별신당 앞까지 행군한다.

(4) 제사

행렬이 시내를 돌아 당 앞에 가서 기를 꽂아놓고 진설을 끝내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제사는 대개 밤에 지내게 된다.

별신제 때에는 산신제를 따로 지내지 않으므로 제물은 두 벌을 진설한다. 진설이 끝나면 공인의 음악에 맞추어 무녀가 춤을 추며 비는 당굿이 있게 되는데 이때 임원 일동과 동민들은 옆에 도열한다.

당굿이 끝나면 화주·내화주·축관·별좌 등의 제관에 의한 정식 제사가 시작되어 강신, 참신, 삼헌향(三獻饗), 독축으로 이어진다. 독축은 먼저 산 제축을 읽고 다음 장군축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동네 각 세대주의 소지를 올린다.

제사의 중간에 무녀와 악공에 의하여 가무가 있으며

밤이 깊어서 제사가 끝난다. 첫닭이 울면 제물을 화주집에 내리고, 무녀·악공·농악대에 의하여 밤새 여흥이 계속된다. 아침이 되면 제물을 안주로 삼아 동민의 주연이 벌어지고 제물의 일부를 각 가정에 봉송해서 나누어 먹는다.

(5) 하당굿

별신이 내리는 날, 별신당에서 출발해서 시장안의 큰 괴목까지 행군한 다음, 괴목앞에서 하당굿을 한다. 큰 고리짝에 쌀을 가득히 담고 그 가운데 요령이 매달린 농기를 세운다.

무녀에 의하여 진행되는 하당굿은 농기에 매달린 방울이 울릴 때까지 하는데, 무당이 임원 전원과 기부자의 축원을 한다.

(6) 독산제

별신을 내리고 하당굿을 마친 3일 후에 독산제를 지낸다. 독산제는 화주 혼자서 별신당을 찾아가 하게 되는데 별신제가 끝남을 고하는 의식이다.

(7) 장승제

독산제가 끝난 다음날 장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낸다. 장승은 통나무로 깎아 만들고 농악대를 선두로 행렬해서 묵은 것을 버리고 새 장승을 세운다. 장승을 세우고 나면 14~15일에 걸쳐 거행된 별신제가 끝난다.

놀이기구

(1) 악기 : 삼현육각, 농악기 등

(2) 기 : 영기, 농기, 사령기, 24방기, 음양기 등

(3) 기타 : 제사에 필요한 제물·제기, 조화, 장승 등

부산농악

농악

유래

농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고대 농경사회에서 파종기나 추수기에 있었던 제천의식등의 축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시 수렵시대에 짐승을 쫓으며 소리쳤을 듯한 함성이나 포획 후의 환호성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 막대기로 소리나는 물체를 두드리며 즐기다가 추는 엉덩이 춤에서 그 유래를 추측할 수 있다.

차츰 생활의 진보에 따라 소박한 형태의 타악기가 조금씩 개량되고 발전되어 오늘날에는 사물에 소고, 호적 등이 첨가되었고 아울러 그 장단도 단조로운 가락에서 다채로운 가락으로 닦아져 왔다.

부산은 개항이 되기 전인 조선조 말만 하더라도 하나의 조그마한 어항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부산농악'이라함은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 본 농악일 것이다.

'부산농악'은 부산시 서구 아미동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으며, 음력 정초에 가가호호를 돌면서 농악을 하며 고사를 지내고 복을 빌어주는 형태의 걸립농악이 주류를 이룬다.

부산농악은 일제하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고난을 겪어오다가 1953년 초에 '아미농악'이란 명칭으로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색

(1) 타 농악에 비해 박자가 느린 4박자 장단이 많고 춤이 많이 삽입되어 있는데 상쇠와 부쇠, 그리고 소고잽이들만 상모를 쓰고 나머지 징, 북, 장고잽이와 그 밖의 놀이꾼들은 고깔을 쓴다.

(2) 상모돌리기, 백구놀이의 기능이 뛰어나며, 특히 4북이 일치되어 배지기로 대북을 안고 넘는 기교는 일품이다.

구성

부산농악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듬굿
(2) 길굿
(3) 인사굿
(4) 맞춤굿
(5) 문굿
(6) 오방진
(7) 마당굿
(8) 호호굿
(9) 우물굿
(10) 다드래기굿
(11) 농사풀이
(12) 풍년굿
(13) 버꾸놀음
(14) 개인놀이
(15) 열두발상모놀이

내용

각 과장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듬굿 : 흩어진 단원들을 집합시키기 위하여 상쇠가 단마치를 울리면 전원이 모이고 2채, 3채의 가락으로 넘어간다.

(2) 길굿 : 행진굿인 길군악은 농기를 선두로 하여 7채가락으로 상쇠 이하 전원이 종대로 행진한다.

(3) 인사굿 : 관중에게 인사하는 굿으로 3채와 5채

를 친 후 8채의 가락으로 넘어간다.

(4) 맞춤굿 : 3채로 정돈을 하고 뒤로 돈 다음 다시 본래 방향으로 돌며 훈련하는 과정에서 7채로 연결된다.

(5) 문굿 : 남의 집 문에 들어서면서 문굿을 하는데 가락은 2채와 3채로 이어지며 7채로 끝난다.

(6) 오방진 : 마당 네군데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마당의 잡귀를 몰아내는 것으로 가락은 4채, 8채, 10채이다.

(7) 마당굿 : 늦은 춤 장단에서 덧베기가락으로 이어지면서 판굿에서 다양한 묘기를 선보인다. 4채, 8채, 12채의 가락이다.

(8) 호호굿 : 2채로 흥겨운 소리굿을 시작한 다음 4채로 넘어가며 전 단원이 '之'자로 뛰면서 원을 돌며 '호호' 소리를 지른다. 마지막에 가락이 8채로 바뀌면 버꾸들은 반대로 돈다.

(9) 우물굿 : 오방진이 끝난 후 전 단원을 점호하여 상쇠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가락은 3채, 6채 12채이다.

(10) 다드래리굿 : 3채로 시작하여 단모리 7채가락으로 넘어가며 전 단원이 일사불란하게 일렬로 서서 몰아치는 가락이다.

(11) 농사풀이 : 농사풀이는 한 해의 농사짓는 과정을 흉내 내는 것이다.

(12) 풍년굿 : 풍년이 들어 흥겨워하는 모습을 덧베기 4채, 8채가락으로 표현한다.

(13) 버꾸놀음 : 4채, 8채의 가락으로 버꾸잽이들이 묘한 기교로 춤을 춘다.

(14) 개인놀이 : 상쇠로부터 시작하여 버꾸놀이, 상모놀이, 대북, 장고 등 다채로운 개인놀이를 한다.

(15) 열두발상모놀이 : 12발이나 되는 긴 상모를 여러가지 몸동작으로 돌린다.

놀이기구

영기, 농기, 호적, 꽹과리, 징, 북, 장고, 소고, 법고 등 필요한 기와 악기, 의상 및 소도구가 필요하다.

함열농기빼기

민속놀이

유래

함열은 전라북도 익산군의 함열읍의 이름이다.

이 함열지방에 전래되어오는 기싸움 또한 농기빼기는 그 역사적 전통이라든가 성대한 규모에 있어서 타 지방의 것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었다고 한다.

조선 및 조선민족(1927년 조선사상통신사 발행), 한국민속고(송석하 지음 1960년 일신사 발행) 등의 문헌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 기싸움은 1940년까지도 성행하였다고 하는데 이젠 찾아볼 수 없는 놀이가 되었다. 그러나 위의 두 문헌을 근간으로 현지를 답사하고 이 지방 촌로들의 체험 내지 목격담을 종합하여 복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함으로써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특색

익산지방에 널리 펴져있는 기세배 놀이의 형식에서 파생된 점이 특이하다.

구성

모두 일곱 마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제 싸움을 시작하기 전의 과정이 매우 단단한 형식을 갖추는데, 이는 기세배의 의미가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데에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기고기→농기행차→수동기의 위세→기놀음→교동기의 과욕→농기싸움→승자기의 아량 등의 과정을 밟는다.

내용

(1) 기고기(旗告記)

전야제에 해당하는 과장이라고도 하겠다. 즉 음력 정월 14일에 보름날에 있을 기싸움을 앞두고 각 부락 단위로 거행하는 농기에 대한 고사라고 할 수 있다.

부락의 유지들이 공동으로 거출하여 3색과를 비롯한 각종의 제수를 정성껏 마련하여 그 부락민 가운데 어느 한 집(특히 어떤 소망이 있는 집에서 유치) 안에 세워놓은 농기 앞에서 그 부락 좌상의 집행 아래 거행하게 된다.

고사가 끝나고 부락민들은 음식을 고루 나누어 먹게 되는데, 이는 여느 고사와 마찬가지로 병에 걸리지 않고 복이 온다는 믿음에서 온 것이다.

(2) 농기의 행차

음력 정월 15일 기싸움이 있는 날이되면, 각 부락의 장정들은 농기를 앞세워 호위하고 흥겨운 농악을 울리며 싸움터로 출전한다. 싸움터는 마을 앞에 넓게 펼쳐져 있는 들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냇가의 모래밭이 쓰인다.

이때 전 해의 농사가 잘되어 부락의 형편이 좋은 해에는 기생이나 소년 재인(광대)을 사서 곱게 단장시켜 장정의 어깨에 올려 세워 농기의 길을 트기도 한다. 이 역할을 맡은 기생을 '참꽃나무', 소년 재인을 '중꽃나무'라고 하며 '참꽃나무'나 '중꽃나무'는 장정의

어깨 위에서 춤과 노래로 농기 행차의 흥을 돋우는데, 농악놀이나 굿에서 무동을 어깨에 올리고 흥을 돋우는 것과 유사한 형식이랄 하겠다.

(3) 수동기의 위세

함열은 6개 리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읍으로 승격되어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일제시대에는 5개 구역, 구한말에는 4개 구역이었는데 수동·교동·천남·행동이 곧 그것이다. 이 4개 구역 가운데 수동은 객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며, 이 구역의 농기는 가장 어른 행세를 하였다. 기싸움이 있는 날에도 이 수동기는 제일 먼저 싸움터에 나와 있게 되고 다른 구역의 농기들도 이 싸움터에 다다르면 곧 이 수동기에게 격식을 갖추어 존경의 세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듯 수동기의 위세는 자타공인의 당당함과 어른의 자세를 보이고 신성불가침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4) 기놀음

농기행차를 할 때에도 그렇지만 농기를 들고 가는 역할을 맡은 장정기수가 기를 자유자재로 놀리는 뛰어난 묘기는 싸움터에 이르러서 그 절정을 이룬다.

(5) 교동기의 과욕

향교가 있는 교동의 농기는 수동기의 옆자리를 차지하여 천남과 행동의 농기에게서 세배를 받고자 한다. 그러나 천남과 행동의 기는 이에 응하려 하지 않는다. 장정들은 교동기의 깃대가 다른 동에서 후가살이를 온 것이라고 하여 트집, 오히려 먼저 세배를 올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야단이다. 이것이 기싸움의 발단이다.

(6) 농기싸움

이 놀이의 절정이다. 농악대의 자진가락에 장정들은 서로가 상대방의 기세배를 재촉하다가 드디어 완력을 휘둘러 싸움이 시작된다. 이 싸움에서 어느 한 구역의 농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깃대마저 분질리고 만다. 그리하여 패자가 되는 것이다.

(7) 승자기의 아량

이긴 부락의 장정들은 농기를 앞세우고 패자를 위로하는 아량을 베푼다.

다른 지방의 기싸움에서는 그 승패로 논물과 작항의 우선권을 정한다고 하나 이 지방에서는 그러한 조건 없이 승자나 패자 모두 어울려 흥겹게 즐기는 특색을 가진다.

놀이기구

농기, 꽹과리, 징, 북 등과 기타 소도구들이 필요하다.

10

제1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69. 10. 3 ▶ 10. 5
대구종합경기장

제10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69. 10. 3–10. 5.
대구종합경기장

대통령상
고싸움놀이(전남)–민속놀이
국무총리상
한장군놀이(경북)–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영양모내기(경북)–민요
안동논매기(경북)–민요
답교놀이(서울)–민속놀이
해녀놀이(제주)–민속놀이
농악(전북)–농악
장려상
은산별신굿(충남)–민속놀이
농악(충북)–농악
농악(충남)–농악
농악(강원)–농악
미수상 참가작
민요(서울)–민요
성주풀이(제주)–민속놀이
민요(제주)–민요
영등굿놀이(제주)–민속놀이
농악(부산)–농악
농기뺏기(전북)–민속놀이
양주별산대놀이(경기)–민속극
오방성주풀이(부산)–민속놀이
목우희(경남)–민속놀이
공로상
오방성주풀이(부산)
민요(평남)
농기뺏기(전북)
목우희(경남)
양주별산대가면극(경기)
개인상
양신생(제주)
홍성연(전북)
이재준(경북)
이충선(서울)
정재형(충남)
유경성(경기)

고싸움놀이

민속놀이

유래

고싸움놀이는 전라남도 광산군 대촌면 칠석리 웃돌마을에서 해마다 정월 초순경부터 시작하여 16일에 절정을 이루는 세시풍속의 하나이며, 이 지방 고유의 민속놀이이다.

이 고싸움놀이의 역사적 유래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상세히 살펴볼 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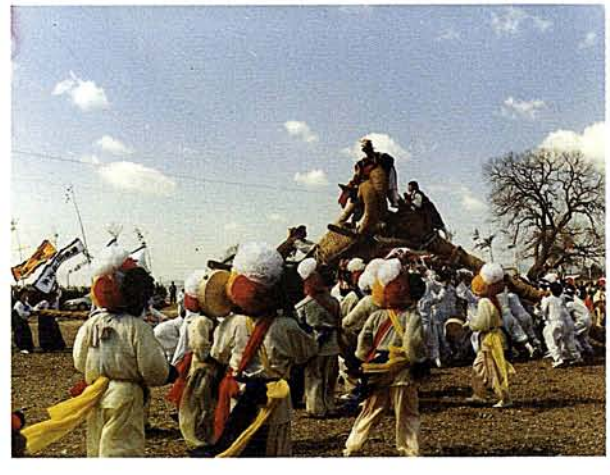
다만 전승지 촌로들의 말을 빌리면 웃돌마을은 풍수지리설에 와우상이라 터가 거세어서 이 기를 누르기 위하여 이 놀이가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전설은 전국적으로 큰 마을마다 전해지는 것으로서 믿을만한 근거는 못된다.

그래서 이 놀이의 양상을 가지고 추론해 보면, 이 고싸움은 전남의 장흥지방을 중심으로 한 대보름 줄다리기(줄쌈이라고도 함)의 전희에서 분리 형성된 놀이라는 것이다. 그 논거는 오늘날에도 장흥, 강진, 해남의 줄다리기에서 그 전희로써 이 고쌈놀이라는 것을 벌이고, 이어서 줄다리기를 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줄다리기의 전희인 고쌈은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된 고싸움놀이와는 차이가 있지만 장흥지방에서는 줄다리를 고싸움이라고도 부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색

고싸움놀이는 우리나라 민속놀이 중에서도 가장 투지가 넘치고 격렬한 놀이이다. 때문에 옛날에는 부상자가 많이 생기고, 고싸움이 끝나면 서로 인사는 물론, 품앗이도 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같은 현

고싸움놀이 (전남)



상이 빚어지는 이유는 이 놀이의 세 가지 기능 때문이다.

첫째,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민속신앙적 기능이다.

둘째, 자기 마을 사람들을 단결시켜 협동심을 북돋우는 사회적 기능이다.

셋째, 놀이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는 농악대의 우수함을 서로 과시하려는 예술적 기능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격렬한 대결을 벌이는 것이다.

구성

고싸움놀이는 특별히 놀이과장이 나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옛날에는

(1) 고샅고싸움 (2) 고만들기 (3) 당산제 (4) 매귀굿 (5) 샘굿과 판굿 (6) 마당밟기굿 (7) 행군 (8) 격전 (9) 뒷마당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오늘날에는 기풍이나 점풍행사로서의 제의축제가 아니라 하나의 민속놀이 축제의 기능이 확대되어 과정이 일부 생략되어 (1) 고만들기 (2) 행진 (3) 싸움준비 (4) 결전 (5) 뒷마당 등의 과정을 거친다.

놀이꾼의 구성은, 우선 동부(상촌)와 서부(하촌)으로 나누고 각 편은 다시 지휘자인 줄패장, 고를 메고 싸우는 멜꾼 7~8명, 꼬리줄잡이 70~80명, 농악대, 깃발과 기수, 횃불잡이(10) 등으로 이루어진다.

내용

고싸움놀이는 옛날에는 음력 정월 초열흘경, 어린이들의 고샅(골목)고싸움부터 시작되었다. 위 아랫동네 어린이들이 조그만 고를 만들어 서로 어르고 놀리면서 싸움이 커져 드디어 16일에는 온 동네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본격적 놀이가 되어 절정을 이루고, 17일부터는 진편이 재도전하기도 해서 20일까지 계속하다가 승패가 나지 않을 때에는 2월 초하루 고를 풀어서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로 최후 승패를 겨루었다.

오늘날에는 제의적 의미가 퇴색하고 일종의 전통계승을 위한 놀이로 정착되어 제1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때의 진법을 많이 활용한다.

정월 13일과 14일에는 놀이에 쓸 고를 만든다. 정월 대보름날 오후에 상·하촌 놀이꾼들은 줄을 메고 각기 자기 마을앞을 행진한 다음 동네앞 논으로 향한다. 이때 노래를 부르고 농악을 치면서 흥을 돋운다.

놀이판에 이르면 상호간에 전의를 북돋우는 노래와 환성을 지르면서 전열을 가다듬는다. 한참 서로 어루면서 분위기가 고조되면 줄대장의 지휘에 따라 두고가 서로 마주보고 싸움준비를 한다.

앞으로 전진했다가 뒤로 물러서기를 몇번 거듭하다가 줄패장이 '밀어라!'하고 명령하면 놀이꾼들은 함성을 올리며 돌진하여 상대방 고의 정면에 부딪친다. 그러면 고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고 위의 줄패장들은 서로 엉켜 밑으로 밀어내려고 싸움을 벌인다. 이렇게 한참 접전을 하다가 힘이 빠지면 줄패장은 '빼라!'하고 명령한다. 양편이 뒤로 물러나 휴식하는 동안 양 고의 사이에 끼어들어 한바탕 신나게 논다.

휴식을 취하고 전열이 가다듬어지면 다시 돌진하여 접전한다. 그렇게 몇번의 접전 끝에 결국은 승패가 나게 된다. 싸움이 끝나면 진편이 또다시 접전하려고 달려드나 이긴쪽이 고머리를 돌려 응전하지 않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자기 마을로 향한다. 진편은 억울하지만 할 수 없이 농악대를 앞세우고 자기 마을로 돌아간다.

마을에 도달한 놀이꾼들은 고를 내려놓고 부농집에 마련된 주안상에서 술을 마시며 농악으로 흥겹게 놀면서 내년을 기약한다.

한장군놀이

민속놀이

유래

이 놀이는 경북 경산군 일대에 전승되고 있는 민속놀이로 해마다 단오를 전후하여 3일간 거행된다.

한장군은 신라 혹은 고려때 사람이라고만 전해올 뿐 확실한 연대를 알 길이 없고 이름 또한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전설상의 인물이 아닌 실존했던 인물로 믿어지는 이 고장의 수호신이다. 자인현읍지(慈仁縣邑誌)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옛날(시대는 미상) 이 지방의 도천산에는 왜구의 무리가 은거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한장군이 꾀를 써서 왜구의 무리를 잡아 없앴다고 한다. 즉 도천산 밑의 버들못에서 한장군이 여자로 가장하여 그의 누이동생과 함께 화려한 꽃관을 쓰고 춤을 추었다.(이때 춘 춤을 여원무라 한다) 춤추는 둘레에는 광대가 둘러서 놀이를 벌였으며 풍악을 울려 흥을 돋우고 못에는 화려하게 꾸민 배를 띄웠는데 이때 왜구들이 산에서 내려와 구경을 하였다. 이 틈을 이용하여 아군이 급습하여 왜구를 모조리 섬멸하였는데 지금도 버들못의 제방에는 칼자국이 남아있는 바위가 있어 주민들은 이를 참왜석(斬倭石) 혹은 검흔석(劍痕石)이라 부르고 있다.

그후 이 고장에는 한장군을 모시는 사당이 생겼고


한장군놀이 (경북)

해마다 단오절에 제사를 모시어 성대한 놀이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한장군놀이로 발전한 것이라 한다.

특색

이 놀이는 제의의 법식, 옛 관원의 행차규범, 지방관아에 매어있는 궁중악 계통의 세악수와 악기 및 궁중의 일부, 또 민중속에서 생장한 풍물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점이 독특하다.

또한 한장군놀이는 한장군의 사당에 제향을 올리는 것을 위주로 하여 제향후 벌이는 놀이가 여느 민속놀이처럼 마당놀이가 아니고 가장행렬인 점이 이채롭다.

구성

한장군놀이는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제사

(2) 가장행렬

가장행렬의 구성과 순서 : 장산사명기 · 청룡기 · 백호기 · 영기 · 나대유풍기 · 농기 · 여원화관 · 무부 · 희광이 · 여장동남 · 감사뚝 · 군노 · 사령 · 포장 · 무녀 · 포군 · 영장 · 기생전배 · 중군 · 삼재비 · 전배통인 · 일산과 파초선 · 도원수 · 인배통인 · 수배 · 독축관

(3) 여원무

(4) 여흥

남자 : 씨름, 말달리기

여자 : 그네뛰기

내용

옛날 단오굿 때에는 현사에 집결하여 가장행렬은 진장터(한장군이 진을 쳤던 곳)까지 가서 거기서 여원무를 연행하고 한장군 사당에 올라가 제사를 올린 다음 다시 돌아가서 고을 원에게 여원무를 보이고 해산하였다고 한다. 이때 원은 참여하지 않지만 이속들은 통인 하나만 남기고 모두 단오굿에 참가했다고 한다.

단오날 아침 행렬에 참여할 인원들이 시장앞 광장에 모이면 준비를 갖추고 출발하여 시장을 돌고 한장군묘소로 가서 제관들이 제사를 드린다. 여원무의 복장을 한 한장군과 누이동생을 꾸며 앞세우고 그 뒤에 사또행차를 따르게 한다. 가장행렬을 마친 후에는 남자는 말달리기와 씨름같은 여흥이 있고 여자는 그네뛰기를 한다.

가장행렬의 순서는 앞에서 열거한 대로인데, 행렬중에는 악사가 삼현육각을 연주하고, 호적과 나팔 등을 곁들여 마치 군악을 연상케 한다. 또 풍물을 요란하게 치면서 흥을 북돋웠으며, 이렇게 행진하는 가운데에도 3m가 넘는 여원화가 춤을 추었다.

여원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3~14세의 미소년 두명을 여장시켜 진무케 한다. 붉은 행전을 치고 붉은 치마에 초록 저고리를 입으며 두 손에 한 자 가량의 끈을 쥐고 여원화의 옆에서 출발하여 중앙 지점에서 돌아선다. 이때의 매구가락은 질매구가락이다. 여장동남의 진무가 끝나면 높이 10척의 여원화를 쓰고 땅에까지 닿는 오색의 채의(치마)를 입은 두명의 관무부가 중앙으로 진무하여 덧배기 가락으로 춤을 춘다. 채의는 화관에 달렸으며 사람은 채의 속에 숨겨져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

원화 주위에 군노 두명, 사령 20~30명, 까치사령 10~20명 등 30~40명의 사람들이 원진을 만들고 역시 덧배기 가락으로 춤을 추는데 처음 음악은 주위의 원진에서 북과 재팔이로 구성된 군문 풍악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원진 밖에 따로 늘어선 무부들의 풍악에 맞추어 전체가 춤을 춘다.

놀이기구

각종 기(장산사명기 · 청룡기 · 백호기 · 영기 · 농기 · 나대유풍기 등)

여원화관(높이 10척)

삼현육각, 풍물, 호적 등 악기

기타 역할에 따른 소도구

영양모내기

민요

영양은 경상북도의 동북부지방에 위치하며 안동의 동쪽에 있다. 태백산맥 줄기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주처럼 산간지대가 많다. 따라서 밭농사가 많고 벼농사는 그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그러나 안동과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농요가 많이 전한다.

영양의 모내기 소리는 ①모찌는 소리 ②모심기 소리 ③논매기 소리로 구분된다. 농요가 발달된 고장에

는 논매기 소리에도 아시(초벌), 두벌, 세벌 맬 때마다 소리가 다른 경우가 많지만 영양에서는 이러한 구별 대신 아침소리, 낮소리, 저녁소리로 구별한다고 한다. 또, 논을 다 매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대개의 경상도지방에서 그러하듯 풍물을 잡히며 '칭칭이'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논농사가 크지않은 영양에서는 '아리랑'을 부른다든가 막걸리를 마시며 논다든가 함으로서 이러한 대규모의 부락단위 놀이를 대신한다고 한다. 모찌는 소리나 모심는 소리, 김매는 소리의 사설등은 영양 특유의 것이라느니 보다는 경상북도 일원에 걸친 공통적인 것이 많다.

(1) 모찌는 소리

모찌는 소리는 한 사람이 메기면 여러 사람이 받는 형태로 부를 수도 있고, 또 남자들과 여자들이 교대로 부를 수도 있다.

(선) 대키소요 대키소
주먹멍으로 대키소
면유세 면유세
사세먹으로 면유세

(후) 이와내세 이와내세
이모자리 이와내세
이와내세 저승차사
이모자리 훔치가세
이와내세 이와내세
이모자리 이와내세
저승차사 이맹추야
이모자리 훔치가세
이물고 저물고 헐어놓고
덴데활량 어데갔노
면유세 면유세
사세먹으로 면류세
장터야 어데갔다
저벌뚝거드라고
저부이여 집에 놀러갔네
열유세 열유세
사세먹으로 연류세

(2) 모심기 소리

모심기 소리도 모찌는 소리처럼 멕이고 받을 수도 있고 남녀가 서로 교창할 수 있다.

(선) 새야호새—야 뻐뻐꾹새야
네어데서 자고왔노

(후) 청청아 버들속에
이리야흔들 자고 왔네
파랑허허부채야 청사도포
꽃은보고 지내가노
꽃은봐야만 꽃지마는
남의여꽃에 손을대네
수건아 수건아 반보수건
임떠주던 반보수건
수건귀가 떨어지면
임으야 정도 떨어지네
임의논에다 모를심어
가저가 벌어서 정자로다
우리네부모님 산소등에
솔을 심어서 정자로다
상주야함창 공갈못에
연밥따는 저큰아가
연밥줄밥 내따줌세
원수널랑 꺾지를 마소
만첩산중 싸리낡은
찬이슬맞아 호아졌네
책상앞에 도련님은
붓대를 들고 호아졌네
능금시라 채석남에
이슬겉은 저처자야
누간장을 녹이자고
저리곱게 생겼능가
찔레꽃을 살짝따서
임의보선 잔불걸어
임을보고 보선보니
임줄맘일 전혀없네
신사주세 신사주세
총각낭군 신사주세
신을 사주면 남이알고
돈을 주면은 내사신제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개골서 연기나네
우리임은 어디가고
저녁할줄 모르시나
날오라네 날오라네
산골처자가 날오라네
날오라고 언약하고
문을 걸고 잠만자네
방실방실 웃는님을
못다보고 해가지네
걱정말고 한탄마소
새는날에 다시보세

(3) 논매기 소리

논매기 소리는 남녀가 교대로 부르지 않고, 매기면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선) 일출동산에 돋는해는
서해서산으로 넘어가네
(후) 응헤허 어히여허
이히이히히 상사디야
이논빼미 모를심거
가지가 벌어져 장해로다
응헤허 어히여허
이히이히히 상사디야
너는 죽어서 꽃이되고
나는 죽어서 나비가 된다.
응헤허 어히여허
이히이히히 상사디야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응헤허 어히여허
이히이히히 상사디야
반달같은 이논빼미
온달걸이 다사가고
응헤허 어히여허
이히이히히 상사디야
멈아멈아 정심멈아
정심참이 늦어가네
응헤허 어히여허
이히이히히 상사디야

안동논매기

민요

유래

경북 안동은 전승문화의 풍부한 유산을 지닌 고장이며 저전동 부락은 그 중심지의 하나이다. 저전동은 한양조씨 동족부락으로서 주민들의 단합이 강한 곳이고 이 마을의 조씨는 일찍부터 길쌈과 농사에 종사하고 두레조직을 주도해 왔다.

이런 조건은 다채로운 민속예술을 육성하는 구실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길쌈노래, 놋다리밟기, 논매기노래 등의 민요이다.

논매기노래는 언제부터 불리어졌는지 정확한 유래를 알 수 없고 한국민요의 기본종목의 하나로 과거에는 널리 불리어진 것이나 오늘날 그 원형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저전동의 논매기노래는 탁월한 입담, 빼어난 목청, 능숙한 춤을 구사하는 조차기씨에 의하여 계속 전승되어 왔으며 지금도 우수한 기능보유자가 활동하고 있다.



안동논매기 (경북)

특색

아이논매기노래는 '헤이 아이오 오오오'가 여음인 빠른박자의 노래이고, 두벌논매기노래는 '얼럴럴 상사디야'가 여음인 느린 박자의 노래이다. 그러나 세번째 논매기를 할 때에는 두벌논매기 노래를 되풀이하며 사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선창자의 재량에 따라 불리어진다.

선창자는 일을 하지 않고 앞에 서서 사설을 선창하고 후창자들은 논을 매면서 여음으로 노래를 받는다.

다른 논으로 이동하거나 일터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는 풍물을 치면서 '칭칭이'를 부른다.

구성

(1) 칭칭이 사설, '홋사나타령'
(2) 아이논매기 노래 사설, '군위색시'
(3) 칭칭이 사설, '삼냉이노래'
(4) 두벌논매기 사설, '유문성이타령'
(5) 칭칭이 사설, '홋사나타령'

내용

(1) 칭칭이 사설, '홋사나타령'

칭칭이 사설을 합창으로 '쾌지나 칭칭나네'를 부르고 선창자는 독창으로 사설을 하게 되는데 그 가사는 일정치가 않다.

홋사나타령은 어떤 계집이 서방이 출타한 틈에 홋사나이를 보다가 들켜서 혼이 나는 사건을 노래한 것이다.

(2) 아이논매기 노래 사설, '군위색시'
(합창)
헤이헤이 가세 헤이아헤요 워에
(독창)
하나누에 베틀놓고 고루몽에 이에울고
요네다리 두다리에 틀다리 네다리

마고악천 육아리에 옥난장에 얼레놓고
이에짜는 삼형제요 눌렁에는 호우래이
삼삭수에 비견머리 버리마네 빌레줄라
강강중이 익시몇
(합창)
헤이 아헤요 워예

군위색시는 군위로 시집간 색시가 친정에서 베를 짜고 있다가 낭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내용이다.

(3) 칭칭이 사설, '삼냉이노래'

이 민요들은 중참 먹으러 가면서 논을 옮길 때 부른다.

삼냉이 노래는 길삼노래에서 유래된 사설이다.

(4) 두벌논매기 사설, '유문성이타령'

두벌논매기 노래 사설은 선창으로 하는 독창 가사는 일정치 않고 후렴으로 하는 합창은 '윙 월상사대이'로 한다.

유문성이 타령은 유문성이라는 총각이 장가를 가는데, 신부가 해산했다는 소식이 와 상객은 돌아가고 신랑은 기여이 신부를 만나러 가는 흥미로운 사건을 다룬 것이다.

(5) 칭칭이 사설, '홋사나타령'

논매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부른다.

답교놀이

민속놀이



답교놀이 (서울)

유래

다리밟기는 고려 때부터 정초에 자기 나이대로 다리를 밟으면 그 해에는 다리에 병이 나지 않고 모든 재앙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복도 불러들인다는 신앙적인 풍속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조 때의 학자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정월 대보름날 다리 밟는 풍습은 전조(고려)로부터 시작되었다. 태평시에는 매우 성하여 남녀가 줄을 이어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으므로 거리가 혼잡하게 되어 이날 여자들의 다리밟기를 금하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여자들은 16일 밤에 다리밟기를 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 놀이가 얼마나 성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답교놀이는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3일동안 야간에 놀았으며, 이날에 4대문을 닫지 않았던 기록으로 보아 이 놀이를 매우 소중히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놀이에는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양반·일반 서민 구별없이 동참했으며 이때에 퉁소와 북의 장단이 곁들여지고 선소리꾼까지 참여하여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고 한다.

답교놀이가 성황을 이루며 혼잡을 이루게 되자 양반층에서는 서민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하여 하루 전날인 14일 저녁에 다리를 밟았는데 이것을 양반다리밟기라 하였다.

특색

서울에서 답교놀이를 하던 다리는 광교, 수표교, 염천교를 중심으로 마포, 아현, 노들(노량진), 살꽂이다리 등의 크고 작은 다리였다. 원래 답교놀이는 액운을 물리치는 신앙적인 풍속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그 성격이 변하여 바람드리, 몽촌, 송파, 돌마리 등 여러 곳에서 놀이패가 따로 조직되면서 연희성을 띠게 되었다.

구성

서울 답교놀이는 노래와 춤으로 엮어지는 다음 다섯 마당으로 이루어진다.

(1) 길놀이
(2) 다리밟기
(3) 마당춤
(4) 선소리
(5) 뒷풀이

내용

(1) 길놀이

길놀이 대형은 용두기와 영기를 앞세우고 곤나쟁이, 등롱, 악사, 집사, 별감, 상좌무동, 소무무동, 상좌, 소무, 선소리, 양반, 노장, 왜장녀 순으로 열을 지어 길군악에 맞춰 행진춤을 추는 것인데 주로 마을의 중심길을 행진하거나 한 집에서 놀이를 마치고 다음 집

으로 옮겨갈 때, 그리고 마을의 안녕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고자 하는 뜻으로 마을을 한바퀴 돌 때와 다리 무병을 비는 다리밟기를 하기 위해 다리가 있는 곳으로 갈 때 행하게 된다.

(2) 다리밟기

다리밟기는 일년 동안 자기 다리의 무병과 잔병이 없도록 기원하는 것으로 각자가 자기 나이수대로 다리를 왕복하는 것인데, 답교놀이에서는 몇차례 다리를 왕복하면서 다리 밟는 마을 사람들의 흥을 돋우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하고 다리 가운데에 멈춰서 절을 하며 다리밑에 고시래도 한다.

다리밟기를 마치면 다리목에서 타령장단과 자진모리 장단의 난무를 한 다음 다시 길군악에 맞춰 길놀이 대형을 이루어 놀이마당으로 돌아온다.

(3) 마당춤놀이

길군악에 맞춰 놀이마당에 들어오면 길놀이 대형으로 한바퀴 돌아 기수와 악사와 선소리가 가장자리로 늘어서고 나머지 연희자들은 열대형으로 늘어선다.

굿거리 장단, 타령 장단, 자진모리 장단 순으로 장단을 바꿔가면서 열대형춤과 원형춤으로 이어진다. 먼저 굿거리장단이 나오면 상좌소무와 집사, 별감, 곤나쟁이, 양반, 노장, 왜장녀가 춤을 추고 타령장단으로 바뀌면 모두 2열로 나뉘어 따로 춤을 추며 열을 따라 돌아 제자리에 온다.

이때 왜장녀는 엉덩이춤을 추며 주위를 돌아다닌다. 자진모리장단이 나오면 두곳에 원을 만들어 춤을 춘다. 상좌와 소무, 소무무동과 상좌무동이 원을 만들고 집사, 별감, 등롱이 원을 만들면 그 원 안에서 노장, 왜장녀, 양반이 춤을 춘다.

(4) 선소리

마당춤이 절정에 이를 때 다시 굿거리장단이 나오면 원 안에서 놀던 노장, 왜장녀, 양반은 바깥 원으로 나가 둘러서서 춤추고 선소리패가 원안으로 들어가 선소리에 맞추어 춤을 춘다.

먼저 앞산타령이 나오면 상좌무동과 소무무동이 가운데로 나와 원무를 추고 제자리로 물러난다. 이어서 상좌와 소무가 나와서 원무를 추고 물러난다. 뒷산타령이 나오면 집사, 별감이 나와서 맞춤을 추고 물러나고 등롱과 곤나쟁이가 나와서 춤추고 들어간다.

자진산타령이 나오면 양반, 노장, 왜장녀가 나와서 자유롭게 춤추고 들어간 다음 등롱과 곤나쟁이가 다시 나와서 춤추고 물러난다.

(5) 뒷풀이

선소리가 끝나면 길군악을 울리면서 모닥불이 마련된 마당으로 연희자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춤을 추며 모인다.

농악가락을 중심으로 모닥불 주위를 돌면서 멍석말이와 진풀이춤을 추고 마을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모닥불이 다탈 때까지 춤판을 벌인다. 이때 타다 남은 횃불과 짚불을 모닥불에 태우고 낡은 빗자루나 날리던 연 등의 액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들고나와 모두 불태우면서 동네사람들과 어울려 흥겹게 춤을 추면서 끝을 맺는다.

놀이기구

용두기, 영기, 반주음악에 필요한 악기, 꽹과리, 징, 장고, 북 등의 농악기와 기타 필요한 소도구

해녀놀이

민속놀이

유래

제주도에는 현재도 3만명이 넘는 해녀들이 있다. 해녀들은 평상시엔 농사일과 가사일를 하고 썰물때는 바다에 나간다.

바닷가에는 불턱이라는 곳이 있어 해녀들은 이곳을 탈의장과 휴게소로 사용한다.

해녀들의 작업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바닷가에서 직접 물로 뛰어들어 작업하는 것을 '갓물질'이라 하고 어장이 멀리 있는 경우 배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 이를 '뱃물질'이라 한다. 노를 저어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해녀노래인 것이다.

해녀들이 작업을 마치고 '불턱'이나 배에 돌아온 때는 휴식시간이다. 서로 불을 쬐고 몸이 녹으면 웃음꽃이 벌어지고 노래와 춤이 나온다.

해녀들은 이렇게 잠시동안 모여서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면서 전체가 한데 어우러져 때로는 연극적인 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해녀놀이는 이와 같이 산만하고 소박한 해녀들의 놀이의 단편들을 근래에 하나의 짜여진 놀이로 구성한 것이다.

특색

첫째, 해녀놀이는 해녀들의 작업 사이의 휴식시간에 벌어지는 산만하고 단편적인 소박한 놀이를 기초로 하고 거기에 해녀들의 출어에서 귀가까지의 과정을 안무를 섞어 구성한 놀이이다. 이것은 제주도 해녀의 민속에 근래적인 무용예술의 기법을 가미하여 근래에 재창조해 놓은 제주도의 놀이이다.

둘째, 이 놀이는 비록 근래에 와서 재창조된 것이지

만 '허벅장단' '태왁장단'등 제주도 해녀들의 고유한 생활민속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셋째, 이 놀이에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요들이 종합되어 있어 제주도 민요의 특유한 가락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게 되어있다. 오돌또기, 이야홍, 서우젯소리, 해녀노래 등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요가락이다.

구성

해녀놀이는 네 장면으로 구성된다.

(1) 출어장면

(2) 작업장면

(3) 휴식과 오락

(4) 귀가장면

그러나 해녀놀이는 해녀들의 노래와 단편적인 놀이를 재구성한 것으로 일상적으로 체계적인 놀이는 볼 수 없다.

내용

(1) 출어장면

저고리 치마차림의 해녀들이 '물허벅'을 지고, 또는 물옷차림으로 '태왁' '망사리'등을 둘러메고 등장한다. 바다 가까이 집이 있는 해녀는 해녀복 그대로, 집이 멀리 있는 해녀는 치마 저고리 차림으로 출어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장면에서 해녀들은 '오돌또기'를 부르고, 바다로 나가는 행렬과 우물에 가서 '물허벅'을 부려놓고 해녀복으로 갈아입어 출어준비를 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어서 노래는 해녀노래로 바뀌고 해녀들은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가는 장면을 벌인다.

(2) 작업장면

노를 젓고 나아가던 해녀들이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노래는 해녀노래에 이어 이야홍타령으로 바뀐다. 타령의 가락에 맞추어 전복 소라 미역 등을 따내는 작업광경이 벌어진다.

(3) 휴식과 오락의 장면

무질서하게 작업을 전개하던 해녀들이 다시 질서있게 배로 헤엄쳐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태왁' '망사리'를 던져놓고 해녀들은 불을 에워싼다. 이때 노래는 서우젯소리로 바뀌고 해녀들은 '태왁'을 장고삼고 '비창'을 채로 삼아 장단을 한다. 여기에 허벅장단까지 곁들여 작업도구의 악기 '소리는 흥겨워지고, 해녀들이 나와서 춤을 춘다. 서우젯소리는 점점 가락이 빨라지고 해녀들의 흥겨운 놀이는 장작불 주위에서 점점 고조되어 간다.

(4) 귀가장면

해녀들이 작업을 마치고 풍성한 수확을 안고 배를 타고 귀가하는 장면을 표현한다. 출렁이는 바다에 배를 타고 해녀노래에 맞추어 힘차게 노를 저으며 돌아오는 흐뭇한 광경을 보인다.

강원농악

농악

유래

농악의 유래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각기 다른 몇가지의 주장들이 있다. 첫째는 파종과 추수를 축복하고 그해 농가의 평안을 비는 음악이었다는 점에서의 풍농·안택기원설이 있고, 둘째는 전시에 적을 막아내기 위하여 사용된 농군악이었다는 점에서 군악설이 있으며, 셋째는 절의 건립을 위해 악기를 사용하면서 민가를 순방하던 중들의 걸립음악이었던 점에서의 불교관계설 등이 있다.

강원농악은 이조 성종 때부터 이미 경연대회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매우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는 험준한 산악으로 둘러싸여 향토 고유의 민속예술이 잘 보존 전승되어온 민속의 보고였으나 일제의 전통문화 말살정책으로 거의 인멸되었거나 변형 개조되어 지금은 그 원류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강원농악은 가식이 없고 소박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특색

강원농악은 쇠가락에 옛날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빠른 3/4박자로 이루어진 7종 내지 8종의 가락이 있으며 과장은 12과장이나 이는 마을마다 각기 특색이 있고 장소와 시간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나 3과장 이하는 없다. 과장중 특색있는 것은 물방아놀이, 거북이놀이, 소몰이놀이, 길군악, 땅재주 등이 있다.

자연환경이 삼남지방처럼 넓은 들이 없고, 또 한 들판에서 여러 두레가 경연할 기회도 없었다. 따라서 대개는 들판에서 하지 않고 뜰이 넓은 집 마당이나 행길에서 하였으므로 호남농악처럼 웅장하고 역동적이며 경쾌하지는 못하다. 놀이장소가 협소한 탓으로 소박하고 정적이어서 여성적인 체취가 풍긴다. 특히 여장 남무의 무동놀이와 같은 것을 그 표본으로 들 수 있고, 탑돌이에서 유래한 동골이받기 같은 것은 농악에 불교사상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구성

강원농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멍석말이

(2) 네거리굿
(3) 법고놀이
(4) 길놀이
(5) 마당밟기
(6) 거북놀이
(7) 사랑놀이
(8) 삼채쩍쩍굿
(9) 장고놀이
(10) 동골이 받기
(11) 12발 상모놀이

내용

강원농악은 단오제 때가 절정으로 지역마다 경연대회를 가졌으며, 부락의 원로회의에서 선출하는 상쇠는 그 권위가 절대적이어서 특별한 사유(유능한 후계자의 탄생, 중대 과실로 인한 불신임 등)가 없는 한 노쇠하여 은퇴할 때까지 농악을 육성시킬 책임이 있었다.

농한기에는 걸립으로 기금 모금을 하며, 집터를 닦을 때 지신밟기 농악을 동원하였고, 각 집을 순회하며 고사를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장재(부자)집에서는 떡시루와 술동이를 내서 대접하고 쌀을 내놓았으며 가난한 사람들도 성의껏 음식물을 대접하였다.

농악의 놀이에는 지역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 강원농악에서는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멍석을 말고 펴는 모습의 멍석말이, 십자로에서 원무하는 모습의 네거리굿, 농악의 꽃인 화려한 법고놀이, 마을 한길을 분주하게 왕래하는 모습의 길놀이, 집터 닦을 때 지신밟기와 같은 마당밟기, 장수를 자랑하는 느릿느릿한 거북을 상징하는 거북놀이, 법고잡이와 무동들의 애정을 표시하는 사랑놀이, 삼채가락에 맞추어 흥겹게 노는 삼채쩍쩍굿, 화려한 개인기를 자랑하는 장고놀이, 어깨위에 무동을 세우고 탑놀이를 상징하는 동골이받기, 열두발 긴 상모를 돌리며 신명내는 12발 상모놀이 등이 주로 놀아진다.

서울민요

민요

유래

서울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수도로서 모든 문물의 중심지였으며 가장 높은 문화수준을 지니고 있었다.

민요의 발생 배경에는 야생적이며 소박한 농촌생활이 깔려있다.

민요는 농촌적인 분위기 속에서 발생되고 전파되어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수도인 서울에서 많은 민요를 찾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민요가 각 계층의 생활속에서 사회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만큼 도시의 감정이 많이 녹아 있는 것이 서울민요이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에서는 민요가 정치적 사건을 예견하고 풍자하였으며 그 후에 있어서도 큰 변혁이 있을 때면 의례히 민요가 불리워지곤 했다.

이런 서울민요는 농산촌에서 불리워지던 일반 민요와는 다른 성격과 특징이 있다.

특색

현재에 까지 전해지고 있는 서울민요에서 그 특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도시인들은 개인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사치스런 점이 있으나 민요에서는 그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서울민요에서는 서울지방만이 가지고 있는 향토성 보다는 일반적인 민요의 속성만이 드러난다.

구성

조선은 건국초부터 유교를 국시로 삼고 그와 더불어 가락의 정리에도 힘썼다.

그 결과 세종때에 이르러서는 40여종에서 50여종의 노래가 기록되었다. 이 노래들은 신라 혹은 고려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다.

전해져 내려오는 서울민요는 내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왕권계승에 관한 노래
(2) 반란에 관한 노래
(3) 위정자의 정치적 득실에 관한 노래

내용

민요의 역사는 서민들의 애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민요란 원래 민중들의 공감대에서 발생하여 그들의 생활을 반영하며 불려진 만큼 언제나 왕족이나 지식인들에게는 무시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는 담고 있는 내용이 저속하다고 천대까지 받았다.

이 속에서도 민중들 사이에서 끈질기게 불리워진 서울민요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1) 역사를 배경으로 삼은 민요가 많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수도였던 서울은 역사에서 주역을 담당했고 사건의 진원지이기도 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나라의 여러 사건이 이루어진 까닭에 서울민요는 역사의 전개나 사태의 발전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민요의 주된 내용이 개인의 생활이나 서민의 주변 일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은 이와 같은 까닭이다.

(2) 타령과 가사성민요가 우세하다. 이것은 체통을 생명처럼 여기던 당시의 사대부들에 대한 반사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민요 중에 타령이 많은 것은 기방이 많아 여기에서 애정과 인생을 노래하는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맛볼 수 있는 화려한 면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동요와 부녀자가 부르는 노래는 극히 찾아 보기 힘들다.

이것은 항상 유교식의 교육만을 강요받았던 어린 아이들이 동요와 접할 기회가 없었던 까닭으로 보인다.

부녀자가 부르는 노래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대부 집안에는 노동요나 시집살이에 관한 노래가 반입되지 않았다. 소박하고 솔직하게 인생을 털어 놓는 서울민요는 유교적 원리만이 강조되는 가운데 아이들과 부녀자들 사이에서는 견제되고 약화되었으리라고 여겨진다.

성주풀이

민속놀이

성주풀이는 가옥을 신축하였을 때 목령을 쫓아내고 가택신을 좌정시켜 복을 비는 굿놀이다.

굿놀이는 심방이 성주신을 청신하여 복을 빌고 소지를 올린후 비범한 목수라는 "강태공수목수"를 청하여 그로 하여금 "영등산의 덕든나무"를 베어다 새집을 짓는 과정을 연출하여 자그마한 도형 주택을 짓고 축원하여 길흉을 점친 후 온 집안 식구가 성주풀이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며 신과 더불어 즐기고 송신한다.

제주민요

민요

〈남성요〉

목마장으로 유명한 제주도에서 마소에게 줄 꼴을 베면서 부르는 '꼴베는 노래'와 장지에서 봉분을 만들 흙과 떼를 파면서 부르는 '솔기소리'등의 노래가 있다.

〈여성요〉

3만이 넘는 제주도 해녀들이 작업하러 바다로 헤엄쳐 갈 때, 혹은 한국 본토및 만주로 출가하며 노저어 갈 때 부르는 '해녀노래'와 제주도 특유의 '남방애'에서 절구질하며 부르는 '방아노래'등의 노래가 있다.

〈남녀 혼성요〉

제주도에서는 밭에 좁씨를 뿌린 다음 토질의 특성 때문에 마소를 앞세우고 농부들이 뒤따르면서 밭을 밟는데 이 때 부르는 '밭밟는 노래'등이 있다.

오방성주풀이

민속놀이

유래

부산지방에는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주풀이와 이조 초기부터 성행해 내려오는 지신풀이가 있다. 이 두 놀이는 유불선의 신앙이념과 혼합되어 소위 매귀놀음이란 것을 형성하여 지금도 음력 설날이 되면 근 한 달동안 매귀놀음꾼들이 집집마다 성주를 모셔 들여 풍악을 울리면서 오방잡귀를 물리치는 성주풀이, 지신풀이, 살풀이놀음을 한다.

오방성주풀이란 명칭이 붙은 것은 근래의 일로 성주풀이와 지신풀이로서 엮어나가는 매귀놀음과 농악놀음에다 민속무용인 오방성주고풀이를 혼합하여 드라마 형식으로 발굴·개편한 것이다.

몇 년 전만해도 매귀놀음은 양반, 하동, 포수, 가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희자들이 고깔을 쓰고 농악놀음을 하는 추세에 밀려 이 고깔놀음이 빛을 잃는 형편에 있다.

특징

염불(불교)에 기초를 둔 지신풀이와 유불선의 이념이 혼합된 범신앙적인 놀이이며 또한 민속무용과 농악놀이가 어울려 종합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구성

오방성주풀이는 다음의 다섯 과장으로 이루어진다.

(1) 준비 과장

(2) 매귀놀음 과장

(3) 오해놀이(지신풀이) 과장

(4) 성주고풀이(오방신장무용) 과장

(5) 농악놀이 과장

내용

(1) 준비과장

먼저 주인역인 양반할매와 처녀, 총각, 하동포수가 각각 깃발, 제물 등을 준비한다. 이 장면은 오방성주

풀이 연희 이전에 풍악에 맞추어 무대의 적당한 장소에 들어와서 젯상을 차리고 연희자를 불러 들이는 내용이다.

(2) 매귀놀음 과장

출연자들이 풍악에 맞추어 오방기를 앞세우고 일제히 입장한다. 매귀놀음꾼들이 어떤 마을의 어른이나 가정에 들어갈 때에는 마을의 어른이나 가장의 허락——원래 매귀놀음꾼들이 동구밖에 들어올 때에는 그 마을에서 영기를 막고 있다가 촌장의 허락이 내려질 때에야 비로소 열어 주었다——을 받고 들어간다. 입장이 끝나면 성주님을 가정에 모시는 성주풀이와 불결한 모든 잡귀를 정결한 물로 씻고 소지로 태워 없애기도 하는 지신풀이로 한다.

(3) 오해놀이(지신풀이) 과장

황토흙을 오방에 뿌린 뒤 오방잡귀를 땅에 묻고 밟는 과정으로, 여기서는 한 가정에 큰 방, 작은 방, 사랑방, 행랑방, 부엌, 창고, 장독 등에 있는 잡귀를 풍악을 울리며 내쫓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

이 놀음은 성주님이 많은 군사(성주가 중앙황제가 되어 동방에는 청제장군, 서방에는 백제장군, 남방에는 적제장군, 북방에 흑제장군)을 이끌고 간신도배와 외적을 오방진법으로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4) 성주고풀이(오방신장무용) 과장

성주님이 가정(나라)에 오래 머무시어 오방잡귀를 물리치고 행복과 번영의 가정(나라)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축원무용이다.

(5) 농악놀이 과장

성주님이 오방잡귀를 물리치고 평화의 가정(나라)이 되었으니 모두 다같이 놀아보자는 내용이다. 이 놀음은 농악의 판굿과 기타 개인 놀음으로 장식한다.

목우희

민속놀이

유래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지방에 전승되는 민속놀이로 명칭은 '목우전(木牛戰)', '목우희(木友戲)'나 '무소싸움'등으로 불리며 '목우붙인다' '쇠머리댄다'라고도 한다.

쇠머리대기의 유래는 영산지방의 지세와 관련된 풍수사상 및 민속학적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영산 옛 고을 동헌의 자리가 축좌기 때문에 나무쇠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부근 영취산과 함박산의 형세가 영산읍을 사이에 두고 두 마리의 소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 두 산의 산살을 풀어주기 위해 나무로 소를 만들어 싸움을 시키게 되었다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 이는 재래의 풍수지리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이미 있었던 쇠머리대기에 그 유래를 설명하고 싶은 민중의식이 작용해서 생겨난 이야기들로 짐작할 수 있다.

민속학적 측면은 안동차전놀이와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두 놀이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구성

(1) 편제

쇠머리대기는 두 패로 갈리고, 이것을 각기 동부, 서부로 부른다. 동서의 구별은 지난날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내에 위치한 성내리 교리가 동부가 되고, 성 밖에 있는 서리와 동리가 서부가 된다.

다음에는 양군에 각기 대장 중장 소장의 장군이 선출되어서 지휘를 한다. 이 장군들은 읍민의 중의에 따라서 신망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2) 전법

단조롭다고 할 만큼 간단하고 소박하다. 청장년들이 어깨에 맨 나무쇠를 어르고 다니다가 세차게 맞부딪친다. 그래서 상대방의 나무쇠를 조금이라도 자기 아래쪽에 깔거나 밀어내는 쪽이 이긴다.

내용

(1) 먼저 축제분위기를 돋우는 농악대가 있다. 농악대는 멀리 마산 등지에서 온 10여 개의 농악대가 축제분위기를 돋운다. 양군이 진군할 때는 맨 앞에 동네 수호신의 상징인 서낭기가 서고 뒤이어 총사령부기·대장기·중장기·소장기·농방청제장군기·서부호기·동부호기·필승기·농기 등이 늘어서고 그 외에 각 마을의 서낭대·영기 등 깃발의 총수는 백여 폭 이상이다.

(2) 본놀이인 나무쇠 싸움에 앞서 앞놀이인 진잡이 놀이가 있다.

진잡이란 양편의 장군들(모두 6명)이 말을 타고 달려서 상대편의 진을 돌파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돌파방해로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다.

(3) 앞놀이가 끝나는 저녁 무렵에 본놀이인 나무쇠 싸움이 벌어진다.

수많은 장정들이 나무쇠를 어깨에 울러메고 위에는 장군 셋이 올라탄다. 이때 대장·중장·소장의 장군들은 옛날의 군복을 차려입고 칼로 지휘한다. 농악대의 소리가 울리고 양군은 '오왜 증산이야' 노래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접근한다.



고싸움놀이



차전놀이

11

제1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0. 10. 21 ▶ 10. 23
광주공설운동장

제11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70. 10. 21-10. 23.
광주 공설운동장

대통령상
농악(전북)-농악
국무총리상
장흥보름줄다리기(전남)-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정선아리랑(강원)-민요
관등놀이(서울)-민속놀이
속리산탑돌이(충북)-민속놀이
농악(경기)-농악
강령탈춤(황해)-민속극
장려상
거북놀이(이미라, 충남)-민속놀이
수영야유(정대윤, 부산)-민속극
북청사자놀음(함남, 단체)-민속극
충무승전무(경남, 단체)-민속무용
미수상 참가작
노동요(제주)-민요
연평도노래푸집이(황해)-민요
남원용마놀이(전북)-민속놀이
한창군놀이(경북)-민속놀이
해녀놀이(제주)-민속놀이
연평도놀이(황해)-민속놀이
거문도뱃노래(전남)-민요
봉산탈춤(황해)-민속극
조리희(제주)-민속놀이
서도가요(평남)-민요
공로상
서도가요(평남)
거북놀이(충남)
조리희(제주)
진주검무(경남)
개인상
김창옥(거문도뱃노래, 전남)
김명자(연평도놀이, 황해)
양성옥(조리희, 제주)
최경명(봉산탈춤, 황해)
동주현(북청사자놀음, 함남)
태윤기(수영야유, 부산)

장흥보름줄다리기

민속놀이

유래

장흥 보름줄다리기는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에서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의 하나로 행해지는 민속놀이이다.

보름줄다리기라는 명칭은 동짓달 보름날밤, 어린이들의 소규모적인 고삿줄다리기로 시작하여 그 이듬해 정월 대보름밤에 대단원을 이루는 대대적인 줄다리기를 행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보름줄다리기를 어떤 사람은 고쌈 또는 줄쌈이라고 하는데 이는 줄다리기를 하기 전에 벌어지는 전희인 고쌈과, 줄을 가지고 싸운다는 뜻에서 불리워진 이름이다.

줄다리기는 동남아 일대를 비롯하여 중국·일본·오끼나와 등 수도작(논농사)문화권 여러나라에서 기풍(祈豊)과 점풍(占豊)의 성격을 띤 하나의 농경의례 행사로 전승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농경위주의 남부지방에 성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작문화의 전래와 더불어 비롯된 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줄다리기는 나라마다 그 나름대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그 속성은 농경사회, 특히 수도(논벼)재배민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 생산신으로서의 용사(龍蛇)신앙에서 기원하여 성행위의 모방주술적인 요소를 지닌 농경예축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항 편제는 남녀대항전, 부락대항전으로 전개되어 여성측과 여성을 상징하는 서부측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기풍관념과, 이기는 쪽이 풍년이 든다는 점풍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장흥보름줄다리기 (전남)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으레 여성측과 서부측이 이기기 마련이었고 이로써 기풍을 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어떻게든지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관념으로 바뀌어 문자 그대로 줄싸움으로 변하기에 이르렀다.

특색

이 놀이가 다른 지방의 그것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짓달 15일 경부터의 고샅줄다리기로부터 시작하여 정월 대보름에 그 절정을 이룬다.

둘째, 줄 위에 호화찬란한 청사초롱 수십 개를 매단다.

셋째, 줄다리기를 할 탐진강으로 향할 때 대낮인데도 수십 개의 횃불을 들고 간다.

넷째, 이 지방의 토반과 기생이 줄 위에 타고 춤추며 노래한다.

다섯째, 특이한 노래가 불려진다는 것.

여섯째, 읍내로 접어들면, 먼저 동헌에 인사를 드리고 싸움터로 간다.

일곱째, 줄다리기를 하기 전에 그 전희로 고쌈을 벌인다.

여덟째, 줄을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연결한다.

아홉째, 불리하고 '깔기'가 행해진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깔면 밀치기가 벌어진다.

구성

(1) 줄만들기

(2) 고샅줄다리기

(3) 보름줄다리기

내용

(1) 줄만들기

정월 10일 경 볏짚을 거둬 길이 200여 미터, 둘레 2~3미터의 둘을 만든다. 이 줄을 반으로 접어 줄머리를 만들고 밧줄로 감는다. 그 머리에서 나온 줄을 꼬아 2합, 3합하여 굵게 몸체를 만들고 화려한 청사초롱을 달아 멜대를 묶는다. 그 후에 줄머리를 45도로 세우면 완성된다.

(2) 고샅줄다리기

동짓달 15일 경부터 어린이들의 소규모 줄다리가 벌어지고, 청년들까지 가세하여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3) 보름줄다리기

정월 대보름 하오에 동서의 놀이꾼들이 달려들어 청사초롱을 켜고 탐진강변으로 간다. 모래사장에 다다르면 전희로 고쌈이 벌어지고, 곧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먼저 줄을 떠받들어 숫줄을 암줄에 넣고 비녀대로 찔러 연결한다. '줄들어갔다'라는 함성이 터지면 줄을 내리고 함성과 함께 격렬한 놀이가 시작된다. 이러기를 한참 하다가 불리한 쪽은 줄패장의 호령에 '깔기'를 하고, 상대방은 격렬한 '밀치기'를 시도하면서 놀이가 전개되는 것이다.

놀이기구

둘레 2~3미터, 길이 200미터 가량의 볏짚으로 꼰 줄과 청사초롱, 횃불 등이 쓰인다.

정선아리랑

민요

유래

강원도 정선지방에서 불리는 민요로 이 노래는 정선지방을 중심으로 영동·영서지방에 분포되고 있다.

정선아리랑에 관한 유래전설은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는 고려왕조를 섬기던 선비들이 송도에서 은신하면서 지난날 모시던 임금을 사모하고 충절을 맹서하며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읊은 노래라는 설이 있다. 즉 그때 선비들의 비통함을 한시로 지어 한시를 이해 못하는 지방 사람들에게 풀이하여 감정을 살려 부른 것이 오늘에 전하는 아리랑 가락이라는 것이다.

둘째 기원은 1545년(명종 1년)을 전후하여 뜻있는 선비들이 난을 피해 낙향하여 과거를 회상하며 읊은 것이 정선아리랑 가락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셋째, 옛날 정선골에 아직 철이 들지 않은 10살된 신랑에게 시집간 20살 색시가 자살을 결심하고 강가로 나갔다. 물레방아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세월도 물레방아처럼 돌고 돌아 신랑도 자랄 때가 있으리라 깨닫게 되어 집으로 되돌아가면서 부른 노래라는 설화도 있다.

특색

정선아리랑 (강원)



정선아리랑은 반드시 강원도 아리랑을 부른 다음에 부른다. 긴 사설을 빠른 가락으로 촘촘히 엮어가다가 뒷부분에 높은 소리로 한 가락 길게 빼는 민요이다. 원마루에서는 무장단 자유리듬으로 사설을 촘촘히 부르고 후렴에서는 느린 세마치로 부른다. 가락은 메나리조이며, 원마루가 긴 장절형식이다.

특히 민요는 오래전까지 정선아라리로 불리워 왔으며, 그 가락은 구슬프고 구성진 곡조를 지니고 있다.

구성

(1) 수심편
(2) 조혼편
(3) 애정편

내용

(1) 수심편

고려가 망하자 선비들이 정선지방에 은거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노래한 것이다.

눈이 오려나 비가 오려나
억수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명사심리가 아니어든
해당화는 왜 피며
묘춘삼월이 아니라며는
두견새는 왜 우나
오늘 갈런지 내일 갈런지
정수정망이 없는데
맨드라미 줄봉숭아는
왜 심어 놨나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게

(2) 조혼편

나이든 처녀가 어린 총각에게 시집을 왔으나 부부의 정을 모르는 신랑을 원망하면서 부른 노래이다.

정선읍네 물레방아는
사시장철 물쌀을 안고
빙글뱅글 도는데
우리집 서방님은
날 안고 돌줄을
왜 모르나
노랑저고리 진분홍 치마를
주고싶어 주었나
중신애비 말 한마디에 주었지
노랑두 대구리 띠범벅 상투
언제나 길러가지구
내 낭군 삼나
저것을 길러다가
낭군을 삼느니
솔씨를 뿌렸다가
정자를 짓지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

(3) 애정편

처녀, 총각이 남의 눈을 피해 싸릿골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간밤에 내린 폭우로 아우라지를 건너지 못해 안타까워 부른 노래이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싸리골 올 동박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잠시 잠간 임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

관등놀이

민속놀이

유래

관등놀이는 불교민속의 하나로서 부처가 탄생한 초파일에 행하는 놀이이다.

옛날의 관등놀이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절을 찾아가 관등하고, 거리를 다니면서 등을 구경하고 즐기는 것이었다. 연등과 관등이 있는 곳에는 각종 민속놀이도 성행해 형형색색 등의 불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등놀이도 있었고, 꼭두각시를 만들어 옷을 입혀서 매달아 놓고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놀이도 했다. 또 종이에 화약을 싼 다음 새끼줄로 높이 매달아 불을 아래쪽에서 붙이면 타올라가는 대로 불꽃을 튀기는 불꽃놀이(줄불놀이라고도 함)도 하였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관등하면서 즐긴 관등놀이는 이러한 풍속을 배경으로 하여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관등하는 풍속은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되어 고려에 와서 국가적인 행사로 발전하였다. 조선

시대는 숭유억불 정책에 의해 국가적 차원은 아니었으나 계속 이어져 민간의 세시풍속으로 자리 잡았다.

특색

조선시대의 사월 초파일 놀이는 고려시대의 왕가와 귀족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민중놀이로서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구성 및 내용

먼저 엄숙하고 장엄한 음악이 연주되면 어둠 속에서 금빛 찬란한 부처님의 모습이 등 그림자로 나타난다.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부처님께 절을 한다.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법당 밖으로 승려들이 나와서 제를 올리며 여러 곳에 등불을 밝히고 국태민안을 빈다. 그러면 승려를 앞세우고 탑돌이를 하는 사람도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승무를, 또다른 쪽에서는 사람들이 번뇌를 뿌리치고 내세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많은 선남선녀들이 손에 등불을 밝혀 들고, 부처에 귀의하며 자기의 업보를 소멸하고 나라의 융성을 기원하는 합창 염불을 한다. 그러면 스님을 따라서 탑돌이 하던 신도들은 잔잔한 국악에 맞춰 춤을 추고 꽃불을 터뜨리면 밤은 깊어가고 놀이는 끝난다.

놀이기구

각양각색의 등, 악기 등.

속리산탑돌이

민속놀이

유래

원래 탑은 불교가 전파되기 이전부터 죽은 사람의 추모공양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입적하자 여덟개의 탑을 세우고 진신사리를 그 속에 나누어 넣은 뒤 불탑을 건립했다. 이 탑의 둘레를 남몰래 혼자 돌거나 여럿이 무리를 지어 도는 것은 생사의 피안에서 열반의 피안으로 건너는 바라밀다행사 중의 하나이다.

일반 신도들에게 있어 이러한 수행과 가장 관계깊은 것은 절에서 올리는 제이다. 제가 끝나면 신도들은 승려와 함께 불탑을 돌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하고 저마다 소원을 기구하는 것이다. 작게는 왕생극락과 크게는 국태민안을 빈다. 원래 탑돌이는 단독으로 자기의 소망을 은밀히 기원하는 것이었으나 제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탑돌이가 이뤄졌다. 이



속리산 탑돌이 (충북)

렇게 인원이 많아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형식이 중시되던 탑돌이는 신도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함께 참가하게 되어 민속놀이로 발전해왔다.

특색

속리산은 산세가 빼어나고 범속을 떠난듯한 경관으로 법주사를 비롯한 많음 암자가 있다. 법주사는 신라 24대 진흥왕 34년(서기 553년) 창건되었으며 그 중앙에 국보 제55호인 팔상전이 있는데 옛부터 불교신도와 주민, 수도승들이 모여 별상전을 돌며 불도, 염원, 공덕, 공양 등을 올렸다. 그리고 이때는 범패에 맞추어 흥겹게 탑돌이를 한다.

이 탑돌이는 명맥이 끊어졌다가 1970년에 다시 고증 발굴되어 명맥을 잇게 되었다.

구성

속리산 탑돌이는 다음의 단계로 구성된다.

(1) 보시
(2) 지계
(3) 인욕
(4) 정진
(5) 지혜
(6) 방편
(7) 원
(8) 역
(9) 지

내용

속리산의 영기를 닦아 엄숙하게 거행된 제가 끝나면 승려, 신도, 주민들이 손에 염주, 목탁, 연 등을 가지고 탑 둘레에 모인다. 둘러선 사람들이 삼귀의례를 제창한다.

탑돌이는 승려의 육바라밀다 또는 십바라밀다정진에서 본따온 것을 특징으로 한다.

진행되는 과정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시

둥근 달의 형태로 돈다고 해서 원월이라 한다. 무아원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지계

반월형이며, 방비, 지악, 정계를 점차 수행하는 것은 초승달이 어둠을 비추고 밝음을 낳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인욕

신날형으로 외욕을 참고 법성을 밝힘은, 신날이 가시를 막아서 발을 안전케 함이라는 뜻이다.

(4) 정진

가위형이며 일체의 지혜가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이 가위가 물건을 끊을 때 유진 무한함과 같다는 의미이다.

(5) 지혜

절구형이며 지혜로와 진행무애를 나타낸다.

(6) 방편

방편으로 중생을 성숙하게 하여 사해를 건너는 것이 마치 한 샘에서 두 우물을 만들어 동서가 두루 편하다는 것과, 일체의 불찰과 일체의 중생이 보살행을 수행하는 것이 두 우물에서 귀천이 물을 각각 얻는다는 것이다.

(8) 역

두겹고리형으로 정력을 표시하여 인가에 울타리를 수축하고 주야로 순환하여 외침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9) 지

성중원월형이며 삼세일체법을 여래지로서 알아내는데 아무 거칠 것이 없음을 성중원월이 원근을 고루 비추는 것을 의미한다.

강령탈춤

민속극

유래

강령탈춤은 황해도 옹진군 부민면 강령리에 전승되어 오는 가면극이다.

강령탈춤이 언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문헌이나 확실한 증언을 찾을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증자료로 미루어 볼 수 있다.

첫째, 해주 감영에서는 매년 5월 단오절에 각처의 탈놀이패를 초치하여 놀이 경연을 베풀었으며 이로 인해 탈놀이가 더욱 발전해 왔다고 한다.

둘째 옹진군 북면은 옛 수사의 본영이었던 곳으로 강령의 놀이패를 초치하여 놀았다고 한다.

셋째, 한일합방과 함께 해주 감영이 폐쇄되자 그곳에 있던 강령 출신의 관기 김금옥이 고향으로 돌아와 탈춤을 중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어떻든 이상의 방증을 토대로 한다면 늦어도 조선조 후기(19세기)까지는 강령에 탈놀이패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령탈춤은 매년 단오에 주민들(특히 상업자)의 자발적인 지원과 호응을 받았으며, 5~6일에는 저녁부터 새벽 무렵까지 밤새도록 탈춤을 놀았다고 한다.

봉산탈춤과 비교할 때 유사점이 많으나 강령탈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탈

봉산탈춤과 비교할 때 탈의 모양은 소형으로 요철굴곡이 심하지 않은 사실형이다.

(2) 의상

봉산탈복이 화려한데 비해 강령의 것은 모두 회색의 칡베장삼으로 손에 단 한삼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다.

(3) 춤사위

봉산탈춤과 분간하기 힘들 만큼 유사하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팔먹중의 춤사위는 활기가 있고 행동반경이 넓다. 그리고 강령탈춤에는 목중의 와무(臥舞)가 없는 것이 독특하다.

(4) 배역

봉산의 호리배거사, 거사, 사당 등이 강령에는 없다. 대신 양반을 3사람 등장시켜 마한, 진한, 변한의 이름을 붙인 것이 특이하다. 또 소무가 고깔 대신 벙거지를 쓰고 나온다.

(5) 재담

목중, 사자, 마부, 원숭이, 신장수 등은 재담없이 몸짓과 춤만 춘다.

강령탈춤 (황해)



(6) 탈꾼

강령탈춤은 봉산탈춤과 같이 하천인놀이가 아니고 중인들의 놀이여서 각지에 순회 연행을 하지 않았다.

(7) 반주장단

염불, 타령, 굿거리 등의 장단으로 반주 악기는 북, 장고, 꽹과리, 해금, 젓대, 피리 등을 사용한다.

구성

(1) 사자춤과 원숭이춤
(2) 상좌춤
(3) 말뚝이춤
(4) 양반춤
(5) 목중춤
(6) 노승춤
(7) 영감과 할미

내용

앞놀이인 길놀이는 해주나 봉산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내용면에서는 호화로와 잽이와 탈꾼들의 재미있는 가장행도가 있었다고 한다. 길놀이는 팔경대에서 출발하여 마을을 한바퀴 돈 다음 놀이판에 이르는데 행렬은 말뚝이가 맨 앞장을 서고 사자, 원숭이, 목중, 상좌, 노승, 소무, 취발이, 양양반, 영감, 할미광대, 잽이들의 순이다.

길놀이의 행렬이 탈판에 이르게 되면 탈고사를 지낸 후 본격적인 탈놀음에 들어간다.

(1) 사자춤과 원숭이춤

사자 두 마리와 마부 둘이 등장하여 타령·굿거리 장단에 맞춰 활달한 춤을 춘다. 원숭이는 마당 주변을 정리하면서 때로는 그 특유의 몸짓(흉내)을 하거나 춤을 춘다. 다른 지방에 전승되는 사자나 원숭이의 극중 역할에 비해 행동이나 표현이 지나치게 단순·축약되어 있다.

(2) 상좌춤

흰고깔을 쓰고 흰장삼을 입고 어깨에 홍가사를 멘 상좌 둘이 각기 상대편에서 나란히 등장하여 대무한다. 다른 지방의 상좌춤과 유사하다.

(3) 말뚝이춤

다른 지방의 놀이와 달리 말뚝이가 둘씩이나 등장하는 것이 특이한데, 양편에서 나온 말뚝이는 서로 마주치자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달아난다. 두세번 이런 동작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자세히 상대방을 확인한 후 대무한다.

(4) 양반춤

양반들이 스스로의 무식과 무능을 폭로하는데, 말뚝이 둘이 주인인 양반을 비웃고 놀림으로써 극적인 행동의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5) 목중춤

첫째 목중은 수도공덕 하겠노라며 잠시 염불을 하다가 영산·도드리·타령·굿거리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둘째 목중은 첫째 목중을 소매로 후려쳐 내쫓고 '중 하나 내려온다. 흐늘거리고 내려온다'라는 중타령을 부르면서 한바탕 춤을 춘다. 타락한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6) 노승춤

노승이 중심인물로서 8목중춤(제 1 경)·노승춤(제 2 경)·취발이춤(제 3 경) 등의 차례로 진행된다.

제 1 경에는 취발이·노승·말뚝이(1·2)·마부(1·2)·목중(1·2)·악사(북·장고) 등이 나와서 질탕하게 노래를 부르며 노승의 환속을 야유한다. 그들은 창부타령·성주풀이 등을 주고 받는데, 전국적으로 민요가 많이 불리워지는 서도지방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들은 노승을 소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제 2 경에서는 노승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소무를 유혹하는 무언극이 진행된다.

제 3 경에서는 노승과 취발이가 소무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소무를 빼앗은 취발이는 소무와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아들을 낳는다. 취발이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천자문타령·언문타령 등을 부른다.

취발이의 승리는 관중들에게 현실적인 삶의 중요성이나 서민생활의 활력을 상징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7) 영감과 할미

영감과 할미, 용산삼개 덜머리집의 삼각 갈등으로 진행된다. 고향을 떠나 방랑하던 영감은 덜머리집을 만나 동거를 하는데 이때 할미가 찾아온다. 덜머리집이 할미에게 불손하게 대해 가정불화가 생기고 결국 할미가 쫓겨난다.

남강노인이 등장하여 할미가 강물에 투신하였음을 알리고 영혼천도를 위한 진오귀굿을 권유한다. 진오귀굿이 벌어지는데 만신이 나와서 만수받이·초혼·세왕필가름·축원 등을 차례로 한다. 만신이 하는 마지막 공수는 화해와 재생을 상징하는 연극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거북놀이

민속놀이

우리나라의 민속놀이 중에는 샤머니즘과 직결되는

것들이 많다. 거북놀이도 그 중의 하나다. 거북놀이는 충남의 북부지방 즉 아산군 천안시 천원군 일대와 경기도 남부지방인 안성의 장호원 등지에서 1930년대까지 성행한 민속놀이로 동네 청소년들이 팔월 한가윗날 밤 수수댓잎을 벗겨 거북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 마치 거북이가 돌아 다니듯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한바탕씩 노는 흥겨운 행사이다.

그 일행의 짜임새를 보면 대략 이러하다.

맨 앞에는 꽹과리, 장고, 징, 북, 소고 등으로 편성된 농악꾼들이 나서고 그 뒤에는 거북몰이가 거북을 몰고 따른다. 다음은 양반인 사대부 팔대부가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장죽과 부채를 내두르며 덩실덩실 춤을 춘다. 그 뒤에는 동네영감 그리고 할미가 이 역시 재롱을 하며 따르고 포수와 농군들이 역시 흥겹게 뛰놀며 쫓아 다닌다.

이 거북놀이의 기원은 문헌을 통해 자세히 상고할 길이 없으나 대체로 두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첫째로는 거북이라는 동물이 원래 장수 무병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동네 가가호호를 찾아 다니며 그 가족의 장수 무병을 축수한다는 것이요, 둘째로는 동네를 괴롭히는 잡귀 잡신들을 몰아내자는 것일 것이다.

그 두가지 어느 것이든 간에 온 동네의 화평과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므로 평화를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민속놀이를 대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차전놀이"나 "고싸움"같은 민속놀이는 그 규모의 방대성이나 지극히 남성적인 호전성으로 보아 일면의 매력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되기는 하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전통적인 사상과 철학에 일치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거북놀이는 이런 것들과는 정 반대다. 동네사람 모두가 다 같이 액운을 물리쳐가며 평화스럽게 살아 보자는 협동정신과 평화와 번영에 대한 강력한 민족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희순서〉

①연희팀 전원이 농악을 치고 재롱을 하며 양편에서 나온다.

②어느집 문전에 이르러 주인한테 "문을 여시오"하고 소리친다.

③주인이 나와 문을 열어주면 마당에 들어가 한바탕 논다.

④거북이가 지쳐 쓰러지면 "이 거북이가 동해를 건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이 지쳐 누웠으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하고 거북이 몰이가 외친다.

⑤주인이 음식물을 내놓는다.

⑥"먹이가 나왔으니 인사나 하자"하고 거북이 몰이가 소리를 지른다.

⑦거북이가 넙신 절을 하고 한바탕 논다.

⑧모든 연희자들도 음식을 먹어가며 뛰고 논다.

⑨한바탕 뛰고 논다음에 다른집으로 간다.(퇴장)

노동요

민요

제주지방에서 불리워지는 노동요에는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농사를 지을때 부르는 것과 또 방아를 찧으며 부르던 노래 그리고 어업 즉 해녀들이 주로 불렀던 노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나무를 베거나 내릴때 또 꼴베는 노래 등이 있고 베틀노래나 풀무노래 등이 전한다. 여기서는 농사지을때 부르던 노래와 방아를 찧으면서 부르던 노래 그리고 해녀들이 불렀던 어업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농사를 지을 때 부르던 노래로는 '밭밟는 노래' '김매는 노래' '흙덩이 바수는 노래' '따비질노래' '타작노래' '보리훑는 노래'와 방아찧을 때 부르던 노동요로서 '맷돌방아노래' '연자매노래'와 어업요로서는 '해녀노래' '멸치후리는 노래' '떼젓는 노래' '뱃노래' 등이 있다.

①가례 갈앙 역들어 먹엉
작삼 앞이 모질담서라
방에 찧엉 역들어 먹엉
치메 앞이 모질암서라
유리잔을 눈에다 부치곡
테왁을 가심에 안곡
무쉐 빗창 손에 찌곡
지픈 물속 들어 보난
수심잠북 하서라마는
내 숨 짤란 못하여라

②저 산 둘런 난 지젠 하난
짐패 짤란 못 지듯
부뮈 공은 가프젠 하난
멩이 짤란 못 가파라
돈아 돈아 말 모른 돈아
돈 웃고 보민 적막강산
돈 싯고 보민 금수강산

돈 실 적윈　성님성님
돈 떨어지민　자네야네

남원용마놀이

민속놀이

유래

남원지방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용마전(일명 용말싸움, 용마놀이, 용마희라고도 함)의 유래를 동국여지승람,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남원군 산내면 지리산 기슭의 달궁부락은 기원 전 84년 마한의 여섯째 왕인 효왕 30년 경부터 기원 전 13년 열번 째 학왕 3년까지 71년간 마한의 도읍지였는데, 이곳은 해발 약 1000미터나 되는 고원지대로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천수답이었다. 그리하여 지리산 상봉에 올라가 해마다 기우제를 지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듯 새까만 구름이 산봉우리를 뒤덮고 하늘로부터 용이 비를 몰고 내려와 농사를 잘 짓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농사와 연관된 용의 전설이 많이 있는데, 지리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크고 작은 강과 냇물에서 많은 용들이 승천하였다하여 남원지방 곳곳에 숱한 용소(沼)를 남겨놓게 되었다. 남원은 고대로부터 용으로 인해 잘 사는 고을이라 하여 고용군이라 이름하고, 후손들이 용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용마놀이를 시작했다고 한다.

용마놀이는 남원성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두 편으로 나뉘어 싸움하고, 그 결과로 길흉과 풍년, 흉년을 점쳤다는 유래가 전한다.

남원용마놀이 (전북)



특색

이 놀이는 놀이의 구성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안동차전놀이, 광산 고싸움놀이와 흡사한 듯 보이나 실상은 다르다. 아마도 밀양군 무안에서 행해지는 용호놀이와 같은 계통으로 짐작된다.

용마놀이라는 이름과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남원지방의 백성들은 용을 숭배하고 기리는 뜻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용과 결부된 지명을 가지고 있다. 백제 소길왕은 남원이 용으로 인해 섬진강, 순자강, 적성강, 축천, 원천 등 강과 냇물이 띠를 두른 것처럼 많다고 하여 고용군을 대방군으로 고쳤고, 구수왕은 남쪽에서 제일이라 하여 남대방이라 하였다. 남원은 고대로부터 길용군, 용성부, 교룡산성, 구룡폭포, 용담사, 용담리, 용두산, 청용사, 용성관, 옥용추, 구룡대, 용추촌, 길용서원 등등 삼십여 개 이상의 용과 관련된 지명과 건물명이 남아있다.

옛날의 남원부사들은 이 민족 고유의 용마전 놀이를 후손들에게 전하고, 남원부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 후원하였다. 따라서 남원지방의 행사 가운데 가장 성대히 치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이었으나 조선조 말기에 이르러 여러가지 사정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구성

이 놀이는 놀이의 전단계로 마을 유지들의 회합과 놀이기구 제작이 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본격적인 놀이 마당이 벌어지게 된다.

(1) 사전 회합
(2) 놀이기구
(3) 놀이의 순서

내용

매해 동지가 되면 남원부의 남과 북의 유지들이 모여 놀이를 치를 것에 대해 모임을 갖고 준비위원을 구성한다. 여기에서 물자와 동원할 인원 수, 경비의 조달을 협의한다. 경비는 결정한 날로부터 섣달 그믐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유지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실제적인 놀이의 준비는 정월 초닷새부터 열흘 안에 끝내게 된다.

마을 주민들이 합심하여 제작한 용마를 수레에 싣고 정월 대보름에 넓은 광장에서 싸움을 벌이게 된다.

놀이의 과정은 남부의 백룡과 북부의 흑룡이 약 50여 미터 길게 늘어서서 상대를 공격하게 된다. 싸움의 지휘자가 오른쪽에 지휘봉을 뜻하는 새끼방망이를 들고 방망이를 앞을 향해 계속 내리치는 시늉을 하면 전

진, 왼쪽으로 휘저으면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휘저으면 오른쪽으로 돌며, 방망이를 머리 위로 올리면 후퇴하라는 지휘로 약속하여 서로 상대방의 용마를 공격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한참 싸우다가 상대방의 용마를 먼저 부숴버리면 놀이가 끝나게 되고 이긴 편은 환호성을 지르며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광장을 돈다.

놀이기구

용마는 나무·대·종이·베로 만든다. 나무와 대로 용을 만들고, 종이와 베로 겉옷을 입히고 오색으로 채색을 한다. 용마를 매는 수레는 길이 4~5미터 가량의 나무 3개와 3미터 가량의 나무 3개를 서로 석 줄로 교차하여, 교차한 부분에 끈으로 동여 만든다. 이렇게 묶은 앞쪽(폭이 좁은 곳) 첫째 칸 가운데에 1미터 가량의 판자를 얹고 고정시킨 다음 용마를 앉혀 완성한다.

거문도뱃노래

민요

유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옛부터 어업에 종사해 왔으며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작업을 하면서 많은 노래를 불러 왔다.

그러나 어부들은 어획기에 어장을 찾아 모여드는 관계로 여러 지역간의 교류가 빈번했으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가며 장기간 조업을 해오는 동안 그들 노래가 서로 비슷해져 지방별 특색을 찾기 어려우며 특히 일제시 일본 어부들과도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나 인근 여러 나라의 영향도 받은 것 같다.

어부들이 노래 부르는 것은 대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때이다.

즉 닻을 올릴 때, 노를 저을 때, 그물을 당길 때, 고기를 풀 때, 고기가 많이 잡혀 놀이를 할 때 등이다.

특색

앞소리는 한 사람이 메기고 뒷소리는 여러 사람이 제창으로 받기 때문에 앞소리는 사설에 따라 가락이 변하면서 음악적으로는 선율적인데 비해서 뒷소리는 단지 힘을 모으기 위한 단순한 가락으로 되어 있다.

앞소리는 그 창법에 있어 남도창의 특색인 꺾는 목을 잘 구사하고 있다.

연평도의 배치기, 위도의 띄뱃소리, 서산의 봉기타령 등과 그 종류를 같이하는 어업노동요이지만 이 노래는 특히 순박하면서도 힘찬 어민의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다.

구성

(1) 술비소리
(2) 놋소리
(3) 월래소리
(4) 가래소리
(5) 썰소리

내용

(1) 술비소리

밧줄을 꼬면서 부른다.

(선소리)
에이야라 술비야
여기여차 술비로세
술비소리를 잘맞구보면
팔십명 기생이 소청드네
님을 맞구서 감사로세
술비야 어—
술비여 야—아 어이야 술비여
에이야 술비야 에야디여라 술비야
놀다가소 놀다가소
소녀방에 놀다가소
놀다가면 득실인가
잠을자야 득실이지
백구야 펄펄 나지마라
널잡을 내 아니로다
성상이 바리시니
너를쫓아 여기왔다
(받는소리)
에이야라 술비야

(2) 놋소리

거문도뱃노래 (전남)



입항할 때 부르는 소리로 인근 남서해안에서 부르는 소리와 대동소이하다.

(선소리)
어야디야
어기엿차 어서를 가세 어야디야
가자가자 어서가세 어야디야
어장터로 어서가세 어야디야
어기어라 뒤—허 어기어라 뒤—허
앞산은 점점 가까와지고 어야디야
뒷산은 점점 멀어만 가네
(후략)
(받는소리)
어야디야

(3) 월래소리

그물당길 때 부르는 소리로 아주 씩씩하고 남성적이며 특히 남해안 지방에서 많이 불린다.(월래는 '올려보자'는 말의 방언으로 짐작된다)

(선소리)
월래보자
이 그물을 당겨보세
이 그물 안헝크러지게 어서 당그소
헝크러지며는 어장을 못하네
뒤엣 사람은 그물을 챙기고
이물 사람들 천천히 당그소
팔을 뻗쳐 힘차게 당그소
(후략)
(받는소리)
월래보자

(4) 가래소리

고기를 풀 때 부르는 소리로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가래소리 혹은 테질소리라고 한다. 논에서 물을 퍼낼 때도 가래소리를 부르고 있어 물푸는 소리나 고기푸는 소리는 선율이 같다.

(후렴)
어랑성 가래야 어랑성 가래야
(선소리)
여기도 퍼실코 저기도 퍼실코
이 가래가 뉘가랜고
이 가래가 우리 가래로세
우리 뱃사람들 잘도나 허네
(후략)
(받는소리)
어랑성 가래야 어랑성 가래야

(5) 썰소리

만선이 되어 들어오면서 부르는 소리로 그 명칭도 지방에 따라 뱃치기·봉죽타령·봉기타령 등으로 불려진다. 거문도의 것이 순수한 멋을 풍기고 있다.

(선소리)
어허 어기어~
우리 쥔네 마누라 궁둥이질 친다
에~이 멸치 잡어 보리풀고
쌀 팔아 자식들 먹고
헤~어허 어기어
어허~허 어기어 다 들어오네
에~돌아온다 봉기시다
에~군창마저 소리맞소
에~어허 어기어
이영차 이영차 어여 뒤여차
만선이다 만선이다
만선이 되었고나
이웃집 마누라도
궁둥이 춤이오
쥔네 마누라
궁둥이 춤춘다
이영차 이영차
(받는소리)
어허~허 이기어(9소절까지)
이영차(9소절 다음부터)

조리희

민속놀이

조선시대에 제주도지방에서 행해지던 줄다리기.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에 그 기록이 전한다. 줄다리기를 조리희라고 쓴 것은 이두식 표기인듯 하다. '동국세시기'의 기록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 풍속에 매년 팔월 보름날 남녀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좌우로 편을 갈라 큰 줄의 양쪽을 잡아당겨 승부를 겨룬다. 줄이 만약 중간에서 끊어지면 양편이 모두 땅에 자빠진다. 이를 본 구경꾼들은 크게 웃는다. 이를 조리지희라 한다. 이 날 또 그네도 뛰고 닭잡이놀이도 한다"고 하였다.

이 기록으로 보아 제주도 줄다리기는 팔월 보름에 행하여지고 남녀가 편을 갈라 승부를 겨루었던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여자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관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줄다리기는 제주도에서 매우 오래 전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남사당 줄타기

12

제1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1. 10.28 ▶ 10. 30
전주종합운동장

제1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1. 10. 28－10. 30.
전주 종합경기장

대통령상
아산줄다리기(충남)－민속놀이
국무총리상
진도들노래(전남)－민요
문공부장관상
베틀노래(충북)－민요
기와밟기(전북)－민속놀이
승전무(경남)－민속무용
농악(경북)－농악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장려상
해녀놀이(제주)－민속놀이
항두계놀이(평남)－민속놀이
동래지신밟기(부산)－민속놀이
농악(경기)－농악
남사당풍물놀이(서울)－민속놀이
미수상참가작
김매기노래(제주)－민요
해녀뱃노래(제주)－민요
어르마타령(전북)－민요
베치기노래(전북)－민요
익산농악(전북)－농악
탑돌이(충북)－민속놀이
서당놀이(경북)－민속놀이
연평도놀이(황해)－민속놀이
말뛰기놀이(제주)－민속놀이
하회가면무(경북)－민속극
강령탈춤(황해)－민속극
서도잡가(황해)－민요
강릉오독떼기(강원)－민요
애원성(함북)－민요
봉산탈춤(황해)－민속극
공로상
강릉오독떼기(강원)
애원성(함북)
서도잡가(황해)
개인상
신재순(강릉오독떼기, 강원)
조윤덕(진도들노래, 전남)
김희숙(해녀놀이, 제주)
문장원(동래지신밟기, 부산)
박갑근(봉산탈춤, 황해도)

아산줄다리기

민속놀이

유래

줄다리기는 옛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행해오던 민속놀이로서 대개는 정월 대보름날 또는 팔월 한가위에 행하는 대중 종합 연희예술이다.

충남지방에서는 아산을 비롯하여 당진, 연기, 대덕 등지에서 성행되었으며, 당진지방에서는 기지시 줄다리기라는 명칭으로 아직도 전승되고 있다.

과거 아산 본읍에서 행하던 줄다리기는 참가 인원이 수만 명에 달하여,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다.

아산의 본읍에서 동서로 나뉘어 여러 집으로부터 짚을 갹출하여 큰 줄을 만든다.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총출동하여 줄을 당기어 승패를 겨루었다.

줄에는 암수의 구별이 있어 동은 숫줄, 서를 암줄이라 일컬으며 이긴 쪽은 그 해의 악역과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농사는 풍년이 든다는 점풍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연중의 풍흉화복이 마치 이에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서로 함성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승패를 다투어 왔다.

큰 도로 한가운데를 경계로 하여 동과 서의 각 부락 사람들이 수만의 집단을 이루어 장관을 연출했다.

놀이 며칠 전부터 제작된 큰 줄에 동과 서가 서로 대치하여 열을 정돈한다. 진두에는 반드시 이긴다는 의지를 담은 '전필승'이란 문귀를 쓴 기를 높이 들고 대사령·참모 등이 연락을 하며 희고 붉고 누르고 푸른 대·중·소의 사령기들이 휘날리는 가운데 징과 북을 치면서 중앙 누상의 대회장, 심판관의 지시와 대사

아산줄다리기 (충남)



령의 구령에 따라 함성을 연발하며 줄을 다렸다.

특색

이 놀이는 부락 상호간의 친목을 두텁게 하고 부락민들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점풍과 기풍의 의미를 띤 부락제의이다.

구성

전 6과장으로 구성된다.

(1) 대회장 집결
(2) 1차 줄다리기
(3) 최초의 승부
(4) 역전
(5) 재역습의 모색과 결전
(6) 승자의 감격과 아량

내용

(1) 동서부 농악대가 농악을 울리며 대사령·참모들이 각 부락민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대회장에 집결한다.

(2) 대회장의 시작 선언과 심판관의 규칙 발표가 있은 다음 1차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3) 1차 줄다리기를 한 후 심판관이 중앙 경계선에서 자를 재어 승자를 판결하면 이긴 편은 흥겹게 놀며, 진 편도 같이 논다.

(4) 이긴 편이 흥겹게 노는 허술한 틈을 타서 진 편은 기습을 모의하여 갑자기 줄을 당기어 성공한다.

(5) 기습 당한 편에서 기회를 노려 동일한 방법으로 역습을 시도하나 상대편이 줄을 지키고 있어 실패한다. 이윽고 양편에서 사기를 북돋아 결전에 임하고자 흥을 돋운다.(원래는 대결전이 있을 때까지 (4)와 (5)의 과정이 수없이 되풀이 되지만 경연대회에서는 간략하게 연출함)

(6) 대회장의 결전 선언이 있게 되면 동·서부에서는 모두가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줄을 다려 결판이 나게 된다.

승패가 가려지면 이긴 편에서 최고조의 감격과 흥분 속에 춤추며 논다.

진 편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멍하게 있는가 하면, 땅을 치며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다.

대회장과 참모 등의 만류에 진 편도 함께 놀다가 퇴장한다.

놀이기구

줄 제작에 소요되는 새끼는 760타래이고, 무게는 5.1톤이며 길이는 62.4m이다. 또한 작업 연인원은 77명이다.

진도들노래 (전남)



진도들노래

민요

유래

진도는 전라남도 서남단의 다도해에 위치하는데, 동쪽은 명량해협을 건너 해남과 우수영 반도에 대하고, 북쪽은 신안군의 여러 섬과 잇대어 있다. 비록 섬이지만 매우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토지가 매우 비옥하여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다. 게다가 진도는 옛부터 예술적으로 뛰어난 바가 있어 농사와 음악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매우 우수하고도 세련된 농요가 수 없이 만들어졌다.

진도 들노래는 이러한 바탕에서 농업(수도작)의 순서에 따라 채집되어 선보이게 되었다.

특색

진도의 입지조건은 어업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토지가 매우 비옥하여 농업이 성하였으므로 농사의 고달픔을 잊고 흥겨움을 주는 농요가 발달하였다.

농사의 순서에 따른 형식이 독특하다.

구성

(1) 논일 하면서 부르는 노래
  ①모뜨는소리
  ②자진모뜨는소리
  ③못소리
  ④자진못소리
  ⑤긴절로소리
  ⑥중절로소리
  ⑦자진절로소리(풍장소리)
  ⑧길꼬냉이
(2) 밭일 하면서 부르는 노래
  ①콩밭노래

②이영밭노래

내용

노래의 주제는 대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신세타령, 인생무상, 충효심의 앙양, 권농사상의 선양 등으로 되어 있다.

(1) 논일 하면서 부르는 노래

①모뜨는소리

중모리 장단으로 소리한다. 모를 찌면서 목청이 좋은 이가 선소리꾼이 되어 모찌는 노래를 길고 구성지게 뽑으면 여러 사람이 제창으로 후렴구를 받는다.

②자진모뜨는소리

빠른 중중몰이 또는 자진몰이장단으로 소리한다. 북을 치는 사람은 머리에 길다란 수건을 칭칭 감고 그 위에 삿갓을 쓰는데 이 삿갓이 굉장히 커서 거의 팔꿈치까지 덮어 쓰고 그대로 서 있으면 앞이 안 보일 지경이다. 이때 좌우로 몸을 움직이면 삿갓이 물에 잠기게 되고 이 물을 좌우로 뿌리면서 흥겨웁게 북을 친다. 이 모양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③못소리

못방구가 흥겹게 중몰이장단을 치는 가운데 소리한다. 이 지방에서는 모심는 소리를 못소리 또는 상사소리라 부르는데 그 가락은 모뜨는소리와 같다.

④자진못소리

새참 나오는 시간이 되면 자진모리장단으로 빠르고 흥겹게 부른다.

⑤긴절로소리

김매는소리라고도 하며 느린 진양조장단에 맞추어 소리한다. 후렴구의 끝이 '하 절로로야'하고 끝맺기 때문에 절로소리라 한다.

⑥중절로소리

긴절로소리에서 차츰 흥이 무르익으면 중절로소리로 넘어간다.

⑦자진절로소리(풍장소리)

풍장소리라고도 하는데 중절로소리를 부르다가 새참이 나온다든지, 점심 때라든가, 또는 그 날 논매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일손을 빨리 놀리기 위해서 자진몰이장단에 맞추어 신나게 부른다.

⑧길꼬냉이

세벌논매기가 끝나고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상머슴을 뽑아 치하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2) 밭일 하면서 부르는 노래

①콩밭노래

아낙네들이 콩밭 김 매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②이영밭노래

목화밭 맬 때 부르는 노래이다.

베틀노래 (충북)



베틀노래

민요

유래

베틀노래는 부녀자들이 베를 짜면서 그 고달픔을 잊기 위해 부르던 대표적인 부요로 영남지방에서 비롯되어 전국에 널리 퍼졌다. 지방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나 기본적인 뜻은 비슷하다. 내용은 베틀 기구들을 여러가지로 의인화하고 혹은 고사에 비겨 익살스럽게 노래한 것이다.

충북의 베틀가는 물레를 감을 때 집단으로 부르기도 하고 베틀일을 할 때 혼자 부르기도 한다. 사설 내용의 처음 부분에서는 베틀의 부분품 명칭을 들어서 재미있게 엮어 나가다가 뒤에는 님의 죽음으로 끝맺는 한을 노래하고 있다.

특색

청주지방에서 불리는 베틀노래는 다른 고장의 민요보다 예술성과 문학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영동지방의 베틀노래와 함께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민요로 전하고 있다.

구성

베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씨아질(씨바르기)
(2) 솜타기
(3) 솜꼬치(만들기)
(4) 실뽑기(물레질)
(5) 베나르기
(6) 베짜기

이와 같은 작업과정에 따라 노래가 불리워진다.

내용

베틀노래는 베짜는 과정에 따라 불리운다. 먼저 목화다래(열매)에서 목화송이를 따 모아서 씨아로 씨를 바른다. 씨아는 두 개의 방망이로 되어 있는데 한쪽에 손잡이가 있어 목화송이를 먹이면 앞으로 솜이 떨어지며 씨가 발라진다.

씨바르기가 끝나면 솜을 타는데, 나무로 활을 만들어 시위에 걸고 당겼다 놓으면 그 진동에 목화가 가닥가닥 흐드러져 타진다. 활로 탄 솜을 모아 수수깡에 대고 가볍게 굴린 다음 수수깡을 빼면 속이 빈 꼬치가 된다. 이렇게 만든 꼬치를 물레질 하여 실을 뽑는다. 꼬아져 뽑힌 실은 가락에 감는데 물레는 실빼는 일과 감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

실꾸러미가 준비되면 날줄을 늘이는데 이것을 베나르기라고 한다. 베나르기는 실의 굵기에 따라 바디의 사이가 다른데 바디의 틈새를 새라고 한다. 새가 정해지면 바디의 사이사이에 실을 넣고 날줄을 늘이는데 실이 약하기 때문에 풀을 먹여가며 나른다. 풀을 먹이기 위해 날줄 아래는 왕겨불을 놓고 날솔로 풀을 바르며 한쪽에서 감는다.

나른 베를 베틀에 걸고 발로 끌신을 당기면 잉앗대가 쳐들리면서 씨줄을 넣을 수 있는 틈이 생긴다. 이때 북에 씨줄을 넣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고 바디를 당기면 씨날이 짜여진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몇날며칠을 짜는데 이러한 인고와 정성을 모아야 비로소 베가 짜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과정에 따라 불려지는 베틀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바람은 솔솔 부는 날
구름은 둥실 뜨는 날
월궁에 노든 선녀
옥황님께 죄를 짓고
인간으로 귀양와서
좌우산천 둘러보니
하실일이 전혀 없어
금사 한필 짜자하고
월궁으로 치치달아
달 가운데 계수나무
동편으로 뻗은 가지
은도끼로 찍어내어
앞집이라 김대목아
뒷집이라 이대목아
이내집에 돌아와서
술도먹고 밥도먹고
양철간죽 백통대로
담배 한대 먹은 후에
베틀 한채 지어주게
먹줄로 탱과내어
잦은나무 굽다듬고
굽은나무 잦다듬어
(중략)
아강아강 우지마라
느아버지 죽었다는
스물네명 유명군에
상여소리가 웬일인가
저승길이 머다더니
죽고나니 저승일세
저승길이 길같으면
오며가며 보련마는
저승길이 문같으면
열고닫고 보련마는
사장사장 옥사장아
옥문 잠깐 따놔주오
보고지고 보고지고
우리낭군 보고지고

(이희승/역대국문학정화)

기와밟기

민속놀이

유래

기와밟기는 전북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에서 행해지는 민속놀이로서 매년 정월 대보름날 행해진다. 공주를 뽑아 소녀들이 허리를 굽혀 그 위에 태우고 노래부르며 걸어가는 놀이로써 안동지방의 놋다리밟기와 놀이 형태가 유사하다.

이 놀이의 유래는 옛날 어느 난세에 공주가 피난을 가는데 다리가 없어 냇물을 건너지 못하자 마을의 소녀들이 기와형태로 몸을 굽혀 공주를 건네준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 기원설은 안동의 놋다리밟기의 그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 임실의 기와밟기의 원류가 안동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떻든 기와밟기는 놀이와 더불어 민요도 함께 구전되고 있어 이조 중엽 이전부터 성행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특색

기와밟기는 남자들의 참여가 금지된 부녀자들만의

놀이이다. 특별한 놀이도구 없이 서로의 몸을 부딪치며 노는 가운데 협동심도 기르고 가사노동과 농사일의 이중고에 찌든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었던 점이 특징적이다.

구성

공주선발과 놀이, 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정월 대보름날 저녁이 되면 마을 부녀자들이 저녁 설겆이를 마무리 짓고 모여들기 시작한다. 노래도 부르고 놀이를 하다가 사람들이 모두 모이면 본격적인 기와밟기 놀이로 들어간다.

행렬의 맨 앞에는 40~50대 부녀자들이 놀이를 주관하며, 그 뒤를 20~30대의 부인들과 소녀들이 이어 허리를 굽혀 앞 사람의 허리를 두 팔로 감아 안는다. 미리 선발된 공주는 이들의 등위에 올라서서 노랫소리에 맞추어 느린 걸음으로 걸어간다. 이때 공주가 쓰러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시녀 두 사람이 손을 들어 부축한다.

공주를 등 뒤로 지나 보낸 사람은 다시 열의 맨 앞으로 가서 허리를 구부려 행렬을 계속 이어간다. 밤늦도록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여인네들은 놀이를 즐긴다.

앞 줄의 부녀자들이 선소리를 메기면 뒤에 따르는 이들이 받는 소리를 한다.

승전무

민속무용

유래

승전무에 대한 기록은 옛 문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확실한 기원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고려 때부터 북춤이 궁중에서 의식무용으로 쓰였고 이조 때에는 무고라는 이름의 북춤이 고종때까지 정재무용으로 전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역사는 꽤 오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북춤이 통영에 전해진 것은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된 이후 영문에 예속된 교방청의 기녀들이 중앙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궁중에서 추던 무고를 유입함으로써 정착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임진왜란 중에는 이순신 장군이 장졸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병선 위에서 북춤을 추게 하였고, 이후 충무공의 춘추향사와 탄신제에서도 사당에서 헌무함으로써 당초의 궁중정재무인 무고가 점차 민속무용으로 변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명 통영북춤이라 한다.

특색

궁중무고와 일맥상통하는 승전무는 주로 춤을 추고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무고와 여러가지 유사점을 갖는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춤가락이 독특하며, 무태가 과장되지 않고 순박한 점이 특징인데 특히 협무가 흰 치마저고리를 입는 점과 춤은 추지 않고 창사만을 불러주는 점, 무대의 이동에서 동작이 화려한 것 등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하겠다.

이 춤을 승전무라 부르는 이유는 통영에 충무공의 사적이 많고, 충무공의 승첩지로 관계가 깊은 점, 또 춤의 내용도 충무공의 충의와 덕망을 추앙하며 전승을 축하하고 장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기 위한 것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구성

통영승전무는 특별히 연희과정을 독립과장으로 나누지는 않는다. 대략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큰북 1
(2) 원무 4인
(3) 협무 12인

내용

이 춤은 무고와 마찬가지로 북을 중앙에 놓고 북채 2개씩을 북 앞에 나란히 놓는다. 그러면 원무 4인이 등장하여 북채 뒤에 한줄로 섰다가 동서남북으로 나뉜 다음 꿇어앉아 북채를 어루는 춤을 춘 뒤에 북채를 들고 일어나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 춤을 추면서 돌면 협무 12인은 외곽을 에워싸고 돌면서 창을 한다.

승전무 (경남)



이때 중앙에 놓은 북은 구병법의 모든 지휘, 호령, 신호를 알리는데 사용하였다. 1번 울리면 집합, 2번 울리면 진격 또는 전투개시, 3번 울리면 퇴진, 또는 정지를 뜻한다. 즉 흩어졌다 모여드는 형태는 구병법의 삼진삼퇴를 하고 되돌아 서서 북을 치는 것으로 진행된다.

춤의 반주로는 염불도드리장단과 타령장단, 굿거리장단이 연주되고 악기는 피리·해금·장고·북 등이다. 춤은 창에 맞춰 추는데 창의 전주 가사는 다음과 같다.

달아 높이 고이 돋을사/지화 지화 지화자/어기야 어가 어허점/지화 지화 지화자/우리 우리 충무 장군 덕택이요/지화 지화 지화자/낙지자(樂之者) 오날이야/지화 지화 지화자/지화호라 지화자

북을 중심으로 둘러선 원무 4인이 정지상태에서 위와 같은 창사를 한 소절 부르고 난 후에 좌편으로 돌면서 춤을 추고 한칸 건너가서 선다. 이와같이 북을 중심으로 흩어졌다 모였다 하면서 창의 각 소절이 끝나도록 추고 되풀이 한다.

위 노래 가사의 뜻을 새겨보면 첫소절은 진중의 한 공간을 나타내고, 둘째 소절은 병선이 운항할 때의 흥겨운 뱃노래를 나타낸다. 셋째 소절은 충무공의 위훈을 찬양하고, 넷째소절은 싸움에 이겨 즐거움을 뜻하며 다섯째소절은 싸움에 이겨 기세를 올리는 뜻이 있다.

놀이기구

청·홍·흑·백 등 4색의 쾌자, 쪽두리, 한삼, 비녀, 북틀, 북, 휘장 등의 의상과 도구가 사용된다. 이밖에 반주악에 쓰이는 악기도 필요하다.

남사당풍물놀이

민속놀이

유래

남사당놀이는 남사당패(유랑연예인들)가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놀았던 놀이이다. 연희대상 지역은 주로 농어촌의 마을이며 큰 지방일지라도 성벽 밖의 서민층 마을이 주 대상 지역이었으며 활동시기는 모심는 계절부터 추수가 끝나는 늦은 가을까지였다. 남사당패는 서민들로부터는 대단한 환영을 받았지만 지배계층으로부터 심한 혐시와 수모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느 마을이나 출입할 수 없었다. '두레'가 있는 시기에는 반드시 그 마을의 두레기가 들판에서 나부낀다.

그러면 그 마을을 지나던 남사당패는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개마루 같은 데서 그들의 영기를 흔들며 신명나게 풍물을 치고 동니를 받는 등 온갖 재주를 보여준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 사이에 패거리를 끌어들일 의사가 결정되면(물론 지주의 사전 양해가 있어야 함) 두레기를 흔들어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낸다. 또 한편으론 곰뱅이쇠가 마을로 들어가 마을의 최고 권력자(양반)나 이장 등에게 놀이판을 벌이기 위해 간청을 한다. 만약 곰뱅이 트면(허락이 떨어지면) 의기양양하게 길군악(단악가락)을 울리며 마을로 들어선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열에 일곱은 곰뱅이 트지 않았다 한다.

20세기 초엽부터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남사당놀이는 지금은 겨우 그 명맥만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색

순수한 서민에 의해 행해졌던 예능인 동시에 그 대상 또한 철저히 서민들이었기 때문에 남사당놀이에는 서민들의 염원이 짙게 깔려 있으며 우리 선조들의 정신사 또한 엿볼 수 있다.

구성

남사당놀이의 종목은 모두 6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풍물
(2) 버나
(3) 살판
(4) 어름
(5) 덧뵈기
(6) 덜미

내용

저녁밥을 마치고 어두워진 다음 놀이판(넓은 마당)에 횃불을 올린다. 단악가락을 울리며 풍물잽이들이 마을의 골목을 돌면 동네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 큰 행렬을 이루어 길놀이가 이루어진다. 이때 놀이판에서는 사전에 줄타기의 줄이 메어지고 꼭두각시 놀음의 포장막과 버나·살판·덧뵈기 등을 연희할 마당 한 가운데에 멍석이 대여섯장 깔린다.

여기서 벌어지는 '남사당놀이'의 종목은 6종목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풍물

일종의 농악인 인사굿으로 시작하여 24판 내외의 판굿을 돈다. 판굿이 끝나면 농악을 치는데 이 풍물은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하며 그 인원은 최소 24명 정도가 일조를 이룬다.

(2) 버나

체바퀴나 대접 등을 앵두나무 막대기로 돌리는 묘기이다. 이 놀이의 묘미는 접시 등을 돌리는 외에 돌리는 사람 버나잽이와 받는 소리꾼인 매호씨(어릿광대)가 주고 받는 재담 및 소리가 극성이 짙은 데 있다.

돌리는 물체에 따라 대접버나·칼버나·자새버나·체바퀴 버나 등으로 분류된다.

(3) 살판

'잘하면 살판이요, 못하면 죽을 판'이라는 뜻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살판쇠(땅재주꾼)와 매호씨(어릿광대)가 잽이의 장단에 맞추어 재담을 주고 받으며 재주를 부린다.

(4) 어름

줄타기 곡예로 무대 중앙을 가로지른 높다란 외줄을 어름산이(줄꾼)가 건너가며 매호씨가 재담을 주고 받는 놀이이다.

(5) 덧뵈기

덧(곰) 본다는 것은 탈을 쓰고 하는 연희를 가리키는 일종의 탈놀음이다. 다른 지역의 탈놀음에 비하여 양식이나 행사에 관계없이 상황과 흥취에 영합하고 있다. 4마당 구성으로 되어 있다. 첫째마당(마당씻이)에서 놀이판을 확보하고, 둘째마당(옹탈잡이)에서 외세를 잡고, 셋째마당(샌님잡이)에서 내부의 모순을 불식하고, 넷째마당(먹중잡이)에서 외래문화를 배격하는 내용이다. 탈은 바가지 위에 종이를 쪄서 붙이고, 탈에 따라 요철을 나타내며, 눈구멍과 입구멍을 뚫은 다음 아교·백분염료를 배합하여 각각의 특징을 그린다.

(6) 덜미

남사당놀이의 마지막 순서이며 우리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민속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이로, 남사당패는 덜미라고 부른다.

놀이기구

풍물도구, 탈 등

김매기노래

민속놀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제주도는 그 생활환경의 분포가 대부분 바다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민속놀이나 민요의 발생을 산간촌락에서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이번 출연에 임하는 민속 '정수암화전놀이'는 화전에 속하는 산간마을에서 비롯된 민속놀이이며 또한 민요 김매는 노래인 '아왁이'와 '홍악이'소리는 —산간 밭에서 김을 매면서 제주도 특유의 '갈옷' (생감을 따서 물들여 입는 노동복)과 '삿갓'을 쓰고—20명 내지는 50여명씩 줄지어 앉아 선창에 따라서 후렴을 이어 받아가며 고된 생활의 감정, 정서를 가사로 엮어 나가는 노래이다.

이 민요는 제주도의 수많은 농요 중에서도 출연팀의 고장 정의고을에서 겨우 그 명맥을 이을 정도로 그 가락의 보존이 아쉬운 소리라 하겠다.

아왁이 소리

(후렴) 아 하 하, 아하야, 애행애해요.
앞멍에야 드러나 오라. 뒷멍에야 멀어나 지라.
(후렴)
지시어멍과 오름에 돌은 둥글당도 사르매 난다.
(후렴)
남이 첩과 소낭기 바람, 소리나도 사르매 난다.
(후렴)
이렁좌수 첩들지 마랑, 삼마목자 믿으로 가라.
(후렴)
산앞각시 씨앗에 구전, 산뒤에 트드래 가난.
(후렴)
가름밭이 매밀밭처럼, 희안번듯 나앉아서라.
(후렴)
나눈에도 요만이 고난, 임이 눈에야 얼마나고리야.
(후렴)
남이 첩과 관장사리, 괴는 밥도 두워덩 간다.
(후렴)
씨누이야 씨거동마라, 너도 가면 씬역에 간다.
(후렴)
나소리랑 산넘어 가라, 나소리랑 물넘어 가라.
(후렴)
물도산도 지넘지 마랑, 요딧올래 지너멍 가라.
(후렴)

〈홍악이 소리〉

(후렴) 야, 해, 어, 어, 기야홍
어기여랑 사디로다 (후렴)
검질짓고 골 늦인 밭 디(후렴)
사디로나 우기멍 가게(후렴)
정동골은 폴 따시로
매콥곳은 골갱이로
곱은새로 여외멍 가게.
앞이가는 놀랑생이야
조롬에 오는 돌각다리
왈그닥 달그닥 쫓아온다.
어긴여랑 상사대야(후렴)

검질짓고 골늦인 밭디
검질버친 사딧소리
사디로나 우기멍 가게.
요런날에 요런일 홈사
성이 얼마 가실것가
실프댕들 내마랑 간들
그리해로 뉘호여 주리
앞멍에엔 곤 아장 앉안
혼저오랜 손을 친다.
손치는딘 낮에나 가곡
눈치는덴 밤에나 가게
해는 보난 서산에 지고
월출동경 돌 솟아온다.
솟아올랑 밤낮이 되라
나흘일랑 다 호영가게
앞멍에야 들어나 오라
뒷멍에야 문어나 나라
혼소리에 두좀 반식
곱은새로 여의멍 가게.
〈후렴에서 부터 선창민요가사로 이어진다〉

해녀뱃노래

민요

제주도 민요 중의 하나이다. 해녀들이 배를 저어 바다에 나가고 들며 부른다. '잠녀노래'라고도 한다. 8분의 12박자 느린자진모리장단에 맞는다. 반장단을 메기고 반장단을 받게 되며 두 사람 이상이 부르게 되어 있는데, 다른 민요와 달리 메기는 소리는 받는 소리가 나올 때에도 '멜리스마'로 음을 끌기 때문에 두 소리가 다성적인 효과를 낳는다. 세 사람 이상이 부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받는 사람 두 사람이 동시에 다른 가락과 다른 사설로 다르게 받기 때문에 받는 소리까지 동시에 엉켜져 복잡한 다성효과가 생기는 이른바 '헤테로포니'가 생기며, 서로 다른 음들이 동시에 울려서 우연성이 생긴다. 받는 소리의 사설은 '이여사'하고 뒷소리로 받기도 하고 또 메기는 소리를 그냥 따라하기도 하며, 또 전혀 다른 사설을 받기도 하여 다양하다. 선율의 주요음은 라·레·미 3음으로 3음계적이다. 음조직은 4도 위에 2도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조직을 가지는 것을 한국에서 흔히 보이는 계면조적 특징으로 본다. 레로 종지되어 미가 흘러내려 '플렉스톤'이 되므로 슬픈 느낌을 준다. 민요가 매우 힘찬 것인데도 슬픈 느낌을 주는 것은 계면조적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라 하겠다. 1968년 대전에서 개최된 제9회 전국민속경연대회와 다음해에 대구에서 개최된 제10회 대회에 출전한 제주팀의 해녀놀이에 '오돌또기'·'이야홍'·'서우젯소리'와 같이 포함된 민요이다.

사설은 해녀들의 작업을 노래하는 것과 작업과는 관련없이 일상생활의 정감을 노래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해녀들의 작업을 노래하는 사설은 또한 일반적인 해녀질의 실태와 출가생활을 제재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 사설 속에는 바다에 생명을 건 해녀들의 초인적인 의지가 드러난다. 사설의 바탕에는 바다를 집이나 밭과 다름없이 여기면서 우자맥질하는 실상과 더불어 생업에 대한 강렬한 투혼이 드러난다. 그 사설은 흔한 의문종결형을 씀으로써 역동적·직설적인 색채가 짙다. 창법은 대체로 선후창과 교창을 택한다.

어르마타령

민요

유래

어르마농요는 전라북도 고창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농요로서 일반적인 농요와는 그 가사가 색다르다. 농요는 일반적으로 집단성과 노동과정을 엮은 것이 대부분이나 어르마농요는 민요의 주된 내용인 한과 생활정서를 그 가사로 하고 있다.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노래 내용이 유교적 관습에 젖어있던 기만적 열녀상을 풍자하는 것으로 보아서 조선시대에 그 기원이 있지 않나 추측된다.

특색

노래의 내용과 성격이 양반과 사대부의 명분적인 생활을 비꼬고 있어 계급이 낮은 층에서 널리 애창되었던 민요이다. 전체적 특징을 보면 종래의 4·4조를 탈피한 자유분방한 가락으로 대단히 경쾌하고 흥겨운 민요이다.

또한, 인물의 신체적 특징을 유교적 이념과 배치시킴으로서 그 시대의 부조리를 풍자와 고발로써 자연스럽게 드러내 놓고 있다.

구성

이 노래는 여인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할 때 일의 고됨을 잊고 노동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부르던 노래이다.

'어르마야 어르마야'의 소리는 분명한 어의를 알기

어려우나 하나의 감탄사로 추측된다.

선소리는 매우 흥겨운 가락으로 시작되고 후렴구인 '님이나 열녀로 놀고나 가소'는 제창하는 것으로 받는 소리이다.

내용

어르마 타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소리) 어르마야 어르마야 임이나 열녀로 놀고나 가소

(화창) 어르마야 어르마야 임이나 열녀로 놀고나 가소

(선소리) 오가다 만난임은 상투가 빠져도 못놓겠네

(화창) 어르마야 어르마야 임이나 열녀로 놀고나 가소

(선소리) 저 년의 가시네 눈매보소 겉눈은 감고서 속눈 떴네

(화창) 어르마야 어르마야 님이나 열녀로 놀고나 가소

(선소리) 저 년의 가시나 풀똑 보소 풀똑은 좋아서 홍두깨네

(화창) 어르마야 어르마야 임이나 열녀로 놀고나 가소

(선소리) 저 년의 가시나 젖통보소 유자냐 탱자냐 몬쳐보자

(화창) 어르마야 어르마야 임이나 열녀로 놀고나 가소

(선소리) 저년의 가시나 몸매보소 지상의 태도가 분명코나

(화창) 어르마야 어르마야 임이나 열녀로 놀고나 가소

(선소리) 저년의 가시나 배꼽 보소 요강의 뚜껑이 분명하다

(화창) 어르마야 어르마야 임이나 열녀로 놀고나 가소

(선소리) 저 년의 가시나 똥 때 보소 송아지 새끼 나오겠네

(화창) 어르마야 어르마야 임이나 열녀로 놀고나 가소

(선소리) 저 년의 가시나 다 되었네 낙화도 아닌데 꽃 떨어졌네

(화창) 어르마야 어르마야 임이나 열녀로 놀고나 가소

(선소리) 칠산 연평에 들어 온 조구 우리집 마당에 다잡아 놓았네

(화창) 어르마야 어르마야 임이나 열녀로 놀고나 가소

(선소리) 칠산 연평에 들어 온 청어 전 상수 배에다 다잡아 놓았네

(화창) 어르마야 어르마야 임이나 열녀로 놀고나 가소

(선소리) 엽전 칠백냥 벌어다 놓고 칠산 도장원하였다고 궁둥이 춤만 추는구나

(화창) 어르마야 어르마야 임이나 열녀로 놀고나 가소

배치기노래

민요

조기의 명산지 위도 어부들이 불러오던 어부가의 하나. 이 배치기 노래는 비슷한 유형이 많다. 그러나 지금도 고래의 풍어기원제(떼배굿)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위도 뿐이며 이곳 본바닥의 노래가 이 '배치기 노래'다. 따라서 가사나 가율이 비교적 탈색하지 않고 전승된 것으로 결정된다. 선소리꾼이 가사를를 매기면 "에화 에화 에헤요"하는 후렴을 군중이 화답한다. 본 대회에 소개하는 부문은 배치기노래 가운데서도 선주와 어획물인 조기를 대상으로 노래부른 대목이다.

(선) 에헤 에헤 에화요(이하 후렴)

(화) 에헤 에헤 에화요(이하 후렴)

(선) 막걸리 한잔을 먹었더니 없던 신명이 절로나네

(화) 후렴

(선) 칠산 연평에 들어온 조구 우리집 마장에 다잡아 놓았네

(화) 후렴

(선) 칠산연평에 들어온 청어 진상수 배에다 다 잡어 놓았네

(화) 후렴

(선) 엽전칠백냥 벌어다 놓고 칠산 도장원하였다고 궁둥이 춤만 추는구나

(화) 후렴

(선) 배꼬장에 봉기를 꽂고 우리집 마장에 신명이 났네

(화) 후렴

(선) 어리때 고장이 장화를 꽂고 이물때 고장에 봉기를 꽂았네

(화) 후렴

(선) 오만칠천량 벌어다 주니 선주는 궁둥이 춤만 저절로 난다

(화)후렴
(선)서사골에 들이는 조구야 우리집 풀대기 종종 낙더라
(화)후렴
(선)닫 둘러매고 칠산바다로 돋실러간다 돋실러간다
(화)후렴
(선)떳구나 떳구나 우리배 한판에 불꽃이나 떴다
(화)후렴
(선)사공놈은 기분좋아 열북을 내걸고 북을 막 때려친다
(화)후렴
(선)우 아래동 다 찾아 놓고 가운데 등에서 북치거났네
(화)후렴
(선)이물에다 호기를 꽂고 허릿대 꼬작에 봉죽을 내띄고 뱃소리 날을 새네
(화)후렴
(선)홍도 바다에 들어온 조구 칠산으로 머리를 돌려 칠산바다에 들어온 조구 우리배 마장에 다잡아 실었네
(화)후렴
(선)에헤 에헤 에화요
(화)에헤 에헤 에화요
(선)에헤 에헤 에화요
(화)에헤 에헤 에화요

익산농요

민요

익산농요는 마한의 고도며 백제문화의 제2발상지로 알려진 전북 익산지방의 농사꾼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 지방에는 삼국 시대에 맛동요를 전했다고 하는 맛동(백제무왕)이 생장한 곳으로, 일찍부터 이 고장의 백성들이 생활과 정서를 구가하는 여러가지 민요들이 전승되어 왔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근대에 이르러 실전된 것이 많고, 현재까지 전승되면서 비교적 널리 보존되고 있는 민요중에 가장 특색있는 것으로는 농군들이 벼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는 농요들이다. 이것은 비교적 평야지에 속하는 이 지방에 벼농사를 숭상하면서 '품앗이', '두레'등 집단적인 공동작업으로 농역을 하는 가운데에 피로를 풀고 농군의 흥취를 돋우며 농경생활의 정서를 읊조리는 노래로서 발단된 듯하다. 따라서 이 지방에는 모심기부터 김매기, 만두레, 벼베기, 등짐, 타작, 방아찧기등 모든 농역행위에 따라는 노래가 갖추어 있다. 이 가운데에 '긴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산야'등 이 지방에서 특히 성행되는 농요이다.

'긴방아타령'이나 '자진방아타령'은 실상 방아찧는데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김을 매는데 부르는 노래로서 그 곡조가 특이하다.

'산야'는 만두레(손으로 마지막 훔치는 작업)할 때와 벼를 벨 때에 부르는 것의 2종이 있는데 두가지 다 그 작업하는 동작의 완급에 따라 가곡의 차이가 있다. 만두레에 부르는 것은 희소곡으로 있긴 하지만 음률이 아주 완만하고 애상적인 것이 많다. 이 '산야'를 부르면 산천초목이 떤다고 하면서 음력 7월 이전에는 부르지 않는 것이 일종의 믿음같이 되어 있는 것도 특색이다.

'등짐 노래'와 '타작노래', '방아찧기 노래'는 어느 지방에나 있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 지방에서 벼등짐, 벼타작에 알맞게 불리우는 특성이 있다. 특히 타작노래는 나락을 개상질로 타작하면서 부르는 음률과 타작하는 동작이 율동의 조화를 이루며, 방아찧기 노래도 큰 절구통 하나에 4,5명이 들어서 메갱이로 방아를 찧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메소리와 리듬의 조화를 이루고 동작이 흥겹게 보기좋은 것이 특색이다.

이상에서 말한 익산 농요라 해도 그 가곡이 약간씩 다른 것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연출되는 농요는 현재까지 이것을 보존, 실제 농역에서 부르고 있는 익산군 삼기면 오룡리의 순수한 농군을 중심으로(금마, 황산, 함열)지방에 전해지는 것이다.

(1) 김매기노래

①긴방아 타령

에헤야—아아아—홍어—어어히—힛…… |앞소리(후렴)|

헤—헤헤야—응히—아웅—어히—어허허

에헤헤—에르라

받는 소리…… |앞소리(후렴)을 그대로 화창함|

태고라 천황씨는 천하자본 농사로다……앞소리

받는 소리…… |앞소리(후렴)과 같음|

저건너 갈매봉 비묻어 들어온다……

후장을 두르고 삿갓을 쓰네

받는 소리…… |앞소리(후렴) 그대로 함|

②자진방아 타령

앞소리 : 아아아 아아 받는소리 : 아아아 아아

앞소리 : 에에에 헤에 받는소리 : 에에에 헤에

앞소리 : 어허 비가 오네 받는소리 : 아아아 아아
앞소리 : 어데를 갔다 인제오나 받는소리 : 아아아 아아
앞소리 : 옥중 춘향이 임맞난듯 받는소리 : 아아아 아아
앞소리 : 칠년 대한에 단비로다. 받는소리 : 아아아 아아
앞소리 : 벳잎이 펄펄 영화로다. 받는소리 : 아아아 아아
앞소리 : 어찌 아니 반길손가? 받는소리 : 아아아 아아
앞소리 : 비를 맞아도 나는 좋고 받는소리 : 아아아 아아
앞소리 : 밥 아니 먹어도 배가 불러 받는소리 : 아아 아 아아
받는소리 : 아아아 아아
합창으로 : 얼시구 절시구 지와자 좋네
얼시구 절씨구

(2) 만두레 노래

만두레때 부르는 산야
영감아 영감아 아아—…앞소리
무정한 영감아 아—
육칠월 단물에 메뚜기 뒷다리에 채여 죽은 영감아
부귀다남 백년동락 하잣더니 나홀로 두고 어데로 갔나
오호—오오—오호—응하고……받는 소리
영감아 영감아 아아— ……앞소리
어데로 갔나 영감아 아—
지리산 가마귀 기빨물어다 놓듯이 날데려다 놓고
쓸쓸한 빈방안에 독수공방 어이사르라고
나홀로 두고 어데로 갔나
오호—오오—오오—응하고……받는소리
여보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앞소리
아아— 무정한 마누라 아—
작년 팔월 추석에 송편 먹다 체헤 죽은 마누라
우리가 영남에서 건너올 때는 백년동안 살잣더니
나홀로 두고 어데로 갔나 마누라
오호—오오—오오—응하고……받는소리
여보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아아—……앞소리
어디를 갔는가 마누라 아아—
일연은 삼백육십일 하루만 못봐도 못사는 마누라
북만 산천 어데라고 정은 두고 몸만 가니
정은 마져 갖어 가소 어데로 갔나 마누라
오호—오오—오오—응하고……받는소리

(3) 나락베기 노래

앞소리 검었구나 검었구나
남산모퉁이 청치마자리 검었구나
후 렴 헤헤헤헤이—옛 뚜루미야
앞소리 잘되었구나 잘 되었구나
이논 농사가 잘 되었구나
후 렴 헤헤헤헤이—옛 뚜루미야
앞소리 잘도 비네 잘도 비네
상산땅 조자룡이 흔칼쓰듯 잘도 비네
후 렴 헤—헤헤 헤이—옛 뚜루미야
앞소리 막거리 단겨라 막씨러 잡어라
삼사십이 열두폭이씩 막걸어 당겨라
후 렴 일락서산에 월촌옹영에 달솟아 오르니
우리님 문밖에서 기다리신다.
후 렴 헤—헤헤 헤이—옛 뚜루미아

(4) 등짐 노래

앞소리 어허허어—어허 어어—헤 얼라차
받는소리 어허허어—어허 어이—헤 얼라차
앞소리 (후 렴)
앞소리 바늘 같은 허리에다 태산같은 짐을 지고
이 고개를 어이 넘으리
후 렴 어허허어—어허 어어—헤 얼라차
앞소리 일락서산 해는 지고 월출동영 달 솟아 오르는구나
후 렴 어허허어—어허 어어—헤 얼라차
앞소리 여보소—주인임아 닭잡고 술을 내어 지친 농군 대접하소
후 렴 어허허어—어허 어어—헤 얼라차
앞소리 안인심이 조아야 배양반 출입이 넓다더라
후 렴 어허허어—어허 어어—헤 얼라차
앞소리 여보소 농부님네 닭잡고 술동이가 나왔네
이제는 들어갑시다.
후 렴 어허허어—어허 어어—헤 얼라차

(5) 개상질 노래

앞소리 : 왓나 받는소리 : 어어
앞소리 : 에야아—행— 받는소리 : 에야하—행
앞소리 잘도친다 타작이야 받는소리 : 어—허허하
전원합동 이—히히해—에—헤 이히 나헤
앞소리 에야하—행— 받는소리 에야하—행
앞소리 곡우절에 씨를 던져 받는소리 어—허허하
전원합동 어—허허해—에—헤 이히나헤
앞소리 에야하—행— 받는소리 에야하—행—
앞소리 하지절에 모를 심어 받는소리 어—허허하
전원합동 어—허허헤—에—헤 이히나헤
앞소리 에야하—행— 받는소리 어야하—행—
앞소리 삼복절에 김을 매어 받는소리 어—허허 하

전원합동 어—히히헤—에—헤이히나헤
앞소리 에야하—행— 받는소리 에야하—행—
앞소리 7,8월에 여문곡식 받는소리 어—허허하
전원합동 어—히히헤—에—헤이허나헤
앞소리 에야하—행— 받는소리 에야하—행—
앞소리 9,10월에 거두었네 받는소리 어—허허하
전원합동 어—허허해—에—헤이히니허
앞소리 에야하—행— 받는소리 에야하—행—
앞소리 이 나락을 타작해서 받는소리 어—허허하
전원합동 어—허허해—에—헤이히니허
앞소리 에야하—행— 받는소리 에야하—행—
앞소리 삼동 삼춘 양식하세 받는소리 어—허허하
전원합동 어—허허해—에—헤어히나헤

(6) 방아찧기 노래

멕임소리 받는소리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이방아가 웬방아냐 아헤—방아헤—
강태공의 조작인가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기산영수 별긴곤세 아헤—방아헤—
효자 효부 놀아 있고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보은 속리 문장대에 아헤—방아헤—
세조대왕 놀아 있고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우리들은 놀데 없어 아헤—방아헤—
이 방아로 놀아보자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쿵닥쿵쿵 듣기 좋고 아헤—방아헤—
보기 좋게 놀아보세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천왕씨는 목덕으로 왕하시고 아헤—방아헤—
지황씨는 도덕으로 왕하시고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수인씨는 화덕으로 왕하시니 아헤—방아헤—
우리들은 방아로 왕을 하자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이 방아를 찧어다가 아헤—방아헤—
나랏님께 봉사하고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한참에 열두도구 아헤—방아헤—
백옥같이 찧어내사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일락서산 해떨어진다 아헤—방아헤—
부즈런히 찧어내자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아헤—방아헤—

서당놀이

민속놀이

유래

원놀음은 음력 정월 초순에 20~30대 청장년들이 조선시대 하위관아의 권력행사 등을 모방하여 놀던 민속연희이다.

경상북도 영양·봉화·영주·예천·문경·울진과 강원도 동남부 삼척 일대에 전승되던 민속놀이로서 원놀음이 특히 성했던 곳은 영양·예천·문경이고 안동의 경우는 서당 학동들에 의해 글방놀음·임금놀음과 함께 원놀음이 행해졌다.

경북 영양군 영양면의 원놀음은 조선 영조때 영의정 이광좌(1674~1740)가 민정 시찰차 어느 고을을 지날 때, 과년한 처녀 세 자매가 출가하지 못한 서러움을 토로하는 원놀음을 목격한 이후로 시작되었다는 유래담이 있다.

특색

(1) 등장인물수가 일정치 않고 경우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며, 대사 또한 일정한 각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2) 마을 공동의 기금마련 수단으로 원놀음이 행해지기도 했다. 모금방법은 농악패의 걸립과 비슷하지만, 걸립으로 모을 수 없는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색다른 특징이다.

구성

등장인물은 조선시대 하위 관아의 소속원 즉, 원(수령, 군수, 현감)이하 향리를 참석인원으로 적당히 배역하되 참가인원에 따라 원과 육방관속만 배역하는 수도 있고 인원이 소수일 때는 원과 이방, 형방, 나졸, 사령 정도로서 진행한다.

완전구성일 때는 군수 이하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과 통인 2명, 수명의 사령, 관노, 관비, 일수, 수청기생에 이르기까지 문란하고 타락한 조선시대 후기의 관사를 그대로 모방하고 구사하기 위하여 단위부락 청장년들이 총동원된다.

그보다 더 대규모일 경우에는 악공이 동원되고 고을원이 행차할 때 웅장한 풍악을 울린다.

놀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출연행렬이 대회장을 일주한 다음 무대를 향하여 행진한다.(이때 풍악을 울리기도 한다)

(2) 무대에 도착하면 원은 가마에서 내려 무대중앙에 자리잡고 앉는다.

(3) 이어 각 배역은 원을 중심으로 자기 위치를 잡는다.

(4) 전원이 완전히 위치를 정하면 원의 첫대사로 원놀이가 시작된다.

(5) 원놀이

(6) 원놀이가 끝나면 풍악이 울리는데 거기에 맞추어 출연자 전원이 즉흥적인 춤을 추다가 퇴장한다.

내용

우리나라의 민속극 대사는 대체로 구전에 의존하여 명맥이 이어졌으며 공연 환경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사를 변경하거나 삽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놀이도 이와 같은데 일정한 각본도 없이 대부분 즉흥적이었으나 사전에 다소 준비는 하였다 한다. 원놀이는 농민의 놀이이므로 농업과 관계된 대사내용이 많았으나 어디까지나 주요골자는 지방수령이 전제하는 행정, 군사, 사법, 조세, 부역 등의 범위 안에서 채택되었다.

하례가 끝나면 원이나 아래 이속들은 즉시 주민의 위법사실 여부를 묻고 범법자를 출두케 하여 추궁하고 상벌을 내리게 되는데 대사에는 해학이나 우스개소리를 곁들여 폭소를 자아내게 하기도 한다.

강릉오독떼기

민요

유래

강릉오독떼기는 강원도 명주군 구정면 학산리 일대에서 전승되는 농요이다. 오독떼기는 태백문화제(강원도 민속문화제행사)와 단오 때마다 열리는 향토민요경창대회의 지정곡으로 향토적인 정서가 듬뿍 어려있는 민요이다. 이 노래는 주로 김을 맬 때에 부르던 농부가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조가 동해일대를 돌아보고 있을 때 강릉 농민으로부터 오독떼기를 잘 부르는 사람을 뽑아 부르게 한 일이 기록되어 있으며 상을 내렸다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어떤 고을의 원님은 왕고개를 넘다가 들판에서 들려오는 오독떼기 가락에 감동하여 향청에 불러들여 노래를 들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 이 노래의 발생지는 왕고개(왕현) 부근 학산과 여찬리 부근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부의 주장에 의하면 신라 때 면학과 풍류의 도장이었던 이곳에 머물던 화랑이나 국선들이 부르던 노래가 곡조만 남아서 내려왔다는 설도 있다.

다섯번을 꺾어서 부르기 때문에 오독떼기라고 했다는 설, 또 오독떼기란 동·서·남·북·중앙의 오독(五讀)을 떼기(개척)한다는 뜻도 되는데 '들떼기'란 들판을 개간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다.

지방민들에 의하면 김맬 때는 오독떼기를 불러야 기운이 부쩍부쩍 나서 풀을 버쩍버쩍 잡아 당길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특색

'쌈싸기 민요'를 부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논을 다 매어 갈 때면 농부들이 둥글게 둘러서 남은 논을 마저 매는데 이러한 모습을 쌈싸기라 부르며 이때 '싸때' 혹은 '쌈싸기'라는 민요를 부른다.

내용

가창 방식은 두 패로 나뉘어 한 절씩 부르고, 또 한 절의 절반을 앞소리꾼이 메기고 그 다음 사설의 첫 자를 미리 내어주면 뒤 절반을 일제히 받는다. 사설의 내용나 선율형은 강원도 다른 고장의 메나리와 비슷하다.

이슬아침 만난동무
석양천에 이별일세
머리야 좋고 실한처녀
줄뽕남게 글앉았네
강릉이라 남대천물
빨래망치 둥실떴네
팔도라 돌아들어
간데쪽쪽 내집일세
양근지평 썩나서니
경유바람 완연하네

연평도놀이

민속놀이

연평도놀이는 어촌에서 부녀자들이 해마다 대소 명절에 물동이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또아리로 장단을 친다. 이른바 '물장구'라고 하며 그 노래 역시 소박하면서 연평도의 향토색을 잘 나타내고 있어 일명 '쇠평도 노래'라고 부르기도 한다.

'뱃치기'는 풍어기에 어부들이 고기잡이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인 바 뱃고사를 지내면서 부터 만선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를 엮은 씩씩하고 남성적인 민요이다.

13

제1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2. 10. 20 ▶ 10. 22
대전공설운동장

제1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2. 10. 20-10. 22.
대전 공설운동장

대통령상
탄금대방아타령(충북)-민요
국무총리상
우수영 부녀농요(전남)-민요
문공부장관상
익산목발노래(전북)-민요
동래지신밟기(부산)-민속놀이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김천농악(경북)-농악
장려상
수심가엮음(평북)-민요
영변가(평북)-민요
애원성(함북)-민요
평양다리굿(평남)-민속놀이
어린이 농악(충남)-농악
미수상 참가작
황해도민요(황해)-민요
투호놀이(서울)-민속놀이
의성가마싸움(경북)-민속놀이
타구놀이(경남)-민속놀이
홍해롱의놀이(함북)-민속놀이
은율탈춤(황해)-민속극
삼삼이와 돈돌라리(함남)-민속무용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통영오광대(경남)-민속극
횃불쌈놀이(충남)-민속놀이
공로상
강릉농악(강원)
봉산탈춤(황해)
통영오광대(경남)
북청사자놀음(함남)
개인상
양도일(횃불쌈놀이, 충남)
이영숙(경기어린이농악)
김선봉(봉산탈춤, 황해)
오정두(통영오광대, 경남)
김미자(북청사자놀음, 함남)

탄금대방아타령

민요

유래

일반적으로 충청도에는 독특한 민요가 없다고 알려져왔다. 그것은 충청도가 지역적으로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의 접경지대이므로 다른 지방의 여러 민요와 혼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통속민요인 '홍타령'이 유일한 충청도 민요라고 불릴 정도로 충청도 고유의 민요는 빈약하다.

방아타령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만 방아를 찧으며 부르던 부녀자들의 노작가요인 만큼 그 연원이 오래된 것임에 틀림없다.

특색

각 지방마다 향토요가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특히 중원의 향토요는 다른 민요에서 볼 수 없는 특징과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1) 모찌는소리

모심기 전에 모판을 찌면서 부르는 것으로 그 부근 지방인 진천이나 음성지역과 조금씩 다르게 불리운다.

(2) 모심기소리

일명 '아라성'이라 하는데, 강원도아리랑이나 정선아리랑을 변형시킨 것으로 흔히 말하는 '메나리'로써 구성진 느낌을 준다.

(3) 논매기소리

중원지방의 논매기소리는 초벌을 맬 때 긴 방아타령으로 시작하여 중거리와 자진방아타령으로 다양하게 부른다.

(4) 방아타령

가사는 충주 중원지방의 것이라 할 수 있고 가락은

탄금대방아타령 (충북)



판소리 심청전의 방아타령과 같이 전라도 방아타령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구성

(1) 제1부
  ①모찌는소리
  ②모심기소리
  ③논매기소리
(2) 논매기소리
  ①긴방아타령
  ②탄금대방아타령

내용

(1) 제1부
①모찌는소리
빈 광장에 모판을 배치해놓고 선창 후창의 형식으로 부른다.

여보시오 농부님들
이못자리를 절우소
절우자 절우자
이못자리를 절우자

②모심기소리
여기 꽂고 저기 꽂고
삼백출 자리만 꽂아주게
아라성아 아라서엉아
아리랑 얼싸 아라성아

(2) 제2부 방아타령
흰 광목 치마 저고리에 수건을 쓴 부녀자들이 도구방아, 디딜방아, 연자방아를 찧으면서 부른다.

①긴방아타령(후렴)
어기야 에헤로 방아로다
지조창생 한 연후에
탄금대가 여기로다
청풍명월 우리고장
방아소리로 이름이났네

②탄금대방아타령(후렴)
어유하 방아여
떨그렁 떵떵 잘도 찧는다

우수영부녀농요

민요

유래

전남 해남군의 서부에 돌출한 화원반도에 위치한 우수영은 지난 날 전라우도 수군절도영이 소개했던 곳으로서 명량해전의 승첩지로도 유명하다.

아울러 강강술래, 고싸움, 쌍치기 등의 많은 민속놀이와 민요가 전승되어 오는 민속의 고향이기도 하다.

폭이 협소한 구릉성 반도인 화원반도는 수원이 극히 메말라 예로부터 전형적인 밭농사 지대이다. 그리고 이 고장의 여성들은 '들에서 낳아 들에서 죽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밭농사에 관계되는 노동을 전적으로 도맡고 있다.

밭을 골라 씨를 뿌리며 김을 매는 작업에서, 수확 후의 타작과 방아찧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작업을 품앗이의 협업적인 작업에 의해 일관되게 처리해낸다.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면서 목청이 고운 여자가 선소리를 메기면 전원이 받는소리를 합창한다. 남도의 유연하고 구성진 정서가 넘치는 굴곡지고 툽툽한 후렴의 합창이 들녘에 메아리치는 동안에 그 많은 일을 처리해내고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게 된다.

장구한 세월, 촌락 공동체의 일체감을 지탱하여온 협동과 상부상조의 원천이면서 노동의 고달픔을 잊게 하여주던 노동요가 이제 급격한 시대의 변천으로 인하여 급속한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이에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계기로 우수영지방에 전승되어 오는 전작에 관계된 부녀 노동요를 일괄하여 하나의 체계 속에서 정리한 것이다.

특색

우수영 지방에서만 전승되어 오는 부녀자들의 전작 관계의 노동요로서, 작업단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가창된다.

가락이 다양하고 여음이 유연하며 굴곡져서 매우 구성지다.

서남부의 해안에서와 도서 지방에서 널리 불리는 둥덩애타령은 우수영 지방에서는 놀이와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것은 이 지방에서 성행하는 강강술래와 유사한 원무이지만 그것보다 발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함박으로 장단을 치는 것은 다른 민요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색있는 소리이다.

구성

(1) 길노래
(2) 들노래
(3) 돌개노래
(4) 방아타령
(5) 둥덩애타령

내용

(1) 길노래
작업을 나갈 때, 들어올 때 부르는데 그 가락이 매우 흥겹고 구성지다.

(2) 들노래

김을 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이 고통을 잊기 위해 꺾는 노래를 흥겹게 부른다.

목청이 고운 여자가 상황에 맞는 사설을 구성지게 메기면 전원은 흥겹게 꺾어 넘어가는 여음을 합창한다.

(3) 돌개노래

농작물의 탈곡에 없어서는 안되었던 도리깨를 써서 탈곡을 하면서 부른다.

넓은 마당에 보릿단을 펼쳐 놓고 두줄로 서서 구슬땀을 흘리며 도리깨질을 하는데, 이때 부르는 노래이다.

가락과 여음이 유연하면서 경쾌하다.

(4) 방아타령

방아타령은 전국 각지에 널리 분포된 노동요로서 사설과 가락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우수영지방의 방아타령은 길고 구성지며 흥겨운 여음의 가락이 매우 뛰어나다.

(5) 둥덩애타령

둥덩애타령은 전남의 서남 해안과 도서 지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노래로서 여성들의 무요이다.

다른 지방에서는 노래만이 전할 뿐이고 놀이는 소멸되었으나, 우수영지방에서는 노래와 함께 강강술래와 유사한 원무를 춘다.

주로 농경의례가 집주된 정월 보름, 백중, 한가위 등의 밝은 달밤에 넓은 마당에서 악기에 맞춰 '고사리 꺾기', '가마등등', '덕석말이' 등의 대형을 엮으며 덩실덩실 춤을 춘다. 이때 목청이 좋은 여자가 선소리를 메기면 전원이 구성진 여음을 합창한다.

시, 노래, 춤이 일체가 되어 놀게 되는 이 놀이는 강강술래와 함께 고대에 기원한 농경무용인데, 강강술래보다 훨씬 무용화되어 발달된 형태이다.

놀이기구

둥덩애타령을 부를 때 쓰이는 함박이라는 원시 타악기가 독특하다.

익산목발노래

민요

유래

익산은 전라북도 이리의 동북쪽에 있고 호남평야의 동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이다. 또 문화적으로는 이천년 전 마한의 고도였고 백제의 주요 도읍이었던 비사벌의 유서 깊은 고장으로 백제의 유적과 문화 전통을 많이 계승하여, 이 지방 특유의 토속 민요가 많이 남아 있다.

목발노래란 지게의 목발을 두드리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다. 지게는 한국의 농민들이 짐을 질 때 쓰는 기구이며 두 개의 나무로 된 긴 다리가 있는데 이것을 목발이라고 부른다.

지게는 농민들에게 곡식단이나 풀, 나뭇단 등을 져 나를 때 반드시 필요한 운반 도구이다. 산으로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가는 나뭇꾼들이 작대기로 지게 목발을 두드리며 부르는 민요이다.

특색

무거운 짐을 질 때와 가벼운 짐을 질 때, 그리고 빈 지게로 나갈 때의 노래의 한배는 자연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 목발노래는 산타령, 등짐노래, 둥당기타령, 지게 목발노래, 작대기타령 등 여러가지 한배의 노래가 있다.

구성

(1) 산타령
(2) 등짐노래
(3) 지게목발노래
(4) 둥당기타령
(5) 작대기타령

내용

(1) 산타령

산타령은 초부들이 산에 나무하러 가서 나무를 하며, 또는 풀을 베며 부르는 소리로서 인생사의 회포를 느린 육자배기 가락으로 부른다. 따라서 장단은 느린 진양조 가락이다.

민속경연대회에서는 지게, 작대기로 목발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었고 한 사람이 독창으로 길게 매기고

익산목발노래 (전북)



여러 사람이 찹창으로 짧게 '구나—에'하고 6박자 한 장단으로 받았다.

독창 부분은 6박 짜리 6장단이나 되는 긴 노래이다.

산타령은 원래 서울의 경기산타령, 평양의 서도산타령, 그리고 남도의 산타령이 있다. 경기와 서도의 산타령은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의 4곡으로 되어 있다. 한편 남도의 산타령은 육자배기, 흥타령, 개구리타령 등이 있다. 따라서 산타령이라 이름 붙여 놓고 육자배기를 부르는 것은 이러한 비유에서이다.

산타령이 끝나면 등짐노래로 넘어간다.

(2) 등짐노래

이 노래는 느린 중모리 장단에 맞는데 지게 위에 나무를 잔뜩 해서 짊어지고 돌아오며 부르는 소리이다.

음악의 선법은 남도 특유의 시나위조와는 약간 다르다. 골격은 4도 위에 장2도를 쌓아 올린 계면조이고 떠는 목, 평으로 내는 목도 구비하고 있지만 꺾는 목이 시나위조와는 다르게, 꺾지 않고 그냥 장2도 위의 몸으로 부른다.

특히 "바늘같은 허리에다 태산같은 짐을 지고 이 고개를 어이 어이 넘을까"하는 대목은 어떻게 들으면 유머러스한 감도 없지 않으나 역시 초부들의 애환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짐노래가 끝나면 지게 목발노래로 넘어간다.

(3) 지게목발노래

지게목발노래는 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올 때 또는 나뭇짐을 지고 신바람이 날 때에 지게의 목발을 작대기로 두드리며 부르는 노래이다.

장단은 특이하게 엇모리 장단에 맞추는데 리듬감이 넘치는 가락으로 익살스럽게 주고 받는다.

이 노래는 선법도 시나위조와는 다른 동요조이다.

(4) 둥당기타령

지게목발노래가 끝나면 굿거리 장단에 둥당기타령을 부른다.

이 노래는 시나위조로 메기고 받으며 흥겹게 부른다.

(5) 작대기타령

마지막으로 부른 작대기타령은 서울지방의 창부타령을 부르는데 굿거리 장단을 북이나 장고로 치는 것이 아니라 지게 작대기로 목발을 치며 부른다. 따라서 이 노래의 이름인 작대기타령도 여기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놀이기구

지게, 지게작대기.

동래지신밟기

민속놀이

유래

지신밟기는 옛날부터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경에 영남 각 지방 농민들 사이에서 행해져 오던 일종의 가면행렬놀이이다. 이 놀이에서 마을사람들은 지신을 진압하여 마을과 집안의 평안을 빌고 나아가서는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였다.

지신밟기는 원래 그 이름에서도 연상할 수 있듯이 뛰고 춤추며 간간이 기원의 풀이를 읊는 것이 원형이었다. 그러나 약 400년 전의 임진왜란 이후 마을사람들이 두 양반과 각시 그리고 하동과 포수를 등장시켜 좀 더 재미있는 극적인 구성으로 개편하여 발전시켰다.

오늘날의 동래지신밟기는 조선시대 말의 것을 원형으로 설정하여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특색

관중들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고 웃음을 자아내는 소극으로 되어 있다. 이 지신밟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대부 팔대부, 포수이다. 마당, 부엌, 광 등에서 지신을 밟을 때는 반드시 '좋고 좋은 지신아 잡귀잡신은 물알(아래)로 천신만복은 이 집으로'라고 소리를 하면서 춤을 춘다.

지신을 밟아 주면 집주인은 사례로 술, 곡식, 금전을 내놓는데 곡식과 금전은 그 부락의 공동사업에 쓰여졌다.

구성

동래지신밟기의 각 과장은 다음과 같다.

(1) 첫째마당 : 주산지신풀이

우리나라에 있는 큰 강과 이름난 산의 생성 배경을

동래지신밟기 (부산)



이야기하고 주산님께 기원하는 내용이다.

(2) 둘째마당 : 당산지신풀이

오방의 당산님께 주민들의 복을 기원하는 마당이다.

(3) 셋째마당 : 김생원댁지신풀이

마당풀이, 대청풀이, 큰방성주풀이, 각방치장풀이, 조왕(부엌)풀이, 샘(우물)풀이, 장독풀이, 광풀이, 뒷간풀이, 대문풀이, 주신풀이 등의 순서로 마지막 대문풀이를 마치면 주인이 장만한 음식을 먹고 작별 인사를 한 후 물러난다.

내용

대문 안으로 들어온 사대부와 주인 김생원이 서로 맞절로써 인사하려 할 때 양반 행세를 하면서 으시대는 것이 소원인 하동이 갑자기 가운데 끼어 들어 김생원의 절을 가로 채어 받는다.

어처구니 없는 사대부는 부채로 하동의 머리를 때린다. 이를 본 포수가 하동을 끌어낸다.

김생원댁 앞뜰에서 각시와 하동이 흥겹게 대무를 하고 있는데 포수가 와서 각시를 옆치기하여 끌고가 관심을 사려한다. 하동이 화가 나서 뒤를 쫓자 하동의 치정을 두려워한 포수는 각시를 사대부에게 맡긴다. 하동은 사대부에게 꼼짝 못하고 도리어 절을 하고 물러난다.

조왕풀이가 시작될 때 포수가 부엌에 들어가서 조리와 주걱을 하동이에게 달라고한다. 그러나 포수가 이것을 집주인에게 팔겠다고 하면서 하동을 상대해주지 않자 하동은 "점잖고 믿음직한 사대부에게 부탁하여 집주인에게 팔게 하면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고 제안한다. 하동은 조리값이 나오면 가로챌 생각이었으나 사대부가 먼저 슬쩍 가로챈다. 포수가 억울하고 분해서 하동을 야단하자 난처한 하동은 범이 나왔다고 고함을 쳐 포수를 정신 못차리게 만든다. 원래 이 포수는 집집마다 돌면서 가재도구나 훔치는 겁장이 포수로 범이 나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똥을 싼다는 것이다.

원양반(사대부)에게 가로채임을 당한 하동은 조리를 판 돈을 빼앗기 위해 사기도박을 벌려 사대부가 사기해 간 돈과 노름판 돈을 몽땅 챙겨 달아나 버린다.

송파산대놀이

민속극

유래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지방에 전승되어 온 탈놀음을 산대놀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구파발, 녹번, 애오개(아현), 사직골 등에 본산대가 있었고, 양주구읍, 퇴계원, 송파, 노들(노량진) 등지에 그 분파로 보이는 산대놀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양주별산대놀이와 송파산대놀이 뿐이다.

송파진은 서울근교 5대 한강나루터의 하나로 수운이 발달하였고, 서울의 길목으로 육운 또한 발달하여 조선 후기에는 전국의 15대 향시중의 하나로 꼽힐만큼 상업이 발달한 부촌이어서 산대놀이가 터를 잡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서울의 상권이 바뀌면서 송파의 상권이 축소되고 더구나 1925년의 대홍수로 송파지역이 큰 피해를 입게되자 송파산대놀이도 시들어가게 되어 그 명맥만을 유지해 왔으나 1973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도면서 다시 전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색

송파산대놀이는 비교적 옛날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탈놀음 열두마당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고 가면수도 32개로 산대도감 탈들이 거의 보존되어 있어 양주별산대에서는 이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해선어멈, 심할미, 무당, 신장수 가면 등이 남아 있고 맡은 배역도 따로 있다. 춤사위도 40여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한국민속무용의 춤사위로 대변할만 하다.

구성

송파산대놀이는 열두마당인데 놀이에 앞서 길놀이와 고사가 있다.

(1) 상좌춤놀이
(2) 옴중·먹중놀이
(3) 연잎·눈끔적이놀이
(4) 북놀이
(5) 곤장놀이
(6) 침놀이
(7) 노장놀이
(8) 신장수놀이
(9) 취발이놀이
(10) 말뚝이 놀이
(11) 샌님·미얄·포도부장놀이
(12) 신할애비·신할미놀이

내용

다른 탈놀음처럼 춤이 주가 되고 재담과 창이 곁들여지며 반주음악은 삼현육각에 염불12박, 타령, 굿거리장단이 주가되며, 춤사위는 염불거드름춤, 타령깨끼춤, 굿거리허튼춤의 유형으로 나뉜다. 재담은 수년간의 원형 연구 결과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보다 3배 가량 분량이 늘어났고 내용도 충실해졌다. 특히 옴중의

곰보타령, 취발이의 각설이타령, 무당의 무가와 넋두리 등이 새로 발굴되었다.

탈놀음에 앞서 놀이꾼들이 풍장을 치며 장터를 중심으로 마을을 한바퀴 도는데 이는 탈놀음이 벌어지는 것을 알려 구경꾼을 모으는 구실을 한다.

길놀이가 끝나면 놀이마당에 멍석을 깔고 젯상을 차린 뒤 탈을 늘어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탈을 늘어놓는 데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마당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좌놀이 마당

첫째상좌가 느린 타령장단과 자진타령으로 화장무·자진화장·여닫이·곱사위·건드렁·멍석말이로 춤을 추고 한쪽에 가서 앉으면 둘째상좌가 반대편에서 나와 타령장단으로 춤을 추다가 첫상좌를 어르면 첫상좌가 뛰어나와 둘이서 마주 보며 깨끼춤을 추다가 첫상좌는 물러간다.

(2) 옴중·먹중놀이 마당

옴중이 등장하여 둘째상좌를 내쫓고 춤을 추고 놀다가, 반장삼을 입고 나온 먹중과 재담을 나누고 온갖 말로 서로의 얼굴을 헐뜯으며 다투고, 타령장단에 춤을 추며 나간다.

(3) 연잎·눈끔적이놀이 마당

연잎과 눈끔적이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굿거리장단에 춤을 추면서 놀이마당을 한바퀴 돈다. 이때 팔먹중 가운데 세명이 등장하여 춤을 추다가 연잎·눈끔적이와 한데 어울려 타령장단에 깨끼리, 건드렁, 멍석말이로 춤을 추며 나간다.

(4) 북놀이 마당

먹중 둘이 굿거리장단에 춤을 추며 등장하여 북놀이를 하다가 왜장녀가 궁둥이춤을 추며 나타나면 왜장녀로 하여금 애사당을 데려오게 한다. 애사당이 북채를 받아 북을 치고 먹중·왜장녀와 어울려 춤을 추다가 나간다.

(5) 곤장놀이 마당

먹중 여덟이 색색으로 반장삼을 입고 굿거리장단에 춤을 추며 나오는데 맨 앞의 먹중은 곤장을 들고 뒷걸음으로 나온다. 이들은 마당을 한바퀴 돌며 춤추고 나서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는 재담을 하고 다시 타령장단에 춤을 추는데, 이후 곤장 든 먹중이 다른 먹중들을 한명씩 쳐서 내쫓는다.

(6) 침놀이 마당

팔먹중들이 굿거리장단에 춤추며 들어와 놀다가 한 명이 쓰러진다. 먹중들이 신주부를 불러다 침을 놓으니 쓰러졌던 먹중이 일어나 모두 타령장단에 춤추며 나간다.

(7) 노장놀이 마당

팔먹중들이 노장을 골려주며 놀다가 퇴장하면 노장이 소무들과 서로 희롱하며 논다.

(8) 신장수놀이 마당

신장수가 원숭이를 업고 들어와 노장한테 신을 팔고 원숭이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한다. 원숭이가 소무와 놀아나고 그냥 돌아오자 신장수는 화가 나서 원숭이를 쫓으며 함께 퇴장한다.

(9) 취발이놀이 마당

취발이가 등장하여 노장을 쫓아내면 노장은 소무를 하나 업고 나간다. 취발이는 남은 소무를 놀리며 노는데 소무는 해산진통을 한다. 해산어멈을 불러 동자를 낳게 하여 동자에게 글을 가르친다.

(10) 말뚝이놀이 마당

말뚝이가 굿거리장단에 뒷걸음으로 나오면 샌님과 서방님, 도련님이 따라 나온다. 샌님이 말뚝이한테 사처를 정하라하면 툴툴거리며 상전들의 흉을 보다가 돼지우리를 사처로 정했다며 채찍으로 돼지 몰듯 주인 일행을 돼지우리에 몰아넣는다.

(11) 샌님·미얄·포도부장놀이 마당

샌님을 찾아다니던 미얄할미에게 샌님이 소무를 소개하자 미얄할미는 소무와 욕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가버린다. 샌님과 소무가 어울려 춤을 추는데 포도부장이 끼어들어 샌님과 다투다가 소무를 차지하여 함께 춤을 춘다.

(12) 신할애비·신할미놀이 마당

신할애비와의 갈등으로 신할미가 죽자 자식인 도끼와 도끼누이가 애통해 하며 무당을 불러 죽은 넋이나 위로하려고 젯상을 차리고 넋두리와 지귀굿을 한다.

굿이 끝나면 모든 놀이꾼들이 나와서 한바탕 춤판을 벌인다.

놀이기구

배역에 따른 32개의 각종 탈과 반주음악에 쓰이는 삼현육각, 놀이마당에 따른 각종 소도구가 필요하다.

김천농악

농악

유래

옛부터 김천 일대는 유기의 명산지로 유명했다. 이 지방에서 생산한 꽹과리(쇠), 징 등이 전국에 공급되었는데 이런 기구를 생산해내는 고장답게 김천, 선산 등지에서 농악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경북 김천과 금릉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김천농악은 약 400여 년전 광천별신굿이 시작되면서 전파되었다.

음력 정월보름날, 5월 단오날, 10월 추수감사제에 농민들이 천신에게 풍년을 기원하고 감사제를 드릴 때 제의 앞뒤에서 흥을 돋우는 역할을 농악이 하였다. 농악이 시작되면 온동네 사람들이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눠 먹고 흥겹게 놀이마당을 벌였다.

특색

(1) 김천농악은 약 400여 년 전 선산의 광천별신굿이 시작되면서부터라고 전해지고 있다. 400여 년이란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천농악은 고형에서 벗어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충실하게 유지되고 있다.

(2) 광천별신굿의 전후에서 동네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였던 김천농악의 가락은 듣는 이로 하여금 어깨춤을 들썩이게 할 정도로 흥겹고 활기차다.

구성

(1) 병렬형
(2) 입장형
(3) 원무형
(4) 원형놀이
(5) 대전형
(6) 사방형
(7) 진풀이
(8) 풍년놀이

내용

(1) 병렬형

2줄로 늘어 서서 농기를 앞세우고 뒤에 영기를 들고 행진하는 장단에 발을 맞추어 간다.

(2) 입장형

1줄로 뛰면서 태극형으로 입장한다.

(3) 원무형

1줄로 원을 이루고 관중에게 인사한다.

(4) 원형놀이

원을 그리며 벅구가락이 발과 손과 목을 움직이면서 흥을 낸다.

(5) 대전형

영기를 앞세우고 풍악을 울리면서 대진을 치고 서로 서로 공격한다.

(6) 사방형

동, 서, 남, 북으로 풍악을 울리며 방을 친다.

(7) 진풀이

1줄로 원을 치며 진을 친다. 진이 풀리지 않아 방패를 고한다. 술농수진을 3번 치고 굿거리장단에 발을 맞추어 춤을 추고 풀쳐 나간다.

(8) 풍년놀이

개인놀이이다. 여기서는 상쇠놀이, 북놀이, 징놀이, 장고놀이, 소고놀이, 12발상모놀이, 농기수와 영기수, 오방기 놀이를 한다.

놀이기구

농기, 영기2, 오방5, 12발상모1, 장고4, 징4, 소고10, 북8, 상쇠8

애원성

민요

유래

애원성(愛怨聲)은 옛날부터 함경도 지방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민요로서 주민들이 흰 옷을 입고 천신 지신에게 제사지내며 여러가지 소원이 성취되도록 애원한 노래와 춤으로 이루어져 있다.

애원성의 정확한 유래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함경도 특유의 지형적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다. 함경도는 지리적으로 농경지가 협소하며 농토가 비옥하지 못한 데다 여진족과의 오랜 싸움에 시달려 왔다. 게다가 사화당쟁의 제물로 유배당한 유랑민들과의 이조 말엽부터 왜정에 이르기까지 학정에 시달려 국경을 넘어 로시아, 북간도 지방으로 떠난 실향민들이 많았다. 이러한 애달픈 실정 때문에 고향을 등진 사람들이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상호 격려하고 자신의 처지를 자위하는 노래를 불러 망향의 설움을 달랬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부른 노래가 애원성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랑생활에 뼈저린 고통을 맛보는 여인네들에 의해 주로 불리워졌다.

특색

애원성은 노래가락 장단을 맞추기 위해 함경도 퉁소를 사용한다. 또한 큰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 바가지를 엎어 놓고 물곽(바가지)을 두들기며 장단을 맞춘다.

원래는 혼자서 산길을 걸을 때나 혼자 김을 맬 때 부르는 노래이다.

구성

(1) 전체 15마디로 되어 있다.

(2) 각 마디마다 후렴구가 붙어 있다.

(3) 장단은 자진타령을 사용한다. 리듬이 2 : 3의 신코데이션이 자주 나와 마치 한 장단을 6박으로 나누

어 부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4) 선법은 완전 5도 위에 단 3도를 쌓아 올린 것으로 서도소리의 선법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내용(가사)

백두산꼭대기에 칠성단 묻어 놓고
아들 딸 낳기만 발원이로구나
(후렴) 에에~에헤야 얼사마 좋구 좋다
얼럴럴 거리고 상사디야
산아산아 에루화 동대산아
부모님 형제겐 이별산이로구나
(후렴)
풍년이 왔다고 부르지 말아라
이물을 건너면 월강죄란다네
(후렴)
무산령 넘어에 정든 안깐 두고
두만강 뗏목에 이내몸 실었네
(후렴)
부령 청진 간 낭군은 돈벌이 갔구요
북망산천 간 낭군은 영 이별이로구나
(후렴)
술취한 강산에 호걸이 춤추고
돈없는 천지에 영웅도 우노나
(후렴)
오늘밤은 그 얼매나 갔는지
북두칠성이 앵 돌아졌네
(후렴)
해삼위 항구가 그 얼마나 좋길래
신개척이 찾아서 반봇따리 쌌네
(후렴)
마우재 양지전에 정들 뻔 하다가
왜놈의 권연지에 몽땅 속았구나
(후렴)
금수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정든임 없으면 적막강산이라
(후렴)
가지를 마오 갈 생각마오
동대산 바람은 이별바람이오
(후렴)
북간도 찬바람 네 불지 말아라
우리네 독립군 손발이 다 언다
(후렴)
한반도 강산에 전선줄 느리더니
큰오래비 간곳이 뚱딴지로구나
(후렴)
삼천리 강산이 넓다고 하지만
우리네 살곳은 함경도 뿐이다
(후렴)
갈적에 엿어보니 개가 컹짖고
울적에 다시보니 새벽달기 우노나
(후렴)

황해도민요

민요

유래

황해도 지방에서 불려지는 민요로는 긴난봉가, 자진난봉가, 병신난봉가, 사설난봉가, 산염불, 몽금포타령, 감내기 등이 전한다.

이 들 노래는 각기 불려지게 된 시원이 있을 것이나 누가 작사와 작곡을 했는지 알 수 없고, 또 누구의 입에서 먼저 불리워지기 시작했는지 뚜렷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모든 지방의 민요가 그 작자를 알 수 없듯이 황해도민요도 그 지방 사람들의 생활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면서 하나의 전통적인 민요의 형식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색

(1) 느린 것은 중모리장단이며 빠른 것은 굿거리장단으로 친다.

(2) 가락은 흔히 수삼토리라 하여 대개 위에서부터 질러내며 윗음은 흘러내리고 가운데음은 심하게 떨며 아래음은 곧게 뻗는 수심가형이 많으나 목구성이 다르고 어떤 것은 경기도의 경복궁타령, 한강수타령과 비슷한 데가 보이기도 한다.

(3) 같은 서도소리라도 평안도민요처럼 처절하지 않고 보다 밝고 서정적이며 가락도 구성지다.

구성

(1) 자진난봉가와 긴난봉가
(2) 병신난봉가
(3) 산염불
(4) 감내기
(5) 몽금포타령

내용

(1) 자진난봉가와 긴난봉가

황해도민요에는 난봉가라는 이름이 붙은 노래들이 많은데 이 노래들은 대개 제창으로 여럿이 받는소리인 '아하 에헤 에헤야 어럼마 둥둥 내사랑아'의 가사로 불려지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자진난봉가는 긴난봉가보다 갑절이나 빠른 템포로

불리워진다. 긴난봉가가 낮은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에 비해 자진난봉가는 높이 질러서 내기 때문에 긴난봉가보다 고조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끝나는 음이 긴난봉가와 같이 일반적인 서도소리의 종지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2) 병신난봉가

병신난봉가는 자진난봉가와 같은 템포로 불려지지만 그 리듬이 달라서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즉 전반의 리듬을 엇박자로 변화시킴으로써 독특함을 맛볼 수 있다.

(3) 산염불

산염불(긴염불)은 '아헤헤에 에헤야 아미타불이로다'하고 시작하는 받는소리로 시작하여 메기는 소리로 이어지는데 받는소리 부분의 가락은 고정되어 있다.

(4) 감내기

달구지꾼들이 부르는 노래로서 주로 곡식을 많이 싣고 다니는 달구지꾼들이 물건을 실어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불렀다.

(5) 몽금포타령

황해도의 통속적인 소리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다. 보통 속도의 중모리 장단으로 불려지며 메기는 소리는 4장단에, 받는 소리는 2장단으로 선율의 진행이 화려하다.

투호놀이

민속놀이

유래

투호는 일정한 거리에 놓인 병 속에 화살을 넣어서 승부를 가리는 놀이이다.

두 편으로 나누어 푸른 살과 붉은 살을 열두개씩 가지고 각 편에서 한 사람씩 병 가운데 구멍이나 양쪽 귀구멍에 살이 꼿꼿이 서서 들어가도록 던져 수량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투호는 본래 중국의 놀이로 당나라 때에 성행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놀이가 일찍부터 전해져 행해진 것은 당나라 때의 학자 이연수의 '북사' 백제전에 투호·저포·농주와 악삭 등 잡희가 있다 하였고 '신당서' 고구려전에도 고구려인은 바둑과 투호놀이를 좋아한다고 하였음을 보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궁중과 조정의 고관들이 기로연 잔치 때에 여흥으로 많이 하였다. 이 놀이는 오늘날 민간에 전승되어 오지 않는 놀이 중 하나이다.

특색

투호놀이는 운동과 유희, 예절을 곁들인 것으로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양반 사대부들이 즐기던 놀이이다.

항아리의 모양이 차라리 도자기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항아리 양 옆에는 귀가 달려있어 여기에도 살이 꽂히도록 되어 있다. 살 또한 언뜻 보기에는 화살같이 생겼으나 빛깔이 곱게 채색되어 있으며 살의 색도 편마다 다른 것이 특징적이다.

구성

(1) 항아리를 사이에 두고 편을 갈라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 선다.

(2) 항아리를 향해 살을 던진다.

(3) 점수를 계산한다.

내용

일정한 장소에 둔 투호병을 향하여 일정한 위치에서 살을 그 병 구멍, 또는 귀구멍 속에 던져 넣는 것으로, 살이 꽂히는 수에 따라 득점이 정해진다. 던지는 이의 거리는 병에서 두 살 반 가량 떨어진 거리이며, 한 사람이 12개의 살을 가지고 승부를 다툰다.

살은 병의 위 다섯치 가량 되는 데서 반듯하게 떨어져 병 속이나 귀구멍 어느 쪽이든 가운데에 들어가게 한다. 이때 살을 던지는 사람은 양쪽 어깨의 균형을 취할 것과 어깨가 기울어지지 않게 주의하는 것, 이 두가지가 투입법에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

이기는 것을 현(賢), 지는 것을 불승(不勝), 한번을 1호라 하며 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헌배(獻盃)·벌배(罰盃) 등이 행해진다. 살이 적중하면 무희가 나와서 춤을 추며 축하를 해주고 하나도 던져넣지 못해 0점을 받게 되면 이마에 표시를 하여 웃음거리로 만든다.

이 투호놀이법은 '예기'에 투호편이 들어 있을만치 그 의례가 엄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놀이기구

투호병, 살.

타구놀이

민속놀이

타구놀이에 대해서는 여러 고 기록에 소개되어 있거니와 고려시대에는 매우 성행 되었었다.

격구가 말을 타고 경기하는데 대해서 타구는 말을

타지 않고 걸어다니며 경기하는 것이 특색이다.

넓은 마당이나 보리밭 같은 곳에 기둥을 세워 문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 공을 만들어 작대기로 쳐서 공을 문안에 넣으면 이기는 것이다.

나무공을 작대기로 치기 때문에 맞으면 다치는 수도 있어 위험한 놀이이나 상무적이며 협동 단결 정신을 기르는 용감한 놀이이다.

놀이의 흥을 돋우고 시화연풍을 빌기 위해서 놀이에 앞서 지신밟기를 하며 농악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군중들도 흥겹게 응원한다.

홍해룡의노래

민요

유래

해룡의 노래는 함경북도 해안지방에서 널리 불리워진 노래로 홍해룡이라는 전설적인 인물에 대한 칭송의 뜻이 담겨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육지로 부터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 속에는 용구 연화당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홍해룡이 살고 있다고 한다. 8척 장신의 장대한 기골하며 단단한 체격, 늙지 않는 영원한 젊음 등 인간 세상의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홍해룡은 훌륭하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활달한 기질을 가졌으며 수많은 젊은 여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신기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지녔다고 믿었다. 많은 여성들이 홍해룡을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해룡이의노래라는 것이다.

특색

(1) 노래의 대상이 전설적이기는 하지만 인간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전승되는 민요가 신을 노래한 것에 비해 홍해룡의노래는 인간을 숭앙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2) 칭송의 대상인 홍해룡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대신 극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애의 대상 또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3) 주로 여인들에 의해 불리워졌는데 단오절과 같으 명절 때면 창포에 머리를 곱게 감고 불렀다고 한다.

구성

총 4절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절에는 후렴이 불리워진다.

내용(가사)

해룡아 해룡아 홍해룡아
연화당 속에서 놀다가세
해룡이 총각이 다니던 길은
좁던길도 넓어지고 넓던길도 좁아진다
(후렴)
에헤야 에헤야 해룡이 왔구나
오월 단오날에 해룡이 왔구나
해룡아 해룡아 홍해룡아
꿈속에 그리던 우리 님아
오월이라 단오절 그네뛰며
해룡총각 환한얼굴 보고지고 보고지고
(후렴)
해룡아 해룡아 홍해룡아
사호주 한아름 안고 왔나
이동네 저동네 노아주고
오늘밤이 다새도록 놀다가세 놀다가세
(후렴)
해룡아 해룡아 홍해룡아
물에서 노이면 장군이요
바다에서 노이면 용왕이라
활량총각 해룡이요 해룡총각 활량이라

횃불쌈놀이

민속놀이

유래

횃불쌈놀이는 오래 전부터 음력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농촌 지역에서 행해 왔다. 특히 충남지방에서는 횃불이 융성을 상징한다는 뜻에서 찬란한 문화를 구가했던 백제시대에 더욱 성행했다고 전해진다.

이 놀이는 조선시대 말까지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그 후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근래에는 하는것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특색

시대의 급격한 변천에 따라 오늘날에는 횃불쌈 놀이를 볼 수 없지만 원래 그 해 풍흉을 점치는 점풍놀이로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이 놀이는 농촌 청소년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단결력을 고양시키는데 좋은 놀이일뿐 아니라 향토오락으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구성

전 8과장으로 구성된다.

(1) 홰 만들기
(2) 싸움터 집결
(3) 싸움의 촉발
(4) 본 싸움의 시작
(5) 대치
(6) 본 싸움
(7) 승부
(8) 화합의 한마당

내용

(1) 정월 대보름날 각 부락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부락민들이 낮부터 횃불쌈을 하기 위하여 싸리와 짚으로 홰를 만든다.

(2) 두 부락이 각기 농악대를 선두로 농악을 울리면서 노인, 부녀자, 소년이 따르며 부락기를 높이 들고 입장하여 동서에 진을 치고 대진한다.

(3) 한 편의 주장과 몇 명의 장정이 앞에 나가 야유를 하며 싸우자고 덤비면, 상대 편에서도 이와 같이 응수한다.

선공을 하려는 편의 주장이 '싸우자'하고 구령을 하면, 빠르고 힘찬 농악이 울리고 함성과 함께 용기 있는 일부 장정이 횃불을 휘두르며 싸우러 나간다.

(4) 상대편의 장정들이 몰려 나와 싸우다 불리하게 되면 후퇴를 하며, 이때 뒤에 있던 장정들이 나가 포위를 하려든다. 몇 군데에서는 용감한 특공대들이 깊숙이 쳐들어가 싸움이 벌어져 횃불을 빼앗기고 겨우 탈출한다.

(5) 포위를 당한 편의 장정들이 약세가 되어 밀려나면, 나머지 장정들이 나와 함께 싸우며 서로 대치하는 상태가 된다. 이때 각기 진영으로 돌아가 농악에 맞추어 뛰어놀며 사기를 높인다.

(6) 한 편의 주장 구령에 따라 농악을 요란히 울리며 싸우라는 신호가 떨어지면, 함성을 지르며 전위대가 나가고 상대 편의 장정들이 마주 나와 싸우다가 다시금 대치한다. 이때 각기 진영으로 돌아가 뛰어놀며 전세를 가다듬고 사기를 북돋운다.

(7) 전의를 드높인 양 편의 장정들이 몰려 나가 치열하게싸우며 일진일퇴를 거듭한다. 횃불을 빼앗긴 장정들은 뒤로 물러나며, 우세한 편에서 상대 편 진영에 쳐들어가 많은 횃불을 빼앗고 이를 높이 휘두르며 '이겼다'는 함성을 지르면서 의기양양하게 자기 진영으로 돌아온다.

(8) 이긴 편에서는 흥겨운 농악과 춤으로 한바탕 뛰어놀며, 진 편에서도 이긴 편에 못지않게 함께 놀다가 퇴장한다.

이 놀이를 함에 있어 양 편이 함성을 지르며 어울려 싸울 때에는 마치 전쟁처럼 장관을 이루며, 나중에 소년은 소년들끼리, 청년은 청년들끼리 상대하여 싸우다가 흥겹게 논다.

이날만은 마을의 이쪽 저쪽에서 번쩍번쩍 횃불이 몰려다닌다.

14

제1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3. 10. 26 ▶ 10. 28
청주

제1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3. 10. 26—10. 28.
청주

대통령상
좌수영어방놀이(부산)—민속놀이
국무총리상
고성오광대(경남)—민속극
문공부장관상
안동논매기(경북)—민요
양주별산대놀이(경기)—민속극
대감놀이(서울)—민속놀이
남도농악(전남)—농악
장려상
연평도노래(황해)—민요
애원성(함북)—민요
등바루놀이(충남)—민속놀이
항두계놀이(평남)—민속놀이
입춘굿놀이(제주)—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입체공명가 및 영변가(평북)—민요
해녀놀이(제주)—민속놀이
농악(경북 김천농고)—농악
수영야유사자담보춤(부산)—민속극
소놀이굿(경기)—민속놀이
은율탈춤(황해)—민속극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전주승무(전북)—민속무용
차사영맞이(전북)—민속놀이
미호천방축노래(충북)—민요
공로상
미호천방축노래(충북)
임실들노래(전북)
강원농악(강원)
개인상
김종의(임실들노래, 전북)
조차기(안동논매기, 경북)
이징산(대감놀이, 서울)
양은자(남도농악, 전남)
박교웅(양주별산대놀이, 경기)

좌수영어방놀이

민속놀이

유래

넓은 들을 가로지르는 수영강이 있어 토지가 비옥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섬과 만이 절경을 이루고 있는 수영지방은 예로부터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풍부한 해, 륙산물을 탐한 왜구들의 침입때문에 염장관을 상주시키고 군사를 배치시키기도 하였다.

조선 선조 15년에는 남서방비를 튼튼히 하고자 울산 개운포소재의 경상좌수영을 이곳으로 옮겨왔으나 임진왜란으로 폐영이 되었다. 그후 영은 다시 복구되었으나 인조 14년에 홍수로 인해 이웃 감만이포로 이영되었는데 효종 3년에 다시 수영으로 되돌아와 성과 군항을 축조하기 시작하여 현종11년에 완성, 이후 갑신정변 때까지 300년동안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으로 있었다.

수영은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자연조건때문에 어자원이 풍부하여 부산지역에서도 가장 먼저 어업의 발달을 본 곳이다. 좌수영설치에 따른 수군의 부식문제의 해결과 어업진흥을 위해 어로작업을 협업화시킨 어방을 만들었는데 이 어방에서는 어로작업에서 생기는 피로와 지루함을 잊게하고 작업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설소리, 맞는소리 등의 어방요를 불렀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 어방요가 언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좌수영어방놀이는 이 시기부터 전래되어 오던 어방요를 1970년에 와서 재현한 것으로 고기를 잡는 과정

좌수영어방놀이 (부산)



을 놀이로 구성한 일종의 어로 노동요이다.

특색

어방놀이는 엄격한 작업규율 속에서 행해지므로 협동과 단결심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승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집단놀이로서 노래를 위주로 한 민요·무용의 성격이 짙다. 후리질과 같은 어로요가 사라져가고 있는 때에 이 어방놀이는 어로요의 전승과 더불어 조상들의 어로작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구성

(1) 내왕소리
(2) 사리소리
(3) 가래소리
(4) 칭칭이소리

내용

(1) 첫째마당 : 내왕소리

후릿그물의 양쪽 끝, 다불줄에 연결하기 위한 줄을 만들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앞소리를 하는 사람이 왔다갔다하며 작업을 독려하는 가운데 노래를 한다. 이 때 뒷소리는 합창하되 한 조에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정해놓는다. 큰 줄을 꼴때 부르는 겹소리와 작은 줄을 꼴때 부르는 홀소리가 있다.

(2) 둘째마당 : 사리소리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후리질하며 부르는 소리로 북잡이와 선소리꾼 이외의 사람들은 요대를 두르고 양쪽 줄에 7, 8명씩 붙어서 줄을 당긴다. 뒷소리의 후렴은 '오-호 사리여'이다.

(3) 셋째마당 : 가래소리

잡은 고기를 어대에서 풀어 내리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뒷소리는 일률적으로 '오-호 가래야'이다.

(4) 넷째마당 : 칭칭소리

어부전체가 한데 어울려 작업한 도구를 든 채 원형을 만들어 가무를 즐기는 것으로 풍어를 자축하는 유흥요이다.

뒷소리는 '겨지나 칭칭노네'.

대감놀이

민속놀이

유래

우리나라의 원시종교적인 관념을 바탕으로 무당에 의해서 주재되는 신맞이 의식을 통틀어 굿이라고 한다.

굿의 목적은 병의 치료, 복의 기원, 잡귀를 물리치는 것, 집안의 무고를 기원하는 것, 기우, 망령의 한을 달래주는 것, 재난을 면하도록 기원하는 것 등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길일을 택해 행하여 왔다.

서울의 대감놀이는 신맞이굿의 하나로 열두거리 중 그 다섯번째 거리에 해당한다.

본시 대감이란 말은 신라시대 무관의 명칭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울·중부지방의 대감놀이에도 무당이 무장을 하는 것을 보면 무관의 성격이 있는 것 같다.

특색

이 굿은 우리나라 민간신앙으로서 신탁과 무악을 되풀이하면서 복덕과 이익을 나누어 받는 소박하면서도 절실한 것으로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구성

주로 무당의 춤과 무악, 대감타령 등의 무가로 이루어진다.

굿의 진행은 원무당(元巫堂)이 맡고 창부무(唱夫巫) 또는 후전무(後錢巫)가 있어서 가무와 예(藝)를 맡는다. 기무(技巫)는 장고나 가무를, 악사나 전악(典樂)은 음악을 담당한다.

내용

무당의 새신(賽神)굿으로 유명한 것은 평양의 잔상(盞床)굿과 제탁(帝鐸)굿, 서울의 대감놀이와 천궁(天宮)맞이가 있는데 이는 다같이 각자의 소원대로 상업을 하는 사람은 상운을, 가정에서는 무재다복을 빌며, 농가에서는 풍년을 기원하였는데 근래에는 민간에서 10월 상달에 고사를 겸하여 행하여진다.

대감에는 특수신으로서의 대감신과 일반신으로서의 대감이 있다. 특수신으로서의 대감신은 농사지은 곡식과 과일을 봄가을로 조상신께 올리면서 집안과 개인의 안녕과 소원성취를 빌 때 부르는 신이며, 일반신으로서는 여러 신을 무슨무슨 대감이라 불러 존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무속에 등장하는 대감에는 산상대감, 부군대감, 군웅대감, 천신대감, 기주대감, 대전대감, 도당대감, 신주대감, 오방지신대감 등이 있는데 이 경우의 대감이란 신에 대한 일반적인 존칭이다.

대감상에 떡을 시루째 놓고 소머리 또는 우족을 통째로 놓는다. 대감신은 재복신이므로 욕심이 많아서 무엇이든지 많이 놓는다.

처음에 쾌자와 전복을 입고 전립을 쓴 무당이 삼지창과 청룡도를 들고 무악과 함께 춤을 춘다. 이어 칼을 놓고 꽃부채만을 든채 우족을 얹은 대감시루를 머리에 인다. 그리고 뒤뜰에 있는 터줏가리(터주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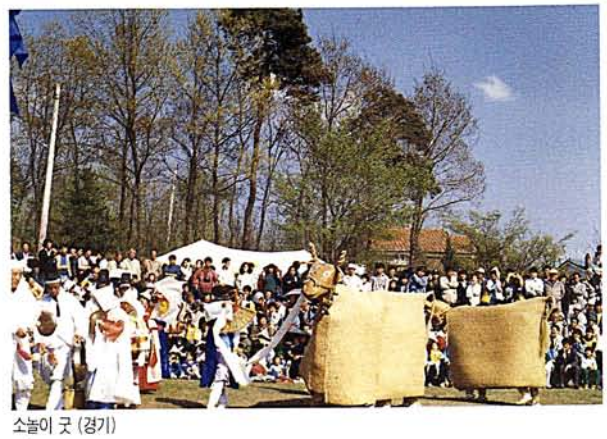
술을 붓고 절을 하면서 뒷마당과 앞마당을 돌아, 다시 굿청앞에 와서 시루를 인채 우족을 들고 계속 춤을 춘다. 술을 뿜기도 하고 재물이 적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나서 대감공수를 준다.

다시 '어허구차 욕심많은 내대감, 탐심많은 내대감, 이골 안 도장대감, 살륭부군대감, 아니시리,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아서 대양푼에 갈비찜을, 소양푼에 영계찜을 받으시던 내대감인데, 이것이 다 무엇이냐, 얻어다 놓았느냐 훔쳐다 놓았느냐, 뿌연 막걸리 한잔, 원산 말뚝(북어)하나 없구나……그렇지만 우리 대감이 재수사망을 섬겨주마'하는 사설에 이어 대감타령을 부른다. 무가를 부르며 부채를 가지고 휘저어서 안으로 불러들여 주부의 치마폭에 담아주는 시늉과, 우족으로 긁어모아서 주부에게 주는 시늉을 하여 재물을 밖에서 안으로 들여 넣어주는 행위를 한다.

대감신을 잘 모시려면 제물을 많이 바쳐야 하는데, 그것은 대감신은 제물을 많이 바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욕심많은 내 대감, 탐심많은 내 대감, 앞다리 선각, 뒷다리 후각, 양지머리 걸안주, 왼시루 독반을 받던 내 대감'이라는 무가에서 이 신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다.

소놀이굿

민속놀이


소놀이 굿 (경기)

유래

소놀이굿은 원래 기호지방과 해서지방에서 연희되어 왔으나 오늘날 해서지방은 그 내막을 알 길이 없고 다만, 기호지방에서도 양주군 일대에서만 전승되고 있다.

소놀이굿의 기원은 역사적으로 농경의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천여 년 전에 소가 사육되었고 농경과 식용으로 이용되어 왔다. 소와 더불어 이루어진 농경의례는 고려 성종 때부터 중국의 토우의례(土牛儀禮)를 받아들인 기록이 보이고, 우리나라에서 토우가 목우(木牛)로 바뀐 예도 동국세시기 입춘조에 보인다.

제주도의 옛 풍습에 입춘굿이 있는데 여기서 목우를 사용했고, 경남 창녕의 목우희도 음력 정월 보름에 행해져 왔다. 특히 해서와 기호지방에 많았던 소멕놀이는 정월 보름과 팔월 추석에 장정 두 사람이 멍석을 뒤집어 쓰고 소가 되어 농악대와 함께 춤을 추는데 이 놀이를 하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또 기호지방의 거북놀이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 소와 송아지가 등장한다. 이 거북놀이는 소놀이굿과 유사한 면이 많다.

따라서 소놀이굿은 이러한 원시적인 소멕놀이와 거북놀이에서 발생하여 오늘의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소놀이굿의 형태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마마배송굿'과 같은 무의형식을 도입하여 보다 발전된 소놀이굿의 연희로 정착된 것이다.

특색

양주소놀이굿은 경사굿의 일부로 제석거리에 이어 하나의 새로운 절차로 행해진다. 그러나 서울지방굿의 기본이 되는 열두거리굿 절차는 소놀이굿이 낌으로써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규모나 비용이 커질 뿐이다.

또한 기능적인 면에서는, 오락예능적 기능에 많은 비중이 주어진다. 그리고 의례에서 연희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양주소놀이굿에는 많은 잡가가 등장하는데, 극히 세련된 평민가사체의 노래가 마부에 의해 불리운다. 20여 가지나 되는 이 노래들은 소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한다.

형식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이 소놀이굿은 제석거리에 이어서 노는 것인 만큼 무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제석거리에 종속된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연희로 전해내려 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구성

소놀이굿은 경사굿의 무의 열일곱거리 중 열세번째 제석거리와 열네번째 호구거리 사이에 행해진다.

각 구성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소와 마부의 등장

먼저 송아지가 춤추며 들어오고 마부가 등장한다.

(2) 소 마모색 타령

소와 소장수가 등장하고 소의 마모색에 대한 타령으로 넘어간다.

(3) 소 흥정

무당의 중개로 집주인에게 소를 팔기 위해 흥정을 한다.

(4) 성주풀이 및 축원

소의 매매가 끝나면 소놀이굿은 종반에 접어들고, 소를 산 집이 잘 되기를 바라며 성주풀이 및 축원을 한다.

내용

소놀이굿은 마부와 무당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며, 무당과 악사, 원마부와 곁마부, 구경꾼 등의 참가로 이뤄진다.

무당이 "마부우, 소장수우" 하고 부르면 ", 소장수가 뭐냐? 소장수 서방님이라고 해라"하며 마부가 등장한다. 이어 무당이 소장수 서방의 이름을 묻자 마부가 타령조로 '성명풀이'를 한다.

소 마모색 타령으로 넘어가면 소위 머리, 뿔, 귀, 눈, 입, 이, 혀, 꼬리, 다리, 굽, 색 등의 세부적인 모습을 상세히 소개한다. 이것은 마부가 끌고온 소가 질이 아주 좋다는 것을 자랑하여 집주인에게 소를 팔기 위한 수작이다. 무당은 마침내 "이집 성주께서 소를 받겠다고 하니 흥정을 해서 사고 팔읍시다"라고 하면 마부는 '소 흥정하는 대목'을 타령으로 부르고 소의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 굿의 종반에 접어들면, 소의 매매가 끝나고 '성주풀이' '과거풀이'및 축원으로 집주인이 잘되기를 바라고 끝으로 '살풀이'를 해서 살을 막아주는 것으로 굿을 마친다.

놀이기구

(1) 큰소

고무래, 종이, 명주, 짚신, 멍석, 짚 등을 사용하여 실제 크기 정도의 소모형을 만든다.

(2) 송아지

제작 방법은 큰소와 같고 크기만 다르다.

(3) 악기

장구, 피리, 해금 등.

(4) 기타 복색

원마부, 곁마부, 무당 등의 복색.

전주승무

민속무용

유래

승무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중의 하나이다.

승무에 관한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고 다만 전해오는 구전(전설)에 의해 승무의 역사적 형성 배경을 불교의 식무용설과 민속무용설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있다.

불교 경전 중의 하나인 법화경에 의하면 세존께서 법화경을 설할 때 채화를 내리니 가섭이 이 뜻을 알고 웃음지으며 춤을 추었다고 하며 후세의 승려들이 이를 모방하여 춤추기 시작한 것이 승무의 기원이라고 한다. 이는 말로써 전교하는 방법 외에 부처님의 공덕을 몸의 움직임으로 찬탄하는 공양으로 포교의 한 방편이 되었다고 한다.

초창기의 승무는 종교적 위엄을 갖춘 이른바 법무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나 조선 중엽 이후 불교의 타락으로 인해 승무가 차차 세속화되었다. 결국 종교의 뜻을 저버릴 우려가 있다고 하여 1912년 본말사법(本末寺法)의 제정에 의해 불교계에서는 금지된 후 민속무용화 되었다.

특색

승무라면 일반적으로 파계승을 묘사하는 것이나 전주의 승무는 그와 반대로 도통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즉 수도승이 염불의 음악에 맞춰 수도하며 도통하는 과정이 연출되고 환희의 극치에 이르러 북을 치게 된다. 이 북가락은 전승되는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그 특색을 이루고 있다.

구성

(1) 염불가락
(2) 염불도드리가락
(3) 타령가락
(4) 타령도드리가락
(5) 굿거리가락
(6) 굿거리도드리가락
(7) 북치는가락
(8) 당악가락

내용

(1) 염불가락

춤판의 가운데 뒷쪽에 있는 북을 향해 엎드려서 시작한다. 서서히 일어나 합장한 다음 앞으로 나오고 뒤로 물러나며 모든 동작이 행해진다. 장삼을 뿌리고, 젖히고, 휘돌리면서 여러 움직임이 나타나며, 무릎을 많이 굽히는 것이 특징이다.

(2) 염불도드리가락

염불가락의 느린 춤이 끝난 후 장단이 도드리로 바뀌며 북을 치게 된다. 염불도드리장단으로 북을 울리며 염불가락의 끝맺음을 한다. 본격적인 법고가 아니라 단순히 춤과 북치는 동작이 어울린다.

(3) 타령가락

염불도드리가락에서 북을 치고 끝맺음을 한 후 뒷걸음으로 나와 정면을 향해 앉으며 타령가락이 시작된다. 염불가락에 비해 이 가락은 속도가 빨라지며 잦은 어깨춤이 들어간다.

(4) 타령도드리가락

타령도드리장단에 맞추어 북을 친다. 장삼을 뿌리며 앉는 동작과 북을 치는 동작이 조화되어 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끝을 맺는다.

(5) 굿거리가락

타령도드리가락에서 북을 친 후 무대 정면으로 나와 어깨춤으로부터 시작되어 본격적인 굿거리가락으로 들어간다. 염불가락, 타령가락보다 잦은가락이 많이 들어가며 훨씬 동작이 복잡해지고, 즉흥적인 멋을 표출하게 된다. 북을 칠 준비를 하며 장삼에서 손을 빼서 북가락을 쥐고 북 앞에서 얼르며 춤을 춘다.

(6) 굿거리도드리가락

법고를 치기 위한 준비로서 타령도드리가락보다 더 빠르게 북을 친다.

(7) 북치는가락

본격적인 법고이며, 북치는 기교를 최대한 살려 매우 빠르면서 리듬감이 넘치는 한바탕의 가락이다.

(8) 당악가락

법고를 당악장단으로 치는 것을 말한다. 북 앞으로 뛰쳐나오며 북과 떨어져 춤추기도 하고, 다시 북으로 들어가 더욱 북을 잦은 속도로 치며 끝을 맺는다.

차사영맞이

민속놀이

유래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사생관은 저승설에 기초한다. 삶과 죽음을 이승과 저승으로 나누고, 죽음이란 저승의 사자가 와서 그 영혼을 잡아가는 것이라 믿었다.

영혼이 가는 저승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여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었고,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한 영혼은 이승에서 떠돌며 귀신이 되어 살아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었다. 저승으로 통하는 열두 문을 통과할 때, 문마다 지키는 파수 등을 잘 달래어서 통과해야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 길을 치워 닦아 영혼을 맞아들이고 저승의 좋은 곳으로 맞아들이는 행사를 치렀는데 이것이 통과의례의 하나로 관습화된 것이 차사영(差使靈)맞이이다.

특색

이 행사는 보통 사람이 죽은 뒤 장례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행했다. 그러나 병로하여 죽음이 임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직 살아 있을 때 예측적으로 행하기도 한다.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이 굿은 일종의 맞이굿으로, 그 진행순서도 초감제에서부터 시작한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통과의례적 내용을 제주도의 전통굿인 맞이굿의 형식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또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구성

(1) 젯상배열

(2) 초감제

①배포도업

②군문(신역의 문) 열림

③신내림

(3) 질치기

(4) 춤마당

내용

차사영맞이는 저승의 길을 치워 닦아 영혼을 맞이하고, 영혼을 데리고 온 차사와 영혼을 위로하고 저승의 좋은 곳으로 보내는 행사이다. 또한 그 내용이 저승길을 치워 닦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으므로 일명 질치기라고도 한다.

이 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노래와 춤으로 진행된다.

큰대를 세우고 먼저 젯상을 배설하고 난 다음 굿이 시작된다. 먼저 옥황상제, 지왕 등 모든 신을 청해 앉히는 초감제를 한다. 배포도업을 치고 군문(신역의 문)을 열고, 그래서 신을 청해들이는 과정을 무당의 춤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모든 신들이 큰대를 통해 하강하는데 이것을 신내림이라 한다.

다음은 질치기로 넘어간다. 저승의 멀고 험한 길을 치워 닦는 과정이다. 굿판 가운데 세워놓은 대에다 지전과 '기매'를 달아 2열로 나란히 세워 저승의 길과 열두 문을 상징하고 그 길을 청소해 나가는 것이다.

차사와 영혼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길을 돌아보니 잡목이 무성한 험한 길이다. 심방은 이 길의 잡초목을 베어 넘기고 그것을 치워 정리하고, 나무의 뿌리들을 따비로 파고, 구르는 돌맹이를 치우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하게 골라서 광목을 깔아놓는다. 여기서 광목은 다리를 상징한다.

이 모든 과정은 춤으로 진행되는데 연물악기에 맞춰 노래가 곁들여진다.

질치기가 끝나면 차사와 영혼을 맞이하여 영혼의 말을 듣고 위로한다. 그리고 차사에게는이 영혼을 정승의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도록 빌며 열두 문을 차례로 열어 영혼을 보낸다.

마지막으로 동네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노래와 춤으로 즐겁게 노는 춤마당이 펼쳐지면서 굿이 끝나게 된다.

놀이기구

(1) 굿청

큰대, 좌돗기, 우돗기, 기매, 지전, 광목

(2) 젯상

(3) 기타

무구(巫具),복색, 악기 등.

미호천방축노래

민요

유래

청주시 강서동, 타동의 고락마을에서는 해마다 4월에 방축제가 행해져 왔다.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은 진천에서 발원하여 흐르면서 하구에 넓은 들을 만들었다. 치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옛날에는 들마다 흐르는 내를 막아 보를 만들었고 그 물로 농사를 지었으니 물을 다스리는 일이 풍흉의 척도였다.

봄이 되면 냇가의 허물어진 제방을 수리하고 보를 손질하면서 우순풍조를 기원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미호천은 골이 깊고 하폭이 넓어 내보다는강에 가까운 규모이며 공사가 쉽지 않았던 만큼 일의 능률을 위하여 많은 노래가 불려졌다.

특색

이 노래들은 가락이나 음색에서 이 고장의 독특한 토속적 냄새를 풍기고 있다.

방축제는 동제와 비슷한 형식으로 치뤄지는데 제가 끝나면 제방에 흙을 모으는 가래질이 시작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여러가지 노래가 불리우는데 대부분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전형적인 농업노동요이다.

구성

(1) 덕담

(2) 가래질노래

(3) 느린가래

(4) 자진가래

(5) 지정다지기

내용

(1) 가래질노래

천지현황 생긴후에 일월영책 여기로다
(후렴 : 에~일성 가래야)
신농씨의 본을 받아 (후렴)
이농사를 지을적에 (후렴)
수제공급 으뜸이라 (후렴)
우리농군 마음합쳐 (후렴)
이보위에 가래흙이다 (후렴)
태산같이 높이올려 (후렴)
바위같이 다져노세 (후렴)
장줄잡은 힘센일꾼 (후렴)
경줄잡이 옆눈모아 (후렴)
소리마춰 당겨주소 (후렴)

(2) 느린가래

(후렴 : 에~일성 가아~래~야)
추로지신님에 성김을 받아 (후렴)
신농씨의 가르침을 받아 (후렴)
우리 대본에 방둑가래로다 (후렴)
아양산하 너른뜰에 (후렴)
오곡풍년이 들리로다 (후렴)
이 가래 한삽에 만년뚝이로다 (후렴)
가문가문 만년뚝이로다
가문가문 만복가래로다
여보아라 우리 일꾼들
줄에 심주어 당겨나 주소

(3) 자진가래

(후렴 : 이~일성가~래)
조군조군 당겨주소 (후렴)
뚝방밑이 깊어진다 (후렴)
우리 보뚝은 높아지고 (후렴)
문전옥답이 따로있나 (후렴)
가래소리에 옥답이 된다 (후렴)
부모산에 그늘진 땅 (후렴)
우리조상의 터전일세 (후렴)
수문잡고 보를 치면 (후렴)
양양창창 봇물일세 (후렴)
아양산하 너른뜰에 (후렴)
만곡풍년이 들리로다 (후렴)
여보시요 농부님들 (후렴)
쉬지말고 다려만주소 (후렴)



고성오광대놀이

15

제1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4. 10. 24 ▶ 10. 26
부산

제1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4. 10. 24-10. 26.
부산

대통령상
고성오광대놀이(경남)-민속극
국무총리상
나주들노래(전남)-민요
문공부장관상
옥구들노래(전북)-민요
충무승전무(경남)-민속무용
거리제(강원)-민속놀이
수영야유(부산)-민속극
삼천포농악(경남)-농악
장려상
영변가놀량(평북)-민요
해주장굿놀이(황해)-민속놀이
서도소리(평남)-민요
미수상 참가작
황주난봉가(황해)-민요
돔질놀이(제주)-민속놀이
가래질노래(충북)-민요
태인민요(전북)-민요
괴산백중놀이(충북)-민속놀이
홍해룡의놀이(함북)-민속놀이
용득기(충남)-민속놀이
애원성(함북)-민요
동래지신밟기(부산)-민속놀이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어린이농악(경기)-농악
꼭두각시놀음(서울)-민속극
달구노래(제주)-민요
놋다리밟기(경북)-민속놀이
공로상
달구노래(전북)
용득기(함남)
놋다리밟기(경북)
경기어린이농악(경기)
꼭두각시놀음(서울)
개인상
차금순(애원성, 함북)
고판덕(옥구들노래, 전북)
김금화(해주장굿놀이, 황해)
문백윤(삼천포농악, 경남)
박남수(수영야유, 부산)

고성오광대

민속극

유래

이조 말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고성오광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그 연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1900년경에 마산출신 이순호라는 사람이 고성에 전해 왔다고도 하고, 진양월이란 기생이 마산에서 구경하고 재연했다고도 하며, 고성사람 이군찬 씨가 전수해 왔다고도 전해지는데 모두 확실하지 못하다. 옛노인들의 증언과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고성오광대는 초계계의 가면극으로 지연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보아 통영쪽에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경남지방의 광대놀이는 합천군 초계를 근원으로 하는데, 옛날 서울에서 초계의 밤머리마을에 한 사람이 내려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데 양반들의 구박이 너무 심해 울분을 참지 못하여 하루는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한 김에 가면을 만들어 쓰고 양반들을 실컷 욕해 준 것이 이 놀이의 시초라고 전해진다.

고성오광대놀이의 짜임새가 잡힌 것은 1920년경으로 보인다. 당시 고성지방에 괴질이 만연했는데 이 병을 피해 암자에 머물던 선비들이 시조나 창으로 소일하다가 이 오광대놀이를 즐김으로써 이후 고성지방에 이 놀이가 성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놀이도 일제시대인 1930년대에 중단되었다가 1946년에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특색

산대도감극 계통의 민속극이 각양각색으로 분화한 커다란 원인은 일정한 대본이 없이 구전에 의존하여 제멋대로 개작된 데에 있다. 그러나 고성오광대는 내

고성오광대놀이 (경남)



용상 일부 변형되기는 하였지만 원형을 거의 보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대본, 춤, 탈, 의상, 반주음악이 영남형의 대표적 성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로 보여진다.

또한 고성오광대는 하회별신굿이나 수영야유처럼 종교적 성격 없이 오락적 예능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놀이가 정월 보름이나 추석뿐만이 아니고 들놀이나 천렵같은 유흥시에도 놀아졌다는 사실로 짐작할 수 있다.

장단과 춤은 주로 굿거리 장단에 덧배기춤인데 춤사위는 배역의 장단에 덧배기춤인데 춤사위는 배역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르다. 맨 끝 과장인 제밀주과장에 나오는 상여는 옛부터 전해오는 실물의 상여를 사용한다. 오광대 과장중 양반들의 청·황·흑·백·적 등 5색의 도표가 눈에 띈다.

구성

고성오광대는 전5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 과장의 순서가 바뀌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1) 제1과장 : 문둥북춤
(2) 제2과장 : 오광대
(3) 제3과장 : 비비
(4) 제4과장 : 승무
(5) 제5과장 : 제밀주

내용

(1) 문둥북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문둥광대 한명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한바탕 춤을 춘다. 불치의 병을 앓는 문둥이의 비애를 부자유스런 행동으로 나타내다가 단념한 듯이 어떤 환희에 찬 동작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음탕한 동작의 표현도 하다가 덧배기 장단에 맞추어 퇴장한다.

(2) 오광대

이것은 타지방 가면극의 양반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놈이자 마부인 말뚝이가 양반들을 조롱하는 내용이다. 등장인물 중 원양반은 중앙 황제로 주역이며 청제양반은 동방, 적제양반은 남방, 백제양반은 서방, 흑제양반은 북방을 표현하여 오방을 상징한다. 이밖에 안면이 반은 홍색이고 반은 백색인 홍백양반, 원양반의 아들인 종가집도령, 초라니, 하인 말뚝이가 등장하여 여덟 광대가 한데 어울려 제각기 특징있는 춤을 추고 재담을 주고 받으며 한바탕 흥겹게 논다.

(3) 비비

이것은 오광대와 야유계에 공통적 과장인 영노과장으로 등장인물은 비비(영노)와 양반이다.

오광대 끝장면에서 양반들이 한참 춤을 추고 있을 때 인신수두의 비비가 나타나면 양반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데 비비는 그 중 한명을 붙들고 마음대로 놀려대며 혼을 내준다. 양반등살에 쌓인 서민들의 울분을 풀어주는 마당이다.

(4) 승무

중 한 사람이 각시 두 사람과 어울려서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희롱하는 무언극으로 파계승을 풍자하는 내용이다.

(5) 제밀주

다른 지방 가면극의 영감·할미과장에 해당하는 과장으로 시골양반, 큰에미, 제밀주(작은댁), 마당쇠(하인), 황봉사, 상도꾼들이 등장한다.

시골양반이 집을 떠나 첩을 얻어 놀아나다가 영감을 찾아 팔도강산을 헤매던 큰에미를 만난다. 큰에미가 작은 에미에게 그동안 영감을 잘 모신 공을 치하하는데 작은에미에게 산기가 있어 마당쇠를 시켜 황봉사를 불러다가 순산하기를 기원하는 경문을 읽는다. 작은에미가 아들을 낳자 영감이 사랑가를 부르며 어른다. 큰에미가 아기를 안고 애무하자 작은에미가 아기를 내놓으라고 앙탈하자 서로 싸우다가 아기를 떨어뜨려 죽게 한다. 아기가 죽자 작은에미가 큰에미에게 달려들어 밀쳐버리자 큰에미는 쓰러져 죽는다. 상도꾼이 큰에미의 상여를 메고 출상하면 처량한 향도소리와 함께 막을 내린다.

놀이기구

(1) 배역에 따른 탈과 소도구(벙거지, 더그레, 부채, 지팡이, 손수건, 패랭이, 고깔 등) 및 의상.
(2) 풍물 및 반주악에 쓰일 각종 악기.

나주들노래

민요

유래

나주들노래는 전라남도 나주 지방에서 불리는 농사짓기소리이다.

나주는 영산강을 끼고서 전남 서남단의 목포와 광주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곡창지대 중심에 있는 까닭으로 주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며 농요가 많이 불리운다. 주로 나주·영산 지방에서 많이 불리는 농요를 농사의 순서에 따라 편집한 것이 지금의 나주들노래이다.

특색

나주들노래는 논매기소리에서 다른 지방의 농요와


나주들노래 (전남)

차이점을 보인다.

즉 논매기는 초벌·두벌·만두레로 세벌을 매는데 다른 지방에서는 통칭 논매기소리라 하여 구별 없이 부른다. 그러나 나주 들노래는 두벌맬 때의 소리를 절사소리, 세벌맬 때의 소리를 덜래기소리라 하여 다르게 부르고 있다.

덜래기소리 뒤에는 뜰모리소리라 하여 논매기가 끝난 후 논두렁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 소리는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다.

구성

(1) 모찌기노래
(2) 모심기노래
(3) 논매기소리
①초벌매기노래
②절사소리
③덜래기소리
④뜰모리
(4) 장원질소리

내용

(1) 모찌는소리

모판에서 모를 찔 때 부르는 노래로 이 지방에서는 '모찐다'는 말을 '모를 무운다'고 한다. 중중몰이 장단에 맞추어 독창으로 앞소리를 메기면 합창으로 후렴구를 받아서 소리한다. 노래 끝은 자진몰이 장단으로 빨리 불러서 흥을 돋운다.

(2) 모심기소리

모 심을 때 부르는 이앙가로 장단은 전남 지방에서 흔히 쓰이는 못방구 장단 또는 덩더쿵 장단에 맞춘다. 이 장단은 판소리의 자진몰이의 장단처럼 '덩더 쿵덕 덩더 쿵덕'의 12/8박자이다.

(3) 논매기소리

①초벌매기노래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논매기소리는 초벌·두벌·세벌 맬 때 구별없이 소리가 같다. 그러나 나주의 논매기는 모두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단은 중몰이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무장단으로 매우 느린 한배로 유장하게 부른다. 메기고 받는 형태도 약간 특이한데 메기고 받는 이가 3구의 노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오—그렇제'하고 소리를 지른다. 이어 다시 메기는 소리 후에 긴 뒷소리를 함께 받는다.

②절사소리

두벌논매기소리로 장단은 엇몰이로서 8분의 10박자이며, 한 장단을 독창으로 메기면 한 장단을 합창으로 받는다. 구성음의 음계는 남도 특유의 시나위로 되어 있고 리듬이 매우 다양하다.

③덜래기소리

세벌 논 맬 때 부르는 소리로 후렴구가 '덜래기요'로 끝나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중중몰이로 치다가 뒤에는 자진모리의 장단으로 넘어가 흥겹게 소리한다. 메기는 소리가 두 장단, 받는 소리가 두 장단 모두 네 마당을 이루고 있다.

④뜰모리

다른 지방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소리로 하루의 논매기가 끝나서 논두렁으로 올라갈 때 불리워지는 소리이다. 이 소리를 할 때는 일꾼들이 두 패로 나뉘어 번갈아가며 선소리를 메긴다. 따라서 혼자 메기면 여럿이 받는 형태와는 다른데 2절을 부를 때는 다른 조가 선소리를 한다. 장단은 엇몰이 장단으로 비교적 빠르고 경쾌하다.

(4) 장원질소리

만두레가 끝나면 논머리에서 벼가 제일 잘 된 집을 골라 장원이라고 칭찬하며 하는 소리이다. 즉 농사가 잘 된 집의 머슴을 소에 태우거나 사다리를 옆으로 하여 메고 삿갓을 머리에 씌운 후에 장원질소리를 하며 그의 집으로 향한다. 따라서 이 소리는 진도의 길꼬냉이에 해당하나 사설내용은 전혀 다르다. 진도의 길꼬냉이 가사는 남녀의 연정을 노래한 것이나 나주의 장원질소리의 가사는 단순히 풍년을 환호하는 것이다.

옥구들노래

민요

유래

옥구들노래는 전라북도 옥구군 대야면 탑동에 전승되는 민요로 논매기할 때 주로 불리워졌던 노래이다.

옥구지방은 옛부터 곡창지대로 기름진 평야가 많았으므로 자연 농사일이 성하였고 그 힘겨운 농사일의 피로를 덜어주고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해 일노래가 불리워지게 되었다.

기능보유자인 고판덕옹의 18대 선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옥구들노래는 약 500여 년전부터 불리워졌으리라 추측된다.

특색

옥구들노래는 들노래에 앞서 농사일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불무노래를 부른다.

농기구를 만드는 일을 상징하는 불무노래를 넣는 것은 옛 일을 재현시킴과 동시에 생산성 있는 농민들의 자립정신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는 다른 지역의 들노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다.

구성

(1) 불무노래
(2) 만경산타령
(3) 오호타령(방아타령)
(4) 자진산타령
(5) 에이싸호
(6) 워야차소리(몬들가락)

내용

(1) 불무노래

대장간에서 쇠를 달굴 때 불무(풀무)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함경도의 불무타령과는 달리 매우 선율적이다.

(메김소리)어화— 어화—
어럴럼자 어화네
(받는소리) 어화— 어화—
어럴럼자 어화네
(메김) 저건네 불머리
쾅쾅 굴러라
(발음) 어화— 어화—
어럴럼자 어화네
(메김) 이 내 쇠가 어디 쇤가
남원이라 운봉 쇠
(발음) 어화— 어화—
어럴럼자 어화네
(메김) 어화 불무야
쇠물도 나 잘 나온다
(발음) 어화— 어화—
어럴럼자 어화네
이 내 쇠를 두들기어 임옥들을 다 파보세
어화— 어화—
어럴럼자 어화네

(2) 만경산타령

이것은 전라도 산타령인 육자배기의 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만경산타령은 지게목발을 두드리며 부르면 산타령이 되고 넓은 들판에서 김을 매면서 부르는 경우에는 지심매는 소리가 된다.

(메김소리) 나하하에— 해—이—
헤—헤—이에—헤
오혼도 히에—헤 에헤—
니가 산아지로고나 아하
(받음 소리도 위의 여음을 반복함)
(메김) 바람 부네 바람이 부네
농촌 한가히 풍년 바람이 부네
(받음) 나하하에—헤—이
헤—헤—이에—헤
오혼도 히헤—헤 에헤
니가 산아지로고나 아하
(메김) 바람아 부지를 마러라
놀기놓은 정자나무 잎이
다 떠러 진다, 아하
(받음) 나하하헤—헤—이—
헤—헤—이에—
오혼도 히에—헤—에헤—
니가 산아지로고나 아하
(메김) 이바람 불고 비올줄 알면
우장을 두루고 지심을 매세
(받음) 나하하헤—헤—이—
헤—헤—이에—헤
오혼도 히에—헤 에헤—
니가 산이로고나 아하

(3) 오호타령(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이라고도 하며 만경산타령에서 자진산타령으로 넘어가는 경과구의 역할을 한다.

긴육자배기에서 자진육자배기로 넘어갈 때 부르는 삼산중락의 부분과 비슷하다.

(메김소리) 에헤야 하아—
헤—헤야 아 허—헝거 오호야
에헤야 에헤야 혼도 오호야
(받음도 여음을 반복)
(메김) 산천 초목은 속잎나고
이 논배미 장잎날려
(받음) 에헤야 하—아
헤—헤야 아 허—헝거 오호야
에헤야 헤에야 혼도 오호야
(메김) 잎은 피어 청산이 되고

꽃은 피어서 화산이로고나
(받음) 에헤야 하—아—
헤—헤야 아허—헝거 오호야
에헤야 헤애야 혼도 오호야
(메김) 일엽선아 돛을 달아라
만경창파로 뱃노리 가자
(받음) 에헤야 하—아
헤—헤야 아허 헝거 오호야
에헤야 헤에야 혼도 오호야

(4) 자진산타령

자진산타령이나 자진육자배기와 같은 것으로 흥겨운 가락이다.

(메김) 에야라 아하 에야라 뒤야
산이로구나
헤에아애 헤야 뒤야
산이로구나
(받음도 여음을 반복)
(메김) 앞산은 점점 가까를 지고
뒷산은 점점 멀어를 지네
(받음) 에야라 아하 에야라 뒤야
산이로구나
헤에이야 헤야뒤야
산이로구나
(메김) 비묻어 오네 비묻어 오네
무학산에 비가 묻어 오네
(받음) 에야라 아하 에야라 뒤야
산이로구나
헤에이야 헤야뒤야
산이로구나
(메김) 떠드러 오네 떠드러 오네
점심밥꽝아리 떠드러 오네
(받음) 에야라 아하 에야라 뒤야
산이로구나
헤에이야 헤야뒤야
산이로구나

(5) 에이싸호

논매기를 하면서 여럿이 좁혀들어와 일을 마무리 지을 때가 옴을 알리는 노래이다.

(메김) 싸오 싸오 둘러싸오
(받음) 에이 싸오
(메김) 소쿠리 장사 테두르듯
(받음) 에이 싸오
(메김) 고기잽이 구물 치듯
(받음) 에이 싸오
(메김) 망건 장사 골 두르듯
(받음) 에이 싸오
(메김) 먼데사람 듣기 좋게
(받음) 에이 싸오
(메김) 옆에 사람 보기 좋게
(받음) 에이 싸오
(메김) 일락 서산 해 떠러지고
(받음) 에이 싸오
(메김) 월출 동산 딸 떠오네
(받음) 에이 싸오
(메김) 북두칠성 앵도라졌네
(받음) 에이 싸오
(메김) 그만 저만 파연곡 허세
(받음) 에이— 위—

(6) 워야차소리(몬들가락)

논매기가 끝나갈 무렵, 일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빠른 곡조로 부르는 노래이다.

(메김) 위야 어허
(받음) 위야 어허
(메김) 위야차 소리 나거든
휘휘 둘러 싸세
(받음) 위야 어허
위야 어허
(메김) 위야차 소리 나거든
비늘을 달아 싸세
(받음) 위야 어허
위야 어허
위야차 발버라 발버라
위야차 위야차
위야차 위야차

거리제

민속놀이

유래

전국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던 장승은 근년에 와서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춘성군 동산면 전기곡리에서는 매년 거리제를 지내면서 장승을 세우고 있어, 장승을 보존하는 유속을 전승하고 있다.

춘천에서 홍천간 국도에서 약 8km 떨어져있는 20여호의 외진 마을인 이곳에서는 매년 3월 중삼일이 아니면 9월 중구일을 택하여 장승을 세우고 있다.

특색

장승에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등의 이정을 써 넣는다.

장승의 기능은 사찰의 입구에서는 경계의 표지로, 도로변에서는 이정표의 구실을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 마을에서는 동네어귀에 서서 무서운 얼굴로 잡귀를 쫓는 수호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성

2개의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 1 과장 : 건립과 성황제

(2) 제 2 과장 : 장승세우기와 길닦기

내용

(1) 건립과 성황제

농기를 앞세운 농악대의 농악놀이가 있게 된다. 농악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걸립을 받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리제에 쓰일 물품을 내놓는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성황을 모신 당목부근을 정하게 쓸고 황토를 뿌리며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이어서 제주와 제관이 등장한다. 이들은 정갈하게 치워진 성황당목 앞에서 성황제를 지낸다.

이때 제관은 우마(友馬)의 소지까지 올린다.

(2) 장승세우기와 길닦기

성황제를 올리고 나면 마을 사람들이 동네어귀에 모여 이미 만들어 놓은 장승을 쟁기를 이용하여 세운다.

장승 세우기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가래로 길을 정리한다. 이는 마을 사람들의 편리와 함께 길을 오고 가는 모든 행인들이 무사히 다니길 바라는 소박한 인심의 표현이다.

이때는 선소리꾼이 이 지방의 가래메기는민요를 선창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도 선소리를 받으면서 노래에 맞추어 가래질을 하면서 길을 닦는다.

수영야유

민속극

유래

수영야유는 통영, 고성의 오광대, 동래야유와 더불어 현존하는 한국가면극 중에서 영남형에 속하는 놀이이다.

구전에 의하면 수영은 약 200년 전에 당시 좌수영이 있던 곳으로 이 영의 군량을 보급하던 곳은 합천과 창령 등지였다. 이곳에서 짐을 실은 배는 낙동강 중류의 큰 포구였던 밤마리를 경유하였다고 한다.

수영야유는 이 군량선에 편승한 교역상인들에 의해



수영야유 (부산)

도입되었다고 하며 일설에는 수사(水使)가 광대패를 잡아다가 연희한테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밤마리는 낙동강변 수로의 요지였고 또 인근의 산물을 집산하는 하시(河市)로서 거상에 기식한 유랑연예단과 같은 놀이패가 있었을 것이다. 수영 역시 좌수영의 소재로서 관아의 군졸들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밤마리의 광대패가 수영에서 공연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모든 기록과 자료로 미루어 수영야유는 초계 밤마리의 직계이며, 수영에서 다시 부산진, 동래로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낙동강 이서지방에서 오광대놀이라고 하는데 대해 수영에서는 야유(野遊)라 한 것은 음력 정월 15 각종 축제행사를 한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특색

수영야유도 다른 가면극의 경우와 같이 춤이 주가 되고 재담과 노래 동작 등이 곁들여지는 탈춤이다. 그 특색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춤은 영남 특유의 굿거리 장단의 굿거리 춤사위이며 말뚝이 춤은 건무(健舞)로서 매우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2) 원시종교성이 강한 고형에 속하며 타지방의 '야류', 오광대의 '문둥과장' 대신 '사자무'가 있다. 사자무과장은 사자가 앉아 있는 모습과 흡사한 수영의 앞산을 진수신으로 삼고 왜적을 담보(범)로 삼아 담보가 사자를 괴롭히면 사자가 담보를 잡아 먹는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라 한다.

구성

(1) 준비과장

(2) 길놀이와 군무

(3) 탈놀음

①제 1 과장 : 양반 마당

②제 2 과장 : 영노 마당

③제 3 과장 : 할미 · 영감 마당
④제 4 과장 : 사자무 마당

내용

수영지방은 이조 때부터 반상의 차별과 대립이 극심하였고 상인에 대한 양반의 학대와 착취가 가혹하였다. 동국여지승람에서도 지적했듯이 특히 아전들의 횡포가 심했던 고장으로 야유극에도 상민들의 울분과 반감이 재담과 민요로 풍자되어 나타나 있다.

매년 달 뜨는 시각을 시작으로 밤을 새우면서 연령과 계급의 구별없이 하룻밤을 즐기며 놀았다.

(1) 준비과장

수영야류계가 주동이 되어 음력 정월 3일부터 13일까지 걸립을 하여 경비를 조달하는 동안 한편에서는 가면과 놀이판을 준비한다. 14일 밤에 배역을 정하고 15일 낮에 마을의 수호신인 독신(獨神)과 원수정(遠水井), 최영 장군묘에 제사를 지낸다.

(2) 길놀이와 군무

보름달이 뜨면 원수정에서 놀이판(장터)을 향하여 200여 개의 등불을 앞세우고 가장, 가무, 연등으로 화려하게 행진하는 길놀이를 한다.

(3) 탈놀음

①양반과장

말뚝이와 수양반의 대담으로 엮어진다. 무식한 하인 말뚝이의 독설과 음흉하고도 신랄한 풍자로써 양반의 이면상을 폭로하며 양반계급의 무능과 허세를 조롱한다.

②영노과장

양반과장의 연속으로 영노가 양반을 잡아 먹는 반항의 극치를 보여준다.

③할미 · 영감과장

봉건사회의 일부다처제에 따른 가정불화를 소재로 하여 처첩간의 삼각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④사자무과장

사자무와 범이 격투를 하다가 사자가 담보를 잡아먹는다는 내용의 무언극이다.

영변가놀량

민요

유래

영변가는 서도잡가 중의 대표적인 곡이다. 서도잡가는 긴난봉가, 중난봉가, 자즌난봉가, 병신난봉가 등과 놀량사거리, 중거리, 경발림, 공명가, 앞산타령, 뒷산타령, 개타령, 섬마타령, 방아타령, 배따라기 등이 있다. 남도창과 쌍벽을 이루는 서도잡가 중에서 영변가는 영변의 빼어난 경치를 표현한 노래이다.

놀량은 서도입창의 하나이다. 서도입창은 서도지방에 불리워진 노래의 총칭인데 입창이란 소리꾼들이 서서 발림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가리킨다.

놀량은 경기놀량에서 파생되었다. 산수를 구경하며 한판 놀이를 펼치면서 부르는 노래로서 당시 사대부가 집중적으로 살았던 경기지방에서 놀량이 탄생되어 평안북도까지 퍼지게 되었다. 서도입창이 황해도, 용강, 평양, 강서 등지에서 불리워지지만 평안북도 놀량은 묘향산을 주제로한 노래이다.

특색

영변가는 서도잡가 중의 공명가나 초한가보다 부르기가 쉽다. 이는 서민의 정서를 반영해 길게 늘어지지 않고 듣는 이로 하여금 따분하지 않게 한다.

유창하고도 흐늘거려서 듣고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멋을 느끼게하고 흥을 돋운다. 서민들이 양산대를 바라보는 감흥을 노래한 것이므로 씩씩하고, 상청으로 목소리는 빼올리는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놀량은 말도 알아듣기 쉽게 부르는 노래로써 처음에는 4박자로 부르다가 둘째마디에서는 3박자, 4박자 어수선히 부르다가 느려지는 도드리로 변주가 되고 종장에서는 자진타령으로 리듬이 빨라져 경쾌한 곡조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성

(1) 영변가는 예전에는 10절이나 되는 구조로 불리워 졌으나 60~70년 전부터는 신조로 된 3절은 곡이 같고 4절, 5절은 각기 변조가 된다.

(2) 놀량은 전체가 한 곡조이다. 구조는 어려워서 쉽게 창작된 것인데 장고를 메고 한사람이 메기면 출연한 사람 모두 합창하는 식이다.

내용

(1) 영변가

영변 약산대의 진달래꽃이 만발한 경치를 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곡이다. '웃동짧고 아래아랫동 팡파짐한 아희들아 날 살려주렴'에서 보여지듯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힘을 느끼고 있는 반면 자신의 늙어가는 처지를 서글퍼하는 심정을 절절히 노래한 곡이다.

노자에-노자노자 젊어서 노잔다
나도많어 병이나 들며는 못노리로다
영변의 약산의 동대로다
부디 평안히 어 잘있거나
나도 명년양춘은 가절이로다

또다시 보다
오동의 복판이로다 거문고로구나
둥당실 슬기덩 소리가 저절로 난다
달아에—달아달아
허공중천에 두둥실 걸리신 달아
임에나 창전이로구나
비치신 달아
아서라 말려무나 네 그리 말려무나
사람의 인정의 괄시를 네 그리마라
남산을 바라다보니
진달화초는 다 만발하였는데
웃동짧고 아래아랫동 팡파짐한 아희들아
날 살려주렴
자규야 우지를 마라
울려거든 너혼자 울께지
여관한등 잠들은 날까지 왜 깨워주나
일락은 융지황혼되고
일출어동령이로구나
달 솟아온다
양덕맹산 흐르는 물은
부벽루하로 감돌아든다
삼산은 반락이로다
목단봉되고 이수는 꺼정청 뛰어
준라도로다

(2) 놀량

놀량은 묘향산의 기가 막힌 경치와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는 내용을 읊은 것이다.

에라디에 어허야 요홀 네로구나
녹양에 벋은 길로
북향산 쑥 들어도 간다
에헤에헤 이여—어허야 요홀 네로구나
춘수는 낙락 기러기나니 훨훨
낙락장송이 와자직근도 다 부러졌다
마들가지 남아 지화자자 좋을시고
지화자자 좋을시고
얼시구나 좋다 말 들어도 보아라
인간을 하직하고 청산을 쑥 들어도간다
에헤에헤이여 어혀야 요홀 네로구나
황홀 아니 거러검쳐 잡고
성황당 숭벅쿵새 한마리 남게 앉고
또 한마리 땅에 앉아
네가 어디뫼로 가자느냐
네가 어디뫼로 가자느냐
네가 어디뫼로 가자느냐
이산 너머가도 그리 숭벅궁새야
저산 너머가도 거리 숭벅궁새야 에—
(중략)

서도소리

민요

유래

서도소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민요, 잡가 등의 관서지방의 노래를 말한다.

평안도 민요에는 수심가, 엮음수심가, 긴아리, 잦은아리, 안주애원성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수심가가 가장 유명하고, 황해도 민요에는 긴난봉가, 자즌난봉가, 병신난봉가, 사설난봉가, 산염불, 자진염불, 몽금포타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난봉가와 산염불은 널리 알려진 곡이다.

서도잡가도 서도소리에 속하는데 공명가, 사설공명가, 제전, 추풍감별곡, 관산융마 등이 유명하다.

위 노래들의 유래에 관해서는 모든 지방의 민요나 잡가가 작자를 분명히 알 수 없듯이 언제 작곡·작사되었고 누구의 입에서 먼저 불리워졌는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몇개의 곡이 그 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설화의 간략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심가

병자호란 무렵에 성천의 유명한 기생 부용이 지은 것이라는 항간의 설이 전한다.

(2) 긴아리와 자진아리

평안남도 용강과 강서지방의 전통적인 구전 민요로서 본래 어촌에서 불려졌으나 그 뒤 들에서 김맬 때 불렀다.

(3) 관산융마

서도소리 (평남)



조선조 정조 때의 문인인 신광수의 공령시를 율조에 올려 부른 것이다. 이 관산융마를 처음 노래로 부른 사람은 평양기생인 모란이라고 한다.

(4) 추풍감별곡

평양에 살던 김진사의 딸 채봉이 대동문 밖에 살고 있었던 강필성과의 비극적 사랑을 안타까워하여 지었다 한다.

특색

서도소리의 가락은 흔히 수심가토리라고 하여 대개 위에서부터 질러내며 위의 음은 흘려 내리고 가운데 음은 심하게 떨며 아래의 음은 곧게 뻗는 특이한 선율진행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소리를 느릿하게 부르면 구슬픈 느낌을 준다.

(1) 평안도소리의 선율

일반적으로 re, mi, sol, la, do의 5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떠는 음이 la이고 그 la에서 완전5도 하행하는 것으로서 선율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음들이 높은음에서 하향진행을 하고 있다.

(2) 황해도소리의 선율

황해도소리의 난봉가와 산염불은 평안도소리인 수심가와 함께 서도소리의 일반적인 선율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선율진행에서 다르다. 즉 수심가는 re mi sol la(떠는음)do로 부를 수 있지만 난봉가는 la, do, re, mi(떠는 음), sol로 부른다.

구성

(1) 민요(평안도 소리)

①수심가

②긴아리와 자진아리

③안주 애원성

(2) 잡가

①공명가와 사설공명가

②초한가

③제전

④관산융마

⑤추풍감별곡

내용

(1) 민요(평안도 소리)

①수심가

처음부터 길게 내뻗는 수심가가 있고 이와 짝이 되는 엮음수심가가 있다.

서도소리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수심가는 마치 전라도소리가 육자배기소리로 대표되고 있는 것과 같다.

②긴아리·자진아리

수심가가 전문적인 창자들에 의해 다듬어져서 세련미를 갖춘, 도시화된 노래라고 한다면 긴아리와 자진아리는 토속적인 소박한 맛이 간직된 소리이다.

③안주 애원성

평안도 안주지방에서 아낙네들이 베를 짜기 위해 실을 잦을 때 부르던 물레타령의 일종이다.

타령장단으로 속도가 빠르며 서도소리의 진행 선율이지만 높은음들이 주로 많이 쓰인다. 부녀자들의 고달픈 생활에 대한 푸념과 흐느낌으로 되어 있다.

(2) 잡가

①공명가와 사설공명가

이 공명가는 제갈공명이 갈건야복으로 남병산에 올라 동남풍을 비는 광경을 묘사한 소리이다.

서도잡가의 대표적인 소리로서 긴 사설인데도 별로 지루한 감을 주지 않고 있다.

②초한가

초한가는 공명가와 더불어 서도의 잡가로 널리 알려진 소리이다. 이 노래는 중국의 초와 한이 서로 싸워서 지고 이긴 것을 읊은 것이다.

사설조로 읊어나가다가 끝부분을 수심가로 불러 여미고 있다.

③제전

이 노래는 인생무상을 주제로 하여 생자필멸과 회자정리라고 하여 사람은 한 번 낳았다가 한 번 죽는 것이요, 만났던 사람은 이별하게 마련이건만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눈물과 비탄으로 일관한다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④관산융마

서도소릿조로 길게 내뻗는 이 소리는 대쪽을 올리는 듯 청초하고 투명하다.

신광일의 과시(科詩)인 관산융마의 원 시제는 '등악양루 탄관산융마'이며 시의 내용은 당나라 시인 두보가 그의 만년에 표랑하다가 악주에 있는 악양루에 오른 일을 읊은 것이다.

⑤추풍감별곡

일정한 장단에 의해 부르고 선율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이 일정한 가락을 반복해서 불러 나간다. 내방가사의 성조로 불러 나간다고 하겠다.

난봉가

민요

황해도 민요 중의 하나이다. 일명 '긴난봉가'라고도 불리며 경기·서도지방 여러 민요의 원형에 해당된다.

곡명은 옛 사설에 "난봉이 났네, 난봉이 났네……."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불리는 노래는 난봉과 관계 없는 서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조선 후기부터 널리 불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노랫말의 첫절은 다음과 같다.

(후렴) 아하아에 에헤요
어람아 둥둥 내 사랑아 (1절)
정방산성 초목이 무성한데
밤에나 울 닭이 대낮에 운다.

장단은 도드리장단에 맞추어 치지만 중모리장단으로 치는 편이 쉽다. 11절과 후렴으로 된 유절형식이다. 선율의 구성은 '수심가'토리로 되어 있다. 멋진 가락에 노랫말도 멋들어진 민요이다.

톱질놀이

민속놀이

유래

제주도에서 아름드리 통나무를 켤 때 부르는 노래인 동시에 놀이이다.

큰 집이나 배를 지으려면 큰 통나무를 자르고 켜서 재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10여 명의 역군들이 큰 톱에 줄을 매어 양쪽에서 당기면서 나무를 켜간다. 특히 부자의 큰 집을 지을 때는 3~4개의 큰 톱을 여러 곳에 설치하여 30~40명이 서로 경쟁하면서 나무를 켜는데 풍악과 춤으로써 응원을 해가며 작업의 흥을 돋구는 장면은 노래로부터 놀이화된다.

특색

제주도의 노동요 중에 '벌채요'는 오늘날 5곡 정도가 전하는데 '나무베는노래'나 '나무내리는노래'등이 산에서 행해지는데 반해서 톱질노래는 '나무켜는노래'로서 헛간 같은 곳에서 행해진다. 제재소가 생기기 전 민간에서의 제재는 모두 이러한 방법을 썼는데 남성들만의 거친 작업이라서 전승되는 노래가 흔하지 않은 점이 특색이다.

또한 이 톱질노래는 사람이 죽으면 관널을 짤 때도 불렀는데 이때 관널을 잘 짜도록 부탁하기 위해 상가에서는 작업꾼들에게 팥죽을 쑤어 주고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권했다. 이때 작업꾼들은, 가사는 약간 다르지만 톱질노래와 같은 민요를 연창했다.

구성

이 노래는 작업 장소와 성질에 따라 약간씩 다른 가사로 불린다. 보통 '집지을 때 부른 노래'와 '배만들 때 부르는 노래' 그리고 '관널 켤 때 부르는 노래'등이 있다.

톱질놀이에서는 특별한 형식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

내용

톱질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이야어—어유하야
(후렴 : 어야어—어유하야)
어—어—어야도하야 (후렴)
팔십당년 늙은 사공 (후렴)
칠십년이상 늙은접군 (후렴)
백년이상 보민톱으로 (후렴)
천년목을 오려보자 (후렴)
이야어—어유하야 (후렴)
어—어—어야도야하 (후렴)
요나무 근본이 어디냐 (후렴)
태씨황제 아방궁에 (후렴)
미참하야 남아있는 (후렴)
천년송도 아니외다 (후렴)
한무제 승노반에 (후렴)
미참하야 남아있던 (후렴)
만년송도 아니외다 (후렴)
혼원지기 자야반에 (후렴)
천왕씨가 탄강하사 (후렴)
고명하신 열두성재 (후렴)
천윤지성 품수하다 (후렴)
목덕이왕 무위화기 (후렴)
만팔천세 사랐더라 (후렴)
제주도 한라산에 (후렴)
천년묵은 아늠찬남 (후렴)
천황씨 임금하던 (후렴)
천황목이 적실하다 (후렴)
견지아조 굳센절개 (후렴)
풍우상설 변치않고 (후렴)
운월에 만건곤 할때 (후렴)
독수창창 푸렀더라 (후렴)
요재목을 베려고 (후렴)
위수강변 강태공이 (후렴)
서목수를 청해다가 (후렴)
대산에 올라 대목베고 (후렴)
소산에 내려 소목베고 (후렴)
삼읍도신 삼백육십 (후렴)
현인군자 모여들어 (후렴)
영주산하 정의고을 (후렴)
광원면막 넓은드르 (후렴)
율여조양 버려놓고 (후렴)

기재연포 안음찬남 (후렴)
유정주일 골라잡아 (후렴)
상중하를 잘라노니 (후렴)
태극체가 분명하다 (후렴)
윤집철중 한토막을 (후렴)
정음정양 분색하고 (후렴)
삼강오륜 인의예지 (후렴)
원형이정 마련하고 (후렴)
우의로 갈라노아 (후렴)
묵비사렴 먹술놓고 (후렴)
사상팔과 버려노니 (후렴)
삼십육중 도시춘은 (후렴)
우주에 받갓더라 (후렴)
금수강산 삼천리 (후렴)
탐라국의 우리동포 (후렴)
천황목을 오려다가 (후렴)
유수씨의 궁실제도 (후렴)
구목위수 집을지어 (후렴)
천황씨 가치 살아보자 (후렴)
만팔천세 살아를 보자 (후렴)

놀이기구

통나무, 톱, 틀(작업대), 악기(북, 장구)허벅 등.

가래질노래

민요

청원군 강서면 지동리, 고락동 일대에서 4월에 방축제가 행하여져 왔는데 이는 이 부락의 농경을 위한 미호천 보가 있어 옛부터 이 봇물로 고락동 일대를 관개하여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이따금 한발로 농사의 곤경을 당하여 왔으므로 언제나 갈수되는 일이없이 영농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었다.

이 가래질 노래는 방축제나 보를 만들면서 불리워진 노래로 타지방의 농요들과 일부 공통적인 면을 지닌것도 있으나 가락이나 음색에서는 이고장의 독특한 토속적인 냄새를 풍겨주고 있다.

〈느린가래〉
에……일성 가아……래……야
추로지신님에 성김을 받아
실농씨에 가르침을 받아
우리대본에 방둑가래로다
아양산하 너른들에
오곡풍년이 들이로다
이가래 한삽에 만년뚝이로다
가문 가문에 만복가래로다
여보아라 우리일꾼들
줄에심주어 단겨나주소
〈지정다지기 노래〉
에헤드럿따 지정이야
응천상지 상광이요
비인간지 오복이로다
한번다져서 천석이면
두번다져 만석일세
이뚝다지가 뉘뚝인가
부모산아래 미호뚝일세
만년뚝을 다졌으니
금년해운도 풍년이로다
조상님이 물린터전
우리네힘으로 지켜가세
미호천들에 풍년이드니
부모산하에 태평건곤
용신제왕제 비를빌고
일월성신께 풍년을 빌세
부모산방죽에 뭉친힘을
항우장순들 당할소냐
〈자진가래〉
어일성가……래
조군 조군 당겨주소
뚝방밑이 깊어진다
우리보뚝은 높아지고
문전옥답이 따로있나
가래소리에 옥답이 된다
양양창창 봇물일세
아양산하 너른뜰에
격양가가 절로난다
부모산하 너른뜰에
만곡풍년이 들이로다
여보시오 농부님들
쉬지말고 다려만주소

태인민요

민요

태인의 연꽃노래는 만도리 김매기가 끝나고 마을로 향하여 주인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하루일도 무사히

마치고 농사도 대농이니 닭을 잡고 술을 마시며 풍년을 구가하자는 뜻이 깃든 농민의 서민적인 풍자를 순박하게 표현한 노래다.

〈태인 김매는 노래〉

(메김) 응이 에헤야 워어 에헤에 에헤야
받음(후렴) 응이 에헤야 워어 에헤에 에헤야
(메김) 응어 너의 누님이 나를 마다고 강원도 금강산으로 머리깍고 중노릇을 간다더라
(메김) 응어 다됐구 다됐구나 오늘해도 다됐구나 연기가 난다
(메김) 응어 일락 서산에 해는 지고 월출 동녘에 달 솟는다 응어 에헤에 에헤야
(메김) 둘렀구나 둘렀구나 물통배미 서마지기 놀노리 사시미 논에둘러 오호 에화
(메김) 굽네(에화) 다되였다(에화) 어서매소 (에화) 굽네(에화) 어서매소(에화)
(합창) 오 호 아 우 야 에루네 에루네 장보
(메김) 들어가세 들어가세 쥔네집으로 들어가세
받음 에루네 에루네 장보……(농악)

〈연꽃노래〉

(메김) 배꽃 셀레 배꽃 셀레
정실로 배나무야 정실로 배나무야
아그밴가 독밴가 배꽃 셀레 배꽃 셀레
(받음) (후렴) 얼시구나 야야 절시구나 야야
얼사 절얼사 좋음이나 좋던가 보더라
홍그다당 정실로
(메김) 연꽃 셀레 연꽃 셀레
방죽이나 주암이 방죽이나 주암이
방죽이나 방죽이나 연꽃 셀레
(메김) 말잘타네 말잘탄다
북도라 마병들어 북도라 마병들이
마병녀석들이 말잘타네 말잘탄다
(메김) 활잘쏘네 활잘쏘네
전주라 아전들이 전주라 아전들이
아전녀석들이 활잘쏘네 활잘쏜다

괴산백중놀이

민속놀이

유래

우리나라의 음력 7월 보름은 백종 또는 백중, 머슴의 날이라고 부르는 농민의 명절이다. 이 무렵에 농사일이 거의 끝나게 되고 그동안 논밭을 매고 뜯는데 쓰던 호미가 필요없게 되어 호미를 씻어둔다고 해서 '호미씻는 날'이라고도 부른다. 예로부터 어정 7월, 동동 8월이란 말이 있듯이 농촌의 7월은 바쁜 농번기를 보낸 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을 추수를 앞둔 달이어서 잠시 허리를 펼 수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백중날을 전후해서 장이 서고 머슴들과 일꾼들에게 돈과 휴가를 주어 즐겁게 놀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다. 따라서 해마다 백중이 되면 머슴들과 농사꾼들은 특별히 장만한 아침밥상을 받게되고 새옷과 돈을 받는데 이것을 '백중돈 탄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 백중돈은 아이들도 타는데 그날은 백중돈을 탄 머슴이나 일꾼들이 장터에 나가 물건을 사거나 놀기도 하는데, 이때 서는 장을 특별히 '백중장'이라 해서 풍장이 울리고 씨름판이 벌어지며 그네뛰기 등이 열린다. 장에는 난전이 벌어져 갖가지 흥미있는 오락과 구경거리가 있어 농사에 시달렸던 머슴이나 농사꾼들은 마냥 즐길 수 있는 것이었다.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지방에서 칠월칠석부터 백중장이 섰으며 괴산지방에서는 백중날 특이한 '백종(중)놀이'가 있었다.

특색

괴산지방에서는 머슴이나 농사꾼들이 백중 한달 전부터 밤이 되면 동네 큰 사랑이나 동구 나무 밑에 모여 그 집에 필요한 멍석, 동구녘, 삼태미 등을 만들기 시작하여 백중날 아침이 되면 그동안 만든 멍석, 삼태기 등을 안마당에 던지면서 "멍석 사시오"하고 외친다. 그러면 주인집에서는 미리 술과 떡을 마련하였다가 새옷 한벌과 백중돈을 태워준다. 돈을 탄 머슴이나 일꾼들은 새옷을 입고 풍장을 치면서 동네 큰마당에서 모두 모여 흥겨웁게 논다.

그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동네 어른들은 그 해에 농사를 가장 열심히 모범적으로 지은 머슴을 뽑는다.

"아무개가 상머슴이다"라고 발표되면 모두가 지명된 상머슴을 헹가레치며 함성을 지른다. 그리고 지명받은 상머슴을 황소에 태우고 얼굴에는 환칠을 해주고 버드나무 잎사귀로 관을 만들어 씌우고 도롱이를 입힌다. 또 황소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상머슴 사시오"라고 외치며 풍장을 치고 춤을 춘다. 이렇듯 괴산의 백중놀이는 농사를 권장하며 모든 농군들에게 여름철 농사일에 지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슬기어린 민속놀이다.

구성

1) 백중날 아침 상머슴 뽑기
2) 마을 순례

3) 혼례

내용

백중날 아침 동네 넓은 마당에 농악이 울려퍼지면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여든다. 모여든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멍석, 멧방석, 둥구녘 등들 어깨에 매거나 손에 든 머슴들이 몰려나와 마당에 내동댕이 친다. 동네 어른들은 모여서 상머슴 뽑기를 의논한다. 마을 어른 한 사람이 뛰어노는 군중을 멈추게 하고 상머슴으로 뽑힌 이의 이름을 알린다. 머슴과 일꾼들은 환성을 지르며 헹가레 친 다음에 얼굴에 환칠을 하고 도롱이를 입힌 다음 버드나무 관을 씌우고 소를 태운다.

다음으로 마을을 순례하는데, 농악을 치면서 소를 탄 상머슴을 앞세우고 호별방문을 한다. 집 대문 앞에서 상머슴을 팔고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음식대접을 받는다. 또한 돌아다니다 우물이나 샘 옆을 지날때는 우물굿인 용왕풀이를 한다. 이 때 마당 가운데에서는 젊은 아낙네들이 노래를 부르며 또아리 돌리기 등으로 흥을 돋운다.

마지막으로 혼례마당이 펼쳐진다. 동네 어른들은 다시 상머슴을 장가들일 의논을 하고 신부감이 결정되면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하여 상머슴의 혼인을 알린다. 환성이 터지고 풍장이 울리고 모여든 사람들이 상머슴을 다시 소에 태우고 여자들은 신부를 가마에 태운다. 농악대가 앞장서서 신랑, 신부를 태운 소와 가마가 동네 넓은 마당을 돌고 사람들이 흥겹게 뒤따른다.

달구노래

민요

유래

예로부터 전해오는 여러가지 민속의례 중에서도 장례의식은 인생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통과의례다.

발인, 운구, 하관, 봉분 등의 과정을 통해 장례의식 때 불려진 노래를 지방에 따라 '회다지소리', '상두꾼소리'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는데 제주도에서도 장례의식의 각 과정에서 불려진 노래가 몇 곡 전한다.

장례의식을 행할 때 부르는 노래를 통칭하여 만가라고 하며, 제주도의 만가에는 행상달구노래가 있다. 행상노래는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달구노래는 봉분할 때에 부르는 노래인데 전승되는 과정에서 달구노래는 통과의례식요의 성격과 '땅다지는 노래'까지 포함하는 잡역노동요로 변하여 오늘날 재연되고 있다.

특색

제주도의 달구노래는 육지본토의 다른 지방 만가와 비슷한 내용으로, 백두산부터 시작하여 전국 유명한 산을 열거하면서 그 정기를 한곳으로 모은 묘지나 집터가 명당자리임을 강조한다. 또한 집터나 묘지의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내려주도록 토지지신을 비롯한 모든 신령께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노동의 피로를 덜고 작업의 능률을 올리며 흥을 돋우는 노래로 인식되고 있다.

구성

제주도의 만가는 장례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행상노래

행상노래는 장사 치르는 당일 운구하면서 부르는 노래.

2) 달구노래

매장 후 봉분한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노래.

3) 진토굿노래(솔기소리)

내용

달구노래는 풍수지리사상에 입각해 명당을 칭송하는 내용의 4.5조의 노래로 수십명의 역군들에 의해서 불리운다. 노래가사는 다음과 같다.

어허랑 달구 어허랑 달구
(후렴 : 어허랑 달구)
삼세번 소리에 들고 놀자 (후렴)
시공아의 소리끝 보멍 (후렴)
좌골를리 좌골르고 (후렴)
우골를리 우골라줍서 (후렴)
일거일등 지어를 보자 (후렴)
어허랑 달구 어허랑 달구 (후렴)
사공아이 본데 잔절 (후렴)
접군님네 힘을 빌어 (후렴)
요집터를 달와보자 (후렴)
산지조정은 곤륜산이요 (후렴)
곤륜산 줄기가 떨어져 (후렴)
백두산이 생기었고 (후렴)
백두산 줄기가 떨어져 (후렴)
금강산이 생겨있고 (후렴)
제주와서 한라산 (후렴)
한라산 출기가 떨어지어 (후렴)
요자리가 생겼구나 (후렴)
내경판을 패와놓고 (후렴)
좌우를 살펴보니 (후렴)

16

제1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5. 9. 13 ▶ 9. 15
서울

제1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5. 9. 13-9. 15.
서울

대통령상
영동설계리농요및 단양동요(충북)-민요
국무총리상
해남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봉기타령(충남)-민요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김제벽골제쌍용놀이(전북)-민속놀이
광주농악(전남)-농악
충무승전무(경남)-민속무용
장려상
애원성(함북)-민요
영동해랑제(강원)-민속놀이
안동웅굴놋다리(경북)-민속놀이
비바리(제주)-민속무용
강령탈춤(황해)-민속극
양주별산대놀이(경기)-민속극
미수상 참가작
서도입창(평남)-민요
한가위놀이(충남)-민속놀이
어린이농악(충북)-농악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수영야유(부산)-민속극
동래지신밟기(부산)-민속놀이
답교놀이(서울)-민속놀이
항두계놀이(평남)-민속놀이
공로상
영변가놀량(평북)
답교놀이(서울)
항두계놀이(평남)
개인상
서정숙(영동설계리농요및 단양동요, 충북)
김석출(동래지신밟기, 부산)
김귀수(수영야유, 부산)
이금옥(영동해랑제, 강원)
박양애(해남강강술래, 전남)

영동설계리농요와 단양매바위골동요

민요

유래

1) 설계리농요

충북 영동군 설계리농요는 벼농사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이다.

영동지방은 충북 남단에 위치하여 경상, 전라의 문화적 특성을 함께 지닌다.

2) 매바위골동요

충북 단양군 용부원리는 소백산 죽령 밑에 지리잡았고, 매바위골이란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죽령을 경계로 경북 영풍과 근접하나 산세가 험해 거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특색

1) 설계리농요

사설체로 된 이 농요는 지금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계면조의 오음계가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2) 매바위골동요

'찐드기타령'에서 찐드기란 소불알 밑에 기생하는 벌레인데, 이 고장에서 소를 특히 많이 기르기 때문에 그 생활에서 비롯한 재미있는 동요가 아닌가 추측된다.

구성

1) 설계리농요
- ①모찌기노래
- ②모심기노래
- ③논매기노래(아시매기)
- ④논매기노래(이듬매기)

2) 매바위골동요
- ① 찐드기타령
- ② 실구대노래

내용

①모찌기 노래

들어내서 들어를 내세
전등같은 팔단지로 뭉정뭉정 들어내세
나무가락 세가락에 날낸 가락 들어내세
뭉정뭉정 들어나 내세
쌈을 싸세 쌈을 싸세 요모저모 구겨나 싸세
곰달잎만 쌈일런가 상추잎도 쌈일러다
무주용담 공달잎새 요모저모 우겨나

싸세
(후략)
②모심기노래
담송담송 닷 마지기 반달만큼 짓다랐네
네가 무슨 반달인가 그믐달도 반달이네
그믐달만 반달인가 우리 임도 반달이지
너의 임만 반달인가 우리 임도 반달이네
달도 밝고 명랑한데 임의 생각 절로 나네
장잎이 훌훌 영화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구나
한 마지기 두드리면 일천석이 쏟아지네
일천석만 석일런가 이천석도 석이로다
앞노죽을 지어다 놓고 뒷노죽도 지어다 놨네
앞노죽을 둘러나 보니 금비둘기 집을 짓네
금비둘기 쌍을 지어 알품달품 날아드네.
만져보고 쥐어보고 못가본 게 한이로다.
(후략)
③논매기노래(아시매기)
이러구 저러구 하네 에헤야 산이가 저러하네
앞 베를랑 파올리고 뒷 베를랑 이러나 주세
이삼십이 넘어서면 기운없어 못 파겠네
앞나걸랑 그만 개구망둑 두지말고 제 구녕백이로 파올려라
이 논배미 얼른 매고 장수배미로 올라나 서자
우리가 언제나 이걸 하면 농군의 보배는 농사로다
(후략)
④논매기노래(이듬매기)
이러구 저러구 한다 어러구 저러구 한다
어허 농사 일꾼들아 어허 농사 장하도다
베루잽이는 앞을 서고 이쪽 저쪽 후려쥐자
이 논배미 심은 모를 돌고 돌고 돌고 보니
우리 농군들 잘도한다.
(후략)
2) 매바위골동요
①찐드기타령
찐득아 찐득아 입술타령 뭘 먹고 살았니
오뉴월 염천에 쇠불알 밑에
데롱데롱 달렸다가 뚝 떨어지니
질로 가는 행인이 질겅 밟어
시커먼 피가 찔끔 났네
찐득아 찐득아 입술타령 어디에 숨었니
오뉴월 염천에 개불알 밑에 데롱데롱 오뉴월 염천에 쇠불알 밑에 데롱데롱 오뉴월 염천에 쇠불알 밑에 데롱데롱
②실구대노래
꼬꼬대 꼬끄대 꼬끄대 틀이 늦어가네
저리세 저리세 갈보야 빗첩 저리세
실구대 실구대 실구대 틀이 늘어가네
저리세 저리세 갈보야 빗첩 저리세
꼬끄대 꼬끄대 꼬끄대 틀이 늦어가네
저리세 저리세 유리야 장판 저리세
실구대 실구대 틀이 늦어가네
저리세 저리세 유리야 장판 저리세

벽골제쌍룡놀이

민속놀이

유래

벽골제쌍룡놀이는 전북 김제군 부량면 벽골제에 전해오는 민속놀이로 그 유래 설화는 다음과 같다.

신라 원성왕 시대에 축조된 지 오래되어 결궤 직전에 놓여 있는 벽골제 보수공사를 위해 국내 으뜸의 기술자 원덕랑이 현지(김제)로 급파된다. 김제 태수에게는 단야라는 딸이 있었는데 오랜 공사기간 동안 원덕랑과 단야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원덕랑에게는 고향에 월내라는 약혼녀가 있어 단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 무렵 공사장에 사고가 많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고 아우성이었다. 이때 고향의 월내가 원덕랑을 찾아 김제로 온다. 김제 태수는 월내를 희생물로 바쳐서 원덕랑을 사위로 삼고 공사장의 사고도 없애려는 계략을 꾸민다. 이를 눈치 챈 마음씨 고운 단야가 스스로 용추의 희생물로 나선다.

신털미산 불단에 용추가 있고 여기에는 백룡이 점거하여 벽골제를 수호했다고 하며 또 하나는 용골 마을 남쪽의 연천포에 용추가 있는데 여기에는 청룡이 살면

김제벽골제쌍용놀이 (전북)



서 아주 심술 사나운 짓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이 두 곳을 일러 쌍룡추라 하고 백룡과 청룡을 쌍룡이라고 부르고 있다. 백룡은 인명을 수호하고 온순했으나 청룡은 비바람을 몰아오고 인명의 피해를 가져옴으로 두 용이 서로 싸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래에 위 원덕랑의 설화가 보태어져 전해내려 오고 있는 놀이가 벽골제쌍룡놀이이다.

특색

벽골제쌍룡놀이는 전설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며 논농사 시대에 접어든 초기에 발생한 향토신사로 생각된다. 수리관개는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의 한 가운데 있는 벽골제는 특히 중요하였다. 쌀을 많이 생산해야만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국가의 기틀이 튼튼해지므로 벽골제의 중요도는 매우 높았다.

이렇듯 중요한 위치에 있던 벽골제를 둘러싸고 있었던 고사가 민속놀이로까지 발전된 것을 뜻하고 있다.

제방공사와 용의 이야기가 후대에 와서 인간들의 애정갈등과 함께 얽혀지면서 놀이화한 것이다.

구성

(1) 축제공사
(2) 쌍룡출현
(3) 단야의 희생
(4) 단야 소원무

내용

(1) 축제공사

청룡의 심술로 벽골제가 무너져 내린다. 국가에서 원술랑을 파견하여 김제 태수와 함께 인부를 동원하여 보수공사를 하게 한다. 이때 부르는 말박기노래는 다음과 같다.

메김 : 어야라 동동 상사도야/받음 : (후렴) 얼럴럴 상사도야/삼백근 몽기가 상하를 물고/삼발대 밑에서 벌나듯 한다/열두자 말을 박을라면/우리네 인부들 욕들 보겠네/떳다떳다 감독이 떳다/번득 들었다 번득 놓세/힘만 세도 소용없고/소리만 해는지고/월출동령 달 떠온다/먼데 사람 듣기 좋고/옆에 사람 보기 좋게/감독 나리는 약주집 가고/우리는 탁주로 목 풀어 보세/아나 농부야 말들어라/새파랑이 꼭지에 개화를 꽂고/메우라기 춤이나 추어 보세.

(2) 쌍룡출현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 먹구름이 일고 천둥과 번갯불이 일어나 비바람이 몰아 닥친다. 이때 난데없이 꼴사나운 청룡이 공사장에 나타난다. 인부들은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 그렇다며 원성을 터뜨리며 도망간다. 백룡이 다가와 청룡을 몇번 달래보나 포악한 청룡은 끝끝내 둑을 무너뜨리려 한다. 결국 백룡과 청룡이 싸움을 하게 되고 끝내 백룡이 패하고 만다.

(3) 단야의 희생

승리한 청룡은 거의 다 되어가는 둑을 무너뜨린다. 이때 이속이 앞장서서 교자상에 보쌈한 여인 월래를 내려놓고 포대를 벗긴다. 포대가 벗겨지는 순간 월내 낭자가 아니라 태수의 딸 단야가 나타나자 모두 도망친다. 이때 단야의 창이 나온다. 창이 끝날 무렵 단야는 먼저 비통하게 부모님께 고별인사를 올리고 원덕랑과 월내의 행복을 축원한다. 이어 스스로 제물이 되고자 청룡 앞으로 다가가 쓰러진다. 이러한 단야의 태도에 감화된 청룡은 머리를 끄덕이며 뒤로 사라진다.

(4) 단야소원무

단야가 기절한 뒤 태수가 달려온다. 다행히 단야가 죽지 않고 기절해 있음을 안 태수는 딸을 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 의식이 든 단야는 아버지 품속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이때 인근에 있던 백성들이 모두 모여들어 단야의 의로운 치성에 감격해 한다.

잠시 후 고을은 경사를 맞이한 듯 백성들이 농악을 울리며 농부가를 부르고 군무로 막을 내린다.

영동해랑제

민속놀이

유래

영동해랑제는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전승되는 굿놀이로 그 전승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강릉 남쪽의 어촌 안인진에 해랑이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가난하게 사는 해랑은 씩씩한 도사공에게 시집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 마을에는 그의 마음에 드는 사공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풍랑에 떠밀려 낯선 배 한척이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다. 해랑은 그 배의 도사공의 늠름한 모습에 이끌려 그와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다. 약혼한 다음 날 젊은 도사공은 다시 돌아와 혼사를 치르기로 약속하고 그곳을 떠난 후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해랑은 매일 바닷가 언덕에 올라 사공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힘센 자신의 약혼자만은 어떤 풍랑과도 싸워 살아서 돌아오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다 못해 결국 바다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해랑이 죽은 후부터 마을 앞바다에는 고기떼가 몰리지 않았고 흉어와 더불어 조난사고까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이 해랑의 원혼때문이라고 여겨 해랑이 몸을 던졌던 언덕 위에 사당을 짓고 해랑의 원혼을 위로하게 되었다.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날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성드려 깍아 만든 남근에다 황토를 먹여 제물로 바치고 풍어를 빌었다. 지금도 이 관습은 동해안 여러 곳에서 전해져 오고 있다.

특색

나무로 깎아 만든 남근으로 치성을 드리는 영동해랑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성기숭배사상의 유속이 남아 있는 신사이다.

구성 및 내용

(1) 첫째마당

흉어 때문에 시름에 젖은 어부들은 무당을 불러 해랑사에서 굿을 벌이고 옛부터 해오던 것처럼 나무로 깎아 만든 남근을 바치며 치성을 드린다.

신명난 굿에서 힘을 얻은 어부들은 배를 띄워 바다에 나간다.

(2) 둘째마당

모래벌에 올려놓은 배를 내려 바다에 나간 어부들은 고기가 가득 걸린 그물을 보고 흥겨웁게 노래부르며 끌어올린후 힘차게 노를 저어 포구로 다시 돌아온다.

이 마당에서는 이 고장의 그물 끌어올리는 노래와 노젓는 노래가 불리워진다.

안동웅굴놋다리

민속놀이

경북 안동에는 오랜 전통을 지닌 부녀자들의 놀이인 '놋다리 밟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안동 성안에서 노는 놋다리를 '줄놋다리'라 하고 성밖의 놋다리는 '웅굴놋다리'라고 일컫는다.

동부, 서부로 두패를 이룬 부녀자들이 음력정월 대보름날 밤에 각기 동부의 초당집과 서부의 잿집에 모여 놀이를 벌인다.

노래소리에 맞추어 둥둥데미, 실감기놀이를 한다음 '웅굴 놋다리'를 지어 한동안 놀다가 '줄놋다리'의 행렬로 시가지 큰길을 한 바퀴 돈다.

서문 뚝다리에서 동, 서부의 놋다리패가 만나게되면 꼬게싸움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두패가 한데 합쳐서 행렬을 이루기도 한다.

안동 웅굴 놋다리는 우리나라에 몇 안되는 여성들의 집단 민속놀이인 것이다.

비바리

민속놀이

제주도에는 예로부터 세가지 생활악기 '물허벅' '태왁' '전복껍질'이 있어 왔다. 집을 지을때 흙질을 하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다. 이 물은 동네 비바리들이 줄을 지어 물허벅으로 나르게된다. 사람이 많이 모여 흥이 나면 절로 노래와 춤이 있게 마련이고 흥을 돋우어 주는 장단을 비바리들이 등에 짊어진 빈 물허벅을 두드리며 맞춘다. 이 물허벅은 장고나 북등의 악기가 없는 마을에서는 손쉽고 흥겨운 악기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해녀들이 하루의 작업을 끝내고 수확물을 앞에놓고 노을이 깔린 해변가에 둘러서서 '태왁'을 두드리며 덩실덩실 춤추는 광경은 제주도 외에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경이 아닐 수 없다. 흥이 고조되면 '전복껍질' 또한 훌륭한 악기로 사용되어 비바리들의 정서를 훌륭하게 표현해 내는 것이다.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게로 시집가고 바다에서 삶을 마치는 이들 비바리들에 얽힌 갖가지 사연들은 때로는 파도와 같은 격정의 몸짓으로, 때로는 한숨섞인 휘파람으로, 그리고 애절한 노래와 구성진 춤으로 그네들의 삶의 내용을 그대로 엮어 나가고 있다.

한가위놀이

민속놀이

유래

한가위에 대한 유래는 다음과 같다. 당나라 문종(827~840) 때 일본 승려 원인(圓仁)이 쓴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보면 '산동지방에 머무르고 있는 신라인들은 8월 15일에 독특한 명절놀이를 하였다. 그곳 노승에 따르면 이날이 신라가 발해와 싸워 크게 이긴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명절로 삼아 백성들이 갖은 음식과 가무로써 즐겁게 놀았다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삼국사기에는 '신라 유리왕 9년에 국내 6부의 부녀자들을 두 편으로 갈라 두 왕녀가 각 편을 인솔·지휘하여 7월 기망(16일) 부터 8월 보름까지 길쌈내기를 하였다. 그후 우열을 가려 승부를 결정하고 진편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 이긴 편을 대접하게 되었다. 이날 달 밝은 밤에는 밤이 지새도록 노래와 춤

을 추며 흥겹게 놀았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것으로 보아 한가윗날은 우리 겨레의 전통적인 명절로 술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노래와 춤과 갖가지 놀이로 하루를 흥겹게 보냈음을 알 수 있다.

특색

한가위놀이는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독특한 놀이가 있는데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거북과 소가 등장한다. 또한 군사놀이, 꼬리따기 등으로 이어지는 독특하고 다양한 놀이가 장중하면서도 경쾌한 충남농악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구성

(1) 거북놀이
(2) 소놀이
(3) 군사놀이
(4) 꼬리따기

내용

(1) 거북놀이

한가위 밤에 청소년들이 거북을 만들어 한 사람이 거북을 몰고 다닌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다가 거북이가 쓰러진다. 그러면 거북몰이 하는 이가 '이 거북이는 안면도 앞바다에서 왔는데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시오'라고 음식을 청한다. 주인은 곧 푸짐한 상을 보아 내온다.

먹이를 받은 거북은 좋아서 마을 사람들과 뛰며 놀다가 다른 집으로 이동한다.

(2) 소놀이

한 사람이 소의 고삐를 잡고, 다른 사람은 소 앞에서 신명나게 농부가·풍년가·논매기 노래를 부른다. 이때 마을 상머슴은 소 등에 타고 신명나게 춤을 춘다.

소고삐를 잡은 사람이 '이 소가 여름내내 논밭을 가느라고 고생이 많았으니 잘 먹이시오'라고 하면 아낙네가 구정 물과 여물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농악과 함께 춤을 추고 논다.

(3) 군사놀이

소놀이를 한바탕 놀다가 농악이 그치면서 소년들이 군사놀이를 시작한다.

남자아이들이 두 줄로 5보 정도 거리를 두고 마주선다. 이때 옆사람과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른다. 노래에 맞추어 한 열이 6보 정도 나아가면 다른 열은 말없이 6보 정도 후퇴했다가 상대 열의 노래가 끝남과 동시에 답가를 부른다. 답가를 부르면서 6보 정도 전진하면 상대 열은 후퇴한다.

놀이에 쓰이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어디 군사냐 전라도 군사다
몇천 명 왔니 삼천 명 왔다
무슨 갓 썼니 통영갓 썼다
무슨 칼 찼니 장두칼 찼다
무슨 신 신었니 가죽신 신었다
무슨 옷 입었니 갑옷을 입었다
뭐하러 왔니 싸우러 왔다
무슨 문 열었니 동대문 열었다,

노래가 그치면서 함성과 함께 대열이 흩어져 싸우는 시늉을 하다가 상대 편을 잡아당겨 자기 편으로 끌어간다.

그러면 농악소리와 함께 놀이가 끝나고 꼬리따기 대열로 밖워 정돈한다.

(4) 꼬리따기 놀이

맨앞에 장수가 서고 키 큰 순서로 서되, 앞 사람의 허리띠를 두 손으로 잡는다. 맨뒤에는 가장 나이어린 사람이 선다.

두 줄로 열을 지으면 앞의 장수끼리 서로 길을 막고 대치하다가 상대 편의 꼬리를 잡으려고 덤빈다.

따라서 장수는 상대 장수의 길을 막거나 재빨리 상대방의 꼬리를 잡을 수 있도록 꾀를 쓴다. 이때 꼬리를 잡히거나 허리띠를 놓치는 쪽이 진다.

일단 승부가 나면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함께 춤추고 놀면서 흥겹게 화합의 마당을 연출한다.

놀이기구

거북노리를 할 때 쓰이는 거북은 천으로 제작하여 속에 사람이 들어가 놀게 된다.

17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6. 10. 22 ▶ 10. 24
진주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6. 10. 22-10. 24.
진주

대통령상
해남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국무총리상
멸치후리는노래(제주)-민요
문공부장관상
산유화가(충남)-민요
봉산탈춤(황해)-민속극
익산금마기세배(전북)-민속놀이
삼천포농악(경남)-농악
진주검무(경남)-민속무용
장려상
선소리산타령(서울)-민요
서도잡가(평남)-민요
경기농악(경기)-농악
미수상 참가작
고무산타령(함북)-민요
배따리기(평북)-민요
임실삼계농요(전북)-민요
도당굿놀이(서울)-민속놀이
항두계놀이(평남)-민속놀이
동래지신밟기(부산)-민속놀이
광주농악(전남)-농악
수영야유(부산)-민속극
강령탈춤(황해)-민속극
동래학춤(부산)-민속무용
안동저전동달개놀이(경북)-민속놀이
북청사자놀이(함남)-민속극
괴산농악(충북)-농악
강릉단오굿(강원)-민속놀이
공로상
안동저전동달개놀이(경북)
강릉단오굿(강원)
개인상
조차기(안동저전동달개놀이, 경북)
이종안(농악, 충북)
전호준(북청사자놀음, 함남)

해남강강술래

민속놀이

유래

강강술래는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와 도서지방에 널리 분포·전승되어온 집단 놀이로서 주로 8월 한가위에 세시풍속의 하나로 놀았왔으나 지방에 따라서는 정월 대보름날에도 행하여진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이 놀이의 연원에 대해서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결부된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고대 농경시대의 파종 및 수확때의 공동축제에서 노래부르며 춤을 추던 놀이형태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점차 오늘의 강강술래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 놀이를 의병술로 이용하여 왜적을 물리친 후 더욱 세상에 알려져 당시의 격전지였던 전남 남해안 일대에서 더욱 성행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특색

강강술래는 우리나라 민속놀이 중 여성놀이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정서가 넘친 율동적인 놀이로서 한가위 밝은 달 아래 펼쳐지는 큰애기들의 한 바탕 원무는 약동하는 생명력의 표상이다.

구성

강강술래에는 여러가지 놀이가 있으나 대략 다음의 14가지 놀이로 구성된다.

(1) 늦은강강술래 (2) 중강강술래
(3) 잦은강강술래 (4) 남생아 놀아라
(5) 고사리 꺾자 (6) 청어엮자

해남강강술래 (전남)



(7) 청어풀기　　(8) 지와밟기
(9) 덕석몰이　　(10) 덕석풀기
(11) 쥔쥐새끼놀이 (12) 문열어라
(13) 가마등　　(14) 도굿대당기기

이 외에도 수건찾기, 품고동, 봉사놀이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새롭게 꾸밀 수도 있다.

내용

(1) 늦은 강강술래

한가위 둥근달이 동천에 떠오르면 백사장이나 넓은 뜰에 여인들이 모여, 목청좋은 사람(설소리꾼)이 느릿한 진양조로 메김소리를 하면 다른 아낙네들은 '강강술래'하고 뒷소리를 받으며 손에 손을 잡고 사뿐히 발길을 옮겨 원무를 춘다. 강강술래 놀이중에 가장 아름답고 여성스런 멋이 있다.

(2) 중강강술래

늦은강강술래를 한참 하다가 설소리꾼이 흥겨운 중중모리 가락으로 메기면 모두 이에 맞추어 동작이 조금 빨라지고 어깨놀림이 가볍게 시작된다. 놀이형태는 늦은강강술래와 같으나 가락이 빨라지므로 손발이 유연해지고 원이 넓어진다.

(3) 잦은강강술래

중강강술래를 하다가 설소리꾼이 자진모리가락으로 메기면 이에 맞추어 양팔을 쭉 뻗치고 뛰며 돈다. 원무형태는 앞서와 같으나 원이 커지고 발놀림이 빨라져 흥이 절정에 오른다.

(4) 남생아 놀아라

잦은강강술래를 하다가 지치면 설소리꾼이 중중모리가락의 '남생아 놀아라'를 부른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되받으며 발길을 늦추고 놀이꾼 중에 재주있는 이들이 나가 갖가지 춤을 추는데 주로 곱사춤과 궁둥이 춤을 춘다. 다른 놀이꾼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원무를 계속한다.

(5) 고사리 꺾자

다시 설소리꾼이 '고사리 대사리 껑짜'를 부르면 다른 놀이꾼들은 '유자콩콩 재미나 넘자'로 받아부르면서 원무형태 그대로 앉아 어깨만 들썩인다. 그러다 선두가 일어서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왼쪽으로 돌아 다음 사람과 맞잡을 팔위를 넘으며 다음 사람도 일어나 선두를 떠다 전원을 꺾어간다.

(6) 청어 엮자

고사리 꺾자가 끝나면 다시 원이 되는데 설소리꾼이 '청청 청어 영자 위도 군산 청어영자'를 부르면 다른 놀이꾼들은 이 소리를 되받으며 멈춰 선채 어깨만 들썩인다. 그러면 선두가 둘째 사람과 셋째 사람의 맞잡은 팔 밑으로 꿰어가서 고사리 꺾자와 같이 차례차례 꿰어가는데 이때 오른손은 왼쪽어깨 위에 감기게 되어 마치 청어를 엮을 모습과 흡사하게 된다.

(7) 청어풀기

청어 엮자가 끝나면 선두가 엮을 때와 반대 방향으로 꿰어간다. 그러면 어깨가 풀려 원대형으로 돌아간다.

(8) 지와밟기

청어풀기가 끝나면 원상태로 빙빙 돌다가 설소리꾼이 '어디 골 지완가'하고 부르면 다른 놀이꾼들은 '장자골 지와세'를 부르며 일렬로 늘어선다. 그러면 설소리꾼이 '보잛 보잛 지와를 보잛'를 선창한다. 그러면 일제히 허리를 굽혀 뒷사람이 앞사람이 어깨를 밟고 건너가는데 양쪽에서 두사람이 손을 잡아준다. 놀이꾼들을 다 밟고 건너가면 그 사람은 제일 앞에 엎드리고 뒤에서부터 차례로 한번씩 밟아온다.

(9) 덕석몰이

지와밟기가 끝나고 설소리꾼이 중중모리 가락으로 '몰자 몰자 덕석을 몰자'를 선창하면 모두 이를 따라 부르며 일에선다. 선두는 왼쪽으로 원을 그리며 돌면서 잡고 다른 놀이꾼들은 차례로 멍석을 말듯 돌돌 말아간다.

(10) 덕석풀기

덕석이 다 말아지면 설소리꾼이 '풀자 풀자 덕석을 풀자'를 선창한다. 그러면 모두 이를 되받으며 말 때와는 반대로 외곽사람이 풀면서 풀어나간다.

(11) 쥔쥐새끼놀이

덕석을 풀고 설소리꾼이 '쥔쥐새끼 찔룩찔룩 가사리 고부야'를 노래하면 놀이꾼들은 이를 되받으며 일렬로 정열한다. 이어 설소리꾼이 '쥔쥐새끼 잡세'를 소리치면 일제히 앞사람의 허리를 잡는다. 선두는 재빨리 되돌아 맨 끝의 사람을 잡으려 쫓는다. 힘들여 끝사람을 잡으면 잡힌 사람을 맨 앞에 세우고 잡는데 공헌한 선두를 목마태워 노래하며 행진한다.

(12) 문열어라

쥔쥐새끼놀이가 끝나고 허리를 잡은채 일열이 되면 설소리꾼이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 주소'를 선창한다. 그러면 맨 앞 사람 둘이 마주보며 손을 들어 맞잡는다. 이 문을 놀이꾼들이 허리를 잡은채 노래하며 꿰어간다. 그러나 진도지방에서는 놀이꾼들이 꿰어갈 대 문지기가 갑자기 손을 내려 방해한다. 그러면 놀이꾼들은 앞사람의 허리를 굳게 잡은채 선두의 끌림에 따라간다. 만약 놀이의 대형이 끊어지면 그 끊어진 사람이 문지기가 되는 것이다.

(13) 가마등

두사람이 마주 서서 서로 손목을 잡아 정자형을 만

들면 이 위에 한 사람이 타고 앉아 마당을 돌아다닌다. 편을 갈라 일정한 거리까지 갔다오는 경주를 벌이기도 한다.

(14) 도굿대당기기

놀이꾼을 두 편으로 갈라, 중앙에 도굿대(절구공이)를 옆으로 놓고 양편에서 힘센 사람이 나와 양 끝을 잡는다. 양편의 놀이꾼들은 절구공이를 중심으로 종대열로 늘어서서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맨 앞사람은 절구공이에 발을 버티고 양손을 맞잡는다. 서로 손이 잡히면 끌어당기기 시작하는데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다.

멸치후리는 노래

민요

유래

멸치후리는 노래를 제주도에서는 '멜후림소리'라 하는데 '멜'은 멸치의 제주 방언이다. 이 민요는 백사장이 질펀히 있고 방진그물 또는 장막후림이란 어로 방법이 이루어지던 해안지방에서만 전승되었다. 방짓그물 또는 장막후림이란 떼배 몇 척을 동원하여 큰 규모의 그물로 멸치를 후리는 집단 어로의 한 방법이다. 이 어로행위는 주로 밤에 이루어지고 새벽녘에 멸치후리기가 매듭지어진다. 어로방법의 발달로 자취를 감추어 버린 방진그물(장막후림)은 해안에서 수백m 거리의 바다에 나가서 후리기 시작해서 바닷가 모래밭으로 그물을 건져 올린다. 늦봄에서 여름까지 이뤄지는 멸치후리기 작업은 진행되는데 이때 작업의 노고를 달래고 풍어를 기원하며 집단적으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멸치후리는 노래인 것이다.

특히 북제주군 구좌읍 동금령리 마을에서 전형적으로 불리워진다.

특색

제주도의 다른 어업노동요가 생활정서 전반을 노래하는 것에 비해 이 민요는 주로 작업실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오늘날 북제주군 김녕리 등지에서 전승되는 그물당기기 노래와는 유래에서나 내용면에서 거의 같고 실제로도 구분없이 한가지로 불려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성

멸치후리는노래는 멸치 그물을 잡아당기면서 불렀던 노래이고, 멸치후리기 작업의 다른 과정에서 서우젯소리 또는 터우젓는소리 등이 함께 불리었다.

(1) 출어

이 작업에는 터우(떼)와 낚시거루가 동원된다. 출어준비를 마치면 터우와 낚시거루가 원을 그리며 작업에 들어간다.

(2) 서우젯소리

출어준비를 마치고 해안에서 대략 1킬로미터 부근의 바다로 터우를 저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3) 멸치 후리는 노래

그물에 걸린 멸치를 후리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

(4) 서우젯소리

어획물을 테우에 싣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서우젯소리는 지역에 따라 가사가 다른다.

내용

어허어야 뒤에야
(후렴 : 어허어야 뒤에야)
당선에서 멜밭을 보고 (후렴)
당선에서 후림을 늘어 (후렴)
서깻코는 서엿콧으로 (후렴)
닷배에서 진을재왕 (후렴)
어기여뒤여 방에로다 (후렴)
이분들아 웃테레들르라 (후렴)
산벌로 멜 나가듯 (후렴)
사젓골 수젓골 궤기 (후렴)
용갱이와당으로 다 담아노난 (후렴)
후진이란 뒤궤기놓고 (후렴)
망건초목 뒤였구나 (후렴)
닷배망선에 당건에 (후렴)
기를도나 꼽으라 (후렴)
풍년왔네 풍년이 왓저 (후렴)
용갱이와당 돈풍년 왔저 (후렴)
어겨뒤여 방에로다 (후렴)
그물코이 삼천코라도 (후렴)
머릿배가 주장이여 (후렴)
낮이는 농소를 지고 (후렴)
밤이는 멜후림 놓앙 (후렴)
요 고기를 잡아놓고 (후렴)
잘사는 모을 잘사는 동네 (후렴)
혼번두나 잘살아보세 (후렴)
남조여조 골리지 말앙 (후렴)
어기여뒤여 멜흘자리 잡으라 (후렴)
고리도나 아사노며 (후렴)
삼백고리 늘엇져 (후렴)
어기여뒤여 방에로다 (후렴)
눌이커도 주지가 으뜸 (후렴)
베릿배가 주장이여 (후렴)

이분들아 들어랑 (후렴)
어기야뒤여 잘허여 도라 (후렴)
놈도자는 야밤중에 (후렴)
덜커리켄 호난 저 아들놈은 졸암구나 (후렴)

놀이기구

악기, 떼(테우), 노, 그물, 차롱, 고리, 펫구럭, 리어카 등.

산유화가

민요

산유화가는 4·4조가 기본 율조를 이루고 있는 선후창으로서 모를 심고 논을 매며 벼바슴(벼타작)을 하고 벼를 쌓는 과정을 차례로 노래한 농사 민요다.

주민들의 구전이나 여러 문헌에 백제 시대의 민요라 지목되어 오고 있는 이 산유화가는 농사가 천하지 대본임을 강조하면서 그 농사로써 부모처자를 봉양할 것과 구국 충성을 다할 것을 노래한 충과 효가 깃든 노래다.

그러면서 이 노래속에는 구룡포, 취영봉, 사비강 등 많은 향토의 고유명사가 삽입되어 듣는 이로 하여금 농사 흥을 돋게 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짙은 향수에 젖게 해주는 노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산유화가가 '뫼놀꽃'이란 이름으로 창원을 중심한 영남의 일부지역에서도 가창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이재욱씨는 〈산유화(山有花)→산유화(山遊花)→뫼놀꽃→미나리꽃→미나리〉라 설명한 바 있다. 〈신흥 1932년 6월호〉

이처럼 산유화가 곧 뫼놀꽃이란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밝혀줌으로써 부여지방의 산유화와 영남 일부지역의 뫼놀꽃 노래가 같은 계통의 노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찌하여 동일한 노래가 이처럼 양지역에서 불리워지게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우리는 백제와 신라의 역사적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신라는 백제를 정벌하고 백제로부터 많은 유민을 이끌어다 그들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려 하였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에서 신라에 끌려간 백제의 유민들은 그들이 고국에서 부르던 노래를 함께 부르며 회포를 달래게 되었고 그러한 노래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슬픈 역사를 간직한 훌륭한 노래가 지금까지 겨우 그 곡명만이 여기저기 전해져 왔을 뿐 그 완벽한 내용이 숨겨져 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전 충남 도민은 하루속히 이 산유화가의 완전한 곡과 가사를 찾아 이를 재현해 보고자 노력해 오던 중 이번에 부여군 세도면 장살리에 전해오는 산유화가를 발굴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새로 발굴한 산유화가는 100여년 전에 작고한 임윤필씨로부터 김학수씨(고인)가 전수하였던 것을 홍종관씨(78세)가 전수하였고 다시 홍종관씨로부터 전수한 박홍남씨(57세)가 홍종관씨와 함께 부른 것이다.

특히 박홍남씨에게 이 노래를 전수한 홍종관씨는 15세때 부터 그 이전의 전수자인 김학수씨에게서 이 노래를 배워 17세때 부터는 농사철만 되면 장고를 둘러메고 고인과 같이 불려 다니며 노래를 불러 왔던 분이다.

그리하여 특히 이번 제17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는 이 노래의 단 두 분밖에 없는 전수자인 홍종관씨와 박홍남씨를 중심으로 현지(부여군 세도면 장삼리) 주민 30여명을 동원하여 1,300여년 전의 산유화가를 재현시켜 이 노래의 역사성과 우리민요의 우수성 그리고 백제인의 예술성을 재평가 받고자 한다.

〈긴 산유화 농부가〉

1. 산유화야 산유화야 궁아평 널룬들을
   논도많고 밭도많다 씨뿌리고 모옮겨서
   에헤에 아아—에헤 에에헤 에에에
   충실헌니 가꾸어서 성실하게 맺어보세—
   에 어어어 어에루 상 사 아 뒤 유
2. 산유화야 산유화야 오초동남 가는배는 〈후렴〉
   순풍에 돛을달고 북을 둥둥 울리면서

산유화가 (충남)



어기야 저어간니 원포귀법이 아니야—아
3. 산유화야 산유화야 이런말이 웬말이냐 〈후렴〉
용머리를 생각하며 구룡포에 버렸으니
슬프구나 어화벗님 구국충성 못다하네—에
4. 한종실 유황숙이 조맹덕 잡으랴고 〈후렴〉
화룡도에 진을칠때 동에 청용기 서에 백호기
남주자 북혀누 중 왕 대장기를
벌려 세월네—에
5. 산유화야 산유화야 이포으 남당산은 〈후렴〉
엊이그리 유정튼고 매년 팔월 십육일은
왼안악네 다모인다 무슨모이가 있다든가—아
6. 탑상을 탐고 두다리며 천무월풍 고은시절 〈후렴〉
해불인파 태평인데 용왕이 병이 들어
남해궁에 누웠으니 누구라서 살어리요—오
7. 산유화야 산유화야 사비강 맑은 물에 〈후렴〉
고기말은 어웅덜라 왼각고기 다잡에도
경칠랑은 락지다고 강산풍경 좋을시구—우
8. 산유화야 산유화야 한줌 두줌 심은 모는 〈후렴〉
왼각정성 다드리고 한밭 두밭 옮긴 발길
천리마를 비할소냐 용천마도 못당하네—에
9. 백운청산 노든토끼 동해유수 맑은물도 〈후렴〉
모육차로 다려간다 노중에 주부만나
만단설화를 하고나니 남해 용궁이 좋다구나—아
10. 만경창파 널룬바다 둥실 둥실 떴는 배는 〈후렴〉
친화하는 배들인가 고기잡는 어선인가
고군도를 바라보니 친화선니 분명하네—에
11. 산유화야 산유화야 농사는 천하에 대본니라 〈후렴〉
괄세마소 농사일을 괄세마소 농사일을
만신 천자도 밥을 먹네—에
12. 산유화야 산유화야 왕당으—벅긍새는 〈후렴〉
어이그리 지저귀야 겉 잎은 자자지고
속잎 나라고 지저귄다—아

〈자진 산유화 농부가〉
1. 어화 어화 상사뒤유 산유화야 산유화야
어화 어화 상사뒤유
2. 네꽃피어 자랑마라 구십소망 잠깐간다 어화 어화 상사뒤요
3. 서마지기 외밤이가 반달만치 남았구나 어화 어화 상사뒤요
4. 네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지 어화 어화 상사뒤요
5. 취영봉에 달이 뜨고 사비강에 달이진다 어화 어화 상사뒤요
6. 성왕 홍왕 널분덕은 우리들의 만족이요 어화 어화 상사뒤요
7. 만세 만세 만만세는 천추 만세 하올서라 어화 어화 상사뒤요
8. 산유화야 산유화야 네꽃피여 자랑마라 어화 어화 상사뒤요
9. 넓고 넓은 구룡포들에 오곡꽃이 더욱좋다 어화 어화 상사뒤요
10. 구룡포 넓은들에 못줌소리 한창이요 한산에 베틀가는
억개춤이 절노난다 어화 어화 상사뒤요
11. 산유화야 산유화야 해가뜨면 영일루요
달이 뜨면 망월대라. 어화 어화 상사뒤유
12. 산유화야 산유화야 농사일이 바쁘건만
부모형제 구제한다. 어화 어화 상사쉬유

〈논매기〉
모여 가자 모여 가자 어화딩 어리
일심 동력 힘을 써서 어화딩 어리
기운차게 잘도 매다 어화딩 어리
이논 매고 저논 매고 어화딩 어리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어화딩 어리
이수 건너 어화딩 어리
어화 덩이 어화 덩이
어화 덩이 잘도 맨다 어화 덩이 어화 덩이
가세 가세 어화 덩이 어화 덩이
앞에 사람 잘도 맨다 어화 덩이 어화 덩이
뒤에 사람 떨어진다 어화 덩이 어화 덩이
휘 휘 둘러 어서 가세 어화 덩이 어화 덩이

〈벼 바심 농부가〉
1. 어야아 헤 헤 어야아 에—헤
오동추야 어야아 에헤 달밝은 밤에 에야아 에헤
임생각이 간절하구나
〈후렴〉
에헤 에헤야아 에에— 헤야 에야하헤
에헤 뒤여 나헤—헤
2. 에 야 에 야 에아헤 배 띄어라 에아헤 〈후렴대〉
배 띄어라 에 아 헤 사비강에 배 띄어라
3. 어야아 에헤 어야아 에헤 〈후렴대〉
나부야 나부야 에야헤 청산을 가자 에야헤—
호랑 나부 나도 가자
4. 에야아 에헤 어야아 에헤 〈후렴대〉
반월성이 어뒤메냐 에야헤 반월성을 도라가면 에야아헤
만경 청파가 이아니냐
5. 에야아 에헤 어야아 에헤 〈후렴대〉
꽃이 피면 에야헤에 화산이 되고 잎이피면 청산

이라
6. 에야아 에헤 어야아 에헤 〈후렴대〉
산유화야 에야헤 산유화야 에야헤
네꽃핀다 자랑마라
7. 에야아 에헤 어야아 에헤 〈후렴대〉
달이 뜨네—에야아 헤 달이 뜨네 에야아 헤
부소 산성 높이 떴다
8. 에야아 에헤 어야아 에헤 〈후렴대〉
춘화 추동—에헤 달이 뜨네 에야아 헤
허송 세월 부디마소
9. 에야아 에헤 어야아 에헤 〈후렴대〉
삼산 발락—에 에야 청천에요—에에야
이수 증분 백노주라

〈베 부치는 노래〉

1. 에에—헤이야 솔올을 비이야
나부야 나부야 청산을 가자
에에—헤이야 솔올을 비이야
가다 저물거든 꽃속에 자고 가세
2. 〈후렴〉 꽃이에서 괄세 하면 잎에서라도 자고 가세
3. 〈후렴〉 서산락조 일모공 허니 월출 동정 달 돋아온다
4. 〈후렴〉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5. 〈후렴〉 저달이 점점 발갔으니 장부 간장 다녹인다
6. 〈후렴〉 불어온다 불어온다 강바람이 불어온다
7. 〈후렴〉 말을 타고 달린 바람 어느 누구의 회리인가
8. 〈후렴〉 장하구나 그 바람이 우리들의 영광이라네
9. 〈후렴〉 망망한 창해 중에 탐탐한 물결이라
10. 〈후렴〉 백빈주 갈마귀는 홍요 아니 나라들고
11. 〈후렴〉 삼삼오오 삼삼의 기러기는 한수로 모여든다.
12. 〈후렴〉 태고라 천왕씨는 목덕으로 왕을 했네
13. 한산 세모시 백포장 치고 〈후렴〉 우리 농부들 장화로 춤춘다.
14. 피땀흘려 지은 농사 알뜰하게 나부 하세—받는 소리

〈베 쌓는 소리〉

바아 더라
오동추야 달밝은 밤에 바아아아 더라 인심이 천심이요 바아아아 더라
님 생각이 간절 하구나 바아아아 더라 천심은 인심이라네 바아아아 더라
내가 주며는 네가 받고 바아아아 더라 국태 민안하옵시고 바아아아 더라
네가 주며는 게서 받아라 바아아아 더라 세화 연풍하옵시고 바아아아 더라
강상으로 둥실 떠가는 배 바아아아 더라 고당의 학밭 부모 바아아아 더라
십리 장강 벽파상에 바아아아 더라 만수무강 하옵소서 바아아아 더라
왕래하는 나루밴가 바아아아 더라 일심 동력 힘을 써서 바아아아 더라
만고의 영웅들도 바아아아 더라 기운차게 잘들받소 바아아아 더라
이 밥먹고 살았다네 바아아아 더라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이 곡식을 장만해서 바아아아 더라 우리땅 이곳에 풍년이 왔네 바아아아 더라
나라에 세미하고 바아아아 더라 약한 사람 새새에 서고 바아아아 더라
선영 봉사도 하여 보세 바아아아 더라 기운찬 사람들 부축을 하소 바아아아 더라
영제 신농씨가 농사법을 만들었네 바아아아 더라 만세 만세 만만세야 바아아아 더라
후생들이 본을 받아 바아아아 더라 우리 성군 만만세야 바아아아 더라
이 농사를 짓는다네 바아아아 더라 산유화야 산유화야 우리 성군 만만세요 바아아아 더라

선소리산타령

민요

유래

선소리타령은 잡가의 하나로 7,8명이 일렬로 늘어서서 장구를 멘 한 사람이 앞소리를 메기면 소고를 든 나머지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아주는 입창(선소리) 형식으로, 정해진 여러 곡을 접속으로 부른다. 좁은 의미로는 산타령만을 가리키나 넓은 의미로는 산타령 뒤에 이어 부르는 보넘·화초사거리·양산도·방아타령·경복궁타령 등 민요도 포함된다.

선소리산타령은 본래 사당패 소리고, 각 지방으로 분산되어서 그 지방에 맞는 형식과 특징을 가지고 전해 지고 있다. 서울지방 선소리는 한강·서강·마포·서호·용산 등 5강의 소리에 의해 발전되었다. 즉 좌창인 서울의 긴 잡가가 4계축(지금 청파동 일대)이 중심이 되어 발달하였는데 선소리는 5강 상인들에 의해

서 발달한 것이다. 이 소리꾼들은 5강의 장마당을 찾았던 사당패 소리꾼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선소리는 조선 말기에 의택이란 선소리꾼이 이름났고, 의택 다음에 종대가 나서 선소리 명창으로 이름을 떨쳤다. 이 뒤로 서울 근교에는 많은 선소리꾼들이 났다. 이들 선소리꾼이 가장 많이 불렀던 시기는 음력 정월 보름날이다. 이날은 다리밟기를 하면 다리병이 없어진다는 풍속에 따라 남녀노소가 모여 답교놀이를 할 때 산타령을 소리꾼들이 불렀다고 한다. 이 선소리는 마당소리로 매우 활기있고 씩씩하며 민중의 잔치에서 환영받았다.

특색

(1) 서도소리의 놀령, 앞산 타령, 뒷산타령, 경발림(경사거리)은 서울 선소리의 놀령, 앞산타령, 뒷산타령, 도라지타령(자진상타령)에서 각각 변형된 것이다.

(2) 서도의 경발림과 도라지타령은 뒷산타령에서 변형된 것이다.

(3) 서도나 서울 선소리의 뒷산타령은 걸립승의 소릿조가 섞여있다.

(4) 서울 선소리의 리듬은 서도 선 소리에 비해서 다소 불규칙하다.

(5) 서도 선소리는 서울 선소리보다 속도가 빠르고 경쾌하고 동적이어서 명쾌하다.

(6) 서도와 서울의 선소리는 그 선율에 있어서 3도 진행이 많다.

(7) 서도 선소리는 서울 선소리에 비하여 그 음고가 높다.

(8) 남도의 화초사거리는 서울과 서도의 그것에 비해 완전 4도와 장 2도의 선율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구성

(1) 놀량
(2) 앞산타령
(3) 뒷산타령
(4) 자진산타령
(5) 청개구리타령 · 방아타령

내용

서울 선소리를 부르는 차례를 보면 먼저 관소고라 하여 소리꾼들이 모두 발림하며 소고를 구성지게 한바탕 합주하고 나서 놀량으로 합창한다.

모갑이는 장구를 치며 소리를 메기고 소리꾼들은 소고를 치고 발림하며 소리를 받는다. 놀량은 통절형식으로 되어 있어 느린 불규칙 장단으로 내려 불러간다. 사설은 산천경계 구경가는 내용이다. 선율은 경토리로 되어 있고 높은 소리로 질러 내어 매우 씩씩하게 들린다.

다음에는 앞산타령으로 넘어간다. 앞산타령은 유절형식이며 역시 선율은 경토리로 되어 있고 불규칙장단으로 되어 있는데 놀량보다 좀 빠르다.

뒷산타령은 앞산타령 뒤에 부르는 산타령으로 앞산타령과 비슷하다.

자진산타령은 빠른 산타령이란 뜻으로 뒷산타령과 비슷하나 한 배가 좀 빠르다.

자진산타령 다음에는 청개구리 타령 · 방아타령 등 짧은 장절형식으로 된 민요를 덧붙여 부르기도 한다.

놀이기구

장구, 소고 등

서도잡가

민요

유래

서도잡가는 공명가와 사설 공명가, 초한가, 제전, 추풍감별곡과 시창 비슷하게 읊어나가는 관산융마가 있는데 이 중에서 소리에 얽힌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추풍감별곡과 관산융마이다.

추풍감별곡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전한다.

평양에 사는 김진사는 무남독녀인 딸 채봉에게 자기가 서울에 가 있는 동안 글공부 잘 하라는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났다. 채봉은 고금서적을 많이 읽었고 수놓기, 바느질 등 여자로서 갖출 것은 고루 갖춘 여인이었다.

김진사가 떠난 후 얼마 안되어 채봉은 어느날 달밤에 여종 추향과 함께 산보를하다가 어떤 남자에게 들켜서 급히 달려오던 중 손수건을 떨어뜨렸다, 그 남자는 손수건에다 자기의 회포를 적어 채봉에게 전하니 채봉은 그가 가문도 훌륭하고 인물도 훤칠한 강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뒤 둘은 서로 사귀면서 부친만 돌아오면 예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김진사는 서울로 떠난 후 벼슬도 못얻고 돈만 낭비하다 볼모로 붙들리고 말았다. 이를 안 채봉은 아버지를 구할 목적으로 몸을 팔아 기생이 되었다. 강필성과의 달콤한 꿈은 깨어지고 평양감사의 수청을 들면서, 강필성을 만나 자기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추풍감별곡을 지었다 한다.

관산융마는 조선조 정조 때의 문인 신광수의 공령시를 율조에 올려 부른 것으로 관산융마를 처음 노래부른 사람은 평양기생 모란으로 전해진다. 그녀가 부르는 관산융마의 성조는 청아하며 다른 기생들이 다투어

부름으로써 널리 퍼지게 된 것이라 한다.

특색

사설은 긴 통절형식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판소리 한대목이나 단가와 비슷한 것이 많다. 선율은 수심가토리라 하여 대개 위에서부터 질러내며 위의 음을 흘려내리고 가운데 음을 심하게 떨며 아래 음은 곧게 뻗는 선율진행을 보여준다.

초한가, 공명가, 사설공명가, 제전과 같은 긴소리는 반드시 느린 박자의 수심가조로 끝맺는다.

구성

(1) 공명가의 사설공명가

3박을 근간으로 하여 4박, 5박, 6박 등 그 장단의 변화가 다양하다.

(2) 초한가

사설조로 읊어나가다가 끝부분은 수심가조로 부른다.

(3) 제전

서도민요식의 음악어법으로 낭성조로 엮어나가다가 수심가조로 끝맺는다.

(4) 관산융마

원시의 안팎 한구로 한 절을 삼아서 모두 36구를 전부 19절로서 부르는 서도의 송서나 시창식으로 부르는 것으로 장단없이 자유롭게 부른다.

(5) 추풍감별곡

창조는 12가사나 서울의 긴 잡가와 같이 일정한 장단에 의해 부르고 선율에 있어서도 변화없는 일정한 가락을 반복해서 부른다.

내용

(1) 공명가와 사설공명가

공명가는 제갈공명이 갈건야복으로 남병산에 올라 동남풍이 불어 오기를 비는 광경을 묘사한 소리이다.

사설공명가는 공명이 남병산에 올라 동남풍이 불어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축문읽는 대목만을 엮어서 부르는 소리이다.

(2) 초한가

표모걸식하던 한신이 천하병마도원수가 되어서 항우를 잡으려 할 때 꾀많은 이좌거가 초패왕을 유인하여 구월산까지 깊숙이 끌어들여 곤궁에 빠뜨려 놓고 계명산추야월에 장자방이 옥퉁수로 고향을 생각케하는 사향가를 불어 팔천제자가 다 흩어지고 항우가 패망하는 것을 엮은 것이다.

(3) 제전

인생의 사고인 생로병사를 면하지 못하는 인간이 앞서 간 임의 무덤을 찾아가서 애절원통한 넋두리를 쏟아 놓는 단장록이다.

(4) 관산융마

신광수의 과시로서 이 글의 원제목은 등악양루탄관산융마이다.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두보가 만년에 여기 저기 떠돌다가 악주(岳州)의 악양루에 오른 일을 읊은 것이다.

(5) 추풍감별곡

사모하는 님과의 이별을 애절히 읊고 있다.

고무산타령

민요

함경북도 지방은 농토가 좁고 대개가 험한 산간오지요, 더욱이 오랑캐의 침입이 잦은 변경지방으로 항상 불안정속에 살아왔다. 그래서 부녀자들은 천지신명께 인간의 행복을 기원하며, 멀리 떠나있는 님을 그리워한다. 여기 '고무산타령'도 이러한 관북지방에 전래한 단가 중의 하나로 그 가사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

"공산야월 부엉새는 님 그려 슬피울고,
두만강 어린달빛 쓸쓸히 비쳐있네 어랑어랑 어헤야
고무산이 꾸불꾸불"

춤을 곁들여 노래 부른다.

배따라기

민요

평안도 민요 중의 하나이다. 배따라기의 이름은 '배 떠나기'의 방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이 지은 '한북행정록'에 "우리나라 악부에 이른바 '배타라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방언으로 배떠나기로서 그 곡조가 처량하기 그지없다."라고 하였는바 '배타라기'는 곧 '배따라기'를 음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배따라기' 노래는 다음과 같다.

정거혜여 선리하니
차시거혜여 하시래오
만경창파 거사회라

(닻 올리자 배 떠나니 이제가면 언제 오소 만경창파에
가시는 듯 돌아오소)

이것은 현재 전창되어 오는 '배따라기'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고 오히려 서울의 '이별가'의 가사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불리는 가사는 다음과

같다.

지화자자 좋다
요내 춘색은 다 지나가고
황국단풍이 돌아왔구나……

이 노래는 뱃사람들의 고달프고 덧없는 생활을 서사체로 엮고 있으며 후렴이 붙지 않는 장절형식이다. 장단은 6박 도드리장단이 중심이 되나 조금 드나들며 가락은 수심가조가 주가 되나 경기잡가의 영향이 보이는 슬프고 애처로운 소리이다. 따라서 순수한 민요라기보다는 장절형식의 잡가로 보는 것이 보다 옳을 것 같다. 이 곡의 뒤에는 으레 '자진배따라기'가 붙는데 배따라기보다는 한결 밝고 가벼운 곡상으로 만선의 즐거운 내용을 지녔다. 장단은 세마치로 흥청거린다.

임실삼계농요

민요

유래

삼계면 두월리 지방은 기름진 농토와 아름다운 산수가 조화를 이루어 예로부터 인심이 순후하고 평화스러운 고장이다.

씨앗을 뿌리는 봄부터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가을까지 이웃끼리 서로 품앗이 일을 하며 불러오던 이 농요는 이조시대부터 수백년동안 구전되어 내려온 것이다. 말천방농요라고도 불리우는 이 농요는 가뭄이 들었을 때 농민들이 보막이를 해 놓고 이른 새벽부터 물을 품으면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부르는 노래, 김맬 때 흥을 돋우는 노래, 하루 일을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때 어울려 부르는 노래 등이 있다.

특색

농요는 대개 한 사람의 선소리에 여러 사람이 받아 부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지방의 농요는 앞 뒤 두 패로 나누어 부른다. 이것은 두 패로 나눔으로써 노래 소리의 크고 작음을 시새우며 작업능률을 높이는 것으로 삼계농요의 특징이다.

노래의 리듬과 곡조가 매우 듣기 좋고 경쾌할 뿐 만 아니라 고된 작업을 하면서도 더욱 힘을 내어 부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보다 높은 차원의 농요임을 엿볼 수 있다.

구성

(1) 물품기노래
(2) 연계타령
(3) 문열가
(4) 방아타령
(5) 어휘싸오
(6) 산타령

내용

(1) 물품기노래

아위— 아위
하택에 물올리고 상택에 물받아라
아—위
물올리고 물받아라 아—위
맥이 터진다 아—위
자진머리로 들어간다 아—위
도깨비 방죽에 물품어다 배동바지
목축이자 아—위
배동바지 목축이자 아—위

(2) 연계타령

저산넘에 소첩두고
밤길걷기 난감하다
오란데는 밤에가고
동네술집 낮에가자
일락서산에 해떨어지고
월출동명에 달솟아온다
황계물로 가는 처자
속옷가래 풀고간다
(후렴)
에헤야노 아하헤헤
연계로구나

(3) 문열가

오늘도 하심심하여
노래한장 불러보세
건곤이 불노월 장자하니
적막강산이 근 백년이라
칠산골산 깊은 봉에
홀로 우는 가련추야
오동추야 달은 밝고
임의 생각이 절로 난다
(후렴)
지구 허—허허—이
허허—아헤—말이오

(4) 방아타령

남문열고 바래칠제
계명산천 밝아온다
베 잘짠다 베 잘 짠다
남원 동문안 큰애기 베 잘짠다
활 잘 쏜다 활 잘 쏜다
북도 매봉의 군사가 활 잘 쏜다.

배꽃일레 배꽃일레
처자 손목에 배꽃일레
(후렴)
에헤 얼싸 좋다
쿵자쿵 기화자 좋을시구

(5) 어휘싸오
앞둑 벼루는 뒷 둑을 쌓고 어휘싸오
뒷둑 벼루는 앞 둑을 쌓고 어휘싸오
휘휘 둘러서 쌈들을 싸세 어휘싸오
임실 원님은 해우쌈 싸고 어휘싸오
남원 원님은 천엽쌈 싸고 어휘싸오
장수 원님은 곤달로 싸고 어휘싸오
진안 원님은 상추쌈 싸고 어휘싸오
순창 과부는 이불쌈 싸고 어휘싸오
이논 뱀이에 노적쌈 싸고 어휘싸오
우리 농부는 풍년쌈 싸고 어휘싸오
바짝 바짝 우겨를 싸소 어휘싸오
외영 가닥을 이겨를 주소 어휘싸오
장구지 달팽이 다 잡아들이라 어휘싸오
에이 -위-

(6) 경기 산타령
①금방 오라 헤헤헤
한 몰람에 쏙소리 나무가 섯으되
바람이 부나 아니를 부나
②너그 누가 헤헤헤
날마다 머리를 깎고 속락을 쓰고
순천 송광절마다고 금지금실산절로 중이
나난질 가네
③오 초목에 헤헤헤
들이나 남풍 이거나 동풍 울어든새야 울어니 스면 너나 울었지
울어니 스면 너나 울었지

도당굿놀이

민속놀이

유래

도당굿은 마을 사람들의 길복과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굿이다. 도당굿에서는 여러가지 춤과 음악이 선보여 지는데 이중 대표적인 춤과 음악만을 모아 끝판을 장식하게 되는 것을 도당굿놀이라고 한다.

도당굿놀이의 연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굿의 일반적인 형태가 원시종교에서 비롯되어 집단축원 의식으로 이어져 내려왔듯이 도당굿놀이 역시 개인의 안녕, 소망 등을 비는 마음이 하나의 집단 의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색

우리나라 민요 중 무가의 선율은 서북형과 서남형으로 나뉘어진다. 이 두 유형의 경계는 남한강을 경기도 중앙으로 가로질러 그 이북을 서북형, 그 이남을 서남형이라 구분한 것이다. 서북형을 '경서토리 무속음악권'이라고 하고 서남형을 '시나위 무속음악권'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경기도 남부지방 무의식의 음악과 춤의 특징은 서남형(시나위권형)에 들며 또한 같은 서남형이면서도 충청도 서부·전라도·경상도 서남부 지역의 의식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서남형굿(시나위권 무의식)은 무당이 세습무이고 무가의 선율이 육자배기토리로 되어 있으며 그 반주로는 잽이들이 장고·징·피리·젓대·해금으로 시나위를 연주한다. 또 무당이 긴 무가와 춤으로 굿을 진행하며 공수가 간략하고 무복이 간소하며 도무가 적다는 점에서 경기도 서남부의 굿이 모두 공통점이 있지만 저마다 약간씩 다른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구성

(1) 진쇠춤
(2) 제석춤
(3) 터벌림춤
(4) 손님굿춤
(5) 군웅님춤
(6) 시나위춤

내용

도당굿은 일정한 지역의 수호신을 위한 무속의례로서 도당신을 중심으로 강한 지연적인 유대감을 유발시킨다. 도당굿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청신-신탁-오신-송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1년 또는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신을 청해 들여 신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신이 보호하는 마을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으로 함께 즐기고 노는 것을 통해 삶의 긍지를 되찾은 후 신을 본연의 장소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당굿은 '도당맞아오기'로 시작한다. 도당신을 맞아 굿당에 모신 후에는 반드시 신이 기뻐하시는가 의사를 알아보는 거리가 있다. 시루도듬이 그것이며, 삼지창 끝에 소머리를 세워 보는 사실도 여기에 속한다. 도당할아버지가 꽃반에 부채를 세워 보는 것도 역시 보다 세분된 점복에 속한다. 이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각종 놀이와 노래·춤이 벌어진다. 신도 인간과 큰 차이가 없이 좋은 음식과 술, 아름다운 가무를 즐

긴다고 생각하여 가장 크게 접대하는데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노는 가운데 인간끼리의 만남과 화해도 이루어진다. 굿이 끝날 무렵이면 다시 도당신을 모셔 가는 절차가 행해진다.

도당굿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신은 물론 도당신이다. 그러나 도당신의 능력은 오직 지역수호신에 불과하고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당굿에서는 무속이 신봉하는 여러 신격들을 모신다. 수명장수를 위해서는 제석에게 빌고, 치병과 그 예방을 위해서 손굿을 하며 뒤탈이 없게 하기 위해 뒷전도 충실히 논다. 이런 의미에서 도당굿은 마을이 공통으로 모시는 도당신을 위한 의례로서 지역적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직능별로 분화된 신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모심으로써 전체적인 복리를 꾀하는 무속 일반적인 심성이 반영된 굿이라고 볼 수 있다.

놀이기구

장고, 징, 피리, 젓대, 해금, 꽹과리, 북.

안동저전동 달개놀이

민속놀이

성주신 즉 집을 지키는 신령을 찬양하는 일종의 성주풀이와 같은 걸로 보아진다.

성주풀이의 첫 귀가
성조 본신이 어데메뇨
경상도 안동 땅의
제비원이 본향이러라……

한 것으로 미루어 안동 저전동에 그런 원초적 노래가 있다고 전함직 하다.

집을 짓기 전에 주초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마치 저수지 공사의 둑 다짐 같은 '다짐'의 공정이 있는 바 주로 그 때에 불리워지는 노래라고 한다.

괴산농악

농악

유래

괴산은 충청도와 전라도로 교차되었던 지역이며, 소백산맥에서 뻗어나온 차령산맥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농경고을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 상고시대부터 있었다고 믿어지는 농악은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고 있는 향토색 짙은 농민악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뿌리내리고 있다.

농경민족인 우리 조상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생활을 되풀이 하였으니 그 과정이 무척 힘들고 고달팠다. 그래서 노동에서 오는 고통을 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활력을 농악에서 찾았던 것이다. 괴산농악도 이러한 연유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

특색

괴산농악은 전라좌도, 괴산, 진산, 무주, 용담, 진안, 장수, 운봉, 구례 등지에 뿌리내린 좌도굿으로 지맥을 따라 남북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것이 다시 호남좌도, 영남 등지로 파급되고 경기지방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가락과 가림새가 변형되어 가고 있다.

괴산농악은 반농반군의 농군들로부터 창출된 가락이다. 전원이 전립을 쓰고 비교적 간소한 복장에다 빠른 가락과 동작으로 대중의 행진음악과 축원, 그리고 한풀이가 승화되어 윗노리의 기교가 뛰어나며 밑노리의 굿가락이 담백한 것이 특징적이다.

구성

1) 외마치풍년길굿
2) 문굿
3) 외마치
4) 두마치
5) 세마치~여섯마치
6) 일곱마치
7) 여덟마치~열 두마치
8) 품앗이굿
9) 오방진굿
10) 호호굿, 자진호호굿
11) 갈림굿
12) 각정굿, 자진각정굿
13) 홑영상, 겹영상
14) 개인놀이
15) 파송굿

내용

온 동리가 가을 농사를 끝내고 장원머슴을 뽑아 잔치를 베풀면서 한마당 굿이 벌어진다.

판굿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마치풍년길굿

장원머슴을 소 또는 사다리에 태우고 용당기와 농기, 나팔, 무동 등을 앞세우고 좌도 특유의 길군악(행진굿)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소고가 앞을 서

고 쇠가 뒤를 따르는 역진(逆進) 방법으로 주인집에 들어간다.

2) 문굿

역진에서 정상으로 돌아가 쇠가 앞장을 서서 마당에 들어가 판굿을 한다.

3) 외마치

자진머리에 해당되는 박자로서 좌도굿에서만 볼 수 있으며 가락이 경쾌하고 흥겹다.

4) 두마치

휘몰이에 해당되는 가락으로 아주 빠르며 우도의 두마치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마치굿의 맺음가락으로도 활용한다.

5) 세마치~여섯마치

연속적으르 변화를 일으키며 차분하고 무게있는 가락이 이어진다.

6) 일곱마치

한 장단에 징을 일곱 번 치며 좌도 농악에서만 갖고 있는 특유한 가락이다.

7) 여덟마치~열두마치

여덟마치는 일곱마치의 변형으로 된 가락이며 한박자에 일곱번의 징을 친다. 마치가 더해짐에 따라 변화무쌍한 가락으로 빠르게 이어지는데 열두마치는 징을 열두 번 친다.

8) 품앗이 굿

꽹과리를 서로 번갈아치며 장고와 쇠군들이 서로 밀고 당긴다. 이것은 농사에서 품앗이를 상징한다.

9) 오방진굿

청, 백, 적, 흑, 황색 깃발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잡귀를 몰아내는 굿이다. 마지막에는 중앙으로 모여 멍석말이를 하고 다시 풀어나온다.

10) 호호굿, 자진호호굿

진영에서 전군을 점검하는데 서로 부르고 대답한다. 부르는 소리는 '호호' 대답하는 소리는 '허허'로 단결심을 다짐하는 진풀이다.

11) 갈림굿

호명을 마친 후 쇠와 북, 장고가 서로 갈라지며 진을 다듬는다.

12) 각정굿, 자진각정굿

상쇠와 수장고가 마주보며 만났다가 헤어지며 각기 반대방향으로 서로 만나서 헤어지는것을 반복하는 진풀이다.

13) 홑영상, 겹영상

쇠잡이 둘이 번갈아 치며 놀다가 장고와 마주치면서 흥을 돕는다. 좌도의 특수가락이다.

14) 개인놀이

채상노리, 장고노리, 열두발 채상 등 순차적으로 놀이마당이 펼쳐진다. 윗노리의 발랄이 특이하고 장고가락은 담백한 것이 특색이다.

15) 파송굿

적진을 섬멸하고 끝을 알리는 굿이다. 덕석말이를 하면서 판굿 전체가 끝난다.

강릉단오굿

민속놀이

유래

강릉단오제는 강원도 강릉시에서 단오날을 전후하여 서낭신에게 지내는 마을굿이다. 단오제는 음력 3월 20일 신주를 빚는 데서 시작하여 5월 6일에 소제를 하고 신을 봉송하는 데까지 장장 50일간에 걸친 대대적인 행사로 이어진다. 본격적인 제의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단오굿과 관노가면극을 중심으로 한 그네·씨름·줄다리기·윷놀이·궁도 등의 민속놀이와 각종 기념행사가 벌어진다. 이때 영동 일대 및 각지에서 모여든 구경꾼은 수십만명에 달하는데 예나 다름없이 지금도 대성황을 이룬다. 강릉단오제가 옛날에는 관에서 주도하여 행하여졌으나 현재는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었다.

강릉단오제에 관한 문헌적 전거는 조선 초기 남효온의 추강냉화(秋江冷話)에서 그 기록이 나타나지만 경종(1721~1724) 때 간행된 '강릉지'에 의하면 그 역사가 고려 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근원설화는 대관령산신으로 모신 김유신 설화와 대관령국사서낭신인 범일국사 설화가 있다. 그리고 후대로 내려와 국사서낭신과 부부신이 된 여국사서낭신에 대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특색

강릉단오제는 산신과 성황신을 제사하는 연중행사로 무의 전체가 무격에 의하여 진행되는 향토신제이다. 그러므로 무격은 신과 인간의 중간 위치에 서며 백성의 소원을 신에게 알리고 또 신의 뜻을 신자에게 전한다.

구성

(1) 입장
(2) 단오굿
(3) 관노가면회
(4) 소제

내용

(1) 입장

대관령국사성황을 봉송하는 행렬은 태평소, 장고 등의 악기를 선두로 호장도 사령과 남녀무관, 그리고 제물을 들고 치성을 드리는 촌민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성황사 근처에서 벤 신우목(神芋木)에는 치성을 드리는 마을 사람들이 실, 백지(종이), 헝겁을 걸어 액맥이를 하였고 무현과 마을 사람들은 산유가를 부른다.

꽃밭일세 꽃밭일세
4월 보름 꽃밭일세
지화자 좋다 얼시구 좋다
4월 보름 꽃밭일세

산유가를 되풀이하여 부르며 흥을 돋우고 국사성황을 봉영한다.

(2) 단오굿

단오굿이 시작된다. 굿에 앞서 호장이 초지관이 되어 대관령국사성황제가 있게 된다. 제향이 끝남과 동시에 도무당은 부정굿을 치고 마을 사람들은 치성을 드린다.

(3) 관노가면희

굿이 벌어지는 굿당 옆에서는 관노들이 가면희를 연희하며 굿당의 흥을 돋운다.

(4) 소제

굿이 끝나면 신우를 비롯하여 신위 등을 불사른다. 굿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며 단오굿의 대단원을 맺는다.

18

제1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7. 10. 24 ▶ 10. 26
수원

제1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7. 10. 24—10. 26.
수원

대통령상
봉기풍어놀이(충남)—민속놀이
국무총리상
익산삼기농요(전북)—민요
문공부장관상
시선뱃노래(경기)—민요
청원농요(충북)—민요
평창백옥포농악(강원)—농악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진주검무(경남)—민속무용
장려상
강진땅뺏기놀이(전남)—민속놀이
영덕탈굿(경북)—민속극
대보름놀이(함북)—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서도잡가(평남)—민요
청도민요(경북)—민요
월정사탑돌이(강원)—민속놀이
상조계놀이(평북)—민속놀이
항두계놀이(평남)—민속놀이
익산금마기세배(전북)—민속놀이
강령탈춤(황해)—민속극
호미걸이소리(서울)—민요
황해도민요(황해)—민요
가산오광대(경남)—민속극
조밭다지는노래(제주)—민요
부산농악(부산)—농악
공로상
조밭다지는 노래(제주)
부산농악(부산)
개인상
김현규(호미걸이소리, 서울)
장용수(황해도민요, 황해)
한윤영(가산오광대, 경남)

봉기풍어놀이

민속놀이

이 노래는 원래 어부들의 노래로서 서해 도서지방 및 해안지방에서 불리었다. 어업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도 퍽 오래된 듯 하지만 고증할 방법은 없다. 이 고장의 어민들은 음력 정월 보름이면 당산의 당나무 아래에서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를 지낸다. 그런데 이때 이들은 봉기를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봉기타령이라 한다.

봉기란 길이 약 2~3미터 되는 대나무를 여러 갈래로 쪼개서 그 가지마다 조화를 매단 것이다. 옛날에 어부들이 바다에서 선창으로 돌아 오는 길에 해상에서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의외로 지금의 당산 당나무에 원인모를 불이 켜져서 무사히 귀항할 수가 있었다. 그 후부터는 이 당나무가 계속 등대역할을 해 주었다 한다. 그후로 어민들은 이를 수호신인 진대의 조화로 보고 귀목을 당나무로 섬겨 그 옆에 신당을 짓고 당제를 매년 지내게 되었다. 또 이와 아울러 이 섬마을은 수호신인 진대와 상극인 돼지는 기르지 않게 되고 이것이 일종의 풍습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이 민속은 충남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 해마다 정월초에 풍어제로 전승되어 오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서산군 안면연 황도 섬마을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봉기타령은 원래 풍어제를 지낼 때 부르는 소리이지만 이것을 공연예술화함에 따라 배치기 소리등을 더 붙여서 일련의 어업요로 구성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당제, 굴부르기, 배맞이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1) 당제

먼저 농악대가 굿거리 장단을 치고 호적이 시나위를 불면서 전원이 입장한다. 어민들은 봉기타령을 부르며 행진한다. 입장완료하여 어민들이 늘어서고 제주와 그 마을의 무당이 봉기를 서민들의 앞에 세워 놓은 후 그 앞에 부복하여 제금을 치면서 부정굿을 한다. 부정굿은 어느 굿이든 첫머리에 하는 절차로서 굿판을 성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경기소리식으로 간단히 부정굿을 마치고 나면 제주의 구령에 맞추어 전어민이 분향재배한다.

무당이 나와서 년중 평안과 태평을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축문을 읽는다.

금년은 ○○년입네다
달의 부정은 정월상달입네다
날은 ○○일입니다
서산군 안면면 황도리에
어성단 성황님전에 해동성필물어
이 정성을 드리오니
정월상달부터 일년은 열두달
억만재수를 점지하시고
바른이 불어도 태풍을 막아주시고
그물을랑 철그물이 되게 하시고
제수를 허시고
정기를 높이 꽂아 영화로 돌아오게
점지하실적에
만백성의 정성기를 앞세우고
성황님이 다 살펴주옵소서

다음에 배의 기에다 길지를 단다. 이때 호적이 시나위를 불면 일동은 봉기타령을 노래하면서 당에서 내려온다.

어야디야차 어시렁댓구나
허허어이 헤에에 어어으어어
에헤헤에헤 헤에요
한산 세모시 백포장 치고
황해도 손귀경 장화만 드려라
허허어이 헤에에 어어으어어
에헤헤에에 헤에요
암에 수에 발마추어 놓고
50발 그물이 둥덩실 나떠나
허허어이 헤에에 어어으어어
에헤헤에에 헤에요
연평바다 들어오는 조기
양주만 남기고 나 잡아 실었다
허허어이 헤에에 어어으어어
에헤헤에에 헤에요
옥동도화 만사춘하니
가지가지 봄빛이 왔다
허허어이 헤에에 어어으어어
에헤헤에에 헤에요
이물대 고작에 후기를 하고
허미대 고작에 장화발 늘여라
허허어이 헤에에 어어으어어
에헤헤에에 헤에요
연평바다에 들어오는 조기
우리 배망자로 다 잡아실었다
허허어이 헤에에 어어으어어
에헤헤에에 헤에요
이짝저짝 막걸리장사
한잔을 먹어도 톱톱이 걸기다
허허어이 헤에에 어어으어어
에헤헤에에 헤에요
뱃전에 아주머니 신수가 좋아
술통이 밥콩이 뒤집어 이고
허허어이 헤에에 어어으어어
에헤헤에에 헤에요
칠산 연평 다불어먹고
어안도바다와 농잔안친단다
허허어이 헤에에 어어으어어
에헤헤에에 헤에요

봉기타령은 당제를 지낼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갈 때나 또 만선이 되어 돌아올 때에도 뱃머리에 봉기를 달고 이 노래를 부른다.

이때에는 충남의 특산물인 순 무명과 한산 세모시로 배에 백포장과 장발을 늘이고 풍물을 울리며 봉기타령을 부른다.

부두에 닿아서도 아낙네들이 국과 술동이를 머리에 이고 뱃전에 올라 엉덩이 춤을 추면서 이 소리를 한다.

(2) 노젓는 소리

봉기 타령이 끝나면 어부들은 배의 노를 저으며 노젓는 소리를 한다.

어여어으어에에
어으아 어이여에 어여이 여차
어여어어에
어아 어이어 에 어여이 여차
순풍에 돛을 달고
어아어어에
어아 어이어 에 어여이 여차
만경창파로 떠나간다
어여어어에
어아 어이어 에 어여이 여차
돈실러 가자 돈실러 가자
어여어어에
어아 어이어 에 어여이 여차
연평바다로 돈실러 가자
어여어어에
어아 어이어 에 어여이 여차

빠르게(자진모리?) 합창으로 부른다.

어야자차 어야자차
어어어에
어야자차 어야자차

어야 어야 어야 어야

(3) 굴부르는 소리

정월 대보름날 밤이면 아낙네들이 포구가에서 굴을 부르는 행사가 있다. 여자들은 굴을 따는 것이 그들 어업의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섬마을 아낙네들은 각기 굴밥을 들고 횃불을 밝히면서 동그랗게 굴바위 앞으로 모여 굴을 부른다. 이때 또 다른 여자들은 굴역이 되어서 손뼉을 쳐서 굴소리를 내며 근처 바위로 모여 맴돌며 북소리의 반주와 함께 그 해에 굴을 많이 따게 해달라고 축원한다.

합창으로 부른다.

굴이여 굴이여
굴하러
동해는 청석굴
서해는 백색굴
남해는 적색굴
북해는 흑색굴
다른마을로 가지를 말고
우리마을로 돌아와라
우리마을로 돌아와라
굴이여 이밥먹구
다른마을로 가지말고
우리마을 가으로
짜작 짜작 붙어라
짜작 짜작 짜작 짜작

어부들은 닻을 감고 만선의 기쁨을 안은 채 귀범한다. 닻감는 소리는 간단한 입타령으로 되어 있고 합창으로 외친다.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으아에
어 조기 많이 들었네(말로 한다)
어야 어야 어야 어야

다시 어부들의 배젓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때는 드러치기 소리라 하여 한 사람이 메기고 여러 사람이 「어이야」하면서 배젓는 소리를 한다. 그러나 메기는 소리가 완전히 끝이 안나더라도 두박자가 지나면 받는 소리는 계속한다.

어이야
어이야
어야
어이야
이이야
어이야
오동추야
어이야
달밝은밤에
어이야
안밭빗물이
어이야
삼백동 떳구나
어이야디여차 어이어여
어야
어이야
어야
어야디여차 어이어여
조기야 부서야
어이야
어디를 갔다가
어이야
이제 왔느냐
어야디여차 어이어여
어야
어이야
어야
어야디여차 어이어여
칠산 바다에
어야
조기도 많구
어야
우리네 주머니
어야
돈도 많다
어야디여차 어이어여
어야
어이야

익산삼기농요 (전북)



어여
어야디여차 어이어여

어부들은 드러치기 소리와 봉기타령을 부르며 배를 선창가에 대면, 아낙네들은 술동이 국동이 밥동이를 이고 이들을 맞이하면서 흥겹게 봉기타령을 부른다. 그리고 제당에 올라 신의 가호에 감사하는 제례를 올린다음 준비된 음식을 나누며 농악 속에 즐겁게 춤춘다.

익산삼기농요

민요

유래

익산삼기농요는 옛부터 농업이 발달한 전북 익산군 삼기면 오룡리 검지 부락에서 전승되는 농요다.

익산군의 지형은 동으로는 천호산이 가로 놓여 있고 서쪽으로 금강이, 남쪽으로는 만경강의 지류가 흘러 곡창지대로서 알맞은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자연 농업이 크게 발달하였고 힘든 농사일의 피로를 잊고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농요가 성행하였다.

삼기농요의 가락은 육자배기토리, 경토리, 메나토로 등으로 불려지며 느리고 빠른 여러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래의 수가 많다.

특색

(1) 산타령, 작대기타령, 상사소리는 모두 처음에 앞소리가 긴 사설을 독창하고 끝에 한 장단 정도 합창하는 독특한 방법을 쓴다.

(2) 타작소리의 경우 발음구가 규칙적으로 4구가 4종인 것이 특색이다.

①어이 ②에야하행 ③어허허어하 ④헤헤 헤이헤 헤이헤이헤헤이 헤이헤 헤이 이히이나아헤/①, ②, ③은 선율이 한마디씩인데 ④는 6마디로 메김선율보다 더 애조를 띤다.

구성

(1) 농부가
(2) 방아타령(긴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3) 만물산야
(4) 벼베는 산야
(5) 질꼬냉이
(6) 등짐노래
(7) 개상질소리
(8) 방아소리
(9) 모음곡들

산타령, 등짐노래, 지게목발노래, 작대기 타령, 둥당개타령, 상사소리 등

내용

익산삼기농요는 농사짓는 순서대로 동작을연출하며 부른다.

(1) 농부가
(2) 방아타령
김맬때 부른다.
(3) 만물산야
만두레 때 부른다.
(4) 벼베는 산야
나락(벼)을 벨 때 부른다.
(5) 질꼬냉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6) 등짐노래
나락 등짐을 나르며 주인집 문 앞에서 한 상 잘 차려 내라고 요구하며 부르는 노래다.
(7) 개상질소리
나무통이나 절구를 쓰러뜨려, 놓고 나락을 내리치며 타작할 때 부른다.
(8) 방아소리
개상질하여 말린 낟알을 절구통에 넣고 방아찧을 때 부르는 노래다.
(9) 모음곡들
일상의 노동현장에서 부르는 노래들로 지게에 짐을 나르며 오갈 때 주로 부른다. 이 노래들은 작대기로 장단을 맞추며 부른다.

시선뱃노래

민요

유래

강화시선뱃놀이는 강화도 부근의 연해어장에서 잡은 고기를 싣고 한강을 거슬러 삼개(지금의 마포)까지 운항하면서 배에 실었던 고기를 뭍으로 퍼내는 과정을 본떠 만든 놀이이다.

여기에서 시선이란 고기를 운반하던 배를 이르는 것으로서 거북이처럼 앞이 널찍하여 일본배와 구별되는데 한선이라 부르기도 한다. 시선배에는 호랑이 기와 임경업 장군 기, 그리고 갖가지 색깔의 깃발이 펄럭이며 배와 배끼리 신호를 보내는 호기가 장식된다. 배의 크기는 길이 10미터, 폭 5미터 정도이고 1백 석의 쌀


시선뱃노래 (경기)

을 실을수 있으며 돛이 둘이서 역풍을 이용, 노를 저어 간다. 어부들의 말에 따르면 시선배는 해방 전까지는 한강에서 운항되었는데 그 후 근대화에 밀려 사라졌다고 한다.

지금의 강화시선뱃놀이는 1977년도에 비로소 발굴된 것이다.

특색

강화시선뱃놀이를 할 때 부르는 시선 뱃노래는 경기지방에만 전하여지는 것으로 그 가사와 구성 및 가락은 고기잡이배에서 어부들이 부른 풍어만을 바라는 노래와는 차이가 있다.

노래는 여느 뱃노래처럼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로 이어지지만 받는 소리도 메기는 소리와 똑같이 노젓는 속도에 맞추는 구실을 할 뿐이며 앞소리를 위해 뒷소리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처음 닻을 감아 올릴 때는 저청이라 하여 낮은 소리이지만 닻이 땅에서 일어설 때는 중청, 닻이 배위에 거의 다 올랐을 때는 상청이라 하여 음이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구성

(1) 당집에서 굿
(2) 선원들이 배에 올라 닻감는 노래와 돛다는 노래
(3) 고기잡이 배와 만남
(4) 시선뱃놀이와 함께 뒤돌아 오기 시작
(5) 객주집에서의 하선 작업
(6) 봉기를 선두로 행진
(7) 선주집에서의 마당놀이

내용

각 조업단계에 따라 전해오는 노래와 조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닻감는 노래

출항 직전 닻을 감으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 노래는 교창형식면에서 타지방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앞소리와 뒷소리가 서로 교창하는 것은 바닷배와 같지만 조업시 힘든 정도가 다르므로 중간에서 음높이가 두번 바뀐다. 하청, 중정, 상청이라 하는 이 가창형식은 장2도 정도의 조옮김을 한다.

(2) 돛다는 노래

돛을 올리며 돛다는 노래를 부른다.

(3) 노젓는 노래

고기를 싣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운반과정에서 불렀던 노래다. 이 노래에서는 앞소리 창자가 나타난다. 제 1의 앞소리는 사실적인데 제 2, 제 3의 소리를 내는 사람은 군소리로 길게 받아 조화가 놀랍고 풍부하다. 이때는 항상 배를 기켜준다는 호랑이 깃발과 임경업 장군기를 단다.

달은 밝구 명랑한데
어이야 도르루
노젓기기가 재미난다
아무렴 그렇지
아 빨리 져서
아자차차 드르루
행주참을 내야겠네

(4) 선상배치기

이 노래는 입항 직전에 부르는 것으로 항구에 들기 전부터 배 위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이때 어부들은 하라지에 흰 직물의 배포장을 두르며 악사들은 남색쾌자를 입는다.

(5) 선주집 마당에서의 배치기 노래

선주집 마당에 봉기를 세워 놓고 이를 중심으로 악기부대가 들러서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 배치기 노래와 흥겨운 춤으로 절정을 장식한다.

(앞소리)
청국 충신 임장군님
수많은 도복을 다 내어놓고
우리 배 오기만 고대하누나
(뒷소리)
아아 헤이 에헤이 헤이야 어어허어이 야어 허헤이여 좋다
(앞소리)
우선 연평바다 다 벌어먹고
어영도 바다로 돈 실러 갔노라
(후렴)
(앞소리)
연평바다로 크는 조구(조기)
양주만 남기고
다 잡아 실었구나

놀이기구

현존 시선배, 악기(북, 장고, 징, 꽹과리), 기타 복색.

청원농요

민요

유래

청원농요는 이 지역 주민들의 농경생활 속에서 농경과정에 따라 불려지던 노래이다.

봄철 모판을 만들어서 초여름 모심기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한여름 김매기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불려오는 이 노래는 일명 농자 놀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청원농요는 오늘날 청주시 강서동 타동리 주민들에 의해 구전되고 있다.

특색

청원농요는 충청북도 지방의 다른 농요와 그 모양새가 다르다. 특히 청원농요에서도 타동리의 그것은 독특한 멋을 지니고 있다.

청원농요 가운데 모심기노래는, 긴소리로부터 한 논배미를 다 심어나갈 때 청을 슬쩍 바꾸면서 자진소리로 넘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 노래는 그 창법이 퍽 세련되어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멋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김매는소리 중의 '안팡게'는 충북의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소리이다. 이 소리는 선소리꾼들이 짝을 지어 논배미 밖으로 나가 장고를 메고 소리를 하는데 전체 농부가 뒷소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소리꾼들이 선소리를 메기는 사람은 노래만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이 구성진 노래를 감상하며 일을 한다. 노래가 일상적인 농요와는 달리 아악적인 요소가 짙으며 몹시 어렵고 세련되어 보통의 음악적 자질로는 소리하기가 불가능하다.

청원농요 (충북)



구성

청원농요는 다음의 3곡으로 구성된다.

1) 모찌는소리
2) 모심는소리
3) 김매기소리

내용

1) 모찌기소리

뭉치고 정치세 이 못자리를 뭉쳐주게
뭉쳐라 정쳐라 에헤라 못자리 뭉쳐 주게
에워내고 에워내세 반달같이 에워내세
네가 어찌 반달인가 초생달이나 반달이지
초생달만 반달인가 그믐달이나 반달이지
그믐달만 반달인가 우리오빠도 반달이네
늦어가네 늦어가네 시집가기가 늦어가네
여워주게 여워줘요 삼배출짜리로 여워주게
이히호 이히호 호—이히호
삼배출짜리는 나는 싫어 겹배출짜리로 여워줘요
부잣집 맏며느리 되어서루 이 못자리는 시집가네
안어내세 들어내세 에헤라 못자리 들어내세
산지근종은 곤륭산이요 수지조종은 황해수라
사람조종은 운현대감 못자리 조종은 우리몰세
부모산 상봉에 백학이 놀고 우리야 논배미 농군들 노네
올려라보니 부모산 내려다보니 오미내
이히호—호—이히호

2) 모심기소리

에헤이 이히야 상사가 논다
에헤이 이히야 상사가논다
아나 농부야 말들어라 이 논배미마다 모를 심어
나라 상납도 하련마는 부모공양도 하여보세
우리네 동네 청춘에 홀로된 분
어느 사람은 팔자좋아
남은 모를 내며 상사소리를 하는데
우리집 낭군은 어딜갔나
창호중에 좋은 술은 어느 낭군이 맛을 보며
태호 중에 좋은 술은 어느 낭군이 맛을 보나
우리 낭군 떠나실 적에 명년 춘삼월 오시마더니
이히호—이히호—이히호—호
꽃이피고 잎이져도 우리낭군 안오시네
사래차고 장차 밭은 어느 낭군이 갈아주나
나간 길 바라보며 이마위에 손을 얹고
망부석이 된단말가

어린 자식 애비 불러 에미 간장 다녹인다
(이하생략)

3) 김매기소리
에헤헤 어하호호
어어하 헤야오호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날일자로 가지를 말고
반달같이만 올라를 가세
백구야 하늘 가지를 바라
승상이 바랬으니
너를 쫓을 내 아니라.
춘사흘 일을 두고
너를 잡을 내 아니로다 (이하생략)

진주검무

민속무용

유래

신라시대에 발생한 것으로 전하는 이 무용은 오랜 연륜을 거쳐 진주를 비롯하여 서울 등지에서 궁중과 관아에 예속되어 있던 관기에 의해 성장 발전되어 오다가 지금은 진주에서만 보존·전승되고 있는 검무이다.

현재 무용에 관한 기록은 동경잡기, 문헌비고, 삼국사기 등에 '신라 소년 황창랑이 백제에 들어가 칼춤을 추다가 백제왕을 찔러 죽이고 그들에게 잡혀 죽었으므로 그후 신라인들이 이를 애석히 여겨 그 얼굴과 같은 가면을 만들어 쓰고 칼춤을 추었다'고 되어 있다. (황창랑이란 신라장군 품일의 아들 관창의 와전 인듯하다) 또한 조선 중엽 이후의 궁중잔치를 토대로 기록한 진연의궤, 진찬의궤, 원행정리의궤와 단원의 평안감사선유도등 여러 책에 검무가 수록되어 있고 조선말 순종왕의 진연에 사용한 검무의 연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검무가 궁중무로 연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주검무는 조선말 당시 진주감영의 교방청에서 춤을 익힌 최순이 여사(1965년 작고)가 1918년경 김자진, 이윤례, 서상달, 김옥주, 강규례, 최예분 등의 제자들에게 전수시킨 것이 오늘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특색

이 춤은 궁중무용 계통의 하나로 진주 지방에서만 연희되고 있는 것으로, 연출형식·춤가락·칼쓰는 법 등 모든 기법이 과거 궁중에서 연희하던 검무의 원형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우아하면서도 쾌활발랄한 춤이다.

진주검무와 다른 검무와의 차이점을 들어 보면 다른 검무는 4인에 의하여 추어지나 이 무용은 탈을 쓰지 않는 8인의 무원에 의하여 연희되며, 다른 검무는 타령장단으로 시작하여 타령곡 일색으로 추어지는데 반하여 진주검무는 도드리장단으로 시작하여 타령곡을 혼용하고 몹시 빠른 타령곡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다른 검무에 없는 가락으로 숙은사위·입춤사위·앉은사위·방석돌이·연풍대등 독특한 사위가 많이 있다. 또 한 다음 검무에서는 처음 맨손으로 춤을 시작하여 칼을 어른 다른 칼을 들어 춤추지만 진주검무는 색한삼을 끼고 춤을 추다가 색한삼을 빼고 맨손으로 다양한 무태(舞態)를 보이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구성

1) 춤사위는 다음과 같다.
①숙은사위
②입춤
③앉은사위
④손사위
⑤연풍대
2) 반주
①본영산
②도드리
③염불
④느린타령
⑤빠른타령
⑥느린타령, 몹시 빠른타령

내용

도드리장단이 시작되면 무인 8명이 일렬로 열을 지

진주검무 (경남)



어 입장하고 무대 중앙에 종대로 마주하여 선다. 양손에 들고 온 칼을 어깨넓이로 벌려놓은 다음 상대하고 춤추고 서로 앞으로 나아가 등지고 숙은사위로 춤춘다. 중앙에서 만나 서로 상대편의 어깨와 허리에 손을 얹고 어르며 춤춘 다음 갈라서서 한삼을 빼고 입춤사위를 춘다. 칼 앞에 모여 방석돌이를 춘 다음 칼 앞에 앉아 전복 자락을 양손에 잡고 어른 후 오른손 왼손에 각각 칼을 잡고 일어나 2열이 상대한 채로 밀고 밀리는 무작(舞作)을 한다. 그다음 8인이 원을 만들어 연풍대(燕風臺)를 들고 무대 전면에 일렬 횡대로 서서 좌우로 양칼질을 하고나서 절하고 물러난다.

놀이기구

1) 의상

의상은 남색 갑사(안쪽에 붉은색) 전복에 붉은 전대를 띠고 검은색 전립을 쓰며 9색 한삼(백·홍·청·분홍·남·녹·황·연두·자주)을 착용한다.

2) 칼

철제 날에 홍색의 목제 자루를 한 칼을 1인 2개를 쓴다

3) 악기

사용되는 악기는 피리·해금·장고·북 등이다.

강진땅뺏기놀이

민속놀이

유래

강진땅뺏기놀이는 전남 강진 지방에서만 유일하게 행해지던 민속놀이다.

강진군은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도작 중심의 농경사회를 이룬 곳 중의 하나이다. 모를 심고 김매기를 마친 유월 유두나 칠월 백중 무렵에 마을과 마을이 또는 한부락에서 동농군과 서농군으로 패를 갈라 힘을 겨루는 '땅뺏기놀이'를 해왔다. 농사 과정 중에서 가장 집약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김매기를 마치고 그 피로를 풀기 위해 했던 이 놀이는 그러나 흥겨웠던 옛 모습은 점차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지금은 오직 화방·삼화·영화 부락에서만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특색

전남에서 성행하는 농기뺏기놀이와 구성이 비슷하나 실시 시기와 구성원의 신분이 다르다.

농기뺏기놀이는 정월 보름 경에 마을 전체 주민이 모여 노는 것이지만 이 놀이는 6월 유두나 7월 백중에 머슴들에 의해 주로 놀아졌다.

구성

(1) 상머슴을 앞세운 덕석기의 행차
(2) 다른 마을 행차와의 시비
(3) 본 싸움
(4) 승자의 축제

내용

한 해 마지막 김매기인 만두레가 끝난 후 마을에서 가장 풍작이 예상되는 집의 상머슴을 그 해의 농장원으로 선출한다.

이 놀이는 어사화로 곱게 꾸민 패랭이를 쓴 상머슴을 황소에 태우고 사령기와 쌍룡이 꿈틀거리는 덕석기를 앞세우고 장원 노래를 부르며 마을로 각기 돌아오게 된다.

이때 외길에서 이웃 마을의 농군행렬과 맞부딪치면 서로 먼저 길을 가려고 다투는 것으로 시작된다.

먼저 농토(마을답)와 황소를 걸고 이긴 쪽이 황소를 얻고 농토에 심은 농작물을 거두어 가도록 약속을 한다.

싸움은 공격과 방어의 교차 속에 상대방의 덕석기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는 결정된다. 즉 꽹과리와 징의 요란한 응원을 받으며 상대방의 덕석기를 먼저 넘어뜨린 편이 승자가 된다. 승자는 연 3승을 해야 하며 약속대로 황소와 농토의 경작권을 완전히 넘겨 받는다.

싸움이 끝나면 승자나 패자가 서로 악의 없이 흥겨웁게 어울려 노래하며 마을로 돌아온다.

이 행렬이 농장원 집에 다다르면 주인은 이들을 맞으며 연회를 베푼다. 마을 어른들도 다투어 술을 내고 마을의 명예를 드높인 이들이 노고를 찬양하며 위로한다.

놀이기구

사령기, 덕석기, 꽹과리, 징 등.

강진땅뺏기놀이 (전남)



영덕탈굿

민속극

유래

영덕탈굿은 경북 영덕 해안지방에서 행해지는 탈놀음굿으로 백석별신굿이라고도 한다. 별신굿 19거리 중에서 용왕굿 끝에 하게 되어 있다.

일종의 가면극인 영덕탈굿은 하회가면극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민속학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면극 모두 별신굿에서 연희된다는 것, 또 지역적으로 하회마을과 영덕이 인접해 있다는 것 등 때문이다.

영덕탈굿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경북 지방무형 문화재 제 3호 영해별신굿놀이 기능보유자인 송동숙옹에 의하면 영덕탈굿은 그의 선조 때부터 무속가 내부에서 전해져 내려 오고 있다고 한다.

영덕탈굿이라는 명칭도 1977년 제 1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처음으로 명명된 것이다.

특색

내용면에서 보면 고성탈춤의 제밀지마당과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이 차이가 난다.

(1) 말뚝역에 해당하는 역은 양반의 두 아들이 대신한다.

(2) 남무역은 무녀가, 의원 1명이 추가로 등장한다.

(3) 할미가 죽어 행상이 나가는 장면 대신에 영감이 가사하였다가 무녀의 굿에 의해 회생하는 장면이 들어간다. 이것은 굿의 효능을 선전하는 무녀들의 직업의식이 굿의 내용에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5) 사투리, 욕설, 해학 등이 대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가면부분에서의 특징은 굿이 끝난 다음에 사용했던 가면을 잡물 일체와 함께 소각해 버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제작하기 쉬운 종이가면을 사용하게 되어 가면의 조잡성은 면치 못하고 있다.

구성

사람과 놀이, 2가지 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등장인물

①양반(영감)

②할미광대(영감의 처)

③서울아기(기생)

④싹불이(아들 1)

⑤어둔이(아들 2)

⑥의원

(2) 놀이구성

①탈놀이마당

②굿판

내용

과거에 낙방하고 가산마저 탕진한 양반(영감)이 낙심하여 서울에 눌러앉아 서울아기(기생)와 살림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시골의 할미광대(할멈)가 싹불이, 어둔이 두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온다.

영감을 찾은 할미광대는 영감에게 시골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지만 서울아기는 가지못하도록 앙탈을 부린다.

양반을 사이에 두고 할미광대와 서울 아기가 서로 붙잡고 싸우는데 그만 양반이 기절을 해버린다.

싹불이와 어둔이가 밖에서 세상모르고 놀다가 양반이 죽었다고 하자 의원을 부르러 뛰어가고 할미광대와 서울아기는 양반이 죽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 바쁘다.

의원이 진맥을 하매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흔들어 댄다. 마지막으로 안택을 해 보기로 하고 마침내 무녀를 불러 굿판을 벌인다. 굿의 효험으로 죽었던 양반이 다시 살아나자 모두가 경사가 났다며 한 판 신명나는 놀이마당을 벌이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영덕탈굿의 목적은 부도덕하고 천한 사람이 마을에 태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마을의 번영과 번창을 기원하는데 있다.

놀이기구

등장인물에 따른 탈과 복색 등.

대보름놀이

민속놀이

유래

함경북도에서 행해지는 대보름놀이는 우리 민족의 혈연공동체 의식을 잘 표현한 놀이라 할 수 있다.

대보름놀이에 대한 유래는 거의 없고 다만 함북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깊은 산과 사람의 키 높이로 쌓이는 눈이 특히 많은 함북인지라 한겨울 동안 별달리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없었으므로 자연 방 안에 모여 이웃간의 친목과

마을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대보름놀이가 성행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함경남도 북청지방에서 대보름날 북청사자놀음을 즐겼다면 함경북도 두만강 지역에서는 어쩌면 아낙네들의 놀이같은 대보름놀이를 즐겼던 것이다.

특색

대개의 민속놀이가 야외에서 행해진 반면 함북의 대보름놀이는 실내, 즉 방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특징적이다.

구성

(1) 대보름 날 마을의 큰 방에 마을 사람들이 모인다.

(2) 돗자리를 깔고 편을 짠다.

(3) 함경북도 민요를 부르며 놀이를 시작한다.

①젓가락놀이

②그림자놀이

③과자던지기

④선물낚기

내용

두만강에 겨울이 오면 양식들을 땅에 묻거나 방 안에 저장하고 사람들은 길고 긴 동면에 들어간다. 마치 곰처럼 집 안에 웅크리고 지내다가 정초 대보름이 다가오면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한다.

겨우내 이웃집으로 연결된 눈 길을 치우기 바빴던 동네사람들은 새옷으로 갈아입고 정월 대보름날 마을에서 제일 큰 방으로 모여든다. 서로 그 간의 안부를 물으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웬만큼 얘기를 나누었으면 양 쪽으로 편을 갈라 주거니 받거니 민요를 부르며 흥을 돋운다. 함경북도 민요는 그 지방 사람들의 순박한 인심과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노래한 것으로 향토적 색채가 강하다.

흥이 오르면 젓가락놀이가 시작된다. 놀이의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젓가락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젓가락놀이가 끝나면 그림자놀이를 벌인다. 호랑이에서부터 쥐에 이르기까지 각종 동물의 형태와 동작을 그림자로 표현한다. 어색한 표현에는 박장대소가 가장 잘 표현된 그림자엔 상과 민요가 뒤따른다.

이어 과자던지기놀이가 시작되는데 놀이방법은 자세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집에서 만든 과자를 공중으로 던져 받아 먹는 놀이 정도로 알려져 있다.

선물낚기는 그동안 준비해 둔 선물들을 천정에 매달아 놓아 그것을 낚으며 즐기는 놀이이다.

밤을 세워가며 이러한 여러가지 놀이를 번갈아 바꿔



대보름놀이 (함북)

가며 즐겼다. 마을 사람 전체가 한 밤에 모이기는 비좁기 때문에 주로 이웃끼리 모여 즐거운 민속의 전통을 지켜왔다.

놀이기구

젓가락, 과자, 선물 등.

청도민요

민요

차산리는 1리 56호 2리 91 호 도합 153호로 구성되어 있는 비교적 큰 부락이다.

그리고 씨족 구성은 김녕 김씨, 밀양 박씨, 동래 정씨가 중심이 되어 있다.

동네 앞 동편에 '차산들' 서편에 청도 3대 곡창인 '흑석들'을 끼고 있어 농사짓기에 호조건을 갖추고 있어 농가마다 비교적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차산리 사람으로 자랑할만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서슴없이 인간상록수 홍영미 여사와 씨름계의 장사 하동원씨와 농악의 명수 김오동씨라고 답한다.

농업수단의 변화, 노동 연령층의 세대교체와 문화생활의 변화등으로 지난날의 농요가 거의 사라지고 현대 유행가가 불리워지는 요즘에도 차산리에서 만은 겨울에는 농악이, 봄에는 김매기, 여름에는 모심기, 논매기, 가을에는 타작노래등이 흥겨웁게 울려퍼진다. 이처럼 차산리에 농요가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꽹과리의 명수 김오동씨와 같은 위인이 있고 이를 중심한 동민들의 협동이 있기 때문이다.

꽹과리 소리만 나면 순식간에 동네골목에서 풍물을 들고 모여든다.

이처럼 그들은 농악과 민요와 더불어 생활하는 사람

들이다. 또 이 고장은 경북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북부 지방의 농요와는 다른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월정사탑돌이

민속놀이

유래

탑돌이는 원래 석가모니불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부처를 존경하는 뜻에서 부처를 향하여 오른쪽으로 세번 도는 이른바 우요삼갑의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불교에서의 탑은 부처님의 분신인 사리를 봉안한 곳이기 때문에 법당의 불상과 함께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후로 신라 때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웠는데 이때의 탑돌이는 자기의 소망과 삼국통일을 기원하는 조용하고 엄숙한 불교의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고려에 들어서면서 민족제전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 팔관회나 연등회와 같이 탑돌이도 불사적이기보다는 큰 규모의 축제행사로서 민중 속에 전파되고 보편화 되었다. 즉 순수한 불교행사에서 점차 민속화된 것이다.

탑돌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삼국유사에 '사월 초파일부터 사월 보름까지 많은 사람들이 흥륜사의 탑을 돌며 복을 빌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신라 원성왕 시대 이전부터 있어왔다고 짐작할 수 있다.

특색

월정사탑돌이는 순수한 불교행사에서 민속화되어 민중 속에 자리잡은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점은 사찰이 없는 부락의 민속신앙으로 정착한 부락탑신제(마을 입구에 돌로 탑을 쌓고 주민들이 모여 농악과 가무를 하며 제사를 지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구성

(1) 삼보귀의(三寶歸依)
(2) 범패(頌子)
(3) 염불(念佛)
(4) 다게(茶揭)
(5) 서원(誓願)

내용

(1) 삼보귀의

반야심경을 외우며 스님과 신도가 입장하여 탑 앞에서 부처님과 달마, 승가에게 귀의하는 노래를 부른다. 신앙심이 두터운 신도들은 탑 앞에 예물을 바치며 탑을 돌기 시작한다. 스님도 신도들 사이에 섞여 탑을 돌며 사물(四物)을 울린다.

(2) 범패

'부처님께서 설산에 들어가/한번 앉음에 6년이 지남을 알지 못했다/밝은 별을 보고 진리를 깨달으니/부처님 말씀이 삼천 세계에 가득했다' 신도와 함께 탑돌이를 하는 스님은 범어로 된 범패(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불러 부처님을 찬양하고 신도들의 신앙을 북돋운다.

(3) 염불

탑을 돌며 스님과 신도가 일체가 되어 어느 사이 극락세계를 찬미하는 장엄염불을 함께 외인다. 청종은 스님이 선창하면 '나무아미타불'을 후창하며 탑을 돈다.

(4) 다게

강림해 계신 불보살께 다게를 부르며 차를 바친 여승은 이 노래에 맞춰 승무를 추며 부처님을 즐겁게 한다.

(5) 서원

신도들은 천수경을 외우면서 부처를 찬탄하고 자기의 소원을 빌면서 탑을 돈다. 여승은 천수바라춤으로 탑을 돌며 탑돌이를 장식한다. 스님은 사물을 더욱 크게 울려 부처님께 중생의 소원을 전한다. 이 바라춤을 끝으로 중생은 번뇌를 벗고 해탈을 위한 진어(眞語)를 외우며 퇴장한다.

놀이기구

4법악기, 삼현육각, 사물.

상조계놀이

민속놀이

이 상조계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에서 협동하여 그 지방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조계원은 한 세대에 한 사람씩 10명 내지 그 이상 많아도 좋다. 상조계 책임자는 임기 1년 또는 2년으로 하되 계원 중에서 선출하며 계장이 된 다음 계장은 외로우나 즐거울 때 계원들을 통솔하게 되며 계원간에 협동심과 단결심을 갖게 한다.

이 상조계 풍속은 수 백 년 전부터 이 지방에 전하여 온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그 지대에 논 밭에 물이 부족할 때는 계원들이 모여 샘을 파고 그 물을 용드레로 두사람이 소리를 맞추어 물을 퍼서 논에 모를 심는다. 논김을 맬 적에는 계장이 김매기 노래로 선소리

를 메기면 계원들은 모두 합창으로 후렴을 받음으로써 시간도 빨리 가고 일의 능률도 오른다. 그리고 농한기가 되면 여자들은 실을 뽑는 물레질을 할 적에 부르는 물레타령과 베틀을 놓고 베를 짤 적에 부르는 베틀가는 참으로 즐거운 노래이다.

끝으로 영변가는 평안북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리로 예로부터 많이 불러왔다. 영변 약산 동네는 유명한 산으로서 수백년 전부터 명승지로 알려져 있으며 상상봉에 올라가면 막바로 내려다 보이는 구룡강이 있고 왼편으로 멀리 보이는 청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으니 그 경치 절경이며 흥이 절로 겨워 누구나 노래가 절로 나오게 되니 영변가를 부르게 된다.

호미걸이소리

민요

유래

호미걸이소리란 우리나라 중부지방(서울·경기)에서 주로 전승되는 호미걸이중에서 불려지는 농요를 말한다.

호미걸이는 여름 농사가 거의 끝나 밭이나 논을 매는 호미가 필요없게 되어 씻어 둔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다른 명칭으로는 호미씻기, 대풀이 등이 있으며 김매기가 끝난 다음에 당제를 지내고 판놀음을 벌리며 풍농제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땀 흘려 일을 마친 다음 마을 전체가 마음 놓고 즐기는 이러한 대동놀음에서 우리 조상들이 지녔던 슬기를 엿볼 수있다.

아직도 옛 농요를 기억하고 있던 고로들에 의해 1977년에 다시 불려졌다.

특색

호미걸이소리는 선소리타령의 고형으로 생각되어진다.

바쁜 논농사의 일손을 마치고 실제 농사에 쓰였던 연장들을 들고 나와 넓은 마당에서 농악을 치며 가래질, 논갈이, 쓰레질 등의 흉내를 내고 멍석으로 만든 소가 등장하여 덩실 덩실 춤을 추는 등 민속놀이의 형태를 많이 담고 있다.

구성

(1) 긴소리
(2) 사두여
(3) 양산도
(4) 방아타령
(5) 놀놀이
(6) 자진방아타령
(7) 상사디여
(8) 자진놀이
(9) 몸놀이
(10) 휠휠이

내용

이번에 발표하게 되는 호미걸이소리는 호미걸이의 뒷부분인 애벌매기와 두벌훔치기에서 불려지는 농요다. 모갑이(선소리꾼)가 북을 치며 메기면 뒷소리꾼들은 양편으로 갈라서서 번갈아 소리를 받는다.

놀이기구

제금, 부쇠, 태징, 장고, 북, 날나리, 기잡이 등.

가산오광대

민속극

유래

가산오광대는 경상남도 사천군 축동면 가산리에 전승되는 가면극으로 일명 조창오광대라고도 한다. 통영오광대나 고성오광대 보다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산오광대의 역사에 대하여 이곳 고로들은 약 200~300년의 전통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확실한 문헌이나 기록은 없다. 그러나 가산오광대의 유래가 300년은 될 것이라는 설을 뒷받침해 주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퇴계 이황이 이곳으로 주유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의 사천현감이 퇴계에게 가산오광대를 보여주었더니 한양에도 이같은 탈놀이가 있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퇴계가 쉬어간 곳이 지금 구호에 남아 있는 쾌재정 자리라고 전한다. 또 다른 전설로는 가산 옆을 흐르고 있는 남강 지류에 궤짝이 떠내려와 마을 사람들이 열어보니 오광대 극본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때 마침 목섬에 귀양온 한양 양반에게 보였더니 그가 극본을 읽고 가르쳐 주어 그 후부터 오광대놀음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루마리로 된 극본은 약 한 발 쯤 되는데 그 대사에 의해 연희를 해 오다가 6.25 동란 때 유실되었으며 탈은 1960년대 말까지 전해졌지만 하나씩 다 없어졌다고 한다.

어떻든 음력 정월 초하루에 모시는 동제인 천룡제 직후에 시작하는 지신밟기가 15일에 연희되는 오광대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이 놀이의 역사가 긴 것

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가산오광대는 다른 어느 지방의 탈놀음보다도 가장 최근까지(1960년) 연희 되었으나 중간에 맥이 끊어졌다가 1971년에 다시 발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색

(1) 한국민속가면극은 양반에 대한 서민의 반항, 남편과 처첩간의 삼각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 파계승에 대한 풍자가 공통된 내용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사자무·먹중·상좌무·오방신장무·문둥이·영노과장 등이 지방에 따라 삽입된다. 이 중에서 가산오광대에 오방신장무·영노·문둥이과장이 있음은 가산의 탈놀음이 오광대계통의 가면극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오방신장무과장은 예전에 진주·마산·신반·초계오광대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가산 뿐이니 오방신장의 춤은 한국민속가면극에서는 유일한 것이 된 셈이다. 굿거리장단에 맞춰서 추는 신장무는 특이한 사위로 첫과장에서 연희된다.

(3) 가산오광대에는 사자무과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영노과장과 합친 것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영노과장의 대사는 딴 지방의 그것과 비슷하며 영노탈은 딴 지방의 사자탈이 그대로 영노역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노에게 양반이 잡혀 먹히는 데까지는 영노과장의 내용이며 황제장군을 잡아먹은 영노가 포수에게 사살되는 것은 통영오광대의 사자무과장과 같기 때문이다.

(4) 등장인물의 수가 5인인 경우를 보면 양반과장은 거의 같으나 가산의 양반은 3인으로 특이하다고 하겠다. 그 반면에 신장과 문둥이 그리고 무당이 각각 5인씩 등장한다. 이것은 오광대라는 명칭의 연유를 오행설에 두고자 하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가산오광대는 경남오광대와 동계임은 분명하면서도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진주와 구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흡사하다. 한국민속가면극의 할미영감과장에 있어서 첩으로 인해 본처인 할미와 싸우는데 태반의 경우는 영감이 할미를 때리거나 걷어차서 실신시키면 할미가 죽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가산은 광대에 있어서는 동티가 나서 영감이 죽으니 이러한 형상은 가산 뿐이다.

구성

(1) 제 1과장 : 오방신장무
(2) 제 2과장 : 영노
(3) 제 3과장 : 문둥이
(4) 제 4과장 : 말뚝이
(5) 제 5과장 : 중
(6) 제 6과장 : 할미·영감

내용

보관해 두었던 가면을 궤짝에서 꺼낼 때에는 연희자들이 모인 가운데 양반역이 간소한 고사를 지낸 다음 각기 배역의 탈을 차지한다. 그리고 초저녁에 공연을 알리는 뜻에서 '조창오광대'의 깃발을 앞세우고 말뚝이·양반·무당·풍물의 순으로 마을을 한바퀴 도는 길놀이의 형식도 있었으나 현재는 생략하고 하지 않는다

(1) 오방신장무과장

황계장군을 중심으로 사방신장이 제자리에서 춤을 춘다.

(2) 영노과장(탈의 모양은 사자와 같음)

영노가 춤을 추며 등장하여 '비-비-' 소리를 내며 무대를 돌아다닌다. 영노는 춤추고 있던 신장들을 차례로 물어 퇴장시키고 황제장군만 남는다. 영노가 황제장군을 잡아 먹으려 하면 황제장군은 쫓기면서 영노가 잘 먹는 물건을 들먹이다가 드디어 잡혀 먹는다. 이때 포수가 등장하여 영노에게 총을 겨눈다. 영노는 포수와 대치하여 승강이를 하다가 포수의 총에 맞아 쓰러진다.

(3) 문둥이과장

문둥이의 비참한 생활상을 표현한 장면이다. 입, 코, 눈, 귀, 팔, 다리 등이 심히 상한 문둥병신들 5명이 등장하여 장단에 맞추어서 처량하게 병신춤을 한바탕 춘다.

도 문둥이의 지휘에 따라 장타령도 하고 앉아서 이

가산오광대 (경남)



를 잡기도 한다. 이들은 부잣집 잔치에 와서 술을 많이 얻어먹은 뒤 투전놀이를 시작한다. 투전불림을 하며 즐기다가 서로 속임수라 하며 싸운다. 손님하는(천연두 앓는) 아이를 업은 병신 어딩이가 투전판에 개평을 청하자 도문둥이가 발로 차서 쓰러뜨린다. 어딩이는 화가나서 순검에게 고발하면 순검이 와서 병신들을 꾸짖으니 용서를 빈다. 순검이 잘 타이르고 퇴장한다. 어딩이가 다시 개평을 청하자 도문둥이가 나무라며 때린다. 어딩이의 고발로 순검이 다시 와서 포승하고 퇴장한다. 한국가면극 대사에 장타령과 투전불림이 삽입되는 곳은 가산오광대 뿐이므로 타령사를 소개한다.

일자나 한장 들고 보니
일일송송 화송송 밤중 샛별이 완연했다. 품바품바
이자나 한장 들고 보니
이등저등 북을 치고 행노기생이 춤을 춘다.
품바품바
삼자나 한장 들고 보니
삼한에 실령도 실령 광대 중에는 어른이다.
품바품바
사자나 한장 들고 보니
사간천장 관운장 적토마를 빌려 타고 와룡 선생 찾아간다. 품바품바
오자나 한장 들고 보니
어말오 오신 사또 오륜을 살피시오.
품바품바
육자나 한장 들고 보니
육관대사 성진이가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 품바품바
칠자나 한장 들고 보니
칠년대한 가물적에 옥수같은 빗 방울이 여기 저기 뚝떡, 품바 품바
팔자나 한장 들고 보니
파랑파랑 파랑새야 녹두꽃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품바 품바
구자나 한장 들고 보니
구곡에 학이 되어 떠 수룩룩 날아 가서 임계신 데 가고져. 품바 품바
장자나 한장 들고 보니
키크고 늙은 중놈이 아랫목에 똥싸놓고 웃목으로 기어가며 안쌌다고 떼를 쓴다. 품바 품바

〈투전불림(일부만 소개)〉

호박씨같은 일자
도구떼같은 이자
뱃놈의 돛이 삼자
선배 같은 사자
각시 대가리는 오자
뱃놈의 수염은 육자
개발같은 칠자
반달같은 팔자
중놈의 대가리 구자
거적데기 같은 장자

(4) 말뚝이과장

양반을 모독하는 말뚝이 재담의 장으로 양반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 하인 말뚝이가 들어와 문안드리고는 '생원님을 찾노라고 방방곡곡을 편답하다가 미나리꽝 뒷골목 돼지막 위에서 죽을 먹 노라고 훌쩍 훌쩍 합니다'라고 하여 상전을 돼지에 비유한다. 말뚝이는 다시 양반의 부인을 모욕하기를 '……자세히 쳐다보니 세안님 마누라가 분명하기에 이내 말뚝이가 배우에 더덩실 싣고 둥둥캥캥' 이라 희롱한다. 이어 말뚝이가 외설스런 말로 양반의 신분을 야유하면 양반은 이에 맞서 양반의 지체와 재주를 자랑하다가 함께 춤을 추며 퇴장한다.

(5) 중과장

파계승의 장으로 소무가 서울 애기를 데리고 들어와서 춤을 추는데 상좌가 노장을 모시고 등장한다. 노장이 서울 애기를 유혹하여 업고 달아난다. 말뚝이에게 잡혀온 노장은 매를 맞고 양반에게 꾸지람을 들은 뒤에 음양타령을 부르며, 굴갓 염주 염주 죽장을 차례로 던지고는 마지막으로 썼던 가면까지 벗고 여러가지 단가를 부르며 속화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리꾼이 뛰어들기도 한다.

(6) 할미·영감과장

할미가 궁둥이춤을 추면서 등장하면 마당쇠(아들)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외설스런 대화를 주고 받는다. 할미가 물레질을 하는데 옹생원(봉사·신장수)이 와서 외상값을 청하며 할미를 희롱한다. 마당쇠가 옹생원이 준 돈으로 과자를 사 먹고 배앓이를 하니 의원이 와서 침을 놓아 고친다. 영감이 서울 애기를 데리고 들어와서 마당쇠를 시켜 할미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할미는 여러 번 거절하다가 마침내 서울 애기를 용납한다. 옹생원이 또 신값을 받으러 온다. 영감이 재산을 분배하되 좋은 것은 모두 첩에게 주려 하자 할미는 반발한다. 영감이 홧김에 가장집물을 부수다가 동티로 까무러친다. 옹생원을 불러다가 괘를 빼고 독경하였으나 효험이 없어 죽는다. 무당들이 나와서 오구굿을 한다.

이상으로 6마당의 연희가 끝나면 연희자와 관중이 어울려 가무하는 판굿을 벌인다.

놀이기구

꽹과리·징·북·장구 등의 악기 등.





농악등 민속놀이는 서울올림픽대회 개회식에 활용되었다.

조밭다지는 노래

민요

유래

제주도의 농토는 대체로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흙이 푸석푸석하여 씨앗 뿌린 밭을 잘 밟아줘야만 씨앗이 바람에 미지 않고 모세관현상에 따라 발아도 잘되고 싹이 제대로 자란다.

비가 내리면 알맞은 물기에 밭을 갈아 좁씨를 뿌리는데, 토질에 따라서는 흙덩이도 뭉클뭉클 일어난다. 이 흙덩이는 곰방메로 부수어야 하는데, 이 작업과 더불어서 농부들은 '흙덩이 바수는 노래'를 싱싱하게 부른다.

또한 드러난 잡초는 모조리 매어 치운 다음 조씨를 뿌린 농부들은 '섬피'라는 농기구를 끌면서 좁씨를 덮고 밭이랑을 눕히고, 평평해진 밭을 여남은 마리의 마소떼를 이끌고 구성진 민요가락과 함께 밭밟기를 한다. 이 때 불렀던 민요가 '밭밟는 노래' 또는 '조팥(밭) 다지는 노래'로 전해온다.

특색

밭밟는 노래는 좁씨를 파종한 다음 마소떼를 앞세우고 농부들이 밭을 밟으며 부르는 제주도 특유의 원시적 노동요다. 해마다 6월 중순경, 따가운 첫여름의 햇볕을 내리쬐는 제주도의 들판에서는 남녀노소 농부들이 몰리면서 훈훈한 지열이 솟는 밭을 단단히 밟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이때 "어러려려려 어어헐아량.." 하는 구성진 노래가 들과 바다로 메아리쳐 흐른다.

밭밟는 노래나 흙덩이바수는 노래는 가사 내용이 대체로 산만하며 작업실태에 관한 것이며, 드물게 전승된다는 것이 특색이다.

구성

조밭다지는 노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1) 밭밟는 노래
(2) 흙덩이 바수는 노래
(3) 김매는노래

내용

밭밟는노래와 흙덩이 바수는노래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밭밟는노래
.핸서산으로 져 가곡
밧은 요모양이로고나
요놈의 몰덜아
해지는중은 몰르곡
밧볼리는중은 알암고나
어려려려려 어허어량하아량
어려려려허허 려열열열려열
어허어허어어허령 어허아량어려려돌돌
요말덜아 어디레봐시니
정신차령 발려도라
발려난디 발려가멍
간디가곡 온디오멍
우리마쉬 죠잘발리곡
저산에 한조가게
오료오료오료오 어허어헤에에
어허에에량하량 어려려어허얼
어려려려어허려 어려려허허허
어려어하량패량 어려허어어려헛
숭엇이 발려주게
제석님이 처분하영
낭기랑 구릿대가찌
욜음이랑 무쉬욜음
지켜주게 하여줍서
그럭저럭 발렴시난
어느동안 다발려졌고나
어려려려려려 어허어량하아량
어려려허허허 려열려열려열
어허어허허령 어허아량어려려와와와
2) 흙덩이바수는노래
서두리도 더점마여
서궁아기 더렴마여
요벙에영 제법에영
한자한자 바수아지라
부돌고뜬 요벙에덜
박달곰베 메여들멍
큰벙에영 잔벙에영
바삭바삭 바수아보자
수산봉에 뜬 구름은
비올구름 아니든가
드르헤에 상고지는
마히가둘 근본이여
유월벳살 맞아가멍
꼬리시리 볼려놓곡
마가지나 돼여 줍서
고고리랑 나거들랑
씨돌고찌 마께만썩
우리모두 노력하영(후략)

19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8. 10. 19 ▶ 10. 21
춘천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9. 10. 19–10. 21.
춘천

대통령상
위도띄뱃놀이(전북)–민속놀이
국무총리상
평창농악(강원)–농악
문공부장관상
진도만가(전남)–민요
고성농요(경남)–민요
거북놀이(경기)–민속놀이
하회별신놀이(경북)–민속극
은율탈춤(황해)–민속극
장려상
애원성(함북)–민요
속리산탑놀이(충북)–민속놀이
동래지신밟기(부산)–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서도민요(평북)–민요
긴아리(평남)–민요
북평원님놀이(강원)–민속놀이
정수암화전놀이(제주)–민속놀이
대보름놀이(함북)–민속놀이
강령탈춤(황해)–민속극
평양다리굿(평남)–민속놀이
강릉관노가면희(강원)–민속극
보부상놀이(충남)–민속놀이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정선아리랑(강원)–민요
검질메는노래(제주)–민요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공로상
검질메는노래(제주)
북청사자놀음(함남)
개인상
라창주(정선아리랑, 강원)
이규석(보부상놀이, 충남)
문육지(송파산대놀이, 서울)

위도띄뱃놀이

민속놀이

유래

서해안의 섬 위도는 한 때 조기잡이의 칠산어장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현재는 멸치잡이와 김 양식으로 주업이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조기잡이가 주를 이루었다. 많은 배가 모여들었으며, 파시로 성황을 이루었던 곳이다.

위도는 내륙에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고유의 풍속을 잘 지니고 있기도 하다.

위도 띄뱃놀이는 당젯봉의 원당제와 바닷가의 용왕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띄뱃놀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용왕제 후에 마지막으로 띄배를 바당에 띄워 보내는 데에 연유한 것이다.

띄뱃놀이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문헌상으로 기록된 것이 없어,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 노인들이 얘기로는 고기잡이를 생업을 삼았던 먼 조상 때부터 있어왔던 풍어기원제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위도 앞바다는 조기잡이의 칠산어장으로 유명했던 곳이어서 한 때는 큰굿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조기잡이의 쇠퇴와 함께 큰굿이 없어지고 당제까지도 시들해진 적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나타나는 도둑들의 침입(해적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시 '이도곤'이라는 마을의 이장이 나서서 다시 주민들을 단합시키고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줄다리기를 포함한 띄뱃놀이를 부활시켰다고 한다.

위도띄뱃놀이 (전북)



특색

위도의 띄뱃놀이는 산에서의 당굿과 바닷가에서의 용왕굿에 주를 이루는 풍어제이다.

당굿은 배에서 1년 동안 모시게 될 뱃신의 서낭을 내림 받고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이다.

용왕굿은 마을의 모든 액을 떨쳐버리고 바다의 죽은 원귀를 달래는 한편,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이다.

이 용왕굿은 주도적 참여자가 부녀자인 것이 특색이다.

구성

원당굿, 용왕밥과 주산 돌기, 용왕굿과 띠배 보내기 등의 세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 놀이의 준비 단계인 마을회의와 제물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 하면 마을 회의에서는 그 해에 행할 놀이의 규모와 자금 문제를 토의하고, 제물 준비의 엄숙함이 특히 강조되기 때문이다.

내용

(1) 마을 회의

위도 띄뱃놀이의 준비는 이미 전해 섣달 10일, 그러니까 20여 일 전부터 시작된다.

마을에서는 원당제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섣달 10일께 주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마을의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은다. 정기 총회에는 마을 이장과 어촌계장, 청년회장, 띄뱃놀이 보존 회장 등 지도급 인사들과 배를 소유한 선주들이 참석하게 된다. 이 정기 총회에서는 제의의 규모를 간소화해서 약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전통적인 제의의 계승을 위해 원상태로 하느냐 등의 문제와 비용, 부담 범위 등을 결정한다.

(2) 제물준비

이장으로부터 제비를 받은 제만(제주)은 제일 5일 전쯤 줄포면으로 제물을 구입하러 간다. 제물 구입은 제만과 원화장 두 사람이 맡아서 한다. 두 사람는 줄포의 깨끗한 제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제만의 집에 보관한다.

섣달 그믐날에도 무녀와 제만이 제사에 쓰일 띄배밥, 도제밥, 허드래밥 등의 쌀과 원당제와 도제에 쓰일 떡쌀과 술, 그리고 삼색과일을 분류한다. 다음 날인 정월 초하룻날에는 원화장과 부화장 등이 떡쌀을 찧는다.

(3) 당산행

초사흗날 새벽 일찍, 준비해 놓은 메를 비롯하여 기타 제물과 제기, 양초등 제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추어 가마니에 넣어 짐을 꾸린다. 원당에 오르는 인원 수에 따라 당에서 먹을 음식도 준비한다. 무녀·제만·화장·농악대들이 먼저 나와 악기 소리 요란하게 농악을 울리면 이들 작은 어촌 마을이 금새 떠들썩해진다. 오색 뱃기를 든 선주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바로 이어 원당을 향해 산을 오른다.

(4) 제물차림

무녀와 제관 일행이 원당에 도착하면 무녀는 곧 당집 안의 제단에 제물을 차리는데, 그동안 밖에서는 막걸리를 준비해 놓는다. 한쪽에서는 돌을 괴어 철판을 올려 놓으면 긁어모은 나뭇가지로 불을 피워 돼지고기를 익힌다.

제물은 메와 시루떡, 생선전, 각종 나물과 삼색 과일로 차린다. 각 당신도 앞에는 돼지 날고기를 길쭉하게 잘라 한지와 함께 걸어 놓는다. 그리고 장군서낭 아래는 다시 돼지머리를 살짝 익혀 머리 위쪽에 식칼을 꽂아 올려 놓는다.

(5) 원당굿

당 안의 제단에 제물이 모두 차려지고 나면 제만이 초에 불을 켠 뒤에 술잔을 바쳐 올리고 2번 절을 한다. 그 다음에는 독축관이 축문을 읽고 역시 2번 절을 한 후 무녀의 원당굿에 들어간다.

당굿은 무녀 한 사람이 장고와 징의 장단에 맞추어 성주굿부터 시작한다.

굿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성주굿→산신굿→손님굿→지신굿→서낭굿→1, 2, 3→깃굿→문지기굿

(6) 용왕밥과 주산 돌기

당굿이 끝나면 한바탕 농악을 하면서 내려온다. 이때 제관은 한지에 싼 당밥을 물고 마을의 동쪽에 위치한 바닷가의 용왕바위 위에서 용왕밥을 바다에 던진 후 절을 한다.

용왕밥을 던진 후에는 주산 돌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산 돌기는 제관과 농악대, 뱃기의 행렬이 마을 뒤의 산언덕 쪽을 한 바퀴 도는 것을 말한다.

(7) 용왕굿과 띄배 보내기

용왕굿은 역시 원당굿의 무녀가 바닷가의 띄배 옆에 젯상을 차리고 진행하는데, 부녀자들은 춤을 춘다.

용왕굿을 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바다를 향해 가래질 소리, 술배노래, 에용노래 등을 부른다. 또 한 쪽에서는 춤을 추며 떠들썩하게 큰 놀이마당을 벌인다.

해가 기울 무렵 용왕굿이 끝나고 제물을 바다에 고수레 한 후에는 띄배를 바다에 내리고 모선이 끌고서 바다 한 가운데로 나아가 멀리 보낸다.

놀이 기구

띄배는 길이 3m, 폭 2m 정도의 띠풀과 짚, 싸리나무 등으로 만든 길쭉한 배이다. 이 놀이에도 기, 풍물, 제수 등과 굿을 위한 많은 소도구들이 필요하다.

평창백옥포농악

농악

유래

평창군 봉평면 백옥포 부락은 험준한 태백산맥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날부터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해 온 곳이다. 이 마을은 율곡 선생을 모신 봉산서원과 판관대가 보존되어 있으며 현대 한국문단에 큰 빛을 남긴 작가 이효석의 출신지이자 묘소가 자리하고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토지가 비옥하고 주민의 단합과 협동심이 강한 이 고장은 옛날 부족국가시대 태기왕이 취락을 형성했다는 전설과 함께 일찍부터 농악을 조직, 정월 대보름과 8월 한가위 등 각종 명절에 농악을 즐겨온 곳이다

1930년대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이 고장 농악놀이도 일시 중단되었으나 8.15 해방과 더불어 다시 조직,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색

(1) 영동농악의 특색에 영서, 경기농악의 특징이 함께 섞여 있다.

(2) 넓은 들판이 없는 지역적인 제약으로 이곳 농악은 웅장하거나 역동적이기 보다는 정적이며 소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성

(1) 당맞이굿

(2) 농사놀이

(3) 진놀이

(4) 여흥

내용

(1) 당맞이굿

먼저 인사를 한 후 율곡제 화제 맞이굿을 한다.

(2) 농사놀이

논가리, 논뚝가래질, 못자리논써리기, 볍씨뿌리기, 본답써리기, 모찌기, 밥먹고 담배피우기, 모심기, 논김매기, 낫갈고 벼베기, 벼광이기, 태치기, 방아찧기 순으로 진행된다.

(3) 진놀이

태기왕성놀이, 팔진도, 당산진 등 진놀이를 한다.

(4) 여흥

마당밟고 집구리굿, 자매놀이, 열두발 상모 돌리기, 황덕굿의 순으로 여흥놀이를 하며 황덕굿을 끝으로 이 농악은 끝난다.

진도만가

민속놀이

진도는 우리나라 서남단의 다도해상에 위치한 섬이지만 예로부터 "노래와 소리의 고장" "민속과 서화의 고장"으로 이름난 멋의 고향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고유한 민속과 다양한 민요가 전승되고 있어서 민속학 내지는 구비문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제 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을 계기로 발굴, 첫선을 보이는 '만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민요의 일종이지만 운구형태라든가 불리어지는 노래가 특이해서 민속학과 민요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상여를 메고 갈때 다른 지방에서는 남자만이 향두꾼이 되고, '만가'의 선창자는 요령이나 북을 치면서 메김소리를 하지만, 진도에서는 여자도 향두꾼으로 참여하고 만가의 연주악기로 사물(징·꽹과리·북·장고)과 피리가 등장하여 메김소리와 뒷 소리를 뒷받침 해준다. 뿐만 아니라 가면을 쓴 '방장쇠' 두 사람이 조랑말을 타고 춤을 추는가 하면 횃불이 등장하고 상주들의 상복 또한 특이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고유한 민속 놀이가 갈수록 소멸되어 가고 있고, 또 만가의 가락조차 변질되어 가고 있어서 안타까이 여긴 나머지 이를 재현하고 정립화 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불리어지는 '만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진염불 (진양조) ②중염불 (중모리) ③애소리 (중모리) ④재화소리 (중모리)

⑤하적소리 (늦은 중모리) ⑥다리천근소리 (중중모

진도만가 (전남)



리) ⑦아미타불 (중중모리) ⑧달구질소리 (중모리) ⑨달구질 소리 (중중모리) ⑩잦은 달구질 소리 (잦은 모리)

진도의 상속과 만가의 특색을 든다면

첫째 : 상복이 특이하고

둘째 : 여자가 향두꾼으로 참여하고

세째 : 가면을 쓰고 조랑말을 탄 방장쇠가 둘이 칼춤을 추면서 수괴하며

네째 : 마른 쑥대로 만든 횃불에 등장하고

다섯째 : 만가의 종류와 가락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판소리 장단과 같으며

여섯째 : 만가속에 무불이 융합되어 있고

일곱째 : 연주악기 사물과 피리가 등장하여 반주를 담당한다는 등등을 들수가 있겠다.

여기에 불리어지는 '만가' 가사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긴염불

선창

재해보살

재해보살이로고나

남우여

다냐타

남우 남우여

아미타불

〈후렴〉

재해보살

재해보살이로고나

남우여

다냐타

남우 남우여

아미타불

늙어늙어 말년주야

다시젊기 어려워라

하날이 높다해도

초경에 이슬오고

유경이 멀다해도

사시행차가 왕래허네

(2) 중염불

선창

남우야 남우여

남우아미타불

후렴

남우야 남우여

남우아미타불

산에 나무를 심어 유전유전이

길러내야고물고물단청일세

동에로 뻗은 가지

복토봉살 열리시고

남에로 뻗은 가지

화보살 열었네

서에로 뻗은가지

금호보살 열리시고

북에로 뻗은가지

수호보살 열었네

일탄남 이거문

삼녹주 사영장

오목궁 육폐관으로

하감 통촉하소사

(3) 애소리

선창

애~애~애애~애애야

애~애~애애~애애야

~애애 애야

후렴

애~애~애애~애애야

애~애~애애~애애야

애야 애야

옛 늙은이 말 들으면

북망산천이 멀다든디

오날보니 앞동산이 북망

여보소 상도꾼들

너도죽으면 이길이요

나도죽으면 이길이로다

가시실래 못가것네

차마설어 친구두고는

못 가것네

어이를 갈꺼나

어이를 갈꺼나

심산험노를

어이 갈꺼나

날짐승도 쉬어넘고

구름도 쉬어넘는

심산험노를

어이를 갈고

삼천갑자 동방석은

삼천갑자 살았는데

요내나는 무삼죄로

백년는 못사는고

(4) 재화노래

선창

피리
후렴
재화좋네 좋을시구
명년소상 날에는
다시만나 보자세라
재화좋네 좋을시구
명년소상 날에나
다시만나 보자세라

(5) 하적노래
선창
하적이야 하적이로고나
새왕산 가시자고
하적이로고나
후렴
상기와 동일
동네방네 하직하고
살던집도 다 버리고
새왕산 가시자고
하적(하직)을 허네
일가친척 다버리고
처자식들 이별하고
새왕산 가시자고
하적을 허네

(6) 다리천근노래
선창
아~아~아 애~애요
아~아~앵~애애요
천근이야 천근이요
후렴
깊은 물에 다리놓아
만인공덕에 다리천근
쉬여넘자 쉬여넘어
다리천군에 쉬여넘자
반야종선은 물위에띄고
다리천근에 쉬여넘자
반야종선을 물위에 띄고
다리천근에 길을닦세
동갑에천근 갑장에천근
한님에 다리천근

(7) 아미타불노래
선창
남무아미타불
후렴
간다간다 나는가
북만산천을 나는가
허망하다 인생살이
아적나갈 성튼몸이
저녁나잘 병이들어
이내 목숨을 뺏어가니
몹쓸열의 병이로다
어떤동갑은 백년도산디
이놈팔자 어이하여
단 팔십도 못사는고
친구벗네 많다한들
어느친구 대신가면
일가친척 많다한들
어느일가 대신갈까

(8) 달구질소리
선창
어이기야 해-
가래로고나
후렴
선창
일새동방 닥굴절에
청용한쌍이 들었으니
용해머리 걷힐손가
아라감실로 닦아주소
이새남방 닥굴절에
거북한쌍 들었네
거북머리 걷힐손가
아라감실로 닦아주소
삼새서방 닥굴절에
두꺼비한쌍 들었네
두꺼비머리 걷힐손가
아라감실 닦아주소
사새서방 닥굴절에
업애머리 걷힐손가
아라감실로 닥아주소

(9) 달구질소리
선창
어이기청청 가래요
후렴
어이기 청청 가래요
앞에앞주산 바라보니
문필봉이 비쳤구나
대대문장도 날명장
옆에 옆주산 바라보니
노적봉이 비쳤으니
대대장자도 날명당
뒷산을 바라보니

노인성이 비쳤구나
백발당산도 날명당
(10) 잦은달구질소리
선창
어이청청 가래요
후렴
어이 청청 가래요
만첩청산에 깊은골
두개비업도 닦아보세
앵면 쟁쟁 요란한
깐치업도 닦아보세
반월 울리주라
반달이 구름속에
묻어있는 성국이요
와우 동초 하니
초동아이 풀비어갖고
소앞에 가는 성국
갈마운수성은
목마른 말이 물먹는 성국
대포 연풍이라
탄탄 대추애
바람맞은 성국이라
노계 탈곡성은
늙은 장닭이
지네쫓는 성국이요

고성농요

민요

유래

일명 '등지'라고도 하는 고성 농요는 고성지방 고성평야를 중심으로 농부들이 농사일의 고달품을 달래면서 부르던 민요이다.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구전에 의하면 1918년경 이진찬이란 사람이 고성들판에서 이 농요를 불렀는데 길가던 행인들이 농요에 도취되어 걸음을 멈추고 해가 지는 줄을 몰랐으며 행인 중의 한 사람이 그 노래에 감탄하여 이진찬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사위로 삼았다고 한다. 또한 일설에 의하면 조선 말엽, 통영으로 가던 경남감사 행렬이 고성들판을 지나다가 고성농요에 도취되어 행렬을 멈추고 노래를 듣다가 날이 저물어 촌가에서 밤을 세웠으며 농부들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고 전한다.



고성농요 (경남)

지금의 고성농요는 고성지방 몇몇 고로들이 부르던 노래를 김석명, 김종소 씨 등이 고성 전역의 마을을 찾아다니며 수집, 정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1977년에는 고성농요전수회가 발족되어 사라져가는 농요의 채집 및 발굴, 정리와 함께 전수에 힘썼으며 향토문화의 발굴과 계승에 큰 공헌을 하였다.

특색

고성농요는 다른 지방의 농요와는 달리 하루의 작업 중 아침, 점심, 저녁 때의 노래가 각각 다른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며 부녀자들의 '삼심기', '물레노래'는 시집살이의 고달품과 조상숭배를 강조하고 있다.

구성

(1) 모내기
①모찔때의등지
②모심기등지
③해거름등지
(2) 도리깨타작
(3) 삼심기
(4) 논매기
①상사디여
②방에타령
③치기나칭칭
(5) 물레질

내용

(1) 모내기
①모찔때의등지

협동단결하여 모찌기 작업을 빨리 하자는 내용이 노래로 '모찔때의등지 1'은 긴 등지로, '모찔때의 등지 2'는 짧은 등지로 부른다. '모찔때의 등지2'는 주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있는데 받는소리인 후렴은 합창으로 한다.

②모심기등지

'모심기 등지 1'은 긴등지로, '모심기 등지 2'는 짧은등지로 부른다. 둘 다 주는소리, 받는소리가 있고 '모심기 등지 2'는 점심 때가 가까와졌을 때 부르는 '점심등지'이다.

③해거름등지

저녁 무렵 부르는 등지로 주는 소리와 받는소리가 있다. 모꾼들이 집안일이 염려되어 모내기를 빨리 끝내려는 심정이 담겨 있다.

(2) 도리깨타작

타작꾼들이 도리깨질을 하면서 부르는 흥겨운 가락의 노래이다.

(3) 삼심기

부녀자들이 삼심기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이웃간의 인정과 죽은 부모에 대한 효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4) 논매기

일꾼들이 논매기 작업을 하면서 상사디여와 방에타령을 부르고 난 다음 풍작을 기원하며 치기나칭칭노래를 한다. 이때 큰머슴을 붙들고 괭자루를 태우고 한바탕 즐긴다.

①상사디여

후렴이 '상사디여'로 끝나며 흥겹게 일하는 광경이 노랫말에 담겨 있다.

②방에타령

후렴이 '오방에'로 끝나며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의 노래이다.

③치기나칭칭

일꾼들이 흥을 돋우기 위해 '치기나칭칭나네'라는 후렴을 넣어 부른다.

(5)물레질

물레질을 하면서 '물레노래'를 합창으로 한다. 이 노래는 며느리가 겪는 시집살이의 고달픔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노래한 것이다.

놀이기구

실제 모내기, 도리깨타작, 삼심기, 논매기, 물레질을 재현할 때 필요한 소도구들.

은율탈춤

민속극



은율탈춤 (황해)

유래

은율탈춤은 황해도 은율지방에 전승되던 가면극이다. 그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300년 전 난리 때 난을 피했던 사람들이 섬에서 나오면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탈을 쓴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세시풍속의 놀이적인 측면에서 보면 4월 초파일이나 7월 백중날에도 탈을 쓰고 놀았으나 주로 단오절의 대표적인 놀이로 전승되었다.

은율에서는 '놀탈'이라는 말을 써왔는데 그것은 '탈놀이군' '한량' '건달'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색

(1) 개장이 벽사무인 사자춤으로 시작하여 팔목중춤 다음으로 양반춤이 나오는 것은 강령탈춤과 은율탈춤 뿐이다.

(2) 다른 가면극에서는 노승과정에서 소무가 취발이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보통이나 은율탈춤은 양반과정에서 아씨역인 새색시가 원숭이와 음란한 수작을 하여 아이를 낳는다.

이는 파계승보다 양반을 모욕하는 것으로 양반과 상민간의 대립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있다.

(3) 다른 가면극에서 노승은 무언이나 은율탈춤에서는 노승이 국화주를 취하도록 마시고 중타령과 진언을 소리내어 왼다.

(4) 가면(탈)은 황해도탈과 비슷하나 도안에 지방색이 짙게 깔려 있다.

구성

(1) 사자춤
(2) 헛목(상좌) 춤
(3) 8목중춤
(4) 양반춤
(5) 노승춤
(6) 영감·할미춤

내용

(1) 사자춤

몸체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가는 흰 사자가 등장하여 타령·잦은 돔부리장단 등에 맞춰 한바탕 춤을 춘다. 몸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가는 큰 사자는 구월산을 중심으로 한 안악·장연·신천·문화·송화·풍천 등 7곳에 전승되었다.

(2) 헛목(상좌)춤

헛목이 나와서 염불고에 맞추어 사방에 배례하는 춤을 춘다.

(3) 8목중춤

은율의 8목중은 다른 지방과 달리 첫째 목중의 행동이 끝나면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덟째 목중이 나올 때까지 함께 모여서 군무를 추게 된다. 8목중이 모두 모이면 전원이 타령장단에 맞춰 목중춤을 춘다. 이 8목중과 장은 전반적으로 절간에서 수도를 하고 있던 중들이 세속적인 유혹에 이끌려 놀이판으로 내려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4) 양반춤

이 과장은 다른 탈춤에서는 보기 어려운 몇가지 특징이 있다.

말뚝이가 나와서 수인사로 춤을 추고 퇴장하면 양반 삼형제가 나와서 어울려 논다. 이때 말뚝이가 난데없이 등장하여 팔도강산 구경하던 내력을 이야기 하면서 한바탕 놀고 가겠다고 말한다. 한참 춤을 추다가 퇴장한다. 여기까지는 양반의 종인 말뚝이가 주인집을 나와 팔도강산을 두루 돌아다니다 놀이판에 나타나게 된 과정을 엮은 내용이다. 말뚝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양반들은 비로소 종을 찾아낸 기쁨을 나타내며 그를 부른다. 그런데 말뚝이는 주인 앞에 공손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첫째 양반의 머리를 때리고 둘째 양반 앞에서는 방귀를 뀌는가 하면 세째 양반을 땅바닥에 갈아뭉갠다. 이처럼 말뚝이는 주인에 대하여 거침없는 반항과 야유를 드러낸다. 세째 양반은 새색시를 불러 말뚝이에게 양보하겠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양반의 무능을 성불구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말뚝이는 새색시를 차지하여 새색시를 음란한 짓을 한다. 원숭이가 등장하여 새색시를 가로채자 말뚝이는 도망치고 새색시는 다시 음란한 짓을 한다 원숭이가 퇴장하면 새색시가 배앓이를 하다가 아이를 낳는다. 이때 최괄이 나타나 자기의 아이라고 한다. 그는 아이에게 꼿꼿이 서 보라는 뜻에서 '꼬둑이 타령'을 불러준다. 노래가 끝나면 새색시와 어울려 춤을 춘다.

제 4과장은 양반의 무능을 폭로하는 한편 성적인 유희를 통해 서민 감정의 이면을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노출시키고 있으며 놀이를 통해 충만된 생산적 의욕을 상징화시키고 있다.

(5) 노승춤

노승이 국화주에 취하여 산에서 내려오면서 '중타령'을 부른다. 취중에 순서가 뒤바뀐 염불을 외기도 한다. 말뚝이와 목중은 노승을 놀려주기 위해 새색시를 나오도록 한다. 새색시의 적극적인 유혹에 빠진 노승은 남성을 과시하는 몸짓을 하기 시작한다. 말뚝이와 목중을 때려 내쫓는 등 갈등이 고조되어 갈 때 최괄이가 등장하여 노승과 겨룬다. 결국 치열한 싸움 끝에 최괄이가 새색시를 빼앗아 아내로 삼는다.

제 5과장은 민요의 전통이 강한 은율지방 특징을 극적인 분위기로 살리면서 중에 대한 비판과 서민들의 현실의식등을 첨예하게 나타내고 있다.

(6) 영감·할미춤

영감이 팔도유람을 다니고 있을 때 할미가 영감을 찾아다니다가 서로 만난다. 할미는 반가움에 '나니가 타령'을 부르며 교태를 부리는데 그 순간 영감의 첩인 뚱딴지집이 정말 뚱딴지같이 나타나 먼저 영감의 품에 안긴다. 두 여자가 서로 시기질투하여 다투자 최괄이와 말뚝이가 나와서 진짜 본부인 여부를 판가름짓게 된다. 최괄이의 확인에 의해 할미가 본부인임이 밝혀지자 화가 치민 뚱딴지집은 할미의 뒷덜미를 때려 즉사시킨다. 영감은 극락세계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굿이나 하자고 무당을 불러들인다. 무당이 나와서 진오귀굿을 하게 되고 영감과 뚱딴지집에게 공수도 해준다. 무당굿이 끝날 무렵에는 뒷놀이로서 출연자들 전원이 등장하여 목중춤을 추기도 한다.

놀이기구

탈과 그에 따른 복색 등.

긴아리

민요

이 노래는 평안남도 서해안에 위치한 용강·강서·평원 지방에서 많이 불리우는 것으로 밭에서 김 맬때 부르는 노작 가요의 하나이다.

잔가락을 섞어 매우 느리게 부르기 때문에 일종의 푸념처럼 들리는 것이 이 소리의 특징이다. 장단도 없다.

긴아리가 끝나면 곧 자진아리를 잇대어 부르는데 타령 또는 감내기라고도 부른다.

장단은 긴아리 모양 장고 장단이 없으나 소리의 세로 보아 도드리 또는 중모리가 맞는다고 한다.

북평원님놀이

민속놀이

유래

북평원님답교놀이는 강원도 동해시 북평지방에 전하던 민속놀이로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1922년까지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놀이를 하게 된 동기는 구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말 이 지역의 행정구역은 도상·도하·견박면 3개면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지방에서는 옛부터 고을 원님을 한번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 양반들의 관직에 대한 소망을 메워주자는 구실로 이 놀이가 정월 대보름을 기하여 3개면이 똑같이 거행되었다고 한다. 이 놀이의 역사적 배경은 고려 때부터 있어온 답교놀이라 볼 수 있다. 고려 때 부터 대보름이면 자기 나이대로 다리를 밟으면 집안의 재앙을 막고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리밟는 민속풍습이 전해왔는데 1630년에는 남녀가 한밤에 만나게 되어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다리밟기를 금지하였다 그후에 원님놀이로 이름을 바꾸고 다리만 밟는 것이 아니라 이 날 하루를 즐기며 주민이 소망도 기원하고 옛 풍습도 되찾는 의미에서 원님놀이가 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원님놀이를 댁교놀이라고도 부르는 데서 알 수 있으며 댁교는 답교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특색

(1) 이 놀이는 지방양반들의 사회진출의 소망을 재연시킨 것으로 양반들이 주도하던 민속놀이다.

(2) 관원이 되고 싶어하는 동경의 놀이로서 관과 민이 서로 협조할 수 있음을 놀이 속의 놀이로 표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구성

(1) 마당놀이
(2) 길놀이(부임행차)
(3) 도임놀이
(4) 들놀이
(5) 답교놀이

내용

매년 정월 대보름 직전에 그 부락에서 재정능력이 있고 덕망과 학식을 갖춘 자를 부락민들이 가상 원님으로 선출하게 된다. 선출된 원님은 온 집안의 축하를 하면서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 당선을 축하하러 오는 부락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 순서부터 본 행사가 시작된다.

지신밟기로 원님집 마당에서 한 바탕 풍악을 울리며 놀다가 원님을 가마에 태우고 원님행차를 한다.

마을로 나와 부유한 집안을 골라 찾아다니며 지신도 밟아주고 억울한 주민의 원성도 해결해 주는 재판놀이 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내용의 놀이를 한다.

놀이를 계속하다가 해가 질 무렵쯤 북평다리(당시 굴다리)를 향하여 행차한다. 고증자에 의하면 '당시 원님놀이 행차의 행렬이 십리에 줄을 이었다'고 하니 전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민속놀이 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3개 면 에서 이와같은 행렬이 북평다리로 집결하게 된다.

이렇게 원님행렬이 서로가 먼저 다리를 점령하기 위하여 때로 싸움도 하고 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주민이 다리를 마음껏 밟으며 소원을 빌었다.

정수암화전놀이

민속놀이

이조시대 정의고을은 현청소재지로서 약 오백년간 원님(현감)을 두어 치민하던 구읍지이다. 예로부터 춘절이 되어 (음력 3월 3일) 백곡의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면 초록이 짙어지고 꽃들이 만개할 즈음이면, 정의원(정의현감)이 삼악관속과 육방하인 그리고 선서관기를 거느리고 화전놀이를 나간다. 고을의 농민하며 관민일치가 되어 군주의 만수무강과 국태민안 이 고장의 풍곡을 기원하는 뜻에서 추수만찬을 마련하고 이곳 정수암의 승경지를 찾아가 이 고을 특유의 화전을 현지에서 온갖 제물과 함께 제사에 올린뒤 원님 (현감) 주가되어 기원제를 올린뒤 관민일체가 되어 축제의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를 "정수암 풍년기원축제 화전놀이"라고 하며 이때 노는 가운데 특기자들을 이고장 고유의 '신목사호리' '사랑가' '질꾼악' '봉지가' '검무타령' '개화타령'들을 부르고 한량관기가 춤을 추며 또한 농부 부녀들이 자기만의 특기를 겨루어 자랑했다. 그리고 향교의 선비들은 글을지어 풍월을 다루었고 이들의 장원한 자에게는 '원님'이 황봉이라 하여 그 상품을 술로써 돌리었다고 한다.

보부상놀이

민속놀이

보부상이란, 봇짐과 등짐 장사를 말하는 것으로,

고려말기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자 행상 조직으로 결속을 촉진하게 되었고,

이조초기 당시 보부상이던 백달원이 이태조에게 충성을 다한 보은으로 상단으로서의 공인을 받게 되고 보부상단의 총본부인 착임방을 개성에 두고 국내의 물화중 어·감·수철·목물·토기·곡물·백지등 칠종의 전매권을 획득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조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홍경래난 등의 국난이 있을 때마다 상병단을 조직하여 운량, 정찰 통신 등 군무에 헌신보국하여 나라에서는 보부상을 모상과 부상으로 구분하고 각 단에 도백장·접장·도반수·공원·유사 등의 직을 두어서 통솔하게 하여 평상시에는 상인으로 일단 유사시에는 병사로서 단체적 활동을 하게 하였고,

이조말기

대원군 때는 보부상청을 설치하고 전국의 보부상을 통합하여 자신이 도반수가 되어 정치에 이용 하였음.

- 고종 20년 혜상공국 설치
- 고종 22년 혜상공국을 폐지하고 상공국으로 개정
- 광무 7년 상민회로 개정
- 광무 8년 진명회로 다시 공진회로 개정
- 융희 4년 한일합방 이후 보부상은 시장에서 추방되는 등 겨우 명맥을 유지하여 왔음.

현재

충남 부여·서천 등 괴산팔읍을 중심으로한 상무사 단체에서 음력 3월 11일 백달원이 이태조로부터 일곱가지 상품의 전매권을 윤허한 날을 기념하는 제사와 해마다 공사라는 총회가 행하여 지고 있음.

이번 출연하는 '보부상 놀이'는 보부상들의 재수 대통과 안녕을 비는 당굿을 시작으로 상병단의 출동, 공문제 그리고 출동중 공과에 대한 상벌에 이어 여흥으로 이어진다.

〈성황당 굿〉

부녀자들은 마을어귀 성황당에서 보부상들의 재수 대통과 안녕을 비는 당굿이 농악 장단에 맞추어 단속되고 있는데……

장길을 재촉하던 보부상들은 성황당에 당도하여서는 제각기 장짐을 받혀 놓고 굿 장단에 맞추어 재수 대통을 기원하는 기수를 드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서로 자기 소개와 인사를 나눈다.

〈장 터〉

정천에 도착한 보부상들은 제각기 지정된 장소에 장짐을 펴고 싸구려 타령을 부른다.

〈필목 장사의 싸구려타령〉

자~ 싸구려 낫네——
골라잡아, 골라잡아요
한가지 잡고는 한돈인데
두가지 잡고는 두돈인데
세가지 잡고도 한돈이요
골라잡아요, 골라잡아
산지 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의 조종은 황하수라
양반 조종은 골용대감
아니놀고 무엇하리
원앙금침 잣벼개요
나혼자 빌라고 만들었나

여기 저기서 모여든 많은 장꾼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다. 그때 구걸객 두 사람이 허름한 차림으로 장꾼들 틈에 끼어 들어와 "동냥좀 주시요"하고 장타령을 부른다.

〈장타령〉

이전 저전을 다버리고
아저씨 전으로 돌아와
오늘 장에 재수는 천냥 만냥 재수요
이리 천냥 남으시고
저리 천냥 남으시고
억십만냥 남으시고
우리 같은 인생들 돈 한푼만 주시요
한일자 들고봐~ 이저리 성성 해성성
밤중 밤중 대전이 완연하다
두이자 들고봐 ~두이변이 자두치 관전육방
나려올제 편지나 한장 전해주
석삼자 들고봐~삼월이 신령 두 신령
신령 중에는 어른이라
넉사자 들고봐~사시장천에 바쁜 길
점심참이 여기로다
다섯오자 들고봐~오관참장 관운장
적토마를 비껴타고 제갈 선생을 찾아간다.
여섯육자 들고봐~ 육천대사 도련님
팔선녀를 거느리고 헐헐 거리고 논다
일곱 칠자 들고봐~ 칠년 가뭄은
가뭄중에 어른이라
여덟팔자 들고봐~팔년 풍진 초패왕
오초마를 비껴타고 오강으로 내려온다
아홉구자 들고봐~ 구중대사 늙은 중
참잔홍을 거느리고 헐헐거리고 나려온다

장자나 한장 들고봐~ 장안광대 박광대
광대 중에는 어른이요…….

〈엿타령〉

자~ 싸구려 엿이요
헐쿠나 싸구나 파는 엿이야
정말 싸구려 파는 엿
함열 용산에 찹쌀엿
강원도라 조청엿
파장 할머니 막걸리 팔듯
순뱃집 큰애기 빈 술잔 팔듯
섯달 큰애기 개밥 퍼주듯
정말 싸구려 파는 엿
어디가면 거저를 주느냐
이리 오라면 이리와요

그무렵 주막에서는 주모들이 장꾼들을 상대로 권주가를 부르며 술을 팔고 노래가락, 청춘가로 장이 한참 흥에 겨워 있을 때

〈출동〉

한편 병자호란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장터에 전해지고……
장꾼들은 제각기 짐을 꾸린다
이때 보부상의 마기양이 나와
"이태조께서 우리 보부상을 잘 살게 하여 주셨다. 우리는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 우리 대왕께서는 남한산성에서 적군 청병에게 포위 되셨다. 우리들은 군량을 운반하여 임금님과 군사를 구출하여야 한다. 모두들 촉작댕의 비상미를 담고 출동 준비를 갖추어라"

명령을 받은 보부상들은 일제히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른 다음 제각기 촉작대에 쌀을 담는다.

출동한 보부상의 적군의 포위망을 벗어나 아군이 진지로 찾아가 합세하여 적군을 무찌른다.

적군을 격퇴시키고 부상당한 아군 장군을 목화 솜으로 치료하고 보부상 노래(계화자)를 부르며 무사히 귀환한다.

〈보부상 노래〉

(후렴)
계화 계화 계화자 좋소
(선소리)
태조대왕 등극 후에 우리 생면 건져냈소 (후렴)
영위대감 반수영감 듣잡시요 (후렴)
시제 영감요중영감 모시고 드러갑시다 (후렴)
오늘이 몇일이냐 삼월열하룻날 입니다 (후렴)
우리가 살면 몇백년 사나요 (후렴)
죽음으로 보은 충성합시다 (후렴)
산천초목은 젊어나 가지만 (후렴)
우리네 인생은 왜 이리 늙어만 가나요 (후렴)

〈공문제〉

한편 부녀자들은 공문제를 올리기 위한 음식물 준비와 제물 차림을 한다. 그리고 보부상의 안녕을 비는 노래를 한다.

공문제의 노래
성수만세——
오늘장에 천량이요
한달육장 매장해도
수천량식 재수봐요
가는길에 만량이요
오는길에 만량이요
소금장수 등짐장수
간곳마다 짭잘하네
만세—— 성수만세
좌사우사 여러분들
오고가는 헐한길에
몸수안녕 하시옵고
재소대통 하옵소서

출동에서 돌아온 보부상들은 제각기 의상을 고쳐입고 공사장을 향하여,

선두에 청사초롱
악사들의 행렬
공문단을 등에 진 도집사의 고동
그 뒤에 원색 제복을 입고
영위반수 장무원 말에 타고
공사장 입구에 도착하면 집사는 칙령을 읽는다.

〈칙령〉

(칙령관)
상좌영감 듯잡시오 하면
(사원)
에에이 아뢰납시요 한다
(칙령관)
태조대왕 등극 후에
세상공고 배려하여
좌우통령 분부 믿고
각도 각인방 설세하여
전국민 이하 행상 노소공위
집사총각 대방 비사속
저저히 아뢰니다.
(사원)
에에이 아리납쇼
(칙령관)
영위영감 모십시고

반수영감 모십시고
반수영감 모십시고
시제 장무원 모십시고
비사속 저저히 들어갑니다
(사원)
에에이 아리납쇼

공사 대회장에는 각종 제물과 공문인장·촉작대 등을 배설하고 일행은 전부 부복한다.

(집사) 이제부터 저산팔읍 보부상 공문제를 거행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먼저 사원들이 영이장 반수 장무원에게 일제히 절을 한다.

(집사구령)
영위어른 초헌이요 (반주)
반수어른 아헌이요 (반주)
장무원 어른 종헌이요 (반주)

사원들은 여기에 따라서 공손히 절을 한다. 제 의식이 끝나면 영위장이 보부상의 업적 설명과 사명 정신을 고취 설득한다.

〈상벌〉

제향 의식이 모두 끝나면 시상과 형벌 내리는 절차가 이루어 진다.

〈여흥〉

모든 제향 절차가 끝나고 도집상의 지시에 의거 춤과 음식으로 여흥을 즐기고 "뭉치자"의 함성과 함께 여흥을 파하고 보부상 노래를 부르며 파연한다.

검질메는 노래

민요

이 노래는 제주도 고유의 민요에 속하기는 하나 이 성읍리에서 불리우는 '홍악이', '아와기' 노래는 그 가락의 흐름이 독특하여 음의 기복이며 후렴귀등 변조가 다양한 것으로 이 고을 개성이 특이하다.

그리고 그 가사도 다양하여 일반적으로 바다에 둘러쌓인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에서 발달된 민요와는 좀 달리 성읍리는 산간벽지(화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소박하고도 직솔한 고된 생활감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홍악이 소리 (김매는 노래)
(후렴)
아, 헤에헤, 야홍.
저 슬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소리,
산전밭에납답이 들어가는 소리
앞 멍에야 들어나 오라



뱃놀이는 서울올림픽대회 폐회식에 활용되어 세계를 감동시켰다.

20

제2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9. 10. 25 ▶ 10. 27
대구

제2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9. 10. 25-10. 27.
대구

대통령상
예천통명농요(경북)-민요
국무총리상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문공부장관상
강문진또베기(강원)-민속놀이
불무노래(제주)-민요
보부상놀이(충남)-민속놀이
청도차산농악(경북)-농악
수영야유(부산)-민속극
장려상
아미산울어리(경기)-민요
양진명소오룡굿(충북)-민속놀이
한량무(경남)-민속무용
미수상 참가작
궐기타령(함북)-민요
선소리산타령(서울)-민요
서도입창(평남)-민요
애원성(함북)-민요
의성가마싸움(경북)-민속놀이
달구놀이(평북)-민속놀이
은율탈춤(황해)-민속극
고성농요(경남)-민요
거문도술비소리(전남)-민요
말천방농요(전북)-민요
공로상
거문도 숱비소리(전남)
말천방농요(전북)
개인상
이상수(고성농요, 경남)
김옥선(베짜기놀이, 평남)
지관용(강령탈춤, 황해)

예천통명농요

민요

유래

예천읍 통명동은 예천읍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외곽지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은 6개 자연부락(노티기, 웃통명, 동쪽마을, 골마을, 함기골, 땅골)의 산재부락으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잎담배 등 경제작물도 많이 재배하고 있다.

예천읍 통명동 농요는 예천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던 농요로 1950년대까지 계속 불리워졌으며 촌로 몇 분에 의해 다시 복원된 것이다.

특색

(1) 통명농요는 협동정신과 상부상조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흥겨움과 박진감 있는 율동 및 내면적으로 흐르는 해학이 특징적이다.

(2) 소농인 경우는 인원이 적어 농요를 부르지 않는 것이 상례이나 대농은 생활의 넉넉함을 과시하기 위해 많은 농부들을 청하여 하루를 즐기게 하며 앞소리꾼과 상머슴에게는 특별대우를 한다.

구성

농요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모심기소리
(2) 모를 심고 나오면서 부르는 소리
(3) 논매기소리
(4) 논을 매고 나오면서 부르는 소리
(5)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부르는 소리

내용

모심기소리는 '아부레이 수나, 이어도 어이 수여'라는 뒷소리를 부른다. '아부레이 수나'는 쌍의 뜻이다.

예천통명농요 (경북)



모를 심을 때에 '손을 맞춘다'하여 두 사람씩 어울려 서게 하는 것으로, 어울리다가 바로 아부레이 또는 어부레이 하고 부르는 것이 '아부레이 수나'가 되었다.

모심기가 끝나면 앞소리꾼이 '더움터 더움터 에헤이(우)라 더움터'하면 뒷소리꾼도 역시 같은 소리로 받는다. 여기서 '더움터'란 뜻은 모를 다 심어 놓았으니 움(싹)이 더 빨리 터서 잘 자라라 하는 뜻이다.

모를 심은 지 얼마 후에는 논을 매게 되는데 애벌매기 때에는 호미를 들고 일을 하니 위험성이 따라 소리가 흥겨울 수가 없다. 두 벌, 세 벌 매기 에서는 길가던 사람도 서서 구경할 정도로 흥겹고 즐겁게 한다. 특히 두벌논매기 때는 지개돋움(옆돌기)와 입장구를 하면서 오리삼신이라 하여 우루루 몰려다니면서 흙탕물만 지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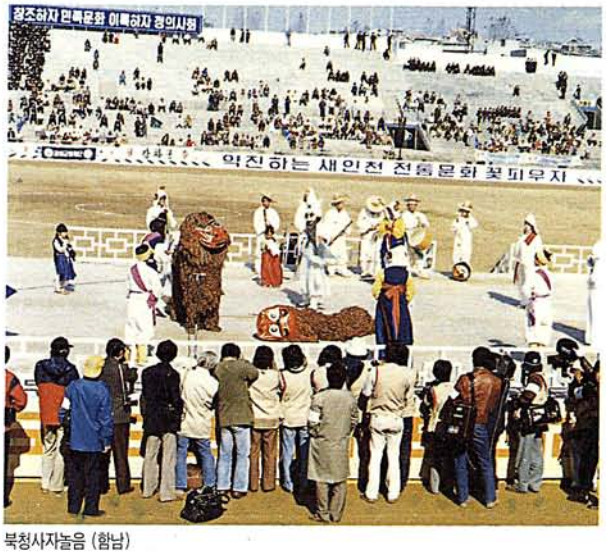
논매기소리의 특징은 뒷소리꾼에서 꼴두(꼴띠라고도 함)가 앞소리꾼의 옆에서 앞소리가 사설을 잊고 머뭇거릴 때 눈치를 빨리 채고, 뒷소리의 사설을 하는데 '아차 깜짝 잊었구나'등 여러가지 사설이 있다.

논을 다 메고 논둑으로 나오면서 노래를 부른다. 일을 마친 즐거움으로 흥겹게 춤을 추면서 애이용 노래를 부르며 논둑을 돈다.

하루의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게 될 때의 노래와 흥겨움은 최고조에 이른다. 상머슴은 삿갓을 뒤집어 쓰고 소를 거꾸로 타고 둥실둥실 춤을 추며 농악을 울리면서 동리로 들어온다. 이때 농군들이 추는 춤은 삿갓을 들고 아무렇게나 추는 춤이지만 흉내를 내기 어려운 흥겨운 춤이다. 집에 오면 칼국수로 저녁식사를 하고 마당 한가운데 모기불을 피워 놓고 마당논매기를 한다. 논매기노래의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노래를 하고 마당을 돌며 춤을 춘다. 무더운 여름에 더위도 피곤도 잊고 밤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논다.

북청사자놀음

민속극



북청사자놀음 (함남)

유래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칠 때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용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며, 우륵이 엮었다는 가야금 12곡 중에 사저기 라는 가무가 들어 있고, 또 최치원이 지은 '향악잡영 5수' 중의 산예가 사자춤을 가리킨 말이란 점을 미루어 보면 사자놀음의 역사가 멀리 신라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

사자는 극동지방에는 살지 않고 서역에 사는 짐승이므로 사자놀음 또한 서역에서 들어온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중국에도 민속 사자춤이 있고 일본에도 중요한 민속무용으로 사자춤이 있는 것을 보면 서역의 사자놀음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것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짐작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신라초기에 당나라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특색

여러 사자놀음 가운데 북청사자놀음의 사자춤에는 여러가지 뛰어난 춤사위가 있어 다양할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놀이꾼이 딸리고 여러 종류의 춤을 곁들이는 점에서도 뛰어나다. 반주음악에 쓰이는 악기에는 퉁소·북·징이 쓰이는데 퉁소는 보통 2개가 쓰이지만 많이 쓸때는 6개까지 쓰기도 다. 해서나 경기지방의 탈놀이가 삼현육각의 반주로 되어 있고 영남지방 탈놀음의 반주음악이 매구풍장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 북청사자놀음에서는 퉁소 풍장으로 되어 있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구성

연희자나 시대에 따라 2마당 7거리, 2마당 8거리 등으로 말해지기도 했지만 1979년에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가 만든 북청사자놀음 대본(확정판)에 의하면 두마당 아홉거리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1) 애원성마당
①해학
②애원성(노래와 춤)
③사당춤
④칼춤
⑤무동춤

⑥꼽새춤
(2) 사자놀이마당
⑦사자춤과 승무
⑧풍자
⑨군무(넋두리 춤)

내용

본격적인 마당놀이는 열나흗날 밤에 시작되어 대보름날까지 진행되지만, 정월 초사흗날 밤부터 집돌이가 시작된다. 벽사진경을 기원하며 풍장을 치고 사자를 놀리면서 집집을 도는데, 굿패가 집에 들어와 한바탕 놀면 주인은 쌀을 내놓는다. 이 쌀을 모아서 사자놀음의 경비나 마을의 공동사업에 썼다.

노는 순서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대체로 애원성이 앞에 나오고 사자춤이 뒤에 오는데 사이에 잡다한 춤들이 끼게 된다.

①해학

하인 꺽쇠가 양반의 허리끈을 줄로 매어 잡고 이끌고 들어와 마당을 한바퀴 돌며 재담을 주고 받는다. 꺽쇠가 양반을 놀리기 위해 사자놀음을 보기 위해서는 코를 잡고 뺑뺑 돌아야 한다고 하자 양반은 사자놀음을 볼 욕심으로 코를 잡고 뺑뺑 돈다.

②애원성

잽이들이 애원성 가락을 불고, 소리꾼은 애원성을 노래하며, 춤꾼은 흰 장삼을 입고 흰 고깔을 쓰고 애원성 가락에 맞추어 승무 비슷한 춤을 춘다.

③사당춤

잽이들은 연풍대가락을 불고, 먼저 사당 한쌍이 들어와 춤을 추고 나중에 거사 한쌍이 들어와 춤을 추고 나간다.

④칼춤

꺽쇠가 "칼춤 들라"하고 소리치면 잽이들은 칼춤 가락을 불고 두 사람의 춤꾼이 들어와 칼을 땅에 얼르며 맞춤을 추다가 다시 칼을 들고 힘있게 칼춤을 춘다.

⑤무동춤

꺽쇠가 무동 들어와 춤추라 하면 잽이들은 연풍대가락을 불고, 무동 한쌍이 처녀와 총각차림으로 들어와 양손을 뿌리며 춤을 추고, 양반은 신선놀이가 따로 없다며 즐거워 한다.

⑥꼽새춤

양반이 무동춤에 얼이 빠져 있을 때 "자, 배꼽을 빼는 꼽새춤 듭시오"하고 외치면 붉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꼽추 모습을 한 춤꾼이 칼춤곡에 맞추어 들어와서 절룩거리며 갖가지 병신 흉내를 내며 익살스러운 춤을 춘다.

⑦사자춤과 승무

꼽새춤이 끝나면 징소리를 신호로 사자춤이 시작된다. 사자춤가락에 맞추어 사자가 신명나게 춤을 출 때 사자에게 먹이를 주라고 꺽쇠가 양반한테 말하자 양반이 음식을 준다.

음식을 먹은 사자가 비실비실 쓰러지자 양반은 사자를 살리기 위해 축문을 외운다. 그러나 사자가 꼼짝을 않자 대덕사 고승을 불러다 염불을 하게 한다. 그래도 사자가 낫지 않자 의원을 불러온다. 의원은 사자를 진맥하고 체했다며 침을 놓아준다.

⑧풍자

침을 맞고도 사자가 일어서지 못하자 의원은 백두산 영봉에서 난 감수라는 약을 양반더러 먹이라고 한다. 양반이 사자 입에 약을 넣을때 사자가 양반이 손을 꽉 물어버린다. 양반은 펄쩍펄쩍 뛰고 사자는 생기를 찾아 멋드러진 춤판을 벌인다.

⑨군무(넋두리 춤)

잽이들이 넋두리에 맞추어 흰 치마 저고리에 흰 수건을 두른 여인들이 양손을 들어올려 멋들어지게 좌우로 뿌리며 춤추다 나간다. 잽이들이 말장가락을 불면 모든 놀이꾼들이 들어와 한동안 흥겹게 군무를 춘다.

놀이기구

사자탈, 퉁소, 칼, 북, 장구, 징, 꽹과리, 몽둥이, 장삼 등 필요한 옷.

강문진또베기

민속놀이

유래

강릉시 경포호수 옆에 위치한 강문 마을에는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놀이인 진또베기가 전해져오고 있다.

진또베기의 본래 뜻은 '하늘기둥' '나라중앙기둥'이며 이 진또베기에 소원을 빌며 제사 지내는 것을 '진또베기굿'이라 한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어촌인 강문 마을에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토착신앙인 진또베기 의식이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강문 마을에만 전해져 오는 의식은 아니다. 진또베기는 중앙 아시아 전역에 걸쳐 분포,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원시신앙이 토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문 마을의 경우 해마다 정월 대보름과 사월 보름, 그리고 팔월 한가위 때 마을에 모시고 있는 여서낭과 남서낭에 제사를 올리고 큰 마을굿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은 강문 진또베기가 어떻게 해서 이 고장에 전승되고 있는지는 우리나라 민속학계의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특색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분포, 전승되고 있는 진또베기가 강원도 강문지방에 전승되었다는 점 자체가 특이하다고 하겠다.

구성

(1) 제사와 발원굿
(2) 용왕굿
(3) 뱃노래
(4) 놀이굿

내용

강릉시 강문 마을에서는 오랜 선대부터 진또베기라 부르는 수살간을 세우고 매년 세 차례씩 부락제를 지내고 있다. 부락신을 모신 서낭신은 남녀 두 서낭이 자리잡고 있는데 남서낭은 마을 남쪽 소나무숲에, 여서낭은 북쪽 죽도라 불리는 조그만한 동산에 모셔진다. 두 서낭 간의 거리는 약 1백 미터이며 두 서낭의 중간지점에 진또베기가 서 있다.

진또베기의 꼭대기에는 세갈래로 된 나무가지가 받쳐져 있고 나무가지에는 나무로 깎아 만든 오리가 각기 한 마리씩 북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앉아 있다. 이 마을에서는 진또베기가 마을의 삼재, 즉 수재·화재·풍재를 막아주는 영험을 가졌다고 믿고 있다. 이 풍어제는 어업에 종사하는 부락민들의 제사로 이 제사의 주축은 굿이다. 굿에 앞서 4월 14일 자정으로써 이 풍어제는 막을 올린다.

(1) 제 1과장

여서낭과 남서낭에서 각각 제사를 지낸 다음 서낭에 모여 풍년·풍어를 비는 제사와 아울러 발원굿을 한다. 이 굿에서 무녀가 부정굿과 부락의 풍어를 빌며 삼재를 막는 사설을 엮는다.

(2) 제 2과장

발원굿을 마친 무녀와 주민은 바닷가에 있는 배로 나가 용왕굿(물굿)을 하여 각 배의 풍어와 안녕을 빌며 지신을 밟아준다.

(3) 제 3과장

굿을 마친 어부들은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로 나간다. 이때 어부들은 뱃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노를 젓는다.

(4) 제 4과장

만선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주민과 어부들은 진또베기 서낭에 모여 무녀와 함께 진또베기 서낭에 감사하는 놀이굿 벌이고 한껏 흥을 돋운다.

불무노래

민요

턱수리는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지에서 우회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2㎞ 위치한 부락으로서 동쪽은 안덕면 화순리와 서쪽은 대정읍 안성리 남쪽은 안덕면 사계리 북쪽은 안덕면 서광리와 접하여 산방산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1,285ha중 경지 560ha에 호당 경지면적 1.8ha의 비교적 많은 경지를 소유한 마을로서 주산물로는 유채 고구마등 밭작물이 대량 생산되어 주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과거 옛적부터 근검 절약하는 풍토에 본리는 77년말 호당소득 1,823,000원인 부자 마을로서 새마을 웃부락으로 선정된 마을임.

불미란 주물업으로서 농기구(볏, 보습) 및 솥을 제조하는 업이며 지금으로 부터 약 250여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하며 확실한 그 이상의 유래는 알길이 없다. 그동안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농기구와 솥을 만들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한다.

이렇게 불미는 이부락 유일의 산업이었고 또한 본도에는 아무곳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독점 사업으로 온 제주일원에 보급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 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현대과학에 뒤밀려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조상의 얼을 남기지 못하게 됨은 유감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토불미(청탁불미)라 하여 원시적인 방법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그 생산량이 매우 적었고 그후 지금부터 80여년전 부터는 디딤불미라 하여 그 방법이 개선되었고 지금부터 50여년전 부터는 동력발동기를 이용하여 양산체제를 이루어 그 수입이 많았었다.

초기에 생산된 제품을 우마 혹은 인력으로 운반되었고 해안지방에는 풍선을 이용하였으며 주로 물물교환이 성했다 한다.

이렇게 불무노동은 쇠붙이를 녹이는 고열에 위험이 뒤따르는 일로서 대체로 불에 숙달된 본리마을 평소 화재 발생시에는 소방대원 못지않은 용감한 진화작업을 하며 특히 4.3폭동시에는 많은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쇠붙이를 녹이는 힘든 일을 위하여 협동정신을 발휘하는 애환이 깃든 노래가 전하니 이를 불무노래라 하여 오늘에 전한다.

후렴 : 어허영 사데야

불미불엉 담배나 먹자
요만하면 할만도 하다
동지섣달 진진밤이
튼눈에 날을 새자
이 놀래여 산을 넘어라
우리 초상 어느대에
요남오 얼이 시작이던고
억울하여라 날무사 낭그네
요일 안하여도 살건마는
밤낮을 무릅쓰고
새당갈이 박한대 어디있으랴
또 어느마슬 또 있으랴
낮에는 낭고지 가고
밤에는 요일일러라
여한고도 상사데야
불미불엉 담배나 먹게
요물미는 된 불미여
대자오치 불미널에
석자오치 화지겠대에
자두치 양줏머리
자배남에 유년목을
벌러질까 염려말고
서질까 걱정을 마소
하로 한끼에 다지칠소냐
지치곌랑근 하지덜마랑
진진밤을 세울지라도
멩심하영 디더보자
어허엉 상사데야
강남닥은 목소리 좋아
산을 넘고 물을 넘어
꼬끼요이 울어오면
멀리 새벹 터온다
요남이돈 아까운 돈이여
아깝고도 원수일러라
두돈오푼 버을쟁하면
두 어깨가 다빠질로고나
어허엉 상사데야
일본에 뺏긴 우리노래
오날날은 찾아온다
잃은 놀래 또차즈니
얼마만치나 기쁜지요
경술합방이 몇해이던고
고전하단 노래일러랴
용광로 앞으로 옮겨가보자
직대장이 저 걸음보소
서른답 닛바디 허우덩삭
오싯대장 걸음보죠
백사장에 진자래걸음
밤낮으로 땀흘리네
저도관 앞으로 옮겨가 보자
동서양쪽 새 골르면
새골르고 외골르자
밤이새낭 할일이여
느지마직이 놀아나보자
이한놀래 쉬여근 가자
도관 앞으로 나리는 물은
무쇠녹은 냇물이요
내몸으로 나리는 물은
오장잦은 물일러라
뎅이보라 어떵되여시
요만하난 잘되었고나
아이되민 공실이여
잘되어 시만 사망이라
오날일은 쿰받게 되었저
요돈을 받앙 가민
논을 살까 밭을 살까
일하는 저일꾼들아
꾸박꾸박 졸지마랑
요놀래들엉 잠을깨소
불로익은 요내몸이
밤애샌들 치칠손가
부지런히 불여야 한다
얼시구 절시구 상사데야
어허엉 상사데야
잘도 잘도 넘어간다

청도차산농악

농악

유래

경북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는 속칭 신라고촌이라 불려지는 역사깊은 각성마을로 130여 가구가 순전히 농사에 의존해 온 전형적인 농촌이다.

경북과 경남의 도계에 접한 차산리는 옛부터 기세배와 비슷한 기맞이굿이 성행하였는데 정초가 되면 풍각면내의 여러 마을은 물론 고개 넘어 창녕군의 마을과 함께 화려한 천왕기싸움(서낭기 싸움)을 벌여왔다.

천왕기싸움은 길이 8미터에 가까운 여러가지 색깔


청도차산농악 (경북)

의 천왕기를 앞세우고 마을의 농악대가 서로의 위세를 자랑하며 즐기는 놀이로서 차산농악은 이 천왕기싸움을 발판으로 발달해 왔다.

특색

차산리 농악은 춤과 민요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무용적 특징

행진무용을 할 때 2석·3석·4석이라하여 1열 원이 2열·3열·4열로 변하거나 2인조 회전무 등을 한다. 또한 전원이 원무할 때 오른발, 왼발 순으로 한발뛰기를 하면서 원을 따라 왼편으로 회전하며 돌아간다.

북춤의 춤사위는 북 복판을 두 번 치고 북채를 머리 위로 올려 옆걸음을 하면서 북을 치게 되는데 춤을 추다가 북을 오른발에 받치고 좌로 회전하는 것이 특이하다.

상모놀이는 '꽆이상모'라 하여 상모를 앞뒤로 젖히는 동작, 한쪽으로 돌리는 외상모, 좌우로 2회씩 돌리는 사사, 좌우로 1회씩 돌리는 팔사가 있다.

차산 농악은 잡색 등의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고 농사굿에서 농사짓는 형용을 하는 연극적 요소가 강하다.

(2) 음악적 특색

비교적 빠른 가락을 잘 구사하는 대신 맺고 푸는 변주가 약하며 혼합박자가 드물고 3분박자 4박자가 대부분이다.

악기편성은 징과 북이 꽹과리 수보다 많다.

구성

판굿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굿거리굿(춤굿)
(2) 부정굿(차츰걸음)
(3) 연풍기굿(호호딱딱)
(4) 자진머리굿(막조우기)
(5) 물레굿(미엉찾기)
(6) 진굿(2석·3석·4석)
(7) 농사굿(논서르기 씨뿌리기)
(8) 모내기굿(줄서기)
(9) 짐매기굿(논매기)
(10) 타작굿(발들기)
(11) 조름굿(판굿)
(12) 오방굿(뚤뚤말기)

내용

(1) 굿거리굿

천왕기와 농기를 세우고 4열 횡대로 선다. 상쇠가 조름쇠를 친 뒤 지휘에 따라 관중들에게 인사를 한다. 이어서 1열로 행진하면서 굿거리장단에 맞춰 덧베기 춤을 춘다. 이때 군들은 원의 중심으로 들어가 무정작궁가락을 치며 정자로 서서 잡이들을 지휘한다.

(2) 부정굿

부정굿가락을 세마치로 어르면서 상쇠가 쇠를 끊으면 1열 원진이 2열 원진으로 바뀐다. 혼자서는 잡귀를 몰아낼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란히 원진한다.

(3) 연풍기굿

호호딱딱가락을 치며 2열 원진이 다시 1열 원진으로 변하면서 훨훨 뛰며 돈다. 이는 잡귀를 몰아낸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4) 자진머리굿(잦은 몰이굿)

잦은몰이를 치면서 왼쪽 방향으로 계속 원진하면서 덧베기장단을 당겨 부치면서 홍을 돋운다.

(5) 물레굿

이 굿은 무명(목화) 농사를 지어 베를 짜는 물레를 상징하는 것이다. 잦은 몰이장단에 맞추어 상쇠가 쇠를 꺾으면 두 사람이 한 조로 마주보면서 왼편 방향으로 회무한다. 이어 상쇠가 쇠를 꺾을 때마다 3석·4석이 되어 회무한다.

(6) 진굿

잦은몰이장단에 맞추어 상쇠가 쇠를 꺾을 대마다 2석, 3석, 4석 원진하고 이어 거꾸로 진행된다.

(7) 농사굿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굿으로 상쇠의 지시에 따라 법고잡이들이 상모를 돌리면서 농사짓는 시늉(논서르기, 씨뿌리기)을 한다.

(8) 모내기굿

몸을 앞으로 굽히고 상모를 앞뒤로 제끼면서 모심기 동작으로 전진·후퇴한다.

(9) 짐매기굿

논매기 시늉을 하는 굿이다.

(10) 타작굿

제자리에서 오른발을 구르며 벼를 타작하는 시늉을 한다.

(11) 조름굿

일명 판굿으로 왼편으로 원무하며 빠르고 신나게 쇠를 친다.

(12) 오방굿

천왕기, 농기, 쇄납, 나팔 등을 원의 중심에 두고 조름쇠를 치며 나선형으로 멍석말이를 한 다음 푸는 진법을 동서남북과 중앙 5방향으로 행한다.

아미산울어리

민요

유래

울어리는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어 왔다고 하나 문헌상의 기록이 없다. 다만 고려시대 마전군이었던 현재의 연천군 마산면·중면(미수복지구)·신세면 일부 지역에서 연희되어 왔고, 영좌·부사 등의 말을 쓴것으로 보아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8·15 광복 전까지 연천군 중면 일대에서 세습적으로 전승되어 오다가 남북분단과 전쟁 등의 역사적 격변기를 맞아 중단되었다고 한다.

특색

농경이 주요한 생활수단이었던 우리나라 전역에는 많은 농요가 보전되어 왔으나, 겨우살이를 대비한 연료채취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흔하지 않다. 이러한 희귀성이 아미산울어리의 특징이다.

해마다 추수를 앞두고 산마을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땔나무를 베고 석양이 들 무렵 잡목으로 가마를 만들어 연장자(영좌)를 태우고 마을로 돌아온다. 이때 영좌는 양반(부사) 행세를 한다.

마을에서 부농을 골라 그 집 마당에서 풍년을 구가하며 농악과 농요소리에 맞춰 한바탕 마당놀이를 벌인 다음 주인이 마련한 음식을 먹고 노는 민속놀이로 아미산울어리는 마을 주민의 화평단합을 다지며 풍년에 감사하는 농민들의 놀이이다.

구성

1) 음악적 구성

울어리놀이는 3개의 노래로 이뤄지는데 그 음계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울어리(나무 벨 때 부르는 노래)

앞소리는 4도·2도·2도의 4개음으로 되어 있으나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

뒷소리는 4도·2도의 3개음으로 되어 있다.

②둥게타령(남여와 영좌의 춤에 맞춰 부르는 노래)

새타령의 음진행 배열과 비슷하나 리듬만이 다르다.

③방아타령(모두 함께 부르는 노래)

울어리와 같은 구성음으로 되어 있으나 종지음이 약간 다르다.

2) 놀이구성

①풋나무베기

②남여행차

③농기싸움

④마당놀이

내용

이른 아침 농악소리에 맞추어 마을 일꾼들은 감발을 하고 낫과 숫돌 등의 연장을 들고 산에 오른다. 일꾼들이 모이면 상겨리, 중겨리, 하겨리 등의 두세패로 편을 갈라 나무베는 일을 시작한는데 이때 상, 중, 하 계리에서 번갈아 소리를 메기고 받으며 일을 한다.

일이 끝나면 몇사람은 잡목과 칡을 베어 남여(가마)를 만들고 일꾼 중에서 연장자를 태워 남여부사라 칭하여 양반행세를 하면서 마을로 가는 길놀이를 벌이는데 맨앞에 길라잡이가 인도하고 한 사람이 소리를 메기면서 간다.

메김 : 에라이놈 물러가라 칠라가라 남여부사 행차시다

받음 : 에헤라 끼루끼루

마을에 내려온 일행은 부농가를 골라서 그 집에 들어가 음식을 마련하게 하고 남여부사는 일행에게 실컷 놀 것을 명한다.

농악대에는 반드시 농기가 있게 마련이며 이 농기는 마을의 명예를 대표하므로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 또

아미산울어리 (경기)



한 농기에는 급이 있어 하급농기는 상급농기를 보면 절을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면 싸움이 벌어진다. 이것이 농기싸움인데 울어리놀이에서도 벌어진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진 패거리의 부사는 남여에서 내려 상대편 부사에게 큰절을 한다. 그러면 승자의 부사는 아랑을 베풀어 남여에 오르기를 권하고, 남여에 오른 두 부사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승자의 산주인 집으로 행진을 계속한다.

산주인 집에 이른 일행은 마당을 돌면서 일년 열두 달을 엮어 '둥게타령'을 메기고 받으면서 마당놀이를 한다. 농악과 소리에 맞추어 한바탕 놀이가 끝나면 주인집에서 마련한 음식을 먹고 일동이 술상을 장단맞춰 치며 잡가로 노래한다.

이때 열두달의 메김대사는 다음과 같다.

메김 : 너도 나도 서로서로 땀흘리며 짓는 농사
메김 : 올가을 풍년정에 노적가리 쳐다 보고
메김 : 콩섬묶어 장에널고 벼를찧어 독에붓네
메김 : 사랑방에 지적메고 안방에서 베를 짜네

놀이기구

1) 농악대
북, 장고, 꽹과리 등의 악기.
2) 남여
잡목과 칡으로 만든 가마.
3) 농기

양진명소오룡굿

민속놀이

유래

충청북도 충주 대문산 아래로 흐르는 남한강에 금휴포라고 부르는 나루가 있었다. 이곳에는 옛날부터 남한강을 다스리는 용이 있었는데 이 용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신라시대때 양진명소사라는 사당을 짓고 나라에서 향을 내려 제사를 지냈다.

오룡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굿놀이가 이어지는 놀이적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다. 해마다 양진명소(楊津溟所)의 사당에서는 국태민안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 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심하면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이 사당에 모신 오룡신에게 치성을 드리면 비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례의식을 하면서 행해졌던 무당들의 놀이와 마을 주민들의 농악과 춤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 바로 양진명소오룡굿으로 전해온다.

특색

오룡은 동서남북과 중앙을 지키는 다섯 용을 상징한다. 옛부터 동쪽은 파랑, 서쪽은 하양, 남쪽은 빨강, 북쪽은 검정, 중앙은 노랑색으로 방위를 표시하였다. 오룡은 각각 그 방향의 수호신이라 믿어온 것이다.

양진명소는 지금의 충주탄금대에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강가에 살고 있었기 개문에 성황신이나 산신보다는 물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듯이 생활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이 굿이다.

이 오룡에 대한 제의는 정형이 없다. 다만 각각의 굿에서 무당의 역할만이 강조된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구성

이 굿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 굿으로 구성된다.

1) 영신굿
2) 봉신굿
3) 오신굿
4) 송신굿

내용

1) 영신굿

영신굿은 신을 맞이하는 내용의 굿이다. 주무가 악기소리에 맞춰 용왕풀이를 하면서 강가로 나간다. 강가에는 청·백·홍·흑·황의 오색천을 부채모양으로 늘여 깔고 그 끝에 물동이를 놓는다. 무당의 용왕풀이가 끝나면 물위에 띄워놓은 물바가지를 잡아당기는데 이때 마을사람들은 노래를 부른다. 바가지가 물가에 당도하면 빨간 바가지로 빨간 헝겊(필목)을 따라 물동이로 가져다가 물을 붓고, 그 다음 노랑 바가지로 노랑 헝겊, 하얀 바가지로 하얀 헝겊, 파랑 바가지로 파랑 헝겊, 검정 바가지로 검정 헝겊의 순서로 신을 맞이한다. 여기서의 물은 신(또는 용)으로 상징되는 것

양진명소오룡굿 (충북)



이다.

물이 옮겨지는 동안 농악패와 주민들은 한판 놀이를 펼치며 흥을 돋운다. 물 다섯 동이가 다 채워지면 물동이를 모시고 무악에 맞춰 부정풀이를 하면서 신단으로 간다.

(2) 봉신굿

봉신굿은 영신해 온 오룡을 각기 지정된 오룡대위에 모시는데 이때 물동이는 신체를 상징하므로 물동이를 정중히 모신다.

오룡들은 청·백·흑·홍·황색의 순으로 오룡대 앞에 서있고 제례의식을 시작한다.

제례는 초헌, 아헌, 종헌관이 3헌관이 잔을 올리고, 초헌 후에 축문 낭독이 있고 이어 대축사와 무당의 독령 등으로 진행된다.

3) 오신굿

신을 놀리는 굿이다. 물동이 위에 오룡이 올라서서 춤을 추고 마을 주민들은 문중기를 흔들면서 흥겹게 논다.

이어 오룡의 중앙에 있는 황룡이 '국태민안 시화년풍 주민무고 안녕태평'을 비는 공수를 낭독한다. 공수가 끝나면 다시 무악이 울리고 오룡은 오룡대에서 내려온다.

4) 송신굿

놀이판이 끝나면 제관들이 다시 제사를 지낸다. 제사가 끝나면 무당들은 신체를 모시고 무가를 부르며 양진명소로 간다. 양진명소에서 물동이 속에 있는 오색바가지를 꺼내 색깔에 맞추어 강가로 옮긴다. 그 다음 오색바가지를 강물에 띄워보내고 무당, 농악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제각기 축원을 하면서 송신한 다음 농악대를 앞세우고 마을로 돌아온다.

놀이기구

물동이 5, 오색천(적·청·황·흑·백색) 바가지 5.

진주한량무

민속무용

유래

이 춤은 궁중계열무도 아니며 물론 마당놀이 계통의 민중무도 아니다. 전문연예인들의 교습과 수련을 쌓아서 이루어진 교방류의 예술로서 양반사대부들이 키우고 즐기던 유일한 놀이춤 즉 무신극무이다.

유독 이 춤이 오늘날 진주에 전승보존되어온 과정은 과거 진주교방청이 존재할때 그 교방이 보유하고 있던



한량무 (경남)

가무백희를 낱낱이 수록해둔 책임은 교방가요라고 하며 이속에 보면 승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의 진주한량무가 여기서 비롯된 것을 알수 있다.

이 춤이 언제쯤 한량무를 발전 변화됐는지는 잘 알바가 없으니 과거 진주검무의 "보유자"였던 고 강귀래 선생이 동기시설 진주권번에서 익혀왔던 한량무를 우리검무 회원들에게 전수시켰던 것이다.

구성

한량과 기녀, 스님, 주매, 별감, 마당쇠, 상우하여 7명이 등장하여 꾸미는 놀이춤이다.

전체적으로는 색시를 사이에 두고 한량과 스님이 싸움을 벌이게 될 때에 절개없이 놀아난 색시 드디어 양쪽에서 버림을 받고 오갈데 없게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조선시대의 퇴폐된 한때를 풍자한 것인데 타락된 선비, 파계한중, 정조없는 기녀, 게으른 관사, 약삭빠른 주모, 능글맞은 머슴등을 응징 하는 내용이다.

오늘의 무원전체가 전통무로서 다듬어진 진주검무 회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춤사위에 세련됨은 물론 개성있는 표정과 뛰어난 연기로 차례차례 연출되는 이 무용은 대개 지난날 진주관아의 의식후의 여흥놀이나 잔치끝에 추었던 것이며 혹은 양반네들의 잔치도 추었다고 한다.

궐기타령

민요

재가승 마을의 영농요 궐기타령 (궐기는 풍구)을 주

조집에서 흥겹게 불러왔다.

원료로 되는 쇠를 종독에 넣어서 숯불에 녹이는데 이때의 역풍장치에 궐기를 사용하였다. 그 사용할 때에 궐기를 드디면서 부르는 노래가 궐기타령이며 현재에도 두만강 연안 재가 승부락에는 이 노래가 전하여지고 있다.

달구놀이

민속놀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집단생활을 시작하여 부락을 형성하고 살면서 모든 우환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신을 위하지 못한 탓으로 알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귀신을 위하는 제사부터 지내게 되었다. 오랜 세월 대대로 이어온 경신사상이 깊숙히 뿌리막고 있다. 집터를 잡고 집을 짓기위해 터를 닦는데도 예외는 아니다. 평안북도 지방에서는 대부분 음력 3월 초저녁을 택하여 집터를 다지는 달구를 맞는다. 먼저 대주가 시루떡과 돼지머리, 술을 차려 놓고 터제사를 지내고 사방에 떡과 술을 뿌리며 모든 잡귀는 먹고 물러가라고 한 다음 달구꾼들을 대접한다. 그리고 나서 광솔불을 밝히고 달구를 시작한다.

원래 달구는 긴 달구와 작은 달구로 구분된다. 먼저 선소리꾼이 산지 조종은 곤륜산이요 라고 소리를 메우면 줄잡이 일동은 후렴으로 애헤여 에헤라 달구로다 하고 합창을 한다. 이렇게 흥을 돋우어 신바람이 나서 줄을 힘차게 당기면 달구는 허공을 찌를듯이 높이 올랐다. 꽝하고 떨어지며 단단하게 다져진다. 한참 다지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여 계 노리(참)을 들고 후반으로 들어간다. 후반은 자즌달구로 들어가는데 선소리꾼은 에헤야 달구요 하고 합창을 한다. 자즌달구는 긴 달구보다 박자가 짧다.

거문도술비소리

민요

'술비소리'는 칡넝쿨이나 짚으로 밧줄을 꼬면서 노동의 고달픔을 잊으며 능률을 높이기 위해 부르는 일종의 노동요이다. 이 노래는 여러사람이 틀에서 자세를 돌리고 다른 사람은 칡넝쿨이나 짚을 길게 이어주면서 부르는 '에이야라 술비야'와 외가닥(한줄)으로



거문도 술비소리 (전남)

꼬은 이 줄들을 삼합으로 드리면서 큰줄을 만들며 흥겹게 부르는 '에헤야 술비'등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 칡넝쿨을 베어오고 짚을 모아 갯가에서 밧줄을 꼬면서 흥겨웁게 부르는 이 노래는 도민의 협동심과 단결심을 조장할 뿐 아니라 삶의 고달픔과 고도에서 사는 외로움을 달래고 나아가 섬사람들의 끈질긴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민요라 할 수 있다.

〈에이야라 술비야〉

에이야라 술비야 에이야라 술비야
너는 주고 나는 받고 에이랴라 술비야
까지까지 돌려보세 에이야라 술비야
이번 맞고 금쳐놓세 에이야라 술비야
술비여어 에헤에 술비여어 어루야
에헤어루 술비여허
에이야 술비야
에야디야라 술비야
살살비벼라 꼬시락든다 에이야라 술비야
중간사람은 잘봐주소 에이야라 술비야
여섯가지를 고루돌리소 에이야라 술비야
이번 맞고 금쳐놓세 에이야라 술비야
술비여어 에헤에 술비여어어루야
에헤어루 술비여허
에이야 술비야
에야디야라 술비야
이줄은 다려서 보름날 당구고 에이야라 술비야
저줄은 다려서 닷줄을하고 에이야라 술비야
다음줄 다려서 갓버리 하세 에이야라 술비야
이번 맞고 금쳐 놓세 에이야라 술비야
술비디여 에헤에 술비여어 어루야

에헤어루 술비여허
에이야 술비야
에야디야라 술비야
에이야아 술비야 에이야라 술비야
어기여차 술비로세 에이야라 술비야
술비소리 잘맞고 보면 에이야라 술비야
팔십명 기생이 수청을 드네 에이야라 술비야
님을 맞구서 감사로세 에이야라 술비야
술비여어 에헤에 술비여어 어루야
에헤어루 술비여허
에이야 술비야
에야 디야라 술비야
놀다가소 놀다가소 에이야라 술비야
소녀방에 놀다가소 에이야라 술비야
놀다가면 득실인가 에이야라 술비야
잠을 자야 득실인지 에이야라 술비야
술비디여 에헤에 술비여어 어루야
에헤어루 술비여허
에히야 술비야
에야디야라 술비야
백구야 훨훨 나지말라 에이야라 술비야
널 잡을 내 아니로다 에이야라 술비야
성산이 바시리니 에이야라 술비야
너를 쫓아 여기왔다 에이 야라 술비야
술비디여 에헤에 술비여어 어루야
에헤 어루 술비여허
에이야 술비야
에야디야라 술비야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에이야라 술비야
울릉도로 나는 간다 에이야라 술비야
오도록만 기다리소 에이야라 술비야
이번맞고 금쳐놓세 에이야라 술비야
술비여허 에헤에 술비여어 어루야
에헤어루 술비여허
에이야 술비야
에야디야라 술비야
돛을 달고 노저으며 에이야라 술비야
울릉도로 향해보면 에이야라 술비야
고향생각 간절하네 에이야라 술비야
이번 맞고 금쳐놓세 에이야라 술비야
슬비여허 에헤에 술비여어 어루야
에헤어루 술비여허
에이야 술비야
에야디야라 술비야
옥천행도 불가사리 에이야라 술비야
어떤 잡놈이 다 따 먹고 에이야라 술비야
앵두씨만 남았구나 에이야라 술비야
이번 맞고 금쳐놓세 에이야라 술비야
술비여허 에헤에 술비여어 어루야
에헤어루 술비여허
에이야 술비야
에야디야라 술비야
고향산천 돌아오면 에이야라 술비야
부모처자식 반가와라 에이야라 술비야
동네사람 반가와라 에이야라 술비야
이번맞고 금쳐놓세 에이야라 술비야
술비여허 에헤에 술비여어 어루야
에헤어루 술비여허
에이야 술비야
에야디야라 술비야
에헤이 술비
에헤이 술비 에헤에 술비
어기영차 배질이야 에헤에 술비
울고 간다 울릉도야 에헤야 술비
알고 간다 아릿역아 에헤에 술비
이물에 있는 이사공아 에헤에 술비
꼬물에 있는 코사공아 에헤에 술비
허리띠 밑에 있는 하장아야 에헤에 술비
돛을 달고 닻감아라 에헤에 술비
술렁술렁 배질이야 에헤에 술비
범배중리 떠나가세 에헤에 술비
이 돈 벌어 뭣할꺼나 에헤에 술비
늙은 부모님 보양하고 에헤에 술비
어린자식 길러내고 에헤에 술비
먹고 쓰고 남은 돈은 에헤에 술비
인군 공공 하여 보세 에헤에 술비

말천방농요

민요

전북 임실지방은 기름진 농사와 아름다운 산수가 조화를 이루어 예로부터 인심이 순후하고 평화스런 고장이다.

씨앗을 뿌리는 봄부터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가을까지 이웃끼리 서로 품앗이 일을 하며 불러 오던 조상들의 정취가 담긴 농요가 수백년동안 구전되어 온 것이다.

이번에 선보이게 된 농요는 가뭄이 들었을 때 농민

들이 보막이를 해 놓고 이른 새벽부터 물을 품으면서 지루함을 달래던 물품기 노래와 연계타령, 문열가, 방아타령, 어휘싸오등 김맬때 흥을 돋우며 부르던 노래, 그리고 할일을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 갈 때 어우러져 부르던 산타령 등이다.

농요는 대개 한 사람의 선소리에 여러 사람이 받아 부르는 것이 보통이나 본 지방의 농요는 앞 뒤 두패로 나뉘어 부름으로써 노래소리의 크고 작음을 시새우며 작업능률을 높이던 것이라 보여진다.

노래의 리듬이나 곡조가 매우 듣기 좋고 경쾌할 뿐만 아니라 힘이드는 작업을 하면서도 더욱 힘을 내어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음을 볼 때, 농요의 보다 높은 차원을 엿볼 수 있다.

〈물품기 노래〉

아위 — 아위
하택에 물 올리고 상택에 물받아라 아 — 위
물 올리고 물 받아라. 아 — 위
맥이 터진다. 아— 위
자진 머리로 들어간다. 아— 위
도깨비 방죽에 물품어다 배동바지 목축이자. 아 — 위
배동바지 묵축이자 아 — 위

〈연계타령〉

저산넘에 소첩두고
밤길걷기 난감하다.
오란데는 밤에가고
동네술집 낮에가자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동명에 달 솟아온다.
황계몰로 가는 처자
속옷가래 풀고 간다.
(후렴)
에헤야노 아하헤헤
연계로구나.

〈문열가〉

오늘도 하 심심하여
노래한장 불러보세
건곤이 불노월 장자하니
적막강산 근 백년이라
칠산 골산 높은 봉에
홀로 우는 가련 추야
오동추야 달은 밝고
임의 생각이 절로 난다.
후렴
지구 허— 허허—이
허허—아헤 말이오

〈방아타령〉

남문열고 바래칠제
계명산천 밝아온다
베 잘 짠다. 베 잘 짠다.
남원 동문안 큰애기 베 잘 짠다.
활 잘 쏜다. 활 잘 쏜다.
북도 매봉의 군사가 활 잘 쏜다
배꽃일레 배꽃일래
처자 손목에 배꽃일레
(후렴)
에헤 얼싸 좋다.
쿵자쿵 지화자 좋을시고

〈어회싸오〉

앞둑 벼루는 뒷 둑을 쌓고 어휘싸오
뒷둑 벼루는 앞 둑을 쌓고 어휘싸오
휘휘 둘러서 쌈들을 싸세 어휘싸오
임실 원님은 해우쌈 싸고 어휘싸오
남원 원님은 천엽쌈 싸고 어휘싸오
장수 원님은 곤달로 싸고 어휘싸오
진안 원님은 상추삼 싸고 어휘싸오
순창 과부는 이불쌈 싸고 어휘싸오
이논 뱀이에 노적쌈 싸고 어휘싸오
우리 농부는 풍년쌈 싸세 어휘싸오
바짝 바짝 우겨를 싸소 어휘싸오
외영 가닥을 이겨를 주소 어휘싸오
장구지 달팽이 다 잡아들이라 어휘싸오
에이 — 위 —

〈산 타 령〉

금방 오라. 헤헤헤
한 몰랑에 쏙소리 나무가 섯으되
바람이 부나 아니를 부나
설렁 설렁 설렁거리네
너그 누가 헤헤헤
날마다고 머리를 깎고 속락을 쓰고
순천 송광 절마다고 금지 금산절로
중이나 난 질 가네
오 초목이 헤헤헤
돌이나 남풍 이리나 풍덩 울어든 새야
울어나 스면 너나 울었지
대장부 일천간장 다 녹여 내네



21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0. 10. 29 ▶ 10. 31
제주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0. 10. 29—10. 31.
제주

대통령상
방아돌굴리는노래(제주)—민요
국무총리상
밀양백중놀이(경남)—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매포민요(충북)—민요
등바루놀이(충남)—민속놀이
강령탈춤(황해)—민속극
필봉농악(전북)—농악
영변성황대제(평북)—민속놀이
장려상
한양풍물놀이(서울)—민속놀이
대동굿(황해)—민속놀이
조심기놀이(평남)—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서도민요(평북)—민요
정선아리랑(강원)—민요
배따라기(황해)—민요
그물당기는 노래(제주)—민요
용연기우제(제주)—민속놀이
궐기타령(함북)—민요
수영농청놀이(부산)—민속놀이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경기농악(경기)—농악
함평농요(전남)—민요
청도차산농악(경북)—농악
아미농악(부산)—농악
애원성(함북)—민요
공로상
애원성(함북)
부산아미농악(부산)
개인상
천학실(함평농요, 전남)
송창선(경기농악, 경기)
김오동(청도차산농악, 경북)

방앗돌굴리는노래

민요

유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농토의 대부분이 밭이기 때문에 보리, 조, 잡곡 따위의 밭작물이 주요 곡물이었으며 따라서 연자매의 이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말방이', '말가레' 라고도 하는 이 연자매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조밀하게 분포되어 널리 이용되는 생활도구였던 것이다.

한 마을에 들어서면 이내 연자매가 눈에 띄기 마련이고, 이 연자매는 '말가레집' 또는 '말가레왕'이라 불리는 연자매옥 속에 알뜰하게 설치되어 있다. 평균 30가구당 연자매 1기씩이 설치되었으므로 보통 한 마을에는 여러개의 연자매가 있었다.

연자매를 새로 만들 때 가장 힘든 일은 연자매의 웃돌(맷돌)과 알돌(밑돌)을 마련하는 일이다. 제주도 특유위 다공질현무암을 쪼아서 웃돌, 알돌을 만들어 이를 마을에까지 운반하는 일은 마을의 계원 전체가 동원되어야 했고 이것을 굴려 내리면서 작업꾼들은 "어기영차 어기영차"하며 발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수십명의 마을 사람들이 이렇듯 불렀던 노래가 바로 '방앗돌굴리는노래'로 오늘날까지 전한다.

특색

방앗돌 굴리는 노래는 오늘날 거의 사라진 운반노동요의 하나로 '솔깃소리'라고도 한다.

제주도 민요전반을 통틀어서 맷돌과 방아에 얽힌 노래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 노동요는 거의가 맷돌·방아노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맷돌·방아노래는 제주 민요의 백미격인 것이다. 이들 노래는 단지 작업실태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창자들의 생활전반에 걸친 고뇌와 번민과 희망을 노래하는 것도 다수 눈에 띈다.

그러나 방앗돌 굴리는 노래는 전형적인 맷돌·방아노래와는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다. 우선 맷돌·방아작업과 직접 관련된 노래가 아니고 엄청나게 무거운 방앗돌을 운반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점이 작업성질상 다른 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맷돌·방아노래가 여유자적하게 삶의 전반을 노래하는 것에 비해 이 방앗돌 굴리는 노래는 작업실태를 주로 노래한다는 점도 사설의 내용상 특징이다. 또한 연자매를 자주 만드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래부터가 듣기 어려웠고 게다가 근래에는 연자매가 거의 자취를 감춰버림에 따라 더더욱 듣기 어려운 노래가 되어버린 것이다.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는 불미노래로써 이미 전국에 알려진 바 있고, 열세 곳이나 연자매가 설치되었던 곳으로 오늘날 가까스로 마을 사람들에 의해 방앗돌굴리는 노래가 전승되고 있다.

구성

방앗돌 굴리는 노래는 줄곧 작업실태를 노래하는 사설로 구성되었으므로 재연을 위해 특별한 형식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없다. 방앗돌 채취에서 웃돌과 알돌을 쪼아 만들어서 동네 연자매방앗간까지 굴려오는 과정을 그대로 연출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선창자가 선소리를 하면 방앗돌을 밧줄에 묶어 끌고 가는 사람들이 후렴으로 "어기영차 어기영차"를 합창한다.

내용

방앗돌굴리는 노래의 주 내용은 작업실태에 관한 것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야아호오 에헤야아 에에헤 넘어가는 소리
(후렴 : 어기영차)
오호오오 에헤야아 에에에 요놈의
돌은 무거운 돌이여(후렴)
오호오오 에헤야아 에에헤 친구분네
다 모다왔져(후렴)
오호오오 에헤야아 에에헤 넘어가는 고나 (후렴)
활등가찌 굽은 질로 에헤에에 살대가찌 날아든다 (후렴)
꾸불꾸불 에헤에에 짚은 골짝(후렴)
질을 닦아근 에헤에에 짊어당기는
접군덜이로구나 (후렴)
질을 닦아근 에헤에에 요놈의 돌은
목적지로 들어간다 (후렴)
야아호오 에헤야아 에에헤 권력을 잘하여 줍서 (후렴)
칠성가찌 에헤에에 벌어진 권당님네 (후렴)
다말가찌나 에헤에에 다 모여듭서
(후렴)
야아호오 에헤야아 에에헤 멧가지로요 일을 하는지 (후렴)
야아호오 에헤에야 에에헤 요 웃돌은 어디서 나려오는 돌고 (후렴)
어어호오 어어호오 에에헤 돌오름에서 나려오는 돌이로고나 (후렴)
나리단 보난 에헤에에 장굴지경가찌 나려왔구나 (후렴)
천년만년 자단 돌도 오날날은 제자리로 들어오는고나 (후렴)
어어호오 어어호오 에에헤 접군님네
덜 권력덜 합시다 (후렴)
어어호오 어어호오 에에헤 요만한 일군이믄 산방산이라도 굴려오귀여
(후렴)
어어로오 어어호오 에에헤 당기단 보난 요 마을에 다 들어왔져 (후렴)

놀이기구

방앗돌(웃돌과 알돌), 밧줄, 끗을쾌, 목, 받침돌 등.

밀양백중놀이

민속놀이

유래

오랜 옛날부터 밀양에서 전해 내려 오는 민속놀이로서 춤을 줄거리로 한 놀이이다.

이 놀이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명절이라 할 수 있는 백중날에 머슴들이 술을 마시며 가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즉, 이 놀이는 농촌에서 힘겨운 세벌 논매기를 끝내고 백중을 전후로 한 용날을 택하여 풍년과 그해의 소원을 비는 뜻으로 농신에 대한 고사를 지낸 다음, '꽁배기 참놀이'를 할 때 여흥으로 여러가지 놀이판을 벌여 온 데서 비롯된 놀이이다.

밀양의 백중놀이인 오북춤과 범부춤, 그리고 병신놀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여러가지 의

밀양백중놀이 (경남)



견을 종합하여 첫째, 오북춤에 있어서 그 바탕은 두레 농악에서 분화된 것이라하며 다만 오북춤이라는 명칭과 형식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으나 아마 영남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행숭봉사상과 벽사진경하는 의식에서 전래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둘째로, 범부춤에 있어서도 그 유래는 확실한 것이 없으나 춤의 형태로 보아 세도가들과 서민들의 갈등이 심했던 개화기에 중인에 속한 토호들이 자기들도 근본은 양반이라고 자처한 데서 나온 춤의 유형으로 추측된다.

또한 병신놀이는 서민들에 대한 탄압이 혹심한 구한말 경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것이라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특색

(1) 내용에 있어서 양반에 대한 서민의 익살이 놀이나 춤으로 잘 반영되어 있다.

(2) 악기에 있어서 일반적인 농악기 이외에 물장고, 사장고 등의 특수악기가 사용된다.

(3) 춤에 있어서 타지방에 없는 범부춤과 오복춤이 정립되어 있다.

(4) 춤사위는 힘차다는 느낌보다 튕기는 느낌을 주고, 힘을 풀면서 파동을 치는 느낌을 준다.

그 외에도 오른손과 오른발이 같이 움직여서 춘다거나 동작 하나하나를 철저히 장단과 일치시키는 것이 특이하다.

구성

밀양백중놀이는 셋째마당으로 나뉘며 연희자는 총 43명이 된다.

(1) 앞놀음

(2) 놀음마당

(3) 신풀기

내용

(1) 앞놀음 처음 농악으로 시작하여 오방차굿을 하고 농신제의 고사터를 깨끗이 하는 잡귀막이굿을 한다.

마당에 저롭대로 만든 농신대를 세워 그 중심으로 서서 삼배하고 엎드려 복을 빈다. 그 중 한사람이 농신대에 다가가 축문을 읽고 고사를 지낸다. 고사 후에는 덧배기 춤으로 흥을 돋운 다음, 머슴들 중에서 장원을 정한다.

(2) 놀음마당

장원을 지게목발로 만든 작두말에 태워 풍물을 올리고 말놀음을 하다가 다시 양반을 꾸며서 작두말놀이를 한다.

이때 머슴들의 놀음판에 양반이 뛰어들어 거드름을 피우면서 양반춤을 추는데 머슴들과 정지꾼(부엌일 하는 여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 갖가지 병신춤으로 양반을 놀린다.

결국 양반은 물러나고 서민들끼리 격려하는 춤으로 어울린다. 이에 뒤로 물러난 양반이 흥에 겨운듯 범부차림으로 나타나 범부춤을 추면서 신나게 논다.

(3) 신풀이

북잡이들이 큰 북을 메고 나와서 오북놀이를 한다. 오행과 오기가 순조롭기를 빌며 오곡농사가 잘되고 오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이 오북놀이는 북춤으로 이루어 진다.

끝놀음으로 모든 놀이꾼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구경꾼과 어울려 활동하는 춤으로 대단원을 이룬다.

놀이기구

(1) 농신대

1년 일수를 뜻하는 제름 360개를 왼새끼로 9마디로 묶고, 상부에 오곡의 이삭을 달고 왼새끼로 꼰 용을 묶어 늘어뜨린다. 이때 용은 당년 1월 상순의 몇째날이 진일인가를 보고 갯수를 접한다. 즉, 진일이 초사흗날이면 용을 세개 다는 것이다.

용에 부락민의 소원성취를 축원하는 돈, 곡식, 축문이 담긴 주머니가 끼워지게 되며 농신대 높이는 11척으로 오방신장을 뜻하는 오색천을 농신대를중심으로 각각 동서남북으로 비끌어 매게 되는데 황색천 하나는 농신대 몸체에 두른다.

(2) 의상도구

①양반 : 도포에 관. 미투리 신고 부채든다.

②범부 : 흰 중의적삼에 상투. 대님 꽃댕기 매고 미투리.

③좌상 : 돌매 삿갓 뒤집어 쓰고 우의 거꾸로 입고 얼굴에 낙서.

④수총각 : 큰삿갓(일산)을 든다.

⑤머슴들(어른) : 흰 중의적삼에 상투. 새끼허리띠에 논고동(논매기 할 때 손가락 끝에 끼는 것) 차고 짚신.

⑥머슴들(총각) : 차림새 어른과 같고 댕기머리.

(3) 악기

일반 농악기와 물장고, 사장구.

매포민요

민요

유래

단양군은 강원도,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남한강 상류의 산간에 자리잡은 고을이다. 그래서 한때는 고구려의 남단 전진기지였으며, 통일신라때는 적성현이라 불리기도 했다.

소백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남한강의 맑은 물이 흘러가는 이곳은 경상, 강원, 충청도 등 3도의 접경지역으로서, 생활방식에 있어 점이적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테면 남방식 주생활과 북방식 주생활이 맞부딪히며, 풍습이나 언어에서도 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포의 남한강에서는 여러 곳에 나루터를 만들었으며 그 나루들은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기 전까지 선박의 선착장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충주댐의 수위가 내려가면 이용되곤 한다.

옛부터 매포지역 주민들의 애환은 강과 나루터와 더불어 있어 왔다. 들이 많지 않은 매포의 주민들은 자연히 강가에 모여 살게 되고 배로 강을 오르내리거나 나룻배로 강을 건너면서 생활해왔다. 부녀자들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어다 빨래도 하고 채소도 씻었다. 이때 어린이들도 따라나와 어머니들의 주위를 돌면서 놀았고, 부녀자들은 이러한 어린이들의 놀음에 물북을 두드리면서 화답했다. 그리고 강 위에 떠있는 짐배에서는 뱃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노를 젓고 유유히 강을 오갔다.

이러한 생활환경 때문에 자연히 생활을 주제로 하는 노래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매포지역의 민요로 전해온다.

특색

이 노래들은 강원, 경상, 충청, 3도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발전해왔다. 그러나 충북 단양만의 특유의 멋도 지니고 있다. 타지방의 노래처럼 장식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오히려 꾸밈없이 소박한 면이 멋스럽다.

특히 '자장가'는 할머니가 손주를 달래는 흥얼거림이 그대로 노래로 나타나 듣는 사람의 가슴에 와 닿으며, 안방과 마당 그리고 들판의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친숙한 노래이다.

'짐배노래'는 강원도 민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이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으며, 강에서 이뤄지는 일들의 즐거움과 애달픔이 깃들어 있다.

동요는 이 지방의 지리적 조건에서 생성된 방언과 같이 구수하고 정감이 깃든 노래이며, 어린이들의 진솔한 생활정서가 담겨있고 경쾌한 가락으로 흐른다.

구성

(1) 동요
널뛰기, 송아지 등.
(2) 자장가
아강 아강 우지마라 등.
(3) 뱃노래
짐배노래 등.

내용

(1) 널뛰기(동요)
쿵더쿵 쿵더쿵 널 뛰는데
싸래기 받아서 닭주고
왕겨받아 개주고
종드래기 옆에 차고
하늘에 별따러 가세

(2) 아강 아강 우지마라(자장가)
아강 아강 우지마라
느 어머이 찐조밥이
싹이 나면 온다더라
아강 아강 우지마라
우리어머이 찐조밥이
싹이나도 안오시네
아강 아강 우지마라
느 어머이 그린 황계
홰치어른 온다더라
아강 아강 우지마라
우리 어머이 그린 황계
홰를 쳐도 아니오네

(3) 짐배노래(뱃노래)
영월에 영춘에 흐르고 내리는 물은
도담삼봉 안고 돌고
도담삼봉 흐르는 물은
만학천봉 안고도네
만학천봉 흐르는 물은
옥순봉을 안고 돌고
옥순봉에 흐르는 물은
흘러흘러 잘도 나가네
영월에 영춘에 흐르고 내리는 물은
도담삼봉 안고 돌고
앞편강에 뛰우는 배는 임을실은 꽃배인데
뒷편강에 띄우는 배는 노래하는 놀배이고
얼시구 좋다 절시구 좋아 술렁술렁 잘도나가네

(4) 송아지(동요)
송아지 따세 송아지 따세
집이 소는 무슨 소
우리 소는 검은 소
저기 저기는 우리 소
저기 저기가 우리 소라네
아니요 우리 소요

우리 소는 검정 점박이소
우리 해도 점박이소
우리 소라네 우메

등바루놀이

민속놀이


등바루놀이(충남)

유래

등바루놀이는 충남 보령군 장고도에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처녀들의 놀이로 어물채취 경연을 경험한 일종의 규수제라 할 수 있다.

등바루의 어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등불을 밝힌다'는 말과 '등불을 켜들고 마중나온다'는 말이 변형된 것이라고 한다. 등바루놀이는 음력 3월 하순에서부터 4월 상순 사이의 '조금'때에 실시된다. 등바루에 참석할 수 있는 처녀의 자격은 원래는 초경의 경험이 있는 미혼 여자였으나 수년 전부터는 15세를 기준으로 하여 15세 이상의 처녀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굴캐기 경연과 더불어 부모님의 안녕과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며 흥겨운 놀이로 하루를 즐긴다.

특색

이 놀이는 소득증대를 위한 근로정신의 함양과 부모님의 안녕을 비는 효심, 그리고 마을의 풍어를 기원하는 협동정신이 조화있게 어우러진 장고도 외딴 섬마을 특유의 소중한 놀이로 전승되고 있다.

구성

전 6과장으로 구성된다.

(1) 굴 부르기
(2) 돌방 만들기
(3) 굴캐기 경연
(4) 큰아씨 뽑기와 아침식사
(5) 여흥
(6) 귀로

내용

(1) 굴 부르기

정월 대보름날 밤이 되면, 마을 부녀자들이 모여 등불을 밝혀들고 굴을 부른다.

굴바위에 굴밥을 주면서 굴부르기 노래와 동요를 부른다.

①굴부르기 노래

굴아—동해는 백석굴 남해는 청석굴
북에는 북석굴
다른 마을로 가지 말고
우리 마을로 돌아와라

②동요

이영이 영하할영
이영 소리가 하할영
이영 이영 하할영
영철이가 하할영

(2) 돌방 만들기

'등바루' 전날 마을 처녀들이 명장섬 앞 모래사장에 모여 등바루 노래를 불르며 줄을 지어 서서 돌을 날라다 돌방을 만든다. 이는 남정네들이 자신들을 엿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①등바루 노래

(후렴)
어허야 에루아 좋아
(메김소리)
우리네 명장섬 경치도 좋고요
비파여진여 조개도 많고요
대머리어장 고기도 많고요
천년을 하루같이 서있는 여는
(후략)

(3) 굴캐기 경연

처녀들은 돌방에 의상 보자기를 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큰 아씨의 지시에 따라 '등바루' 노래를 부르며 편을 나누어 굴캐기 겨룸을 한다.

①굴캐기 노래

(후렴)
에야루 야노야—
(메김소리)
잘도 한다
조개잡이 잘도 한다
어제도 여에 살고
내일도 여에 사네

바삭—잘도 까네
큰아씨 탄생 누구일까
해당화 만발하고
오늘은 등바루날
용난바위 경사났네
얼시고 좋을시고

(4) 큰아씨 뽑기와 아침식사

굴캐기 겨룸으로 이긴 편과 진 편을 결정하고 오늘의 장원을 큰 아씨로 뽑은뒤 서로 축하하며 흥겹게 놀다 어머니와 언니들이 날라온 아침식사를 한다.

동네 부인들은 이 경사를 더욱 북돋워주기 위해 농악을 치며 흥을 돋워준다.

아침식사를 끝낸 처녀들은 돌방에 들어가 비단옷으로 갈아 입고 큰아씨의 지시에 따라 흥겨운 놀이로 들어간다.

(5) 여흥

큰아씨가 '오늘은 우리 섬마을 장고도 으뜸가는 명절날이다—우리 한번 흥겹게 놀아보세—'하면 까그매·줌방넘기·해당화꽃 뺏기 등의 동요를 부르며 꽃춤·무등놀이의 순으로 엮어나간다.

(6) 귀로

무등놀이가 시작되면 마을에서 어머니와 언니들이 등불을 밝히고 마중을 나와 같이 춤을 추고 등바루 노래를 부른다.

큰아씨를 무등 태우고 명장섬을 떠나 마을로 돌아오면 마을사람들까지 합세하여 이들을 환영하며 갖가지 춤을 추다 헤어진다.

필봉농악

농악

유래

필봉농악은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에 전승되는 걸립농악이다.

임실군은 넓은 평야가 있어 예로부터 농악이 성해왔으며 90여 년 전부터 놀이의 틀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색

임실농악에는 경남농악에서 볼 수 있는 화동이 있고, 칠채가락이 가장 명확하게 보존되어 있다.

농악의 내용은 매굿과 마당밟기가 돋보이며 판굿에서의 수박치기, 등지기, 군영놀이, 도둑잽이굿 등은 임실 농악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다.

쇠가락에서 호호굿과 노래굿의 간주는 특이한 혼합박자로 꼽을 수 있다.

구성

필봉농악의 주된 요소인 판굿은 모두 13종류가 있으나 민속예술경연대회의 특성에 맞춰 8과장으로 축소, 정리하였다.

(1) 들당산굿
(2) 외마치 7채가락
(3) 쌍방울 진
(4) 반풍류
(5) 호호굿
(6) 미지기영산
(7) 재능기 영산
(8) 노래굿

내용

(1) 들당신굿

당에 농악대와 주민이 들어간다는 신호로 쓰인다.

본래는 이 굿 전에 마을을 돌며 치는 질굿(길굿)이 있으나, 여기서는 굿의 첫머리가 된다.

풍류가락이나 질굿을 울리면서 유장하게 등장하는데, 원래 굿에서의 의미는 걸립농악대가 다른 마을로 걸립을 갔을 때 그 마을 농악대와는 문굿을 마친 후 그 마을로 합굿을 치며 들어가면서 울리는 굿이다.

(2) 외마치 7채가락

이 7채가락은 가장 오래되고 전형적인 가락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좌도농악의 특징적 부분이다.

이 가락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순서의 악장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5채굿가락만은 이 외마치굿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이 가락을 때로는 길굿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3) 쌍방울진

일명 덕석몰이나 오방진이라고도 하나, 이 마을에서는 쌍방울진이라고 한다.

달팽이 모양의 진을 쌓으면서 조여서 한바탕 논 다음 다시 풀게 되는데, 두 번을 반복한다.

(4) 반풍류

가락이 굵고 잔 가락이 없는 풍류가락의 유례한 맛을 보이다가 가락을 조이면서 점점 판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5) 호호굿

일정한 가락을 치면서 농악대의 구령에 맞추어 외치는 것으로 팀의 협동성과 단결력을 나타낸다.

쇠와 잡색들이 원래의 진에서 이탈하여 중앙으로 들어가 무늬를 만들며 놀다가 원래의 진과 두 줄로 만든 다음 가락에 맞추어 '호호'라는 구호를 외친다.

(6) 미지기영산

일명 짝드름이라고도 하며, 치배들이 상쇠와 부쇠의 두 패로 나뉘어져 서로 마주보며 두줄백이로 된 다음 가락의 변화에 따라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

이 때의 가락은 상쇠·부쇠가 한 번 씩 교대로 주고 받는다.

(7) 재능기영산

좌도 농악의 모든 가락 중에서 가장 기예적이고 화려한 가락을 모아놓은 것이다. 형식이 따로 없이 자유자재로 구사되어 보는 이들의 흥을 돋운다.

(8) 노래굿

장을 제외한 쇠들과 잡색들이 원래 위치의 진에서 빠져나와 중앙에서 진을 만들어 두 줄이 된 다음 옛부터 전승되어오는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는 콩밭 밭매기조의 농요로 상쇠가 불림을 하고 치배들이 후렴을 받으며 춤을 추면서 흥겹게 논다.

놀이기구

쇠 6, 장고 6, 큰 북 2, 소고 15, 새납, 등과 농기, 영기가 쓰인다.

영변성황대제

민속놀이

유래

영변성황대제는 평안북도 영변지방에 전승되는 동제이다.

오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부락사회를 이루어 생활하는 중에 뜻하지 않게 부닥치게 되는 모든 재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락의 수호신을 섬겼다. 이 수호신이 오늘날의 성황이다. 이곳에서 성황대제를 올리는 것을 당굿이라 한다.

함경북도에는 거의 어느 마을에나 수백년 묵은 고목이 있고 거기엔 의례히 성황당이 있다. 1년에 한번, 혹은 윤년으로 길일을 잡고 대제를 봉행한다. 마을의 안녕과 입신출세의 신덕을 입는다고 믿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가가호호 부담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대제에 참가한다.

특색

성황대제의 백미는 무녀가 꽃둥지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다. 우리나라 전설 속에 나타나는 선녀의 승천 모습이 무녀와 접맥되어 마을 당굿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 특이하다.

구성

(1) 마을 제관들이 성황당에 가서 신위를 가마에 태워 가설 제단에 모셔온다.

(2) 본격적인 성황제가 강신굿, 대감놀이, 거리굿 순으로 진행된다.

(3) 무녀들이 '꽃둥지'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다.

(4) 신위를 다시 성황당으로 모셔간다.

내용

성황대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락민 중에서 나이가 많고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을 제관으로 뽑는다. 제관으로 뽑힌 마을 어른은 성황대제 전 기간에 걸쳐 전체를 지휘하게 된다. 제관은 다년간의 실제 봉제의 경험 속에서 무녀 5,6명을 선발하고 성황대제에 쓰일 악기와 악기를 다룰 악사 10여 명을 선발한다. 선주의 구성은 무녀 5,6명과 장고, 징, 제금, 꽹과리, 새납 등 10여 명이 참가한다.

제관과 신주로 뽑힌 사람들은 성황당에 가서 간단한 제례를 올린다. 제례가 끝나면 가져왔던 가마에 신위를 태워 선두에 모시고 가설 제단이 꾸려진 곳으로 향한다. 이때 무녀들은 장수복을 입고 말을 타고 가마 뒤를 따른다. 제관, 무녀, 주악, 참관자의 순으로 행렬을 지어 장단을 맞추어 가설 무대에 이르게 된다. 가마에 모셔온 신위를 가설 제단에 안치하고 제관에 의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성황제가 봉행된다.

성황제가 끝나면 무녀들에 의해 당굿이 시작된다. 처음엔 성황신을 모셔오는 강신 굿판이 벌어지고 다음 순서로 대감 놀이가, 그리고 마을입구 거리에서 시작되는 거리굿이 진행된다. 이러한 굿판의 과정이 보통 4~5일 혹은 1주일간 계속된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 무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흥겹게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이 무녀의 춤판에 끼어들어 기분내키는데로 제전 그릇에 돈을 놓고 한해의 화복을 기원한다. 무녀들과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 한 판 춤판을 벌이다 보면 제전 그릇엔 돈이 그득 쌓이게 마련이다. 굿판이 무르익을 쯤 당산나무에 밧줄이 걸리고 꽃으로 장식한 꽃둥지가 마련된다. 무녀 중에서 한 무녀가 꽃둥지에 올라타면 마을 사람들은 밧줄을 잡아당기고 꽃둥지는 하늘로 오르게 된다. 꽃둥지 속의 무녀는 쉴새없이 춤을 추고 점차 빠른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춘다. 춤을 추면서 무녀는 꽃둥지 속에 담겨 있던 복주머니를 구경꾼들에게 던져준다. 그러면 구경꾼들은 서로 복주머니를 차지하려고 야단법석을 떨고 당굿은 절정에 이른다. 무녀는 하늘로 승천하는 승천무를 춘다.

꽃둥지에서 무녀가 땅에 내려서면 가설 제단에 모셨



영변성황대제 (평북)

던 신위를 정돈하여 성황당으로 모시고 간다. 성황당에 신위를 안치하면 당굿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놀이기구

영변성황대제는 굿할 때 쓰이는 장고, 징, 꽹과리를 비롯하여 제금, 새납, 가마등이 쓰인다.

한양풍물놀이

민속놀이

유래

서울의 민속놀이는 4대문 밖에서 성행하였다.

숭인리(지금의 숭인동) 방아다리벌(신설동에서 청량리 사이)은 들판이 넓은 농지였으며, 이곳 사람들은 논에서 일을 할때 모심기소리라든가 지경소리, 상여소리, 풍물놀이를 즐겼다. 옛부터 봄이 와서 농사철이 되면 나라의 임금이 직접 들판에 나와 시농(始農, 先農)을 하기도 했다.

이곳 사람들은 또 한자리에 모여 즐기는 천렵대동놀이라든가 백중을 중심으로 한 씨름대회, 겨울철의 척사대회 등의 놀이에는 언제나 흥겨운 풍물놀이가 함께 벌어졌고 여기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여흥이 따랐다.

서민 대중들이 즐기던 이러한 민속놀이가 서울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40여년이 훨씬 넘지만 아직도 장위동 쪽에서는 일년에 한번 여름철이면 노인들을 모시고 천렵을 하며 풍물을 치고 춤을 즐기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특색

서울지방의 풍물놀이는 예능면에서 다양하지 못하고, 굿거리 장단으로 단조롭게 시작되었지만 홍두깨춤, 무동춤, 꼽새춤 등은 관객들이 많은 호감을 갖고 즐기는 민속놀이이다.

많은 민속놀이의 경우, 그와 관련된 유형문화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한양풍물놀이는 이에 관련된 유형문화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것이 바로 선농단이다. 기록에 의하면 임금이 직접 나아가 풍년들기를 기원하는 제를 지내는 곳을 선농단이라 칭했으며, 임금은 제를 지낸 후 친히 밭을 갈아 농사의 소중함을 온 백성에게 알렸다. 이때는 농부들 중에서 고령다복한 사람을 뽑아서 친경에 동참하도록 하였고, 친경시 행사에 참가한 농부들에게 점심으로 뚝배기 곰국에 밥을 말아 주었는데 이것이 현재의 설농탕이라고 한다.

구성

(1) 모심기 소리 · 논매기소리
(2) 아낙네 호미춤(보리밭 매기)
(3) 꼽새춤
(4) 홍두깨 춤
(5) 무동춤
(6) 대동풍물놀이

내용

각 구성 요소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심기소리 · 논매기소리

농사일의 어려움을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목청이 좋은 한사람이 소리를 매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소리를 받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모심기 노래

(매김) 하나로구나 하나인데 하나만 하고도 둘이로다

(받음) 하나로구나 하나인데 하나만 하고도 둘이로다.

(매김) 둘이로구나 둘인데 둘만 하고 도 셋이라
셋이로구나 셋인데 둘인데 둘만 하고도 셋이라
셋이로구나 셋인데 셋만 하고도 넷이라
넷이로구나 넷인데 넷가운데 다섯
다섯이로구나 다섯인데 다섯만 하고도 여섯
……하 략……

②논매기 소리

(매김) 워~호~호~워~호~워호라
이논배미 물결이 좋아
(받음)삼천가지 빌었으니

삼천석이 나고보면
나라봉양 하여보세
나라봉양 하여보세
부모봉양 하여보세
부모봉양 하고 남건
……하 략……

(2) 아낙네 호미춤

아낙네들이 밭을 매며 콧노래를 부르며 농사일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 추는 즉흥춤이다.

(3) 꼽새춤

놀다가 흥이 나면 구경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등에다 술바가지나 그릇등을 집어 넣어 꼽추 모양을 하고 추는 춤이다.

(4) 홍두깨춤

홍두깨춤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기 보다는 춤에 경험이 없는 서민들이 풍악소리에 맞춰 자기도 모르게 팔을 벌리고 팔과 다리가 뻣뻣한 모양으로 추는 춤이다.

(5) 무동춤

술을 마시고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놀다가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중에 어린아이를 골라 어깨에 태우고 둥실둥실 추는 춤이다.

(6) 대동풍물놀이

여러가지 춤과 소리 등 놀이가 끝나면 젊은이들은 동네 어른들께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풍물을 치며 춤과 노래로 즐기고, 앞날의 부락 발전과 협동정신을 다지면서 마을을 향하여 길놀이(길굿)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며 들어온다.

놀이기구

농기, 영기, 등의 기타 꽹과리, 징, 장구, 북, 호적 등의 농악기, 역할에 따른 의상 등과 기타 소도구가 필요하다.

대동굿

민속놀이

유래

대동굿은 서해안의 해주·옹진에서 안면도에 이르기까지 지방에 따라 매년, 혹은 3년에 한번씩 행하는 마을의 큰제의이다. 그러나 이 대동굿이 언제부터 있어 왔고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고 다만 '조상적부터…'라는 옛노인들의 설명을 이 대동굿이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할 뿐이다.

해안지방에서는 해상에서의 생명의 안전과 풍어라는 이중적 부담을 지닐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촌에서는 고기집이가 시작된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 생명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의식이 있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제의 형태는 마을마다 조금씩은 달랐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황해도 지방의 어촌에서는 시간의 흐름속에서 대동굿과 같은 유형의 풍어제가 정착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색

이 굿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첫째는 당굿으로서 당에 마련된 굿청에서의 본굿이 되겠고, 둘째는 마을의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세경굿이고, 셋째는 바닷가에서 지내는 강변용신굿이다. 당굿이 마을 전체에 평안과 풍어를 축원하는 굿이라면 세경굿은 각 가정의 평안과 운수(풍어, 기타 재복)를 축원해 주는 굿이다. 강변용신굿은 바다에서 원통히 죽은 혼령을 달래주는 굿이기 때문에 그 유족들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대동굿은 당산과 마을 집들과 바닷가 등 마을 전체가 굿 공간이 되고, 그 기간도 3~5일 정도가 되는 마을 최대이 신앙적 행사이자 굿놀이가 된다.

또한 대동굿의 내용이 길지받기, 뱃기 경주, 띠배보내기의 3대요소를 지닌 것이 특징이랄 수 있다. 길지받기는 각 선주들이 자기의 뱃기에 서낭을 내림받는 엄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뱃기 경주는 그 뱃기를 각자 먼저 자기 배에 꽂으려고 달리는 뛰어난 놀이의 모습이며 띠배보내기는 마을의 모든 액을 바다멀리 띄워보내는 신앙이요 놀이의 결합된 모습이다.

구성

대동굿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신청울림 (2) 상산맞이
(3) 세경굿 (4) 부정굿
(5) 감흥굿 (6) 초영정물림
(7) 복잔내림 (8) 제석굿
(9) 성주굿 (10) 소대감놀이굿
(11) 말명굿 (12) 사냥굿
(13) 성수거리 (14) 타살굿
(15) 군웅굿 (16) 먼산장군거리
(17) 대감놀이굿 (18) 뱃기내림
(19) 조상굿 (20) 서낭못신굿
(21) 영산할아방·할망 (22) 뱅인영감
(23) 벌댕동굿 (24) 강변용신굿

내용

정월 초사흘에 각 선주와 마을 유지들이 대동굿 날짜를 정하고, 대동굿을 진행할 경관만신을 추첨해서

선출한다. 그리고 제관과 도가잡, 소염들도 선출한다.

대동굿 일주일 전에는 소염(제의추진위원격)들이 도가 집에 모여 합숙을 하면서 소를 하는데 음식도 채소만 먹고 몸을 청결히 한다. 도가집에서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장군당 당집 옆에 굿청을 꾸민다.

대동굿을 사제할 경관만신(무당)은 대동굿 전날 마을에 도착하는데 도착하면 제일 힘있는 선주집에 초대되어 그 집의 운수와 풍어를 기원해 준다. 그리고 다음으로 능력있는 선주집에 3집 정도 차례로 불려가 운수와 풍어를 기원해 준다.

무당이 선주집들의 기원을 끝내고 쉬다가 자정이 넘어 도가집으로 들어가면 대기하던 소염들이 먼저 당에 올라가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당제를 지낸다. 소염들의 고축과 깨끗한 평복으로 올라와 술을 올려 인사만 드리고 도가집으로 내려와 소염들과 합세하여 징, 태징, 제금, 장고, 호적, 소라 등의 악기로 소리를 내면서 신청울림을 한다.

이때 사제무는 홍관대에 호수갓으로 무복을 갖추고 조무도 쾌자를 입으며 소염들도 도포나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춘다. 그리고 다시 거상 장단을 치면서 당으로 올라간다. 당에 제물을 간단히 차리고 당맞이굿인 상신맞이를 하여 장군님을 맞아 모셔가지고 도가집 마당으로 내려온다. 내려올 때의 과정에서 황해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인다.

다음은 세경굿에 들어가는데, 세경은 뚝대를 잡는 사람의 인도로 각 집을 방문하여 가족들의 평안과 풍농, 풍어를 빌어준다. 이때 사자업이 쫓아다니고 탈쓴 사람도 쫓아다니며 영산할아방, 영산할망으로 꾸미기로 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

이렇게 세경도는 것이 끝나면 그때서야 당에 올라가 당사 옆에 꾸며진 굿청에서 부정을 씻고 굿당을 정화하는 부정굿에 들어간다. 청배한 제신을 즐겁게 놀려주고 제단에 좌정시키는 감흥굿, 갖가지 영정을 다 불러 먹이고 모든 액운을 멀리 보내는 초영정물림, 제상에 술잔을 올려놓고 축원을 한 뒤 제관에게 내리는 복잔내림, 제석님을 맞아 명과 복, 재수를 기원하는 제석굿, 제비원에서 솔씨를 받아 심고 자란 나무를 베어 집을 짓는 성주굿, 무당이 며느리와 시누이 그리고 봉사 역을 하면서 덕담과 재담을 늘어놓고 난봉가 등을 부르면서 제주의 복을 비는 소대감놀이굿, 각 말명을 방아를 찧으러 오도록 청하고 명과 복을 기원하는 말명굿, 제수를 얼르는 사냥굿, 여러 신장, 군, 산령님들을 즐겁게 해주고 제관과 소염들, 그리고 마을을 축원해 주는 성수거리, 제숙을 삶아 여러 감흥을 청배하여 놀리는 타살굿, 타살굿에서 계속 연결되는 군웅굿, 각 지역 모든 장군들은 불러 용맹과 위용을 칭송하는 먼산장군거리, 익살과 풍자섞인 재담으로 관중을 웃기고 춤을 추며 술잔을 돌리기도 하는 연희에 가까운 대감놀이굿과 뱃기내림, 조상님을 위하는 조상굿, 각 서낭을 불러 덕을 내려 재수있게 해주고 액을 막아달라고 기원하는 서낭모신굿, 고기를 많이 잡아주는 신을 사람으로 꾸며 노는 영신 할아방·영신할망, 만신이 백인영감으로 가장하여 배풍파 만나지 말라고 기원하는 뱅인영감, 여기저기의 각 잡산을 잡아먹는 벌대동굿까지 모두 마치면 바닷가에 내려와 강변용신굿을 한다.

강변용신굿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마을 사람들이 무명베와 간단한 제물을 준비하여 바닷가에 무명베를 펼쳐놓고 제물을 차리면 사제무는 각 가정별로 차려놓은 제물 앞에서 합동으로 굿을 해준다.

그리고 끝으로 수수장ᄇᆞ로 엮어 만든 배에 각 집에서 만들어온 삼색 헝겊을 꽂아 치장하고 배안에는 본굿청의 제물과 닭 1마리, 주민들의 제물 등을 담아 깊은 바다로 띄워 보낸다. 이것은 동네의 액운을 모두 배에 실어 보내는 굿의 끝 절차이다.

놀이기구

악기 : 장구, 징, 태징, 꽹쇠, 제금, 호적, 피리, 북 등

무구 : 삼지창 대·소, 장군칼, 신장칼, 칠성검, 명도, 무령, 부채 등

기타 : 역할에 따른 여러가지 의상

조심기놀이

민속놀이

유래

평안남도 지방은 평야가 적은 관계로 밭작물을 주로 주식으로 삼았다. 조, 옥수수, 감자 등을 쌀과 섞어 밥을 지어먹었다. 특히 평안남도는 조를 심는 면적이 전체 밭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조의 비중이 컸다. 다른 고장의 조와는 달리 조이삭이 크고 알도 굵고 줄기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조농사는 1모작으로 한해 농사에 세번의 김을 매는데 조잎이 갈잎처럼 거칠어 김메는 작업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조심기 놀이는 조농사의 전과정을 노래와 율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김을 매는 아낙네들의 고역을 노래로 풀고, 가을 추수기에는 맑은 가을 하늘과 어울

려 서정적인 정취를 자아냈다. 가을 소슬바람에 묵직한 조이삭이 흔들릴 때면 여름더위에 김매던 고역이 한순간에 스러지고 마냥 흐뭇한 정경을 자아냈다. 남도지방으로 내려올수록 모심기 노래가 주종을 이루지만 평안남도의 특성상 이런 조심기 노래가 밭둑에서, 밭 가운데에서, 김을 매면서 불려졌다. 그러므로 역사의 깊이를 헤아일 수 없을 정도로 조심기 노래는 평안도 아낙네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조 심을때 벌어지는 갖은 애환을 실어 가을 탐스런 달빛 아래에서도 불리워졌다.

특색

조심기놀이는 밭갈이에서 추수까지 부녀자들의 피땀어린 노동을 노래와 타령, 연기로 민속화 한 것이 특징이다.

구성

(1) 밭갈이.
(2) 씨뿌리기.
(3) 김매기.
(4) 추수

내용

조를 심기 위해 밭고랑을 파는 장면을 연출하고 노래를 부른다.

호미로 고랑을 파면서 한해의 조농사가 잘되기를 기원 한다.

바구니에 조 씨앗을 담아 파진 고랑에 조를 뿌린다.

씨를 뿌린 다음 그다지 비료가 필요없는 조농사이지만 조이삭이 무성하게 열리기를 기원하며 재를 뿌린다.

조씨앗에 흙을 덮고 밟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조와 모종이 탄생하면 아낙네들은 조의 모종을 밭에 옮겨 심는 작업을 한다.

조 이파리가 어느정도 자라면 김매기를 실시한다. 김매기의 힘겨운 노동이 묵직한 가락에 실린다.

가을이 되어 풍년가락과 함께 추수를 한다. 추수시기에는 흥겨운 타령이 흘러 넘친다.

추수한 조를 자른다. 잘라진 조를 마당에 펼쳐놓고 마당질을 한다. 마당질을 해서 조가 떨어지면 키질을 해 마무리 한다.

그물당기는노래

민요

유래

그물 당기는 소리는 한여름철 제주도의 바닷가 마을에서 고도리, 멸치 따위를 잡을 때 쳐놓은 그물을 여럿이 함께 잡아당기면서 부르는 어업요이다.

백사장이 하얗게 깔린 제주도의 바닷가 마을에서는 수십명씩 무리를 지어 그물로 고기잡이 하는 광경이 쉽게 눈에 띄고 이때 부르는 싱그런 노랫소리가 한여름 새벽녘에 메아리친다.

제주도에는 그물로 고기잡이 하는 바닷마을이 많지만, 특히 북제주군 김녕·월정 등 구좌면 일대에서 더욱 성행하는 편이다. 이 고기잡이는 적어도 25가구 이상으로 짜인 계조직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김녕리에만도 여섯개의 계조직이 있다. 계원들이 함께 하는 공동어로 작업의 수고를 달래고 풍어를 기원하거나 자축하는 의미가 집단적인 노래로 자리잡은 것이 바로 그물당기는 소리로 발전하여 오늘날에도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특색

어업노동요는 당연히 바닷마을에서 전승되기 마련이지만 고도리, 멸치 따위를 잡는 어로는 해안마을 중에서도 넓은 모래밭이 펼쳐진 곳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물당기는 노래는 제주도 내에서도 몇몇 특정마을에 한하여 분포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어업노동요로는 해녀노래, 멸치 후리는 노래, 떼젓는노래, 뱃노래 등이 전해 오지만 작업의 성질상 그물당기는노래는 집단적 성격이 다른 노래보다 강하고 계조직을 통한 작업에서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이 여느 노동요에 못지 않게 강하게 발휘될수 있으며, 다른 어업요에 비해 주로 작업실태를 노래하는데 퍽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점이 특징이다.

구성

그물 당기는 노래는 독자적으로 불리지 않고 작업과정에 따라 서우젯소리가 앞뒤로 따른다. 작업 단계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출어

늦봄에서 초가을 사이에 고기잡이가 한창인데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주로 멸치를 후리고 9,10월에는 고도리를 잡는다. 이 고기잡이에는 터우와 낚시거루가 동원된다. 이렇게 출어 준비를 마치면 터우와 낚시거루가 원을 그리며 작업에 들어간다.

(2) 서우젯소리

터우를 저어나가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3) 그물당기는노래

그물에 걸린 멸치, 고도리 등을 끌어 올리면서 그물당기는노래를 부른다.

(4) 서우젯소리

어획물을 터우에 싣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서우젯소리를 부른다.

내용

그물당기는소리
에헤야아 뒤에에헤야
(후렴 : 어허어양 뒤에에야)
당선으로 궤기를 보고 (후렴)
망선에서 후림을 노라 (후렴)
동깻코는 은그문녀로 (후렴)
서깻코는 서엿콧으로 (후렴)
당선에서 진을 재왕 (후렴)
앞궤기는 선진에 잡곡 (후렴)
뒷궤기는 후진을 노라 (후렴)
그물코히 삼천코라도 (후렴)
머릿배가 주장이여 (후렴)
알배에랑 유차옵곡 (후렴)
뒷배에랑 들러주소 (후렴)
접군덜아 정신차리라 (후렴)
산벌로 멜나간다 (후렴)
어야뒤야 방에로고나 (후렴)
어허낭창 방에여 (후렴)
풍년왔네 돈풍년왔네 (후렴)
논갱이와당에 돈풍년 왔네 (후렴)
사서안골 추조 안골궤기 (후렴)
논갱이와당에 다몰려놓고 (후렴)
어기여뒤여 방에로고나 (후렴)
당선에랑 봉기를 꼽고 (후렴)
어기야랑창 멜고리 돌아오리 (후렴)
공원제장각신 밥주걱 들곡 (후렴)
춤을두나 추는구나 (후렴)
족은 똘은 법환리 시집가곡 (후렴)
셋똘은 가파도 시집가곡 (후렴)
큰똘은 비양도 시집간 (후렴)
우리 두늙은이만 남아시난 (후렴)
궤긴 하닝 어떻처치호코 (후렴)
어기여뒤여 방에로고나 (후렴)
논갱이와당 만선초목 (후렴)
궤기는 잔뜩 거두와놓고 (후렴)
접군덜아 서두리 잘하라 (후렴)
어기여뒤여 방에로고나 (후렴)
구벳놈은 어디를 간고 (후렴)
사서안골 추조안골 궤기 (후렴)
농갱이와당르르 다거두와들연 (후렴)
어기어야 방에로다 (후렴)
어라능청 방에여 (후렴)
지천다천 보리떡에 식미천 (후렴)
낫이랑 농소를 짓곡 (후렴)
방이랑 요 그물놓아 (후렴)
놈도자는 야밤중에 (후렴)
요 그물 놓앙 잘살아보세 (후렴)
풍년왔져 돈풍년 왔져 (후렴)
돈갱이와당에 돈풍년 왔져 (후렴)

용연기우제

민속놀이

유래

용연은 제주시 용담사 한천 하류에 있는 지소이다. 이곳은 언제나 맑은 물이 샘솟아 못을 이루어 바다로 흘렀고, 못의 양쪽 벽은 병풍처럼 절벽이 둘러싸여 절경을 이루었다.

예로부터 이 용연에는 큰 용이 머물러 산다는 전설이 전해내려 왔으며, 이 용연 곁에는 당이 있었는데 그 당신을 일컬어 '용해국대부인'이라 하였다. 또한 이 용연은, 가뭄에 기우제를 올리면 용신의 영험으로 비가 내린다는 속신이 있어 기우제를 올리는 곳으로 되어왔다.

용연에서 기우제를 지내게 된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전설이 전한다.

옛날 제주도에 7년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죽게 되었는데 성안에 사는 한 무당이 목사에게, 용연에서 기우제를 올리자고 건의했다. 목사의 승낙을 받고 무당은 용연 옆의 당밭에 굿청을 차리고 55자의 용을 짚으로 만들어 머리는 젯상에 올리고 꼬리는 용연에 담가 7일간의 굿을 마치자 큰비가 내렸다. 이에 백성들은 55자 용을 어깨에 메고 춤추면서 성안을 돌고 용을 놀렸다.

이러한 전설에서 연유되어 매년 가뭄때면 용연에서 기우제를 행하게 되었다.

뒤에 이르러 용연기우제는 유교식 제법으로 바뀌어 버렸지만 당시 굿을 행사던 무당의 자손들이 현재는 규모를 축소한 용연기우제를 집안에서 올리고 있다.

특색

기우제는 본래 무속적 성격이 강했는데 나중에 유교식 제법으로 행하게 되었다. 용연기우제굿은 보기 두물게 본래적인 기우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굿의 한 요소로 행했던 용놀림도 특이하다.

현재 전승되는 제주도의 민속굿은 입춘굿, 영등굿

등이 있는데 이들 굿보다도 기우제굿은 훨신 먼저 유교식으로 제법이 바뀌어 버렸다는 점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구성

(1) 삼석침
(2) 초감제
(3) 요왕맞이
(4) 도진
(5) 용놀림

내용

굿을 시작하려면 먼저 큰대를 세우고 젯상을 차려놓는다. 큰대란 긴 대에 통기를 달아 세우고 그 옆에 좌돗기와 우돗기를 세워 연결시켜놓은 것이다. 이 큰대 앞에 용왕제상인 탁상을 마련하고 그앞에 공싯상과 대령상을 배치한다. 공싯상은 무조신의 젯상이고 대령상은 청신 할때 신을 모셔들이는 제상이다.

굿청에는 소무들이 북, 대영,설쇠, 장구 등 악기를 받아 굿 준비를 하고 그 뒤에 목사 이하 관원 들이 굿에 참례하기 위해 자리잡고 있다. 준비가 끝나면 수심방이 나서서 굿을 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삼석침

전 악기를 세 번 쳐 울리는 것으로 굿의 시작을 신에게 알리는 의미가 있다.

(2) 초감제

굿하는 사유를 알리고 모든 신을 청하여 모시는 것으로 모든 굿이 초두에 행하는 기본적인 순서이다.

(3) 요왕맞이

용왕이 내림할 길을 치워 닦아 용신을 맞아들이고 비를 내려주시도록 비는 대목이다.

(4) 도진

신을 돌려보내는 제의식이다.

(5) 용놀림

55자 되는 용을 메고 성안을 돌며 즐겁게 놀리는 과정으로 이때 서우젯소리를 부르며 관민이 춤을 추며 용을 놀리는데, 이는 용신을 즐겁게 하여 비를 내려주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함평농요

민요

유래

전라남도 함평은 함평평야와 학교평야를 갖고 있는 농본의 고장이며, 옛부터 농악과 농요가 성행했다.

다른 농요와 같이 함평농요도 고된 노동의 피로를 덜어주고, 마을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널리 불리워져 왔다.

특색

함평 농요는 들노래의 구색을 모두 갖추고 있다. 논과 밭의 노래가 함께 불리며, 등짐질·홀태질·도리깨질 등의 노동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한 가사가 특징이다.

구성

(1) 무장삼장소리
(2) 외주삼장소리
(3) 들내기소리
(4) 콩밭소리
(5) 애농소리
(6) 고사반
(7) 등짐소리
(8) 개장치는소리
(9) 홀태질소리
(10) 매동질소리
(11) 도리깨질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1) 무장삼장소리, 외주삼장소리

김매면서 부르는 소리로서 자유리듬으로 느리고 길게 경토리로 읊듯이 부르는 유장한 소리이다.

(2) 들내기소리

김매면서 부르는 소리로서 좀 느린 12/8로 중중몰이 장단에 맞으며 경토리로 되어 있다.

(3) 애농소리

장원질소리를 하면서 부른다.

중중몰이 장단에 맞으며 육자배기토리로 되어 있고 흥겨운 느낌을 준다.

(4) 고사반

두래패들이 농악을 치면서 부른다.

(5) 등짐소리

농군들이 볏단을 져 나르며 부른다.

(6) 개장치는 소리

개상질하며 부른다.

(7) 홀태질소리

벼를 훑으며 부른다.

(8) 매동질소리, 도리깨질 소리

타작하면서 부른다.

22

제2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1. 10. 22 ▶ 10. 24
인천

제2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1. 10. 22–10. 24.
인천

대통령상
현천소동패놀이(전남)–민속놀이
국무총리상
입석줄다리기(전북)–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집줄놓는노래(제주)–민요
용대기놀이(충남)–민속놀이
청단놀음(경북)–민속무용
제천두학농악(충북)–농악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장려상
용왕굿(인천)–민속놀이
강릉대보름농악(강원)–농악
동래학춤(부산)–민속무용
미수상 참가작
영변가(평북)–민요
두만강뗏목노래(함북)–민요
소놀이굿(황해)–민속놀이
영변성황대제(평북)–민속놀이
강화시선뱃노래(경기)–민요
밀양백중놀이(평남)–민속놀이
항두계놀이(경남)–민속놀이
봉산탈춤(황해)–민속극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공로상
봉산탈춤(황해)
북청사자놀음(함남)
개인상
정태기(강화시선뱃놀이, 경기)
하보경(밀양백중놀이, 경남)
김정연(항두계놀이, 평남)

현천소동패놀이

민속놀이

유래

전라남도 여천군 소라면 현천리는 여수 서북방 12㎞에 위치한다.

아름다운 매산과 기암괴석이 우뚝 솟은 국사봉 기슭에 자리잡은 이 마을은 오성의 씨족 마을이다.

이 마을에 옛부터 전승되어 오는 소동패는 남도지방에 널리 전파되었던 공동작업(두레)을 하기 위한 패조직이다.

소동패놀이는 20세 이상은 대동패, 16세 이상 19세까지를 소동패로 조직하여 농악과 노래, 춤을 종합한 연희 예술이다.

풀베기와 김매기 등의 공동작업은 매우 고되고 지루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레패로 하여금 노동의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특색

둘째 과장의 구성 요소인 전갈은, 이 놀이의 엄격한 예절 숭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어른에 대한 복종은 농촌 사회의 전통을 유지하는 필수 사항인 것이다.

구성

전 3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첫째 마당
조반소고와 집단 김매기
(2) 둘째 마당
전갈과 영문전갈
(3) 셋째 마당
어울림굿

현천소동패놀이 (전남)



내용

(1) 조반소고를 울리면 마을 앞에 모인다. 영기를 앞세우고 길소고를 치면서 들판으로 나가 김매기 소리에 맞추어 집단 김매기를 한다.

〈김매기 소리〉

①문지요 소리
애—예헤—야—
문—지—요
②산아지 타령
이지심 밀어서 풍년이 들어야
우리집 큰아들 장가를 보내지
(후렴)
애헤야 뒤야 에헤야 뒤여라 산아지로구나
열어라 당겨라 지심을 밀어라
나락폭 상할라 조심히 밀어라
이지심 밀어서 풍년이 들어야
선영 앞에 제사를 즐겁게 걸게 걸게 지내지
(후렴)
꽃은 울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네
(후렴)
삼산은 반락 청천외요
이수중부 백로주로구나
(후렴)
남산 봉학이 죽순을 물고
오등 숲속으로 넘노난다
(후렴)
불볕을 등에 지고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하고 먹자서라
(후렴)
③잦은어기야 소리
해당화 꽃송이 와질끈 끊어다
마누라 머리에 꽂아나 주세
(후렴)
어이야 뒤야 에헤—야
여—에—헤 어기야
먼데 사람은 듣기도 좋게
북장고 장단에 논을 매세
(후렴)
큰애기 솜씨로 술을 걸러
총각이 마시면 장가를 가지
(후렴)
총각이 떠다 준 궁초나 댕기
고운 때 못 묻어 사성이 왔네
(후렴)
홍갑사 댕기는 붉어야 좋고
큰애기 속곳 가랑이 넓어야 좋네
(후렴)
다 데였네 다 데였네
논매기가 다 데였네
(후렴)
④허리랑 소리
산중의 귀물은 머루나 다래
인간의 귀물은 갈보라 한다
(후렴)
허렁 허렁 허러러리야—
허리랑 헐시고 허러리가 났네
저 달은 대장이 되고
견우직녀는 후군이로구나
(후렴)
울 너머 담 너머 깔비는 총각
눈치만 있으면 떡 받아 먹소
(후렴)
산골 큰애기 삼 삼아 이고
나만 보면 옆걸음친다
(후렴)
저놈의 큰애기 눈매를 보아라
곁눈을 감고 속눈만 떴네
(후렴)

(2) 대동패로부터 전갈 요청이 오면 영쇠와 소고쇠가 대동패 두목에게 정중히 전갈을 올린다. 또 소동패가 만나면 서로 겨루어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영문 전갈을 올린다.

(3) 승패가 끝나면 양 편이 어울림굿을 치면서 일체감을 조성한다.

민요는 박진감 있고 경쾌하게 부른다.

입석줄다리기

민속놀이

유래

입석줄다리기는 전북 김제군 입석지방에서 행해지는 줄다리기이다. 그 유래는 벽골제(저수지)를 시축하고 이 고장에 해마다 풍년이 들도록 기원하는 뜻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전해지며, 또 일설에 의하면 김제 동헌에서 벽골제와의 사이에 월촌면 '당재'와 '토끼재'를 연결하는 능선이 소구를 이루고 있어 터가 세므로 터를 누르기 위해 석주(장승의 일종)가 세워진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 석주의 상단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사람의 얼굴같기도 하고 사자의 얼굴 모양 같은 것이 음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석주를 보호하기 위해 그 줄을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줄에 손을 대면 '동토'가 나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하여 지금까지 보존되었다. 이 석주로 인하여 마을의 이름도 '선돌' 부락이며 한자로 표기해서 입석으로 지명이 되었다고 한다.

특색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부락간의 대항이 아닌 성대결의 줄다리기로 진행된다. 더욱 특이한 점음 여성편의 힘의 열세를 보완하기 위하여 머리 땋은 총각을 여성편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구성

(1) 줄들이기
(2) 줄놀이와 고놀이
(3) 줄다리기와 입석줄감기
(4) 당산제
(5) 군무

내용

해마다 음력 정월 15일 밤, 보름달이 동녘에 떠오르면 입석줄다리기는 시작된다. 인근 주민들이 3~4일 전부터 볏단을 모아서 동아줄을 틀어 수십개로 만든 다음 하나로 꼰다. 지름은 2척 정도 크기로, 길이는 약 5~60척 대형의 원줄을 먼저 만들고 원줄에서 손아귀에 들 수 있는 작은 줄, 즉 접줄을 많이 만들어 당기기 좋게 한다. 그리고 남성줄은 앞에 올가미를 작게 만들어 통나무가 들어갈 정도로, 여성줄은 남성의 올가미 머리가 꿰질 수 있도록 크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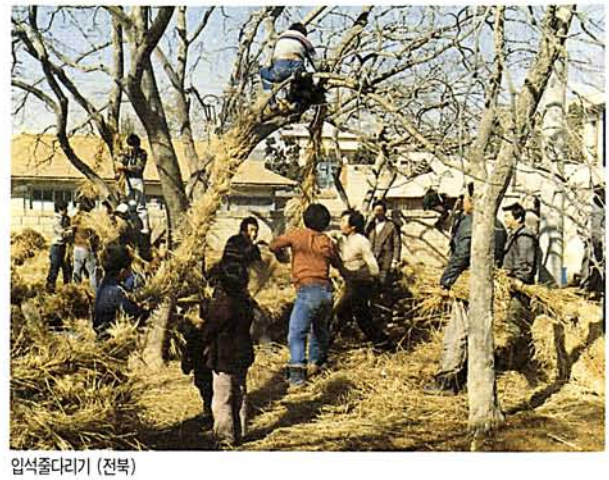
이렇게 줄이 만들어지고 줄다리기가 시작되면 농악이 울리고 동쪽에서 남성들이 줄머리에다 신랑을 태우고 줄 양편에 늘어서서 작은 통나무를 줄아래로 가로질러 어깨에 줄을 메고 나온다. 서쪽에서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이 신부를 줄머리에 태우고 나와 중앙지점에서 만난다.

거기서 줄말기 등 한바탕 놀이를 한 후 두 팀이 서로 맞서 고놀이를 시작한다. 한바탕 얼키고 설켜 싸우다가 줄이 이어지면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촌장의 신호로 남성줄과 여성줄을 이어 줄다리는 과정에서 정절부인중에서 선발된 2명의 금란사가 풍기단속을 맡고 있어 더욱 이채롭다.

줄다리기 결과는 여성들이 이겨야 그 해 풍년이 든다고 전해 오고 있어 지금도 해마다 줄다리기는 여성들의 승리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줄다리기가 끝나면 여성줄을 먼저 석주에 감


입석줄다리기 (전북)

고 무당의 집례로 엄숙한 당산제가 행해진다.

당산제가 끝나면 술과 음식을 음복하고 농악놀이와 춤이 흥겨웁게 벌어진다. 석주의 주변을 빙빙 돌면서 헛튼멋을 부리며 한 해 동안의 액운을 쫓고 풍년을 구가하는 놀이로 밤을 세운다.

놀이기구

입석, 줄

집줄놓는노래

민요

유래

삼다도로 널리 알려진 제주도에는 돌·여자와 함께 바람이 많다. 제주도민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돌과 바람과 싸우면서 굳센 삶의 의지를 키워왔다. 사시사철 거센 바람이 불어오므로 제주도의 초가지붕은 띠를 덮어 인 다음, 띠줄로 바둑판처럼 지붕을 얽어매는데, 이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풍경이다.

이 때 '각단'이라는 짧은 띠로 지붕을 일 줄로 꼴 때부터 시작하여, 이 두 갈래를 하나로 어울리어 줄을 만드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구성지게 이어부르는 노래가 바로 집줄놓은 노래이다.

제주도의 초가지붕은 모진 바람 때문에 해마다 또는 한해 걸러 이어야 한다. 안채와 바깥채와 해마다 이거나, 아니면 한해를 걸러서 안채와 바깥채를 격년제로 이거나, 어쨌든 집줄을 놓아 띠줄을 엮어서 지붕을 이는 일은 어느 집이든 해마다 치뤄야 하는 큰 일거리다. 그리고 이 일은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공동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 도중에 불려졌던 노래는 점차 마을 사람들 전체에 의해 불

려졌고 하나의 노동요로 굳어져온 것이다.

제주도에는 노동요가 유독 흔한 편이지만 오늘날 이 집줄놓는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드물다. 왜냐하면 번거럽고 손질많이 드는 초가지붕이 근대화의 물결에 밀려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되었고 따라서 초가지붕 이는 일이 사라짐과 함께 이 노래도 사라지기 직전에 놓여 있는 까닭이다.

지금은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에서 이 노래가 보전되고 있는데, 이 마을은 마을 앞에 우뚝 솟은 산방산에 모진 바람이 부딪혀 마을 안에 불어닥치는 일이 흔하므로 제주도내에서도 유난히 바람이 세찬 곳이다. 따라서 다른 마을보다 더욱 굵은 집줄이 필요했고 지붕 이는 작업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 마을의 집줄놓는노래는 더욱 더 구성지게 불려졌던 것이다.

특색

집줄놓는노래는 다른 노동요처럼 한 사람의 선소리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후렴을 받는 형식으로 가창된다. 집줄을 놓는 일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불려지는 이 노래는 대체로 작업실태를 선후창 형식으로 부른다.

선소리의 중간에 끼어 계속 반복적으로 가창하는 "어어~어허어~" 라는 후렴구가 들어있음이 이 노래의 하나의 특징이다.

구성

새 집을 지어서 지붕을 이는 경우에는 보통 '성주풀이'가 이 노래에 이어진다. 그래서 새 집의 지붕을 인다는 가정하에 이노래를 재연할 경우에는 먼저 집줄놓는노래를 부르며 집줄을 마련하여 지붕을 단단히 이고 난 다음, 성주풀이를 하고 성주풀이노래가 잇달아서 불려지게 되는 것이다.

내용

스르릉스르릉 어어~어허어~즐비는
소리여 (후렴 : 어여~랑산)
오날 하루해도 어어~어허어~서산에
걸렸구나 (후렴)
진줄이라근 어어~어허어~정낭탁 하고 (후렴)
자른줄이라근 어어~어허어~엇돌한
하라 (후렴)
진줄이라군 어어~어허어~큰아들 비곡 (후렴)
자른줄이라근 어어~어허어 말젯놈비라 (후렴)
이줄 비라 저줄 비라 어어~어허어
한저덜 바라 (후렴)
잘도나 비여가는구나 어어~어허어~
살대가찌 비여나 간다 (후렴)
뒷집의 고서방이랑 어어~어허어~
진줄 어룰리곡 (후렴)
자른줄이라근 어어~어허어~앞집 송
서방이 어울린다 (후렴)
비는 사람은 비여나가곡 어어~어허
어~놓는 사람은 놓아나 간다 (후렴)
각단뭇 안에 어어~어허어~ 소앵이도
하고나 (후렴)
우리네 인생은 어어~어허어~ 할일도
하다 (후렴)
줄호랭이 빨리 돌려근 어어~어허어
~이줄을 비여나간다 (후렴)
비는 사람은 비여나가곡 어어~어허
어~놓는 사람은 놓아나 간다. (후렴)
지름떡이나 먹었는지 어어~어허어~
문질문질 잘로나 어울려간다 (후렴)
각단뭇 푸는 벗님네야 어어~어허어
~뭇에 가시나 갈려내라 (후렴)
자냑밥이랑 어어~어허어~팟이나 놓으라 (후렴)
메누라라근 어어~어허어~차마기나
하여근 (후렴)
콩국 끓여근 어어~어허어~허리끈
클러근 먹게 (후렴)
살칵불이라근 어어~어허어~ 싸지도 말게 (후렴)
어둑기전에 어어~어허어~ 요일을 차나보게 (후렴)

놀이기구

모형초가집, 채, 새끼줄, 막대기 등.

용대기놀이

민속놀이

유래

용대기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순조 때 홍석모가 지은 '동국세시기'의 호서속편에 용대기와 농악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200~300년 이상 이어온 놀이로 추정된다. 형산 마을에는 지금도 순조 24년(1824년)에 제작된 용대기가 보관되어 있다. 또한 촌로들의 기억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 놀이는 퍽 오래된 것으로 이 지방의 순수한 농부놀이라 할 수 있다.

농사철이 돌아오면 속칭 '용대기 배미'라고 하는 마

을 들판에 기를 게양하고 온 주민이 농악 장단에 맞춰 흥겹게 일을 하면서 춤과 노래로 피로를 푼다. 이 놀이는 현재 충남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마을과 그 인근에 전승되고 있다.

특색

용대기놀이는 형제간의 우의와 예의범절에 바탕을 둔 놀이이다. 두 마을간에 선례를 않고 그냥 지나가면 깃봉뺏기 싸움이 벌어지고 빼앗긴 부락이 아우가 된다. 아우 마을은 형 마을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새로운 친목과 단결을 맹세하며 아우로서의 예를 올린다.

구성

(1) 입장
(2) 들일
(3) 서열 다툼
(4) 상좌기의 판결
(5) 퇴장

내용

(1) 입장

형산마을 농부들이 용대기를 앞세우고 농악에 맞춰 춤을 추며 나온다.

(2) 들일

농사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①모심기노래

(후렴)
어럴럴럴~상사리~
(선소리)
한일자로 늘어서 입구자로 심어갈제
이농사를 이리 지어서
누구하고 먹자하구느냐
(후략)

②논매기 소리

(후렴)
얼카 덩어리~
물속으로 구신뎅이
물밖으로 자처덩이
우리들이 이렇게 놀다간
하나만 없으면 적막강산이지
농사하면 천하지대본
우리농부 흘린땀이
구십월에 열매가 맺네
우리동네 넓은들이
벼알이 당개당개 달렸구나

③빠른소리

(후렴)
얼카 뎅이
(선소리)
얼카 뎅이
어거차 뎅이
우리 농부
구슬땀을 흘렸으니
이참일랑 막걸리로
한사발씩 마셔나 보세
어거차 뎅이야
어찌 그렇게
요렇게 좋은가 에~ 야~

④논두벌매기노래

(후렴)
어이~얼싸~에루화 삼마야라~
두리두리~ 둥개둥개~ 내 사랑아~
어이 에이야~
(선소리)
나는 좋네 나는 좋네
총각 낭군이 나는 좋네~
어이 에이야~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삼신 큰애기 도령님 아니냐~
어이 에이야~
이배미 저배미 열두배미
모두다 홀터라 이들판을
어이 에이야~

⑤몬들 (논두벌끝맺음) 노래

(후렴)
어화 맺돌이야~
(선소리)
얼씨구 절씨구

용대기놀이 (충남)



기화자 절씨구
어느 낭군이
나를 찾으랴
임은 내임이
굉장이 좋구요
옷은 새옷이
입기가 좋다
어화 맷돌
어화 맷돌
어화 맷돌
어화 맷돌
여~ 히~

(3) 서열 다툼

좌상은 용대기에 술잔을 올린다음 농부들에게 수고를 많이 하였으니 술과 밥을 먹자고 권한다.

부녀자들이 가져온 술과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마침 다른 부락의 농부들이 또 하나의 용대기를 앞세우고 다가선다.

이때 좌상간에 용대기의 형·아우 시비가 벌어져 두 부락의 농부들은 용대기 깃봉 뺏기 싸움을 벌인다.

(4) 상좌기의 판결

좀처럼 승부가 가려지지 않자 좌상들간에 상좌 용대기를 모셔다 판결을 받기로 합의한다.

상좌 용대기가 등장하여 용대기의 제작연대를 따져 형·아우의 서열을 정한다. 서열이 결정되면 아우 용대기는 정중한 사과의 예를 드린다.

이어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뜻에서 새 용(龍)을 탄생시켜 용트림으로 단결과 협동을 표상한다.

(5) 퇴장

이렇게 화해가 성립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울려 흥겨운 농악과 춤으로 절정을 이룬다.

놀이기구

용대기 3개.

청단놀음

민속극

유래

청단놀음은 옛부터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각종 산물이 집산하여 상업의 중심지였던 예천읍에서 한량들에 의해 전승되어 오던 가면 무언극이다.

이 놀음은 언제부터 놀아졌는지 분명치 않으나 1935년의 놀음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것을 1981년에 다시 재현하여 전승하게 된 것이다.



청단놀음 (경북)

구전에 의하면 옛날 남쪽지방의 한 부호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하여 춤에 능한 사람들을 모아 '청단'이란 놀음을 벌이며 방방곡곡을 누볐다고 한다. 마침내 예천읍에서 놀음 도중에 구경꾼 속에서 가족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부터는 어찌된 일인지 예천읍에서는 자주 불이 나서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량들로 하여금 그 광대놀음을 재현케 했더니 과연 그때부터 예천읍에서는 불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해마다 예천읍 일대에서는 초여름이나 팔월 한가위 때 이 청단놀음을 해왔다고 한다.

특색

청단놀음은 가면무언극으로서 마을의 잡귀·귀신을 몰아내고 길운을 맞아들이는 벽사진경과 무병장수,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다른 지방의 광대놀음과 같이 양반과 파계승에 대한 풍자가 가미되어 있다.

청단놀음에 쓰여지는 장단은 외마치, 세마치 및 살풀이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 추는 춤은 덧배기가 그 중심을 이룬다.

구성

(1) 광대놀음
(2) 주지놀음
(3) 행의놀음
(4) 학춤
(5) 지연광대놀음
(6) 파계승놀음
(7) 바라춤
(8) 무등

내용

(1) 광대놀음

광대 2명이 북을 치며 춤을 추다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가며 흥겹게 논다.

이 마당은 전체 8마당 중에서 서막에 속하며 관중을 유인하거나 흥을 돋우는 마당이다.

(2) 주지놀음

2명의 주지광대가 저마다 주지관을 들고 서로 부채질 하고 또 관중 앞으로 나아가서 부채질을 하면서 춤을 춘다.

이 마당은 잡귀와 액운을 쫓아내는 벽사진경의 뜻이 숨어 있다.

(3) 행의놀음

양반과 사대부가 흥겹게 춤추며 논다. 이때 쪽박광대가 등장하여 양반과 사대부를 번갈아 가며 유혹한다.

이 마당은 봉건사회 상층 계급의 위선을 풍자한 것으로 생각된다.

(4) 학이 나와 춤을 추면 박쥐와 제비가 차례로 나와서 함께 어울려 춤을 춘다. 학과 제비는 익조로서 옛날부터 사랑을 받아왔고(박쥐도) 예천지방에서는 특별한 애호를 받는 조류이다.

이 마당은 마을과 마을사람들의 길운을 상징한다.

(5) 지연광대놀음

키로 만든 커다란 탈을 쓴 4명의 지연광대가 나와서 긴 수염을 휘날리며 춤을 춘다.

이 마당은 춘·하·추·동, 동·서·남·북을 상징하며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고 있다.

(6) 파계승놀음

쪽박광대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탁발승이 지나다가 이를 목격하고 쪽박광대의 유혹에 빠져 놀아나는데 초랭이가 나와 호통을 친다.

이 마당은 파계승에 대한 풍자로 조선시대의 배불숭유 사상이 배여 있다.

(7) 바라춤

여승 2명이 고깔을 쓰고 바라를 들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춤을 춘다.

인간 세계의 제 1의 운명인 질병을 없애고 장수를 비는 춤이다.

(8) 무동

모자 광대와 두동무 4조, 삼동무 2조가 춤추며 논다.

농작물의 속성과 풍요를 상징하는 춤으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마을사람들의 대동단결을 뜻한다.

놀이기구

꽹과리, 징, 북, 장고 등의 악기. 탈 19개.

제천두학농악

농악

두학동은 제천 도심에서 4km쯤 떨어진 외곽지대인 순수농촌 마을로 두학은 옛날부터 농악으로 널리 알려진 가운데 2백여년 전부터 이 농악이 보전되어 오고 있다.

농악은 음력 7월 호미씻이때 날을 받아 마을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놀던 풍속으로 농경민의 의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일제말부터 그맥이 끊겼던 것을 농악에 남다른 재주를 가진 상쇠 유봉현씨가 전승발전시켰으며, 유씨가 작고한후 이경제(59세)씨가 그 기능을 이어 지도해 왔다.

두학농악은 해방후 전국농악 경연대회에 수차례 입상한 바 있으나 그후 중단되었다가 1965년 제천군 면대항 농악대회를 계기로 당시 흑석 이장인 허정강씨를 비롯한 전통민속 문화에 관심을 갖고있는 마을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두학농악대를 창설한 후 출전하여 우수상에 입상하였고 1975년 제 1회 충북농악제에 제천대표팀으로 출전한이래 현재까지 매년 참가해 오면서 농악제에 단체대상을 2회 수상하는 것을 비롯하여 10여차례나 걸쳐 수상한바 있으며, 1981년 제 21회 전국민속 예술제에 충북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하여 농악부문 1위, 종합순위 3위로 영예의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전력을 갖고 있으며, 1986년 부터 제천 지역 향토문화행사로 개최된 의림문화제에 매년 출연함으로써 전통민속 보급과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앞장서 왔다.

두학농악은 유희적인 남도농악에 비하여 싸움진을 특징으로 구성하고 의상이 화려하지 않고 현대농악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전통을 보존하고 있으며 제갈공명의 8진법아래 오방진치기, 사방진치기등 전투대형이 주종을 이룬다.

처음에 입장하면서 다섯겹 원형의 오방진을 치고 원형이 풀리면서 사방진을 친다. 사방진에서 십자형으로 편을 갈라 교차하며 한바탕 노는데 사이사이에 화동이, 포수, 샌님등이 재간을 피워 전체적인 흥을 돋운다. 그후에는 열두발돌리기, 무동타기등 개인기가 선보이며 날나리(태평소)의 구성진 가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꽹과리와 장고, 징과 북이 한데 어우러져 절묘한 화음을 내는데 템포가 빠른 것이 두학농악의 특징이다.

두학농악은 날나리, 상쇠, 부쇠, 북잡이, 장고, 징,

소고, 무동, 무동거리, 샌님, 포수 등 40여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용왕굿

민속놀이

유래

용왕굿의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재앙을 없게 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비는 규모가 큰 굿이다.

해마다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3일 내지 7일간 어촌의 넓은 마당에서 기와 등을 달고 행하는데 최근에는 아주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다행히 인천항에서는 그명맥이 남아 매년 정월 보름에 부둣가에서 용왕굿을 올려 액풀이와 풍어를 빈 다음 출항하고 있다.

특색

(1) 더드래기와 모래잡이가 있다.

더드래기는 배치기 전 태징과 북을 치면서 배치기를 위한 서곡을 말하며 모래집이는 배치기를 하기 위한 몰아치는 곡으로 태징으로 템포를 빠르게 한다.

(2) 봉죽기의 제일 위는 연꽃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불도화, 칭, 칭받침, 3색 띠의 순으로 내려오며 장군기는 맨 아래쪽에 매달아 놓는 것이 특징적이다.

구성

(1) 용궁맞이굿
(2) 용선굿 : 용궁부인놀이
(3) 장군굿
(4) 용선대감굿
(5) 배굿
(6) 출항
(7) 바디질
(8) 귀향
(9) 마당놀이

내용

(1) 용궁맞이굿

만신이 꽃깔 장삼을 입고 승려의 춤을 추며 소리하는 굿으로, 조상을 달래며 자손들의 건강과 번영을 위해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2) 용선굿 : 용궁부인놀이

쪽두리를 쓰고 활옷을 입고 춤추며 소리하는 굿으로 용왕의 시녀가 용을 타고 용태부인의 심부름을 한다.

(3) 장군굿

장군님 의대를 입고 춤추는 굿으로 임경업 장군의 거성을 위해서 행하며 서해의 수호를 빈다. 이것은 임경업 장군이 바닷가에서 군사들의 식수와 조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 주어 바다를 지켰다는 우래에서 비롯된 굿이다.



용왕굿 (인천)

(4) 용선대감굿

대감 쾌자를 입고 바닷굿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용왕께 정성을 다하여 비는 굿이다.

(5) 배굿

선황굿 또는 연실굿이라고도 한다.

풍어를 빌면서 한 해의 모든 액을 쫓는 굿으로 배 위에서 고사를 치르고 띄배에서 액풀이를 한 다음 띄배를 불살라 바다에 띄어 보낸다. 이것은 띄배를 띄어 보냄으로써 액운을 모두 쫓는다는 것이다.

(6) 출항

마당에 도열했던 모든 배의 호기, 장군기, 오색기, 상기(소당기), 영산기, 오방기, '설죽화와 봉죽기' 등을 가지고 승선한다. 선원들은 닻감는 소리를 하면서 앞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출항한다.

(7) 바디질

어장에 도착한 선원들은 그물에 든 고기를 바디 소리에 맞추어 배 위로 퍼 싣는다.

(8) 귀향

만선이 된 배는 5색기와 봉죽을 달고 배치기소리를 부르며 귀향한다. 포구에는 멀리서 봉죽기를 달고오는 배를 보고 선주 및 마을 사람들이 막걸리와 떡을 준비하여 춤추며 맞이한다.

(9) 마당놀이

선주집 마당에는 무격과 마을사람들이 한덩어리로 기쁨의 춤을 추며 소리한다. 봉죽기를 한가운데 세워두고 동그랗게 선 사람들은 메기는 소리에 맞추어 큰 소리로 함창하여 서로 얼굴을 맞대고 배를 맞추며 흥겨운 마당놀이를 한다.

강릉대보름농악

농악

유래

강릉농악은 굿풀이가 중심을 이루는 독특한 형태의 농악놀이이다.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에 행하여 오는 이 농악은 고로들의 고증을 토대로 재정리 한 것이다.

예전엔 단양제에 무제·가면무극·씨름·그네뛰기·활쏘기 등과 더불어 행해져 신앙적 요소가 많았으나 지금은 의식적인 옛모습은 사라지고 오락적인 예능으로 변모되었다.

특색

강릉농악은 가락이 흥겨우며 굿가락과 놀이가락이 어울려 벌이는 황덕굿·쩍쩌기·두루치기 등의 판굿과 옛조상들의 농사모습, 길쌈모습 등의 농식풀이는 짙은 향토색을 풍긴다.

특히 다섯 층으로 쌓아올리는 5동고리 받기는 강릉에서만 볼 수 있는 형식이며 영동지방 농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꽹과리·징·장고·소고·법고·날나리등의 악기가 구별되는 점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구성

(1) 쇠가락

일채·삼채·길놀이가락·굿거리·이채·사채 등이 있다.

(2) 판굿

인사굿·멍석말이·발맞추기·황덕굿소고 놀이·황덕굿법고놀이·황덕굿무동놀이·진놀이·지신밟기·팔진도·농사풀이·개인놀이·뒷굿 등으로 편성된다.

(3) 농사풀이

가래질·논갈이와 논삼기·못자리 누르기·모찌기·모심기·논매기·낫갈기·벼베기·벼광이기·태치기·벼모으기·방아찧기 등 여러가지가 있다.

(4) 개인놀이

단동고리·삼동고리·법고춤·무동춤·장고춤·열두발상모 등으로 구성된다.

내용

먼저 부락에 전통적으로 모셔 오는 수호신인 성황당에 제사를 지내는 성황굿과 당맞이굿, 황덕굿 등의 굿풀이를 한다.

이어 가래질·논갈이와 논삼기·못자리 누르기·모찌기·모심기·논매기·낫갈기·벼베기·벼광이기·태치기·벼모으기·방아찧기 등 여러가지 농사풀이 놀이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팔진도·당산진 등의 진풀이 동고리 받기·열두발상모·횃불놀이 등을 12채 36가락에 맞춰 흥겹게 진행한다.

놀이과정 중에서 특이한 것은 김매기와 벼베기를 할 때 농사일의 피로를 덜어주며 작업능률을 올려주는 오독떼기, 싸대 등의 농요를 부른다는 점이다.

놀이기구

풍물, 농기구 등

동래학춤

민속무용

유래

옛부터 동래마을은 지형이 학의 형상을 닮았다하여 이를 본따 지어진 이름들이 많다. 현 복천동산 일대를 학수대라 했고, 칠산동 일대를 학소대, 연산 4동을 학암, 거제동을 학란 부락이라 불러왔는데 바로 학란부락 앞에는 광대한 호수로 그 안에 큰 황새 바위가 있어 많은 황새들이 떼를 지어 서식하고 있었다.

지금도 복천동산 부근을 살펴보면 학의 동체, 좌우 날개, 학의 목돌미 등을 연상케하는 형상을 볼 수 있다.

부산 동래구 거제동 일대와 연산 4동 부근은 1950년대만 해도 물이 많이 고인 소택지였다. 이 연못 주위를 울창한 나무들이 감싸고 있었고 그 안에는 많은 학들이 서식했다.

예로부터 멋과 풍류를 좋아했던 이 지방의 선비와 한량들은 이곳에서 술과 시를 즐기며 학의 매무새에 빠져 들었고 안방 규수들 또한 학의 우아한 자태를 닮으려 애썼다. 학의 고고함은 유교의 미학에 합치되어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보름 달빛아래 학이 자아내는 그윽한 자태는 가무를 즐겨하는 선비들의 마음을 자극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던 중에 학의 모습에 반한 동래의 한 선비는 어스름 달빛 아래 호수가에서 홀로 학의 날개짓을 흉내내면서 점점 무아지경으로 빠져들었다. 어느날 그는 마침내 흥을 이기지 못하여 놀이판에서 학춤을 추게 되었는데 이것이 동래학춤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특색


동래학춤 (부산)

(1) 민속춤이 갖기 쉬운 양반 및 특권층에 대한 야유나 한의 표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미학의 색채가 강한 민속무이다.

(2) 작위성이 강한 창작무와는 다르게 자연과 인간이 합일되는 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3) 배김사위가 앞배김, 뒷배김, 모듬배김, 겹배김의 네가지로 동래학춤만이 갖는 특이한 춤사위를 가지고 있다.

(4) 동물들의 몸짓을 반영한 민속무중에서 조류의 동태를 율동화한 것은 극히 드문 것으로 궁중무인 학무와 비교해서 민속적 색채가 짙다. 이렇듯 희귀한 춤사위는여느 춤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구성

(1) 비약태

(2) 정태

(3) 애정태

(4) 역동태

내용

(1) 비약태

학이 하늘로 날아 오르는 모양을 사위화한 것이다. 비상하는 날개짓을 교묘한 몸동작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2) 정태

학이 한쪽 다리로 물 가에 서 있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학이 가지고 있는 고고한 이미지를 정적인 동작으로 표현한 춤사위다.

(3) 애정태

암수가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 구애를 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음양에 나타난 자연의 법칙을 정교한 춤사위로 표현하고 있다.

(4) 역동태

환희에 넘쳐 기쁨을 발산하는 움직임을 학이 너울거리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춤이다.

두만강 뗏목노래

민요

유래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우리 나라 모든 산들의 조종이다. 이 강토의 골간을이루고 있는 산맥들이 모두 백두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두만강은 동해로 흘러가고 압록강은 서쪽으로 구비쳐 흘러 황해에 다다른다.

우리나라 제일의 임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백두산에서 원목을 채벌하여 소발귀(썰매)

우리나라 제일의 임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백두산에서 원목을 채벌하여 소발귀(썰매)로 백두산 동남부의 해발 1500미터 이상의 광막한 무산고원 하구, 삼장까지 운반한다. 여기서 편벌하여 비로소 두만강을 이용하였다.

뗏목꾼은 기술을 발휘하여 급류 또는 바위에 부딪치는 것을 극복하면서 회령까지 내려와 큰 댐(저수지)에 그 원목들을 저장하였다.

이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뗏목을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는 뗏군들의 노동의 힘겨움을 자위하면서 부른 노래가 두만강뗏목노래이다.

특색

두만강뗏목노래는 구절구절 슬픔과 애수가 배여있는 곡이다.

낯설은 물새들을 벗삼아 그리운 가족과 고향으로 향하는 서러운 심정을 달래면서 끝없이 물살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뗏목꾼의 애환과 뗏목 생활의 풍치가 잘 묘사된 노래로서 구성지고 애달픈 사연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내용

백두산 골짝이에 진달래 피고
두만강 버들피리 노래부르니
어허야 어허야 어허야디야
두만강 천오백리에 뗏목이 뜬다
물줄기 구비구비 끝없이 멀어
낯설은 물새들도 벗이 되었네
어허야 어허야 어허야디야
두만강 천오백리에 뗏목이 뜬다
그리워 못잊던 상삼봉이니
세모시 치마감에 가슴뛰논다
어허야 어허야 어허야디야
두만강 천오백리에 뗏목이 뜬다



밀양백중놀이의 상쇠

23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2. 10. 26 ▶ 10. 28
광주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2. 10. 26－10. 28.
광주

대통령상
삼동굿놀이(전북)－민속놀이
국무총리상
장산도들노래(전남)－민요
문공부장관상
저산팔읍길쌈놀음(충남)－민속놀이
대구고산농악(대구)－농악
감내게줄다리기(경남)－민속놀이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음성거북놀이(충북)－민속놀이
장려상
산신놀이(제주)－민속놀이
발방아놀이(평북)－민속놀이
수영야유(부산)－민속극
미수상 참가작
서도소리(평남)－민요
평양다리굿(평남)－민속놀이
화상싸움(경북)－민속놀이
경신역마놀이(인천)－민속놀이
은율탈춤(황해)－민속극
성주풀이(서울)－민속놀이
재가승주지놀이(함북)－민속놀이
춘성수레싸움(강원)－민속놀이
과천무동답교놀이(경기)－민속놀이
공로상
춘성수레싸움(강원)
과천무동답교놀이(경기)
개인상
이동안(성주풀이, 서울)
손해철(감내게줄다리기, 경남)
차금순(재가승주지놀이, 함북)

삼동굿놀이

민속놀이

유래

삼동굿놀이는 옛부터 전라북도 남원군 보절면 괴양리에 전해오는 민속놀이로서 그 유래는 정확한 고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놀이의 필요성을 짐작해서 추측해 볼 수는 없다.

구전에 의하면 이 놀이의 구성요소는 당제, 우물굿, 삼동굿, 지네밟기, 마당밟기 등으로 당제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기풍과 점풍의 풍속에서, 우물굿은 식수원을 청결히 하려는 필요에서 비롯하였다. 삼동굿은 자녀가 입신출세하기를 기원하는 부모의 소박한 심정에서, 지네밟긴 풍수지리설에 의해 명당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마당 밟기는 하루 행사의 마무리임과 동시에 노동과 세속의 고통에 힘겨워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축제와 같은 흥겨운 여흥을 줄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특색

남원삼동굿놀이는 마당놀이 형식의 다른 민속놀이와는 다르게 매우 다채롭고 성대하게 치러진다.

매년 음력 7월 15일에 행해지는 이 놀이 중 지네밟기의 형식은 그 유래는 각각 다르지만 전북 일부의 기와밟기와 경북 안동, 의성 등지의 놋다리밟기와 유사하다.

구성

(1) 당제
(2) 우물굿
(3) 삼동굿
(4) 지네밟기
(5) 마당밟기

내용

(1) 당제

음력 7월 15일 아침 일찍 양촌, 음촌, 개양 세 마을에서는 당제를 준비한다. 매년 당제를 모시는 귀목나무 밑으로 영기와 농기를 앞세우고 집결한다. 이때 기다란 행렬이 뒤따르는데 행렬의 순서는 영기와 농기, 바로 뒤에 무동과 농악대가 이어지고 지네(부녀자들만으로 꾸며서 길게 늘어선 행렬)가 한바탕 어깨춤을 추며 뒤따른다.

농악대는 당제를 모시러 가는 행렬의 흥을 돋우고 마을 전체에 축복을 주기 위해 신명난 질굿을 한다.

귀목나무 밑에 모여든 마을주민들은 제관과 축관의

주재로 당제를 지낸다.

(2) 우물굿

당제가 끝나면 양촌마을에 있는 공동우물가에 모인다. 마을주민의 건강과 위생을 도모하는 의미를 가진 우물굿을 치는데, 이때 우물가에는 금줄을 쳐서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한다.

우물굿이 끝나면 마을 앞 광장에 모여서 이 놀이의 핵심이 되는 삼동굿을 지낸다.

(3) 삼동굿

삼동이란 각 마을을 대표하는 세 명의 아이들을 말한다.

광장에 모인 각 마을사람들은 커다란 농기를 세워놓고 세 아이를 어깨위에 올려 태운 다음 출산, 성장, 입신출세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①출산과정

아이를 순산하기 위해 상 위에 미역, 쌀, 정화수 등을 차려 놓고 비선한다. 무동받이는 아이의 태동을 나타내기 위해 무동을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으로 허리부분을 돌려 돌린다. 마지막으로 사타구니 사이로 아이를 빼올려 순산을 나타낸다.

②성장과정

젖을 먹고 아이를 달래는 시늉을 함으로써 사랑과 정성에 의해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여준다.

③입신출세과정

무동을 무동받이 어깨 위에 올려주면 무동은 만세를 부르며 모자를 벗는다. 이것은 과거급제는 물론 농복(農福)을 탔음을 나타낸다.

이 세 과정을 행하는 동안 지네(마을 아낙네들로 구성)가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지내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꿈틀거리며 S자형으로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닌다.

(4) 지네밟기

삼동굿이 끝나면 무동 셋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네를 밟아간다. 무동은 지네와 상극인 닭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에 닭벼슬 모양의 장식관을 쓰고 무동받이의 부축을 받으며 지네를 밟아간다. 이때 지네밟기 노래를 부른다.

(5) 마당밟기

지네밟기가 끝나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주민들은 농악대의 흥겨운 가락 속에 한껏 어우러져 논다. 원형을 만들어 돌기도 하고 난장판처럼 춤을 추며 놀면 하루 행사의 최고조가 된다.

장산도들노래 (전남)



장산도 들노래

민요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도에 전승되는 농사짓기 소리이다. 나주, 함평, 진도 등 전라남도 서부지방에는 좋은 농요들이 많이 전승되어 오지만 장산도 또한 농요가 많고 소리 또한 좋다.

모찔때에는 중모리장단의 모찌기소리를 부르며 모를 심을 때에는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장단의 모내기 소리를 부르며 김맬때에는 중모리장단의 논매기 소리가 불려지며 김매기가 끝나면 그해 농사 장원을 한 입상머슴을 소에 태우고 마을로 들어오면서 장원진 소리를 부른다.

대구고산농악

농악

유래

이 놀이가 전승되고 있는 대구직할시 수성구 내환동은 고려시대부터 '곡기'라 불리우는 옛 '서울나들이'에 위치한 전형적인 자연촌락이다.

이곳에서는 음력 정월 보름에 동제를 지내는데 이 동제의 왕복길에 농악을 했다고 전한다.

고산농악이 발생한 뚜렷한 시기와 구체적인 발전경로는 알 수 없으나 오랜 옛날부터 전승되었다는 설로 미루어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옛날부터 '농사가 잘 되려면 농악을 잘해라.'라는 선조들의 말이 전해졌는데 이 말이 하나의 믿음이 되어 농악이 토착화 되었다고 한다.

특색

고산 농악은 농악 고유의 전통미를 잃지 않고 향토색 짙은 마을 단위의 농악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 정월에는 지신밟기, 초여름에는 논매기농악, 가을에는 추석농악 등 시기별로 나누어 농악을 했다.
2) 연행과정에서 닭쫓기놀이는 이 마을에만 있는 독특한 놀이이다.
3) 고깔이 백색이며 다른 지방의 것보다 2배 이상 크다.
4) 여타 농악과 비교해 볼 때 가락이 훨씬 소박하다.

구성

고산농악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당산제굿
①중당산제굿
②하당산제굿
2) 지신밟기
①문굿
②성주풀이
③초왕풀이
④장고풀이
⑤용왕풀이
⑥방아간풀이
⑦마당풀이
3) 판굿(본굿)
①태극가락
②삼방진
③덧베기춤
④우장작꽹이
⑤농사굿
⑥법고놀이
⑦장고놀이
⑧북놀이
⑨징놀이
⑩상모놀이
⑪뒷풀이

내용

당산굿에서는 중당산제굿과 하당산제굿이 차례로 열리는데 중당산제굿에서는 잽이들이 길매구가락을 치면서 길놀이를 하고 사람들은 중당산나무 주변으로 모여든다. 이때 제관과 축관은 재배하고 축문을 낭독한 뒤 다시 재배하고 음복한 다음 축문을 불사른다. 이 굿에서의 쇠가락은 덧베기, 천왕가락, 우장작꽹이이다.

길군악을 하면서 노는 길놀이가 끝나면 하당산제굿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중당산제굿의 내용을 그대로 시행한다.

당산제굿이 끝나고 지신밟기로 들어가면 잽이들은 문앞에서 "주인 문여소 나그네 손님 더 간다."라고 외친후 농악을 하는 문굿과 마루에 제물을 차려 놓고 덧베기가락에 맞추어 노래하는 성주풀이를 한다. 그런 다음 부엌으로 가서 조왕풀이를 한다. 이어 장고방에서 하는 장고풀이, 장독대에서 하는 용왕풀이, 방앗간에서 하는 방앗간풀이, 마당굿인 마당풀이가 끝나면 판굿이 열린다.

(1) 상쇠의 지휘에 따라 원진과 태극무늬를 만들며 방향을 바꿔가며 돈다.
(2) 전원이 2열종대를 만들어 좌우측의 잽이들이 뒤로 멍석말이와 멍석풀이를 계속한다.
(3)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렬로 돌아가면서 덧베기춤을 춘다.
(4) 모든 잽이들은 느린가락으로 행진무를 하고 소고잽이들은 왼발 오른발 순으로 한발뛰기를 하면서 원을 돈다.
(5) 모든 잽이들은 제자리에서 연주하고 소고잽이들은 맨 앞에 일렬횡대로 선 다음 한 해 동안의 농사 짓는 과정을 흉내내 보인다.
(6) 법고잽이들은 원의 중심으로 나와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소고를 발로 차면서 도는 동작, 또는 한발을 번갈아 돌면서 원을 도는 동작을 한다.
(7) 상쇠가 가락을 끊으면 장고잽이들이 원의 중심으로 나가 한발들기를 하면서 원을 돌아 제자리로 온다.
(8) 북잽이가 원의 중심으로 나가 북한번치기를 하면서 덧베기춤을 추고 원을 돌아 제자리로 온다.
(9) 징잽이들이 원의 중심으로 나가 덧베기춤을 추

음성거북놀이 (충북)



면서 시계반대방향으로 돈다. 이 때 나팔이 홍겹게 연주된다.

(10) 쇠군들이 원의 중심으로 나와 부포를 한쪽으로만 돌리는 윗상매와 부포를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돌리는 양상매의 묘기를 부린다.

(11) 구경 나온 사람들이 끼어들어 판을 홍겹게 한다.

놀이기구

징 2~5개. 장고 5~10개. 북 8~10개. 소고 8~10개. 그외 나팔과 농기 등.

음성거북놀이

민속놀이

유래

거북놀이는 서해안과 한강이남 일부 지방에서 행해졌던 민속놀이로, 팔월 한가위 날 밤 15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즐겼다고 한다.

십장생의 하나인 거북은 물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장수를 비는 대상으로 널리 이용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용왕으로 상징되기도 했다.

거북은 바다에 사는 동물이지만 민물에 사는 남생이와 그 생김새가 같아 주변에서도 멀리 떨어진 음성의 남한강 주변에서도 거북놀이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

음성 감곡의 청미천을 중심으로 생극, 삼성, 대소, 금왕 등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된 놀이로 추측되고 있다.

특색

이 놀이는 전국적 분포를 가지는 지신밟기의 한 형태로 용기를 앞세우고 진행된다. 용기를 앞세우는 이유는 거북이 용의 아들이라는 설에서 연유된 것이다.

구성

(1) 놀이꾼 집결

(2) 가가호호 방문(지신밟기)

(3) 덕담과 창가

내용

(1) 놀이군 집결

추석 차례를 지낸 동네사람들은 풍물을 앞세워 동네 공터로 모인다. 수수잎이나 볏집을 엮어 거북모양을 만들어 두 사람이 뒤집어 쓰고 거북 역할을 한다.

(2) 가가호호 방문(지신밟기)

놀이꾼들은 용기와 거북을 앞세워 집집마다 들며 가신에게 평안과 공덕을 빌고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한다.

(3) 덕담과 창가

가신에 대한 덕담을 하며 거북과 함께 질탕하게 논다.

〈거북놀이 덕담〉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천냥 거북아 놀아라
만냥 거북아 놀아라
즐겁게 받으시고
거북아 거북아
실컷 놀아보자
재주대로 놀아보자
형그럽게 놀아보자
천금만냥을 벌어주오
우리 거북님 벌어주소
모두가 거북님 덕택일세
지성이면 감천일세
거북님의 덕택일세
나랏님의 만수무강
백성들의 만사태평
이댁에는 여의대통
거북님아 거북님아 빌어주소
거북노래
바닷속 용궁에 용왕님은
어화둥둥 거북님아
연년세세 이 겨레를
어화둥둥 거북님아
작년에도 금년에도
비바람 고루 주사
오곡백과 풍성일세
동해의 용왕님은
인자도 하시어라
잘 오셨네 잘 오셨네
거북님아 거북님아 무엇이 좋아 찾아 왔나
기름진 땅 인심 좋아
충신 효자 날 것이다
어리석고 부지런한
우리 보러 찾아왔지
예의범절 깍듯하여
찾아왔네 찾아왔네
놀아를 보세 놀아를 보세
고북님 꼬리를 치면
천금만냥 주는 거요

지신밟아 주신다네
거북님이 마당 놀면
오방잡신 도망가네
거북님의 오장이에
무엇이 들어 있어
축 늘어졌나
동해용왕 보살피어
우리 농군 편안하게
이 땅에 재앙일랑
동해바다 깊은 곳에
싹싹 버려주오
거북님아 거북님아
명년에도 후년에도
해마다 오시어서
기쁜 소식 전해주소
거북님 거북님
천만수를 누리소서

놀이기구

거북모형, 용기.

산신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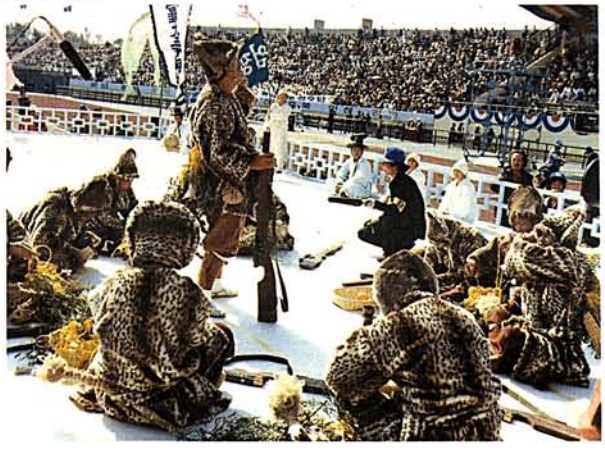
민속놀이

제주도에서 산기슭 마을사람들이 사냥이 잘 되도록 산신에게 비는 의식인데 여기에 연극적인 놀이가 함께 벌어진다.

사냥하는 집안에서는 사냥에 복을 점지해 주는 '산신일월'이라는 조상을 믿고 있어서 큰굿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산신놀이를 하였다. 심방이 굿상 앞에서 신을 굿하는 곳 청하는 '초감제'를 지내고 산신을 청하여 모시고 포수로 꾸민 심방들이 산신제를 지내고 잠을 이루어 길한 꿈을 얻은 뒤 활과 총을 들고 짐승대신 닭을 놓고 사냥하는 시늉을 한다. 포수들은 서로 다투어 사냥감을 차지하려다가 고기를 나누어 갖는 '분육'이 벌어지고 그 고기를 산신에게 바치고 산신군졸을 대접하는 '산신군졸 지사빔'을 하는데 심방들이 칼에 고기를 꿰어 들고 칼춤을 추고 나서 칼을 던져 점을 친다.

큰 굿에 사냥하는 시늉으로 산신놀이를 벌림으로써 산간 마을의 풍요를 비는 놀이이다.

산신놀이 (제주)



발방아놀이

민속놀이

유래

예로부터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여기며 살아온 우리 민족은 농사에 얽힌 놀이들을 많이 개발하여 즐겼다.

평안북도 구성지방에 전해오는 발방아 놀이도 농사를 주업으로 살아온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놀이이다.

방아찧는 방법에 따른 종류는 손으로 찧는 도구방아, 발로 찧는 디딜방아, 소가 돌아가면서 찧는 연자방아, 물로 물레를 돌려 찧는 물레방아 등이 있는데 발방아놀이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졌던 디딜방아를 모델로 하고 있다.

현대와 같이 기계화되지 않았던 방아찧기는 디딜 수밖에 없었고 아낙네들은 방아찧기와 길쌈으로 온 겨울을 지내야 했다. 그래서 무료함을 달래거나 고된 노동의 힘겨움을 잊기 위해 창조적인 놀이를 만들어 내게 되었던 것이다.

다른 지방에서는 방아타령 등 주로 노래가 전승되었지만 평안북도 구성지방에서는 말방아놀이가 주로 행해졌다.

특색

놀이와 함께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특징이다. 한 해 농사를 무사하게 짓게 도와준 천지신명에게 감사의 표시로 떡과 음식을 장만해 올린다.

구성

(1) 마을의 넓은 마당에 모닥불을 피운다.
(2) 마을 일꾼들이 모닥불 주위로 모여든다.
(3) 방아소리를 메기고 받는다.
(4) 방아찧는 모습을 흉내내고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올린다.



발방아놀이 (평북)

내용

마을별로 떡과 음식을 장만한다. 떡과 음식이 마련되면 마을에서 제일 넓은 마당에 장작을 쌓고 불을 붙인다. 마당이 훤하게 밝아지면 마을사람들은 디딜방아 모형을 모닥불 주위에 갖다 놓는다. 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마을 풍물패는 흥을 돋우기 위해 풍물을 친다.

마을 일꾼들이 새옷으로 갈아입고 모닥불 주위에 모여 흥겨운 가락의 방아소리를 주고 받는다.

흥이 오르면 마을사람들은 노래와 춤으로 마당을 빙빙 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노래와 춤을 즐긴다. 노래와 춤이 어느정도 무르익으면 마당 중앙에 제사상이 차려진다.

한복을 입은 마을 연장자들을 주축으로 천지신명에게 감사의 제를 올린다.

제가 끝나면 떡과 음식을 나눠먹고 놀이는 끝난다.

화상싸움

민속놀이

유래

이 놀이가 전승되고 있는 경북 안동군 서후면 저전동은 300여 년 전에 정착한 한양 조씨의 동족촌이다. 옛부터 모시와 삼의 명산지로도 이름나 있고 논매기소리나 달개소리등의 노동요가 지금껏 전승되고 있는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5월 4일 단오 전날 밤이면 화상(火桑)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오랜 옛날 저전동 마을에서는 화재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들의 고충이 심하였다고 한다. 마을주민들은 그 원인이 마을 서북쪽에 위치한 학가산의 화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논의한 결과, 화상싸움을 꾸며내게 되었다고 한다. 즉 마을 앞산 사이로 들어오는 학가산 마루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 화상싸움을 하였는데 이 싸움을 놀고나서부터는 씻은 듯이 마을에 불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해마다 단오 전날 밤에는 화상싸움을 하고 놀았다고 한다.

특색

화상싸움은 마을의 액운을 물리치고 길운을 기원하는 민간기복신앙이 가미된 전투적인 놀이이다. 이 놀이는 일종의 시합으로 저전동마을 중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개천을 경계로 동서부 양편의 양지마을 음지마을 청장년들이 화상을 무기로 하여 싸우는데 싸움이 끝난 후에는 서로 화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성

화상싸움의 구성은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양편 서로 전세를 가다듬는 단계.
(2) 양편의 장군이 힘을 겨루는 단계.
(3) 양편의 군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단계.
(4) 양편 장군의 마지막 승부겨루기 단계.
(5) 양편 서로 화동하는 단계.

내용

(1) 전세를 펴면 양편 군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묵은 뽕나무 뿌리를 캐어다가 말려서 등걸이 홈을 낸 다음 거기에 한발 정도의 새끼줄을 맨 화상에 불을 붙인다.

(2) 먼저 양쪽편의 우두머리가 나와서 기술과 힘을 겨루는데 승부가 나지 않으면 전체의 싸움으로 번진다.

(3) 서로 상대편을 포위하려고 밀고 밀리는 가운데 캄캄한 허공에 휘황한 불꽃이 원을 그리며 어지럽게 난무한다. 간혹 격렬한 당기기싸움이 벌어지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합세하기도 한다.

싸움이 한창일 때면 자기 마을의 이름을 불러 아군의 기세를 돋구기도 하고 '꺽, 꺽'하며 아군의 위치를 알려 주기도 한다. 화상을 빼앗긴 자는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고 피곤한 자는 간혹 농주로 목을 추겨가며 밤 늦도록 싸우는데 때로는 머리가 터지고 발이 삐이는 등 다치는 자가 속출하기도 한다.

(4) 어느 정도 판세가 기울어지면 양편의 우두머리가 나와서 마지막 결전을 벌인다. 이 우두머리 싸움으로 결정적인 승패가 결정되는데 이때에는 마을의 원로가 큰 소리로 승리를 알림으로써 싸움이 끝난다.



화상싸움 (경북)

(5) 승리한 쪽은 "월사, 월사…"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개선한다.

이튿날은 단오날이라 양편이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여 서로 사과도 하고 위로도 하며 찰밥과 술로 하루를 즐기는데 '화상노래(칭이나 칭칭나네)'를 부르면서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한다.

경상도라 태백산은
팔도강산 명산일세
영남의 안동웅부
공민왕의 친묵이라
강을따라 옥야풍산
천년만년 풍년일세
제비원의 성조풀이
허다전설 유래깊다
높은자리 미륵불은
설한풍우 외다말고
태백산 신령님은
복도복도 장할시고
평지돌출 학가산은
우뚝솟은 국사봉은
세월따라 변함없네
층암절벽 약수터는
허다중생 애용일세
학가산 신령님께
매화매화를 축원이요
천중가절 단오일에
화상싸움 하여보세
침침칠야 어둔밤에
불꽃이여 화려하다
—후렴은 칭이나 칭칭나네로 한다.

놀이기구

놀이기구는 화상 뿐이다. 싸울 때는 화상에 불을 붙여 머리 위로 돌려서 공격하고 상대편의 화상에 감아서 잡아당겨 빼앗는다. 화상을 많이 빼앗은 쪽이 승리한다.

경신역마놀이

민속놀이

유래

경신역마놀이는 인천의 주역이 있었던 역로 중림도의 속역 경신역에서 유래된 것으로 역졸들에게 해마다 봄, 가을 두번에 걸쳐 기용마다루기와 타마에 공물싣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 실시한 조련방식에서 파생한 놀이다. 이 놀이가 실제부터 있었던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경신역이 조선왕조 초기에 생긴 것으로 보아 조선왕조 중엽 초부터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 놀이가 경신마을에 있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놀이내용에 탐욕과 탐색을 일삼는 역승과 역사를 야유하고 빈정대는 대목이 있어 관의 눈을 피해 놀았기 때문에 제대로 전해 내려오지 못한 것이라 추측된다.

특색

경신역마놀이는 춤이 주가 되고 몸짓과 재담이 따르는 무극의 형식으로 짜여져 있다.

다른 민속무극은 여러마당으로 짜여지며, 가면이나 의인물을 등장시켜 양반사회를 야유하거나 풍자한다. 그러나 경신역마놀이는 한마당으로 짜여지며, 하천민으로 천대받는 역졸과 그 가족이 역졸차림과 평소의 차림으로 등장해서 익살과 웃음, 그리고 재담을 통해 양반사회를 야유하고 희롱하는 한편 천덕꾸러기 역졸들의 울분을 달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북부지방의 거친 춤사위나 남부지방의 폭넓은 춤사위에 비해 폭도 과히 넓지 않고 거친 동작도 아닌, 중부지방의 잔잔한 기질을 엿보게 하는 나긋한 춤가락이 이 놀이의 특색이다.

구성

하나의 극 속에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용마타기와 타마다루기 등 말다루는 놀이와 역리와 역졸부인, 역승 간의 삼각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1) 역승과 역리가 출타한 틈을 타서 역졸과 그 가족들이 후미진 곳에 모여 놀이를 벌인다.

(2) 무슨 놀이를 할 것인가 서로 의논도 하고 여러 놀이를 선보이지만 기용마타기와 타마다루는 놀이가



경신역마놀이 (인천)

제일 좋다고 선택된다.

(3) 홍도할미와 딱정할비가 등장한다. 이들은 음흉한 수작으로 역졸의 아낙을 부추겨 역리에게 데려간다.

(4) 역리는 아낙을 금품으로 달래지만 역졸의 아낙이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5) 역리와 역졸의 아낙이 실갱이를 벌이고 있을 때 역승이 등장한다.

역승이 역리를 위협하여 쫓아보내고 역졸의 아낙을 차지하려고 한다.

(6) 아낙은 잔꾀를 내어 역승의 말을 듣는 척 하다가 타마 마부와 짜고 말을 타고 달아나 버린다.

(7) 탐욕스런 역승과 역리를 몰아낸 천민들이 한바탕 신명나는 놀이판을 벌인다.

재가승주지놀이

민속놀이

유래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기에는 갖은 질병, 화, 천재지변, 흉년 등에 의한 피해가 곧바로 액으로 규정되었다.

사람들은 그러한 피해가 귀신들을 잘못 모신 탓으로 생겨났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재액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지방의 특색에 맞는 민속놀이를 개발하여 전수하게 되었다.

재가승마을주지놀음은 주로 재액을 퇴치하는 역할을 도맡아오다시피 한 스님들의 역할을 풍자적으로 행한 놀이이다.

불교가 번창하면서 스님들의 타락이 심해지고 지방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자 파계한 스님을 놀려대는 내용의 놀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북청사자놀음에 보면 사자가 체했을 때 주지승의 염불이 나오는데 재가승마을의 주지놀음이 그 옛 형태가 아닌가 추측된다.

백두산호랑이로 상징되는 호랑이탈놀이가 민속놀이로 전승되어졌지만 그다지 널리 퍼지지 못한 것은 사자탈에 대한 민중들의 호기심과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는 동물로 사자를 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자탈을 좀 우스꽝스럽게 제작하여 놀이패들이 뒤집어쓰고 마을을 돌며 재액을 몰아내고 복을 불러들이는 현세구복의 신앙에 기초를 두고 놀이를 행하였다.

오늘날의 주지놀음은 고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기억에 의해 재발굴된 것이다.

특색

북청사자놀음이 완결구조를 가진 놀이라면 재가승 주거마을 주지놀음은 완결된 형태를 가지지 못했다. 북청사자놀음에서 꺽쇠와 양반이 서로 어울려 풍자마당을 뀜고 있듯이 재가승 주거마을 주지놀음에선 주지에게 개가죽탈을 씌우고 개가죽 저고리를 입혀 춤을 추게 한다는 것이 특색이다. 또한 남녀 춤이 등장하는데 남자가 머리를 틀어얹고, 여자는 삿갓을 쓰고 익살스럽게 춤을 추는 모습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구성

(1) 정월이 되기까지 마을의 놀이패들은 사자탈과 개가죽 붉은 종이를 이용하여 주지탈을 만든다.

(2) 정월이 되면 사자탈을 쓰고 놀이패들이 마을 집집마다 돈다.

(3) 주지탈을 쓰고 춤판을 벌인다.

재가승주지놀이 (함북)



(4) 춤판에 남녀 각기 다른 분장으로 춤판에 끼어든다.

(5) 마을 사람들이 춤판에 끼어들어 한판 놀이를 벌인다.

내용

남도의 농악들이 고깔을 쓰고 길놀이를 하면서 마을 화평을 열고 마을의 재액을 몰아냈다면 함경도지방은 좀 색다른 방법으로 마을에 복을 불러들였다.

외세에 대한 저항정신의 표현인 북청사자놀음이나 아낙네들이 한숨에 젖어 부르는 애원성 등이 동북부 지방의 주된 민족정서였다. 이러한 정서의 바탕 위에서 양반과 승려들을 풍자하는 놀이들이 성행했던 것이다.

과천무동답교놀이

민속놀이



과천무동답교놀이 (경기)

정조대왕을 위해 마련되었던 무동놀이와 다리를 밟던 답교놀이가 합쳐서 이룩된 무동답교놀이는 남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는 독특한 분위기로, 놀이하는 사람이 군중과 함께 호흡하며 해학적인 표현을 보여주는데 호흡과 재간이 일치하여야 하며 다채로운 분위기가 일품이다.

구성

놀이꾼의 구성은 무동역으로 소승, 여무동, 별감, 나장, 팥복이 있어 밑무동의 어깨위에서 무동극을 연출하여 그 외에 촌장, 왜장녀, 주민다수등이 있고 잽이는 대기 1본, 영기, 호적, 장고, 북, 상쇠, 제금, 징 각 1쌍, 소고 10쌍으로 되어있다.

소승

고깔에 장삼을 걸친후 가사를 맨채로 홍, 청의 여무동 사이에서 양쪽의 여무동을 희롱하고 날렵하고 간드러지게 왕래하며 춤을 춘다.

여무동

관복에 전복을 입고 (홍의는 청색, 청의는 홍색) 머리에는 전립에 무장영자를 달고 일정한 거리에 마주서서 요염한 자태로 소승을 부르며 선자리에서 춤을 춘다.

별감

왕실의 대전별감 복장 그대로에 홍포를 입고 초립을 쓰고 오른손에 합죽선을 들고 춤을 춘다.

라장

라장복장을 모방한 경포 검정바탕에 흰결이 감긴문양)를 입고 각모를 쓴 차림의 붉은색 방망이를 들고 오락가락하며 분위기를 다채롭게 이끈다.

팥복

연두색 두루마기에 남색 전복을 입고 머리에는 벙거지를 쓰고 부채를 들고 춤을 추며 노닌다.

무대놀이

애기무동을 밑무동 어깨위에 태우고 길군악과 자진길군악을 연주하며 놀이꾼 전원이 무대에 올라선 후 농악이 능개가락으로 바뀌며 전통계승자인 노인무동들이 놀이를 선보인다.

길놀이 1

길나잡이와 대기를 앞세우고 길군악을 연주하며 꼬불꼬불 골목길을 가듯이 애기무동과 노인무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며 땅춤을 추며 행진한다.

다리놀이

일행이 다리에 이르면 놀이꾼 전원이 다시 신명을 돋우어 능개가락으로 한바탕 놀고난후 다리 한가운데서 촌장이 한해의 액운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소지를 올린후에 애기무동들이 무동극을 연출하고 극이 끝난후 주민전원이 어우러진채로 답교하며 지난다.

길놀이 2

다리에서 내려서부터 애기무동을 밑동무 어깨위에 올리고 길군악에 땅춤을 추어가며 다음 다리를 향한다.

무동답교놀이

다리에서 소지를 올린후 능개가락이 시작되면 애기무동들은 밑무동 어깨에 올린 채 무동극을 연출하고 주민들은 다리밑에서 각자의 재간과 장기를 다하며 신명나게 돌아친후 답교하며 길놀이로 들어간다.

막판무대놀이

출연자 전원이 푸짐한 끝놀이를 연출하고 춤을추고 인사하며 퇴장한다.

24

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3. 10. 18 ▶ 10. 20
안동

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3. 10. 17–10. 23.
안동

대통령상
의성가마싸움(경북)–민속놀이
국무총리상
금산농악(충남)–농악
문공부장관상
청도풍각농요(경북)–민요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놀이
양양패다리놓기(강원)–민속놀이
날뫼북춤(대구)–민속무용
완주부동농악(전북)–농악
장려상
태우만드는 놀이(제주)–민속놀이
까치내상여놀이(충북)–민속놀이
보성옥평농악(전남)–농악
미수상 참가작
애원성(함북)–민요
경신역마놀이(인천)–민속놀이
금릉빗내농악(경북)–농악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강령탈춤(황해)–민속무용
어베주지춤(함북)–민속무용
달래강망패싸움(평북)–민속놀이
공로상
아미산 울어리(경기)
달래강 망패싸움(평북)
개인상
신민수(마산농청놀이, 경남)
이봉례(베짜기놀이, 평남)
김한순(부산농악, 부산)

의성가마싸움

민속놀이

유래

의성 고유의 민속놀이인 가마싸움(일명 : 가매싸움 또는 가마놀이)은 그 발생 연대가 확실치 않으나 중단된 것은 1906년 경이다.

이 놀이는 서당 학동들이 주가 되어 추석 오후 유다리(남덕교)에서 거행되었던 경축희(競逐戱)이다. 의성을 중심으로 동서로 가로지르는 아사천(일명 아시거랑)을 경계로 하여 남북 서당 학동들이 각각 60~70여 명 정도가 편이 되어 훈장이 귀향한 틈을 타서 놀았던 민속놀이이다.

특색

(1) 우리나라 각 지방에서 거행되었던 경축희는 대개 성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농·어업의 풍흉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의성가마싸움은 서당 학동들끼리 놀이를 진행하며 그 성패에 따라 그 해 과거 참방의 다과를 점치는 점이 특이하다.

(2) 가마싸움은 4개의 바퀴가 달린 가마를 고안, 사용했으며 해마다 변화를 거듭하여 더욱 견고하게 만든 가마가 사용되었다.

(3) 예로부터 충·효·열은 서당을 중심으로 고조되었고 근대 역사상 구국의 거도 서당이 중심이 되었던 점을 볼 때 ①바퀴달린 가마 ②남북을 대표한 수기의 표현 ③팔진도(진법) 등을 사용했던 가마싸움은 상무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구성

(1) 부촌주행

의성가마싸움 (경북)



(2) 대진
(3) 석전
(4) 가마부딪히기
(5) 진법놀이
(6) 머릿군공격
(7) 승부

내용

(1) 부촌주행

추석 전날인 14일 이른 아침, 남·북군이 각각 접장, 영기, 농악대, 서당기, 청도기, 사방기, 수기, 머릿군, 가마, 수비군의 순으로 대열을 가다듬어 다음과 같은 호창을 하면서 부촌을 주행하여 기세를 올린다.

〈호창〉

①후군 : 앞에 가는 마부
②전군 : 어이야
③전군 : 뒤에 가는 마부
④후군 : 어이야
⑤후군 : 네 말 좋다 자랑마라
⑥전군 : 내 말 좋다 자랑마라

(2) 대진

부촌주행이 끝나면 북군은 유다리 북편에, 남군은 유다리 남편에 도착하여 각기 부서 이동을 해 가면서 전세를 편다.

(3) 석전

접전의 전초전으로서 남북이 각각 유리 양편에 도열하여 투석하면서 상대편의 기세를 꺾으려고 한다.

(4) 가마부딪히기

가마끼리 부딪혀서 자기편 가마의 견고성을 과시하기도 하고 가마몰이가 능숙함을 과시하기도 한다.

(5) 진법놀이

장사진, 개문진, 통짜기, 멍석말이 등을 임기응변으로 적용해 가면서 남북이 각각 상대방의 진세에 따라 전진, 후퇴, 포위, 탈출 등의 변화를 이루어 나간다.

(6) 머릿군 공격

유다리 위에서 남북의 머릿군끼리 팔짱을 끼고 상대편을 밀어젖혀 침투를 꾀한다. 침투한 머릿군은 상대편 가마를 공격하게 되고 수비군은 기수단과 협력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한다.

수비군과 기수는 가마를 둘러싸고 방어하며 공격군은 멍석말이 진형으로 이를 포위하고 주위를 돌면서 틈을 노린다.

(7) 승부

공격군은 상대방의 수비진을 압축시켜 나가다가 드디어는 적의 가마를 쳐부수고 먼저 쳐 부순 편이 승리하게 된다. 승자는 적의 기치와 부서진 가마를 탈취, 노획하여 귀대한 후 본진과 합류하여 농악을 울리면서 개선한다.

부촌을 주행하고 승전고를 울리면 부촌 주민들은 박수 갈채로, 패자는 원통해 하다가 순순히 항복하면서 다음 해를 기약한다.

놀이기구

(1) 가마 : 바퀴가 4개 달린 것.

(2) 유다리 : 석조 홍교에 3개의 원형 수구가 있는 것으로 특히 다리 중앙 양편에 석조 용두가 1개씩 설치되어 있다.

(3) 기타 깃발 등.

양양패다리놓기

민속놀이

유래

일만봉 삼천계곡이란 말은 강원도 동해안 지방의 지형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다. 동해안 지방은 태백산맥을 따라 달리는 고산준령에서부터 시작된 수많은 계곡이 급류를 형성하여 동해로 유입된다. 게다가 태백준령이 해양풍을 가로막아 기상변화가 심하고 장마와 가뭄이 고르지 않아 여름철이면 산골짝의 물이 범람하곤 한다.

이와같은 지리적 여건때문에 옛부터 양양을 중심으로 한 산간마을에서는 해마다 추수기를 앞두고 장마에 떠내려간 다리를 다시 놓는 일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었다.

양양패다리놓기는 이러한 입지환경으로 인해 계곡천을 사이에 둔 양쪽 마을이 패를 지어 다리놓기 경쟁을 벌인 데서 비롯된 이 지방 특유의 민속놀이로서 매년 추석 전 날 명절놀이의 하나로 행해져 왔다.

이 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대략 고려 중엽부터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1910년까지는 매우 성행되었으나 한일합방으로 점차 그 명맥을 잃어가더니, 근대화에 따라 산간벽촌에까지 시멘트다리가 놓여지면서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지금의 양양패다리놓기는 1970년에 이르러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 앞 다리를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놓기 시작하면서 마을사람들이 옛일을 회상, 이를 더듬어 재현한 것이다.

특색

(1) 대부분의 민속놀이가 농사일을 소재로 하여 만들어졌지만 양양패다리놓기는 교량가설이라는 토목공

사를 소재로 한 것이다.

(2) 한 공사를 두 마을이 협동과 경쟁을 통하여 이룩하려는 공동이해에 바탕을 두었고 이를 계기로 승패에 관계없이 모두가 어울려 화합을 다진 놀이이다.

(3) 놀이과정에서 노동요와 자기편 사기를 높이기 위한 농악을 곁들였고, 아낙네들이 나와 참술을 권하는 등 종합적이고 토속적인 면이 돋보인 작품이다.

구성

(1) 다리놓기꾼 입장과 다리터 지신제

(2) 다리놓기 경기

(3) 이긴 마을촌장 다리건너기

(4) 양 마을 한마당놀이

(5) 다리굿 놀이와 퇴장

내용

(1) 다리놓기꾼 입장과 다리터 지신제

농기와 마을기, 그리고 촌장가마와 농악대 순으로 양편 마을별로 다리놓기꾼이 다리판과 다리발을 메고 입장한다.

이어 지신제를 지낸다. 지신제는 다리터에 제석을 깔고 젯상에 주, 과, 포를 차려놓고 양 마을 촌장이 술잔을 올려 배례한 후 상견례를 한다.

(2) 다리놓기 경기

다리터 지신제가 끝나면 다리놓기꾼은 마을에 따라 두패로 갈려 각기 오리발을 세우고 모래자갈을 운반하여 동여매기 경쟁을 한다. 또 한편에서는 산에서 원목을 내리고 노동요를 부르면서 다리판을 옮긴 다음, 다리판뺏기와 함께 다리발을 먼저 박고 묶어세우기 경쟁을 한다. 이때 다리를 빨리 놓는 편이 이기게 되므로 양 마을 아낙네들은 자기편 일꾼들에게 참술을 권하면서 흥겨운 농악가락에 맞춰 응원한다.

(3) 이긴 마을 촌장 다리건너기

승패가 결정나면 이긴 마을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흥을 돋운다. 이때 이긴 마을의 촌장은 가마를 타고 완성된 다리를 통과하며 진편 마을 일꾼들은 패배를 감수하며 엎드려 예를 올린다.

이어서 팔목도꾼이 원목을 목도로 다리를 통행하고 뒤이어 지게꾼, 개나리봇짐을 진 나그네, 그리고 맨 뒤에는 아낙네들이 통행한다.

(4) 양 마을 한마당놀이

이긴 마을은 진 마을을 위로하며 함께 마당놀이 할 것을 권하며 놀이마당으로 끌어들인다. 남녀노소 모두 함께 어울려 흥겨운 놀이가 시작된다.

이 놀이는 협동으로 이룩한 다리 위를 양 마을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더욱 화합을 다진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양양패다리놓기 (강원)

(5) 다리굿놀이와 퇴장

한마당놀이에 이어서 이 다리를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빌며 다리가 유실되지 않고 견고하게 보존될 것을 기원하는 다리굿놀이를 한다.

금산농악

농악

금산은 충청, 전라로 교차되었던 지역이며, 소백산맥에 분기되는 차령산맥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곳으로서 칠백의사의 충절과 인삼의 영덕을 낳은 소박한 농경인의 고장이다.

'금산농악'은 전라좌도팔읍(금산, 진산, 무주, 용담, 진안, 장수, 운봉, 구례)의 최북단에서 뿌리 내린 좌도굿으로서 지맥에 따라 남북으로 전승되면서 호남좌도, 영남등지로 파급되고 다시 경기지방까지 영향을 주며 승맥되었으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가락과 가림새가 변형되어 가고 있다.

양악의 물결이 고조되고 농경생산 수단이 현대화 되는 요즈음 희소한 기능보유자마저 점차 사라져 우리의 소박한 가락이 변형 소멸되고 있음을 안타까이 생각하고 이의 발굴과 전수에 중점을 두어 노소가 동참토록 하였다.

'금산농악'은 반농반군의 농군들로부터 창출된 가락으로서 전원이 전립을 쓰고, 비교적 간소한 복장에다 빠른 가락과 동작으로 대중의 행진 음악과 축원, 그리고 한 풀이가 승화되어 윗놀이의 기교가 뛰어나며 밑놀이의 굿가락이 담백한 것이 그 특징이다.

온 동리가 가을 농사(두레)를 끝내고 장원머슴을 뽑

아 제천 감사와 노고 잔치를 베풀면서 한마당 굿이 벌어진다.

"외마치, 두마치, 세마치……열두마치와, 길굿, 문굿, 품앗이, 오방진굿, 호호굿, 자진호호굿, 갈림굿, 각진굿, 자진각진굿, 홑영상, 겹영상, 덕석말이, 도둑잽이, 돌굿, 노래굿, 개인놀이, 파송굿 등"

외마치 풍년길굿

장원 머슴을 소 또는 사다리에 태워 용당기와 농기, 나팔, 무동 등을 앞세우고 좌도 특유의 길군악(행진굿)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소고가 앞을 서고 쇠가 뒤를 따르는 역진방법으로 주인집에 들어간다.

문굿

"주인 주인 문열소, 마당간데 불놓소" 이러한 구음의 가락을 치면서 역진했던 행진이 정상으로 돌아가 쇠가 앞장을 서 마당에 들어가 판굿을 친다.

외마치

자진머리에 해당하는 박자로서 좌도굿에서만 볼 수 있으며 가락이 경쾌하고 흥겹다.

두마치

휘몰이에 해당하는 가락으로 아주 빠르며 좌도의 두마치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마침굿의 맺임 가락으로도 활용한다.

세마치~여섯마치

세마치…여섯마치 까지 엮어져 연속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며 차분하고 무게 있는 가락이 이어진다.

일곱마치

한 장단에 징을 일곱번 치며 좌도 농악에서만 갖고 있는 특유한 가락이다.

여덟마치~열두마치

여덟마치는 일곱마치의 변형으로 된 가락이며 한 박자에 일곱번의 징을 친다. 마치가 더해짐에 따라 변화무쌍한 가락으로 빠르게 이어지는데 열두마치는 징을 열두번 친다.

품앗이굿

꽹과리를 서로 번갈아 치며 장고와 쇠군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한다. 농사 품앗이 일을 상징하는 굿이다.

오방진굿

청, 백, 적, 흑, 황색 깃발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으로 나누어 잡귀를 몰아 내는 굿이다. 마지막에는 중앙으로 모여서 멍석말이를 하고 다시 풀어 나온다.

호호굿, 자진호호굿

진영에서 전군을 점검하는데 서로 부르고 대답한다. 부르는 소리는 "호호", 대답하는 소리는 "허허", 단결심을 다짐하는 진 풀이다.



금산농악 (충남)

갈림굿

호명을 마친 후 쇠와 북, 장고가 서로 갈라지며 진을 다듬는다 .

각정굿, 자진각정굿

상쇠와 수장고가 마주보며 만났다가 헤어지며 각기 반대 방향으로 가서 서로 엇갈리는 '가새치기'를 한 다음 다시 서로 만나서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진풀이다.

홑영상, 겹영상

"솟작다 솟텡텡 도리깽 도리깽깽" (새와 화답을 하는 내용) 쇠잡이 들이 번갈아 치며 놀다가 장고와 마주치면서 흥을 돕는다. 좌도의 특수 가락이다.

개인놀이

채상노리, 장고노리, 열두발 채상 등 순차적으로 놀이 마당이 벌어진다. 윗놀이의 발달이 특이하고 장고가락은 담백한 굿이 특징이다.

파송굿

적진을 섬멸하고 끝냄을 알리는 굿이다.

"암독개비 숫독개비 아들낳고 딸낳고 콩꺾자 콩꺾자 두렁넘어 콩깍자 별따자 별따자 하늘 잡고 별따자. 갈리소 갈리소 구경군들 갈리소"

이상의 대사와 가락을 치며 원진하면서 덕석말이로 끝을 맺는다.

청도풍각농요

민요

유래

청도풍각농요는 경북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의 바랏들

일대에 전승되는 민요이다. 차산리를 비롯한 바랏들 일대는 순수한 논농사에 의존하며 벼와 보리를 생산하는 농촌지역으로, 마을주민들은 모두가 직접 농사에 종사하고 있어 자연 농요와 농악에 익숙해 있다.

풍각농요는 일년농사의 시화연풍을 축원하는 지신밟기를 비롯하여 생업력에 의한 농사일의 순서에 따른 노래들로 이루어져 있다.

농요로서는 봄철의 보가래질에서부터 세벌논매기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그 뒤에 농악대를 거느리고 들판에서 마을로 돌아가는 깽이말타기까지 농업력에 따라 부르던, 풍부한 변화를 가진 노래들이 전승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고을에는 전통적인 촌락생활에서 자생한 목돈래, 망궤노래, 풀베기노래(어사용) 등 많은 노동요가 보존되어 있다.

특색

(1) 청도풍각농요는 단순한 농요라기 보다는 노래가락과 춤사위와 몸짓이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적인 민속유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노래에 춤사위와 몸짓이 따르고 있으며 특히, 깽이말타기(꽹이말타기)때 개지나칭칭, 방애타령을 부르며 춤추면서 들판을 누비다 마을로 돌아오는 광경은 극적이기까지 하다.

(2) 노래의 종류마다 가락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화려한 소도구와 의상을 곁들이고 있다.

(3) 상머슴, 중머슴이 함께 소(꽹이말)를 타고 흥겹게 춤추는 행렬도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구성

(1) 가래질노래
(2) 모찌기노래
(3) 모내기노래
(4) 논매기노래
(5) 논매기조짐노래
(6) 보리타작노래
(7) 방애타령
(8) 들노래
(9) 목도노래
(10) 망깨노래

내용

(1) 보가래질노래

가래의 자루를 잡고 흙을 떠넘기는 사람이 메기고 양쪽에서 가래줄을 잡고 당기는 사람들이 받는 가창방식이 기본형식이다. 메김소리에 대하여 받는소리 '오호가래야'로 받는데 끝나기 전에 메김소리가 들어간다.

〈메김소리〉 〈받는소리〉

오호호 가래야 오호호 가래야
조금(쪼곰산) 나린 줄기 오호호 가래야
골골마다 보 생겼네 오호호 가래야
이가래 저가래 보가래에 오호호 가래야
보면뇌면 물나온다 오호호 가래야
이때 저때 어느때도 오호호 가래야
춘삼월 호시절에 오호호 가래야
잎은 되어 청산되고 오호호 가래야
꽃은 피어 화초로다 오호호 가래야

(2) 모찌기 노래

모심기 전에 모판에서 모를 찌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앞소리가 독창으로 메기고 뒷소리는 제창으로 받는다.

〈앞소리〉 서마지기 이 논뺌들 모를 심어서 장할레라(영활래라)

〈뒷소리〉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 솔을 심어 정자로다

〈앞소리〉 해 다졌네 해 다졌네 양산땅에 해 다졌네

〈뒷소리〉 해 다지고 다 저문날에 우연한 행상이 지나가네

〈앞소리〉 이산아 저산아 양산중에 울고 가는 두견새야

〈뒷소리〉 가지야 봉산은 어데 두고 야산중에 슬피우노

〈앞소리〉 소주야 물고 약주 꽂고 곧을 저자에 놀러 가자

〈뒷소리〉 우리는 언제나 한량이 되어 누캉 정자에 놀러 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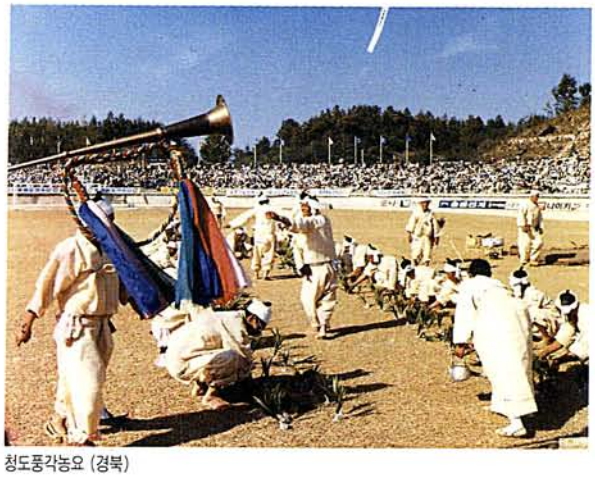
(3) 논매기노래

받는소리 '에이요홍 응해야'의 가락이 대표적인 노래이며 다른 지역의 '상사디야'와 같은 소리이다.

〈앞소리〉 〈뒷소리〉
애이오홍 오홍해야 애이오홍 오홍해야
이때가 어느땡고 애이오홍 오홍해야
배는 고파서 등에붙고 애이오홍 오홍해야
구실같은 땀이흘러 애이오홍 오홍해야
어떤사람 팔자좋아 애이오홍 오홍해야
논을매는 농부들아 애이오홍 오홍해야
오뉴월 삼복더위 애이오홍 오홍해야
등은 굽어 배에붙고 애이오홍 오홍해야
목이 말라서 못매겠다 애이오홍 오홍해야

(5) 논매기조짐노래

논매기의 마무리(군짐) 단계에 논 가운데로 몰려가면서 신명나게 몸을 푸는 일종의 유희요이다. 논가장


청도풍각농요 (경북)

자리부터 차츰 한가운데를 향하여 원형으로 모여들면서 분위기를 상승시키고 논 가운데에서 어울려 '이히히 이 후후후'하는 함성으로 '노지는'노래이다.

〈앞소리〉 〈뒷소리〉 〈앞소리〉 〈뒷소리〉
옹해야 옹해야 우리부락 옹해야
지화자자 옹해야 좋을시구 옹해야
적송자는 옹해야 학을타고 옹해야
맹호연은 옹해야 소를타고 옹해야
이태백은 옹해야 고래타고 옹해야
대국천자는 옹해야 코끼리타고 옹해야
일본대왕은 옹해야 말을타고 옹해야
일등신사는 옹해야 인력거타고 옹해야
삐걱삐걱 옹해야 나오실때 옹해야
이도령은 옹해야 탈것없어 옹해야
춘향이배를 옹해야 타고놀다 옹해야
어화둥둥 옹해야 내사릉(사랑)아 옹해야
앞을봐도 옹해야 내사릉아 옹해야
뒤를봐도 옹해야 내사릉아 옹해야
(후략)

(6) 보리타작노래

급한 템포로 주고 받는 교창형식이다. '에화'가 받는 소리인데 다른 지방에서는 '옹헤야'가 일반적이다.

〈앞소리〉 〈뒷소리〉 〈앞소리〉 〈뒷소리〉
애화 애화 애화 애화
이 보리가 애화 무슨보린가 애화
양반의 보린가 애화 수염도 길다 애화
상놈의 보린가 애화 수염도 짧다 애화
얼씨고 애화 절씨고 애화
지화자 애화 좋을시고 애화
(후략)

(7) 방애타령

방애(방아)타령은 길군악 대형으로 논길을 따라 마을로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로 조짐노래와 꽹이말타기 때 부른다.

노래의 사설은 얼마든지 선소리꾼이 연장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뒷소리가 받아서 제창한다.

〈앞소리〉 〈뒷소리〉
아 오호호 방애야 아 오호호 방애야
방아방아방아로다 아호 방애야
혼자찧는 도구방아 아호 방애야
둘이찧는 비딜방아 아호 방애야
뱅뱅도는 돌방안가 아호 방애야
녹수상천 물방아요 아호 방애야
알케등달캐등 찍는방아 아호 방애야
언제나 마실갔고 아호 방애야
방아찧는 처자네들 아호 방애야
방애속이나 알고 찧나 아호 방애야
(후략)

(8) 들노래

풀베기노래, 어사용, 어사랭이, 나무하는 노래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거나 풀을 베러 갈 때 지개묵 발장단에 맞춰 부르는 구슬픈 가락이다.

열아홉살 먹은 과부가 스물아홉살 술은 딸을 잃고
딸 찾아 갈라 하이
꽃바구니 옆에기고 앞은 따여 입에 물고
꽃은 꺾어 머리꽂고 굽높은 나막신신고
음달로 갈라캐도 허실허실 양달로 갈라캐도 허실허실
반양달 반바이 들어가니 굽놉은 나막신신고
송지 꺾어 작지하고 내 딸 봉덕이 찾아가는
내딸 봉덕아 어더로 갔소
어디로 갔노 봉덕이 내딸 봉덕이
얼씨고 이후후—이후후
(후략)

(9) 목도노래

큰 나무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나 무거운 돌을 줄로 묶어서 메고 옮길 때 부르는 노동요다.

선소리꾼의 사설 뒤에 '어영차 어영차'하는 뒷소리로 받으면서 운반한다.

어여차 들어간다
발을 마차 들어간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소
가는 남는 사목두요
꿔은 남은 팔목도라
어여차 어여차
어여차 들어간다

이 보가 어데 보고
대궐 지는 궁실 보로
어여차 들어간다

(10) 망깨노래

주로 집터나 주춧돌을 놓을 땅이나 못뚝을 다질 때 부르는 노래다. 선소리꾼의 메김소리에 이어 '어이 여로차'하는 뒷소리로 받으면서 땅을 다진다.

〈앞소리〉	〈뒷소리〉	〈앞소리〉	〈뒷소리〉
어엿차	어엿차	얼씨구나	어엿차
저기가는	어엿차	저할마씨	어엿차
딸있거든	어엿차	사우삼지	어엿차
딸이사	어엿차	있다마는	어엿차
어려서	어엿차	못치우겠다	어엿차
어머님요	어엿차	그말마소	어엿차
뱁새가	어엿차	작아도	어엿차
알을낳고	어엿차	얼씨구나	어엿차
절씨구나	어엿차	지화자자	어엿차

놀이기구

매구, 징, 대북, 장기, 도리깨, 우장, 갈구리 등 35종.

날뫼북춤

민속무용

유래

현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동 일대에서 행해지던 날뫼북춤은 비산농악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두드러지게 발달한 북춤이다.

비산동의 옛 이름인 날뫼라는 지명에는 전설이 전하는데 아득한 옛날 달내(금호강)의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여인이 서쪽하늘에서 요란한 풍악소리가 나서 하늘을 바라보니 산 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이를 보고 여인이 깜짝 놀라 '동산이 떠온다'라고 비명을 지르자 날아 오던 산이 땅에 떨어졌다 한다.

그 후 사람들은 이 지역을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뫼라 불렀다.

이 지역에 있는 날뫼의 원고개는 달성과 달내(금호강)사이에 퍼진 넓은 들을 가로지르는 나들이 길로 대구의 관도였다. 옛날 고을의 원이 부임해 올 때에는 날뫼의 원고개에서 행차가 쉬어 갔는데 이 부임행차 때마다 백성들이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맞이했다고 한다. 날뫼북춤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에 백성들의 추앙을 받던 이 고을의 한 원님이 정사를 돌보다가 순직하였다. 그 후 사람들은 원님의 외로운 혼을 달래주기 위하여 춘추의 제향때마다 북을 울리면서 춤을 추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날뫼북춤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다.

특색

구성형식은 비산농악과 유사하여 모의 군사굿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쇠가락은 마당마다 변화가 다양하며 대표적인 춤의 기조는 경상도 특유의 덧베기가락의 춤사위로 되어 있다.

일사불란한 단체무악을 이루고 있어 힘이 있고 보는 이로 하여금 협동심과 단결력을 느끼게 한다.

구성

날뫼북춤의 춤사위는 다음과 같다.

(1) 정적궁이
(2) 자반득이(반짓굿)
(3) 엎어빼기
(4) 다드래기
(5) 허허굿(강강술래)
(6) 모듬굿
(7) 살풀이
(8) 덧베기

내용

위 춤사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적궁

상쇠는 단마치, 대원들은 자신의 보폭으로 쇠가락에 맞추어 허리춤, 어깨춤을 추면서 원형으로 돈다. 이때 상쇠가 2채, 7채의 가락으로 정적궁을 치면 전원이 허리춤과 어깨춤으로 돌면서 넘어간다.

(2) 자반득이(반짓굿)

날뫼북춤 (대구)



상쇠의 다양한 쇠가락에 맞추어 군무의 묘를 살리면서 덩실거리는 덧베기춤으로 마당굿이라고도 한다.

2채, 3채, 4채, 8채, 12채의 순으로 단채무악을 이루며 마지막에는 덧베기가락으로 전원이 돌면서 어깨춤과 허리춤을 흥겹게 춘다.

(3) 엎어빼기

상쇠가 2채로 시작하여 4채로 넘어가고 설북이 2채와 3채를 친다. 동시에 전 단원이 한바퀴 돌면서 세 번, 네번 엎어빼고 돌아가면서 춤을 춘다.

(4) 다드래기

도드리와 연관시켜 생각하기 쉬우나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처음 3채로 시작하여 단모리 7채가락으로 넘어가며 이때 전 단원은 몸을 뒤집어 엎어빼고 빠른 사위로 돌면서 춤춘다.

(5) 허허굿

설북이 2채에서 4채로 넘어가면서 갈지자 뜀으로 이끌어가면 이에 따라 뛰놀다가 호호딱딱하는 허허굿으로 끝난다.

(6) 모듬굿

설북이 단마치로 1채, 2채, 3채를 치면서 원을 그리며 모였다 흩어지는 형태를 3번 거듭한다. 그리고나서 설북의 장단에 맞추어 4채, 8채, 12채로 친 다음 대북을 높이 뒤집으면서 춤을 춘다.

(7) 살풀이

한해동안의 농사과정을 상징하는 춤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흥겨운 장단과 우렁찬 북소리에 맞추어 전원이 어깨춤을 추면서 돌아간다.

(8) 덧베기굿

덧베기 들놀이가락으로 대북이 3채, 6채를 몰아치고 흥겨운 굿거리장단으로 한데 모여 춤을 춘다.

놀이기구

북 12개, 쇠 1개, 장고 1개, 징 1개 등.

완주부동농악

농악

유래

우리나라의 곡창이라고 일컬어지는 전라북도는 일찍이 찬란한 마한·백제문화를 꽃피웠던 곳이며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유교문화의 발상지로도 유명했던 곳이다.

완주지방은 광활한 평야와 산악지대가 뒤섞여 있는 곳으로 옛부터 이 지역 고유의 민속과 민요, 굿놀이가 다양하게 전개되어왔다.

특색

완주부동농악은 호남 우도농악의 멋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전립(부포)과 화관(고깔)을 함께 쓰고 농민복에 어깨띠를 두른, 매우 화려한 의상이 특징적이다.

구성

(1) 모군굿
(2) 인사굿
(3) 오채질굿
(4) 노진삼채
(5) 된삼채
(6) 풍류굿
(7) 양산도가락
(8) 오방진굿
(9) 호호굿
(10) 다러치기
(11) 귀농굿

내용

(1) 모군굿

상쇠의 뒤를 따라 마을을 돌며 군중을 모은다.

(2) 인사굿

농악대가 본격적인 놀이를 시작한다는 인사로 상쇠가 벙어리삼채를 친다.

(3) 오채질굿

호남 우도농악의 판굿에 단지 한 번만 쓰는 가락이다. 우로 돌며 치는 가락으로 징이 다섯 점 들어간다고 해서 우길굿 또는 오채굿이라고도 부른다.

(4) 노진삼채

징이 세 번 들어간다. 3분박의 보통 빠른 3박자로 된 것을 일컫는 말이다.

(5) 된삼채

노진삼채와 마찬가지로 징이 세 점 들어가며 3분박의 좀 빠른 4박자로 이루어져 있다.

(6) 풍류굿

외마치굿을 행진에 치지 않고 판굿 또는 고사굿에서 칠 때 풍류굿이라 한다. 이것은 풍류와 같이 음악적인 가락이라 하여 풍류굿 또는 풍년굿으로 불리기도 한다.

(7) 양산도가락

이 가락은 원래 판굿에서 오채질굿(오채길굿)의 다음에 치는 가락으로 경기민요 양산도와 같은 장단으로 되었다고 하여 양산도가락이라고 부른다.

(8) 오방진굿

동·서·남북·중앙의 그 다섯 곳을 오방(五方)이라 하는데 이 오방에 여러가지 진을 만들어가며 노는 굿이다.

(9) 호호굿

매우 빠른 2박과 3박이 다양하게 혼합된 굿으로 상쇠가 쇠를 두들기며 농악대를 끌어갈 때 '호호'하는 신나고도 빠른 구호를 넣고 받는 까닭에 호호굿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10) 다러치기

상쇠가 삼채가락을 치면서 쇠채를 좌우로 흔든다. 쇠와 징, 장구와 북, 법고 등은 원을 그리며 영기와 함께 어우러져 춤판을 벌인다.

(11) 귀농굿

놀이가 끝나고 귀가하기 전에 벌이는 굿이다.

놀이기구

쇠, 징, 장고, 큰북, 소고, 영기, 농기, 용기, 새납, 나팔 등.

태우만드는놀이

민속놀이

유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제주도민들은 일찍부터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왔다. 이들은 어로의 수단으로 해녀들의 물질과 풍선과 태우를 이용해 왔다.

태우는 고대시대부터 이용되었던 원시형 선박의 일종으로 뗏목과 비슷하며 지역에 따라서 떼배, 떠배, 태위, 터우 등으로 불려오는데, 주로 자리돔을 뜨거나 해초류를 채취·운반하는데 쓰여졌다.

태우가 제주 어민들의 생업수단으로 아낌을 받아온 것은, 제주의 해안지대가 거의 암초로 형성되었고 매년 불어오는 계절풍과 태풍 등의 심한 풍랑에도 다른 선박에 비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섬에서 재료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수치에서도 보이는데, 1938년에 제주도내 어선 1687척중 태우가 541척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면 제주도민들의 생업과 태우가 깊이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태우는 물에 잘 뜨고 선식충에 강하며 한라산 기슭에서 자생하는 구상나무를 베어다가 만들었는데, 나무를 베는 작업에서 태우를 제작하여 바다에 진수시키는 과정까지 마을 사람들의 공동작업을 통해 이뤄졌다. 이러한 공동 노동과정을 놀이로 엮어 만든 것이 바로 태우만드는 놀이인 것이다.

특색

태우와 관련한 제주도의 민속놀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가지를 예로 든다면 하나는 영등굿의 떼몰이놀이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태우만드는 놀이이다. 떼몰이놀이가 무속적 성격이 강한 반면 이 태우만드는 놀이는 직접적인 노동과정을 재연한 것으로 생업의 일부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구성

1) 초장(나무베기 작업)

나무베는노래, 나무내리는 노래.

2) 중장(태우만드는 작업)

3) 종장(태우진수식)

내용

한라산 기슭에서 구상나무를 베어, 산에서 통나무를 끌어내리는 장면에서부터 놀이가 전개된다.

통나무 운반은 4~6명이 한조가 되어 교대로 하는데 힘든 노역을 달래기 위해 일꾼들은 리듬에 맞춰 자연스런 몸짓을 취한다.

이때 '나무베는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라산에 놀던낭가
(후렴) 어기여차 내려간다.
오늘날은 지와간다 (후렴)
설룬 그는 상중의 낭 (후렴)
오늘날은 지와간다 (후렴)
노픈낭의 앉은 새는 (후렴)
비가오나 탄식이여 (후렴)

포구와 맞닿은 작업장에서는 끌어내린 통나무로 배를 만들게 된다. 구경나온 마을 주민들과 일꾼들은 함께 어울려 분주히 일한다.

완성된 태우는 바다에 진수하게 되는데 이때는 용왕신께 제를 올리고 앞으로 출어하면 해상의 안전과 만선의 기쁨을 주십사고 기원한다. 여기서는 '선왕노래'와 '떼젓는노래'가 불려진다. 진수가 끝나면 한자리에 모인 주민과 선주, 그리고 무당들이 한데 어울려 거친 파도와 고락을 같이할 태우 주위에서 흥겹고 박진감 넘치는 놀이로 신바람나는 한마당이 펼쳐진다.

태우의 형태와 구조를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태우는 구상나무를 4~5미터씩 잘라 통나무 7~11본을 횡으로, 선수와 선미에 구멍을 뚫고 참나무로 만



태우만드는 놀이 (제주)

든 나무못과 밧줄로 개체별 움직임이 없도록 연결·고정시켜 만든다.

태우의 주요부분을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쇠
2) 멍에
3) 덧방고지
4) 강다리
5) 주지
6) 뇌좆
7) 상자리

놀이기구

통나무(4~5미터) 10여본, 칡넝쿨, 밧줄, 참나무못, 대나무, 기타 연장.

까치내상여놀이

민속놀이

유래

청원군 오창면에 까치내라는 마을이 있다. 이곳에서는 놀이상여가 널리 행해진다. 여제라고도 하는 놀이상여는 속칭 '도둠이'라고 한다.

도둠이는 상여를 처음 꾸미거나 새로 장만해 들고 올 때 행하는 민속놀이로 여기에 놀이상여가 곁들여진다.

상여는 사람이 죽었을 때 행하는 장례의식에서 시체를 집에서 무덤까지 옮기는 제구로, 흉례에 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신과 금기가 따른다.

그런 까닭으로 새로운 상여를 장만했을 때에는 마을 입구에 금줄을 쳐서 부정타는 것을 막으며, 새로운 상여를 가지러 가는 날 아침에는 징을 울려 상여꾼을 모은 뒤 디딜방아를 떼어서 왼새끼로 묶어 들고 농악을 울리며 떠난다.

새 상여를 가져올 때에도 새 상여에 잡귀의 범접을 막고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디딜방아를 싣고 오는 것이다.

특색

놀이상여는 충북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나, 미호의 외나무다리 건너기 까치내상여놀이가 가장 짜임새 있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1920년대까지 전승되었다.

이 놀이는 새 상여에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상노인을 태우고 마을을 돌면서 시작된다. 상노인을 태우는 것은 새 상여를 천수를 누린 상노인의 장례에 처음 쓰이게 하자는 뜻이며, 마을 젊은이의 불상사가 없게 하고 호상만 있게 해 달라는 기원이다.

나이가 많은 상노인은 새 상여를 타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여꾼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광목 한 필을 상여에 걸어주면서 사례한다. 만일 이 상노인이 죽어 새 상여의 첫번째 임자가 되는 경우에는 마을의 추렴으로 수의를 마련해 주는 관례가 있다.

구성

전 4과장으로 구성된다.

1) 상여맞이
2) 고사
3) 도둠이
4) 상노인 태우기

내용

새 상여가 완성되면, 징을 울려 상여꾼을 모은 뒤 마을에서 가장 좋은 디딜방아를 떼어서 왼새끼로 묶어 들고 농악 사물인 꽹과리·징·북·장고를 앞세워 상여맞이를 떠난다.

상여 꾸민 곳에 도착하면, 디딜방아를 새 상여에 싣고 상여소리를 하면서 돌아온다.

새 상여를 받들어 오는 길에 마을 입구에 다다른다. 싣고 온 디딜방아를 거꾸로 세워놓고 성황당에 와서 고사를 지낸다.

성황당에서 지내는 고사는 산신제의 용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소는 산신의 소관이라는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고사를 지낸 다음 마을로 돌아와 도둠이를 한다.

도둠이는 요령잽이를 상여에 태우고 상여소리를 하며 마을을 한 바퀴 돈다. 마을을 돌다가 그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상노인을 태운다.

상여를 탄 상노인의 집에서 상여꾼들에게 술대접을 하고 광목 1필을 상여에 얹어준다.


까치내상여놀이 (충북)

이렇게 놀이가 끝나면 상여는 상여집으로 운반하여 잘 보관한다.

놀이기구

상여는 특별한 것이 쓰이지 않고 일반적인 형식을 가진다. 다만, 매우 화려한 꽃장식이 특이하다.

보성옥평농악

농악

유래

보성옥평농악은 매년 풍년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제천의식인 '당굿'에서 비롯된 마당놀이로 우도농악의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다.

5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마당밟이굿은 매년 정월 대보름과 8월 한가위, 그리고 마을의 경축사때 항상 놀이되며, 화합의 기틀을 튼튼히 하여 마을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특색

화려하고 박진감 있는 호남 우도농악의 율동과 가락, 사계절마다 변화하는 고깔과 삼색띠를 두른 복색은 웅장한 북놀이의 특성을 가진다.

특히 상쇠가 이끄는 개인 묘기와 법고와 북이 어우러지는 북놀이가 인상적이다.

구성

(1) 질굿(길굿)
(2) 문굿
(3) 마당굿

내용

(1) 질굿(길굿)

행진에 쓰이는 장단을 치며 입장한다.

쇠가락은 지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2) 문굿

"주인네 문 열어 주시오. 이 집안의 못된 잡귀와 액운을 몰아내고 재앙을 없애드리겠습니다"하며 문굿을 친다.

(3) 마당굿

①진굿놀이

전체 농악대가 진을 쳐서 모든 잡귀와 액을 쫓아버리고 장수와 북을 불러들인다.

②마당판굿놀이

상쇠놀이, 장고놀이, 북놀이, 버꾸놀이, 소고놀이, 잡색놀이 등의 과장으로 이루어진다.

상쇠놀이 : 농악대원이 둘러선 가운데 상쇠가 마당의 중앙으로 나와서 쇠가락을 치면서 여러가지 부포놀이의 기예를 발휘한다. 우도농악의 부포놀이는 상모물채를 빳빳하게 만들어 세워서 기예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고놀이 : 상장고가 대원 한가운데로 나와서 여러가지 발림을 하며 장고가락을 친다.

북놀이 : 상쇠와 함께 북과 장고가 묘기를 부리며 흥을 돋우는 놀이이다.

버꾸놀이 : 법고(버꾸)를 가지고 여러가지 발림을 하면서 논다.

소고놀이 : 소고수가 채상모를 쓰고 여러가지 기예를 발휘한다.

잡색놀이 : 조리중, 왜장녀, 양반, 포수 등이 나와서 재담을 하며 한바탕 논다.

놀이기구

농기, 영기, 쇠, 날나리, 징, 장고, 큰북, 버꾸, 소고 등

어베주지춤

민속무용

우리나라의 지리상으로 제일북쪽에 위치한 함경북도는 산세가 험하고 깊으며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대륙과 접경하여 옛날부터 여진족의 침입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산이 첩첩 천봉인데 산에 대한 영엄한 설화가 있었고 이러한 산간지방에 고유의 민족 민속놀이 중에서 어베지춤이 있었다. 우리 옛 속담에 우는 어린이를 달

랠때 함경북도 산간지방에서는 어베주지 (산짐승을말함)가 온다하면 울음을 뚝 그쳤으니 어베주지하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무서운 형태의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였다.

실제로는 산 속 깊숙이 살고 있었던 산간 사람들은 대개가 여진족의 후예로서 즉 추석이나 대보름등 명절때면 마을 사람들은 빙둘러 앉아서 어베주지춤 놀이를 하면서 한편에서는 쫓고 또 한편에서는 쫓기는 가운데 여자가 남장도하고 무서운 탈을 쓴 "즉" 주지괴물들은 개가죽 옷도 입고, 탄재(담요)도 쓰고 하여 춤을 추는데 특히 무서운 괴물같은 특유의 움직임이 상징되는 춤사위다.

체바퀴에 광목천을 씌워 양초를 녹여 발라서 북을 대신하여 장단을 치고, 혹은 양푼같은 것으로 징을 대신하였다. 나무 함지에 물을 담고 바가지를 엎어 놓고 노래를 부르며 숫가락이나 젖가락으로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장단을 쳤다. 이 춤은 실제로 재가승마을 주지놀이에서 전승되었다.

제 1과장

함경북도 깊은 산중 마을 사자탈, 호랑이탈, 귀신탈, 주지탈을 쓴 춤꾼들과 촌민 아낙네들 10여명이 행렬을 짓고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무대위에 등장한다. 촌민들과 아낙네들은 탈꾼들을 가운데 두고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중앙의 탈꾼들은 껑충껑충 뛰면서 한바탕 흥겨웁게 춤을 추면서 어울려 돌아간다. 이윽고 탈꾼들은 무대 뒤편으로 퇴장한다.

제 2과장

촌민들과 아낙네들이 무대 중앙으로 나오면서 춤을 춘다. 그리고 애원성을 합창한다. 이윽고 촌민과 아낙네들은 무대 주위에 놓인 물함지박 바가지 놓인 자리로 가서 앉는다.

어베주지춤 (함북)



제 3과장

무서운 짐승 가면을 쓴 무리들이 무대 좌우편에서 뛰어나와 이상한 동작으로 춤을 추면서 무대 중앙으로 나온다. 동네 사람들은 놀라서 자기자리로 돌아간다. 신이 난 무리들은 좌우전후 빙빙 돌아가면서 춤을 춘다. 이때 다시 괴상한 소리와 함께 이번에는 사자 가면을 쓴 무리가 동네 사내아이를 훔쳐 업고 무대로 올라온다. 사자는어린애를 얼리는 시늉을 하면서 다른 괴물들과 어울려 좋아라 춤을 춘다. 이윽고 괴상한 소리와 함께 주지의 부하가 튀어나온다. 이리 저리 살피면서 춤을 춘다. 한쪽으로 달려가서 자기네 두목을 인도한다.

제 4과장

가죽을 쓴 주지가 얼굴을 가리고 무대 중앙으로 나오니 다른 탈꾼들은 기가 질려 가장자리로 물러난다. 이윽고 주지는 얼굴을 나타내니 얼굴은 붉고 무슨 짐승같기도 하고 귀신같기도 한 모습에 동네 사람들은 한층 더 놀란다. 이윽고 주지는 동네 사람들을 둘러보고 자기 부하를 시켜서 처녀를 끌어오게 한다. 처녀는 도망하려 하고 부하는 잡으려 하니 동네 아낙네들은 좋아라고 웃는다.

이윽고 끌려간 처녀는 주지와 춤을춘다. 다시 신이 난 호랑이, 사자, 도깨비 탈꾼들은 춤을 추고 동네사람들은 장단을 친다. 얼마후에 탈꾼들은 동네사람에게 가서 금품을 강요하고 이를 두목에게 바친다. 이윽고 주지도 괴물들을 데리고 또 처녀를 끌고 퇴장한다. 그러나 처녀는 곧 도망쳐서 동네어른들 앞에 나타난다. 동네사람들은 좋아라 장단을 치고 춤을 춘다. 이때 다시 등장하는 탈꾼들도 촌민, 아낙네들과 한데 어울려 춤을 추면서 끝이난다.

달래강망패싸움

민속놀이

유래

달래강망패싸움은 일반 서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민속놀이이다. 북쪽 오랑캐의 침략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손쉬운 자위수단으로 돌을 무기로 사용한 석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이 민속놀이는 함경북도 정주지방에서 성행하였는데 정주지방은 오랑캐 침략의 요충지로서 수많은 산성을 쌓아 적들의 침략에 대비한 고장이다.

그 당시엔 산성을 기어올라오는 적들에 대항해 싸우


달래강망패싸움 (평북)

기 위해서는 석전이 위력적일 수 밖에 없었다. 정주지방 사람들은 평시에도 언제 오랑캐들이 쳐들어올지 몰라 준비훈련을 철저히 해왔는데 달래강망패싸움도 그 훈련의 한 과정이었다.

남도에선 정월 대보름날 쥐불놀이가 행해진 반면 함경북도에선 지리적 특성상 석전을 방불케하는 망패싸움이 특징적으로 행해졌다.

특색

석전을 민속놀이로 활용한 고장은 많으나 망패를 사용하여 석전을 하는 곳은 평안북도뿐이다.

망패란 허리띠 모양의 천 중앙부에 가죽으로 돌을 싸게 만들어 빙빙 돌리다가 한쪽 손을 놓으면 돌이 멀리 날아가도록 하는 용구를 말하며 옛날 손쉬운 무기로 사용되었다.

구성

(1) 부락민들이 모여 놀이에 쓸 망패를 제작한다.

(2) 부락단위로 젊은 청장년들이 동군, 서군으로 편을 가른다.

(3) 개천을 사이에 두고 결전에 들어간다.

(4) 심판관의 신호에 따라 승패를 가름한다.

내용

정월 대보름 혹은 단오절이 오면 부락별로 망패를 제작한다. 부락별로 건장한 청장년을 뽑고 부락의 연장자를 놀이의 심판관으로 모신다.

정월 대보름날 달이 뜨면 달래강을 사이에 두고 부락 청장년들이 마주 서고 마을사람들은 떡과 음식을 장만해 온다.

동군, 서군으로 갈라진 각 편에서 수령를 뽑고 수령을 중심으로 용사들이 사기진작을 위해 술과 떡을 들고 주위를 몇바퀴 돈다.

소리와 춤으로 흥을 돋운 뒤 심판관이 진군의 북소리를 울리면 일제히 상대편 진지를 향해 망패를 집어던진다. 싸움은 격렬해 양 진영에서 부상자가 속출한다. 징소리, 꽹과리소리가 요란하게 울려퍼지고 양 진영은 사력을 다해 망패를 집어던진다.

싸움이 절정에 이르면 심판관은 북소리를 울려 싸움을 중지시킨다. 심판관을 중심으로 동군, 서군으로 서고 심판관은 부상자의 숫자를 헤아린다.

부상자의 수가 적은 부락이 승자로 불려지면 그 마을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한바탕 춤을 춘다.

그러나 부상자가 많아 패배자로 규정된 부락은 억울함에 땅을 치며 다음해에는 기필코 승리할 것을 다짐한다.

승자는 더욱 사기충천하여 오랑캐의 침략을 막고 부락의 질병과 재액을 물리치고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흥겨운 소리와 춤으로 이 놀이는 끝을 맺는다.

놀이기구

망패, 돌멩이, 악기 등.

25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4. 9. 21 ▶ 9. 23
충주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4. 9. 21-9. 23.
충주

대통령상
횡성회다지소리(강원)-민요
국무총리상
공주장승제(충남)-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목계별신굿(충북)-민속놀이
금마기세배(전북)-민속놀이
금릉빗내농악(경북)-농악
통영검무(경남)-민속무용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장려상
수영농청놀이(부산)-민속놀이
조심기놀이(평남)-민속놀이
북성포곶창굿(인천)-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밀양새터가을굿(경남)-민속놀이
서울답교놀이(서울)-민속놀이
온달성재밟기(충북)-민속놀이
주사손돌공진혼제(경기)-민속극
봉산탈춤(황해)-민속극
어베주지춤(함북)-민속무용
비산천왕메기(대구)-민속놀이
달래강망패싸움(평북)-민속놀이
청주농악(충북)-농악
용신맞이풍어굿(전남)-민속놀이
연신맞이굿놀이(제주)-민속놀이
공로상
용신맞이 풍어굿(전남)
연신맞이 굿놀이(제주)
개인상
임문구(비산천왕메기, 대구)
유재영(달래강망패싸움, 평북)
이중환(청주농악, 충북)

횡성회다지소리

민요

유래

횡성회다지소리는 서울 강릉간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를 중심으로 부근 마을에 전승되고 있다.

정금마을은 신라에 패주한 진한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이 그 설욕을 꿈꾸며 진을 쳤던 태기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적인 농촌마을로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영동과 영서를 잇는 문화의 교류지인 동시에 이두문화를 수용하여 이 지방 특유의 전래민속을 형성해온 마을이다.

이 지방에 전해오는 회다지 소리도 다른 민속예술과 마찬가지로 한때 자취를 감춘적이 있었는데 서구식 문물의 유입과 장례의식의 간소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십년 전만 해도 이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회다지소리의 맥이 끊어질 뻔한 것은 장례의식을 평상시 생활에서 금기시하는 우리의 생활습관 탓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회다지소리 외에도 정금미나리타령, 정금농악 등을 간직해 오고 있다.

특색

횡성군은 영서문화와 영동문화가 복합적으로 습합된 곳으로 독창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곧, 다른 곳의 평범한 회다지 소리와는 달리 노래말은 느린 가락과 자진 가락이 있고, 율동은 두발차기와 세발차기가 있다.

노래말은 망자를 애도하는 구성진 가락으로 시작하여 점차 산역하는 사람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흥겨운

횡성회다지소리 (강원)



가락으로 전환한다.

회심곡은 망자의 한을 달래면서 상자를 위로하며 점점 빨라지는 가운데 산역군들에게는 점증적으로 흥을 돋우는 복합적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자진가락이 나오면서 회전식 세발차기 동작으로 움직이는 무용상의 특성을 가진 지방은 강원도에서도 정금마을 뿐이다.

또한 각 동작마다 연회, 청회, 방회라는 독특한 과장별로 진행된다는 구성상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구성

작품구성은 상여의 행진과 하관 후의 회다지소리로 양분된다.

(1) 제1과장 : 상여행진

(2) 제2과장 : 회다지 율동과 소리

①연회

②청회

③방회

내용

횡성회다지소리는 횡성지방에 전해오는 민요로 인간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통과의례중 상례시에 불리워지는 노래이다.

(1) 제1과장 : 상여행진

망자의 액을 달래는 방상씨를 선두로 출연기, 만장, 명정, 공포와 그뒤에 요요, 상여, 백가마를 따라 상주와 상여꾼들이 상여소리를 내며 외나무 다리를 건너 입장한다.

(2) 제2과장 : 회다지 율동과 소리

하관이 끝난후 회를 넣고 다지는 과장으로, 6명의 회다지꾼이 회작대기를 들고 금정안에 들어가 선소리꾼이 앞, 뒤에 서서 선소리를 주면 회다지꾼들은 율동과 함께 그 소리를 받는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연회 : 회다지꾼들이 선소리에 맞춰 서로 등을 대고 엎드려서 서서히 다리를 드는 율동을 반복하는 늦은 가락과 동작이다.

②청회 : 회다지꾼이 회작대기를 바꾸어 쥐면서 회를 다지며 돌아가는데 이는 연회과정 보다는 조금 빠른 중간 다지기이다.

③방회 : 회다지가 절정을 이루는 과정으로 두발차기와 세발차기의 율동과 소리가 매우 빠르고 회를 굳게 다지는 마지막 과정이다. 이는 이 지방에서만 전해지는 것으로 8사람의 회다지꾼이 1조가 되지만 금정안에는 6사람이 2사람씩 교대해가면서 회를 다진다.

회다지가 막바지에 이르면 회다지꾼과 금정밖의 모든 일꾼들이 같이 어울려 큰 율동과 함께 '에헤라 달회'를 우렁차게 부르며 회다지를 마무리한다.

회다지소리 노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헤라 달회 에헤라 달회
광중안에 6지원님 이내말씀 들어보소
광중안에 6지원이요 광중밖에 나혼잔데
먼데손님 듣기좋게 가까운손님 보기좋게
창포밭에 금잉어놀듯 금실금실 놀아보세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명년삼월 돌아오면 꽃은다시 피련마는
인생칠십 길다해도 우리인생 어찌하여
일장춘몽 못면하고 불여귀를 일삼는가
천증세월 인증수요 춘만건곤 복만가라
당상부모 천년수요 슬하자손 만세영이라
긴소리는 그만두고 자진소리 불러볼까
초한가를 불러볼까 회심곡을 불러볼까
이세상에 나온사람 뉘덕으로 태어났나
석가여래 제자되어 칠성님의 명을타고
삼태성의 복을빌어 아버님전 뼈를얻고
어머님전 살을얻어 이세상에 태어났네
한두살은 철을몰라 무럭무럭 자라다가
이삼십을 당도하니 부모은공 모르다가
오십평생 지나오니 유수같이 빠른세월
오늘에 당도하여 회고하니 눈물일세
어제까지 검던머리 오늘날에 백발되고
태산같은 중병얻어 의원불러 약을쓰니
약덕이 있을소냐 판수불러 점을치니
점덕이 있을소냐 무당불러 굿을하니
굿덕을 입을손가 애닯고 애타게도
이세상을 하직일세—

공주장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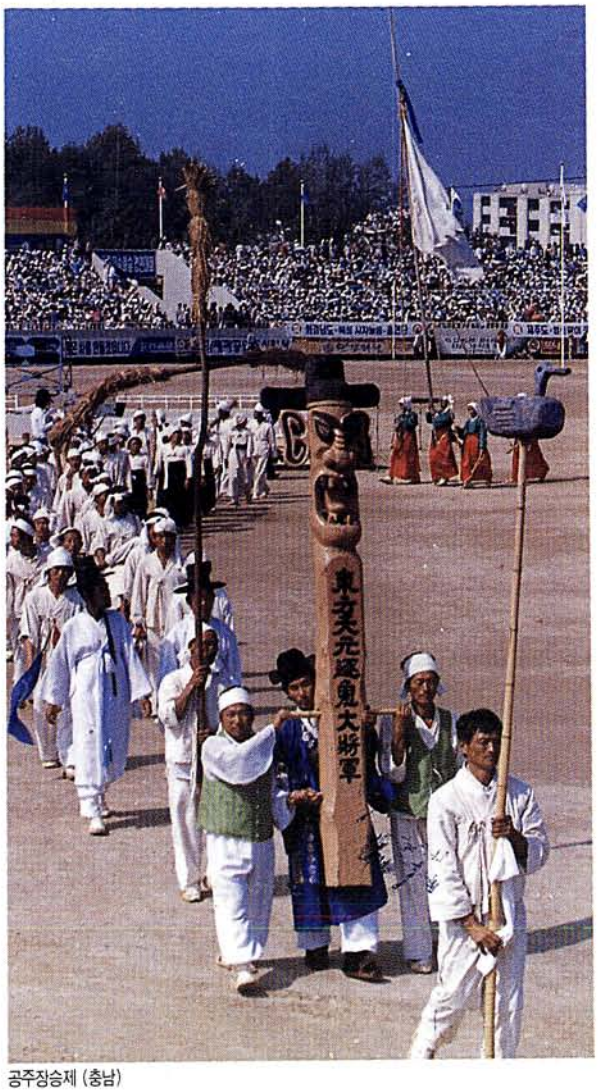
민속놀이

유래

공주 장승제의 연원은 정확하지 않다. 공주군 탄천면 송학리(소라실) 촌로의 증언으로 미루어, 약 400여년 전부터 이 지방의 토속신앙 내지 민속놀이로 면면히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승제는 마을 수호신인 장승의 성적 결합으로 농산물의 증식이 이루어져 마을이 세화연풍한다는 믿음에서 전승되었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뉘어 사는 동쪽 매봉 기슭 마을(신랑마을)과 서쪽 삼태봉 기슭 마을(신



공주장승제 (충남)

부마을) 주민들은 음력 정월 7일 각각 농기를 앞세워 농악을 울리며 쌀을 추렴, 술을 빚는다. 정월 보름까지 마을 사람들은 일절 부정한 것을 금하고 매일 농악을 울리며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이는 곧 장승의 결합을 신성시하는 데에서 오는 금기인 것이다.

특색

순수한 농민의 꾸밈없는 놀이를 통하여 선조들의 소박한 기원과 고도로 정제된 해학과 골계미를 엿볼 수 있다. 농악에 맞추어 가무음곡으로 밤새도록 즐기는 이 놀이를 통해, 옛 선조들의 생활상은 물론 마을의 안녕을 빌고 이웃과 협동하는 권농사상을 엿볼 수 있다.

구성

전 7과장으로 구성된다.

(1) 입장
(2) 기세배
(3) 혼례식
(4) 합궁
(5) 장승제
(6) 방포
(7) 합고

내용

(1) 입장

동쪽 신랑마을과 서쪽 신부마을은 각각 '뚜—뚜—뚜'하는 나팔소리를 울린 후 농기·제관·나발·농악·주민의 손으로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기세배 장소로 입장한다.

(2) 기세배

신농유업이라고 쓴 양쪽 마을의 농기가 접근했을 때, 동쪽 신랑마을에서 서편 신부마을을 마중하여 기세배 장소로 인도한다. 양편은 각기 자기 농기를 에워싸고 흥겹게 놀면서 젯상을 차려 기세배를 준비한다.

신부마을 농기가 네번 절하면 신랑마을 농기는 두번 절한다. 이때 신랑마을은 신부 농기에 채단을 묶어 준다.

기세배가 끝나면 서로 상대방을 청하며 옥신각신하며 농기를 밀고 당긴다. 이때 밀려간 쪽이 지는 것이며, 진 쪽에서 술을 내어 흥겹게 논다.

(3) 혼례식

날이 어두워지면 주민들은 농기·오릿대·장승·장수횃불을 앞세우고 농악에 맞추어 동구다리에서 장승의 혼례식을 올린다. 신부장승이 네번 절하면 신랑장승은 두번 절하고 신부장승에게 채단을 보낸다.

(4) 합궁

혼례식이 끝나면 주민들은 색깔 있는 베짜치로 신랑장승과 신부장승을 꽁꽁 묶어 합궁시켰다가 떼어 놓는다. 이윽고 양편 장승은 서로 아쉬워하며 각기 동구로 돌아간다.

(5) 장승제

양쪽 마을 주민들은 장승과 오릿대를 동구에 세워놓고 그 앞에 젯상을 차린 다음 축문을 읽으며 제례를 올린다.

(6) 방포

마을로 돌아온 주민들은 횃불을 밝혀 들고 질병과 화재, 천재를 쫓는 방포 세 발을 쏜다.

(7) 합고

동편 신랑마을은 씨름을 하고 서편 신부마을에서는 널을 뛰어 각각 장원을 뽑아 이를 축하한다.

다시 양쪽 마을이 하나로 뭉쳐 장원을 앞세우고 밤이 다 가도록 흥겹게 놀면서 단결력을 고양시킨다.

놀이기구

장승 한 쌍, 농기,포 등의 각종 도구가 사용된다.

목계별신굿

민속놀이

유래

목계는 충북 중원군 엄정면 남한강변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는 목계나루가 있어 충주지방에서 서울을 가려면 이곳을 이용했으며, 또한 여기서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 서울 광나루까지 왕래했다. 남한강 상류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집산되는가 하면 해안지방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어물이 이곳에 모여 교환되었으므로 제법 큰 저자거리를 이루었다.

이 목계나루터에는 부군당이 있어 이곳을 지나는 뱃사람들이 배의 안전을 비는 고사를 늘 지냈으며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월 9일이면 여기서 동제를 지냈는데, 특히 목계장터의 번영을 위하여 무당들이 모여서 굿판을 벌였으니 이를 '목계별신굿'이라 이름하였다.

이 목계별신굿은 1937년경, 경기, 강원, 충청 일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계나루에 운집하는 것을 두려워한 일제에 의해 미신이라 하여 금지당하고 한때 자취를 감추었다. 1972년에 나루터에 다리가 놓이고 도로가 확장되니 부군당은 강변 부흥산 중턱으로 옮겨지고 당이름도 부흥당이라 고쳤는데 1977년 주민들에 의해 별신굿이 부활되어 4년에 한번씩 지내오고 있다.

특색

별신굿이란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신에게 무당이 올리는 굿을 말하는데 목계에서의 제사 대상은 성황당신과 용왕이었다.

이 목계별신굿은 강릉단오제와 은산별신제와 같은 별신제이면서도 한강계의 민속적 특성을 지닌 내륙지방의 민속축제이다.

구성

(1) 강신굿
(2) 영신굿
(3) 송신굿
(4) 계줄다리기
①계줄만들기
②줄다리기

내용

(1) 강신굿

강신굿이란 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도록 모시는 굿으로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에 있는 부흥당에 젯상을 차려놓고 무당이 하는 굿을 말한다. 이때 헌관을 뽑는데, 초헌관은 마을 수장이 맡고 다른 헌관은 노년층에서 맡는다.

3헌관을 뽑고 굿이 끝나면 강변 백사장으로 나간다. 이때 줄다리기도 준비된다.

(2) 영신굿

영신굿이란 신을 맞이하는 굿을 말하는데 강변에 젯상을 차려놓고 강신굿과 비슷한 절차로 굿을 행한다.

이 영신굿이 끝나면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3) 송신굿

송신굿이란 신을 보내드리는 굿을 말하는데 영신굿처럼 강변에 제물을 차려놓고 굿을 한 다음 부흥당으로 신을 모셔간다.

부흥당에서 올리는 제사에서는 축문을 읽는다.

(4) 계줄다리기

①계줄만들기

가을이 깊어 추수가 끝나면 집이기를 마치고 남은 볏짚을 모은다. 짚이 모아지면 장정들이 모여 줄을 튼다. 줄은 처음 팔뚝 굵기만큼 틀은 것을 여러겹 겹쳐 꼰다.

이렇게 해서 암·수 두 줄을 만드는 데 백자가 넘는 길이로 꼬리는 지네발처럼 가닥으로 하여 당기기 편하게 한다. 또 암줄은 머리에 곱친 구멍을 크게 하고 숫줄은 구멍을 적게 하여 암줄의 구멍 속으로 숫줄이 들어가도록 한다.

②줄다리기

남한강의 동쪽과 서쪽에 사는 사람들로 각각 편을 나누어서 줄다리기를 한다. 이때 각 편의 지휘를 맡은 사람을 도편장이라 하는데, 동군은 문관인 목사가 맡고 서군은 무관인 영장이 맡는다. 그밖에 편장, 영장, 별감, 책질리, 통인 등이 각각 붉은색과 푸른색의 기를 들고 늘어서면 그 옆에 농악대가 동원되어 자기편을 응원하게 된다.

줄다리기는 도편장이 줄위에 올라타고 앞쪽에는 힘센 장정들이 귀줄을 메고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다. 경기장에 양편이 마주하면 풍장(농악)이 요란하게 울리고 줄꾼들은 춤을 춘다. 총지휘에 따라 앞으로, 뒤로 움직이다가 암줄과 숫줄이 처음 입을 맞추면 모두 우렁차게 함성을 지른다. 입맞추기가 세번 끝나면 숫줄을 암줄에 넣고 굵은 벼개목을 꽂는다. 벼개목이 꽂아지면 서로 줄을 당기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어느 한편이 불리하게 되면 도편장은 휴전을 청하고 파병 지원을 구하기도 한다.

이 줄다리기는 보름 이상 계속되었으며 줄다리기가 끝나면 계줄은 남한강에 띄워보낸다.

금마기세배

민속놀이

유래

마한, 백제의 고도로 유명한 전라북도 익산지방에는 옛부터 기세배라는 민속놀이가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이 기세배놀이는 익산의 인근 고을인 옥구, 김제지방에서도 행하여 졌고 함열지방에서는 농기뺏기 놀이로 변형되어 행하여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익산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는 일찌기 기세배놀이가 사라졌고 지금은 오직 익산지방에서만 존속되고 있다.

기세배는 일명 농기세배라고도 하며 상원달 세배절을 기하여 한 고을의 여러 마을 농기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세배를 교환하고 농악과 기놀이, 춤 등으로 하루를 한껏 즐기는 행사이다.

기세배의 연원은 정확한 고증이 없다. 다만, 이 지역이 옛날 마한의 고도였음을 미루어 보아 솟대 행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할 따름이다.

솟대 행사가 농신기 아래에서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와 놀이를 가졌듯이 이 농기세배 역시 그러한 기복의 요소를 듬뿍 담은 놀이이다. 농기세배는 농기 아래에서 농민의 얼을 총화결속시키면서 풍작을 기원하고 서로 즐기는 농촌의 뜻깊은 행사이다.

익산기세배는 원래 12개 마을이 참가하였는데 각 마을은 정월 열 나흗날 밤에 마을 당산에 농기를 세워 놓고 풍년을 비는 제사를 지낸다. 12개 마을은 형제의 서열이 관례에 따라 정해지며 맏형 마을은 상대마을이 된다.

다음 날(보름날) 상대마을의 소동기가 11개 아우마을을 차례로 다니면서 상대마을로 인도한다.

이때 상대마을 광장에 모인 11개 마을 농기들은 차례대로 맏형마을 농기에 대하여 세배를 교환하고 즐거운 풍장놀이와 기교적인 기놀이로써 형제의 우의를 굳게 다진다. 여러 마을 주민들이 합동하여 상호협동과 친목을 결의하는 숭농행사였다.

금마기세배 (전북)



특색

대부분의 민속놀이가 부락 단위로 베풀어졌으나 이 기세배놀이는 한 고을 내의 12개 마을이 합동하여 지역사회의 협동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루어진 행사라는 점이 특이하다. 현재의 놀이도 그 고증이 엄격하고 정확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

구성

모두 7과장으로 구성된다.

(1) 기제
(2) 영행인솔
(3) 당산굿
(4) 마당놀이
(5) 기세배
(6) 기놀이
(7) 군무

내용

(1) 기제

정월 열 나흗날 밤에 내일의 기세배를 앞두고 각 마을에서는 당산에 올라 기제사를 올린다.

제사가 무르익고 풍장이 울린다.

(2) 영행인솔

정월 보름날 아침 상대마을은 소동기를 앞세우고 막내마을부터 영행을 출발한다.

이때 이 고장 특유의 질굿(길굿)을 치면서 간다.

(3) 당산굿

일행이 상대마을 당산에 이르면 일렬로 늘어서서 한바탕의 당산굿을 치고 일제히 허리를 약간 굽힘으로써 예를 표한다.

(4) 마당놀이

당산에 고한 일행은 상대마을 광장에 나아가 특유의 방울진굿으로 빙빙 돌기도 하고, 미지기굿으로 쇠와 장고가 마주보고 전진 후퇴를 하기도 하면서, 나중에 있을 마을 단위 개인놀이의 흥을 한바탕 일으켜 놓는다.

(5) 기세배

놀이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11개 동생마을은 형제의 서열에 따라 둘째 마을이 세배를 올린 뒤 맏형 마을의 옆에 선다. 다음은 셋째 마을이 형마을들에게 세배한 다음 둘째 마을 옆에 나

란히 선다.

원래는 서열에 따라 개별 세배를 계속하였으나 오늘날은 둘째 마을까지만 개별 세배를 하고 다른 마을들은 합동으로 세배하게 되었다.

이때에 농기가 세배를 하면서 기를 조금만 수그리는 익살과 능청을 부려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한다.(여기서 농기뺏기놀이가 파생되었다고 함)

(6) 기놀이

기세배가 끝난 각 마을은 여흥으로 갖가지 기받기와 기쓸기 등의 힘자랑과 기교를 선보이게 된다.

①상대기 쓸기 ②소동기 쓸기 ③용기 쓸기 ④손놀이, 어깨놀이, 이마받기 ⑤기돌리기 ⑥딸기치기 ⑦파상 돌리기 등의 놀이를 한다.

(7) 군무

기놀이에서 충분히 논 사람들은 군무로 여흥의 절정을 이룬다.

상대마을에서 제공하는 주연을 끝으로 마지막을 고하고 각자 마을로 돌아간다.

금릉빗내농악

농악

유래

빗내농악은 경북 김천시의 동쪽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광천2동)인 빗내마을에서 전승되는 농악이다. 빗내마을에서는 감문국의 '나랏제사'와, 잦은 수해를 면하려는 풍년제가 동제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 동제는 음력 1월 6일인데 동제에 이어 풍물놀이와 줄당기기의 두가지 진놀이가 행해진다.

빗내농악은 이때의 풍물놀이로 단순한 농사굿이 아니라 '빗신'과 전쟁에 유래하는 '진굿'으로 전승되어 온 농악이다.

옛날에는 3년마다 행하던 '빗신'을 60여 년 전부터는 10년 간격으로 행하다가 근래에는 풍물놀이와 동제가 없어지고 약간의 악기만 남았다. 이것이 최근의 향토문화계발 과정에서 복원된 것이다.

특색

빗내농악의 특색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한 경상도의 내륙 농촌에서 전승된 풍물이다. 둘째, 상쇠의 전승계보가 뚜렷하다.(5대째 계승) 셋째, 농사굿이 아닌 진굿(진풀이)이다. 넷째, 12가락의 굿판이 명확한 차이를 가지면서 잔가락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구성

(1) 질굿
(2) 문굿
(3) 마당굿
(4) 반죽굿
(5) 도드레기
(6) 영풍굿
(7) 허허굿
(8) 기러기굿
(9) 판굿
(10) 채굿
(11) 진굿
(12) 지신굿

내용

음력 1월 6일 동제에 이어 무당과 빗내마을 농악이 합쳐서 각 가정을 방문하며 빗신과 밀착된 풍물놀이를 재미있게 한다.

(1) 질굿

행진하는 가락으로 쇠에 맞추어 모든 풍물꾼들이 춤을 추며 행진한다.

(2) 문굿

알리는 신호격으로 상쇠가 입장할 때 또는 대문앞에서 '주인 나그네 들어가요'하면서 알린다.

(3) 마당굿

놀이마당을 준비하는 것으로 원형을 그리며 정렬, 쇠에 따라 전 풍물꾼이 관중에게 인사한다.

(4) 반죽굿

상쇠와 종쇠의 가락에 따라 전 풍물꾼이 놀이훈련에 들어가는 가락으로 상쇠와 종쇠가 서로 이동하면서 전 대원을 훈련시킨다.

(5) 도드레기

상쇠와 종쇠가 노래에 맞추어 쇠를 치면 전 풍물꾼은 쇠가락에 맞추어 노는 가락으로 각 배역마다 점검을 하는 의미를 가진다.

(6) 영풍굿

상쇠와 종쇠가 영풍대를 치면 소고는 가락에 따라 여러번 엎드려 자기의 장비가 이상이 없음을 알린다. 이때 쇠를 그치면 북과 장구만 신나게 치며 자기의 장비가 이상이 없음을 모든 배역들이 과시한다.

(7) 허허굿

상쇠가 가락을 치다가 '허허'하며 간투사를 소리 지르면 전 풍물꾼이 이상없음을 과시한다.

(8) 기러기굿

이상유무를 확인한 상쇠는 흥이 나서 기러기가락을 치면 전 풍물꾼은 옆으로 뛰며 장구, 소고는 복색을 추켜잡고 기러기 모양으로 덩싱덩실 춤을 춘다.

(9) 판굿

상쇠의 지휘에 따라 원진을 풀면서 쇠와 징, 북, 장구, 소고가 각기 작은 원진을 그리면서 오방진을 친다. 이어서 전 풍물꾼이 양쪽으로 갈라선 굿판 가운데서 징놀이, 북놀이, 장구놀이, 소고놀이 순으로 판굿을 논다.

(10) 채굿

상쇠와 종쇠가 젯북가락을 치면 소고 두사람이 나와 수박치기를 하며 이는 맹렬한 싸움을 상징하는 놀이이다.

(11) 진굿

적을 포위하며 섬멸하는 놀이로서 상쇠와 종쇠가 각각 대장이 되어 두 편으로 나누어 진을 치고 격전이 벌어진다. 다음으로, 한데 어울려 상쇠가 진을 풀면 총화가 이루어져 모든 풍물꾼은 흥에 겨워 덧배기가락의 춤굿으로 흥청거리는데 이때 12발 상모가 흥을 돋운다.

(12) 지신굿

놀이가 끝나고 각각 헤어져 돌아간다.

놀이기구

쇠4, 징4, 북8, 장구8, 소고 16, 두건1, 두건1, 욕종1, 담뱃대1, 부채1, 배낭1, 총1, 농기1, 영기1.

통영검무

민속무용

유래

통영검무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서기 660년 무렵부터 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양손에 칼을 들고 추던 춤이었다고 한다.

오랜 세월을 두고 전승되어 오던 통영검무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기녀무로 변모되었으며 17세기 말엽에는 궁중으로 유입되어 궁중무로 연희되어 왔다.

통영검무는 국난 때에는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예를들면, 임진왜란 때는 승전무와 더불어 삼도수군통제영 산하의 취고수청, 교방청, 악공조합 등에서 기능자를 양성하여 병선 위나 진지에서 연희함으로써 장졸들의 사기를 앙양시켰다고 한다.

일제시대에 와서 우리 고유 민속춤에 대한 탄압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통영탈춤은 맥을 이어온 기능보유자들에 의해 다시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이충무공의 춘추향사, 생·기신제때 헌무 되어 오고 있다.

특색

통영탈춤의 특색은 춤사위와 악반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춤사위 면에서 살펴보면, 옥은 춤사위로 내향적이며 조직적이다. 또한 섬세한 맛이 있고 우아하며 아기자기한 면이 돋보인다.

악반주는 지방색이 짙은 구성진 가락과 무속에서 연주되는 시나위조(타령)의 가락으로 연주되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구성

통영검무는 다음과 같은 모두 7개의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1) 입춤
(2) 사위춤
(3) 손춤
(4) 외칼춤
(5) 쌍칼춤
(6) 연풍대
(7) 마지막 쌍칼춤

내용

통영검무를 구성하는 7개의 춤사위를 다시 세분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춤은 통영검무의 도입부로서 걸음발, 인사태, 쌍오리, 메김사위로 이루어져 있다.

(2) 사위춤에는 자진사위, 자진겨드랑사위, 모듬겨드랑사위, 돌림사위, 모듬사위, 엇사위, 머리사위, 좌우돌림사위가 있다.

(3) 손춤은 어깨춤사위와 칼어림사위로 이루어진다.

(4) 외칼춤에는 외칼사위, 외칼돌림사위, 자진사위, 모듬겨드랑사위, 돌림사위, 모듬사위, 엇사위, 좌우돌림사위, 어깨춤사위 등의 춤동작이 있다.

(5) 쌍칼춤은 머리사위, 좌우돌림사위, 외칼사위, 자진사위, 진격태 등의 춤사위가 있어 번뜩이는 칼날을 농검한다.

(6) 연풍대는 제1차 연풍대, 제2차 연풍대, 제3차 연풍대, 제4차 연풍대가 연속된다. 연풍대란 허리를 앞뒤로 젖히며 돌아가는 춤동작을 말한다.

(7) 마지막으로 칼춤 전체를 통하여 가장 현란하다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쌍칼춤이 추어진다. 이 마지막 쌍칼춤의 춤사위에는 자진사위, 모듬겨드랑사위, 모듬사위, 자진겨드랑사위, 돌림사위 등이 있다.

놀이기구

(1) 기구 및 악기로는 쌍칼, 장고, 북, 쌍피리, 쌍젓대, 해금 등이 사용된다.

(2) 이 통영검무에 소용되는 의상으로는 치마저고

리, 쾌자, 한삼, 전립 등이 있다.

수영농청놀이

민속놀이

유래

수영은 경상좌도수군절도영이 있던 곳으로 수영강을 끼고 해변에 자리잡은 대집단 공동체의 자연부락이었다.

옛날부터 대대로 농업을 위주로 생활해 온 수영 사람들은 약 100여 년 전부터 농촌 공동작업을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직인 농청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기원은 삼한시대의 두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청이 비단 수영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영의 농청은 1960년대까지 존속되었다. 농청은 마을의 자치단체였으나 그 조직과 제도의 규율이 엄정하고 면밀하여 공동체생활의 조직화와 농사기술의 습득, 생산능률의 향상은 물론 협동과 애향심을 함양 고취하였다. 농청원은 노동력이 있는 성인 남녀이며 직책으로는 대표격인 집강(執綱)과 농사총감독인 행수(行首), 문서잡이, 농사계획 작성과 강의 역할을 맡은 집강(集講),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야장(野長), 신호수인 영각수(令角手)가 있었다.

농청원은 중노동을 위주로 하며 농청원 산하의 성인 여자로 구성된 내방청원은 밭농사 일을 맡아 보았다. 대부분의 농사일에는 농촌 공동체의 남녀가 모두 참여하는 셈이므로 집단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을 준수해야 하는데 만일 어기게 되면 곤장으로 다스리고 심한 경우에는 추방했다고 한다.

수영농청놀이 (부산)



특징

수영농청놀이는 엄격한 조직과 규율 속에서 농사일을 해나가는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모찌기, 모내기, 김매기의 농요가 중심이 되고, 보리타작과 소싸움을 곁들여서 흥을 돋우는 농민의 순박한 생활을 표현한 민속놀이이다.

구성

농청놀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농악

농청의 농악은 꽹과리, 징, 북, 장구 등의 악기들로 이루어진 소박한 가락으로 되어 있는데 일터로 갈 때와 마치고 돌아올 때는 행진악을 하고 작업의 시작과 끝, 휴식할 때, 간단한 고사와 흥을 돋우는 오락에 울린다.

(2) 농요

농요로는 모찌기노래, 모내기노래, 김매기노래 및 보리타작소리가 있는데 가창민요와는 달리 노동을 하면서 불러야 그 진미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동작을 곁들인다.

모찌기노래는 1행이 3, 4음절로 4구로 된 2행시가 1장을 이루는데 앞소리는 독창이고 뒷소리는 제창이다.

모심기노래도 주로 내방청원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4음절 4구 1행이 앞 뒤로 이어지며 창법도 모찌기 노래와 같다.

논 김을 맬때 부르는 김매기노래는 남자들의 민요이다. 가사의 내용은 작업과는 무관하다. 창법은 북을 세 번 울리면 일제히 '에이에이' 두번을 하고 앞소리가 '에헤아아'하면 뒷소리도 제창한다.

수영지방은 삼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내기철은 보리타작으로 바쁠 때여서 모심기와 더불어 도리깨타작을 한다. 보리타작소리의 가락은 1음보격으로 단조롭고 빠르다.

(3) 소싸움

고된 김매기를 끝낸 농청원들은 동, 서의 농청으로 나뉘어 소싸움을 붙여 승부를 가리는 놀이를 한다. 승부를 가린 다음에는 다같이 화동하여 노래와 춤으로 신나게 한바탕 즐기는 판굿으로 끝을 맺는다.

내용

수영농청놀이의 순서는 영각수가 집합 신호를 보내어 남녀 농청원들이 각자의 농기구를 가지고 모여들면 농악대를 선두로 농우 두 마리를 앞세우고 전원이 춤을 추며 일터로 나간다. 남자들은 논에서 홀진(쟁기질)을 하고 나서 서레로 논바닥을 고르며 가래질을 한다. 이 때 내방청의 여자들은 모판에서 모를 찌며

모찌기노래를 부른다. 그런 다음 내방청원이 주가 되어 모를 심으며 모심기노래를 부른다. 마당에서는 남자들이 도리깨로 보리타작을 하고 흥겨운 점심참을 즐긴다.

남자들이 김매기 노래를 부르며 논김을 맬 때 내방청원은 논두렁에 풀을 뽑는 등의 잔일을 한다. 일을 마치고 나면 동서 농청으로 갈라져서 소싸움을 붙이고 흥겹게 농악놀이를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놀이기구

의상은 바지, 저고리, 치마 등 농민의 평복에 수건을 쓰며, 삿갓과 도롱이를 준비하고, 제작한 두마리의 소를 동원한다.

도구로서는 쟁기, 써레, 가래, 지게, 호미, 삽, 갈퀴, 도리깨, 풍석, 고무래 등과 식사에 필요한 가사도구이다.

악기는 꽹과리, 징, 장고 등의 농악기와 대롱앞에 소뿔이나 놋쇠로 만든 나팔을 단 영각(땡갈)이 쓰인다.

북성포곶창굿

민속놀이

곶창굿은 인천, 경기지역에서 행해지는 도당굿의 일종으로 특히 해안과 도서 지방의 어민들이 풍어와 안녕을 비는 풍어제를 일컫는 지역적 명칭이다. 그래서 굿의 주재자들은 곶창굿이 북성곶, 갑곶처럼 곶의 뜻을 지닌 대동굿이라고 증언한다.

이러한 곶창굿은 인천 북성포를 위시하여 개건너(서곶 : 팽이부리, 새우게, 강화군 내감면 정포, 황천리 옹진군 용유면 떼부리, 소무리, 큰무리, 북도면 장봉리, 영종면 여당포, 장구염, 양사면 사니포까지 퍼져 있었으나 점차 사라져 요 10년 사이에 거의 사멸되었고 강화 외포리에서 7년만에 약식으로 곶창굿을 치루었다.

한편 북성포(지방명 : 북성구지 · 현 인천소재, 대한제분공장 문전)는 옛부터 서해안 어선들이 조기, 민어, 농어, 새우등을 잡아 드나들던 인천지방의 어업중심 부두로, 객선이 드나들던 제물포와는 그 성격이 다른 포구이며 자연히 풍어를 비는 풍어제가 성행했던 곳이다.

그러나 1992년 북성포에서 월미도까지 둑길이 축조되면서 부터 이곳의 어업적 기능이 상실되어 북성포에서 곶창굿이 사멸되었으며 현재는 북성포에 곶창굿이



북성포곶창굿 (인천)

있었다는 사실조차 아는 이가 드물게 되었으나 다행히 어린시절부터 신어머니(이명화1865~1953, 일명 : 소라)를 따라 곶창굿을 했었다는 인천 좌현 정영숙의 증언을 들어 북성포 곶창굿을 재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명화씨의 대를 이어 정영숙씨를 비롯하여 조화순 강창길등이 이 곶창굿을 주재하고 있다. 굿의 시기는 년초가 되는 정 · 이월 초순에 행해졌으며 늦어도 조기잡이 이전인 소만 절후를 넘긴 일은 없었으며 부락사정에 따라 한해 걸이 · 두해걸이로 거른 적도 있었다고 한다.

곶창굿의 내용은 12거리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서해안지역이라도 황해도 풍어제 내용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선원들에 의해 불리워지는 배치기 소리는 배를 드러내 놓고 서로 얼굴과 배를 맞대어 부딪치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배치기라고 하며 덕적 강화도등지와 그 맥을 같이 하면서 황해도 뱃노래와는 가사내용은 유사하지만 후렴마다 짧고 쳐올려 내는 소리가 특징이다.

북성포 곶창굿의 절차는 먼저 농악대를 앞세워 선주마다 봉죽기를 들고 임장군을 모신 당으로 모여 굿이 시작된다.

굿의 순서는 ①부정굿 ②상산맞이굿 ③초가망굿 ④역대조상굿 ⑤초대감굿 ⑥제석굿 ⑦군웅굿 ⑧장군굿 (장군거리, 별상거리, 신장거리) ⑨선왕굿 ⑩선주굿 ⑪기내림굿 ⑫뒷전으로 이어진다.

이어서 뱃고사는 도사공이 주재를 하는데 기내림 굿으로 내려 받은 봉죽기를 들고 농악대를 앞세워 선주와 함께 각기 배에 올라 기를 꽂고 술, 고기, 떡으로 꽃반을 차리고 배덕반에 북을 세워 북을 치며 제를 올린다. 고사를 지낸 후 모두가 한데 어울려 배치기 소리로 흥겹게 논 뒤 마을 사람들과 안식구들의 배웅으

로 출항을 하게된다.

배치기는 출항때, 만선때, 귀항때 제올릴때에 부르는 뱃노래인데, 인천지역의 배치기는 더드래기와 모래잡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드래기는 배치기 전 태징과 북을 치면서 배치기를 위한 서곡을 말하며 모래잡이는 배치기 하기 전 몰아치는 곡(쇠)으로서 태징으로 템포를 빠르게 치는 것이다. 배치기할때 봉죽기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서서 메기는 소리에 맞춰 받는 소리에 모여들어 얼굴을 맞대어 합창하고 배를 서로 맞대는 것이 타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며, 봉죽기에 북을 메달아 치는 놀이가 또한 이곳의 자랑거리다.

뱃노래의 내용은 닻감는 소리, 노젓는 소리, 그물 담그는 소리, 출항 배치기, 만선 배치기, 귀향 배치기 소리가 있다. 뱃기는 중앙에 봉죽기를 세우고 양옆에 오색기(우), 흑기(좌)를 꽂고 이물(배앞쪽)에 호기(우), 청기(중), 적기(좌)를 꽂으며, 고물(배뒤쪽)에는 상기(우), 설유화(중), 장군기(좌)를 꽂는다. 귀향한 뒤에 선원들이 호기를 제외한 모든기를 펼치는데 봉죽기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서서 노래와 춤으로 북과 꽹과리, 징, 호적등의 반주에 맞춰 한층 더 화려하고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무사귀향과 풍어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마을의 안녕과 단결을 도모하는 풍요로운 대동놀음으로 그 절정을 이룬다.

밀양새터가을굿

민속놀이

이곳 밀양의 새터 마을에서는 영험있는 당산선왕이 있어 오랜 옛날부터 정월과 시월에 기풍안택하는 고사를 지내고 '가을굿'을 하면서 밤새워 즐겁게 노는 풍습이 전해오고 있다.

그동안 일제의 민족혼 말살정책으로 마을단위 행사는 중단되고 개별적으로 삼신단지의 쌀을 햇곡식으로 갈아주고 안택도 하고 당산에 나아가 불을 켜고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이에 연유하여 이 놀이는 시절이 풍년이 들어 제때에 가을마당(타작과 보리갈이)이 순조롭게 끝나고 나면 마을에서 얼마씩 추렴을 해서 당산제를 지내고 추수감사행사로 풍년잔치를 벌려 왔는데 1969년부터 "밀양 아랑제"때 '폐막의 밤' 행사로 성대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처음에는 '공상타작'이란 이름으로 행해 왔으나 조예있는 이의 의견과 지방민의 여론에 따라 옛이름 그대로 '가을굿'에다가 지명을 붙여 '밀양 새터 가을굿'으로 하여 오늘에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놀이는 밀양 새터에서 '가을 굿'을 할때 벼타작을 하는 협동작업 과정을 엮어 풍년을 구가하면서 신나게 노는 색다른 놀이이다.

이 놀이의 특색은 새터 사람들의 서낭신에 대한 신앙심이 강하므로 추수를 마치고 햇곡식을 서낭신에 바치고 감사하는 공연적 성격을 띤다는 점과 타작의 기구는 재래의 전통적 농구가 총망라 된다는 점일 것이다.

놀이의 순서

(1) 입 장 : 길군악, 길굿
(2) 성황고사 : 강신굿, 공신무 덧배기춤(느린 중중모리)
(3) 공상타작 : 중중모리(염불조) (험율사 가락)
(4) 가을작마당 : 중중모리(도도리)
(5) 뿍대기 타작 : 느린 단모리(모라치기)
(6) 목메 : 굿거리, 덧배기 장단
7) 판 굿 : 중중모리(영산 다드래기)

놀이과장

(1) 고사마당
강신 분향 헌작 소지 축원 배례
공신무 : 제관이 먼저 춤을 추고 따라서 참례자가 덧배기와 굿거리 춤을 춘다.
(2) 공상타작
볏단 대신에 짚단을 날라주고 또 넘겨주기도 하고 볏단을 들고 공상앞에 와서 땅에 대였다가 공사위에 좌우로 치면서 타작을 한다. 타작이 끝나면 까꾸리로 나부리고 비질을 한다.
(3) 가을 작 마당
가래로 나락을 다루고 풍석으로 부치고 챙이(키)로 까불고 벼 이삭은 홀깨로 훌러내고 대칼로 벼알을 턴다.
까꾸리로 거부재기를 끌고 비질을 한다. 한편에서는 '섬'을 만들고 새끼를 꼰다. 말질을 해서 '섬'에 넣고 '섬'을 묶어 작을 한다.
볍씨를 '오장치'에 담아서 운반한다. 섬을 '등패'에 올려지고 운반한다.
(4) 뿍대기 타작
목도리개의 앞소리에 따라 뒤를 받으면서 도리깨로 타작을 한다. 종도리개는 뿍대기를 껄어내기도 하고 아래위로 뒤집어 주면서 타작을 한다. 타작이 끝나면 까꾸리로 거부재기를 끌어내고 비질을 한다.
(5) 목메놀이
챙이(키) 또는 짚소쿠리, 자루바가지 등으로 벼를

목메어 넣어주고 앞소리(목메노래)에 따라 뒷소리(호호 목메야)를 받아 부르면서 목메갈이를 한다.

(6) 판굿

모든 놀이군과 구경군들이 한데 어울려 춤을 추면서 "판굿"으로 대단원을 이룬다.

고증과 의의

이곳 새터 마을은 농경지가 넓은 천혜의 농사고장으로서 임란때 박이눌이란 사람이 장조카 범에게 살림을 물려주어 터를 닦고 살게 된 때 부터로 전해 오고 있으며, 당산은 서낭옷에 쓰여져 있는 명문에 따르면 순치 세조원년에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곱 차례나 중개수를 해가면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들고 있다.

서낭옷에는 청황용이 여의주를 감싸고 있는 그림과 여덟 방위에 건유부오선술랑자라 표시되여 있어 풍요를 염원하는 농경민의 오행과 용 숭배 사상이 담겨져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매년 정월 시월상달에 고사를 지낸다. 정월에는 일년동안 안녕과 풍년을 빌며 시월상달에는 햇곡식과 햇과일로 감사하는 고사를 지내고 '가을 굿'을 한다.

'가을 굿'은 이 마을에서 부유하게 살든 박참봉이 '가을 굿'을할때 '가을 마당'잔치를 크게 벌려 놀게 한 때가 가장 성행하였다고 한다.

놀이기구

(1) 선왕, 명기, 농기

- 선왕대 (서낭)
- 놀이기(새터 가을굿)
- 농기

(2)농구

공상(갱상), 목메(메통), 도리깨, 덕석(멍석), 풍석, 가래(넉가래), 챙이(키), 홀깨(벼훑이), 대칼, 말, 자루바가지, 까꾸리, 왕거시리(왕비), 당그레(고무레), 오장치(씨앗넣는 작은섬), 섬, 새끼, 등패, 지게, 볏단(짚), 관솔불

(3)악기

나발, 매구(꽹과리), 징, 장고, 북

(4)제물과 제기

오곡 (콩, 팥, 수수, 지간, 겉보리) 농주, 백편, 명태, 과일, 제상, 향로, 촛대, 기름불, 소지종이, 버지기(버치, 자배기) 양푼이, 큰 바가지, 함지

새터 가을굿 축원문

선왕님 선왕님 우리새터 선왕님
천만길 높이앉아 천하만사 알고시니
미련한 어진백성 비손발원 들어주소
올해해운 갑자년에 풍년들게 하옵시고
어진백성 거다시나 탈없이도 살게하여
오곡백과 햇곡식을 선왕님께 드리오니
맛있게 드시옵고 저이들 어진백성
동서남북 다댕겨도 남의 눈에 꽃이되고
재수소망 이루옵고 무병장수 비나이다.

온달성재밟기놀이

민속놀이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 남한강 상류의 강가에 있는 성산에는 고구려 장수 온달이 쌓았다는 온달성이 있다.

아낙네들이 성터를 밟으며 도는 놀이는 '재밟기' 또는 '성밟기'라 하여 여러 고장에 있는 풍속이지만 온달성 재밟기놀이에서는 재밟기소리가 있는 점이 다른 고장 재밟기와 다르다. 온달성이 있는 영춘에서는 정월 보름에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 되면, 아낙네들이 횃불을 밝혀들고 수없이 길게 줄 지어, 온달성에 올라 성을 돌면서, 재밟기 소리를 하였는데 그런 장관이 없었다 한다. 4.4조의 소박한 가락을 부르며 재밟기를 하면 1년 동안 다리병이 없고 마을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주사손돌공진혼제

민속놀이

서기 918년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여 제23대 고종에 이르기까지 314년간 음모·변란·외침 등으로 많은 국난을 겪어왔다. 드디어 서기 1231년에 이르러서는 몽고병이 대거 침입하여 고종은 위급을 면하려고 화평을 내세워 돌려보냈으나 몽고의 부당한 조공의 요구에 불복, 최후까지 항전할 것을 결심하고 1232년 (고종 19년) 강화도로 파천하게 된다.

고종은 충신들과 함께 개경을 떠나 예성강 벽란도를 거쳐 손돌이의 배를 타고 임진강과 한강하류를 거쳐 강화도로 가게 된다. 가는 도중 지금의 김포군 대곶면 신안리와 강화도 광성진 사이의 해협이 협소하고 급류가 흐르는 목에 닿게 되었다.

이곳은 앞이 막힌듯이 보이는 지형으로 처음가는 사람은 뱃길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곳으로 파천

하는 고종은 심기가 어지럽고 마음이 초조한 나머지 뱃길도 없는 곳을 향하여 배를 젓는 사공 손돌이를 의심하여 수차례 걸쳐 뱃길을 바로 잡도록 주의를 주었으나 그때마다 손돌이는 아뢰기를 "보기에는 앞이 막힌듯 하오나 좀 더 나아가면 길이 트이오니 폐하께서는 휴념하시옵소서" 라고 진언했다.

고종은 마음이 초조하여 이것을 자신을 해하려는 손돌이의 흉계로 의심하고 신하들에게 손돌이를 참수하라고 명하기에 이르른다. 손돌이는 죽음에 직면하고도 임금의 안전항해를 바라는 충성에서 바가지를 물에 띄우고 바가지를 따라가면 뱃길이 트일 것을 아뢰고 참수되고 말았다.

이 후 왕의 일행이 험한 뱃길을 무사히 빠져나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을다. 왕은 늦게서야 손돌이가 안내한 뱃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달아 손돌을 잘 장사지내 주고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당까지 세워주었다는 유래가 전한다.

그리고 이 뱃길목을 지금도 손돌이 목을 베었다하여 '손돌목'이라고 하고, 매년 음력 10월 20일 쯤이면 손돌의 원혼이 바람을 일으킨다하여 이때의 거센 바람을 '손돌이 바람'이라고 하며, 또 이날의 추위를 '손돌이 추위'라고 하여 전해온다.

손돌이의 제사는 이조말까지 계속되다가 일제의 침략이후 중단되었으나 1970년 김기송씨를 중심으로 대곳면민들이 복원하여 현재까지 지내오고 있으며 그의 묘는 사적 제 292호로 지정된 덕포진(현 김포군 대곳면 신안리소재)내에 안장되어 있다.

제 1장 : 평화스러웠던 고려조의 재현

지금으로부터 약 750여년 전 내우와 외환으로 영일이 없던 고려에 잠시 평화가 깃들어 군신이 모두 태평성대를 누리던 어느날 산천을 뒤흔들던 몽고의 침입을 알리자 평화롭던 고려는 술렁이고 고종은 몽고의 장기항전을 다지며 천도를 위한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제 2장 : 고종의 천도와 손돌이의 참수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시원찮은 설움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해전에 약한 몽고족의 약점을 이용하여 강화도로 천도하는데 고종의 마음은 한없는 비탄에 빠지게 된다.

순조롭던 물길은 갑자기 해협이 좁고 급류가 선회하는데 앞길마저 막힌듯이 보이자 고종이 대노하니 손돌이는 "이곳은 앞길이 막힌듯이 보이나 좀더 나아가면 오른쪽으로 바다가 굽어 뱃길이 열리오니 폐하께서는 안심하시옵소서"하고 아뢰었지만 파천하는 고종은 혹시 흉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여 손돌이를 참수하게 된다.

그러나 손돌이는 죽어가면서까지도 바가지를 물에 띄워 배의 앞 길을 인도하여 주니 고종 일행은 험한 길을 무사히 빠지게 된다.

그의 충절에 고종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고종 일행은 무사히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그전까지는 목의 이름이 없었으나 손돌이의 죽음으로 '손돌목'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매해 음력 10월 20일 경이면 심한 비바람과 추위가 닥쳐 후인들이 이르기를 '손돌추위' 또는 '손돌바람'이라 하였다 한다.

제 3장 : 넋을 달래는 진혼제와 바리춤

고종은 이때가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한다. 손돌이의 원한이 꿈에 서려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용신맞이풍어굿

민속놀이

유래

전라남도 여수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장으로 긴 해안과 남해의 황금어장은 여수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이다. 그러므로 바다를 경외하고 풍어를 기원하는 용신맞이풍어굿이, 해마다 정월 보름이면 어민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풍어제 행사로 전해 오고 있다.

정확한 기원·연대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오랜 옛날 국포마을 앞바다에 해일이 일어나자, 바다에 출어한 어부들의 무사귀항을 기원하기 위하여 당집에 모여 고사를 올렸으나 아무런 효험을 볼 수 없었다.

고심하던 마을 아낙네들이 무당의 제안에 따라 오해용왕을 청신하여 어부들의 수호를 빌고 수살원혼을 불러들여 원한을 풀어주는 해원 고풀이를 하자, 바람이 잦아들고 바다가 잔잔해지며 출어했던 어부들이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이다.

특색

다른 지방의 풍어굿은 당골(무녀)과 재인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용신맞이풍어굿의 유희적인 뒷전굿은 마을 아낙네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신앙요를 교창형식으로 노래하며 춤추고 어울리는 한바탕 축제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구성

용신맞이 풍어굿은 14거리 제차를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형식에 맞게 다음과 같은 7차 제의로 재구성하였다.

(1) 용왕맞이
(2) 용왕고사
(3) 해원 고풀이
(4) 고기노적
(5) 헌식
(6) 갯불띄우기
(7) 풍장굿

내용

제차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왕맞이

용왕을 제단으로 불러 맞이하는 무굿제 차주의 한 거리

(2) 용왕고사

용왕에게 주민의 바램을 전하는 것으로서 해상재난을 막고 풍어를 기원하는 무녀의 고사

(3) 해원 고풀이

남도지방 무굿 제의 차례의 하나로 이승에서 원혼의 한을 풀어주면 어려움과 고통이 해결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관례상, 집안굿은 고대가 한 개 또는 두 개인데 비해 풍어굿은 참여하는 다섯 마을에서 하나씩 가지고 나온 다섯 개이다.

(4) 고기노적

풍어를 통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어민의 의지를 표현하는 굿으로 고기가 노적가리처럼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 헌식

액살로 죽은 여러 혼신과 도깨비들에게 음식을 풀어먹이는 무굿거리로 음식을 바친다는 뜻이다.

(6) 갯불띄우기

마을의 선주들이 바가지에 곡식을 넣고 촛불을 밝혀 바다에 띄워 보내서 액을 막고 행운을 비는 굿인데, 위도의 띄뱃놀이에서 띄배에 제수를 넣고 띄워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수를 용왕에게 진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7) 풍장굿

이 놀이의 유래에서 연유한 놀이로서 강한 풍랑을 이기고 만선으로 돌아오는 배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마을사람들의 환희의 굿마당이 펼쳐진다.

이 굿에서는 모두 네 가지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만세소리

①걸렸구나 걸렸구나

당상고에가 걸린고를 설설히 풀어주면 어찌 아니가 좋을손가

②걸렸구나 걸렸구나

용왕고에가 걸린고를 설설히 풀어주면 어찌 아니가 좋을손가

후렴)에라만세 에라대신이야

대활연으로 설설히 나리소사

(2) 고기노적소리

①사해노적을 당거보세 문어노적을 당거보세

②상어노적을 당거보세 갈치노적을 당거보세

후렴)어기영차 어기영차 노적이—야

너적실로만 가자서라

여—어 여—어 여—여루

당거주소서 노적이야

(3) 헌식소시

①왔네왔네 내가와

총각죽어 몽달귀신 처녀죽어 명두귀신 애가죽어 동자귀신

네라도 많이먹고 네돌아가소

②물밑에 도세도 내가와 물위에 도세도 내가와 앞못본 도세도 내가와

거리중천에 죽은혼신 너라도 많이먹고 네돌아가소

후렴)에라중천 에라도세야

너라도 많이먹고 네돌아가소

(4) 액맥이소리

①동에는 청재장군 청말위 청안장

청갑을 쓰고 청갑을 입고 청활 화살을 손에다 들고

동방에 떨어져서 대기수살을 막어내세

②서에는 백제장군

백말위 백안장 백갑을 입고

백활 화살을 손에다 들고 서방에 떨어져서

대기수살을 막어내세

연신맞이굿놀이

민속놀이

유래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어업이 주된 생활수단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제주도의 민속문화 유산도 어업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연신맞이굿놀이는 개인이나 마을 공동 어로용으로 배를 새로 지었을 때 행하던 굿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무속의례를 거치고 나서야 새로 지은 배는 출어하게 되는 것이었다.

연신이란 배의 제반사를 관장하는 선왕을 말하는데, 연신맞이굿놀이는 새로 만든 배에 바로 이 선왕신을 맞아들여 배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주술적 극의례에서 유래된 것이다.

특색

이 굿은 초감제에서 바다에 관계되는 모든 신들과 선왕을 상징적인 율동과 사설로써 모셔 앉힌 후 마을 사람들이 절을 올리고, 또 그들의 소원을 담은 소지를 태우고나서 강태공 배목수를 다시 청해다 배를 짓는 과정을 모의적으로 전개한다. 이때 배목수는 영등산의 덕 든 나무를 베어다가 배의 모형을 다시 짓는데 처음으로 베어낸 나무조각을 선왕의 신체로 삼아 배의 밑창에 모신다. 이것은 굿의 주술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성

(1) 제단설비
(2) 초감제
(3) 군문열림
(4) 신청궤
(5) 3헌관 절시킴
(6) 요왕질 침
(7) 용왕문 열림
(8) 강태공 배목수 청함

내용

기잽이가 앞장서고 수심방을 선두로 제주, 소미, 악사들이 뒤따라 들어온다.

그 뒤를 이어 동네 사람들이 배를 끌며 중앙으로 들어오는데, 그 배의 돛대 옆에는 두 사공이 서있고 노를 젓는 고물사공과 선주 한 사람이 돼지를 통째로 올린 제단 앞에 무릎꿇고 앉아 두손을 합장하고 빌고 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배 내리는 소리'를 부르면서 배를 끌고 들어와 놀이판이 시작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굿이 진행된다.

(1) 초감제

수심방이 신칼과 요령을 들고 나와서 제단에 삼배를 드리고 용왕과 선왕신에게 제를 올리는 연유를 창하고 배포치는 춤을 춘다.

(2) 군문열림

격렬한 무악에 맞춰 수심방은 도랑춤을 추면서 신궁의 문(군문)을 여는 동작을 연희로써 보여준다.

(3) 신청궤

수심방은 왼손에 쌀을 가득담은 '산대'를 들고 오른손에 '신칼'을 들어, 이 신칼로 쌀을 조금씩 뿌리면서 한쪽에 마련된 '대령상' 앞으로 가서 신을 청해다. 제단으로 모셔 들인다.

다시 마을 토지관을 청해다 모시는 신청궤를 할 때에는 수심방이 마을 토지관의 상징인 '팔찌거리'를 팔목에 묶고서 격렬한 도랑춤으로 당신을 청해 모신다.

(4) 3헌관 절시킴

마을의 대표 세 사람이 제단 앞으로 와서 절하고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한데 모은 소지도 태워 올린다.

(5) 요왕질 침

놀이마당 가운데에 두 줄로 20개의 댓가지를 꽂아 놓는다. 이것은 험한 바다 밑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인데, 심방은 용왕과 바다신들이 올 길을 치워 닦는 동작을 갖가지 춤과 행동으로 재미있게 보여준다.

(6) 용왕문 열림

치워 닦은 길 앞으로 3헌관을 불러다 꿇어 앉히고 여러 문마다 인정을 걸면서 차례로 댓가지를 뽑아 나간다.

(7) 강태공 배목수 청함

연신맞이굿의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먼저 수심방이 강태공 배목수를 불러 사설과 대사로 새로 만든 배에 연신을 맞아들이는 의식을 진행한다.

배목수가 도끼를 들고 배의 이물과 고물을 왔다갔다 하며 나무 베는 시늉의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 동네 사람들도 합창한다.

마침내 강태공 배목수가 닻줄을 끊고 동네 사람들은 씨뿌림을 계속하며 모두들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뱃노래가 이어지면 배는 바다로 진수하게 되는 것이다.

놀이기구

(1) 새로 만든 배
(2) 제단 : 젯상, 제물, 대나무(요왕길 상징), 소지, 쌀 등.
(3) 악기 : 북, 설쇠, 징, 장고 등.
(4) 무구 : 요령, 신칼, 오색천, 기타 복색 등.



농악 상모놀이

26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5. 9. 19 ▶ 9. 20
강릉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5. 9. 19.—9. 20.
강릉

대통령상
이리농악(전북)—농악
국무총리상
서산벗가리대놀이(충남)—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담양들노래(전남)—민요
예천공저농요(경북)—민요
이천거북놀이(경기)—민속놀이
진주포구락무(경남)—민속무용
명주하평 2 월답교농악(강원)—농악
장려상
불싸움놀이(제주)—민속놀이
비산농악(대구)—농악
동래학춤(부산)—민속무용
미수상 참가작
애원성(함북)—민요
인제땟목꾼소리(강원)—민요
편사놀이(인천)—민속놀이
양양뀌애파기놀이(강원)—민속놀이
호랑이탈춤(평남)—민속극
강릉관노가면희(강원)—민속극
은율탈춤(황해)—민속극
송파답교놀이(서울)—민속놀이
낭성산판소리(충북)—민요
영변성황대제(평북)—민속놀이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공로상
낭성산판소리(충북)
송파답교놀이(서울)
개인상
이선호(영변성황대제, 평북)
나궁추(이리농악상쇠, 전북)
주철성(북청사자놀음, 함남)

이리농악

농악

유래

전라북도 정읍·김제·익산은 의애밋들이라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는 이름난 곡창지대이다. 농산물이 풍부하고 농민문화가 발달하여 농요와 농악이 뛰어나다. 특히 정읍·김제를 중심으로 조직하였던 정읍농악단은 농악의 기예로 보아서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잽이들이 작고하거나 이사하여 전승이 끊어져 가고 있다.

전북 이리시 새실마을에서는 옛부터 마을 농악이 성하였는데 김제·정읍의 전문적인 잽이들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훌륭한 농악단으로 성장하였다.

특색

이리농악은 비교적 느린 가락을 쓰고 상쇠의 상모놀이가 매우 다양하다. 장고춤에서, 장고 치는 방법과 춤추는 기법이 매우 발달하였고 법고춤의 기법 또한 다양하다.

진법도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

구성

판굿을 중심으로 하여 12가지로 정리한다. 호남 우도농악의 진면목을 한 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과장이다.

낸드름질굿→우질굿→좌질굿→풍류굿→양산도→안바탕→삼방진굿→방울진굿→호호굿→달어치기→미지기굿→인사굿

내용

경연대회에 출전했던 형식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1) 낸드름질굿

이리농악 (전북)



쇠, 징, 장고만으로 '갠-지, 갯-지' 치면서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원진하다가 원 밖을 보고 굿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를 한다.

(2) 우질굿

같은 방향으로 원진하면서 북을 세 번 치고 상쇠가 원의 중심으로 들어가 '설령수'를 외치면 잽이들이 '예히-'하고 응한다. 상쇠가 '군법에 의하여 집합한다'하면 잽이들은 다시 '예히-'하고 응한다. 상쇠는 '일초 삼초까지 집합하라'하고 다시 북을 세번 친다. 그러면 먼저 오채질굿(5채길굿)을 치고 이어서 자진오채질굿(잦은 5채길굿)을 친다.

(3) 좌질굿

모든 잽이들이 좌질굿을 치면서 방향을 바꿔 시계바늘과 같은 방향으로 원진무를 한다.

(4) 풍류굿

풍류굿을 치며 같은 방향으로 원진한다.

(5) 양산도

양산도가락으로 회전(안바탕)하면서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6) 안바탕

잽이들이 느진삼채(느린 3채)를 치며 같은 방향으로 회전(안바탕)하면서 원진하고, 상쇠만 중앙으로 들어가서 왔다갔다 한다. 이어 장고들이 들어오면 쇠와 장고가 마주보고 된삼채를 치며 미지기(서로 전진 후퇴)를 하다가 원 밖으로 나가고, 장고와 쇠만 치면서 을자진으로 걸어간다.

(7) 삼방진굿

잽이들이 오방진가락을 치며 쇠와 징들은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원을 만들고, 장고와 북은 시계바늘 방향으로 원을 만들어 돌며 삼방진을 만든다. 이어 상쇠는 쇠꾼과 징을 인솔해 장고와 북이 돌고 있는 원을 밖으로 돌아 이들을 쇠와 징 뒤에 따라오게 하고, 다시 법고들이 돌고 있는 원 밖으로 돌아 결국은 이들도 후미에 따라오도록 한다.

(8) 방울진굿

상쇠는 계속해서 시계바늘 방향으로 원진하다가 원을 점점 좁혀서 나선형으로 만든다. 상쇠는 삼채굿을 치며 방향을 바꾸어(시계바늘 반대방향) 원을 점점 넓혀 새조시로 모는데 결국은 1열로 원을 그리며 나가게 된다.

(9) 호호굿

군법의 하나인 암호에서 비롯했다는 설이 있다. 이 굿은 전원이 호호굿가락을 치며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상쇠가 '호호'하면 잽이들은 '허허'하고 응대하는 형식으로 2회를 반복한다. 이어 전원이 자진호호가락을 치며 원 중심을 보고 선다. 이어 오른쪽으로 옆걸음 2회, 왼쪽으로 옆걸음 2회 한 다음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2회 반복하고 뒤로 물러서 제자리엘 앉는다.

(10) 달어치기

상쇠는 일어서서 삼채가락을 치다가 쇠채를 좌우로 흔들면서 쇠와 징, 장고와 북, 법고의 순으로 그 주변을 돌아 잽이들이 따라오도록 달어치기를 한다. 결국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일렬을 지어 원을 만들면서 나가게 된다.

(11) 미지기굿

전원이 삼채굿을 치면서 옆걸음으로 뛰어 3열횡대가 되는데, 1열은 쇠와 징, 2열은 장고와 북, 3열은 법고 순으로 서서 앞으로 전진하다가 뒤로 돌아 전진하는 진법의 행진무용을 반복하게 된다.

(12) 인사굿

전원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원 밖으로 서고 쇠에 맞추어 절을 한 후 삼채를 치면서 퇴장한다.

놀이기구

영기, 나발, 호적, 꽹과리, 장고, 큰북, 법고 등과 기타 잡색에 쓰이는 여러 종류가 있다.

서산볏가릿대놀이

민속놀이

유래

이 놀이는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와 인근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민속놀이이다.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전의식에서 비롯된 이 민속놀이는 음력 정월 보름에 시작하여 2월 초하루에 끝나는 행사로 일명 풍년놀이라고도 한다.

경도잡지나 동국세시기에는 이 볏가릿대를 화적봉이라 했고 집단을 묶어 깃대를 본떠 처마끝에 세우고 놀았던 풍습이 민간에 유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이 놀이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특색

농사철을 앞둔 농민들의 풍년을 바라는 순박한 기원 속에 펼쳐지는 이 놀이에는 마을의 안녕과 근면·협동을 다짐하는 권농사상이 깊게 깔려 있다.

구성

이 놀이의 연희는 다음 여섯 과장으로 이루어진다.

(1) 입장



(2) 지신밟기
(3) 볏가릿대 세우기
(4) 화간제
(5) 농사놀이
(6) 볏가릿대 눕히기

내용

(1) 입장

볏가릿대 농악과 함께 농기, 제관, 제물을 인 아낙네, 섬을 진 농부, 작도, 쟁기, 써래를 진 사람, 주민들 순으로 흥겹게 춤을 추면서 입장한다.

(2) 지신밟기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 농기를 앞세우고 대동샘을 둘러싼 후 상쇠의 선소리로 '물주시오 물주시오 용왕님네 물주시오 뚫어라 뚫어라 물구멍만 뚫어라'하면서 샘굿을 한다.

샘굿이 끝나면 집마당으로 가서 연중 무사하기를 비는 지신밟기를 한 다음, 마을 곳곳에서는 1년간의 액운을 몰아내는 모닥불을 피운다.

(3) 볏가릿대 세우기

마을 주민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위에는 벼·보리·조·팥·기장 등 오곡을 달아매고 벼이삭이 늘어진 모양으로 동아줄을 거꾸로 틀어 줄을 늘여 대동샘 옆에 볏가릿대를 세우고, 나무메를 든 주민들은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 '여기도 내땅, 저기도 내땅'하며 마당찧기를 한다.

(4) 화간제

2월 초하루가 되면 볏가릿대 앞에 젯상을 차려놓고 제를 올린다.

영좌가 샘물을 퍼서 세수를 한 다음, '전지전능하신 신령님께 비나이다. 입은 덕도 많지마는 금년에도 우리 조선 삼천리 팔도강산에 삼재를 물리치고, 풍년이 들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부귀등명하며 자손마다 안과태평하게 하여 주시기 두손 모아 비나이다'하고 비손을 하면 주민들은 모두 함께 두번 절한다.

그런다음 집사가 제물을 바가지에 담아 '동서남북 오고가는 잡귀잡신은 다들 먹고 물러가라 고수레! 고수레'하며 잡귀신을 몰아내면 주민들은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때 어디선가 난쟁이가 나타나 들어오면 짤랑벼가 생겨 흉년이 든다 하여 쫓아내고, 키큰 사람이 들어오면 벼가 키도 크고 대풍이 든다 하여 기뻐하며 후대한다.

(5) 농사놀이

'우리 한바탕 놀아보세'하는 영좌의 외침과 함께 주민들은 모두 한데 어울려 논갈이·써래질·모심기·호미멩이·벼타작 등의 농사놀이와 씨름을 하면서 흥겹게 한마당 놀이를 벌인 후, 농악의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오무동(五舞童)서기로 절정을 이룬다.

(6) 볏가릿대 눕히기

한마당 놀이가 끝날 무렵, 마을 사람들은 상사디야를 부르며 볏가릿대를 눕힌다.

이때 영좌가 볏가릿대에 매달았던 오곡을 풀어 싹튼 상황을 살펴보고,

'오곡이 모두 싹이 잘 트였으니 올해는 풍년이 들겠네!

벼 만석이요!

보리 오천석이요!

조 삼천석이요!

팥 이천석이요!

기장 일천석이요!'

하면 주민들은 모두 풍년을 맞이하는 기쁜 함성을 지른다.

그리고 뉜 볏가릿대줄은 작도로 썰어 오곡과 함께 섬에 담아 집으로 향한다.

놀이기구

농악에 필요한 악기, 농기, 작도, 쟁기, 써래, 소나무, 오곡, 기타 필요한 도구

담양들노래

민요

유래

담양은 시가와 판소리의 고장으로 이름이 나있다. 면앙정 송순과 송강 정철은 우리나라 시가문학사상 불후의 명작인 면앙정가와 성산별곡, 속미인곡을 담양에

은거하면서 노래했고, 판소리의 주덕기와 이내치는 천하를 주름잡은 국창들이었다. 이같은 영향에서인지 몰라도 담양에서는 다른 고장과 다른 멋드러진 민요들이 많이 불리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생활양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고유한 노래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어 소멸할 단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뜻있는 사람들이 수북면 일대에 전승되고 있던 농요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하여 발표한 것이다.

담양 들노래는 일종의 노동요로서 모판을 만들어 볍씨를 뿌리고, 모를 심어 논을 맬 때까지 불리어진 노래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은 것이다.

특색

다른 지방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모판 만들기' 노래가 아직도 전승되고 있고, 끝매기 논을 매고 논두렁에 오르면서 부르는 '두렁노래'는 나주 들노래의 '뜰모리'와 다른 가락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가락과 장단의 특징은 '빠른 진양조', '굿거리', '중모리', '자진중모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점이다.

구성

(1) 모판만들기 노래(가래소리)

아오위소리와 오이애소리로 구성된다.

(2) 모찌기 노래

오이소리와 먼들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3) 모심기 노래(상사소리)

(4) 논매기 노래(미도지기 노래)

초벌매기 노래, 두벌매기 노래, 세벌매기 노래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5) 두렁 노래

이상의 다섯 단계로 전체적 구성이 완결되는데, 모판만들기 노래는 가래로 논을 파고 밟아 다지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모찌기 노래는 모를 심으면서, 논매기 노래는 논을 맬 때 부른다. 두렁노래는 세벌매기, 즉 만두레를 끝내고서 마을로 향할 때 부른다.

담양들노래 (전남)



내용

가사의 주된 주제는 대체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인생무상, 충효심의 앙양, 권농사상의 선양 등이다.

가사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모판만들기 노래 중 오이소리

금주금주 우리금주 심은나무 삼정승이 물을 주어
(후렴) 순담양 왕대뿌리는 장구체로 다나간다.
육판서 뻗은가지 팔도감사 꽃이로다.
(후렴) 무등산 상상봉에 감도는 저 구름아
꽃이피고 열매열어 각골수령으로 다나간다.
(후렴) 이산정이 어찌간디 떠날줄을 모르느냐
남한산성 오동목은 장구통으로 다나간다
(후렴) 아매도 이산정이 신선오는 곳이로세

(2) 모찌기 노래 중 오이소리

(후렴)
이논뱀이 모를뽑아 선영봉상 허여보세
이모를 어서쪄서 저바닥에 심어보세
모타래 안풀어지게 획돌려 잘들묶세

(3) 모심기 노래

한일자로 늘어서서 입구자로 모럴심세
먼대사람 듣기좋게 북장구장단에 모럴심세
앞산은 점점 멀어지고 뒷산은 점점 가까오네
상사소리는 어데갔다 때만찾아 돌아온가
일락서산 해는지고 한그릇생각이 절로 나네
이배미를 끝을내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후렴)
어우러진다 어우러진다 상사소리가 어우러진다
순담양 왕대뿌리는 장고체로 다나간다
이상사가 뉘상산가 김참봉네 상사로다
홍갑사 댕기는 불어야 좋고 큰애기 속곳은 넓어야 좋네
철부덕 소리가 왠소리 아랫집 큰애기 매깜는 소리
다되어가네 다되어가네 이논배미가 다되어가네

(4) 논매기 노래 중 에이소리

에이오 호호호에이(어어어어)
오날도 오날도야 심심허어네(위여)
에이 오호호호 에이 부덤섬 부덤섬아
다시보오네(위여에라아—하아 아호 헤이에어하)
여보소 농부님들 지심노래 허여보오세(어얼시구)

(5) 두렁노래

머슴은 가래메고 황소를타고

농군은 홍에겨워 춤을추네
가세가세 어서들가세
참봉댁으로 들어들가세
다했구나 다했구나
춘하일을 다했구나

예천공처농요

민요



예천공처농요 (경북)

유래

이 농요가 전승되고 있는 공덕동은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동강변에 위치한 전형적 농촌마을로서, 지금은 물걱정을 하지 않지만 60년대 까지만 해도 가뭄으로 많은 시련을 겪던 마을이다.

500여 년 전에 생긴 이 마을에서 지금의 농요가 언제쯤 발생한 것인지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을 사람들이 단합하여 자연의 시련과 싸우면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농요는 1950년대까지 불리어지다가 전통적 농경문화의 쇠퇴와 농사방법의 개선으로 거의 인멸되었으나 다행히 노랫말과 가락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 다시 되살리게 되었다.

특색

이웃지방의 다른 농악과 혼합되지 않고 이 마을에서만 독특하게 전해오는 순수성과 소박함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특히, 논매기소리는 전통적인 민요의 짜임새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판소리의 진양, 중모리 등 4단계 창법을 방불하게 하는 것이 있다.

또한 뒷소리는 타지방 민요와는 현저히 다른데 모음 아·어·오·우·으·이·애가 최대구개음에서 최소구개음으로 순차적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여음이 긴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구성

예천공처농요는 다음 네가지로 구성된다.

(1) 모심기노래
(2) 논매기 노래
(3) 걸채노래
(4) 타작노래

내용

(1) 모심기노래

이 노래는 모를 심으며 그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노래로서, 후렴구의 '아원'은 '아願', '래래래이여송아'는 '來來來 李如松'의 표현이라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아원 래래래이여송아
아원 래래래이여송아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가커서 시집가니 아원 래래래이여송아
너도정녕 좋거니와 만인간도 반겨한다 아원 래래래이여송아
오뉴월에 시집가서 칠팔월에 열매맺아 아원 래래래이여송아
구시월에 추수등장 연연재생 너로구나 아원 래래래이여송아

(2) 논매기노래

논매기노래는 진사대, 짜른사대, 어추사대, 햇소리로 나뉘어져 있고, 햇소리에도 진햇소리, 짜른햇소리가 있다.

①진사대

진사대란 말은 긴사대의 방언인듯 하고, 사대는 소리인지 사설의 표현인지 분명치 않으나 이 지방에서는 소리의 구분을 '사대'라 쓰고 있다. 논매기를 시작할 때에 진사대부터 부르는데 여음이 매우 긴 것이 특징이다.

우와아 이후후이후후 에헤헤헤헤헤에 아하아 아아오후 우우워어잇 우우 우워우 에이에라보자아오우
아워오호 오오호우워 에헤이 아워허 어허오호 아해이어와 우리 농부들아
이내말씀 들어보소 누구누구 모였든가 등너머 이도령과 길건너 박도령도 일등농부가 다 모였네 에헤에헤이요
에헤에헤헤헤헤헤에……
—하 략—

②짜른사대

짜른사대는 짧은사대란 뜻이며 진사대보다 약간 여

흥이 가미된다.

에헤이이어이이 얼싸아이이오
에헤이이어이이 얼싸아이이오
사신행차 바쁜길에 중간참이 늦어간다 에헤이이어이이——
정월이라 보름날에 망월하는 소년들아 에헤이이어이이——
망월도 하련만은 부모봉양이 늦어간다 에헤이이어이이——
옥창앵도 붉었으니 원정부지 이들일세 에헤이이어이이——

③어루사대

논매기의 마무리 단계에서 부르는 노래로 소리의 가락이 빠르고 흥겹다.

에헤이루사 허 디용 에헤이루사 허 디용 해는지고 저문날에 에헤이루사—
춤잘추는 학두름은 에헤이루사—
춤추자고 날찾는가 에헤이루사—
술잘먹는 이태백은 에헤이루사—
술먹자고 날찾는가 에헤이루사—
말잘하는 앵무새는 에헤이루사—
말하자고 날찾는가 에헤이루사—

④햇소리

이 햇소리는 전체 논매기소리 중 가장 흥겹고 신나는 사대로서 일꾼들은 몽두지춤으로 원을 그리며 쌈을 싼다.

〈긴햇소리〉
웅해, 웅해
에이오헤야, 웅해
해는지고 저문날에, 웅해
우리할일 태산일세, 웅해
남은일을 다해보세, 웅해

〈짜른햇소리〉
웡해, 웡해
어서어서 쌈을 싸세, 웡해
예천의군수는 부추쌈싸고, 웡해
상주의 목사는 천엽쌈싸고, 웡해
안동의 부사는 건다래쌈을, 웡해
얼씨구나 잘도한다. 웡해

(3) 걸채소리

논을 다 매고 집으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상머슴은 걸채에 태우고 젖머슴은 지개걸채에 태우고 오면서 흥겹게 부르는 이 노래에는 머슴들이 수령이 되어 한껏 뽐내는 소리가 담겨 있다.

〈술렁수, 신관사또를 잘 모시렷다〉
웅해야, 웅해야
영역은 웅해야, 소리타고 웅해야
맹호연은 웅해야, 나귀타고 웅해야
이태백은 웅해야, 고래타고 웅해야
적송자는 웅해야, 학을타고 웅해야
일대장강 웅해야, 저어부는 웅해야
일엽편주 웅해야, 올라타고 웅해야
만경창파 웅해야, 깊은물에 웅해야
둥기둥실 웅해야, 노니는데 웅해야
우리고을 웅해야, 사또님은 웅해야
걸채타고 웅해야, 놀아보세 웅해야

(4) 타작소리

타작소리의 사설은 다섯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볏단을 들고 후려쳐 타작을 하는 소리가 흥겹다.

넘어간다 훼이야 보우세 훼이야 보우세 나간다 훼이야 걸었나, 걸었다 훼이야 보우세 보우세 훼이야 보우세 훼이야 나간다

놀이기구

모내기, 김매기, 타작을 할 때 실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필요한 소도구들과 걸채, 지게걸채 등이 사용된다.

이천거북놀이

민속놀이

유래

거북놀이는 신라 문무왕 때부터 발생하여 전래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속놀이가 그렇듯이 정확한 기원이나 유래를 찾기는 어렵다. 구전에 의하면 1년에 한번씩 거북이를 위함으로써 가뭄과 홍수를 막고 마을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기원했다고 한다. 이러한 거북숭배의 민간신앙에서 비롯된 거북놀이는 경기도 이천군을 비롯한 한수이남의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연희된 흔적이 보인다.

특색

여러지역에서 거북놀이가 연희되었지만 사용되는 기물이나 놀이과정이 원형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천거북놀이다.

거북놀이는 일반적으로 '걸립'이나 '지신밟기'와 유사한 형태지만, 거북이를 앞세운 점과 '질라아비'의 역할 등이 특이하다.

구성

(1) 길놀이

거북놀이의 첫 과정으로 길군악 가락에 맞춰 연희자 일행이 자연스러운 춤사위로 흥을 돋우며 행진을 한다.

(2) 장승굿

길군악으로 마을입구에 있는 장승앞까지 연희자 일행이 도착하면 장승굿이 시작된다.

(3) 우물굿

마을 공동우물에서 펼쳐지는 굿.

(4) 마을판굿

마을의 넓은 공터에서 한바탕 놀이마당과 촌극을 펼치며 신명을 돋운다.

(5) 문굿

상쇠의 문굿풀이와 함께 연희자 일행이 춤을 추며 문으로 들어간다.

(6) 터주굿

거북놀이 일대가 터주가리 앞에서 농악을 치다가 연희대원 일동이 땅을 밟는 굿.

(7) 조왕굿

부엌에서 행하는 굿.

(8) 대청굿

대청 대들보 위의 '업'이라고 부르는 큰 구렁이에게 올리는 굿.

(9) 마당놀이

내용

이천거북놀이는 8월 한가위날 밤에 휘영청한 달빛 아래서 흥겹게 연희되는 세시풍속의 민속놀이이다. 이 굿은 경기지방의 무속이 지닌 굿의 방식과 농악이 한데 어우러진 집단놀이로써 단순한 여흥이 아니라 마을의 안녕과 한해의 풍년을 비는 성격을 지니며, 이 놀이를 통해 거둬들인 금전과 곡식은 마을의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

거북놀이는 먼저 길놀이부터 시작된다. 동네 복판에서 길놀이를 출발하여 장승이 세워져 있는 동네 입구까지 가서 장승굿이 벌어지는데 이때 상쇠는 '고사담'을 한다.

장승굿을 마친 연희대는 동네 공동우물로 가서 한해 동안 물이 철철 넘쳐 흐르기를 기원하는 우물굿을 하고 다시 마을의 넓은 공터에서 웃음을 자아내는 촌극을 펼치며 신명을 돋운다. 이와 같은 마을판굿은 거북놀이의 중간 절정을 이루며, 판굿이 끝나면 집집을 돌면서 집안의 평안과 무병장수를 비는 굿을 행한다.

"들어가오 들어가오, 만인간 들어가오. 문여시오 문여시오, 수명장수 들어갑니다."하는 상쇠의 문굿풀이에 이어, 거북이를 앞세운 연희자 일행이 춤을 추며 문안으로 들어가면 주인이 나와 맞이하고 연희자들은



이천거북놀이 (경기)

그집 터줏가리 앞에서 농악을 치다가 "누르세 누르세, 터주지신 누르세"를 외치며 땅을 꼭꼭 밟아준다. 이어서 부엌으로 들어간 연희대는 "누르세 누르세, 조왕지신 누르세"를 반복하며 돌면서 조왕굿을 하는데, 부엌은 식생활을 관장하는 곳으로 조왕신이 있다고 믿었다.

조왕굿을 한 뒤에 거북놀이패는 대청으로 나와서 대청굿을 하는데 이때는 집주인이 고사상을 준비한다. 옛날부터 대청의 대들보 위에는 '업'이라고 부르는 큰 구렁이가 있어 그집을 수호한다고 믿어왔는데 그 때문에 이 신령스러운 존재에 대한 대청굿은 거북놀이 전 과정에서 가장 의식성이 짙은 대목이다.

1년 농사를 무사히 끝내고 풍요함 속에 한가위를 맞이하는 즐거움과 안도감이 한데 어울려 마음껏 뛰고 즐기는 마당놀이로 거북놀이는 막을 내린다.

놀이기구

(1) 거북

수수잎으로 거북이 형태를 만들어 2~3명이 들어가고 작은거북(남생이) 속에는 어린이 1명이 들어간다.

(2) 농악

악기 및 각종 깃발.

(3) 기타 복색

진주포구락무

민속무용

유래

포구락이란 제기처럼 수술이 달린 채구를 포구문의 풍류안에 던져 넣는 놀이를 춤과 음악, 노래로써 형상

화한 궁중악의 하나이다.

고려사 권71 당악조의 기록을 보면, 포구락은 일찌기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고려의 궁중연회에 쓰이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악학궤범(성종 24년)과 정재무도홀기(呈才舞圖笏記)의 기록을 보면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중요한 궁중정재로 연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궁중정재로서의 포구락은 각 지방관아에 배속된 교방청으로 유출되어 관기들에 의하여 연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고종 4년부터 8년까지 진주목사로 있던 정현석이 당시 진주교방청에서 연출하던 교과를 기록·설명해 놓은 교방가요의 기록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진주포구락은 진주검무 기능보유자인 성계옥 여사가 의기 논개의 제의식과 그 여흥가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암별제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진주 권번출신인 이윤례 여사의 고증에 의해 발굴한 것이다.

특색

궁중포구락이 지방관아로 유출되고 그것이 다시 민중속으로 유입되면서 많은 부분이 축소 변화되고 민속화되었다. 따라서 진주포구락은 궁중포구락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진주포구락은 의물 가운데 죽간자가 없다. 의상은 화관몽두리를 하지 않고 치마 저고리에 큰머리만 올린다. 개장과 수장때에는 구호 대신 우리말 노래를 부르고 포구놀이 때에 부르던 한문 창사는 없어지고 명중 때에만 '지화자'를 부른다.

상벌에서 명중자의 상은 베 대신 삼지화를 머리에 꽂아주고 명중시키지 못한 사람에 대한 벌은 뺨에 찍는 먹점에서 눈언저리의 퉁방울로 확대되었다. 또한 경기의 요소가 가미되었고, 전원이 머리의 꽃을 뽑아들고 지화자를 부르며 포구문 주위를 돌고나서 선비가를 부르며 서로 어울리는 흥겨운 장면이 첨가되었다.

구성

진주포구락은 춤과 음악, 창사와 노래로 구성된다.

(1) 춤 : 한삼평사위춤, 쌍어리, 절화무, 이수고저무, 회수무, 대수무, 팔수무 등.

(2) 음악 : 세영산, 염불도드리, 볶는 도드리, 타령곡 등.

(3) 노래 : 지화자, 선비가 등.

(4) 창사 : 개장창사, 수장 창사.

내용

중앙에 포구문을 세우고 꽃을 든 봉화와 붓을 든 봉필이 동·서로 갈라 선다.

박을 치면 개장창사에 맞추어 연희인원이 염수로 들어오는데 이때 반주로는 세영산을 연주한다. 다시 박을 치면 반주는 염불도드리로 바뀌고 춤은 한삼평사위로 두 대형이 나선형으로 돈다.

다시 박소리가 나면 음악이 볶는 도드리 장단으로 변하고, 춤은 쌍어리로 추면서 내외 편대로 갈라진다. 안팎으로 나누어진 무원은 외향무와 내향무를 추게 되는데 외향무원은 염수족도하고, 내향무원은 포구문에 꽂아놓은 꽃을 향하여 절화무를 춘다. 다시 박을 치면 내·외 무원이 자리를 바꾼다.

다시 박을 치면 음악이 타령곡으로 바뀌고 춤은 이수고저무를 추며 양대가 역시 나선형으로 돌아 포구문을 사이에 두고 2열 횡대로 마주보고 섰다가 박소리 신호 따라 회수무, 대수무를 번갈아 추며 전진 후퇴한다. 다시 박을 치면 양대가 서로 등지고 돌아서서 색한삼을 끌러 던지고 본 위치로 돌아간다.

다시 박을 치면 양 편에서 각각 한사람씩 포구문을 향해 팔수무를 추고 들어와 포구틀 앞에 놓인 채구를 보고 앉아 얼르다가 공을 집어든 다음 일어서서 풍류안을 향해 공을 던질까 말까 망설이면서 포구문을 한바퀴 돌고 다시 공을 얼르다가 풍류안에 던져 넣는다. 공이 명중하면 자기편 전원이 춤을 추며 지화자를 부르고 명중시킨 사람이 앞으로 나가 앉으면 봉화가 상으로 삼지화를 머리에 꽂아준다. 명중시키지 못하면 봉필이 벌을 주는데 눈언저리에 퉁방을 그린다.

박소리가 나면 처음 두 사람은 원위치 하고 양 편에서 다시 한사람씩 나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연희한다. 차례대로 모두 끝나면 머리의 꽃과 퉁방울로 승부를 결정한다.

다시 박소리를 신호로 전원이 포구문 주위를 돌면서 지화자를 부르고 자리로 돌아가면 노래부르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 선비가를 부른다. 이때 무수들은 춤을 추면서 노래의 후렴을 받는다.

진주포구락무 (경남)



다시 박을 치면 전원이 팔을 들고 평사위로 전진 후퇴를 하고 좌우로 선회하다가 뒷걸음으로 원위치 하는데 이때 수장창사를 부른다.

창사와 노래말은 다음과 같다.

(1) 개장창사

아악이 여경에서 울려퍼지니
기동들이 향제에 늘어섰구나
다투어 예쁜모습 자랑하면서
아름답게 나비춤 추어올리니
다같이 즐겁기를 바라옵니다.

(2) 수장창사

채구를 희롱하여 포구문을 쳐다보며
몇번이나 견주어서 던져볼까 말아볼까
얼씨구나 보기좋게 풍류안을 명중하니
좋을씨구 꽃상받고 퉁방울을 면했구나

(3) 지화자

지화자 지화자 지화지화 지화자
지화~자 지화자 얼씨구나 지화자

(4) 선비가

아~아 궁차락
궁차궁차 궁차락
오백년이 돌고돌아 한강물이 맑았도다
궁차락 궁차락 궁차궁차 궁차락
성주 중흥하시니 만민의 함락이로다
궁차락 궁차락 궁차궁차 궁차락
오백년이 돌고돌아 풍천강이 맑았네
궁차락 궁차락 궁차궁차 궁차락
성주 중흥하시니 백곡이 풍등하셨다
궁차락 궁차락 궁차궁차 궁차락
엽아 궁차락아 궁차궁차 궁차락아

놀이기구

박, 북, 장고, 해금, 피리(2), 대금, 아쟁 등의 악기와 채구, 포구문, 붓, 삼지화 등의 기구가 쓰인다.

명주하평 2월답교농악

농악

유래

명주군 사천면 진리는 강릉시로부터 북쪽으로 약 8km 떨어져 있는 해안농촌이다.

이 부락은 조선시대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허균의 외가인 애일당(愛日堂) 김참판이 살던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이 부락에서는 마을에 일년내내 우환이 생기지 않고 풍년들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음력 2월이면 다리밟기 농악을 즐겼다고 한다.

명주하평 2월답교농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기원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리밟기농악이 이 지방만의 것이 아닌 사실에 비춰보았을 때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전국적으로 성행했던 다리밟기농악이 이 지방에도 독창성이 가미되어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특색

명주하평 2월답교농악은 언뜻 보기에는 단조롭고 정적인 가락에 변화가 적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영동지방 농악의 특색을 잘 지닌, 향토색 짙은 농악의 형태를 잘 보전하고 있으며, 사천 지방에서 널리 불리던 농요(오독떼기)와 함께 이 지방 주민들의 정서고양과 단합에 큰 몫을 해내고 있다.

구성

(1) 성황 굿

성황님 모시기, 국태민안 기원.

(2) 다리밟기(점성로교)

음력 2월 6일 점성(별)의 위치에 따라 그 별을 향해 수백명이 횃불을 들고 술렁수신에게 풍년을 발원하는 놀이이다.

(3) 두루치기굿(멍석마리)

(4) 황덕굿(범벅쇠)

①두꺼비굿-소고 황덕굿
②무지개굿-법고 황덕굿
③청나비굿-무동 황덕굿

명주하평 2월답교농악 (강원)



④마당굿—지신 밟기
(5) 농식 (농사풀이)
①논갈기
②못자리누르기
③모심기
④김매기
⑤벼베기
(6) 놀이
①배비장놀이—새매놀이
②콩나물놀이—오고놀이
③쩍쩍이—굿거리, 12발
④새매—동고리받기
진놀이
여흥놀이

내용

일명 하평이라고 하는 이 부락에는 일찍부터 음력 2월 초 6일에 마을 사람들이 다리에 모여 그해 농사가 잘되기를 빌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다리밟기농악을 즐겼다.

이 다리밟기농악은 강릉지방의 농악과 별로 틀린 점이 없다. 가락과 판굿의 형태가 강릉농악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다리밟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황신을 모시는 풍년제 성황굿)을 먼저 드리는 점이 특이하다. 이어서 소고, 법고, 무동이 따로 성황님 앞에서 황덕굿을 벌인다.

이어서 농사풀이와 놀이가 벌어진다. 논갈이, 논삶기, 못자리누르기, 모찌기, 모심기 등과 마당밟기, 오북놀이, 자매놀이, 굿거리, 여흥, 개인놀이 등은 강릉지방 고유의 농악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놀이기구

쇠(꽹과리), 징, 장고, 북, 소고 등.

불싸움놀이

민속놀이

유래

북제주군 조천면 와흘리와 대흘리는 인접한 마을로 이들 두 마을 주민들은 공동으로 본향당신을 모셔왔다. 그러다보니 서로 당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갈등과 의견대립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두 마을 주민들은 놀이경쟁을 통하여 당관리권을 차지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이것이 바로 두 마을간의 불싸움놀이로 정착했다.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이면 마을공동의 당제를 열어 한 해의 길흉화복을 점치고 가정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한편 불싸움놀이의 승부로 당신인 이씨할망을 한해동안 모실 자격을 가름했던 것이다.

특색

불싸움놀이는 육지의 다른 지방에서도 쥐불놀이 등의 형태로 인접한 마을간에 많이 행해져 왔지만 조천면 와흘리, 대흘리 두 마을의 불싸움놀이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마을공동제 형식으로 치러진 매우 드문 예이다.

당신을 모시기 위한 두 마을의 대결은 평화적이고 선의적이었으며 대립보다는 마을 주민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한편 마을의 단결을 꾀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싸움놀이는 힘과 힘이 직접 대결하는 생동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다른 민속놀이가 무속적, 의례적 성격이 강한 것에 비해 독특하다.

구성

이 놀이는 진행단계에 따라 17가지 장면으로 구성된다.

(1) 입장 (2) 제단도열 (3) 꽃춤 (4) 아랫마을 주민 등장 (5) 대치 (6) 장사 술뿌림 (7) 유래에 대한 시비 (8) 불싸움 준비 (9) 불싸움 시작 (10) 밧줄과 통나무 연결 (11) 힘대결 (12) 당관리권 이양 (13) 당집 옮김 (14) 승·패자 화합 (15) 군무 (16) 하직인사 (17) 퇴장.

내용

이 놀이의 진행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장

본향기, 영기 등을 앞세우고 수심방, 소무, 악사,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열지어 입장한다.

(2) 제단도열

원형으로 도열한 주민들이 서로 인사를 올리고 일전의 태세를 취한다.

(3) 꽃춤

공원의 절이 끝나면 담불소리에 맞추어 마을처녀 4명의 꽃춤이 이어진다.

(4) 아랫마을 주민 등장

(5) 양 마을 대치

불싸움의 발단이 되는 시비조의 대화가 오고간다.

(6) 장사 술뿌림

윗마을 장사 2명이 술항아리를 들고 나와 바가지로 술을 떠서 "하늘귀신도 먹엉갑서" "땅귀신도 먹엉갑서" 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술을 뿌린다.

(7) 유래에 대한 시비
본격적인 대결을 제의하는 대화가 오고간다.
(8) 불싸움놀이 진행준비
(9) 불싸움놀이 개시
(10) 밧줄과 통나무 연결
(11) 본격적인 힘대결
양쪽 마을 사람들이 모두 대형밧줄을 잡고 줄당기기를 하여, 당(堂) 관리권을 뺏고 잃는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이다.
(12) 당 관리권 이양
대결 전의 약속을 확인하고 진 동네에서 이긴 동네로 당 관리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대화로 펼친다.
(13) 당집 옮김
이긴 쪽 마을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윗마을에서 모시던 이씨할망 당집을 아랫마을(이긴 마을)로 옮긴다.
(14) 승자와 패자의 화합
이긴 마을 사람들이 진 마을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화합을 다진다.
(15) 군무
대결을 끝내고 화합된 분위기에서 양쪽 마을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악기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춤을 춘다.
(16) 하직인사
춤을 추다가 징소리에 맞춰 "하직이요" 하는 호령이 떨어지면 모두 땅에 엎드려 하직인사를 올린다.
(17) 퇴장
징소리에 맞춰 인사를 끝낸 후 주민들은 빠른 동작으로 놀이판을 정리하고 악기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놀이판을 퇴장한다.

놀이기구

밧줄, 통나무, 당집모형, 악기(징, 쇠, 북, 장고 등), 각종 기, 기타복색 등.

비산농악

농악


비산농악 (대구)

유래

비산농악은 속지명을 날뫼라고 하는 현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동에서 자생한 농악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랜 옛날부터 믿어오던 천왕당에서 해마다 정월 보름날 관행하던 '천왕메기 굿'에서 파생한 것이다.

천왕메기굿의 모든 절차는 농악으로 시연되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지신풀이와 천왕굿이 비산농악의 연원으로 보여진다.

비산농악은 천왕메기굿뿐만 아니라 서울 나들이길을 오고 가던 이 고을 원님의 행차때도 원고개에서 놀았다고 전해진다.

특색

(1) 농악의 구성내용은 일반적으로 모의 농사굿이 많은데 비해 비산농악은 모의 군사굿이라고 할만한 특징들이 짙게 나타난다.

(2) 쇠가락은 마당마다 다양한 변화가 두드러지나 대표적인 춤의 기조는 경상도 특유의 덧베기가락의 춤사위로 되어있다.

(3) 옛 대구의 관도였던 원고개에서 원의 행차때마다 놀았던 탓으로 길(질)군악의 성격이 짙고 동시에 마을의 지신풀이의 성격도 깔려 있다.

구성

전체의 놀이는 열두마당으로 되어 있으나 전성기에는 마당수를 늘려 얼마든지 긴 시간을 놀 수 있었다고 한다.

(1) 질굿(길굿)
(2) 정적궁이
(3) 반직굿(자반드기)
(4) 엎어빼기
(5) 다드레기
(6) 강강술레(허허굿)
(7) 놀이마당
(8) 살풀이
(9) 모둠굿
(10) 덧베기굿
(11) 진풀이
(12) 길굿

내용

비산농악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1) 길(질)굿

길매구(꽹과리) 가락의 행진곡

(2) 정적궁이

상쇠는 단마치, 대원들은 자신의 보폭으로 쇠가락에 맞추어 원형을 지으며 허리춤, 어깨춤으로 돌아간다.

(3) 반직굿(자반드기)

마당굿이라고도 한다. 상쇠의 다양한 쇠가락에 맞춰 군무의 묘를 살리면서 덩실거리는 덧베기춤.

(4) 엎어빼기

2채로 시작하여 4채로 넘어가면서 특히 설북을 따라서 고수들이 몸을 뒤집어 엎어 빼면서 빠른 사위로 돌아간다.

(5) 다드레기

도드리와는 다르다.

3채로 시작하여 7채 단모리가락으로 넘어가면서 전 단원이 한 줄로 몰아친다.

(6) 강강술레(허허굿)

설북이 2채에서 4채로 넘어가면서 갈지자걸음으로 유도하면 이에 따라 뛰놀다가 허허굿으로 끝난다.

(7) 놀이마당

징, 북, 장고, 벅구의 잡이들이 따로 묘기를 보이는 놀이마당.

(8) 살풀이

풍요와 환희를 상징하는 우렁찬 북소리와 어깨춤의 놀이이다.

(9) 모둠굿

1채, 2채, 3채를 치면서 원을 그리며 흩어졌다 모이는 형태를 세번 거듭하고 설북장단 4채, 8채, 12채로 대북을 높이 뒤집으면서 돌아가는 놀이이다.

(10) 덧베기춤

덧베기 들놀이가락으로 대북이 특히 3채, 6채로 몰아치고 12채까지 흥겨운 장단으로 상모놀이가 돋보이는 마당이다.

(11) 진풀이

덕석말이라가도 하며 천왕기와 농기를 중심으로 전 대원이 질주하면서 자진가락에 맞추어 원진을 치고 푸는 진풀이다.

(12) 길굿

지신풀이를 위하여 마을굿의 장으로 돌아가는 행진곡.

놀이기구

(1) 등장인물

양반1, 포수1, 각시1, 기수5

(2) 놀이기구

쇠4, 징8, 대북10, 장고8

인제뗏목꾼소리

민요

유래

강원도 인제지방은 옛부터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준령협곡에 풍부하고 다양한 임목자원을 갖고 있어 이 지방 사람들은 이를 토대로 생활해 왔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기에 이들은 설악산, 대암산, 대우산, 향로봉 등지에서 벌채된 원목을 인북천으로 띄워보내고, 가리산, 점봉산, 방태산, 개인산 등지에서 벌채한 원목은 내린천으로 띄워보내 두 강물이 합치는 합강리 마을에서 원목을 수거하여 강변 백사장에 야적해 두었다가 이를 뗏목으로 만들어 북한강 수계를 이용, 서울로 운반했었다.

이와같은 산간지방 특유의 애환이 서린 생활문화가 이 고장의 향토민속으로 보존 전승되고 있는데, 인제읍 합강리 마을에 전수되는 남한 유일의 '뗏목원형'과 뗏목꾼소리 등이 그것이다.

특색

이 '인제뗏목꾼소리'는 인제 뗏목의 원형을 보존 전수하기 위하여 벌목에서부터 뗏목을 만들고 띄워 서울에 도착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작업 현장에서 부르던 노래를 중심으로 연희화한 것이다.

구성

'인제뗏목꾼소리'의 연희는 다음 3과장으로 구성된다.

(1) 산치성, 벌목작업

(2) 하산작업, 목도운반

(3) 강치성, 뗏목벌류

내용

인제뗏목꾼소리 (강원)



(1) 산치성, 벌목작업

벌목작업을 하기 전에 산신에게 인부들의 무사안녕을 비는 제를 지낸다. 제주가 고수레를 하면 젯상이 치워지고 벌목이 시작되는데 목상이 벨 나무앞에 서서 '어명이오'하고 소리지르면 벌목꾼들도 따라 복창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2) 하산작업, 목도운반

벌채된 원목은 칡이나 밧줄, 목도채를 이용하여 끌어내린 다음 목도로 운반된 원목을 인북천과 내린천에 벌류, 두 강의 합류지점인 합강리에서 수거하여 백사장에 야적한다.

목도는 4인 목도로 하며 이때 선소리꾼의 선창으로 운목노래를 부른다.

(3) 강치성, 뗏목벌류

야적된 원목 25~30개를 한묶음(이를 '한 동가리'라 함)으로 하여 5동가리를 칡으로 묶는다(5동가리를 엮는 떼를 '한 바닥'이라 한다). 이때 두번째 동가리부터는 엮는 원목의 숫자를 순차적으로 2개씩 줄여 엮는다.

엮은 한 바닥을 강물에 띄워 연결하고 강다리(Y자형태의 노 받침대)와 그레(노)를 설치한다.

뗏목이 완성되면 뗏사공의 가족, 친지, 마을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축문을 읽으며 강치성을 드린다.

축문이 끝나면 뗏사공 등 5명이 뗏목을 타고 서울로 출발한다. 여행중 뗏사공들은 일의 고단함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뗏목아리랑'을 구성지게 부른다. 뗏목은 합강성을 출발하여 도치거리, 덕두원, 팔당을 거쳐 목적지인 광나루에 도착한다. 광나루에서 강주인한테 공가(노임)나 광목을 받아 귀향하면 동네사람들과 한바탕 놀이잔치를 벌인다.

인제뗏목꾼소리에 나오는 주요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운목노래

이나무가 어데서왔나 여차하니 여차
방태산 제일봉에 여차하니 여차
낮이며는 일광을타고 여차하니 여차
밤이며는 이슬을먹고 여차하니 여차
낙락장송 되었다가 여차하니 여차
만인간의 힘을빌어 여차하니 여차
인제합강에 나왔도다 여차하니 여차
이나무를 끌어다가 여차하니 여차
기역자로 집을짓고 여차하니 여차
한오백년 살고지고 여차하니 여차
가자가자 어서가자 여차하니 여차
고향찾아 어서가자 여차하니 여차
나귀등에 솔질하여 여차하니 여차
소고안장 지어타고 여차하니 여차
오작교건너 광한루가자 여차하니 여차
노류장화 인개유지 여차하니 여차
만첩청산 어디더냐 여차하니 여차
다죽다죽 드린정이 여차하니 여차
어이하여 변할손가 여차하니 여차
도중한식 바쁜몸이 여차하니 여차
점심참이 늦어진다 여차하니 여차
날아가는 원앙새야 여차하니 여차
너와나와 짝을지어 여차하니 여차
노세노세 젊어노세 여차하니 여차
늙어지면 못노느니 여차하니 여차
마오마오 그리마오 여차하니 여차
사람괄시 하지마오 여차하니 여차
이팔청춘 소년들아 여차하니 여차
백발보고 웃지말아 여차하니 여차
먼데사람 듣기좋게 여차하니 여차
곁에사람 보기좋게 여차하니 여차
뜨물동이 호박씨날듯 여차하니 여차
빨래줄에 제비놀듯 여차하니 여차
어화둥실 잘도논다 여차하니 여차
창포밭에 술나비날듯 여차하니 여차
둥실둥실 잘도논다 여차하니 여차

②뗏목아리랑

1.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우수나 경칩에 물풀리니
합강정뗏목이 떠내려가네
2.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창랑에 뗏목을 띄워놓으니
아리랑타령이 처량도하네
3.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도치거리 갈보야 술걸르게
봄애기여울에 떠내려가네
4.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에 서방님이 좋다더니
포와리 신연강이 아직일세
5.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앞사공 뒷사공 조심하게
포와리 물사품 치솟는다

6.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쾌괭이 포와리 다지나니
덕두원 썩쟁이가 날반기네
7.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합강정 뗏목이 많다더니
경오년 장마에 다풀렸네
8.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놀다가오 자고가오 잠자다가오
보름달이 지도록 놀다가가오
9.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놀다가 갈마음은 간절한데
서산 낙조에 해떨어지네
10.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십년에 강산이 변한다더니
소양강 변할줄 뉘알았나
11.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을 타고서 술잔을 드니
만단의 설움이 다풀어지네
12.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을 타고서 하강을 하니
광나루 건달이 손짓만하네
13.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놀기나 좋기는 합강정
넘기나 좋기는 거닐고개
14.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에 생활이 좋다더니
신식의 생활로 변해졌네

③강치성 제문

유세차
불계부정 택일하여 홍동백서 좌포 우회 외적내탕 진설하고 소지 발원 하나이다
동방갑을 용왕신 남방병정 용왕신
서방경신 용왕신 북방임계 용왕신
중앙무기 용왕신 사해팔방 용왕신
소례로 드린 정성 대례로 받으시고 합강정을 출발하니
앞여울 밑에 거미소, 실바우 밑에 꿩의 여울,
비트리 밑에 송곳돌, 쾌괭이 밑에 쥐젖여울,
십리허간에 사리여울, 성황당 밑에 스레여울,
포와리 밑에 개여울, 제비여울 밑에 망태여울,
여울 여울 구비구비 다지나서 신영강을 지나갈때 비나이다.
무사 하강을 비나이다.
무사 하강을 비나이다.

놀이기구

벌채도구, 제사상, 원목, 칡, 밧줄, 목도채, 기타 연희에 필요한 기구

인천편사놀이

민속놀이

유래

편사놀이는 활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해 왔던 무예 겨루기이다. 편사(便射)의 시초를 뚜렷이 어느 시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수렵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형식에 의한 편사는 고려초기로 볼 수 있고 더욱 다듬어진 형식의 편사놀이는 조선왕조 초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편사의 주된 목적은 한량들의 궁사 기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으나 이질적인 놀이로 변해 한량들의 소일하는 방편으로 전락하여 기생과 악공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또 감영이나 수병사영에서 여흥으로 베풀어지기도 하였는데 관영에서의 여흥적 편사놀이는 일반 사정에도 영향을 미쳐 편을 나누어 내기를 걸고 활쏘기

편사놀이 (인천)



를 하게 되었다.

특색

이 편사놀이는 비록 놀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기는 해도 무예를 연마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예의를 강조한다. 또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놀이에서 승자와 패자간에 조성되기 쉬운 위화감을 배제하고 화동 화합하는 놀이마당으로 꾸며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며, 위계와 장유간에 예를 바탕으로 하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또한 놀이의 형태를 지니고는 있지만 무예를 존중하는 일종의 무예놀이이므로 겸양의 미덕을 강조하고 엄격한 규율아래 놀이를 진행한다.

구성

이 편사놀이의 노는 마당은 다음의 네 마당으로 구분한다.

(1) 드는 마당
(2) 인사 마당
(3) 노는 마당
(4) 나는 마당

내용

사정에서 145미터 떨어진 곳에 가로 6자6치, 세로 8자8치의 과녁을 세우고 편을 갈라 5시 3순으로 솜씨를 겨룬다.

(1) 드는 마당

원칙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입장한다. 서쪽 중앙에서 놀이기가 입장하고, 삼현육각, 청·황기, 편장, 궁수, 기생, 호창, 시지원을 비롯한 놀이꾼 제원이 삼편육각을 연주하고 신명난 농악을 치면서 각기 정한 위치에서 입장한다. 편장, 궁사의 차림은 백색 도포에 갓을 쓰며, 전통을 메고 활을 든다.

(2) 인사마당

입장이 모두 끝나면 육각패의 북잽이가 자진머리로 북을 울린다. 북소리가 울리면 농악과 춤을 멈추고 북소리 신호에 따라 관중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데 기생은 평절로 현신례를 올린다.

(3) 노는마당

인사가 끝나면 다시 북소리가 울리고 기생이 주안상을 들고 나와 황군, 청군의 편장에게 술잔을 올리고 권주가를 부른다. 헌작이 끝나면 청·황의 궁사를 제외한 모든 종사원이 두 편장에게 예를 드린 다음, 두 편장을 비롯한 궁사들이 각기 일렬로 과녁을 향해 늘어서서 활쏘기가 시작된다.

서로 먼저 쏜 것을 권하다가 황군 편장이 못이기는 체 청군의 권을 받아 목례를 하고 자기편 궁사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면 오순종파가 편장에게 가볍게 목례한 다음 과녁을 향해 일시를 시사한다.

시사가 끝나면 편장부터 차례로 일시를 쏘고, 다시 편장부터 시작하여 이시를 차례로 쏜다. 이렇게 하여 각 궁사는 오시를 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궁사가 계속 오시를 쏠 수도 있고, 삼시만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기방법은 사전에 결정하기에 달렸다.

궁사가 활을 쏠 때마다 고전기수(告傳旗手)는 고전기로 관중(명중), 변관(명중지역을 벗어남), 월시(과녁판을 완전히 빗나감) 등을 알리는 기를 흔들고 거기 한량이 높이 기를 올려 사정쪽에 알린다. 시지원은 이를 받아 기록하는데 황군쪽 성적은 청군쪽 시지원이 기록하고 청군쪽 성적은 황군쪽 시지원이 기록한다. 관중을 하면 응원하는 사람들은 환성을 올리며 풍악을 울리고 기생들은 지화자노래를 부른다.

황군이 다 쏘면 청군이 쏘는데 그 순서는 황군때와 같다.

두 편의 활쏘기가 다 끝나면 성적이 발표되는데 이때 동리사람들은 자기편 성적이 발표될 때 환성을 지르며 난장을 벌인다. 이긴 편은 계속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추고, 기생들은 흥겹게 노래를 부른다. 진 편은 승자에게 패자로서의 예를 드리는데 이때 진 쪽의 기를 내려 바닥에 뉘인다.

이긴 쪽의 편장이 진 쪽을 위로하면 다시 기생들이 주안상을 들고나와 양 편장에게 술잔을 올린다. 이어 삼현육각의 풍악과 농악이 신명나게 울리면서 이긴 편이나 진 편이나 가리지 않고 함께 어울려 흥겹게 논다.

(4) 나는 마당

갑자기 태평소가 길게 울려 퍼지고 북이 힘차게 한 번 울리면 일시에 모든 풍악과 놀이를 중지하고 나는 마당으로 옮긴다.

북소리 신호에 따라 관중에게 인사를 한 후 풍악을 울리며 기를 앞세우고 퇴장하는데, 진쪽의 기는 세우지 않고 뉜 채로 들고 나간다. 되도록이면 흥겹게 놀면서 진 쪽의 사람들과 어울려 활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양양귀애파기놀이

민속놀이

유래

양양군은 서쪽의 오색령과 박달령, 서남쪽의 조침령과 구룡령, 남쪽의 오대산, 신선령, 막암치 등 높고

험준한 산으로 부터 발원된 많은 계곡이 있다. 이 계곡들은 경사가 급하고 길이가 짧아 물의 흐름이 빠른 까닭으로 가뭄을 많이 탄다. 또한 계곡 양편 산비탈의 협소한 농경지는 다락처럼 계단식으로 경작해야 하므로 가뭄에 대비한 치수가 큰 문제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환경에 대처하는 수리시설로 통나무의 속을 파서 수관을 만들어 수로를 개설했는데, 이 통나무 수관을 '귀애'라 부르고 귀애를 설치하는 작업을 '귀애놓기'라 하였다.

이 귀애놓기는 계곡을 낀 산간마을의 농경생활에서 걸러서는 안될 가장 큰 연중행사가 되었다. 매년 한식을 전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협동하여 산에서 원목을 베어내려 귀애를 파서 여러 개를 연결하여 물을 유입시켰는데 귀애를 다 놓게 되면 치수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잔치를 벌여 흥겹게 놀아야 가뭄이 없고 풍년이 든다고 전해져 온다.

이 귀애파기놀이는 고려 중엽부터 성행하던 민속놀이로 전해지고 있다.

특색

귀애파기놀이는 산간마을에서 농경의 수리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놀이로서, 대부분의 민속놀이가 농사일을 소재로 하고 있으나 이 귀애파기놀이는 치수하는 수로공사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놀이과정에서 불려 지는 일노래 '톱질소리'와 '운자군소리', 그리고 '귀애파기소리'등의 토속적인 면이 돋보인다.

구성

귀애파기놀이는 다음의 여섯마당으로 구성된다.

(1) 흥돋우기(통나무 끌고 입장)
(2) 통나무 톱질하기
(3) 귀애파기
(4) 좌판놀이
(5) 귀애통 올려놓기
(6) 한마당놀이

내용

귀애에는 외귀애, 허궁귀애 등이 있는데 귀애목, 귀애골, 수채골 등으로 불리우는 마을에 아직도 보존되고 있으며, 일부 깊은 산간마을에서는 소규모나마 아직 이용하고 있다. 연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흥돋우기

마을 좌상을 선두로 농악을 치며 입장하여 귀애를 팔 통나무를 제자리에 놓는다. 일꾼들은 망태기에 도끼 등 작업도구를 넣어 등에 지고, 또다른 일꾼들은 귀애발, 파래(용두레)를 지게에 지고 귀애터에 놓은 다음 모든 일꾼들이 한데 어울려 한바탕 흥을 돋운다.


양양어귀애파기놀이 (강원)

(2) 통나무 톱질하기

한마당 놀이로 기운을 돋운 일꾼들은 귀애를 팔 나무 주위에 앉아 표면만 톱질을 한다. 이때 선소리꾼의 매김소리에 맞춰 톱질을 하며 일꾼들이 뒷소리를 받는다. 가락에 맞추어 농악도 친다.

(3) 귀애파기

일꾼들이 일제히 도끼질을 하며 귀애파기에 들어간다. 톱질로 잘라놓은 나무로 일꾼들은 선소리꾼의 선소리에 맞춰 뒷소리를 받으며 귀애속을 파낸다. 파낸 후에는 귀애통 속에 남아있는 도끼밥을 쓸어내고 짚뭉치에 불을 붙여 귀애통 속을 약간씩 태우며 다듬어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한다.

(4) 좌판놀이

귀애가 완성되면 상쇠의 가락에 맞추어 좌판놀이(앉은 놀이)가 이어진다. 참술을 마시며 귀애의 완성을 자축하는데 술이 거나해져 흥이 오르면 앉아서 놀던 일꾼들이 일어나 어깨춤, 병신춤 등을 추며 한바탕 흥겹게 논다.

(5) 귀애통 올려놓기

한바탕 흥겨운 놀이마당이 끝나면 모든 일꾼들은 귀애발을 묶고 가마니에 모래를 넣어 받치며, 돌로 귀애발을 설치하여 귀애통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한다.

파놓은 귀애통을 귀애발 위에 올려놓고 귀애와 귀애의 접속부분을 잘 맞추며 귀애통 전체가 경사지게 하여 물이 잘 흐르도록 한다. 농악은 계속 흥을 돋운다.

(6) 한마당놀이

귀애통을 올려놓은 동네 사람들이 귀애를 놓느라고 막아놓았던 물막이를 터뜨려 물이 흐르게 하면 좌상의 '물이여, 풍년이여'하는 외침에 이어 모두 함성을 지른다. 이때 높은 곳의 논에 통파래나 코파래로 물을 퍼올리는 장면도 연출된다.

일이 끝나면 모두 함께 어울려 농악을 울리며 한바

탕 흥겨운 마당놀이를 벌이고 산신제를 올린다.

놀이기구

통나무, 망태기, 톱, 도끼 등 작업도구, 농악기, 귀애발, 파래, 기타 필요한 도구.

호랑이탈춤

민속극

유래

평안도는 그 지세나 생태계가 호랑이의 서식에 알맞아서인지 옛부터 호랑이가 많이 살았고 따라서 호랑이에 대한 전설이나 설화가 풍부하였다. 호랑이를 소재로 한 설화나 민담 중에는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호랑이와 인간의 따뜻한 교감, 즉 보은에 얽힌 감동적인 것들이다.

호랑이놀이는 일명 호랑이탈춤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고구려시대에 평양성에서 하나의 축제행사로 호랑이 무리탈춤이 이루어져 우렁찬 포효 함성이 평양성을 진동하였다는 고서의 기록으로 보아 고구려의 전성기에 성행했던 놀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색

이 놀이는 고구려와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놀이로서 평양성을 중심으로 이어져 오다가 중간에 사라졌던 것을 재현한 것이다.

사물장단과 서도창을 반주로 하여 호랑이가 인간을 보호하는 영물로 서로 어울리고,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써 동물이 왕자이면서도 평화를 수호하는 의젓함을 놀이로 표현하고 있다.

구성

호랑이탈춤 (평남)



백호 10마리. 황호 10마리, 아기호랑이 3마리가 출연하는데 대략 다음의 세 마당으로 이루어진다.

(1) 첫째마당 : 20마리의 호랑이 춤판

(2) 둘째마당 : 짝짓기 싸움 마당

(3) 셋째마당 : 아기호랑이의 등장과 서도창의 어울림.

내용

우리 조상들은 민담을 통해 호랑이를 의인화하거나 영물로 취급해 왔으며, 산신령으로 모시기도 하였고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 여겨왔다. 우리나라의 많은 전설들은 호랑이를 악한 사람을 벌주고 착한 사람을 돕는 권선징악의 신성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 호랑이놀이는 그러한 우리 조상의 감정을 놀이로 표현한 것으로, 서도민요를 곁들여 민요를 통해서 호랑이의 전설과 그 생태를 말하며 호랑이를 추앙하는 굿이 이루어진다.

첫째 마당에서는 20마리의 호랑이가 각기 자기가 사는 지역의 생태와 자기생활을 춤으로 보여준다.

둘째 마당에서는 네마리의 암호랑이가 발정해서 근처 산의 호랑이들을 불러모아 짝을 찾는다. 숫호랑이들은 서로 짝이 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고, 싸움에 이긴 호랑이가 암호랑이를 차지하여 서로 애무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셋째 마당에서는 새끼 호랑이들이 등장해서 호랑이 가족의 생태를 즐겁고 흥미롭게 전개한다. 이때 서도·민요와 장단이 함께 어우러져 놀이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놀이기구

호랑이탈과 복장, 호적, 피리, 징, 북, 꽹과리, 장구, 기타 필요한 도구

낭성산판소리

민요

유래

충북 청원군 낭성면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이다. 소백산맥의 허리춤에 위치한 낭성은 들보다 산이 많아 예로부터 울창한 삼림이 생활의 터전이었다. 따라서 굵은 나무를 베는 벌채작업이 이곳 주민들의 생활의 수단이요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산판노래가 발생하였다.

낭성의 인근에는 청주가 있어 낭성 주민들은 나무를 베어다가 청주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산주를 따라 산

을 오르내리며 이 노래를 불렀다. 또한 꼴을 베거나 톱질을 하거나 도끼질을 하면서 피로를 달래고 작업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이 노래를 불렀는데 특히, 나무를 끌어내리는 작업이나 목도질을 할 때 발을 맞추고 호흡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노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터득하여 이 산판노래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 있었던 것이다.

특색

낭성산판소리는 소박하고 구성지며 산 사람들의 애환이 서려있다. 특히 베어놓은 큰 나무를 옮기면서 산을 넘고 고개를 넘을 때의 목도질 대목은 산판소리의 백미이다.

목도에는 4목도, 8목도, 10목도, 12목도 등이 있는데 아무리 굵고 긴 나무라도 12명이 목도를 하여 운반할 수 있었다. 이때 호흡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목도질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충북지역의 노동요는 대부분 농사나 길쌈과 관계가 있는데 산과 관계되는 산판소리는 그 희소성 때문에 더욱 돋보인다.

구성

(1) 입장

(2) 나무하러 가는 장면

'나무하러 가는 노래'에 맞추어 산에 오른다.

(3) 풀베기작업

'꼴베는 총각'노래에 맞추어 나무밑의 풀을 벤다.

(4) 벌채작업

'톱질하는 노래'에 맞춰 나무를 벤다.

(5) 휴식과 춤

'나무꾼의 노래'를 부르며 노래하며 춤춘다.

(6) 나무 끄는 작업

(7) 하산(퇴장)

내용

이른 아침, 산주와 지게꾼 및 아낙네들은 필요한 도구를 챙겨들고 '나무하러 가는 노래'에 맞추어 산에 오른다. 산에 도착하면 우선 나무밑에 덧자란 풀을 베어내야 하는데 이때 아낙네들은 식사준비를 한다.

'꼴베는 총각'노래에 맞추어 풀베는 작업이 끝나면 일꾼들은 '톱질하는 노래'에 맞춰 나무를 베고, 가지를 친다. 그 나무가 쓰러지면 신명이 나서 함성을 지른 후 휴식에 들어가는데 아낙네들은 술과 음식을 날라오고 '나무꾼의 노래'에 맞추어 조별로 음식을 먹고 마시며 흥겨운 춤마당을 펼친다.

휴식이 끝나면 베어놓은 나무들을 '나무끄는 소리'에 맞추어 적당한 장소에 끌어다 놓았다가 '가세 가세 집에 가세'의 선소리에 맞추어 목도질을 하며 산을 내려온다.



낭성산판소리 (충북)

산판소리에 불려지는 노래의 가사들은 다음과 같다.

(1) 목도질 소리

처저엉 허영차 에헤 어이 허영차

헤여어 헤여 허영차 허영차 어흥 허영차 (반복)

(2) 나무베러 가는 노래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산에 올라 나무해서 방뜨시게 불을 때면 우리살림 활짝피네

나무베서 불을 때면 방이 뜨셔서 부모좋아 난도좋아 부인도 좋아 자식도 좋아 잘살아보세

여보시오 인부님네 빨리빨리 어서가세 산에가야 나무베며 산천경개 둘러보세

나무베서 하산하면 무엇하나 걱정말게 나라에 받쳐 충성을 하고 대궐궁궐 지어보세

(3) 꼴베는 총각

울너머 담너머 꼴비는 총각 눈치나 있거들랑 떡받어먹게

떡을랑은 받아서루 품에다 품고 손목을 잡구서 척 늘어지네

참나무 모시대 살어진골로 뒷집에 김도령 꼴비러 가세

(4) 톱질하는 노래

슬금슬금 톱질이야 아야라 말아라 톱질이야 어서 베자 어서 베자 어서 딸려라 빨리딸려 좌측으로 넘겨보자

슬금슬금 톱질이야 아야라 말아라 톱질이야 어느 사람을 구하런가 나도한번 힘을 내어 톱질한테 안지겠다

(5) 나무꾼 노래

에헤라 산이야 호오 서리같이 드는 도끼 어깨우에 번쩍들어 천장만장 되는낭굴 중등찍어 버혀놓고 반

달같이 굽은낫을 한손으로는 쥐어잡고 에헤라 산이야 호오

에헤라 산이야 호오 어허 우리 동포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초동목수의 신분되야 산림규칙을 모르는가 예전습관 그저 있어 법률저촉 되나이다 에헤라 산이야 호오

에헤라 산이야 호오 장자 일꾼은 소를 몰고 아해 일꾼은 지게지고 무주공산 들어가서 내맘대로 나무하세 어린낭굴 남겨두고 장작발인 소에 싣세 에헤라 산이야 호오

에헤라 산이야 호오 단을 묶어 지게하고 석양산 굽은질로 주춤주춤 내려오다 객사청천 흐르는 물을 절에두고 고이앉어 곰방대를 툭툭털며 에헤라 산이야 호오

에헤라 산이야 호오 허허 탄식하는 말이 허허 세월도 덧없도다 인경산 청천목이 밀집같이 자랐더니 운재화를 못면하여 옆에 동택이 되었구나 에헤라 산이야 호오

놀이기구

원목 3~4개, 지게, 밧줄, 함지박, 음식, 톱, 도끼, 낫, 농악기 등.

27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6. 10. 17 ▶ 10. 19
천안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6. 10. 17–10. 18.
천안

대통령상
강화용두레질노래(경기)–민요
국무총리상
저산팔읍길쌈놀이(충남)–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가거도멸치잡이소리(전남)–민요
화천농악(경남)–농악
양양상복골농요(강원)–민요
다천사작법(전북)–민속무용
평산지경닦기소놀음 및
작두그네뛰기(황해)–민속놀이
수영농청농요(부산)–민요
송파답교놀이(서울)–민속놀이
영변성황대제(평북)–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애원성(함북)–민요
서도입창(평남)–민요
양진명소오룡굿(충북)–민속놀이
범몰이(황해)–민속놀이
강령탈춤(황해)–민속극
정읍범패승무(전북)–민속무용
아웨기와 홍애기소리(제주)–민요
북성지구풍어노래(인천)–민요
공로상
아웨기와 홍애기소리(제주)
상주민요(경북)
비산농악(대구)
개인상
차영여(북성구지풍어놀이, 인천)
장보배(평산지정닦이,소놀음및 작두그네뛰기, 황해)
여재성(북청사자놀음, 함남)

강화용두레질노래

민요

유래

강화용두레질노래는 경기도 강화군에서 불리워지는 민요이다. 마을주민들이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용두레나 맞두레 등으로 저수지 물을 논에 퍼 올리는데 이때, 농민들이 노고를 덜고 작업의 능률을 올리고 흥을 돋우기 위해 부르던 노래이다. 특히 용두레와 맞두레는 이 노래와 더불어 전통적인 서민문화로써, 마을의 발전과 주민들의 친목을 다지는데 널리 활용되어 왔다.

특색

농어촌의 민요는 대개 공통점이 있는 듯하면서 한편으로 다분히 지방색을 띠고 있다. 이 고장 농악은 꽹과리, 징, 장구, 북, 호적, 소북 등으로 편성되어 각종 민속행사에 적용되어 왔다. 농악은 거의 다른 지방과도 비슷하나 7채가락으로 자진머리를 쓰는 편이고, 악곡으로는 행진곡, 무용악, 답중놀이, 축가락, 제신가락, 막바지가락 등이 있는데 취악기는 호적만이 있었으나 때에 따라서는 관악기로 저 즉, 쌍피리를 화음으로 넣어 명쾌한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가사는 비슷한 형태이나 가락에 있어서는 작업성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농요에는 농악이 곁들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고장의 농요는 힘든 과정이 많기 때문에 앞에 매기는 앞소리와 받아넘기는 후렴으로 숨을 돌려가면서 이어진다.

특히 용두레질노래는 숫자를 세지 않고 자유자재로

강화용두레질노래 (경기)



작사하여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물을 퍼올리는데 지루함과 노고를 덜어주었다.

구성

강화지방의 농요는 모찌기에서부터 들놀이와 파접놀이에 이르기까지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푸기에 해당되는 용두레질노래는 그중 다섯번째 단계로 갈수기에 행해진 것이다.

강화농요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모찌기

몽리구역내 농민들이 늦가을에서 봄 영농기 이전까지의 강우량을 저수하였다가 이앙기에 이르러 노래와 함께 모찌기를 한다.

(2) 모심기

모를 찐 뒤에 못줄을 사용치 않고 마름모꼴 간격(막모)으로 모심기를 한다.

(3) 김매기

모심기 작업이 끝나면 호미로 애벌김을 매고 두벌김은 손으로 맨다.

(4) 두렁밟기

모심기와 김매기 작업이 끝나면, 우렁이가 논두렁을 뚫어서 논에 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며 두렁밟기를 한다.

(5) 물푸기

용두레를 설치하고 저수답의 물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여 물푸기를 하는데 이때 흥겹게 용두레질노래를 불렀다.

(6) 들놀이와 파접놀이

물푸기 작업까지 끝나면 들놀이를 하고 위아랫마을 농기가 가락에 맞추어 기절을 하고 한 장소에 모여 농악 1채가락부터 7채가락까지 치며 모두 즐거운 파접놀이를 한다.

내용

용두레질노래는 작업에 참가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사람씩 선소리를 메기면 다른 사람들이 후렴으로 '이거 두레 물올라 가누나'를 합창한다. 메김소리의 첫부분은 다음과 같다.

물줄은 하난데 두레는 열두레
이월 초하루 쥐불놓는날 (후렴)
삼월 삼일날 제비가 오구여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셨네 (후렴)
오월 단오날 그네 띠며는
모기 안무러 잠자기 좋구나 (후렴)
육간 대청에 전후퇴 달구여
호박 주추어 부연 달구여 (후렴)

놀이기구

(1) 악기

꽹과리, 징, 호적, 북, 장구 각 2조, 쌍피리 4조.

(2) 소도구

용두레 20조, 모형모 1천 포기 등.

저산팔읍길쌈놀이

민속놀이

유래

저산팔읍길쌈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연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옛부터 한산을 중심으로 한 서천, 보령, 남포, 임천, 비인, 정산 등 저산팔읍은 모시 길쌈의 고장으로 세모시를 생산한 곳이며 이 모시는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에까지 수출되었다. 특히 고려 말엽 목은 이색 선생의 '송청저'(送靑苧)나 '잠부사'(蠶婦祠) 등을 통한 길쌈 예찬이나 하륜 선생이 이 고장을 유람하고 쓴 기문 등으로 미루어 보아 길쌈놀이는 이 고장 토속 민속으로서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색

모시 길쌈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사일이 한가한 틈을 타서 마을별로 많은 부녀자들이 나와 모시 길쌈 경연을 벌렸다. 이때 저산팔읍 예찬노래에 맞춰 흥겨운 춤을 추며 농사의 피로를 잊고 앞으로의 근로의욕을 다졌다.

구성

(1) 입장
(2) 길쌈
(3) 놀이

내용

(1) 입장

대기에 이어 새납, 농악, 선창, 상무사의 순으로 입장한다. 이어 각 고을별로 기를 앞세워 들어온다.

(2) 길쌈

모시를 조사하는 사람이 시작을 알리면 각 고을 호명에 이어 각기 길쌈을 시작한다. 선창이 선소리를 메기면 고을별로 후렴을 하며 작업을 한다.

①모시베끼기

금강산 저고대야 옥단편 깃을달아
두재고름 깊이달아 맵씨있게 잘파입고
삼선버선 곁버선에 아기자기 모아신고
닥쳤구나 닥쳤구나 잔치날이 닥쳤구나
안오시네 안오시네 수자씨가 안오시네


저산팔음길쌈놀이 (충남)

강남땅의 강수자는 글이 좋아 소문나고
한산땅의 이수자는 솜씨좋아 이름났네
②모시삼기와 꾸리감기
추야공산 긴긴밤을 쩐지바탕 마주보며
무릎비며 삼은모시 서울님을 줄것인가
오동잎이 울어댈때 감골낭군 줄것인가
편지왔네 편지왔네 강남낭군 편지왔네
한손으로 받아들고 두손으로 펼쳐보니
씨앗죽은 편지여라 옳다고년 잘죽었다
고기반찬 비리더니 소금반찬 고습구나
꾸리꾸리 모시꾸리 박달나무 쇠망친가
오미상큼 감긴꾸리 삼천리를 열번간다
③모시날기·모시매기
강실 강실 강실도령 강실책을 옆에끼고
강실말을 올라타고 한모퉁이 돌아드니
김참봉네 시악시가 모시베를 짜드란다
그베짜서 뭐할라낭 울어머니 생일날에 모시치마 하여가지
그나머지 뭐할라낭 울아버지 환갑날에 모시도포 하여가지
그나머지 뭐할라낭 우리동생 시집갈때 모시적삼 하여주지
④모시짜기
하늘에다 베틀놓고 구름잡아 잉아걸고
참배나무 바디집에 옥배나무 북에다가
뒷다리는 돋아놓고 앞다리는 낮춰놓고
올공졸공 짜노라니 조그마한 시누이가
올케올케 우리올케 그베짜서 뭐할라나
서울가신 자네오빠 강남도포 해줄라네
진주댁에 고름마리 이슬밭에 내널어서
은다리미 놋다리미 요모조모 싹다려서
대문밖에 썩나가서 괴송남괴 걸어놓고
올라가는 시선비야 내려오는 시선비야
우리선비 아니오나 오기는 오네마는
중단구지 화살잊고 고을목시 실려오네
(3) 놀이

노래가 끝이 나면 조사자는 각 고을에서 짜낸 모시를 조사하여 장원을 뽑는다. 발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장원을 한 고을을 축하해 주는 놀이를 벌인다.

가거도 멸치잡이소리

민요

유래

가거도(소흑산도)는 목포에서 뱃길로 600여 리나 떨어진 한반도의 최서남단에 위치한 절해고도로서, 중국 대륙의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곳이다.

가거도 사람들은 끝없는 대해에서 고기잡는 것이 생업이기 때문에 노를 젓고 그물을 당기면서 삶의 희노애락을 노래로 달랬으며 예로부터 다른 고장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민요들을 많이 불렀다.

특히 이 섬의 특산물인 멸치를 잡으러 나갈 때에는 멸(멸치)이 발견되면 횃불을 켜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멸치떼를 갯창으로 몰아 넣어 걷어 올린다. 만선이 되면 풍어기를 달고 기쁨에 넘쳐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귀항한다.

가거도의 멸치잡이노래는 이러한 멸치잡이를 할 때 독특하게 부른 노래를 모아 엮은 것이다.

특색

이 노래는 대부분의 노동요처럼 선소리를 메기고 뒷소리를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놋소리'와 '긴뱃소리'는 샛소리가 들어가면서 세가지 노래가 엇물려 마치 시나위를 연주할 때나 당골(무당)들의 무가처럼 부르는 것이 특이하다.

망망대해 거친 파도에 몸을 의지한 채 부르는 노래이므로 구슬픈 시나위가락에 한을 싣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는 굳건한 삶의 의미를 내지르고, 만선일 때는 흥겨운 굿거리장단에 맞춰 삶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것이야말로 섬사람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삶 그 자체인 것이다.

구성

(1) 놋소리
(2) 멸몰이소리
(3) 슬비소리
(4) 긴소리
(5) 잦은놋소리
(6) 역수타는소리
(7) 긴뱃소리
(8) 잦은뱃소리
(9) 풍장소리

내용

(1) 놋소리

노를 저어 바다에 나갈 때 부르는 노래이다. 장중하면서도 힘차다.

(2) 멸몰이소리

멸치떼를 발견하고 갯창으로 몰아넣으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구—구—구—구 (5회 반복)
애요 애하자 (5회 반복)
자—자—자—자—자
어야어야어야
자—자—자—자—자 (2회 반복)
어야—어야—어야—어야 (2회 반복)

(3) 슬비소리

출항 전에 밧줄을 꼬면서 부른다.

(4) 긴소리

(5) 잦은놋소리

노를 재빠르고 힘차게 저어갈 때 부른다.

(6) 역수타는 소리

역수가 몰려와서 배의 진행이 힘들면 그 역수를 타 넘기 위해 힘차게 부르는 노래이다.

오게…… 어허허

가거도멸치잡이소리 (전남)



어허허—허허허허
호호호호호
애아 어허 어허
오호호
애하 어허 어허
호 허
야 오호호호
넘어갔다

(8) 잦은뱃소리

엉처 어기야 디어처
어허 어허 어야디야 디어처
어허허 어하디아 엉처

자 멸치도 한배 잡았으니 우리 풍장이나 한번 울려보세

(9) 풍장소리

만선이 된 기쁨에 겨워 익살맞고 흥겹게 부른다.

기와자 좋네
우리배 배임자 신수가 좋아
오늘도 일곱멍애 체맞쳤네
애해 허해 어허 어허 어하오
쥔네 마나님 술동우이고
뱃머리에서 엉둥이 춤추네
기와자 좋네
애해 어해 어허 어허 어하오
가거도 바다에 샛바람 불고
녹섬도아에 제냉기치네
기와자 좋네
애해 어해 어허 어허 어하오
든물에 한배 썬물에 한배
매일저녁 두배씩 잡았구나
기와자 좋네
애해 어해 어허 어허 어하오
이물에선 이사공 꼬물에선 고사공
물때가 점점 바뻐간구나
기와자 좋네
애해 어해 어허 어하오

양양상복골농요

민요

유래

상복골농요는 강원도 산간지방의 농요로서 소하천 주변의 좁은 들이나 골짜기에 있는 다락논에서 주로

불려졌다. 그 내용은 주로 권농을 중심으로 충효애향, 농사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많다.

고려초부터 집단마을을 이루어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전해지고 있는 상복골농요는 항상 힘든 농사일을 하는 농민들에게 흥을 일으키게 하고 위로와 보람을 갖게 하는 양양지방의 대표적 농요이다.

특색

(1) 다른 지역의 농요에 비해 그 가락이 정적이며 지역의 명소나 명물들을 등장시킨 사설은 통속적이며 해학적이다.

(2) 상복골 농요의 가락, 내용, 노래순서 등은 일의 과정과 동작에 알맞게 되어 있으며 다락논에서 일하기 적합하게 짜여져 있다.

구성

(1) 성군소리
(2) 모찌기소리
(3) 모심기소리
(4) 쉴참좌판놀이
(5) 김매기소리
(6) 한바탕놀기

내용

(1) 성군소리

우장을 메고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입장하여 한바탕 흥을 돋운다.

스레질하는 성군이 스레질소리를 하며 다른 일꾼들은 모찌기준비를 한다.(소를 의인화하여 대화하는 형식의 사설과 가락으로 선소리와 뒷소리 없이 성군이 소리를 한다)

이랴이랴 오르내리지 말고
제골수로만 들고요
이랴이랴 오도오
이랴이랴 잰돌은 씨러덮고
굵은돌은 냉겨딛고
이랴이랴 오도오
이랴이랴 이큰 암소야
어정거리지 말고요
점심참이 늦어진다
이랴이랴 오도오
(후략)

(2) 모찌기소리

모판에서 모찌기를 한다. '나간다' '잘한다'등의 추임새로 흥을 돋우며 모를 찐다.

짧은 작업과정이 되풀이 되므로 가락과 사설이 단조롭고 계속 반복된다.


양양상복골농요 (강원)

얼른얼른 하더니 여기도 또 한춤
걸찐걸찐 하더니 여기도 또 한춤
그소리 멀리 가기전에 여기도 또 한춤
너한춤 나한춤 여기도 또 한춤
(후략)

(3) 모심기소리

모를 다 찐 후 양손에 모춤을 들고 춤을 추며 논 앞쪽으로 나가서 횡대로 모심는 형태로 선다.

모심기를 시작하면 모심는소리를 하게 된다. 소리를 주고 받으며 모두 모심기를 하게 된다.(선소리와 뒷소리없이 한다)

다른 일꾼들은 '잘한다 어허, 이히' 등의 추임새로 흥을 돋우며 모를 심는다.

모쪙들은 모를 던지며 모쪙을 하고 모를 다 심고 나면 쉴터로 나온다.

하늘 중천에 뜬구름은
비나 줄려고 떴지
골목골목 나선 색시는
누구를 볼라고 나선나
설악산 산지골에 실안개 돌고
우리집 문전에 정든님 오네
심어주게 심어주게 또 심어주게
바다같은 요논빼기 또 심어주게
(후략)

(4) 쉴참좌판놀이

쉴터로 나온 일꾼들은 앉아서 참을 먹으며 두레패 농악이 흥을 돋워 주면 모두 흥겹게 어깨춤을 춘다.

이때 끝머슴은 상머슴에게 잔을 올리고 큰절을 한다. 이렇게 좌판놀이를 하다가 흥에 겨워 모두 일어나게 되며 한바탕 흥겹게 논다.

(5) 김매기소리

①농민소리(미나리소리)

상복골농요 중에서 가장 정적이며 구성진 가락이 김매기소리이다.

이 미나미소리는 주로 오전에 부르는 김매기소리로서 사설은 4, 4, 4, 4조로 이루어진 시조형태의 농요이다.

처음에는 일렬 형태로 김을 매다가 마지막 논빼미에서 길을 뗄 때에는 원형형태로 모이며 소리를 한다.

심심하고 양양한데 질꾸레기 불러보세
매여주게 매여주게 손을세워 매여주게
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 입고지고
모시적삼 입던몸에 삼베적삼 웬말이냐
(후략)

②동강소리

농악가락에 맞추어 김매기형태로 선다. 동강소리는 오후에 불려지는 김매기소리로 미나리보다 빠르며 가락이 경쾌한 편이어서 김을 빨리 맬 수 있는 민요이다.

연줄가네 연줄가네 저산넘어 연줄가네
그기어디 연줄이냐 우리부모 명줄일세
그늘졌네 그늘졌네 골골마다 그늘졌네
해가져서 그늘졌나 산이높아 그늘졌지
(후략)

(6) 한바탕놀기

일이 끝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한바탕 놀며 흥을 돋워 심신의 피로를 푼다. 이렇게 하루의 피로를 풀며 상머슴을 지게가마에 태워 질꾸레기가락에 맞춰 춤을 추며 귀가한다.

놀이기구

농악에 필요한 악기들.

수영농청농요

민요

수영은 1579년 부터 1894년 갑오경장까지 경상좌도 수군절도영이 있던 곳이며 수영강을 끼고 해변에 자리잡고 있는 비교적 대집단공동체의 자연부락이었다. 8·15광복 당시 약 350호에 1,700여명에 수영동민은 거의 전부가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1966년에 이르러 720호중 농가는 178호에 불과하게 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130호로 격감되어 농청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점차 농토는 대지로 변하여 현재는 농가는 1가구도 없는 도시로 되어 버렸으나 수영동민들의 향토문화 애호의 정신으로 전통적인 농청농요를 전승하고 있는 것이다.

대대로 농업을 위주로 생활해 온 수영 사람들은 약 100여년 전부터 농촌공동작업을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직인 농청이 있었다고 하지만 더 옛으로 소급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사 고대편에 의하면 원시공동체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두레가 중부 이남지방에 있었는데 두령을 좌상 또는 영좌라 했고 간사역을 공원이라 했으며 두레의 표지기가 있고, 유흥으로 농악이 있었으니, 이것은 촌락단위이 자치조직으로서 부락의 경제·군사·노동단체이며 또 경기 내지 유흥단체로서 공동체적 생산고 협동의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농청은 삼한시대 두레가 유풍이라 생각되므로 농청조직은 비단 수영에만 있던 것은 아니지만, 수영농청은 1960년대까지 존속되었다고 한다. 농청의 조직과 제도는 부락이 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면밀하며 규율은 엄정하여 농촌공동체의 생활을 조직화하고 농사기술의 습득과 생산능률의 향상은 물론 조직을 통한 협동·애향심을 함양 고취하였다.

농청원은 노동력이 있는 성년 남녀이며 소임으로서는 집강, 행수(농사 총감독), 문서잡이(서무, 회계), 집강(농사계획작성,강의), 야장(작업의 지도·감독), 영각수(신호수)가 있다. 동·서농청 산하에 내방청과 모기청이 있는데 내방청은 성년 여자로 구성되며 행수, 집강, 야장이 있으며, 모기청은 미성년자로 구성되며, 그 기구는 농청과 같으니 앞으로는 농청원이 될 예비훈련 집단이다.

농청원은 중노동을 위주로 하며 규율속에서서 농사일을 해가는 과정, 특히 논농사의 작업을 반영한 것으로 모찌기, 모내기, 김매기의 농요가 중심이 되고, 보리타작과 소(쇠) 싸움을 곁들여서 흥을 돋우는 농민의 순박한 생활을 표현한 향토예능으로서의 농청이 사라진 이즈음에도 1972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옛 얼과 슬기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구성

수영농청놀이는 순서는 영각수의 집합신호에 의하여 남녀 농청원이 각자의 농기구를 가지고 집합한다.

농악대를 선두로 농우 두 마리를 앞세우고 농청원이 춤을 추며 일터로 나간다.

남자들은 논에서 홀진(쟁기질)을 하고 나서 서레(써ㅡ리)로 논바닥을 고루며 가래질을 한다. 한편 내방청의 여자들은 모판에서 모를 뽑는다. 이때에 모찌기노래를 부른다.

내방청원이 주가 되어 모를 심으며 모를 뽑는다. 이때에 모찌기노래를 부른다.

마당에서는 남자들이 도리깨로 보리타작을 한다.

흥겨운 점심참을 즐긴다.

남자들이 김매기노래를 부르며 논에 김을 맬 때, 내방청원은 논두렁의 풀을 뽑는등 잔일을 한다. 동·서 농청이 갈라져서 소싸움을 붙이고 나서 농악놀이를 놀다가 돌아간다.

내용

농청놀이의 내용은 농악, 농요, 소싸움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농 악

농청이 농악은 꽹과리·징·북·장구 등의 토속적인 악기의 가락에 맞추어 농청원이 일터로 갈때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이 행진악과 작업의 시작과 끝났을 때, 또는 휴식할 때, 그리고 간단한 고사와 유흥적 오락 때에 울린다.

여기에 부언해 두어야 할 것은 영각(땡갈)이다. 땡갈은 1.5m정도 길이의 대롱 앞쪽에 소뿔이나 놋쇠로 만든 나팔을 단 악기로 여러가지 신호를 알린다.

(1) 집합 : 동서남북을 향하여 한 번씩 신호를 알린다.

(2) 작업시간 : 길게 한 번, 짧게 두 번씩 울린다.

(3) 점심이나 휴식 : 짧게 세 번씩 울린다.

(4) 작업끝 :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씩 두 번 울린다.

(5) 비상신호 : 길게 한 번 씩, 짧게 세 번씩 연거퍼 울린다.

나. 농 요

민요로는 모찌기노래, 모내기노래, 김매기노래 및 보리타작소리가 있는데 이같은 농요는 기능요이니만치 직접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것이다. 가창민요와는 달리 노동의 동작을 하면서 불러야만 그 진미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동작을 곁들이는 것이다.

(1) 모찌기 노래

1행이 3~4음절 4구로 된 2행시가 1장을 이루고 앞소리와 뒷소리를 분창하니 앞소리는 독창이고 뒷소리는 제창이다. 가사의 내용은 모를 뽑는 작업에 대한 것과 작업과는 무관한 것 등이 얼마든지 연결되니 다음과 같다.

모찌기 노래

앞소리 : 일월이 돋아와도 이슬갤 줄 모르더라

뒷소리 : 매화때를 꺽어들고 이슬털로 가자시라.

앞소리 : 한강에 모를부아 모찌기도 난감하네

뒷소리 : 하늘에다 목캐갈아 목캐따기 난감하네.

앞소리 : 한재야 한섬 모를부어 잡싸래기 절반이네

뒷소리 : 성안성밖 첩을두니 기생첩이 절반이네

앞소리 : 바다같은 이못짜리 장구판만 남았꾸나

뒷소리 : 장구판은 좋구만은 장구떨니 누었든고

앞소리 : 미치라 다치라 모두잡아 흩치라

뒷소리 : 영혜 영천 초산에 호미손만 놀이소. —이하생략—

(2) 모심기 노래

모심기도 주로 내방청원이 부르는 노래로서 형식은 모두 모찌기와 같이 4음절 4구 1행이 앞뒤고 이어지는데, 이것 역시 선창은 독창으로 메기고 후창은 제창으로 답한다. 가사의 내용은 작업과 직결되는 것도 있지만 작업시간이 많으므로 넓은 생활상을 반영하기도 하며, 또 즉흥적 작사도 있을 수 있으니 다음과 같다.

앞소리 : 이논에다 모를숨아 금실금실 영화로다.

뒷소리 : 우리부모 산소등에 솔을심어 영화로다

앞소리 : 서울이라 남정자야 점심참아 늦어오네

뒷소리 : 미나리야 스금초야 맛본다고 더디드나

앞소리 : 살에 짙고 장칭밭에 목캐따는 저처녀야

뒷소리 : 목캐꽃은 제색인데 처녀얼굴 철색이네

앞소리 : 저게가는 저구름은 우연신선 타고가네

뒷소리 : 대국이라 천자국의 노든신선 타고가네

앞소리 :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 나야

뒷소리 : 그알한게 주었으면 금년과게 내할꾸로

앞소리 : 머리좋은 수담처녀 올뽕난게 앉아우네

뒷소리 : 올뽕돌뽕 내때주마 백년살이 내칸살자

앞소리 : 주천 땅 앞을 지나치니 아니먹어도 술내난다.

뒷소리 : 약주떠고 청주떠고 굿화정자로 놀러가자

—이하생략—

이 모심기 노래는 아침·중참·점심·석양 등 때에 따라서 그 가사와 가락의 차이가 있다.

(3) 김매기 노래

논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로서 남자들의 민요이다. 북을 세번 울리면 일제히 "에이 에이" 두번하고, 앞소리가 '에~헤~아~아~'하면 뒷소리도 그와 같이 외친다. 앞소리가 한 귀절을 부르면 뒷소리는 '에~헤~아~아'의 후렴을 제창한다. 가사의 내용은 작업과는 무관하고 수영팔경을 중심으로 향토의 풍정을 나타내고 있으니 논김매기일은 남정네로서도 매우 힘이 드는 것이 어서 흥겹고 구성진 소리로써 고됨을 달래주는 것인데 일을 마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를 부른다.

앞소리 : 에~헤~아~아~

뒷소리 : 에~헤~아~아~

(1) 양운폭포~기른구름~해운모아~돌아드니~온정리는~명승지요

가인제사~놀든데요~해운대 동백섬은~고운선생~

놀든데요.
(2) 장산~ 최고봉은~ 혹운찾아 솟아있고~ 가마산하 절명도는
창해 뻐가 놀아 있다.
(3) 감모진 최영문에~해마다 봄이오고~ 포이만호 전선터에
임자없는 빈배들아~말만가득 실어있다.
(4) 석양비낀 양창로로~ 신선대 찾아가니~ 신선이 양재호로~
빈배홀로 뿐이로다.
(5) 만경창파 십리에~ 날아오고 놀든백구~황혼에 집을 찾아~
민락교변 갈대밭에~ 흰빛으로 날아든다.
(6) 청산을 하일배하고 ~운리에 득명이라~ 반락창해 하였으니~
초수어옹 상옹호라~ 꺼꾸러져 금두어악이 장관이다.
(7) 일평 서경월에~ 요란한 모애성은~ 해왕성 정막을 깨트리고~
규중에 수닮은소리~새벽을 보하는데~ 서창하여 비등이요~
북창외에 홍아여라.
(8) 금연산 꽃봉속에~ 마하반야 천년고찰~ 석가여래 자비심은~
고금에 통하여라~ 옥여봉탕 금성이~ 배안에 잔잔하다.
(9) 이내 한 몸 무슨 팔자로서~ 온여름 더운날에~ 무슨팔자
죄로지아~ 진풀밭에 이런 고생하고 있나
※ 김매기 끝맺음
앞소리 : 앞두룸에 행수님네 (뒷소리 같음)
뺑뺑 돌아돌아 갔소 (뒷소리 같음)
돌가지 돌가지 쌈을사소
오~아 에이~슬기여
뒷소리 : 오~아 에이~슬기여
뒷소리 : 오~오~슬기여
뒷소리 : 오~오~슬기여

다. 보리타작 소리

수영지방에서는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내기철에 보리타작으로 바쁠 때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심기와 더불어 도리깨타작을 하는데, 가락 1음보격으로 단조롭고 빠르며 가사는 다음과 같다.

보리타작소리

〈앞소리〉 〈뒷소리〉 〈앞소리〉 〈앞소리〉
이보리가 응헤야 이보리가 사방봇들
뉘보리고 응헤야 뉘보리고 우리농촌
양반의 응헤야 중놈의 보기좋다.
보리인가 응헤야 보리인가 때려도고
수염도 응헤야 몽골기도 땀을헐제
길구나 응헤야 하구나 식량된다.
점잖구나 응헤야 동해동쪽에 띠끌모아
하구나 응헤야 돋는해가 식량된다.

도리깨타작소리

〈앞소리〉 〈뒷소리〉 〈앞소리〉 〈뒷소리〉 〈앞소리〉 〈뒷소리〉
에화 어화 어화 어화 궁덩이는 엇쥬
어화 어화 이삭을보고 어화 모우고 엇쥬
때려라 어화 때리라 어화 도리깨는 엇쥬
보리보고 어화 도리깨로 어화 벌리라 엇쥬
때려라 어화 돌리잡고 어화 뒷걸음을 엇쥬
이색이 어화 깨단을 보고 어화 쳐라 엇쥬
안붙거로 어화 때리라 어화 보릿대가 엇쥬
야무치기 어화 어화 어화 나간다 엇쥬

보리타작이 한창일 때는 뒷소리를 엇쥬 엇쥬로 받는다. (이하생략)

라. 소싸움 판굿

고된 김매기를 끝낸 농청원들은 동부농청과 서부농청으로 나뉘어 소싸움을 붙여서 승부를 가리는 놀이를 한다. 소싸움은 오락적 경기라고 하겠으나 목축을 권장하는 의의도 아울러 가지는 놀이이다.

승부를 가린 다음에는 다 함께 화동하여 신나게 노래와 춤으로써 한바탕 즐기는 판굿으로 끝을 맺는다.

놀이기구

의상은 바지, 저고리, 치마 등 농민의 평복에 수건을 쓰며, 삿갓과 도롱(우장)이를 준비한다. 그리고 두 마리의 만든 소를 동원한다.

도구로서는 논을 가는 쟁기(홀진), 써레(써~리), 가래를 비롯하여 지게, 호미, 삽, 갈퀴, 도리깨, 풍석, 고무래(밀개) 등이며 기타 식사에 필요한 가사도구이다.

범몰이

민속놀이

유래

'황해도 범몰이'는 호탈굿으로 황해도 봉산군 토성면 나산리를 중심으로 정월 열나흗날이 되면 행해지던 놀이이다.

100여 년 전만 해도 호랑이는 우리 조상들의 실생활에서 하나의 커다란 위협으로 존재했다. 문헌에 의하면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가 인가를 침입해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해치고 가축들을 잡아 갔다고 한다. 호환은 옛날부터 있어 왔고 호랑이의 숫자가 불어나 피해가 발생하면 민심이 흉흉해졌다. 또 한때는 호환이 사회문제가 될 만큼 심각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주민들의 소망이 굿이나 놀이의 형태로 정착된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황해도 범몰이는 호랑이가 농토와 마을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뜻에서 행해졌던 일종의 마을공동체 의식이었다.

국토분단으로 중단되어 오다가 1984년 6월 국립극장에서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특색

소굿이나 거북놀이굿처럼 영물을 모셔들여 기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것과는 달리 범굿은 사람에게 해를 주는 범을 쫓아버림으로 해서 화를 면하고자 하는 굿으로 절실한 실생활의 문제를 반영하여 놀이화한 것이다.

다른 지방에서는 사람에게 화를 입힌 범을 죽임으로써 범에게 물려 죽은 영혼들의 원한을 달래주는데 반해 황해도 범몰이는 놀이에 참가했던 소, 호랑이, 사람이 모두 한데 어우러지는 자연합일과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의 성격이 강한 놀이이다.

구성

(1) 길놀이
(2) 산신굿
(3) 횃불싸움
(4) 밭갈이
(5) 종자심기
(6) 김매기
(7) 추수하기
(8) 타작마당
(9) 놀량(뒷풀이)

내용

(1) 길놀이

징잡이가 징을 쳐 놀이의 시작을 알리면 여기저기서 마을사람들이 횃불과 햇지게를 지고나와 풍물과 재담으로 마을을 한바퀴 돌면서 논다.

(2) 산신굿

길놀이가 끝난 후 악사, 만신, 마을사람들이 범의 피해를 막기 위해 횃불을 든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산신각에 당도한다. 도착 후 악사와 횃불을 든 사람들이 반반으로 나뉘어 서로 엇갈려 놀다가 다시 반씩 갈라져서 산신당 옆에 열지어 선다.

차담을 차려놓고 살아 있는 돼지를 제물로 바친 다음 산신굿을 한다. 이 굿이 끝나면 범이 돼지를 얼러서 몰고 간다.

(3) 횃불싸움

보름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싸리나무와 마당비에 불을 당겨 만든 횃불을 들고 악사들의 자진가락에 맞춰 함성을 지른다. 현란한 불꽃과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이 난무하는 장관을 이룬다.

(4) 밭갈이

호랑이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밭을 둘러싼 횃불잡이와 악사가 한데 어우러져 풍악에 맞춰 횃불을 움직인다. 이때 암소와 황소가 짝을 이루어 쌍쟁기갈이를 한다.

(5) 종자심기

황해도 특유의 방법으로 종자심기를 한다. 뒤웅박 두개를 붙인 박통에 긴 나무막대를 꿰어 만든 파종기를 사용하는데 이때 노동요(난봉가)를 곁들인다. 종자가 잘 심어져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6) 김매기

김을 맬 때 농민들이 부르는 섬마타령은 한을 푸는 노래로 장단을 맞출 수 없는 무장단소리이다.

(7) 추수, 타작마당

낫을 들고 옆으로 줄지어 선 다음 산염불을 하면서 추수를 한다. 추수한 곡식을 모아 놓고 도리깨질을 하여 타작을 한다. 이때 부르는 소리는 그때그때 운율에 맞추어 노래하는 방아타령이다.

(8) 놀량(뒷풀이)

소, 호랑이,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신나게 노는 마당이다.

놀이기구

농악기, 농기구, 횃불, 산 돼지, 제작한 소와 호랑이 등.

정읍범패승무

민속무용

유래

범패는 전통불교의 의식음악이며 무용으로서 의식절차에 따라 연극적으로 구성되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이미 경덕왕 19년 (760) 무렵에는 범패승이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신라의 고승 진감국사가 당에서 수학하고 귀국한 후 옥천사에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범패를 가르쳤기 때문에 호남지방에


정읍범패승무 (전북)

서는 범패가 매우 성하였고 그 맥이 전해 내려왔다. 이 범패이 맥을 이은 금하스님은 전라북도 정읍군 다천사에 계시면서 많은 문하생을 양성하고 있다.

범패는 그 소리와 춤이 매우 정대하며 불교민속예술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구성

(가) 시련

시련이라 함은 불교에서 큰 법요행사를 베풀때 모든 불보살과 범왕, 제석, 사천왕 등을 청하기 위하여 련과 각종 기장이며 청개·홍개·번을 받들고 절 밖으로 나가서 게문을 범음으로 청함을 말한다.

(나) 복 청 게

복청게는 관세음보살의 강림을 엎드려 청하는 의식절차로서는, 이 때는 대중 전원이 태징, 바라, 법고, 목어, 요령 등을 치면서 거행한다.

(다) 다게작법

다게작법은 부처님께 올리는 다공양을 말하며, 스님들의 범음성으로 순회하면서 거행하고, 중앙에서는 범음성에 맞추어 승무를 하게 된다.

(라) 운심게작법

불교무용 중에서 나비춤에 속하는 이 운심게작법은 중생의 마음을 돌려 보살의 마음으로 향상시키려는 참회의식에서 베풀어지는 춤이다.

아웨기와 흥애기소리

민요

유래

'아웨기'와 '흥애기'는 밭매는 노래의 일종으로,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 마을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희귀한 노래이다.

제주도의 민요는 대부분 노동요인데 그중 하나인 밭매는노래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불리운다. 그러나 보통 '사릿소리'라는 곡만 전할 뿐이고 성읍마을에서만 유일하게 '아웨기'와 '흥애기' 소리가 불려진다. 이런 연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으나 이 고을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한가지 추측은 가능하다.

제주도는 1416년(태종 16년)에서 1914년까지 약 5백년 동안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등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성읍 마을은 정의현이 도읍지였으므로 정의고을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5세기에 걸친 오랜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이곳 정의고을은 기녀들을 통하여 육지본토의 민요를 다수 받아들였다. 따라서 성읍마을에서는 제주도 고유의 민요와 조선본토의 민요가 뒤섞여 불려왔는데 '아웨기'와 '흥애기'도 본토민요의 영향을 받고 제주도 고유의 정서를 담은 노동요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특색

아웨기와 흥애기소리는 한여름철 뙤약볕 아래서 조밭을 매며 부르는 노래이다. 메기고 받는 선후창의 장구한 가락으로 번져 흐르게 되면 더위도 잊고 한결 수월하게 김매기 작업을 한다.

제주도에서도 정의고을 성읍에서만 특이하게 불리우는 이 노래들은 육지본토 민요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음이 특징적이며, 가사노동과 농삿일, 그리고 바닷일까지의 3중고를 짊어진 제주 여성들의 고단함이 절절히 깃들어 있다.

구성

이 노래는 김매기작업과 함께 펼쳐지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1) 김매기작업 (1)

아웨기소리를 부른다.

2) 김매기작업 (2)

흥애기소리를 부른다.

3) 춤마당

내용

1) 김매기작업 (1)

수눌음꾼(밭매는 일꾼들)들은 제주 고유의 대패랭이를 머리에 쓰고 호미로 김을 맨다. 선소리꾼이 아웨기소리를 선창하면 수눌음꾼들이 후렴을 합창한다.

2) 김매기작업 (2)

휴식을 취하고나면 다시 김매기작업이 시작되는데, 선소리꾼이 흥애기소리를 선창하고 수눌음꾼들이 일제히 후렴을 받는다.

3) 춤마당



아웨기와 홍애기소리 (제주)

김매는 작업을 모두 끝내고 잡역꾼, 수눌음꾼, 악사 등 모두가 한데 어울려 삼마동동 노래와 악기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춤마당을 이룬다.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아웨기소리〉

어야뒤야 사디로구나

(후렴 : 아아~아양 에양에~요)

검질짓고 골너른밧의 (후렴)

고분쉐로 여이멍가라 (후렴)

앞멍에야 들어나오라 (후렴)

뒷멍에랑 나고나가라 (후렴)

일락서산 해떨어지고 (후렴)

월출동경 달솟아온다 (후렴)

오늘날은 요밧의서놀민 (후렴)

내일날은 어느밧가나 (후렴)

칠성가찌 벌어진접군 (후렴)

다몰가찌 다모다들라 (후렴)

우리접군님 일심동력하소 (후렴)

우리접군님네 다속아간다 (후렴)

〈홍애기소리〉

어야뒤야 에에엥~엥헤에~에헤이~에헤이 사디로고나

(후렴 : 음~야~에헤에~에야~홍~)

저소리는 에헹~에헹~에헤에~어디레 들어가는 소리 (후렴)

산전밧의 에헹~에헹~에헤에~낭따비 들어가는 소리 (후렴)

검질짓고 오호~오홍~에헤에~골너른 밧의 (후렴)

고분쉐로 오호~오홍~에헤에~여이멍 간다 (후렴)

앞멍에야 에헹~에헹~에헤에~들어나 오라 (후렴)

뒷멍에랑 에헹~에헹~에헤에~나고나 가라 (후렴)

요놈사를 에헹~에헹~에헤에~하여다가 (후렴)

부모공양 에헹~에헹~에헤에~하여나 보자 (후렴)

선소리가 에헹~에헹~에헤에~울리는 고나 (후렴)

놀이기구

선두기, 농기, 연물악기, 애기구럭, 호미(수눌음꾼), 삼태기(잡역부), 음식과 탁배기, 기타 복색 등.

북성지구 풍어노래

민요

유래

지금의 인천 지역인 북성구는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자연히 어업이 발달하였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풍어를 비는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풍어와 안녕을 소원하는 풍어노래가 뱃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게 되었다.

북성지구풍어노래는 이 고장 선조들의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마을사람들의 제재소축과 함께 풍어를 기원하는 노래이다.

특색

북성지구풍어노래는 이제까지의 어업요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뱃소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작업광경 및 축제풍경과 함께 재현한 노래이다.

인천은 예로부터 여러 곳의 사람들이 모여사는 지역적 여건으로 경서토리와 시나위토리의 노래가 공존하는 특성을 지녀왔다.

북성구지의 곶창굿은 도당굿의 일종으로 굿의 날짜가 정해지면 이 굿이 끝나기 전에는 뱃고사 또는 배연신굿이나 안택굿, 심지어는 병굿까지 금하도록 하였다. 곶창굿 18거리가 행해지는 동안이나 배연신굿 또는 뱃고사를 지낼 때, 잔치석상에서 마을사람들이 즐겨 부른 노래는 '배치기' '바디소리' '나나니타령' '난봉가' 등 이었으며 조업 때는 일에 맞추어 '바디소리' '노젓는소리' '닻감는소리' '그물당기는소리'를 불렀다.

해안에서 일을 하는 아낙네들은 굴을 쪼거나 조개를 캘 때, 김 맬 때 등은 '군음'을 불렀다.

구성

1) 배치기
2) 닻감는소리
3) 노젓는소리
4) 그물소리

5) 바디소리
6) 군음
7) 나나니타령

내용

우선 당에서 임장군기에 기내림이라하여 서낭을 받는 고사와 덕담을 하게 된다.

다음에 배치기소리라는 풍어노래를 부르며 풍장을 치면서 배로 내려 온다. 어민들이 배를 타고 나갈 때에는 닻을 감으며 닻감는소리를 부르고 노를 저어 나갈 때면 노젓는소리를 부른다. 어장에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가 걸리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그물을 끌어 올리는데 이때 그물내는소리를 부른다.

닻감는소리, 그물당기는 소리, 노젓는소리, 바디소리는 모두 완전4도, 단3도, 장2도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닻감는소리와 그물당기는소리는 노랫말이 다를 뿐 같은 가락이며 노젓는소리, 바디소리는 메기는 소리의 가락이 제법 길고 음악적이다.

군음의 음계 구성은 나나니타령과 같으나 메기는 소리의 첫째음이 음계구성의 중간음으로 되어 있다. 부르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단7도 또는 완전8도 위음으로 시작할 때도 있다.

모여서 놀다가 흥이 나면 자배기에 물을 담아 바가지를 엎어 놓고 나무 젓가락으로 두드리며 나나니타령을 부른다.

나나니타령의 음계 구성은 완전4도, 단3도, 장2도, 장2도로 구축된 5개음으로 이루어졌고 완전4도, 단3도와 완전4도를 이루는 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4도, 2도를 쌓아 올린 혼합음계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일노래(노동요)와 같이 메기고 받으며 메기는 소리는 가락도 제법 길고 사실적인데 비해 받는 소리는 가락이 짧으며 같은 가락으로 노랫말을 이어나간다. 또한 메기는 소리가 음계 구성의 바탕음으로 부터 완전8도, 또는 단7도의 위음으로 노래를 시작한다.

반주로 치는 물장구의 장단은 굿거리에 속한, 조금 빠른 장단이며 잔가락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북성지구풍어노래 (인천)





단오날 그네뛰기대회

28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7. 9. 29 ▶ 9. 30

수원, 안양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7. 9. 29–9. 30.
수원, 안양

대통령상
여주쌍용거줄다리기(경기)–민속놀이
국무총리상
보은흰돌물다리기(충북)–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서해안일노래(인천)–민요
청단놀음(경북)–민속극
인제숯둔골숯굽기(강원)–민속놀이
연물놀이(제주)–민속무용
욱수농악(대구)–농악
장려상
다대포후리소리(부산)–민요
강진베틀놀이(전남)–민속놀이
용암포풍어제 (경북)–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재가승마을극놀이(함북)–민속극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놀이
해주검무(황해)–민속무용
서도소리경사거리(평남)–민요
김포두레농요(경기)–민요
울산물당기기놀이(경남)–민속놀이
경복궁지경닻이(서울)–민요
청양동화제(충남)–민속놀이
옥구상작농악(전북)–농악
공로상
경북궁지경닻이(서울)
청양동화제(충남)
옥구상작농악(전북)
개인상
김광숙(서도소리경사거리, 평남)
윤덕현(김포두레농요, 경기)
조규찬(울산물당기기놀이, 경남)

여주쌍용거 줄다리기

민속놀이

유래

경기도 여주 흔암리 쌍용거줄다리기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이 지역이 우리나라 5대 선사문화 유적지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무척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줄다리기는 우리나라 중부이남지방의 강마을과 해안, 평야지대에 분포되어 있다. 이처럼 농경과 어로를 주된 생업으로 하는 생활권에 분포된 줄다리기는 자연과의 투쟁생활 속에서 풍요한 생산을 바라는 선인들의 염원이 놀이로 승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농경의식의 하나로 전승된 여주쌍용거줄다리기는 서무산을 중심으로 흔암리, 처리, 우만리, 신진리, 멱곡리, 새재, 부라우, 삼교리, 강천리, 적금리, 굴암리 등지의 열두 동네에 전래된다. 이들 마을들이 옛날에 포구였던 까닭에 그중 가장 홍성했던 흔암리에 모여 함께 즐겼던 이 지방 특유의 전래민속놀이인 것이다.

특색

여주 흔암리 쌍용거줄다리기는 열두 마을 사람들이 대규모로 참가했던, 대동단결과 협동정신의 대표적인 놀이이다. 지방에 따라 액맥이를 위해 놀이가 끝난 후 토막을 내어 문앞에 매달아두거나 논에다 내다 태우거나 날 풀어서 헤치는데 여주쌍용거줄다리기는 강마을답게 얼음 위에 두어 해빙과 더불어 모든 액을 떠내려보내는 액송의식이 특징적이다.

여주쌍용거줄다리기 (경기)



액송의식에서 마을은 물론 가정의 액맥이를 위해 액송기를 꽂고 손빔이를 하여 복을 기원하는 점이 구성상의 특징이다.

구성

여주쌍용거줄다리기는 크게 고사의식과 집단놀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각각은 다음과 같다.

(1) 고사의식

①서낭제

마을의 연장자인 유사가 서낭에 가서 북과 꽹과리를 두드리며 서낭님께 고하여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재앙을 막아달라고 빈다.

②대동우물고사

마을 공동우물에 가서 각종 전염병과 부정한 일을 추방하고 깨끗해지기를 기원한다.

③강고사

뱃길의 안전과 뱃사람들의 무사고와 마을의 번영 및 안녕을 기원한다.

(2) 집단놀이

①진잡이와 용돌림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숫용과 암용의 머리에 술령수가 타고 편장이 용을 지휘하면서 숫용이 암용을 쫓는 놀이이다.

②결전과 줄다리기

용놀림을 하다가 양편이 줄에 달라붙어 줄다리기를 한다.

(3) 액송의식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을 강의 얼음위에 놓고 봄에 해빙과 더불어 모든 액을 줄에 실어 떠내려 보내는 의식이다.

내용

여주쌍용거줄다리기는 놀이행사 이전에 고사를 지내고 용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고사에는 동구밖의 서낭에서 연장자가 올리는 '서낭제'와 '대동우물고사'와 '강고사' 등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놀이에서 사용할 용을 만드는데, 동리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랫마을과 웃마을이 서로 나누어 집집마다 짚을 걷어 가로대나 혹은 고목나무 가지에 짚을 걸고 3합줄을 꼬아 암·수 용을 만든다. 이렇게 만든 용은 놀이날까지 숨겨둔다.

대회날이면 비로소 숫용과 암용이 서로 실갱이를 하다가 드디어 농악과 무동을 앞세우고 짐짓 한판 승부를 겨룬다. 강언덕 해나무 아래에서 펼쳐지는 신바람나는 놀이가 열두 동네의 농기 등과 갖은 옷차림과 함께 강언덕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승부가 결정되면 이긴 편은 사대부라 으시대고 진편은 분통을 터뜨리다 한덩어리로 신바람나는 놀이를 벌인다.

쌍용거줄다리기가 끝나면 액송의식이 진행되는데 이때 각 가정마다 식구들의 이름과 소원을 비는 뜻을 적은 액송기를 줄에 꽂는다. 줄이 액을 싣고 떠내려감으로써 일년 동안의 풍년과 마을에 재앙이 없기를 기원하는 '송연의식'으로 놀이는 끝난다.

이 놀이 중에 여러 노래가 불려지지만 '단허리'를 예로 든다.

오하 오울싼 단허리야
오하 오울싼 단허리야
오늘날에 일기가 좋아
여러 농민의 심정을 돕네
오하 오울싼 단허리야
논배미 크다고 말씀을 말고
일심을 받아서 단허리야
땀은 나고 힘은 들더라도
오하 오울싼 단허리야

보은흰돌물다리기

민속놀이

충북 보은군 산외면 백석리 2구 (일명 : 흰돌부락)는 사방이 산으로만 에워쌓인 깊은 두메 산골이다.

부락 형성이 4백여년쯤 되는 오랜 역사와 35호의 성실한 부락민 120여명이 살고있는 관내 고소득 마을로 알려져 있다.

뒷산 장구봉을 넘으면 곧장 속리산이 마주쳐 보이고 앞 골짜기를 빠져 나오면 장갑들이다.

백석리 1구 부락엔 두개의 큰 우물이 있는데 부락민은 이 우물이 마을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해왔다고 믿고 있다.

옛부터 선인들은 이 우물을 잘 지키고 보존해왔기 때문에 부락의 질병과 화를 면해온 것으로 새기고 있다.

두개의 우물은 뒷산의 유방혈의 두 젖무덤에서 하나씩 물줄기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고 믿어온 것이다.

그런데 이 우물을 이웃 마을인 보은군 산회면 장갑리 2구 (일명 : 나맥이 부락) 주민들이 몰래 훔쳐가곤 했다.

정월 초사흘부터 보름 사이에 이 물뺏기는 두 부락의 생존과 직결되는 싸움이었다.

그래야 한여름 가뭄을 이길수 있었다.

백석 1구 부락의 좋은 샘물의 근원을 자기 부락으로



보은흰돌물다리기 (충북)

옮겨 와야만 마을의 풍요와 발전을 이루고 질병을 막는다고 믿는 장갑리 부락민은 사생결단으로 물을 훔쳐 왔다.

이에 질세라 백석 1구 주민도 빼앗긴 물을 다시 찾아 오기에 부락 전체가 나섰다.

물에 대한 신성함과 중요함을 잘알고 있었던것이다.

이것이 차차 놀이로 화하여 전승되면서 양부락의 축제로 승화 시켰다.

빼앗은 쪽의 축제와 빼앗긴 쪽의 슬픔으로 반복되는 이 민속놀이는 50여년전까지도 양부락 사이에서 이어져 온것으로 알려졌는데 (제보자 이태석 옹 (82세 남) 보은군 산외면 백석 1구) 양부락의 반복되는 물다리기 속에서 함께 화해와 번영을 약속하는 민속축제의 일종으로 고증되었다.

이 작품은 3년 동안이 노력끝에 충북에서 최초로 발굴된 물다리기 놀이로서 이고장 내륙의 독특한 은근과 끈기의 동제의 특성을 살려 다시 재현 전승되어야할 가치있는 민속신앙 놀이임에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서해안일노래

민요

유래

서해안 일노래는 옛날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일대에서 어부들과 마을 주민들이 부르던 노래로서 인천 지역에서는 '북성지구 풍어노래'라고도 한다.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소원하는 노래로서 집단노동요의 형태로 조업 광경과 함께 다시 재현한 것이다.

특색

중부지방 인천은 예로부터 여러 곳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리적 여건으로 경서토리와 시나위토리의 노래가 공존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구성

(1) 노젓는 소리
(2) 닻감는 소리
(3) 그물당기는 소리
(4) 바디소리
(5) 시선뱃노래
(6) 배치기
(7) 군음
(8) 나나니타령

내용

(1) 노젓는 소리

예전에는 노를 저어 항해하였으므로 노래가 제법 많았다. 경기 이북의 것은 약간 느리며, 경기 이남(충청도)은 매우 느리고, 경기지방은 그 중간으로 구성지며 구수한 맛이 난다. 전라도 지방은 빠르고 씩씩한 편이다.

노젓는 소리는 메기는 소리의 가락이 제법 길고 음악적이다.

(2) 닻감는 소리

항해를 위하여 닻을 감아 올릴 때 부른 노래로 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 일대에서 많이 불리워졌다. 남해안 일부와 동해안 지방에서는 별로 불리워지지 않는 노래로 충남 이북지방에서는 하청, 중청, 상청이라 하여 음의 높이가 세차례 꺾이어 올라간다.

그물당기는 소리와 노랫말이 다를 뿐 같은 가락이다.

(3) 그물당기는 소리

닻감는 소리와 가락이 같다.

(4) 바디소리

그물의 고기를 배에 퍼 실을 때 부르는 노래로 메기는 소리의 가락이 제법 길고 음악적이다. 서해안에서는 주로 바디소리, 테질소리라고 하며 전남지방에서는 슬비소리, 남해안 일부와 동해안지방은 가래소리 또는 사리소리(윷이나 모가 나오면 사리났다고 한 데서 연유됨)라고 한다. 인천지방에서는 바디소리를 많이 부른다.(바디란 고기를 푸는 도구 이름이다)

(5) 시선 뱃노래

시선은 원래 땔나무를 실어 나르던 배다. 그러나 어로기를 맞으면 어선으로 부터 고기를 매입, 육지로 운반하는, 일종의 장삿배 역할을 하였다. 운반선이 필요하게 된 까닭은 고기잡이배가 운반까지 맡을 경우 어로기를 놓쳐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일노래 (인천)

시선뱃노래는 다른 노래와 달리 받는 소리도 메기는 소리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래한다. 메기기와 받기는 서로 상대방의 노래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어나가는 부분이 많으므로 자연발생적인 화성이 성립되어 음악적으로 더욱 원숙한 맛을 준다. 또한 메기기와 받기가 서로 상대방의 노래를 이어받아 한개의 가락을 완성할 때가 많고 때때로 상대방의 노래 일부를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받으니 마치 세련된 대위법적인 노래같기도 하다.

(6) 배치기

치기는 자치기, 비석치기, 딱지치기 등과 같이 명사 다음에 붙어 놀이와 내기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배치기는 일(노동)을 위하여 불리워진 것이 아니라 곶창굿이나 연신굿을 지낼 때 풍어를 기원하는 뜻으로 불리워지기도 하고 만선을 나타내는 선상 배치기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역시 배치기의 참맛은 만선귀향을 축하하는 뜻으로 마을사람 전체가 풍악에 맞춰 흐트러지게 노래하는 흥겨움에 있다.

(7) 군음

인천, 용유도, 덕적을 위시하여 옹진 앞바다의 섬에서 불리워진 여인네들의 일노래로 굴을 쪼거나 조개를 캘 때 또는 김을 맬 때 불렀다. 노래에는 한이 서려 있으나 끝부분에 흥겨운 난봉가를 불러 심신을 달래는 것이 이채롭다.

(8) 나나니타령

인천, 용유도, 강화, 장봉, 덕적, 연평도, 백령도 등 크고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널리 불리워진 여인네들의 노래로 지방에 따라 새연평소리, 나이나소리라고도 한다. 자배기에 물을 담아 바가지를 엎어 띄우고 나무젓가락과 또아리(또는 솔뿌리로 만든 솥솔)로 두드리는 물장고에 맞춰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시어머니, 시누이, 며느리의 구분없이 여성으로서의 일체감으로 묶여지며 남성들은 간섭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다.

인제숯둔골 숯굽기놀이

민요

유래

인제숯둔골숯굽기놀이는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숯둔골 마을에서 전승되는 민속놀이로서 참나무를 베어 숯을 굽는 일에 딸린 소리와 놀이를 엮은 것이다.

이 마을은 강원도 첩첩산골로 예로부터 숯을 구워 서울에 대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주로 소양강을 따라 뗏목으로 서울 궁중에 건축자재와 연료를 공급해 왔는데 '산림산업문화'의 발원지로서 영조대왕 이전에 만들어진 '황장금표'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인제군 남면의 숯둔골에는 약 300여 년 전부터 숯을 구워 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구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마을 이름도 숯둔골이라고 붙여졌고, 비록 산골마을이지만 벼농사도 잘 되어 벼(禾)자와 숯(炭)자를 사용해서 화탄이라 명명되었다.

특색

이 숯굽기놀이는 산업민속사의 한 장면을 재현하는 것으로 강원도 산골의 산간풍물을 볼 수 있는 향토적인 놀이이다.

구성

(1) 입산
(2) 기막박기(숯가마 만들기)
(3) 가마치성
(4) 점화
(5) 한마당 놀이

내용

(1) 입산

등걸잠방이, 짚신, 머리수건을 맨 일행이 도끼, 낫 등을 주루먹에 넣어 가지고 입산한다.

(2) 기막박기(숯가마 만들기)

통치기와 전담을 쌓아 올려 가마를 만든다. 그 가마에 다듬은 나무를 세워놓고 '등치기소리'를 천천히, 빨리해서 애벌, 두벌치기를 한다.

등치기 소리
어화세상 벗님네야 에야탄이야
이내소리 들어보소 에야탄이야
해동조선 강원인제 에야탄이야


인체숯둔골숯굽기 (강원)

(후략)

(3) 가마치성

아낙네들이 치성을 위해 제사음식을 준비한다. '등치기'가 끝나면 숯가마가 망가지지 않고 숯이 잘 구워지게 해 달라고 고천신과 산신께 치성을 드린다.

치성이 끝나면 음식을 고시레하고 술을 가마 전후좌우 네 곳에 붓고 함께 음복한다.

(4) 불지르기(점화)

숯가마에 불을 질러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 모두가 환성을 올리며 사물을 강하게 친다. 한편에서는 흥겨운 소리를 하면서 국수대, 세싸리로 숯섬을 만든다.

(5) 한마당 놀이

모두 농악에 맞추어 남자는 지게와 어깨끈에 숯섬을 지고, 아낙네는 숯섬을 머리에 이고, 일부는 각종 소도구를 들고 신명나게 춤을 춘다.

놀이기구

(1) 가마

가마는 숨구멍을 갖춘 아궁이로 되어 있고, 등창과 저창을 가지고 있다. 중앙으로 굴뚝이 있고 전돌의 위로는 흙을 덮고 있다.

(2) 악기

사물, 기타 악기.

(3) 숯섬과 각종 소도구

(4) 등걸잠방이, 짚신 등

연물놀이

민속무용

유래

연물놀이는 제주도식 사물놀이를 말한다. 이는 제주도 무당굿놀이의 하나로써 굿을 할 때 사용하는 무악기로 흥겨운 가락을 연주하면서 펼치는 무속놀이이다.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각박한 풍토와 거치른 바다와 싸워온 제주도민의 생활 속에서 형성된 속신의 성격이 담겨있고 예술적 측면에서 보면 음악, 문학, 무용, 연극의 종합예술적 체계가 융해된 것이 바로 제주도의 무당굿이다. 연물놀이는 이러한 무당굿 형식의 놀이에서 파생한 제주도적 사물놀이다.

특색

연물놀이에는 네가지 악기가 사용되는데, 육지에서 사용되는 사물(북, 장고, 꽹과리, 징)과 기능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명칭이나 형태가 약간 다르다. 연물악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북

제주도의 북은 육지에서처럼 못으로 가죽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끈이나 가느다란 가죽끈으로 양쪽 가죽을 번갈아 얽어맨 것이 특징이다.

(2) 대영

놋으로 만든 악기로, 세수할 때 쓰는 대야를 제주도 사투리로 '대영'이라 하는데 이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육지에서의 징과 같은 역할을 한다.

(3) 설쇠

밑이 볼록한 놋쇠그릇으로 만든 꽹과리의 일종으로 소리가 맑고 높은 음을 낸다.

(4) 장귀

장구의 사투리 명칭이다. 모양은 농악에 쓰이는 장구와 비슷하나 크기가 작다.

구성

연물놀이는 다음의 10과정으로 구성된다.

(1) 삼석울림연물

(2) 도업연물

(3) 감상기연물

(4) 본향들임연물

(5) 향로 및 술잔연물

(6) 도랑연물

(7) 수룩연물

(8) 푸다쉬연물

(9) 연물연주

(10) 북춤

내용

먼저 출연진 전원이 연물을 울리고 춤을 추며 입장한다.

(1) 삼석울림연물(늦은석)

북, 설쇠, 대영을 느리게 울리면서 신에게 정중히 절을 하는 춤을 춘다.

(2) 도업연물(늦은석 및 중판)

늦은석에서 점점 빠르게 연주하며 하늘과 땅이 열리는 내용이다.

(3) 감상기연물(중판 및 잦은석)

북, 설쇠, 대영을 사용하며 보통빠르기에서 아주 빠른 연물로 연주되며 신이 당도하여 문을 열고 닫는 내용의 춤을 춘다.

(4) 본향들임춤(잦은석)

연물이 빠르게 울려대는 가운데 제주도의 본향신을 모두 청하는 과정이다.

(5) 향로 및 술잔연물(중판에서 잦은석)

북, 설쇠, 대영을 사용하며, 보통빠르기에서 조금 느린 잦은석으로 연주된다. 이는 사방팔방으로 부정을 없애고 일만팔천 신위에 담배를 권하는 춤이다.

(6) 도랑연물(잦은석)

북, 설쇠, 대영을 사용하며 아주 빠른 속도로 연주한다. 이때 춤은 절정을 이루는데 다섯 사람이 격렬한 행동으로 춤을 춘다.

(7) 수룩연물

북, 설쇠, 대영을 사용하는데 일곱 사람이 춤추며 신에게 염원을 축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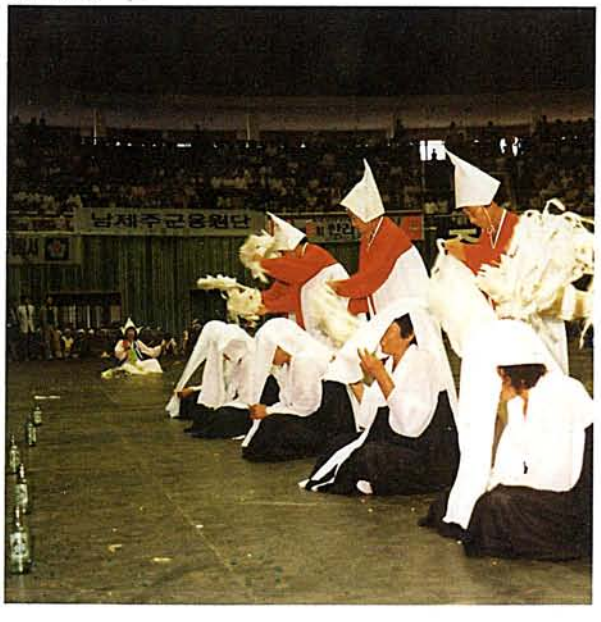
(8) 푸다쉬연물

북과 장귀로써 잔잔하게 연주하다가 차츰 잦은석으로 넘어간다. 푸다쉬춤은 모든 잡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상징한다.

(9) 연물연주

4연물(북, 설쇠, 대영, 장귀)을 총동원해서 연주하게 되는데 늦은석 중판에서 잦은석으로 연결되다가 다시 늦은석으로 돌아간다.

연물놀이 (제주)



(10) 북춤

연물연주에서 끊김없이 되받아 연주하되 북만 사용하여 독주한 후 또다시 수룩연물로 연결된다. 이 과정은 신을 즐겁게 환송하는 방구삼채의 뜻이 담겨져 있다.

(11) 서우젯연물(끝맺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모든 출연자들이 원대형에서 청중을 향해 인사하고 서우젯연물로써 끝을 맺는다.

놀이기구

연물(북, 장귀, 대영, 설쇠), 요령, 신칼, 감상기, 영기, 수릿대, 술병, 술잔, 향로, 잔대, 도포 등.

욱수농악

농악

유래

대구직할시 수성구 욱수동에서 자생하여 전승되고 있는 욱수농악은 이 마을 동제당에서 해마다 정월 초사흗날 관행하던 천왕받이굿에서 파생한 것이다.

욱수농악은 동제때 동제당에서 신내림을 축원하는 천왕받이굿과 이 내림굿에서 뒤따르는 판굿, 보름날의 구걸(지신풀이), 달불놀이때의 마당놀이가 하나의 틀이 되어 전승되어 왔다.

욱수동의 동제는 70년대의 도시화과정에서, 달불놀이는 50년대 입산금지 이후에 각각 없어졌으나 농악과 지신풀이는 1963년부터 현재까지 친목계를 통해 전승되고 있다.

특색

연행구성 중에서 외따기는 경상도 남부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진형을 가진 놀이이다.

쇠가락은 비교적 빠른 가락이 많은데 비해 잔가락이 적은 영남농악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질굿의 가락은 독특하다.

욱수농악은 동제와 연관된 축원농악과 판굿(연희농악)이 복합된 농악으로 전체의 구성이 진굿에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구성

(1) 질메구(질굿)
(2) 천왕받이굿
(3) 둥글데미
(4) 마당놀이
(5) 외따기



욱수농악 (대구)

(6) 덧베기
(7) 오방진
(8) 덕석말이

내용

(1) 질메구(질굿)

쇠는 2/4박자로 친다.

3가지 리듬으로 변주되는 이 마을의 독특한 가락의 길풀이이다.

(2) 천왕받이굿

동제당 앞에서 신내림을 받는 굿이다. 주민들은 이 때 쇠가락이 '천왕님 천왕님 처렁 처렁 내리소'하는 소리로 들린다고 한다.

(3) 둥글데미

대원들은 원형을 지어 상쇠가 무정지게이, 허허깍깍 잦은모리의 3가지 가락을 치면 대원들은 악기장단을 맞추어 원무를 춘다.

(4) 마당놀이

ㄷ자형의 대형에서 징, 북, 장구, 법고잡이들이 각각 조별로 묘기를 보인다.

(5) 외따기

2열 종대의 대형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는 대원들을 상쇠가 빠른 가락으로 Z형으로 돌면서 징, 북, 장구, 법고별로 끊어 일으켜 풀어나간다.

(6) 덧베기

춤굿으로 우렁찬 북소리와 흥겨운 장단으로 어깨춤을 춘다.

(7) 오방진

상쇠, 중쇠, 잡색이 중앙에 원형을 만들고 징, 북, 장구, 법고가 각각 네군데 원형을 그리면서 오방진을 만들어 논다.

(8) 덕석말이

똘똘말이라고도 한다. 농기를 가운데 세우고 전원이 질주하면서 자진가락에 맞추어 원진을 친다. 원진을 풀면서 태극형을 그리고 두군데서 밀집적 원진을 그리고 환호한다.

놀이기구

쇠, 징, 장구, 북, 소북, 농기 등.

다대포후리소리

민요

유래

다대포 지역은 오랜 옛날부터 부산의 인근 지역에 수산자원을 공급하는 어촌으로 이 곳에서 잡히는 멸치로 담근 젓은 이 고장의 명물로 알려져왔다.

조선시대 국방의 요충지로 진이 설치되면서 수군조직의 조직력과 규율 및 협동력을 모방해서 작업상황을 개선한 적도 있었다.

지역에 따라 각기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대포지역에서도 일정한 기간마다 풍어제가 열려왔고 여기에 해상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기원하는 굿도 함께 열렸다. 또한 어로 작업의 고달픔을 잊고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동요가 조상적부터 불려져왔다고 한다.

이 노래들은 어부들의 생활속에서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계승되어 왔으나 1960년대 이후 생업의 변화로 점차 소멸되어 갔다.

특색

현재 전승되고 있는 민요는 대부분이 농요이고 어로요는 그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가사와 곡조가 완전한 것은 희소한 실정이다. 그런데 다대포후리소리는 어로작업에 직접 종사한 다대동민들에 의해 가사와 곡조가 완벽하게 전승되고 있어 보존의 가치가 높은 노래이다.

다대포 후리소리는 이 지방 민요의 특성인 4박으로 되어 있고 가사와 곡조가 어로요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구성

(1) 당산제
(2) 용왕제
(3) 그물을 옮겨 배에 싣는 소리
(4) 그물을 놓는 소리
(5) 그물당기는 소리
(6) 그물터는 소리
(7) 가래소리

(8) 풍어소리

내용

후리소리의 보존전승을 위해 멸치후리작업 전과정을 연희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대포 지역의 어로철은 보통 음력 3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4월 말까지 젓갈용인 봄멸치를 잡고5, 6월은 작은 멸치, 추석을 전후해서 11월까지는 가을 멸치를 잡는다.

어로철이 되면 고기떼를 식별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해 질 무렵 야망대에 올라 멸치떼가 오는가를 관망, 고기가 몰려오는 징조가 있으면 작은 배를 타고 간다.

멸치떼라는 것이 확인되면 징을 쳐 동네사람들에게 알린다.

다음날 일찍 동민 전체가 선주를 제주로 하여 당산에 올라 풍악을 울리고 노래와 함께 당산제를 지내고 바닷가에 모여 용왕제를 올린 후 어로작업을 시작한다.

(1) 당산제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년, 풍어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어부님네, —예

우리, 자아 당산제를 지극정성으로 잘 모십시더,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산님전에 비나이다. (이하생략)

(2) 용왕제

당산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어부님네, —예

용왕제를 지극정성으로 잘 모십시더,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전에 비나이다. (이하생략)

(3) 그물을 옮겨 배에 싣는 소리

어부님네

한마음 일심으로 그물을 배에다 그물을 잘 사려 실읍시더.

에—헤이 사리아. 에—헤이 사리야(후렴)

사려보세, 사려보세, 그물 한채를 사려보세.(이하생략)

(4) 그물놓는 소리

이여사 이여사, (후렴)

달도 밝고, 이여사 (후렴)

고요한데 이여사,

메러치 생각 이여사,

절로난다, 이여사. (이하생략)

(5) 그물당기는 소리

어기여사 당겨주소,

어기여사 당겨주소, (후렴)

용왕님의 은덕으로 어기여차 당겨주소.

메러치 풍년 돌아왔네, 어기여차 당겨주소. (이하생략)

(6) 그물터는 소리

에—산자, 에—산자, (후렴)

산자로다, 에—산자, 에—산자,

많이도 들었구나. (후렴)

(7) 가래소리

어—넝청 가래로다, 어—넝청 가래로다. (후렴)

이 가래가 누 가렌고, (후렴)

다대포 첨사의 가래로다. (후렴)

(8) 풍어소리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후렴)

가자, 가자, 어서 가자. (후렴)

이수강변 백로 가자. (후렴)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후렴)

시냇가에는 자갈도 많다. (후렴)

놀이기구

농악악기, 기, 그물, 가래 등.

다대포후리소리 (부산)



강진베틀놀이

민속놀이

유래

전남 강진군 일대에 전승되는 민속놀이인 강진베틀놀이는 목화씨를 뿌려 목화를 따고 목화에서 실을 뽑

아 베를 짜서 다듬이질 하는 과정까지를 담고 있다.

고려 23대 공민왕때의 학자 문익점에 의해 시작된 목화재배는 1950년대까지 전승되어 오다가 값싼 수입 면화에 밀려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조상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길쌈과정을 마당놀이로 구성하여 1985년 재현,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특색

작업과정에 따라 놀이가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구성

(1) 목화따는 장면
(2) 솜타는 장면
(3) 물레잣는 장면
(4) 베짜는 장면
(5) 베널기 장면
(6) 화합의 한마당

내용

(1) 목화따는 장면
제화소리
좋구나 제화로다 에야뒤야
에헤야 에~에 뒤뒤
큰애기 중신은 대낮에 가고
홀엄씨 중신은 야밤에 간다
저건너 가시나 시집갈랑가
물레독 보듬고 기지개 쓴다
앞집에 큰애기 물레질소리
뒷집에 총각놈 밤잠 못잔다
씨엄시 잔소리 설비상 같고
서방님 잔소리 깨소금 같다
(후렴)
좋구나 제화로다 에야뒤야
에헤야 에~에 뒤뒤
(2) 솜타는 장면
둥게타령
둥게야 둥게야 어화둥둥 둥게야
씨앗이로 씨를 빼서 활질하여 성긴다음
몰대로 곱게몰아 물레질로 실을 뽑아
고무래에 실을당겨 끝실만큼 가래짓고
밤새도록 보두새에 가느다란 실을꿰어
화덕위에 솔질하고 도투마리 감았다가
동지섣달 기나긴밤 보두질로 베를짜서
가리베는 옷감하고 짜치베는 수건하세
둥게야 둥게야 어화둥둥 둥게야
(후렴)
둥게야 둥게야 어화둥둥 둥게야


강진베틀놀이 (전남)

(3) 물레잣는 장면
물레소리
물레야 자세야 어리빙빙 돌아라
이웃집 김도령 밤이슬 맞는다
물레살은 팔형제요 건구지는 세 매듭
물레대는 북두칠성 둘렀구나
(후략)
(후렴)
물레야 자세야 어리빙빙 돌아라
이웃집 김도령 밤이슬 맞는다
(4) 베짜는 장면
베틀소리
(긴소리)
하늘에다 베틀놓고 구름잡아 잉애걸고
청배나무 북에다가 비자나무 보두집에
왈그락 달그락 짜노라니
편지왔네 편지왔네 서울에서 편지왔네
앞문으로 받아들여 뒷문으로 펼쳐보니
첩의죽은 편지로세 이내팔자 한이로다
(후략)
(짧은소리)
베틀놀이나 하여보세
씨앗이로 씨발긴후
활질하여 솜을 타고
동지섣달 기나긴밤
물레질로 실을뽑고
고무레로 합사하여
보두세만큼 실을뽑고
화덕위에 불지펴서
(후략)
(후렴)
베틀놀이나 하여보세

(5) 베널기 장면
손질소리
날리세 발리세 미영베를 발리세
가래베는 옷감하고 짜치베는 수건하세
시집밑천 가래베는 따로챙겨 두었으니
드문세는 제쳐두고 보름새로 내오시오
다듬이질 홍두깨질 밤새워 함께하며
우리손부 짜는베는 잘도나 짜졌구나
(후렴)
날리세 발리세 미영베를 발리세
(6) 화합의 한마당
나나소리
애야 애야—애—애—야
어허 이것이 나나로구나
나지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로구나
(후략)

용암포풍어제

민속놀이

유래

평안북도 용암포에서는 정초에 한해의 무사와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가 열렸다. 어업이 주 생활수단이었던 이 지역 어민들에 의해 치뤄졌는데 남도의 풍제나 동해의 풍어제들이 포구에 배를 띄우고 각종 깃발을 배에 꽂아 그야말로 포구 전체의 축제로 진행되었다면 용암포 풍어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풍족한 어로작업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마을사람들 모두가 풍어제에 참가했다.

특색

풍어제 기간동안 뱃노래의 일종인 배따라기를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배따라기는 황해도 북부지역에서 흔히 불려지는 노래로 남도의 육자배기와 같은 것이다.

구성

(1) 대동터에 등을 매단다.
(2) 무당과 굿패, 배사람들이 서낭당으로 간다.
(3) 서낭당에서 서낭기를 가져와 대동터에 세운다.
(4) 무당이 춤을 추며 사해 용왕에게 제를 올린다.
(5) 마을사람들이 배따라기를 합창한다.
(6) 참가한 사람 모두가 각자 기원의 제물과 돈을 바친다.



용암포풍어제 (경북)

내용

한 해의 새살림이 시작되면 평안북도 용암포 어촌민들은 들뜬 마음으로 풍어제를 기다린다.

각자 한해동안의 제액을 막고 풍어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체를 정결하게 가꾼다.

풍어제가 시작되면 어촌민들은 마을 대동터에 모여든다. 대동터 곳곳에는 마을사람들이 직접 만든 등을 매달아 축제 분위기의 서막을 연다.

등달기가 끝나면 풍어제를 주도하는 무당을 앞세우고 굿패와 마을사람들이 서낭당으로 올라간다.

서낭당에 도착한 무당은 서낭당에 꽂힌 서낭기를 가져오기 위해 간결한 제를 올린다. 서낭기를 무당이 받아들고 대동터로 돌아와서 중앙에 세워두고 풍어제를 시작한다.

상기대가 치는 북, 징소리에 맞춰 무당의 염원과 춤이 시작된다. 굿이 시작되면 마을사람들은 무당을 에워싸고 서서 풍어제를 구경한다.

무당은 춤과 노래가 절정을 향해 치달으면, 마을사람들에게 풍어의 은총을 주십사고 사해용왕에게 축원을 한다.

마을사람들은 축원소리에 맞춰 배따라기를 합창한다. 무당의 춤과 더불어 배따라기를 부르는 마을사람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춤을 춘다.

춤판이 끝나면 마을사람들은 자신의 제물과 돈을 바치며 한 해의 무사와 풍어를 기원한다.

이렇게 해서 용암포 풍어제는 막을 내린다.

이 풍어제는 평안북도 정주군에서는 축복놀이란 이름으로도 불리운다.

놀이기구

서낭기, 북, 징, 굿도구 등.

김포두레농요

민요

유래

두레농요는 모내기나 논김매기 등의 힘든 농사일을 할 때 부르는 민요이다. 노래로 흥을 돋우고 함께 따라 부르면서 서로 손발을 맞추어 작업능률을 올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농촌공동체의 아름다운 풍습인 것이다.

김포두레농요는 한강과 임진강에 연하여 발달한 넓고 기름진 김포평야와 자연을 벗하는 선인들의 심성 속에 마음껏 자라나, 해학과 풍자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불려져 왔다. 지금은 영농기계화와 농약의 사용으로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으나 김포군 통진면 옹정리 등의 일부 마을에서 다시 발굴, 재현되고 있다.

특색

모심기와 논김을 맬 때는 마을마다 두레반이 조직되어 농상기를 앞세우고 길군악에 맞추어 일터로 나간다. 일터에 도착하면 논두렁에서 한마당 놀이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선소리꾼의 선창에 따라 전원이 후렴을 받으며 일을 한다.

일반적으로 농요의 가락은 작업의 성질에 따라 다르나 대개 긴가락으로 시작하여 자진가락으로 흥을 돋우고 휘몰이가락으로 끝을 맺는다.

노래가사는 전국적으로 두루 알려진 것도 있지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가 그때그때 만들어 부른다. 김포두레농요는 해학과 풍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노래형식을 보면 메김소리의 노랫말은 방아타령과 몸돌을 제외하고는 대개 4구씩으로 구성되었다. 논김을 맬 때 처음에는 시작과 준비를 알리는 길고 구성진 '사디'로 시작하여, 흥겨운 방아타령을 거쳐 좀더 빠른 중중모리인 상사디야로 이어져 마지막에는 일을 끝마치는 모음돌로 맺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성

김포두레농요는 다섯 부분의 소리가 각각의 농사일에 결합되어 있다.

(1) 모찌기

(2) 모심기

모줄을 사용치 않고 마름모꼴(막모) 간격으로 모심기를 한다.

(3) 김매기

처음에는 논두렁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김을 매다가 다시 반대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김매기를 하는데, 논김매는 대열은 기러기 날아가는 형상을 유지하여 협동과 단결을 다지게 된다.

(4) 벼베기

낫으로 벼를 벤 뒤 태질로 벼를 떨고, 떨어진 낟알의 수염을 도리깨질로 다듬은 후 부뚜와 키를 이용하여 벼알을 고른다.

(5) 한마당놀이

김매기 작업이나 벼베기 작업이 끝나면 호미걸이라 하여,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흥겨운 농악에 맞추어 한마당 놀이를 한다.

내용

김포두레농요는 다음과 같이 6개의 노래가 전한다.

(1) 모찌기노래

받음 : 쩠네쩠네 나도 한침 쩠네

메김 : 여러분들 농부님들 모들이나 쪄보세 농자는 천하지대본 옛노인 하신 말씀

농자는 천하지대본 농사밖에 또 있는가 일출동방에 해돋으니 한침이라도 빨리찌세

(2) 모내기노래

받음 : 허나허니 하나 둘이로다

메김 :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태어난 농부 농사 안하고 무엇하나

모를내세 모를내세 마름모로 모를내세 봄들었네 봄들었네 건너 산천에 봄들었네

(3) 논김매기 준비 및 시작노래

받음 : 에헤—에헤—이리 사디요

메김 : 사디소리에 흥이나니 길가는 행인이 길못가네 흥이나는 행인들아 막걸리 한잔 들고가소

여보시요 농부님들 논자랑 말고 모자랑하소 사디소리 그만하고 자진방아로 돌려보세

김포두레농요 (경기)



(4) 논김매기노래
받음 : 에헤 에헤요 에헤요 우겨라 방아로구나 나니나 난실 나니로구나 니나노 방아가 좋소
메김 : 좋구도 또 좋구나 금실금실 잉어들아 오염의 감바위 어디라 두고 너만 홀로서 에루하 여기 왔느냐
좋구나 또 좋구나 목아지 길숙 황새들아 논길밭길 어디다 두고
너만 홀로서 에루하 여기 걷느냐
(5) 논김을 빠르게 매는 소리
받음 : 에넬넬 상사디요
메김 : 여보시요 농부님들 이내 말씀 들어보소 한소리는 높이받고 또 한소리 가만히 살짝
일심전력 상사하면 곁에 사람보기 좋고/먼데 사람 듣기 좋아 엉덩춤이 절로나네
(6) 논김을 끝내는 소리
받음 : 에히헤라 모음돌
메김 : 한섬지기 논배미가 괴불만큼 남았구료
논김매는 쥔마나님 술한동이 머리에 이고
엉덩춤이 절로나네 일락서산에 해떨어지니 (후략)

놀이기구

(1) 악기
꽹과리4, 북4, 징4, 호적2, 장고4
(2) 장비
모형모, 모형벼, 호미, 낫, 도리깨, 태판(절구), 부뚜, 키, 모형소, 쟁기, 써레, 파네박, 종가래, 우장, 지게, 함지박, 광주리, 동이, 바가지, 섬, 말 등.

울산물당기기놀이

민속놀이

유래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생활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다.

높은 구릉지대나 해변의 저습지에 자리잡고 살았던 울산지방 사람들은 지리적인 조건때문에 물의 부족에 시달려야 했으며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가뭄에도 직면해야 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수신의 힘을 빌어 심산유곡에서 흘러오는 맑은 물이나 땅에서 솟아나는 청정한 물을 얻으려고 물을 신성시하는 주술제의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 속에서 자연히 발생하게 된 것이 울산물당기기라는 주술적 축원의식이었다.

오늘에까지 전해지고 있는 울산물당기기놀이는 울산 효문동에서 행해졌던 놀이로 새로이 재현한 것이다.

효문동 부락민들은 공동우물을 팠을 때나 가뭄으로 인하여 우물물이 마를 때는 무룡산의 찬물내기(울산지방 사람들이 옛부터 수신에게 무운제를 지냈던 생수의 성지)를 찾아가서 제의를 행하였다. 그곳에서 천지 곳곳의 물을 끌어모으는 축원을 하고 이 물을 다시 효문동에 있는 효문정으로 잇는 모의주술을 하고 효문정에 와서는 우물물의 깨끗함을 축원하는 오신놀이를 행하였다고 한다.

특색

울산물당기기놀이는 정천의 위대한 생명력과 번식력, 풍요성에 경탄하여 신성시하는 우리나라 고대부터 전래하던 축원의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놀이는 또한 수신의 힘을 믿는 주술제의인 동시에 마을 단위는 물론 인근 수개 마을의 부락민들이 어울려 단합하는 축제라 할 수 있다.

구성

(1) 물당기기 기원제
(2) 물이으기
(3) 축제의식의 마당

내용

(1) 물당기기 기원제

왼새끼의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으며 부정을 쫓아 찬물내기의 신성을 유지한다. 솟대를 흔들어 신이 하강하면 제의가 진행된다.

제의가 끝나면 사설이 시작되어 멀리는 은하수의 천지수를 가까이는 울산 각지의 신성수를 당겨다 줄 것을 축원한다. 이어서 남정네들은 병에, 여인네들은 물동이에 물을 담는다.

울산물당기기놀이 (경남)



찬물내기에서
여루여루 들건산 무룡산신을 울리자
여루여루 이새미 용왕님을 울리자
은하수를 당기고 천지수를 당기자
동해수를 당기고 황해수를 당기자
천년수를 당기고 만년수를 당기자
회야강물 당기고 형산강물 당기자
동천물을 당기고 서천물을 당기자
용당소물을 당기고 물청치물을 당기자
백룡담물을 당기고 용금소물을 당기자
진산의 산신님 무룡산의 산신님
이어주소 이어주소 이새미물을 이어주소

(2) 물이으기

남정들의 물병은 왼쪽으로 틀어만든 줄에 매달아 줄다리기를 한다. 울산에서는 예로부터 줄다리기를 하여 비를 빌기도 했다. 이러한 줄은 용사체를 상징하는 모방주술적 도구 구실을 하는 것이며 줄다리기로 물을 비는 것은 줄인 용체를 자극함으로써 물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용사신앙에서 발로된 위혁주술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줄다리기의 위혁주술에서 이기게 된 놀이꾼들은 함성을 지르며 물병을 거꾸로 들어 물을 흘려 마을의 효문정까지 오게 하는데 수맥의 연결을 축원한다. 이때의 사설은 '이으자 이으자'로 시작된다.

(물줄을 당기면서)
이으자 이으자 은하수물을 이으자
이으자 이으자 천지물을 이으자
이으자 이으자 동해물을 이으자
(중략)
이으자 이으자 백룡담물을 이으자
이으자 이으자 용금소물을 이으자
당겨주소 끌어주소
물줄기를 당겨주소
낙동강물 당겨주소
태화강물 당겨주소
냉천수를 당겨주소
옥천수를 당겨주소
청룡수를 당겨주소
황룡수를 당겨주소
천년수를 당겨주소
만년수를 당겨주소
감로수를 당겨주소
진로수를 당겨주소
생명수를 당겨주소
불로수를 당겨주소
부귀수를 당겨주소
영화수를 당겨주소
효자수를 당겨주소
충신수를 당겨주소
태평수를 당겨주소
풍년수를 당겨주소

(3) 축제의식의 마당

마을의 효문정에서 전개되는 제의와 오신의 마당이다.

여인네들은 이고 온 물을 우물에 붓고 금줄을 친다. 왼쪽으로 튼 다섯가닥의 줄으 세발막대기(짝수바로)에 달아 우물위에 드리우는데 이것은 오방신에 의한 정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때의 제의는 아낙들이 물이 순조롭게 나와 주기를 기원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끝나면 사설과 흥겨운 오신의 장이 벌어진다.

이렇게 물당기기를 한 후 이튿날 이른 새벽에 정화수를 떠다가 장독대에 차려놓고 여인네들은 생식과 풍요 등의 소원을 빌었다.

효문정에서
이새미를 채워주소 효문정을 채워주소
냉수청청 채워주소 옥수청청 채워주소
출렁출렁 채워주소 가득가득 채워주소
사시장철 넘쳐주소 천년만년 넘쳐주소
생명수가 넘쳐주소 불로수가 넘쳐주소
부귀수가 넘쳐주소 영화수가 넘쳐주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효문정에 비나이다
천년샘도 여기로다 만년샘도 여기로다
감로수가 넘쳐나네 불로수가 넘쳐나네
부귀수가 넘쳐나네 영화수가 넘쳐나네
잡귀잡신 물러가고 천복만복 점지하소

놀이기구

제구, 금줄, 줄다리기줄, 물병, 물동이, 짝수바리, 풍물 등.

경복궁지경닺이

민요

유래

경복궁지경닺이란 서울, 경기도 지방에 전승되고 있는 일노래의 하나로 1800년대 중엽 경복궁 중건때(1865년 연검도감을 세움) 불려졌다고 전한다.

집을 지을 때 집터를 고르면서 또는 기둥을 세울 자


경복궁지경닻이 (서울)

리를 단단하게 다지면서 부르는 지경소리는 이와 유사한 경우의 하나인 무덤을 만들 때 부르는 달궁소리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전승되고 있다.

지경닻이의 유래를 밝히는 소상한 문헌기록은 없으나 아마도 인간이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경복궁지경닻이의 경우 옛날이야기처럼 경복궁 대역사의 애환과 함께 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려졌던 일노래들이 하나 둘 잊혀져 가는 이때에 경복궁지경닻이소리는 우리 민족의 살아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특색

조선조 나라의 중흥을 외치며 대역사의 현장에서 불려진 일노래답게 경복궁지경닻이는 중부지방의 다른 민요들과는 달리 씩씩하고 질박하며 흥겹다.

구성

(1) 초지경
(2) 마당놀이
(3) 잦은지경

내용

(1) 초지경

영기를 선두로 대기, 종기, 오방기, 풍물잽이(농악대), 지경꾼(지경돌을 들고 온다)의 순서로 일터로 들어온다. 각자 방위에 맞게 오방기를 세우면 지경닻이가 시작된다.

모가비가 앞소리를 내면 지경꾼들은 일제히 '어여라 지경이야'하고 후렴을 받으면서 장단에 맞춰 지경돌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 중간에 흥을 돋우기 위해 발림춤을 추기도 한다.

(2) 마당놀이

초지경이 끝나면 마당놀이를 한다. 양산도, 방아타령, 잦은방아타령을 이어 부르면서 지경줄을 잡고 춤을 추는데 지경돌은 후렴에서만 올렸다 내렸다 한다. 지경꾼들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퍼질수록 지경은 힘차게 다져진다.

(3) 잦은지경

마당놀이에 이어 잦은지경닻이소리를 한다. 잦은모리장단에 맞추어 빠른 동작으로 지경을 다진다. 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경복궁타령을 부르고 춤을 곁들인 풍물놀이로 한껏 흥을 돋운다.

놀이기구

깃발, 꽹과리, 징, 장구, 북, 제금, 호적, 지경돌 등.

옥구상작농악

농악

유래

전라북도 옥구군 성산면 창오리 상작마을에 전승되는 농악이다.

상작마을은 옥구지방 중에서도 특히 부촌으로 유명하며 인심이 순후하고 농악이 매우 성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옥구지방은 고려시대부터 십이조창의 하나인 진성창이 있었던 곳이며 조선시대에는 수군의 주둔지였는데 이러한 점이 이 지방의 농악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색

(1) 부부, 부자, 며느리 등 모두 동원되어 혼성팀으로 구성된다.

(2) 잡색 가운데 말이 두 필 등장하여 말놀이를 하는 것이 특이하다.

(3) 호남우도 농악에 속하며 가락이 구성지고 특히 장고가락이 풍요롭다.

(4) 복색이 호화롭다.

구성

(1) 낸드름질굿
(2) 삼채굿
(3) 오방진굿
(4) 허허굿(호호굿)
(5) 미지기굿
(6) 구정놀이
(7) 인사굿

(원래 7과장이 넘던 것을 경연대회에 맞게 재조정했다)

내용

(1) 낸드름질굿

쇠, 징, 장고만으로 시계바늘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다가 원 밖을 보고 굿을 시작하겠다는 인사를 한다.

일반적인 호남 우도농악이 우질(길)굿, 좌질(길)굿 등을 거쳐 나가는데 반해, 간단하게 이 굿으로 인사를 한다. 즉 인사굿이라고 하겠다.

(2) 삼채굿

느린삼채로 시작하여 자진삼채까지의 삼채가 벌어진다.

(3) 오방진굿

오방이란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방위를 가리키는 말인데, 상쇠가 여러 잽이들을 데리고 오방진가락을 쌓는 것이다.

오방진은 멍석말이 등의 별칭으로도 불리는데, 일렬종대로 서서 나사 모양으로 돌아들어 진을 치고 다시 나사 모양으로 풀어 나오며 오방에 진을치는 것을 말한다. 진의 모양이 다채롭고 멍석(덕석)말이의 풍습을 농악의 진법에 응용한 독특하고 재미있는 놀이이다.

(4) 허허굿

'호호'하는 상쇠의 구호에 따라 여러 잽이들이 '허허'하며 응대하는 가락을 치기때문에 허허굿이라고 부른다. '깨갱'하고 한 박자를 치고 '허허'하고 구호를 부르는 식으로 쇠가락이 쉬는 사이에 구호를 부른다. 이러한 형식이 2회가 반복되면, 전원이 자진 호호가락을 치면서 원의 중심을 보고 서서 오른쪽으로 2회 옆걸음하고, 왼쪽으로 2회 다시 옆걸음을 한 후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2회 반복한다.

일반적인 호남 우도농악에서는 상쇠가 자진 호호가락을 치면 농악대 전원이 원의 중심을 향하여 서서 몇걸음 들어가 일제히 3번 앉았다가 일어나고 뒤를 향해 나와서 3번 앉았다 일어난 다음 왼쪽으로 두 발 옆걸음을 치고 오른쪽으로 두 발 옆걸음한다.

'허허굿'은 다른 지방의 '호호굿'과 같은 의미의 용어이다.

(5) 미지기굿

미지기란 밀고 지고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농악대 전원이 삼채굿을 치면서 옆걸음으로 뛰어 이열횡대가 된다. 앞으로 전진하다가 뒤로 돌아 전진하는 진법의 행진무용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6) 구정놀이(개인놀이)

①쇠꾼들의 상모놀이

외상모, 양상모, 사자, 산치기, 양산치기, 배밀어내기, 돗대치기, 좌우치기, 복판치기, 전조시, 연봉놀이 등의 다채롭고 재미있는 놀이이다.

②장고놀이

미지기굿, 제자리 뛰기, 바꿈질굿, 삼진삼퇴, 옆걸음치기, 제자리 뒤로 회전 등이 있다.

③법고놀이

물푸기, 사모잽이, 제기법고, 좌우치기, 벌려겹치기, 사채, 사사, 지계북, 앉은상, 연풍대, 나비상, 차고앉는상, 자반뛰기 등의 재치있는 놀이이다.

(7) 인사굿

전원이 시계바늘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다가 원의 바깥을 향해 서로 쇠에 맞추어 절을 하고 나서 삼채를 치면서 퇴장한다.

놀이기구

용기(용대기)3, 영기2, 나발2, 호적(새납)2, 꽹과리6, 징3, 장고6, 북3, 소고20등이 사용되며 그 밖에 말놀이에 두 필의 말이 사용된다.

29

제2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8. 10. 21 ▶ 10. 23
전주

제29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88. 10.－21. 23.
전주

대통령상
봉서사영산작법(전북)－민속무용
국무총리상
송천달집태우기놀이(전남)－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옥천집터다지기는소리(충북)－민요
자인팔광대(경북)－민속극
비산동천왕매기(대구)－민속놀이
청양동화제(충남)－민속놀이
마산농청놀이(경남)－민속놀이
장려상
서도소리(평남)－민요
영변가(평북)－민요
동래고무(부산)－민속무용
미수상참가작
서울12지풍물놀이(서울)－민속놀이
대보름놀이(함북)－민속놀이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인천주대소리(인천)－민요
고창임리당산제(전북)－민속놀이
떼몰이놀이(제주)－민속놀이
소촌농악(광주)－농악
해주검무(황해)－민속무용
홍천물통방아놀이(강원)－민속놀이
공로상
떼몰이놀이(제주)
송포호미걸이(경기)
홍천물통방아놀이(강원)
소촌농악(광주)
해주검무(황해)
개인상
이희섭(떼몰이놀이, 경기)
신기현(옥천집터다지기는소리, 충북)
김원철(고창임리당산제, 전북)

봉서사영산작법

민속무용

유래

영산작법은 전통불교의 의식 무용인 동시에 범패행사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장엄한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범패 시조인 진감국사는 현재의 전북 익산군 금마 출신으로서 당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후 옥천사를 창건하고 범패와 작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호남 지방에서 범패가 매우 성하였고 그 한 갈래가 전북 완주군 용진면에 있는 봉서사를 중심으로 뿌리 깊은 맥이 전해 내려 오고 있다. 영산작법은 부처님 당시 천인들이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천무, 천음악을 재현하는 극적 구성을 가진 의식으로서 그 음악과 춤은 장엄하고 우아하다.

구성

가. 시련

시련은 부처님과 보살들을 꽃가마로 모시는 의식을 말하는데 영산 대재를 거행할 때 그 서두에서 행하게 된다.

나. 천수 바라

천수바라는 관음보살의 위력으로서 아무런 장애 없이 의식이 진행되도록 기원하는 뜻에서 사물 반주에 맞추어 추는 바라춤을 말한다.

다. 법고 춤

법고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사물악기 중이 하나로서 축생계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는 뜻에서 치는 북춤이다.

라. 다게작법

봉서사영산작법 (전북)



다게작법은 부처님께 향·등·차·과일·꽃 등을 올리면서 승무와 바라 춤을 추게 된다.

마. 운심게작법

운심게작법은 천인들이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모습을 제현한 것으로서 정성어린 율동의 승무를 추게 된다.

송천 달집태우기놀이

민속놀이



송천달집태우기놀이 (전남)

유래

전라남도 승주군 송천마을은 조선조 경종 때부터 수려한 산수를 찾아 정착한 화전민들이 기름진 산야를 개발하여, 농경을 생업으로 살아가는 산촌이다.

이 마을에 전해오는 달집놀이 풍속은 정월 대보름을 기하여 마을 사람들이 당산마당에 집결, 마을 중심의 골목길을 경계로 동·서로 나뉘어 줄다리기와 달집 태우기를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오신 행사로 볼 수 있으며, 마을 주민의 단결과 협동심을 배양하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열양세시기와 동국세시기 등의 문헌에 따르면, 대보름 달이 뜰 때의 형체, 출렁거림, 높낮이, 달의 윤곽과 달무리에 따라 한 해 농사를 점쳤다고 한다.

즉 달무리가 두터우면 풍년이 들 징조이고, 얇으면 흉년, 차이가 없으면 평년작이 될 징조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 조상들의 달 숭상정신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달집태우기는 이러한 조건에서 생성한 놀이라고 하겠다.

특색

이 마을의 달집태우기는 구성 형식상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지방의 이 놀이가 달집 태우기에 그친다면, 이 마을은 대보름 놀이의 하나인 줄다리기를 전체 놀이에 접목시켜 종합 연희 예술로 엮어내었다.

또한 한 해의 풍흉을 점치고, 농작의 기풍과 제액의 주술적 복합성을 지니면서 300여년 동안 변용없이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구성

(1) 줄다리기

동·서 양편은 줄다리기를 통하여 승자가 달집 터를 선정하는 특권을 가진다.

(2) 달집만들기

패자가 달집을 만들고 승자는 달집을 돌며 흥겹게 춤춘다.

(3) 달집돌기

달집이 완성되어, 전체 참여자들이 달집을 돌며 '덜렁소리'와 함께 흥겹게 춤춘다.

(4) 달집점화

승자 마을 향장은 달집에 달빛이 들면, 풍작과 제액을 비는 구술을 올리고 달집에 불을 당긴다.

(5) 화합의 한마당

붉은 불꽃이 피어 오르면 양편 주민들은 '달봐라'하고 소리지르며 신명나게 농악을 울린다.

내용

달집태우기는 청장년들이 풍물을 치며 각 가정의 지신밟기를 해주고 나서 짚이나 솔잎을 모아 가지고 오면서 시작된다. 청소년들은 나무나 짚을 직접 모아 오기도 한다.

이것은 대개 언덕이나 들판·산 위에 쌓게 되며 오두막이나 커다란 다락 모양을 만들거나, 막대기 3개를 적당한 간격으로 세워놓고 한 곳(위쪽)을 묶는다.

이렇게 만든 달집의 한쪽 면만 터 놓고 다른 면은 이엉으로 싼다. 트는 쪽은 달이 뜨는 동쪽을 향하게 한다. 달집 가운데에는 새끼줄로 만든 달의 형상을 매달기도 하고, 더디 태우기 위해 물을 적시기도 한다.

대보름 달이 떠오르면 불을 붙여 대미를 장식한다.

때로는 달집 속에 대나무를 넣어 투닥투닥 마디소리를 내 악귀들을 쫓기도 한다. 또 그때까지 날리던 연을 비롯해 잡다한 물건을 달집과 함께 살라버린다.

이때 청소년들은 이웃 마을에 횃불싸움을 걸거나, '망울이불'을 외치며 이웃 마을의 불길과 견주어 어느

쪽이 더 높이 올라갔는가에 따라 쾌재를 부르기도 한다.

달집 태우기의 불은 풍요의 상징이었고, 모든 부정과 사악함을 살라버리는 정화, 그것이었다.

옥천 집터다지기는소리

민요


옥천집터다지기는소리 (충북)

유래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 청정리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원래 심청리, 송정리 등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심청·송정의 이름을 따서 청정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마을에는 옛부터 '지덤이노래', '지경닺는소리' '집터닺는 소리' 또는 '달구질소리'라고 불리는 노동요가 전해오고 있다.

이 노래는 집터를 다지면서 부르던 것인데 '옥천집터다지기'는 근래에 소멸되었다가 제2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계기로 40여년만에 재현되었다.

특색

옥천집터다지기의 선소리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마을 뒷산까지의 지맥을 설명하고 산세를 풀이하여 집터가 명당자리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달구질이 끝나면 집의 평면을 표시하는 말뚝을 박고 좌향을 잡아 주추를 놓은 다음 조왕조사또는 모탕고사라는 제사를 지내는 점이 주목된다.

구성

다음과 같이 전 5과장으로 구성된다.

(1) 입장
(2) 달고질
(3) 천명보기
(4) 모탕고사와 잔치
(5) 달고노래와 퇴장

내용

저녁에 풍장을 쳐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 사람들이 지경돌에 줄을 매어 당기면서 집터를 다지는데 선소리꾼이 한 장단의 앞소리를 메기면 여러 사람들이 '에헤 달기호'하고 힘차게 뒷소리를 받으며 지경돌을 들었다가 놓으며 땅을 다진다. 각 과장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집주인을 따라 돌달고, 나무달고를 비롯한 각종 다지기 도구를 가진 30여 명이 달고질을 하면서 들어온다.

(2) 선소리꾼이 '달고질 합시다'를 외치며 달고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들은 뒷소리를 받으며 도구를 들고 달고질을 한다.

(3) 달고질이 끝나면 주춧돌을 놓을 곳에 구덩이를 파고 자갈을 넣으며 여럿이 굵은 작대기로 주춧돌자리를 다진다. 이어 일꾼들은 쉬고 목수가 나와 집의 평면을 표시하는 말뚝을 박고 문짝을 이용하여 집의 방향을 잡아 주추를 놓는다.

(4) 방향잡기가 끝나면 집주인은 고사상을 차려놓고 '조왕조사' 또는 '모탕고사'라는 제사를 지내고 한바탕 잔치를 벌인다.

(5) 흥겨운 잔치를 끝낸 마을 사람들은 선소리꾼의 '집터다지기 달고노래' 선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헤어진다.

달고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에헤~ 달기호
에헤~ 달기호
여보시오~ 군정님네
에헤~ 달기호
번쩍들고 힘껏놓소
에헤~ 달기호
먼데양반 듣기좋게
에헤~ 달기호
목청높여 소리허구
에헤~ 달기호
옆에손님 보기좋게
에헤~ 달기호
석자세치씩 띄워주소

에헤~ 달기호
산지조종은 백두산인데
에헤~ 달기호
평안도로 들어가서
애헤~ 달기호
묘향산이 되었구나
에헤~ 달기호

놀이기구

나무달고, 돌달고, 문짝, 각목, 먹통, 먹줄, 삽, 곡괭이, 굵은장대, 제상, 돗자리, 사발, 잔, 목재, 짜구, 북, 기둥, 자갈, 떡시루, 돼지머리, 쌀, 흰종이, 북어, 막걸리.

자인팔광대

민속극

유래

자인팔광대는 경상북도 경산군 자인면 일대에서 오랜 옛날부터 관행해 오던 자인 단오굿(한장군 놀이의 속칭) 때, 한묘(한장군의 사당) 앞마당에서 놀았던 가면무극이다. 1936년의 단오굿을 마지막으로 일제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자인팔광대는 1969년 단오굿 부활 후에도 한동안 복원되지 않고 있다가 이 고장의 향토 연구자 이종대씨에 의하여 발굴조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이 팔광대놀음은 마지막으로 연희했던 변준이옹의 경험담과 그의 부인, 비상한 기억력을 가진 이씨 할머니의 구술, 아버지가 큰광대였기 때문에 탈의 제작과정과 탈춤의 연습과정을 집에서 보아왔던 고 이정로옹의 딸인 이복순씨, 그리고 이 놀이를 구경했던 여러 촌로들의 구술에 의하여 고증 복원된 것이다.

팔광대놀음의 원류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영남지방의 오광대 원류에 남사당이나 장탈의 영향이 더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특색

팔광대 탈은 원래가 박탈로서 1936년에 새로 만들었다 하는데 그 이유가 '10여년이나 써서 못 쓰게 되어서 다시 만든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봐서 한장군과 관련된 신성가면은 아닌듯 하다. 탈의 제작 전후에 별다른 의식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팔광대를 놀기 전에는 반드시 한묘 앞에서 탈고사를 지내야 하고 또 팔광대들이 단오굿 전체를 주관하였다고 하니 단오굿이라는 전체의 신성의례 속에 포함되었던 것같다.

팔광대놀음의 줄거리는 비교적 단순하고 '마당'이니 '과장'이니 할 만한 놀이판으로 뚜렷히 구분하기 어려운 반면 나오는 춤사위는 다양하고 그 이름도 갖가지다. 춤사위는 덥배기 가락이 바탕인데 다른 탈놀음에설 볼 수 없는 '빨각시의 무지개춤', '유씨부인의 콩지름(콩나물)춤', '병아리춤', '곱사춤' 등이 있다.

구성

팔광대놀음은 뚜렷히 과장을 구분하기 어려우나 대략 8과장으로 나눌 수 있다.

(1) 굿놀이 한마당
(2) 양반과 말뚝이
(3) 빨각시와 양반
(4) 본처와 말뚝이
(5) 본처와 양반
(6) 참봉과 무당굿
(7) 노래와 춤마당
(8) 줄광대 팔광대

내용

자인팔광대는 모든 과장의 단락마다 '쿵망캥캥 후르륵 삣죽'하는 대사로 끝난다.

(1) 굿놀이 한마당

기와 농악기, 사물을 앞세우고 후처, 본처, 말뚝이, 참봉, 곱사, 줄광대, 무당 순으로 나와서 한바탕 춤을 춘다. 굿거리장단에 원을 그리며 광대마다 개성적인 춤사위로 원무를 한다.

(2) 양반과 말뚝이

팔도유람을 하는 양반과 근본은 양반인 말뚝이의 반상시비가 벌어지는 과장이다.

자인팔광대 (경북)



(3) 뺄각시와 양반

말뚝이의 천거로 양반이 신혼과부 독수공방 3년된 뺄씨 낭자에게 새장가를 든다. "사랑해 줄 양기만 있다카만 아들 하나 낳아 줄께요.", "양기야 이팔청춘이지, 고맙네." 양반과 뺄각시의 대사가 사뭇 음탕하다.

(4) 본처와 말뚝이

맨발에 눈이 어두워 허수아비 같은 모습으로 '콩지름춤'을 추면서 허우적거리는 유씨부인에게 말뚝이가 달려가 양반의 소행을 일러 바친다. 헛오줌 누던 본처의 치마를 들치면서 "앗따, 냄시 한번 지독하네"하며 말뚝이가 능청을 부린다.

(5) 본처와 양반

임신 흉내를 내면서 본처 유씨부인이 뺄각시와 함께 있는 양반을 찾는다. 아이를 낳지 못해 천대를 받는 유씨부인이 배속에 박을 넣고 아이를 배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첩질을 하는 영감과 싸운다. 서로 엉켜서 밀고 때리고 하는 차에 유씨부인의 배속에 든박이 떨어진다. 이에 분개한 유씨부인이 넘어져 일어나는 양반을 발로 힘껏 찬다.

(6) 참봉과 무당굿

양반이 쓰러지자 유씨부인이 꼴서방을 시켜 봉사(김참봉)를 불러다가 진맥과 독경을 하고 무당을 불러 무당굿을 한다. 이에 양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본처에게 큰절을 하고 사죄한다.

(7) 노래와 춤마당

모두가 기분이 풀려 한바탕 어우러지는 과장이다. 뺄각시는 권주가를, 본처는 양산도를, 말뚝이는 창을 한다.

(8) 줄광대 팔광대

흥이 난 양반이 말뚝이를 시켜 줄광대 팔광대를 불러 모은다. 줄광대는 줄을 땅바닥에 깔고 줄타는 무언극을 하고, 무당은 모금을 하고, 곱사는 곱사춤으로 줄타는 흉내를 낸다.

줄광대 팔광대 모두 나와 각기 한바탕 춤을 추고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놀이기구

(1) 양반 : 탈, 낡은 도포, 정자관, 부채, 담뱃대.
(2) 본처 : 탈, 낡은 치마, 저고리, 담뱃대.
(3) 후처 : 탈, 푸른 저고리, 홍치마, 손수건, 부채.
(4) 말뚝이 : 탈, 흑쾌자, 흰띠, 전립, 말채.
(5) 줄광대 : 탈, 화랭이 복장, 버선발, 부채.
(6) 봉사 : 탈, 헌 갓, 두루마기.
(7) 곱사 : 탈, 동저고리
(8) 무당 : 탈, 청색쾌자, 전립, 손대, 방울.

비산동천왕매기

민속놀이

유래

천왕매기란 오랜 옛날부터 현재의 대구 비산동 일대 주민들이 '기천왕' '중천왕' '말천왕'에게 정초에 행했던 지신풀이이다. 기천왕은 현재의 북비산 로타리 윗쪽에 있었던 고목이고, 말천왕은 현 비산 3동에 있던 고목이며 중천왕은 비산1동에 위치한 고목이다.

구전에 의하면, 약 400여 년전 대구지방은 계속된 가뭄과 돌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 그로인해 민심마저 흉흉해지자 마을사람들은 '중천왕'자리에 흙으로 당집을 짓고 치성을 드리기 시작했다. 이 치성이 효험을 나타낸 이후부터 마을사람들은 오가는 길목에 있는 당집에 돌을 하나씩 던지는 것으로 치성을 드렸으며 그 돌이 쌓여 조산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해마다 정초가 되면 마을사람들은 몸을 정히 하고 의복을 단정히 하여 제단에 돼지머리, 술, 떡을 차려놓고 천왕기를 높이 들어 천왕제를 계속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특색

천왕매기는 정초에 대내림으로 제관과 독축관을 정하고 음력 정월 대보름 날 행해지는데 '질굿'을 치면서 사당 앞까지 가서 사당문 앞에서 문굿을 치고, 사당에 들어가서 축문을 읽는다. 이때는 일체의 악은 정지되며 제사가 끝나는 즉시 천왕매기로 들어가 신나는 지신풀이가 진행된다. 보통의 지신밟기가 집집마다 돌아 다니며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천왕매기의 지신풀이는 마을굿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천왕굿은 대내

비산동천왕매기 (대구)



림→제관선출(정초)→질굿→문굿→고사독축→천왕매기→판굿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서 '대내림' '판굿'은 농악만의 절차이며, '문굿' '천왕매기'는 지신풀이이고, 고사와 독축은 순수한 유교방식으로, 천왕매기라는 이름을 불교적인 것으로 본다면 천왕굿은 무속(신), 불교, 유교의 종합으로 하나가 된 제의무악으로 볼수 있다.

구성

천왕매기의 구성은 7개의 연행과정으로 되어 있다.

(1) 질굿
(2) 문굿
(3) 대내림(천왕제)
(4) 천왕매기(지신풀이)
(5) 천왕굿
(6) 천왕놀이
(7) 질굿(마을굿)

내용

마을내의 모든 패랭이패가 모여 천왕당 앞문까지 질굿(길굿)을 한다.

천왕당 앞문에 도착하면 쇠의 4채, 8채에 맞추어 문굿의 사설로써 모든 부정과 액과 살을 물리치고 한해의 만복을 기원한다.

문굿이 끝나면 대내림(천왕제)을 시작되는데, 천왕당 문앞에서 3채와 7채의 쇠가락에 맞추어 천왕당 앞까지 가서 2채, 4채, 8채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대내림을 비는 천왕굿을 치면 이때 대끝으로부터 신이 내린다. 이 대가 제관, 축관을 선정하여 천왕제를 지내게 되는데 이때는 축관이 고축한다.

천왕제를 올리고 나면 상쇠의 2채, 4채, 8채 가락에 맞추어 천왕에 대한 지신풀이를 한다. 이는 마을의 모든 병고와 재난을 쫓기 위함이다.

천왕매기 다음은 4채, 8채의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덧베기춤을 추며 소원성취를 비는 천왕굿으로 이어지고 천왕굿이 끝나면 흥겨운 천왕놀이가 시작된다.

천왕놀이는 3채, 5채, 7채를 치면서 천왕님의 둘레를 돈다.

기천왕에서는 한판 다드레기로 끝나고 중천왕에서는 2채, 12채 까지의 다양한 가락으로 덧베기 들놀이를 비롯한 흥겨운 굿판이 벌어진다. 말천왕에서는 모든 패랭이패가 3채, 5채, 7채 가락의 판굿 한바탕을 치른다.

마지막으로 마을사람들의 놀이인 질굿(마을굿)이 시작된다. 이때는 천왕매기의 모든 가락이 동원되고 정적굿, 엎어빼기, 살풀이장단에 어깨춤으로 흥겨운 마을굿판이 된다.

〈천왕문굿 가사〉

소지하니 황금출이요 개문하니 만복래라
생기복덕 날을받아 대문장군 모시거든
천석재수 들어오고 만석재수 왕래할때
손재액살 막아놓고 사업재수 많이주소
천상에는 옥황대문 수궁에는 용궁대문
우리나라 사대문은 남대문이 제일이요
진시황의 만리성문 문장막초 지문이다
—하략—

〈천왕매기 지신풀이 가사〉

남산은 주봉이요 주산은 당산이라
안강은 강산이요 여산은 도읍이라
천간이 착하시니 하늘이 생기시고
지복이 착하시니 땅이 생기셨네
인호 술상하니 사람이 생기셨네
그때 그시절에는 동방문이 열리시고
그때 그시절에는 서방문도 열리셨네
남방문도 열리시고 북방문도 열리셨네
오구제석 천왕문이 사방으로 열리셨네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평안도 묘향산은 대동강이 둘러있고
—하략—

놀이기구

쇠 4개, 징 6개, 대북 10개, 장고 6개, 소고 9개, 양반 1명, 기수 4명 등.

청양동화제

민속놀이

유래

청양동화제는 한 해의 시작을 앞둔 정초에 거행하는 전통적 민속축제이다. 이 놀이는 약 400여 년 전부터 충남 청양군에 소재한 칠갑산을 중심으로 자생하여 정산면, 남양면, 청양읍 등의 몇몇 부락에서 전승되어 왔다.

이 놀이의 시원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에 대항하기 위한 화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마을사람들은 정성들여 목욕재계한 후 산에 가서 나무를 한짐씩 베어다 동아줄로 한둥치씩 묶어 동화대를 세운다. 달이 뜨면 부락신에게 제사를 올리며 마을의 평안과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모든 부정한 것을 불에 태워 액운을 제거한다. 이때 동화가 넘어지는 쪽으로 마을의 재액과 질


청양동화제

환이 나간다고 믿었다.

제사가 끝나면 주민들은 한데 어울려 준비한 음식과 술을 나눠 먹으면서 흥겹게 놀고, 대동단결을 다짐하며 이웃마을과 쥐불싸움을 하면서 하룻밤을 지새운다.

다른 마을에서는 일제의 탄압으로 동화제가 중단되어 자취를 감추었으며 현재는 송학리에서만 이어오고 있다.

특색

이 놀이는 소원성취를 위한 기원을 담은 나무타령, 지게춤 등의 놀이를 통해 촌락구성체의 공동체 정신을 구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놀이에 포함된 나무타령, 나무노래, 지게춤 등은 전통민요 발굴·보존의 측면에서 의의있는 일이다.

청양동화제는 온 주민이 합심하여 동화대를 불태우면서 불의 신력으로 모든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구성

(1) 입장
(2) 동화대 만들기
(3) 제사
(4) 놀이
(5) 퇴장

내용

(1) 입장

농악과 함께 용대기, 농기, 영기, 오방기를 앞세우고 제관과 제물을 머리에 인 아낙네와 상송, 하송, 비봉 3개 부락 주민들이 나무를 한짐씩 지고 흥겹게 입장한다.

(2) 동화대만들기

농악이 울리면서 주민들은 지게에 지고 온 나무를 한데 모아 여럿이 선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동아줄로 묶어 동화대를 만든다.

동화대가 마련되면 주민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가시나무짐을 세운 후 넘어지지 않도록 작순대(받침목)로 고정시켜 놓는다.

(3) 제사

동화대 앞에 정성스레 제물을 차린 후 달이 떠 오르기를 조용하게 기다린다. 달이 뜨면 먼저 촛불에서 점화한 횃불로 동화대 상단에 불을 올린 후 제를 드린다.

(4) 놀이

축제가 끝나면 농악을 울리고 춤을 덩실덩실 추며 일년 열두달 좋은 일만 있어 달라고 마음 속으로 기원하며 동화 주위에서 흥겹게 여러가지 놀이를 한다.

①지게가마타기

3개 부락민들은 지게 2개를 겹쳐 지게가마를 만든다. 지게가마에 한사람 씩 태우고 선소리에 따라 후렴을 합창하며 동화 주위를 원을 지어 돌고 뒤따라 오는 사람들은 지게를 지고 작대를 치며 춤을 춘다.

②지게타기

원을 지어 놀다가 몇몇 사람들은 지게타기 묘기를 부린다. 이때 지게춤을 추며 재미있는 노래를 부른다.

〈지게춤 추며 하는 소리〉

(후렴)
아하헤 헤에야 헤헤헤야 에헤헤야
홍두깨 박달나무 비단같은 전나무
죽어도 살구나무 버선끝에 상모나무
악마구리 복사나무 오목다리 오목나무
등등에 모가나무 마주섰다 은행나무
덜덜뜨는 사시나무 넓적앉자 줄나무
말라빠진 살대나무 입맛없다 쑥나무
오자마자 가재나무 입설같은 명조나무
할수없이 가야나무 시집갈때 가마나무
빠르기 화살나무 방귀뀌며 뽕나무
전기상태 수기나무 부끄러워 무안나무

③휘장돌기

지게춤(어깨춤, 지게목발치기, 작대기치기)을 추며 원을 좁혔다 넓혔다 하면서 휘장돌기를 한 후 부락별로 지게로 봉을 쌓는다. 이어서 전주민이 하나로 합쳐서 지게봉을 쌓아 마을의 행운과 총화를 다지며 놀이의 절정을 이룬다.

(5) 퇴장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흥을 아쉬워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멸 물러나면 동화제는 끝을 맺는다.

놀이기구

용대기, 영기, 오방기 등의 농기, 동화대 등.

마산농청놀이

민속놀이

유래

농청놀이는 삼한(지금의 마산·창원지방)시대의 공동체인 두레의 유흥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해온다.

마산시 봉암동에 있는 반용산 주령에는 산세가 웅장하고 유곡이 길게 뻗힌 어복곡이 있는데 이곳에는 상투바위, 상사암, 무지개웅덩샘, 약수정 등 신화와 전설을 담은 명소가 많이 있다. 약수정의 금근수(金根水)는 조청과 함께 섞어 마시면 오래된 속병이 치료되며 무지개웅덩샘에서 목욕하면 질병 예방과 치료의 효험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의 농부들은 세벌논매기를 끝낸 음력 7월 15일(백중)에 각각의 농청기를 앞세우고 모여들어, 신령이 나타나 신험이 크다는 상투바위를 향해 대풍년과 자손번영, 관재와 구설을 막고 전염병을 없애주기를 기원했다. 상투바위 앞의 자리를 먼저 차지하여 축원하면 큰 덕을 얻는다는 믿음에서 자리다툼의 한 형태인 기싸움을 벌인 것이 마산농청놀이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특색

마산농청놀이는 패기만만하고 격렬한 기싸움으로서 기복종교의식이 반영된 놀이이다. 두레끼리 격렬히 다투다가 승패가 결정되면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소탈한 인정을 서로 베풀며 화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구성

(1) 기제

(2) 쟁기전

농청놀이



(3) 축원

(4) 흥취와 회향

내용

(1) 기제

구강 농청패와 봉정 농청패가 각자의 마을 앞에서 기제를 올린다.

(2) 쟁기전

각자의 마을 앞에서 기제를 올린 후 좌상(두령)의 호령에 따라 일제히 환성을 지르며 상투바위를 향해 올라간다.

양쪽 마을의 농악패, 아낙네들은 악기와 제물들을 모두 내려놓고 한 패는 자기편 기를 지키고 한 패는 상대편 기를 꺾으려 달려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다. 마침내 어느 한쪽 깃발이 풀어지고 깃대가 쓰러지면 이긴 쪽은 환성을 지르며 상투바위 앞에 기를 꼽고 자리를 잡는다. 이긴 쪽의 농악패는 진 쪽을 달래서 아래쪽에 기를 세우게 하고 합류한다.

(3) 축원(聖神宣告)

상투바위 앞에 초군들이 메고 온 짚자리를 펴면 아낙들은 이고 온 음식을 차려 촛불을 켜고 부정을 친다. 소시종이 불을 올리면 이긴 편 좌상이 성신선고를 유창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제히 엎드려 축원한다.

축문이 끝나면 음식을 서로 나누어 권하며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인정을 나눈다.

(4) 흥취와 회향

초군들은 각 농청의 역사가 나와 힘을 겨루는 등대밀기, 닭머리잡기, 몸통줄다리기 등 갖가지 놀이를 즐긴 후에 양편이 서로 화동하는 춤판을 벌인다. 춤판이 끝나면 상투바위 앞에 몰려가 고별인사를 하고 '쾌지나칭칭'의 노래를 부르면서 각자의 동리로 돌아간다.

놀이기구

죽고동, 농청대기, 농청소기, 짚자리, 농악기 등.

동래고무

민속무용

유래

동래고무(鼓舞)는 고려시대 초기 궁중여악을 관장했던 교방청의 여기들에 의해 추어졌던 향악정재의 하나인 고무가 동래감영으로 전해지면서 지역명을 따 '동래고무'라는 명칭으로 전래되어 온 일종의 북춤이다.

문헌상에 나타난 북춤의 유래를 살펴보면, 고려 충렬왕(서기 1274~1308)때 대중이란 벼슬을 지냈던 이혼이란 사람이 영해섬에 귀향살이를 하던 중 바다로 떠 내려온 뗏목으로 북을 만들었는데 그 소리가 크고 뛰어났다. 그는 이어 북에 걸맞는 춤을 고안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북춤이 되었다 한다. 그 춤추는 모양은 즐겁게 하늘거리며 나는 한쌍의 나비가 꽃을 감도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마리의 용이 서로 구슬을 빼앗으려고 용감하게 다투는 모습같기도 했는데 악부에서도 가장 기묘한 것이라 하였다.(장사훈, 한국전통무용연구, 일지사)

위의 기록에서 보면 북춤, 즉 고무는 이혼이라는 사람에 의해 비롯되었고 아름다운 두 여인이 추는 춤의 무태 또한 화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 시절 무고는 2고무, 4고무, 8고무 등 그 때 그때 상황의 변동에 따라 북의 수와 무원을 조절하였다 한다.

한편 고려사 악지 '속악조'의 기록에는 이혼에 의해서 시작된 북춤은 고려대를 거려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행한 것으로 나와 있다.

북춤은 궁중뿐 아니라 행사시에는 지방 관아의 교방에서도 추어졌는데 1905년 영문이 혁파되자 교방청도 폐지되어 그곳에 예속되어 있었던 기녀들도 해체되었다. 그러나 경술국치 이후 1920년 경에 처음으로 권번이 창설되면서 동래와 봉래에도 개설되었다. 그 당시 동래권번에서는 동래감영에서 행해왔던 고무와 검무를 비롯한 민간전래의 승무, 굿거리춤, 장끼춤 등을 추었다고 한다.

그후 동래고무는 해방직후까지 추어져 왔는데 권번이 폐지되자 고무도 중단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특색

궁중무고의 영향을 받아 춤이 품위가 있고 장중한 편이다.

동래지방은 온천을 끼고 있고 옛날부터 색향인 까닭으로 춤사위가 세련된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지니고 있다.

춤의 구성은 비교적 단조로운듯 하면서도 변화가 있는 것이 특색이다.

구성

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머리사위

북채를 쥐기 위해 한쪽 팔을 번갈아 가며 차례로 머리 앞을 스치며 지석거리는 춤사위로 머리사위에는 앉아서 하는 앉은머리사위와 서서하는 선머리사위가 있다.



동래고무 (부산)

(2) 뿌림사위

한삼을 몸 바깥으로 뿌려 허리를 감거나 어깨위로 올려 뿌려서 내리는 몸놀림으로 한삼놀림형태의 춤사위다.

(3) 맞춤사위(상대무)

두 무원이 서로 마주서서 얼르는 춤사위다.

(4) 옆실이

두 무원이 각각 한 손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감고 한 손으로는 뿌림사위를 하면서 옆으로 도는 춤사위다.

(5) 평사위

양팔을 한일자로 펴서 춤을 추며 앞으로 나갔다 뒤로 물러났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춤사위다.

(6) 팔자사위

한 손으로 북을 친 후 양팔을 들어 얼굴 앞에서 한데 모아 팔자 형태를 만들어 지석거리는 춤사위다.

(7) 북춤사위

'지화자'를 가창하면서 북을 치는 춤사위다.

(8) 인사태

앉아서 조용히 절하는 춤사위다.

내용

4인의 무원들이 중앙에 큰북을 놓고 영산회상곡에 맞추어 느린 디딤으로 나와 서로 자리를 옮겨가며 북을 치면서 춤을 춘다. 그 뒤 자진타령으로 바뀌면 4인의 협무가 나와 '지화자'를 가창하면서 무원과 함께 춤을 춘다.(일설에는 원래 협무는 춤을 추지않고 노래와 발림만 하였다고 한다). 이 때 협무는 노래와 말림을 주도하면서 원무를 보좌한다.

놀이기구

(1) 반주악곡

잔영산, 염불, 도도리, 타령, 군악의 순으로 삼현육

각으로 영산회상곡을 연주한다.

(2) 복색

원무는 홍치마, 연두저고리, 연두색원삼, 족도리, 색동한삼, 북채를 소지한다. 협무는 홍치마, 연두저고리를 입는다.

(3) 큰북

직경 80㎝정도의 북에다 붉은 천을 둘러서 네모진 북틀에 건다.

서울십이지 풍물놀이

민속놀이

유래

농악은 축원형태, 소작형태, 건립형태로 구분되어 전래되어 왔다. 이중 건립형태의 농악은 중부 이남지방에 발달되어 있으며 정월 한달 내내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며 동네의 안녕을 빌어주는 의식으로 훌륭한 솜씨를 마음껏 보여주고 그 댓가를 받아 마을의 공익사업에 썼고, 연예단체는 자기들의 생계 유지 수단으로 하였다. 특히 서울에는 각지로부터 많은 걸립패가 들어와 곳곳에서 각기 기량을 뽐내며 기예를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12지의 탈을 쓴 농악대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12지 풍물놀이가 언제 어디서 처음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특색

다른 풍물놀이패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잡색 중에 12지에 나오는 동물들의 탈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 12지 탈의 등장은 1년 세시 내내 집안의 무사태평과 생기복덕을 기원하는 의미로 보인다.

구성

이 놀이는 다음의 8과장으로 구성된다.

(1) 성황굿
(2) 우물굿
(3) 문굿
(4) 성주굿
(5) 조왕굿
(6) 터주굿
(7) 고방굿
(8) 마당굿

내용

놀이패가 불려오면 먼저 성황굿을 시작으로 과장의 순서대로 굿을 진행한다. 집안의 안녕을 위해 구성진 고사풀이를 하면 집주인은 많은 음식을 차려 놀이패의 흥을 돋는다. 집안에서 한바탕 굿놀이가 끝나면 집밖 마당에서 구경온 동네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기예를 총동원하여 보여주는데 흥이 고조되면 동네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밤새도록 신명나게 논다. 각 과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황굿

걸립패는 동네에 들어오면 용기와 영기를 앞세우고 성황당을 빙글빙글 돌며 가락을 울리며 신에게 고한다. 부정을 물리치는 굿을 하고나면 걸립패는 모두 당을 향해 인사를 드리고 신을 받아 당을 떠난다.

(2) 우물굿

마을 영기의 인도로 공동우물로 가면 치배들은 우물을 둘러서서 상쇠의 덕담으로 1년 내내 항상 맑은 물이 철철 넘치도록 기원하며 빠른 가락의 굿을 한다.

(3) 문굿

우물굿에 이어 문굿이 시작되는데 "들어가오 들어가오 만인간 들어가오 문여시오 문여시오 수명장수 들어가오"하며 만복과 재화가 대문을 통해 가득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상쇠의 굿풀이에 이어 일행이 문안으로 춤을 추며 들어가면 주인이 나와 반갑게 맞이한다.

(4) 성주굿

집안 마당에서 성주대신의 덕망으로 가내 무사 태평하기를 기원하는 구성진 고사 덕담이 나오면 집안 가솔이 모두 나와 합장 인사하며 복과 덕을 청한다.

(5) 조왕굿

부엌은 식생활을 관장하는 중요한 곳이므로 조왕사발 올려놓고 구석구석 굿을치며 부정이 없도록 빌고 생기복덕을 기원한다.

서울 12지풍물놀이 (서울)



(6) 터주굿

놀이패가 터주가리 앞에서 농악을 치고나면 모두 '누르세 누르세 터주지신 누르세'하는 소리를 하며 땅을 꼭꼭 밟아준다.

(7) 고방굿

다음에는 광으로 가서 광에 쌓인 많은 곡식에 감사하며 금년에도 대풍년이 들어 곡식이 가득 쌓일 것을 기원한다. 치배들은 구성진 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며 집안 식구들, 동네사람들과 어울려 흥겹게 논다.

(8) 마당굿

이집 저집 돌고나면 해질 무렵에 동네마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동네의 안녕과 무사태평, 복을 빌고 신명나게 한데 어울려 마음껏 뛰고 즐긴다. 놀이 전체를 통하여 가장 흥겨운 뒷풀이이다.

놀이기구

호적, 쇠, 북, 징, 장고, 소고, 용기, 영기, 12지, 동물의 탈 등.

고창임리당산제

민속놀이

유래

전라북고 고창군 신림면에 위치한 임리마을은 농촌마을로서 구전되는 지명은 숲마을이라고 한다.

옛부터 이 마을에서는 까닭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늘 불안에 떨었다. 더구나 1700년 경에는 대화재가 일어나 마을이 모두 불타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때 도를 터득한 승려가 나타나 이르기를, 마을에서 멀이 바라다 보이는 이웃 면인 부안면 운양리 뒷산인 화실봉의 화신들이 숲마을을 헤치려고 불을 뿜어대는 까닭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니 이 화재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매년 제사를 모시라고 하였다.

이 때부터 주민들이 화신의 재앙을 막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모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색

임리당산제는 단순히 제사로 끝나지 않고 줄다리기가 곁들여진 점이 재미있다.

제사가 화신의 재앙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진다면 줄다리기는 다른 지방의 줄다리기와 마찬가지로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 주민들의 단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

구성



고창임리당산제 (전북)

임리당산제는 다음의 4과장으로 구성된다.

(1) 솟대 갈아세우기

(2) 당산제

(3) 줄다리기

(4) 옷입히기

내용

보통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마을의 전체 주민이 참여하여 정성껏 지내게 된다. 마을 제전위원회에서 제사를 지나는 14일 일진에 생일복덕일이 되는 남자들 중에서 제주와 화주, 축관을 선정한다. 소나무를 베어다가 솟대를 만들고 나무로 오리를 조각하여 솟대에 꽂고 천룡제와 앞당산(오리 솟대) 두 곳에서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낸 후에는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줄다리기를 한 다음 여자 줄부터 오리솟대에 감는다. 즉 오리솟대는 이곳에 물이 있음을 암시하고 줄은 용을 상징하며, 용은 물에 살기 때문에 바다를 상징하므로 솟대 꼭대기의 오리는 바다위에 떠서 불로부터 마을의 재난을 막는다는 의미이다.

각 과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솟대 갈아세우기

정월 13일 밤에 채목꾼들이 산에 올라가 곧게 자란 소나무 세그루를 베어다 솟대를 만들고, 나무로 만든 오리 조각을 얹어 묵은 것과 갈아세운다.

(2) 당산제

당산제는 천룡제와 앞당산제로 구분한다. 천룡제는 마을 뒤에 있는 다섯그루의 소나무에 위치한 이 마을 수호신의 주신에게 드리는 제사이며 오리솟대가 있는 앞당산제는 수호신의 부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이다.

그래서 천룡제는 첫닭이 울기 전에 제사를 마쳐야 하고 앞당산제는 첫닭이 운 다음에 지내게 된다.

(3) 줄다리기

당산제를 지낸 후, 줄을 어깨에 메고 농악을 치며

마을을 돌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바탕 즐겁게 놀이가 끝나면 두개의 줄이 서로 고를 잇고 남과 여로 나뉘어 줄다리기를 하는데, 여자가 이기면 풍년이 들고 평온과 복이 깃든다 하여 결국은 여자가 승리하게 된다.

(4) 옷입히기

줄다리기가 끝나면 솟대에 옷을 입히는데 암줄부터 부신이 온몸을 감기 시작한다. 이때는 마을 사람들이 특유의 '아듀우 호호'를 연창하면서 줄을 점점 빠르게 감아간다. 암줄이 다 감기면 다음에 숫줄이 이어진다.

감은 줄은 다음 해의 당산제 날이 오기까지는 솟대를 휘감은 채 멀리 화실봉의 화신이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지켜준다.

지금도 이러한 행사가 끊이지 않고 그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놀이기구

세 그루의 소나무로 만든 솟대 위에 나무로 조각한 오리를 얹어 사용하며 암룡과 숫룡을 상징하는 두 줄을 꼬아 줄다리기에 쓴다. 이 줄은 다른 지방의 줄보다 두껍지 않다.

떼몰이놀이

민속놀이

유래

이 놀이는 제주도의 토속굿인 '영등굿놀이'에서 유래된다.

영등굿은 제주도 해안 일대의 마을에서 행하는 세시풍속으로, 어부와 해녀들의 해상안전과 생업의 풍요를 비는 굿이다. 영등신에 대한 민간신앙에서 비롯되어 생업 환경 속에 융해된 것이 바로 떼몰이놀이이다.

특색

제주의 떼배와 같은 유형의 배는 역사적으로 볼 때 기원전 5천~6천년부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아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다.

제주에서는 한라산 기슭에서 자생하는 구상나무를 음력 3월 중에 인일을 택하여 베어다가 떼배를 만들었다고 한다. 다른 나무는 부력이 좋지 못하여 쓰지 않았지만 구상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현재는 삼나무를 대신 쓴다. 제주도 토속굿인 영등굿의 여러 의식이나 놀이 중에서 이 떼몰이놀이가 특별히 행해지고, 오늘날 재현되는 것은 제주도 해안마을에서 지금도 떼배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제주도의 해안은 거의가 암초지대여서 자연항구나 포구의 발달이 취약하고, 매년 풍파가 심하여, 이런 지리적 여건에 맞는 보다 안전한 수단이 필요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서 풍랑에도 구조선보다 안전하고 휴어기에는 해체하여 보관할 수 있는 이 떼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떼몰이놀이는 놀이로서뿐만 아니라 제주 어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구성

(1) 영등굿의 구성

①초감제
②본향 듦
③요왕맞이
④씨드림
⑤도액막음
⑥배방선

위에서 영등굿의 마지막 과정인 '배장선'에서 약마희가 행해진다.

(2) 떼몰이놀이 구성

①출발

떼배에 퇴송선을 싣고 징소리에 맞추어 바다 가운데로 출발.

②경주
③퇴송선 띄워보냄
④시상 및 춤판

내용

영등굿의 액막이 순서가 끝나면 각 가호의 남정들은 제물을 조금씩 나눠 실은 퇴송선을 대무에게서 받아들고 출발을 기다린다. 대무가 출발신호로 징소리를 크게 울리면 떼배들은 앞을 다투어 포구를 빠져나간다. 배 위의 남정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저어가고 포

떼몰이놀이 (제주)



구에선 선주와 동네 사람들의 함성이 더욱 고조된다. 경주하는 떼배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동안 포구에서는 자기네 떼배가 장원하여 올해 운수대통하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기원이 담긴 응원을 보낸다.

풍향과 조류가 우도 쪽으로 흘러 퇴송선이 떠내려가기에 좋은 지점에 이르면 대무는 정지신호를 보내 경주를 끝낸다. 대무가 장원한 배를 발표하면 선주와 동네 사람들의 함성이 다시 터진다.

떼배에서 일제히 짚배(퇴송선)를 바다에 띄워보내면, 짚배는 강남천자국으로 떠내려간다. 장원한 배를 선두로 일행이 포구로 돌아오면, 장원한 배의 선주는 장원기를 수여받는다.

이들은 모두 대무와 함께 어울려 춤을 추다가 춤판이 끝나면 관중에게 인사하고, 주제기를 선두로 퇴장한다. 여기서 영등굿 전체가 끝나게 된다.

놀이기구

(1) 떼배(실제 사용되는 떼배를 쓴다)

(2) 퇴송선(짚으로 엮어 용마형으로 만들고 길이 50센티 정도로 한다)

(3) 기타(영등굿에서 사용한 기물과 도구를 그대로 쓴다)

소촌농악

농악

고려초 약1000년전 청주한씨가 터를 잡고 오래 세거 하였으며 그뒤 중종 5년 1510년 충주박씨 눌제 박상의 차자 진사 박민중이 입주 470여년간을 세거하고 있었던 집성마을로서 정확한 농악의 유래를 알 수 없으나 조선조 중엽부터 마을의 안녕과 건승을 기원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자생한 농악놀이로서 당산굿과 같은 마을굿에서 발생하여 마당밟이굿, 매구굿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며 마당밟기 굿에서 마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걸궁굿이 발생한 것같고, 걸궁굿과 매구굿에서 판굿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 무용적 특징

(1) 진법 : 무진법이 다양하며 8자진과 같은 진법이 특이하다.

(2) 교체식 연주무용 : 상쇠와 부쇠, 쇠군과 장고잽이들이 이른바 "짝드름" 이라는 교체식 연주무용을 한다. 예로써 상쇠가 쇠를 치면 부쇠는 그 쇠를 받아치고 상모놀이를 한다. 다음은 부쇠가 새로운 쇠가락을 치면 상쇠는 이것을 받아치면서 부포놀이를 하는것이다.



소촌농악 (광주)

(3) 굿의 종목 : 들당굿과 날당산굿, 길굿, 성주굿, 천룡굿, 샘굿등이 있다.

(4) 연극적 요소 : 다른 지방에 비하여 잡색 수가 많으며 그 잡색들이 가면을 쓰고 노는 것이 특징이다.

(5) 무용적 요소 : 쇠군들의 상모놀이가 다양하고 장고놀이가 우세하며 소고놀이가 멋이 있다.

나. 음악적 특성

전반적으로 호남우도 농악에 속하나 굿의 가락이 다른농악 보다는 약간 느리고 오채굿과 호호굿의 가락은 특징적이며 벙어리 오채가락은 좀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농악에 사용되는 악기는 꽹과리 (쇠), 징, 장고, 북, 피리, 소고등으로 되어 있고 농기와 령자를 쓴 영기한쌍위에 열거된 악기를 치는 사람과 잡색이라 해서 대포수, 양반, 할미, 각시, 조리중등 4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상쇠, 부쇠를 제외한 전원이 흰 복장에 상의는 남색 깃을 달고 신은 짚신을 신으로 화려한 고깔을 쓰고 3색때를 두르는 것이 특징이다.

가. 악기및 악구

광산구 소촌 농악에 쓰이는 악기는 악기는 꽹과리, 징, 장고, 북, 소고, 나팔등이 있다.

(1) 꽹과리 : 괭매기 또는 매귀하 하며 4개를 쓴다. 꽹과리잽이는 쇠꾼이라 하며 기량에 따라 상쇠, 수종쇠, 셋째쇠, 중쇠 등으로 부른다.

(2) 징 : 쟁이라하며 2개를 쓴다. 징잽이는 쟁수라 하여 기량에 따라 설쟁 또는 수쟁, 부쟁으로 부른다.

(3) 장고 : 장고라하며 4개를 쓴다. 장고잽이는 장고쟁이라 하며 기량에 따라 설장고, 부장고, 중장고, 종장고로 나눈다.

(4) 북 : 통북이라 부르며 2개를 쓴다. 북쟁이는 통북쟁이라 부르며 설북과 부북으로 나눈다.

(5) 소고 : 밀북이라 부르며 10-16개를 쓴다. 소고잽이는 밀북쟁이 혹은 고깔 북쟁이라 부르며 기량에 따라 설북, 부북, 삼북, 사북, 오북,…… 종북이라 부르기도 하고 설벅구, 부벅구, 삼벅구, 사벅구, 오벅구, … 종복구라 부르기도 한다.

소촌 농악에 쓰이는 기구에는 영자를 쓴 영기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농기가 있다. 영기의 깃대는 영태, 삼지청은 삼두창, 깃발은 선이라 부른다. 삼지청 밑에는 영탈이라 하여 종이로 가늘게 여러가닥 오려 상모와 같이 단다. 영자는 검은색이고 기폭은 흰색이며 깃발은 남색으로 한다고 한다.

진행 순서

광산구 소촌 농악의 진행 순서와 놀이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가. 연주순서

(1) 문굿

(2) 당산굿

진굿(질굿)→인사굿→개인놀이→짬드름과 인사굿

(3) 샘굿

(4) 들당산굿(풍류굿)

오채질굿→구정놀이(개인놀이)

(5) 마당밟기

마당굿→고사반(고사굿)→성주풀이→액 맥이, 중천맥이→정재굿(부엌굿)→철용굿, 섞음굿

(6) 날당산굿

(7) 판 굿

오채꿋→늦은 벙어리 삼채→오방진→일이삼채굿(재냉기굿, 파싹굿)

→콩똥지기→호호굿(열두마치굿)→구정놀이(개인놀이)→노래굿→줄굿

송포호미걸이

민속놀이

유래

우리나라에는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 이미 철기문화가 전래되어 농경생활이 정착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여러 부족국가에서는 풍작을 기원하는 제천의식이 성행했는데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등의 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삼한시대부터는 철의 생산과 더불어 수전농업이 발달하고 철제 농기기웨 의한 농경법이 개발되어 5월의 단오제나 10월의 계절제(상고제) 같은 제천행사가 열렸다.

이때부터 마을 단위의 공동노작인 두레가 형성되고 두레농악이 발생하였다. 한강 하류에 위치한 지금의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지방에서는 매년 여름 홍수로 인한 한강의 범람으로 재해가 잦았다. 이러한 자연조건 때문에 재해 방지를 위한 제천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마을축제로 발전한 것이 호미걸이로 전승되어온 것이다.

특색

이 놀이는 무엇보다도 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몇몇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대동회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특징이 있다.

논농사는 두벌김을 매고나면 풍흉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 두벌김매기가 끝날 무렵 두레패의 조사로 풍작이 예상되면 무사히 추수하기를 바라고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마을축제를 벌이자고 발의한다. 마을의 영좌는 이러한 건의를 마을 전체의 대동회의에 부쳐 합의한다. 그리고 칠월 칠석을 전후하여 호미걸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호미걸이는 애초에 제천의식에설 발생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마을 공동오락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놀이 중에, 그해 가장 농사를 잘 지은 머슴을 선발하여 초계관을 씌워주고 삿갓으로 일산을 받쳐주며 소를 태워 격려해주는 모습도 특이하다.

구성

송포호미걸이는 다음과 같이 4부분의 행사로 구성된다.

(1) 상산제

도당산에 올라가 제일 큰 소나무를 도당나무로 정하

송포호미걸이 (경기)



고 마을의 영좌(연장자)가 제사를 지내며 호미걸이를 시작한다.

(2) 대동제

놀이마당에서 마을의 입심좋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덕담을 하면서 고사를 지내고 마을의 부녀자들은 모두 합장반 절을 하면서 무사태평과 풍년을 기원한다.

(3) 대동놀이

이웃 두레패맞이, 기절받기, 기수선발, 깃대재주부리기, 종기돌리기, 호미걸이소리창 등으로 이뤄진다.

(4) 유가제

두레패의 가호방문.

내용

풍작이 예상되는 시기에, 호미걸이를 하자는 발의에 따라 마을 전체 대동회의에서 의견합의를 보게되면 칠월 칠석 전후로 호미걸이를 하기로 한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은 호미걸이를 하기 위한 기구와 음식을 자발적으롤 정성껏 준비한다.

놀이 당일날 상산제로부터 행사가 시작되는데, 상산제란 마을 가운데 있는 야산인 도당산에 올라가서 도당나무를 정해놓고 마을 영좌가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상산제가 끝나면 부녀자들의 의식인 대동제를 올린다. 대동제에서는 연장자격인 할머니가 놀이마당에 음식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면 나머지 마을 부녀자들이 따라 하게 된다.

부녀자들의 고사가 끝나면 이웃 두레패를 맞이하여 기절받기를 주고받는다. 두레패는 연조의 선후를 존중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후배 두레패는 반드시 선배 두레패에 대해 기절로러 예의를 표해야 했다. 기절받기가 끝나면 각종 놀이가 행해지는데 이때 온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춤마당을 이루었다.

대동놀이가 끝나면 두레패가 떼를 지어 집집마다 돌면서 집안의 무사태평을 빌면 주인은 음식을 대접하는데 이것을 유가제라고 한다. 유가제를 마치면 호미걸이도 막을 내리게 된다.

호미걸이에는 열가지 가락의 호미걸이 소리가 불려지는데 긴소리, 사두어, 양산도,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놀놀이, 상사디야, 훨훨이로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몸돌려가락으로 맺는다.

놀이기구

제삿상, 의관, 농악기(꽹과리, 장고, 북, 징, 호적, 소고), 지게, 영기, 필목, 농우, 기타 복색 등.

홍천물통방아놀이 (강원)



홍천물통방아놀이

민속놀이

유래

홍천물통방아놀이는 태백산맥의 배후에 위치한 공작산, 오음산 등 1,000미터 이상의 험준한 산간지방에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이 힘든 일손을 덜기 위해 슬기를 모아 생활하던 한 장면을 민속놀이로 재현한 것이다.

우리의 방아문화는 절구통에서 시작하여 발방아, 물레방아, 연자방아, 기계방아로 발전해 왔는데 이 물통방아는 화촌면 구성포리, 동면 노천리 등 물이 적은 산간마을에 많이 존재하였다.

특색

이 물통방아놀이는 전통농요를 중심으로 노동의 즐거움과 풍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물통방아는 방아의 체대와 물통이 한데 붙어있다는 구조상의 특징이 있으며, 총길이는 대형이 약 15자 정도이고 이중 체대는 8~9자 정도, 방아공이는 2~2.5자 정도이며 물통은 길이가 4~5자 정도, 폭은 대개 2자가 넘는다.

구성

이 놀이는 다음의 4과장으로 구성되었다.

(1) 제 1 과장 : 운목

(2) 제 2 과장 : 귀새설치, 물통방아 제작

(3) 제 3 과장 : 물대기, 방아찧기

(4) 제 4 과장 : 한마당놀이

내용

(1) 제 1 과장 : 운목

귀새를 팔 통나무를 운반하는 과정이다. 선소리에

맞춰 후소리를 받으며 발을 맞춰 통나무를 운반하는데 길이 험한 곳은 느리게, 평지는 빠르게 소리를 한다.

운반조가 통나무를 운반하는 동안 타작마당에서는 타작소리에 맞추어 곡물을 타작하여 가마니에 담는다. 물통방아 설치 예정장소에서는 방아확을 파고 농악조는 타작마당에서 타작이 끝날 때까지 농악을 한 뒤 귀새파기 장소로 이동한다.

(2) 제 2 과장 : 귀새설치, 물통방아 제작

목도로는 운반한 통나무를 이용하여 귀새를 판다. 이때 귀새파기 선소리를 주며, 귀새파기 인원은 후소리를 받으면서 질서있게 동시에 움직인다.

농악조는 귀새파기 시작부터 설치가 끝날 때까지 힘을 북돋우기 위해 후소리에 맞춰 흥을 돋운다.

타작조는 타작된 곡물을 물통방아 설치장소로 운반하고 풍년가를 부르면서 물통방아를 조립한다.

귀새파기조는 2개조로 구분하여 물통방아가 설치되는 곳에 맞춰서 물이 내려가도록 받침대를 세우고 귀새를 설치한다. 귀새설치가 완료되면 방아제작조와 귀새파기조가 방아집 주위를 원을 그리며 돌면서 방아의 이상유무를 살핀다.

(3) 제 3 과장 : 물대기, 방아찧기

방아제작과 귀새설치가 완료되면 방아의 무사운행과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최고령자가 제주가 되어 축문을 고하면 집사는 잔을 방아머리게 붓고 실을 방아공이에 잡아 맨다.

고사가 끝나면 물을 대는데 물이 흘러 방아가 움직이면 일동은 환성을 울리며 춤을 춘다. 곧이어 곡물을 방아확에 넣어 찧기 시작한다.

(4) 제 4 과장 : 한마당놀이

일하던 도구를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풍년가를 부르면서 농악에 맞추어 신명나게 춤을 춘다. 한마당놀이가 끝나면 원을 그리고 놀던 상태에서 관중을 향하여 큰절을 하고 원을 풀면서 기수를 선두로 서서히 퇴장한다.

귀새파기선소리, 목도소리, 풍년가의 가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귀새파기 선소리

어화세상 벗님네야 에야톱질이야
이내말좀 들어보소 에야톱질이야
이내소리 주는대로 에야톱질이야
젖먹는 힘을 다해가며 에야톱질이야
슬적슬적 당겨주소 에야톱질이야
—중 략—
두메 배골 생겼으니 에야귀새파기
절골을 들어가니 에야귀새파기
번개석이 보이누나 에야귀새파기
해가뜨나 달이뜨나 에야귀새파기
일구월심 비는마음 에야귀새파기
—하 략—

(2) 목도소리

허저 허이 허정차 허이 허정차 허저 허이
나무가 어디서 왔나 허정차 허저 허이
공작산 제일봉에 허정차 허저 허이
낮이면 일광을 타고 허정차 허저 허이
밤이면은 이슬을 먹고 허정차 허저 허이
낙락장송 되었다가 허정차 허저 허이
만인간의 힘을 빌어 허정차 허저 허이
화양강을 나왔도다 허정차 허저 허이
이나무를 끌어다갈 허정차 허저 허이
—하 략—

(3) 풍년가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강산에 으뜸이 풍년이 왔네
(후)지화자 좋다 얼씨구 좋다
명년 춘삼월에 화전놀이를 가자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연년이 풍년이 금수강산으로 돌아오네
(후)지화자 좋다 얼씨구 좋다
명년 하사월에 덤불놀이 가자
천하지대본은 농사밖에 또 있느냐
노지를 말고서 일심받아서 농사를 하자
(후)지화자 좋다 얼씨구 좋다
명년 오뉴월에 말복놀이 가자
—하 략—

정월대 보름과 단오절의 씨름대회는 프로경기로 자리잡았다.



30

제3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9. 9. 28 ▶ 9. 30

마산

제30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89. 9. 28.－9. 30.
마산

대통령상
안성남사당풍물놀이 (경기)－농악
국무총리상
상주민요(경북)－민요
문공부장관상
인천주대소리(인천)－민요
청주웃다리농악(충북)－농악
고흥한적들노래(전남)－민요
감내게줄다리기(경남)－민속놀이
총각대방놀이(충남)－민속놀이
장려상
동김녕리해녀노래(제주)－민요
황해도민속범몰이(황해)－민속놀이
광산구마륵농악(광주)－농악
미수상 참가작
서도소리, 제석방아찧기(평남)－민요
신창탈놀이(함남)－민속놀이
구정대보름놀이(함북)－민속놀이
마산농청놀이(경남)－민속놀이
영변성황대제(평북)－민속놀이
수영농청놀이(부산)－민속놀이
금척무(전북)－민속무용
고성명파돌다리놓기(강원)－민속놀이
송파백중놀이(서울)－민속놀이
대구공산민요(대구)－민요
공로상
수영농청놀이(부산)
대구공산민요(대구)
고성명파돌다리놓기(강원)
송파백중놀이(서울)
금척무(전북)
개인상
장종실(영변성황대제, 평북)
김기복(안성남사당풍물놀이, 경기)
윤문순(수영농청놀이, 부산)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농악

유래

안성의 남사당은 조선 영조때부터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조선 영조때는 당쟁과 민란, 질병과 기근으로 많은 유랑민이 발생했고, 특히 이인좌의 난이 안성에서 평정되어 그 잔당들이 이곳에 은거하게 되었는데 이런 까닭으로 안성이 남사당의 발원지가 된 듯하다. 안성군 서운면 청용리에 정착한 이 유랑민들은 생존을 위해 놀이패를 구성하고 공연을 하였는데 화주를 받아 생활하고 남은 재물을 모아서 시주를 하여 청용사 대웅전을 중수했다고 한다. 이 놀이패는 남자들로 구성되었고 절과 관계를 맺고 활동했으므로, 주로 여자들로 구성된 사당패와 대조적으로 남사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또한 이 남사당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조선시대 5대 시장의 하나였던 안성시장이 가까이 있었기에 상인들과 협조하여 많은 사람을 모을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전된 안성의 남사당은 고종 2년(1865) 경복궁 중건 때 부역꾼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원군으로부터 초청을 받으면서부터 더욱 명성을 떨쳤다. 그 뒤를 이어서 여러 패들이 기량을 닦고 곳곳에서 이름을 날렸다.

특색

풍물놀이는 남사당의 여섯 종목의 놀이 중에서 첫번째 놀이이며 웃다리가락을 바탕으로 한다.

안성남사당풍물놀이 (경기)



남사당은 대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예인들의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국을 유랑하면서도 독특한 가락을 유지할 수 있었고 특히 상쇠 김기복의 쇠가락은 정통 안성풍물놀이의 가락으로 잔재주가 뛰어나고 신바람이 난다.

남도의 농악에 비하여 무동의 수가 많고 5무동을 비롯한 무동타기는 특징적이며, 판굿의 진풀이는 특이하고 상쇠의 웃놀음과 아랫놀음 또한 일품이다.

구성

안성남사당풍물놀이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의 20단계로 구성된다.

(1) 길놀이
(2) 인사굿
(3) 돌림비꾸(1)
(4) 오방진
(5) 돌리버꾸(2)
(6) 당산벌림(1) (버꾸놀이)
(7) 당산벌림(2) (여장놀이, 버꾸놀이)
(8) 절구버꾸
(9) 사통백이
(10) 좌우치기
(11) 대대옆치기
(12) 가새백이
(13) 쩍쩍이
(14) 소리굿
(15) 밀버꾸
(16) 개인놀이
(17) 무동타기
(18) 버나돌리기
(19) 열두발상모돌리기
(20) 인사굿

내용

연희가 시작되기 전에 단원들은 길군악칠채가락에 맞추어 연희장소로 행진하는 길놀이를 벌이는데 이것은 관중을 놀이장소로 모으기 위한 수단이다.

놀이장소에 도달하면 인사굿을 하고 잦은가락을 치면서 돌림버꾸를 한다. 다시, 돌림버꾸에서 쇠를 딱 그치고 길군악을 치면서 오방진을 짜는데 이것은 음양설에 의거한 방위신을 오방으로 배치한 것으로 악귀를 쫓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어서 돌림버꾸, 당산벌림, 절구버꾸 등의 연희가 펼쳐지는데 절구버꾸는 절구에 곡식찧는 것을 연상하게 하며 식량을 표현한다. 절구버꾸를 마치고 교차행진을 하면서 역동적이고 전투적인 진군을 의미하거나, 또는 한줄로 서서 김매기 하는 모습을 담은 사통백이를 한다.

좌우치기는 싸움에서의 전진과 후퇴를 나타내며 대대옆치기는 군대의 제식훈련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가새백이는 가위를 상징하는 판굿으로 의복을 만드는 것을 표현하고 점호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판굿은 농경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갖는데 쩍쩍이와 소리굿 그리고 밀버꾸 등이 그것이다.

개인놀이는 무동타기를 준비하는 동안 하게 되는데 쇠놀음, 징놀이, 북놀이, 장구놀이, 따버꾸 등 개인 혹은 단체놀이를 하기도 한다.

무동타기는 다산을 기원하고 신동이라 하여 무동을 받드는 뜻에서 생겨난 듯 하며 매우 어렵고 많은 기술을 요하는 재주를 부린다.

무동타기의 중간이나 끝난 뒤에 하는 버나돌리기와 열두발상모돌리기 등은 주린 배를 달래보려는 뜻과 적방어의 무술적 행위를 표현하는 뜻을 지닌다.

모든 판굿이 끝나면 시작과 같이 인사굿으로 놀이의 끝을 맺는데 처음 인사굿과 반대로 원을 그리어 인사한 뒤 횡대를 지어 상석에 인사한다.

놀이기구

(1) 악기
북, 징, 장고, 꽹과리 등의 사물.
(2) 기타
배역별 복색, 대접, 담뱃대, 열두발상모, 영기 등.

상주민요

민요

유래

상주는 일찌기 선사시대부터 경상북도 서북지역에 농경문화를 형성해 오면서 곡창지대로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농업 노동요, 즉 농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다.

상주민요는 이 고장의 자연환경과 농경사회의 특수성을 아름답고 힘찬 가락으로 표현하여 오랫동안 향민이 즐겨 애창해 온 토속성이 짙은 농요로서 농사생활에서 오는 피로를 덜고 풍년을 기약하는 농민의 소박하고 서정적인 노래이다.

특히 이 노래의 주류를 이루는 공갈못노래는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상주의 공갈못이 축조된 삼한시대부터 불리워진 것으로 추측되며 상주의 대표적 노동요로서 현재는 전국의 농촌에 퍼져 불리워지고 있다.


상주민요 (경북)

특색

(1) 아시논매기와 두불논매기, 자리개 및 도리깨타작소리는 상주 초산동 특유의 노동요이다.

(2) 상주 민요 가사의 대부분은 농사짓는 장면의 사실적인 표현과 연정, 사친, 풍자 등을 표출함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키고 상부상조하는 향민의 전통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민요가락은 흥겨움과 애조를 동시에 띤 독특한 것이다.

구성

(1) 모심기소리

공갈못 노래

(2) 논메기소리

아시논메기소리 두불논메기소리

※집으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치하칭칭 나네)

(3) 타작소리

자리게타작소리 도리깨타작소리

내용

소리를 할 때는 선소리꾼이 앞소리를 메기면 나머지는 모두 뒷소리로 받아 부른다.

공갈못노래만 선후창이 같고 논메기소리와 타작소리는 앞, 뒷소리가 다르다. 즉, 앞소리는 사설이 있으나 뒷소리는 사설이 없고 '에헤이 소호니 절로 한다' '에이오 방해야' '에야 때려라' '에야 잘한다' 등으로 부른다.

민요의 순서는 농업의 시작과 마침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 모심기소리

상주함창 공갈못에 연밥따는 저처자야
연밥줄밥 내따줄께 이네품에 잠자주소
잠자기는 어렵잖소 연밥따기 늦어가요
상주함창 공갈못에 연밥따는 저큰아가
연밥줄밥 내따줌세 백년언약 맺어다오
백년언약 어렵잖소 연밥따기 늦어간다
능청능청 벼리끝에
시누올케 마주앉아
나도야 크서 시집가면
우리낭군 섬길라네

(2) 논메기소리

①아시논메기소리

호호호 호야 해해해 해야 이하 소호니 절로 한다
호호호 호야 해해해 해야 에하 소호니 절로 한다.
여보시요 농부들아 이내말씀 들어보소 에헤이 소호니 절로 한다.
호호호 호야 해해해 해야 에하 소호니 절로 한다.
오곡은 어느 누가 내 놨는가 에헤이 소호니 절로 한다.
호호호 호야 해해해 해야 에하 소호니 절로 한다.
신롱씨가 내 놨다네 에헤이 소호니 절로 한다.
호호호 호야 해해해 해야 에하 소호니 절로 한다.
일년농사 지어보세 에헤이 소호니 절로 한다.
호호호 호야 해해해 해야 에하 소호니 절로 한다.
(후략)

②두불논메기소리

에이오 방 헤야 에이오 방 해야
이 방아가 누구 방안가 에이오 방 해야
강태공의 조작방아 에이오 방 해야
강태공은 어디가고 에이오 방 해야
방아만 놀아난다 에이오 방 해야
메여보세 메여보세 에이오 방 해야
박두불네 논메보세 에이오 방 해야
(후략)

③치하칭칭나네

치하칭칭나네 치하칭칭 나네
바다같이 넓은 논을 치하칭칭 나네
다메였네 다메였네 치하칭칭 나네
가세가세 집으로 가세 치하칭칭 나네
춤도추고 노래도 하고 치하칭칭 나네
가세가세 집으로 가세 치하칭칭 나네
(후략)

(3) 타작소리

①자리게타작

에이 주야산이 또 들어간다
에하 에하
헌단이 에하
나가고 에하
새단이 에하

또 들어온다. 에하
(후략)
②도리깨타작
에이 주야산이 또 들어간다
에하 에하 다리라 에하
어깨도 에하 질숙 에하
허리도 에하 주척 에하
힘써 에하 다리라 에하
(후략)

놀이기구

짝수바리, 도리깨, 자리게.

인천주대소리

민요

유래

인천을 비롯하여 중부 서해안 지역의 어민들은 어로작업을 하면서 여러 민요를 불렀는데 주대소리는 이 고장 어민들이 배에서 사용하는 닻줄, 앙금줄, 버리줄, 아메줄 등을 꼴 때 부르던 노래이다.

앙금줄, 아메줄, 버리줄 등은 그다지 굵지 않으므로 삼과 짚을 섞어서 꼬았지만 닻줄은 굵고 질겨야 했기 때문에 칡덩굴을 사용하였는데 그 작업이 매우 힘겨웠다. 따라서 이러한 고달픔을 잊기 위한 일노래가 생겨나 전해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색

이 노래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노래도 다른 일노래(노동요)에서처럼 메기는 소리와 받는소리가 있으나 두 소리가 서로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메기는 소리는 뱃노래의 노젓는 가락과 유사하고 받는 소리는 육지 아낙네들의 일노래 가락과 비슷한데 서로 주고 받아 한 개의 가락으로 이어가며, 노랫말 역시 주고받음으로써 사실적인 형태를 이루어 가기도 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노래를 주고 받기도 한다.

구성

주대소리는 '자우질소리', '줄놓는 소리', '꼼새소리', '술레소리', '채짓는 소리', '사리소리' 등 여섯 가지 노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대소리 외에 어로작업 중 배위에서 부르는 노래 다섯가지와 '시선노래', 축제의 노래(배치기) 등을 곁들여서 하나의 일관된 연희형태를 이루었다.

내용

이것은 '주대소리'등 일노래를 중심으로 닻줄을 만들고 그물을 손질하여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고기를 가득 잡아 돌아와서는 한바탕 풍물놀이 잔치를 끝맺는 연희형태를 취하고 있다.

배에서도 줄을 많이 쓰는데 그 용도에 따라 이름이 각각 다르다. 즉, 앙금줄, 아메줄, 또는 버리줄, 닻줄 등이 있는데 버리줄 중에도 돛대버리, 이물버리, 고물버리, 미앞버리, 밋뒤버리 등이 있다.

먼저 풍물을 치며 등장한 어부들이 그러한 줄을 만드는 여섯가지 단계, 즉 자우질, 줄꼬기, 줄손돌리기, 합사시킴, 채짓기, 줄을 사림 등의 과정에 따라 각각 '자우소리', '줄놓는 소리', '꼼새소리', '술레소리', '채짓는소리', '사리소리'를 메기고 받는다. 이어 구성진 '노젓는소리'와 함께 어선이 출항하고 바다에 나간 배에서는 '그물소리'와 함께 어로작업이 진행된다. 이 때 해안에서는 여인네들이 '군음'이라는 일노래를 부르며 굴과 조개 등을 캐는데 이 '군음'은 인천, 용유도, 덕적도, 영종도 등에서 불리워진 노래로 노랫말과 가사에 한이 서려 있다.

바다에서는 다시 '바디소리' '수소리' 등의 노래가 이어지며 어로작업 풍경이 연출되고, 해안에서는 아낙네들이 자배기에 물을 담아 바가지를 엎어 띄우고 나무젓가락과 또아리로 두드리는 물장고에 맞추어 '나나니타령'을 부르며 한바탕의 놀이판을 벌인다.

고기를 한 배 가득 잡은 어선들이 '노젓는소리', '닻감는 소리'등을 흥겹게 주고 받으며 돌아오면 모든 주민이 함께 만선축제를 벌인다.

만선축제의 놀이 한마당에는 풍물놀이와 함께 '배치기'노래를 부르는데 만선귀항을 축하하는 뜻으로 마을 사람 전체가 풍악에 맞추어 아주 흥겹게 춤을 추며 부른다.

'주대소리' 중 '자우소리' '줄놓는 소리' '술레소리' 가사 일부를 소개한다.

(1) 자우소리
섬에가면 알좀살까요 알만사나 민알도사지 민알만사나 조기알도사지 조기알만사나 부○도사지 부○을왜사나 ○알을(조개를)사야지 고옹알도 가지가질세 어디한번 샘겨보세나 새빨갛다 앵두○알(조개) 새파랗다 청파○알(조개) 팔랑떴다 댕기…… 하략
(2) 줄놓는 소리
받는소리 : 어야디야, 어화이
메기는 소리 :
줄을꼬세 줄을꼬세
힘을주어 오디게 꼽시다
우리배 동사님들 글력(근력)이 좋아서
닻줄 버릿줄 잘들도 꼬누나

영자님이 늘인줄은 뺄조기살에 멕일줄일세
고물사공님이 느린줄은 유지사리에 멕일 줄이고
이자님이 느린줄은 백중사리에 멕일 줄일세
가는것은 고물 줄이고 굵은것은 이물 줄일세
이불속의 노젓는질만 잘하는줄 알았더니
—하 략—
우리배임자 아주머니
새참준비에 진동걸음
애야 애야 화장애야
주대질은 잘도 한다만
네손맛에 신물난다
오늘부터 군침돌아
배꼽눈이 툭터지겠다
두팔뚝 걷어부쳐라
이번행부에 도장원하면
달덩이같은 내마누라
치매 한감 끊어주구
—하 략—
(3) 술레소리
받는소리 : 어야라 술레야
메기는 소리 :
어야라 술레야
술랫돌 잘받는 이자님은
어디가서 아니뵈나
물상길 잘하는 영자님은 어딜갔나
키잘잡는 사공님은 어디가구
활질잘하는 화장님은 어딜갔나
본향님네 명기받구
장군님네 서기받아
나갈적에는 중군복이요
들을적에는 승전고야
—하 략—
한물거리에 천여동이요
두물거리에 만여동이야
열두바다에 도장원이요
수물네바다에 도장원이야

청주웃다리농악

농악

유래

충청북도 지방은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국경선이 인접했던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농악은 전쟁의 영향을 입어 나름대로의 독특한 형식과 내용으로 발전해왔다. 즉, 농악이 군사의 진퇴, 사기진작 등의 군악대 역할을 하였기에 단조로우면서도 규칙적인 리듬으로 발전해온 것이다.

특색

청주농악은 내용면에서 호화롭지 않고 형식면에서 복잡하지 않은 점이 특색이다. 마치 군악처럼 단조롭고 규칙적이다.

또, 이 지방에서는 사물(꽹과리, 북, 장구, 징)을 치면서 춤을 추고 하는 놀이가 있는데 이것을 풍장, 풍물, 메구, 굿 등으로 부른다.

구성

(1) 쇠가락장단
①길군악
②꽃나부장단
③다드래기
④춤장단
⑤신식행진가락
⑥장풍장
(2) 진법놀이 및 개인놀이
①멍석말이
②갈림법고
③법고놀이
④상쇠놀이
⑤장구놀이

내용

(1) 쇠가락장단
①길군악

길군악 7채는 행진에 쓰이는 3분박과 2분박의 매우 까다로운 혼합박자이다. 경기농악에서 흔히 보이는 이 가락은 충청북도에서는 중부 이북에서만 쳤다.

②꽃나부장단

청주웃다리농악 (충북)



농악에서 무동을 꽃나부라 부르는 데서 나온 말이며, 무동놀이할 때 치는 장단이라는 뜻이다. 조금 빠른 속도의 3분박 4박자이며 8분의 12박자로 할 수도 있다. 법고놀이, 진법놀이, 상쇠놀이, 행진 등 다양하게 쓰이는 가락이다.

③다드래기

꽃나부장단을 몰아서 빨리 치는 것으로 실제로는 여러가지 가락을 친다. 법고놀이나 상모놀이에서, 혹은 굿을 한바탕 칠 때 맨 끝에 휘몰아치는 가락이다.

④춤장단

다른 지방의 굿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꽃나부장단을 매우 느리게 치는 것이다. 느린춤을 출 때 쓰이며 길굿으로 쓰이지 않는다.

⑤신시행진가락

서양음악의 행진곡과 리듬이 같고 근래 젊은이들이 행진하면서 많이 친다.

⑥장풍장

두레패들이 김매면서 치는 쇠가락으로 꽃나부장단과 같다.

(2) 진법놀이 및 개인놀이

①멍석말이

방울진, 되풀이진이라 불린다. 농기, 영기, 호적수, 잡색을 제외한 모든 풍물잡이가 종대로 서서 처음에는 크게 원을 그리며 상쇠를 따라 길군악, 꽃나부가락을 치며 전진한다. 원을 조금씩 좁혀 나선형으로 중심을 향해 말아가며 전진하고 중심에 이른 상쇠는 반대로 나선형을 그리며 전진한다.

②갈림법고

쇠잡이, 징잡이, 장구잡이, 북잡이, 법고잡이들이 꽃나부가락을 치며 1열종대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전진하다가 일정한 신호에 따라 쇠잡이, 장구잡이, 북잡이는 상쇠를 따라 전진한다.

법고잡이는 뒤로 돌아서 맨 끝에 있는 꼬리법고를 따라 전진해 쇠잡이 열과 2개의 열로 나뉜다. 열은 여러가지 대칭적인 도형을 그린다.

③법고놀이

쇠잡이는 원을 그리며 중앙을 향해 늘어서서 쇠를 치고, 법고잡이는 중앙에 원을 그리면서 중앙을 향해 전진, 후퇴하며 여러가지 기예를 발휘한다.

④상쇠놀이

농악대 전원이 반원을 그리고 서서 농악을 연주하고, 상쇠놀이를 비롯한 개인놀이는 중앙에서 베풀어진다. 상쇠는 중앙에 나와 부포놀음, 쇠발림, 까치걸음 등 여러가지 기예를 발휘한다. 상쇠가 쇠발림을 할 때는 부쇠가 농악대를 지휘한다.

⑤장구놀이

장구놀이는 혼자 치는 외장구놀이와 둘이치는 쌍장구놀이, 그리고 4명이 치는 4장구놀이가 있다.

놀이기구

농기, 영기, 호적, 꽹과리3, 징2, 장구4, 북2, 소고8, 기타 복색(무동, 양반, 가장녀 등).

고흥한적들노래

민요

유래

한적들은 고흥반도 남단 도덕면 북부 고흥만의 해안 산촌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래로부터 수원이 풍부하고 토질 또한 양질의 고질토로 간발에도 무사히 평년작을 거둘수 있는 들로 유명할 뿐 아니라 풍광이 아름다와 옛부터 시가음률을 즐기는 선비들이 은거하면서 자연을 노래했던 곳이라해서 한적이라 했다.

이 마을은 400여년전 입행한것으로 추정되며, 그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시 피난처로 적지였기에 각지에서 주민들이 전입해 옴으로써 성씨가 다성이고 아직도 원포, 문포등 명부에서 쓰던 지명이 남아 있다.

"한적들 노래"는 농경지를 일구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고달픈 심신을 달래며 풍년을 기원하고자 한적마을에서 농사때마다 불려졌던 노래다.

구성

(1) 모판에서 모찌기 노래
  긴방애 소리
  잦은방애 소리
(2) 모심는 노래
  긴상사소리
  잦은상사소리
(3) 논매기 노래
  긴 나헤야 소리(무장단)
  사나진 소리
  들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부르는 노래
  가창방법
  메기고 받는 교창형식
  장단 : 무장단, 세마치, 굿거리
  가사내용
  임에대한 그리움과 원망
  인생무상과 효심 고양
  권농사상의 선양
  (1) 모찌기 노래


고흥한적들노래 (전남)

에헤~야에~이여 방애~이여 홍애로다
뒷소리나 잘 마추어 주소
에헤~야에~이여 방애~이여 홍애로다
성제 성제 씨누성제
에헤~야 에~이여 방애~이여 홍애로다
물든지를 몰랐더니
에헤~야 에~이여 방애~이여 홍애로다
이 섭갱애가 물이드네
에헤~야 에~이여 방애~이여 홍애로다
실로 온다 실로 온다
에헤~야 에~이여 방애~이여 홍애로다
우리 오래비 실로 오네
에헤~야 에~이여 방애~이여 홍애로다
하도 좋고 또 좋아서
에헤~야 에~이여 방애~이여 홍애로다
두발 동동 끓고 나서
에헤~야 에~이여 방애~이여 홍애로다
우리 성만 덜렁 실고
에헤~야 에~이여 방애~이여 홍애로다
끈덕 끈덕 잘도 가네
에헤~야 에~이여 방애~이여 홍애로다

(2) 모심기 노래

〈늦은 상사 소리〉

어~이~여 여~어 여~로 사~상사뒤여
상사소리 잘들 맞춰 주소
어~이~여여~어 여~로 사~상사뒤여
손 세우소 손 세워 주소
어~이~여 여~어 여~로 사~상사뒤여
못 줄 밑에 손 세워 주소
어~이~여 여~어 여~로 사~상사뒤여
앞 산은 점점 멀어지고
어~이~여 여~어 여~로 사~상사뒤여
근실하다 근실하다
어~이~여 여~어 여~로 사~상사뒤여
우리 농부 근실 하네
어~이~여 여~어 여~로 사~상사뒤여
이 나락을 심어 가지고
어~이~여 여~어 여~로 사~상사뒤여
선영님네 봉사허세
어~이~여 여~어 여~로 사~상사뒤여

〈잦은 상사 소리〉

여~여 여여로 상사뒤여
나 요리 한다고 근심을 말소
여~여 여~로 사~상사뒤여
일을 하잔께 하는 수가 없네
여~여 여~로 사~상사뒤여
우리가 살며는 몇 백년을 살까
여~여 여~로 사~상사뒤여
죽엄에 들어서 노소가 있냐
여~여 여~로 사~상사뒤여
어매 어매 이붓어매
여~여 여~로 사~상사뒤여
언제라도 나 죽거든
여~여 여~로 사~상사뒤여
앞 동산에 묻지 말고
여~여 여~로 사~상사뒤여
초롱 나무 밑에 다가
여~여 여~로 사~상사뒤여
깊이 파고 날 무더주소
여~여 여~로 사~상사뒤여

(3) 김매기 노래

〈긴 김매기 소리 : 무장단〉

에~헤야 허허허로 방애로다
무단한 사람 오라 오라 해 놓고
문만 걸고서 아이고 낮잠만 잔가
에~헤야 어 허허로 방애로다
온디 간디 정붙여 놓고
밤길 걷기에 나가 골병이 드네
에~헤야 어 허허허로 방애로다
바람은 불고 비 올줄 알면
어떤 시러부 잡놈이 서답 빨래를 할께
에~헤야 어 허허허로 방애로다
가며는 가고 말며는 말제
가마 없이야 어매야 시집을 갈까
에~헤야 어허허허로 방애로다
돈실로 가자 돈실로 가자
영광 법성으로 돈실로 가자

에~헤야 어 허허허로 방애로다
〈잦은 김매기 소리〉
야~아하 헤~애야 헤~어이 어~허
허~이여 허~허여로 사나~어허로 놀거나
사람이 살며는 몇백년 살거나
죽엄에 들어 노소가 있나
야~아하 헤~애야 헤~어이 어~허
허~이여 허~허 여로 사나~어허로 사나~어허로 놀거나
저 건너 갈미봉에 비묻어 온다
우장을 허리에 두르고 논에 지심을 맬거나
야~아하 헤~애야 헤~어이 어~허
허~이여 허~허 여로사나~어허로 놀거나
오동추야 달이 밝고 임의 생각
저절로 나는구나
야~아하 헤~애야 헤~어이 어~허
허~이여 허~허여로 사나~어허로 놀거나
꽃을 꺽어 머리에다 꽂고
산에 올라 들 구경을 하는구나
야~아하 헤~애야 헤~아이 어~허
허~이여 허~허 여로 사나~어허로 놀거나
그만저만 파양 하세
허리아파 더 이상은 못 하것네
야~아하 헤~애야 헤~어이 어~허
허~이여 허~허 여로 사나~어허로 놀거나
(4) 집으로 돌아오며 부르는 노래
〈등 달어라 소리〉
등~달어라 등~달어라
청사초롱 이어~로 시리렁 둥~덩실 등 달어라
불 밝히소 불 밝히소
청사초롱 이어로 시리렁 등~덩실 불 밝히소
등~달어라 등~달어라
청사초롱 이어~ 로 시리렁 등~덩실 등 달어라
그만 저만 파양허세
북두칠성 이어로 시리렁 등덩실 행 돌아졌네
등~달어라 등~달어라
청사초롱 이어~로 시리렁 등~덩실 등 달어라
간다 못간다 얼마나 울어
정거 이어로 시리렁 둥덩실 한강이 졌네
등~달어라 등~달어라
청사초롱 이어~로 시리렁 둥덩실 등 달어라
우리 같이 손 발 씻고 저녁식사
이어로 시리렁 등덩실 저녁을 하세
등~달어라 등~달어라
청사초롱 이어~로 시리렁 등~덩실 등 달어라
일년에 농사를 지어 우리 선영님네
모두다 귀하게 모십시다
등~달어라 등~달어라
청사초롱 이어~로 시리렁 등~덩싱 등 달어라
등달어라 등달어라 임의 방에로
시리렁 둥덩실 등달어라
등~달어라 등~달어라
청사초롱 이어~로 시리렁 등~덩실 등 달어라
잠자러 가세 잠자러 가세 임의 방에로
시리렁에 등덩실이 잠자러 가세
등~달어라 등~달어라
청사초롱 이어~로 시리렁 등~덩실 등 달어라

감내줄다리기

민속놀이

유래

이 놀이는 경상남도 밀양 감내에서 오랜 옛날부터 전해내려 오는 상원놀이의 하나로 '게'잡이를 할 때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옛날 이곳 감내에서 게잡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게가 적게 잡힐 때는 이웃마을끼리 서로 사이가 좋았다. 그러나 수확량이 많아지면서부터 서로 욕심을 부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에서 인심이 나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을 막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게 모양의 줄을 만들어서 줄당기기를 하여 이긴 쪽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한 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게줄을 만드는 원형은 옛날 나무꾼들이 산에 나무하러 갈 때 쉬는 자리(부북면 춘화리 부쇠바위 앞에 있는 남안골)에서 지게꼬리(타레꼬랭) 끝을 잡아 맨 것 두개를 맞걸어서 두 사람이 목에 걸고 게가 기어가는 모양을 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기어가는 놀이를 했다 하는데 그것을 응용하여 게모양의 줄을 만든 것이다.

특색

우리나라 큰줄다리기에서는 많은 인원이 서서 줄을 당기는 데 비해 이 게줄당기기놀이는 소수의 인원으로 게줄을 목에 걸고 엎드려 당긴다. 또한 게줄당기기에 앞서 여러가지 놀이를 하고 게줄당기기가 끝난 후에는 서로 화합하는 춤으로 대단원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구성


감내게줄다리기 (경남)

감내게줄당기기는 모두 10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입장
(2) 당산굿
(3) 터밟기
(4) 짓줄디리기
(5) 농발이놀이
(6) 판굿
(7) 터빼앗기
(8) 게줄어루기
(9) 게줄당기기
(10) 승전굿

내용

출연자들이 입장하고 나서 제일 먼저 당산굿을 시작한다. 당산굿은 풍년과 소원성취를 비는 것이 골자이다.

다음 터밟기를 하는데 터밟기노래(오토지신풀이)를 부르며 오방신장을 청하여 잡귀를 물리치고 놀이마당을 깨끗이 한다.

짓줄디리기에서는 작수바리를 메어 놓고 흥겨운 노래로 게줄을 만드는 짓줄을 디린다. 줄을 디릴 때, 앞소리에 따라 '우여차 줄받아라'하면서 뒤를 받는다.

농발이놀이에서는 장정 두 사람을 허리에 메고 농발이 놀이를 해서 줄을 당기는 수농부를 뽑고 판굿에서는 나무구시와 지게목발 장단에 맞추어 흥겨운 노래로 한바탕 놀면서 사기를 돋운다.

터빼앗기는 수농부끼리 작은 줄로 줄다리기를 하여 이긴 편이 게줄당기기를 하는데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하는 놀이이다. 때로는 발싸움을 할 때도 있다.

터빼앗기로 자리가 정해지면 동서부 양편에서 얼림줄을 메고 나와서 줄어루기를 한다.

게줄어루기가 끝나면 풍악을 선두로 놀이꾼들이 게줄쪽으로 모여 줄도감이 울리는 징소리에 따라 게줄을 당긴다. 동서부 각각 25명이 짓줄에 목을 걸고 하나에서 백까지 헤아리는 동안(약 2분) 줄을 중앙선에서 많이 끌고 간 편이 이긴다.

게줄당기기가 끝나면 승전굿을 하는데 게줄당기기에서 진편은 앉아서 울분을 터뜨리고 이긴편은 환호를 지르며 장내를 돌다가 진편을 일으켜서 서로 화동하는 춤으로 대단원을 이룬다.

놀이기구

(1) 게줄
게모양으로 생겼는데 몸통 부분이 둥글고 좌우 게발 부분에 크고 작은 짓줄이 달려 있다.
(2) 작은줄
터빼앗기를 할 때 수농부가 당기는 줄.
(3) 얼림줄
줄어루기 할 때 쓰이는 작은 게줄.
(4) 작수바리
줄 다리는 틀.
(5) 짚동
줄 디리는 원료가 된다.
(6) 나무구시
판굿을 할 때 악기로 쓴다.
(7) 통발
터빼앗기에서 이긴편에게 주는 상품.
(8) 대발
터빼앗기를 할 때도 쓰이고 깃대를 세우는 틀 구실도 한다.

그외 판굿할 때 쓰이는 지게와 깃발 등이 있다.

총각대방놀이

민속놀이

지형상 충남 금산은 소백산맥에서 분기되는 노령산맥에 위치하여 산록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높은 산에서 발원한 수 많은 계곡물이 금강 상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같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독특한 분지형 고원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총각대방놀이는 진악산을 중심으로 한 산간마을에서 전승되어왔다. 농가의 겨울나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진악산을 중심으로 송계가 있었는데 금산읍 중앙을 관류하는 금산천을 사이에 두고 남쪽의 열두 마을 송계는 수리넘어재를, 북쪽의 열두 마을의 송계는 보리재를 각각 관리하였다.


총각대방놀이 (충남)

각 송계의 우두머리를 앉은 대방이라 하는데 열두명의 총각대방을 통솔하였으며 총각대방은 각 가정의 숫총각으로 이루어진 초군을 통솔하였다.

해마다 장마가 끝나고 풀도 다 자란, 칠월 백중 쯤에 송계에서는 초장길이라 하여 길을 보수하고 일이 끝난 후에는 남쪽 마을과 북쪽 마을이 힘 겨루기를 하는데 이 때 힘겨루기는 바로 상쇠의 기량에 따라 승패가 좌우 되었다.

상쇠의 기량은 곧 마을의 부와 단결의 상징처럼 되어 있어 만일 상쇠의 기량이 약한편 마을이 승복하지 않으면 마을 농기를 넘어뜨려 굴복시키고 이긴편 마을 상쇠의 지휘아래 일년 내내 양편 마을의 화평과 겨울 동안 초군들이 나무하는데 무사함을 기원하는 대동화합놀이를 펼친다.

내드림 마당

돌탑과 장승이 서 있는 마을에 앉은 대방으로 부터 초장길을 닦으라는 통문이 총각대방을 통하여 초군에 전달된다. 통문을 받은 초군들은 의복정제하고 농기구를 들고 모인다.

고사마당

마을 수호신인 장승과 돌탑 앞에 모여서 마을의 평안과 초군들의 무사 태평을 위하여 진악산 신령과 지신에 대한 고사풀이를 한다.

초장길마당

농기를 앞세우고 풍물패를 따라 산에 도착한 일행은 농요에 맞춰 초장길을 닦는다.

농요

(선소리) 에헤에이 이야호오오 호오
산도설고 물도나 선디
누구를 믿고 여기왔나

(뒷소리) 초장 : 오오오 오호호오오오 오호호오오 오호호
중장 : 에헤이 에헤헤이이이 에헤헤에에 하하아
말장 : 어어어 어허허어어어 어허허어어 어허허

(선소리) 오고와서 길닦다 보면
청산화도로 저리갈까

(뒷소리)

(선소리) 나는 간다 너 잘있거라
오냐 길닦아 영화로다

(뒷소리)

(선소리) 간디야 마다 정들여 놓고
이별이 잦아 나 못살겠네

(뒷소리)

초장길 놀이 마당

초장길을 다 닦은 일행은 농주를 마시고 영산굿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신명을 낸다.

쇠싸움 마당

신명나게 놀던 일행이 금산천 큰다리로 향하고 마주친 두 송계의 상쇠는 이채나 각정굿 장단 등을 울리며 전열을 정비하고 기량을 겨룬다.

이미 기량이 판가름 났지만 승복하지 않자 상대 기를 힘으로 넘어뜨리려 한다. 저항을 하지만 결국 승복을 한다.

화합마당

이긴 송계의 앉은대방 지휘로 두 송계는 하나가 되어 신명나게 영산굿을 치며 즐긴 후 파송굿을 치면서 서로 상대방 송계의 무사고를 빌며 마친다.

동김녕리해녀노래

민요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다. 그러기에 제주의 선인들은 예로부터 바다를 생활의 무대로 삼고 살아왔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곧 해녀이다.

이 지구상에서 해녀가 있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 인데, 한국 해녀의 거의가 제주 해녀이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해녀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해녀들은 잠녀·잠수라고도 하는데, 작업차 배를 타고 나갈 때 노를 저으면서 해녀 노래를 부른다. 제주 해녀들이 작업차 배를 타고 나간다는 것은 풍선을 타고 노 저으면서 한본토로 출가할 경우와 연안에서 먼 바다로 작업하려 떠나는 두 가지 경우를 말한다.

한본토로 출가하는 뱃길이든, 연안에서 먼 바다로 작업하러 떠나는 경우든 해녀들은 노 젓는 율동에 맞춰 해녀 노래를 부른다. 힘차게 해녀 노래를 부를 때



동김녕리해녀노래 (제주)

노 젓기가 한결 편해지고 싫증을 덜 느끼게 되는가 하면, 정서의 순화가 더불어 이루어진다. 해녀 노래는 드문 일이기는 하나, 해안에서 작업하려 헤엄쳐 나가면서 부르기도 한다.

해녀 노래가 제대로 전승되는 곳은 제주도뿐으로서, 제주 해녀들은 해녀 노래를 통하여 해녀 작업하는 모습을 노래하며 그들의 감정이나 의식을 노래한다.

해녀노래는 세계적인 존재인 제주도 해녀들에 의해 불려진다는 점에서 매우 진중하며, 오직 제주도 해녀들만이 부른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가 있다. 해녀 노래의 내용은 작업실태와 일상 의식으로 양분된다. 작업장을 오가는 길이나 한본토로 출가하는 뱃길에서 불리는 해녀 노래 속에는 해녀들의 고달픈 작업양상과 인고 및 패기가 속속들이 드러나 있다.

해녀 노래는 그 곡태가 다양하다. 제주도의 숱한 노동요 가운데도 멧돌, 방아 노래와 더불어 백미라 할 해녀 노래는 그 가사 내용도 출중한 편이다. 종류도, '해녀 작업 출발의 노래', '해녀 작업의 노래', '해녀 출가의 뱃노래', '해녀 출가 생활의 노래', '사랑 노래', '해녀들의 서정' 등으로 다양하다. 해녀 노래는 역동적이요, 직설저인 색채가 짙다. 의문형과 4·4조의 율격은 이런 특색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해녀노래는 해녀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전승된다. 그 가운데서도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의 해녀노래 전승 양상은 매우 두드러진다. 320여명이 넘는 해녀 회원들의 물질(잠수)작업도 부지런하지만 이들이 일상에서 부르는 해녀노래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동김녕리 해녀 회원들은 1976년 '멸치 후리는 노래'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정도로 노래의 예능이 출중하거니와 해녀 노래 또한 김경성씨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불리면서 고집스럽게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내용

해녀노래의 공연은 네 장면으로 나누어 진다.

첫째 장면은 해녀작업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잠수굿, 둘째 장면은 해녀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작업하러 나가는 해녀 작업 출발 장면, 세째 장면은 해녀들이 바다에서 작업하는 장면, 네째 장면은 해녀들이 작업을 끝내고 불턱에서 몸을 말리면서 여흥을 즐기는 장면으로 진행된다.

제 1 장면 : 잠수굿

미리 공연장 옆에 잠수굿을 펼칠 당을 마련하고 굿을 할 준비를 완료한다.

공연 시작을 알리면, 해녀들이 기수대와 풍물패, 각종 깃발을 단 두개의 배와 두개의 테우에 해녀들이 타고 노를 젓고 노래를 부르면서 입장한다.

배에 못탄 공연패들은 필요한 소도구 등을 자연스럽게 메고 입장한다.

입장이 완료되면 당 주변을 중심으로 공연패들이 모여 관중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 잠수굿을 시작한다. 잠수굿을 할 때 해녀들은 용왕신에 대해 해녀 작업의 안녕을 기원한다.

잠수굿이 끝나면 공연패들이 준비된 배에 타고 작업 출발준비를 한다.

제 2 장면 : 해녀작업 출발장면

출발 신호가 울리면, 해녀 작업 출발의 노래에 맞춰 해녀들이 힘차게 노를 저으면서 출발한다. 일제히 출발한 배는 바다로 상정된 공연장을 이리저리 노저어 나가면서 공연을 한다.

배들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늦게 노 저으면서 계속 공연을 하고, 배에 탄 해녀들은 태왁을 흔들고 작대기 등으로 물질할 바다를 살피는 시늉을 계속한다. 해녀 작업 출발의 공연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공연장의 끝까지 나아 갔다가 중앙으로 모여들기도 하면서 공연을 계속한다.

제 3 장면 : 해녀작업질 장면

해녀 작업 출발의 공연이 끝나면 "물질이나 합시다" 하는 신호와 함께 해녀들이 태왁을 들고 바다로 뛰어내리면서 해녀 작업이 시작된다. 이때의 해녀 작업의 노래로 바뀐다.

해녀들은 작업을 하면서 때로는 자맥질을 하는 시늉을 하고, 때로는 전복을 캐어내어 흔들기도 하고 미역 등을 캐올려 흔들기도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망사리에 캐어 담은 해산물들을 배에 싣기도 하고, 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춤을 추기도 한다. 해녀작업을 할 때 배들은 가만히 세워 있지 않

고 여기저기를 노저어 다니면서 독려를 하기도 하고, 캐어낸 해산물을 싣는 등 전체의 해녀 작업 분위기를 무르익도록 북돋운다.

해녀 작업이 거의 끝나면 해녀들은 모두 배에 오르고 배는 다시 노저으면서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신명나게 노저으며 돌아온다. 해녀들도 망사리를 흔들고 춤을 추면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표시한다.

제 4 장면 : 불턱에서 즐기는 장면

바다로 나갔던 배가 도착하기 전에 출발점에 미리 불턱을 만들고 불을 피워둔다.

출발했던 배가 도착하면 해녀들은 망사리 등의 소도구를 들고 불턱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이 때 노래는 서우젯소리, 우럭삼촌과 불락조카 등 여흥을 돋울 수 있는 여러가지 노래를 계속 부른다.

일부 해녀들은 불턱에서 몸을 말리는 시늉을 하고 일부 해녀들은 불턱 주변에서 여러 여흥을 즐기는 재미난 장난을 펼치고 또한 다른 해녀들은 노래에 맞추어 태왁을 사용한 채 덩실덩실 춤을 춘다.

배에 탔던 일꾼들도 전부 내리지 않고 배에서 흥겹게 춤을 춘다.

이렇게 여흥이 계속되다가 시간이 거의 되면 서우젯소리에 맞추어 일제히 태왁춤을 추고 깃발을 흔들면서 절정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때 서서히 원 대형을 만들어 나간다. 절정에 이르면 "이제 집으로 돌아 갑시다"하는 신호와 함께 출연진들이 관중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 일제히 배를 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퇴장한다.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
요넬젓고 어딜가리
이여싸 이여싸
진도바당 한골로가민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나
한착손에 빗창쥐곡
이여싸 이여싸
혼착손에 태왁을 쥐영
이여도싸나힛 이여싸
한질두질 들어간보난
어기여차 이여도싸나
저승도가 분맹하다힛
이여도싸나
이여라차 이여라차
쳐라쳐라 이여도싸나
요네착을 젓언보난
이여싸 이여싸
아니젓엉 이여싸
이여도싸나 이여싸
요물아래 은과금은 깔렷건마는
어기여차 어기여 어기여라
형세나빤 몬하더라
이여싸 이여도싸나
이여라차 이여라차
쳐라쳐 잘도간다
우리어멍 날날적의
이여싸 이여싸
해천영업 태움서로 날낫던가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나
가시남게 몽고지에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손에굉이 백엿구나
어기여 어기여차
이여싸 이여싸
이여도싸나힛 처라처라힛
요년덜아 한머들만
잘넘어간다 어기여
젓어도라 앞을사게 이여싸
어기여 어기여라 이여싸나
우리베에 서낭님아
이여싸 이여싸나
앞발로랑 허위치멍
이여도싸나 이어싸나
뒷발로랑 오동치멍
어기여 어기여라
여끗들로 득달하게 하여도줍서
이여싸나 이여도싸나 쳐라쳐라
고동셍복 한딜로나 가게나합서
어기여라 어기여라 어기여라
이여차 이여라차
이여도차 이여도싸나
우리베는 참나무로
이여싸 이여싸
짓인베라 잘도간다
이여싸 이여도 싸나
참매새끼 나는듯가네 이여싸
어기어라 어기어라
놈의베는 소낭귀베라
이여싸 이여싸
석은남귀 덕더릭가찌
이여싸 이여싸
요넌더라 한마를지라

어기여라힛 한마를만
가고보자 이여싸 이여도싸
젓어보자 이여도싸 이여도싸
요네상척 끊어진덜
어기여라 어기여라
가시낭기 엇일소냐
어기여라 어기여라
요네벤드레 끊어진덜
이여싸 이여싸
부산항구 아나노가 엇일손가
이여도싸나 이여싸 이여도싸나
백여라백여 뒤어차
뒤여라차라
오네궂뎅 타령맙서
이여싸 이여싸
하령도 좁은목에
이여싸 이여도싸나
기다리던 요년덜아
어기여라 어기여라
이여싸 이여싸
어기여라 어기여라
요놋뎅이 뭣을먹고
이여싸 이여도싸나
둥긋둥긋 살쩌싱고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보름통을 먹어싱가
어기여라 어기여라
구름통을 먹엇던가
이여싸 이여싸
둥긋둥긋 잘올라온다
이여도싸나 이여싸
이여라챠 이여차
쳐라쳐라 넘어나 간다
잘도간다 요년덜아
잘도간다 요년덜아
일심동력 젓어나줍서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
선두사공 뱃머리만
어기어 어기어
돌려줍서 젓거리로
어기여라 어기여라
우경간다 어여싸
이여도싸나 이여싸나
베올려 가는구나
베올려 가는구나
뒤여차 소리엔
어기여차 어기여
배가나려 가는구나
어기여 어기여라
어기여라 이여싸
어기여 이여싸
물에들레 들어갈적
이여싸 이여싸
숨비소리 기가맥혀 몬살겟네
이여싸 이여싸 이여도싸나
우리어멍 날날적의
어기여라 어기여라
무신날에 낳앗던고 이여싸
어기여라 어기여라 이여싸

광산구마륵농악

농악

유래

마륵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 년 전 조선조 중기에 탐진 최씨 최진규가 영암군으로부터 이곳 광산구로 옮겨 터를 잡아 형성한 마을이다.

마륵농악의 유래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조선조 중엽부터 마을의 안녕과 전승을 기원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농악은 당산굿과 같은 마을굿에서 발생하여 마당밟이굿, 매구굿, 걸궁굿, 판굿 등을 파생시켰다.

특색

(1) 무용적 특징

무진법이 다양하고 8자진과 같은 진법이 특이하다.

상쇠와 부쇠, 쇠군과 장고잽이들이 짝드름이라는 교체식 연주무용을 하며 다른 지방의 농악에 비해 잡색수가 많다. 특히 그 잡색들이 가면을 쓰고 노는 것이 특징적이다.

쇠군들의 상모놀이가 다양하며 소고놀이가 멋이 있다.

(2) 음악적 특징

전반적으로 호남우두농악에 속하나 굿의 가락이 다른 농악에 비해 느리다. 오채굿과 호호가락이 특징적이며 벙어리오채가락은 좀 많이 사용되는 편이다.

구성

(1) 문굿
(2) 당산굿
진굿(질굿)→인사굿→개인놀이→짬드름과 인사굿
(3) 샘굿
(4) 들당산굿(풍류굿)
오채질굿→구정놀이(개인놀이)
(5) 마당밟기
마당굿→고사반(고사굿)→성주풀이→액맥이, 중천맥이→정재굿(부엌굿)→철용굿, 섞음굿
(6) 날당산굿
(7) 판굿
오채굿→늦은벙어리삼채→오방진→일이삼채굿(재냉기굿, 파싹굿)→콩똥지기→호호굿(열두마치굿)→구정놀이(개인놀이)→노래굿→줄굿

내용

마을 입구에 영기를 만들어 두고 그 옆 술독에다 글을 지어둔다. 이는 상쇠에게 이 글을 해석한 후 마을로 들어오라는 뜻이다.

상쇠는 그 글을 다 읽고나서 문을 열라는 신호나팔을 불게 하고 마을에서 화답 나팔소리가 들려오면 문굿이 시작된다.

상쇠의 지휘에 따라 오른쪽의 영기를 말았다 풀어 대동하고 이어서 왼쪽 영기를 말았다 풀어 대동하여 마을로 들어간다.

당산에 들어갈 때 당산이 놀라지 않게 벙어리 일채를 치면서 들어간다. 벙어리일채로 당산 주변을 12번 돌고 당산에 인사를 한 다음 한바탕 흥을 돋운다. 당산에 하직 인사를 드린 다음 귀신이 못 따라오게 벙어리삼채를 치면서 당산 주변을 원진하다가 빠져 나온다.

제물을 차려놓고 철용굿을 하고 마을로 내려와서 샘을 한바퀴 돈다.

걸궁패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마당밟이와 판굿을 한 후 상쇠는 마루에 차린 제물 앞에서 성주풀이를 한다. 이어서 정재굿(부엌굿)을 하고 장독대로 가서 된삼채로 인사한다.

신창탈놀이

민속극

유래

함경북도 북청지방 신창탈놀이는 의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공포의 대상이었던 돌림병을 퇴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놀이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돌림병을 퍼뜨리는 주범이 마귀, 도깨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몰아내는 의식으로 민속놀이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연례적으로 신창탈놀이가 정월 대보름 행사로서 북청지방을 중심으로 행해지게 된 이유는 유독 북부지방에서 돌림병이 성행하였기 때문이었다. 역사문헌에 보면 팔도를 가리지 않고 돌림병이 창궐하였으나 북부지방에 특히 많이 창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색

북청사자놀이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신창탈놀이에는 관헌인 취발이와 부하인 말뚝이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전의 민속놀이와는 달리 관헌의 역할을 강조하고 위계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의도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구성

(1)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 인심이 흉흉해진다.
(2) 관헌 취발이와 부하 말뚝이가 가면을 쓴 채 마을에 나타난다.
(3) 투전, 도박, 싸움질하는 마을 젊은이들을 혼내주고 마귀와 도깨비를 마을에서 내쫓는다.
(4) 관가에서는 의원을 양성하고 병을 고쳐준다.
(5) 감읍한 사자가 마을에 나타나 온갖 잡귀를 몰아낸다.
(6) 마을엔 평화가 찾아들고 태평성대를 구가한다.

내용

정월 대보름날, 마을사람들이 모두 넓직한 공터에 모여든다. 마을사람들이 선발한 사람들이 극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다.

마을에 돌림병이 돌면 젊은이들은 투전판을 기웃거리거나 도박을 하고 사소한 시비거리를 붙혀 싸움질을 한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방탕한 몸짓으로 마을을

신창탈놀이 (함남)



쏘다닌다.

삽시간에 폐허로 변한 마을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가 요란히 울려 퍼진다. 마귀탈과 도깨비탈을 쓴 무리들이 날뛰기 시작한다.

육도방망이를 옆구리에 찬 취발이와 그 부하인 말뚝이가 좀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등장한다. 얼굴에 쓴 가면을 흔들거리면서 투전판에 빠진 젊은이들을 잡아다 크게 혼을 내준다.

이어 마귀, 도깨비와 마주 서 엎치락 뒤치락 싸움을 한다. 이 장면이 신창탈놀이에선 절정이다.

드디어 마귀와 도깨비를 내쫓고 마을엔 평화가 찾아온다. 취발이와 말뚝이는 의기양양해서 관가로 돌아가고 관가에선 의원을 양성하여 마을의 잡병들을 치료한다.

마을에 태평성태가 찾아들자 사자가 등장하여 마을에 남아있는 온갖 악귀를 몰아내는 몸짓을 벌인다.

온갖 잡귀를 몰아낸 사자가 퇴장을 하면 마을사람들 모두 덩실덩실 춤을 추며 태평성대를 찬양한다.

놀이기구

취발이탈, 말뚝이탈, 사자탈 등.

금척무

민속무용

유래

금척무(金尺舞)는 조선이 창업된 그 이듬해 태조의 등극을 찬양할 목적으로 당시의 개국공신인 삼봉 정도전에 의해 제작되어 조선조 오백여 년 동안 나라의 경사때마다 공연된 우리의 전통무용이다.

특색

(1) 궁중안의 의녀나 상궁 및 무동들이 지엄하신 임금님 앞에서 조선의 개국은 천명을 받은 상서에 연유되었기 때문에 국운의 융창은 곧 천명의 구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배경음악, 의상 및 춤사위 등 전체의 흐름을 보면 장중하고 우아하며 차분하고도 진지한 흥취가 두드러진다.

구성

(1) 초입배열

(2) 회무도

(3) 작대도

내용

(1) 초입배열



금척무 (전북)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찬란한 오색구름이 열리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한다. 오운개서조인자가 연주되고 차례로 등단하는 무녀들의 입장이 끝나면 '꿈에서 금척을 받았다'는 내용이 치어나 창사로 읊어진다.

금척을 꿈꾼 것은 천명을 받으려는 상서로운 일입니다.

태조께서 왕위에 오르시기 전에
꿈에 신인이 금척을 받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말하기를
경시중은 청덕이 있으나 늙었고,
최참사는 정직하나 어리석다.
태조에게 이르기를
문무를 겸비하고 덕망과 지식도 있어
백성들의 중망이 돌아가리라
하며 곧 금척을 주었다.

(2) 회무도

다시 포구악령에 맞춰 우아한 족도의 동작으로 원을 그리며 세바퀴 돌고 '금척의 상서는 태조 자신의 큰 복일 뿐만이 아니라 먼 장래까지의 영원한 천명의 도움이니 만수를 누려 국운을 튼튼히 하시라.'는 내용이 장엄한 율동 속에서 진행된다.

하늘의 살피심이 크게 밝아
상서로운 꿈이 금척에 맞았도다
청백한 이는 늙어 혼미하고
정직한 이는 어리석음이여!
덕망있는 이가 이에 적합하도다.
하늘이 우리 마음을 헤아려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였도다.

(3) 작대도

원의 상태에서 처음의 위치로 돌아가 헌수를 드리고 다시 '즐거움이 극치에 이르기 전에 빨리 경계하는 마음을 품어 천명을 길이 보전하시옵소서'라는 하직의

인사를 올리는 장면으로 이 무용은 막을 내린다.

정고한 저 부록이여!
천명을 받을 상서로다.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에게 마침이여!
천억대를 이어 가리라.
성인이 나시니 만물이 다 보게 되고,
영험한 상서 많으니 모든 복이 이르옵니다.
이런 말이 부족하여 노래하고 춤추오니
즐겁고도 즐거움이여 만수를 누리옵소서.

고성명파 돌다리놓기

민속놀이

고성 명파 돌다리 놓기는 동해안 최북단 휴전선 부근에 위치한 지역에서 행하여 지던 민속놀이였다.

명파리는 민통선 북방마을로 태백준령의 까치봉에서 흘러내리는 마달천, 건달천을 주축으로 많은 지류천이 있어 우기가되면 광산골에서 흐르는 세천들이 마을을 가로질러 주민의 왕래가 매우 불편하였으므로 수십톤에 이르는 반석을 목도로 운반하여 영구적인 돌다리를 놓아 영농과 주민생활을 원활히 하였다. 이러한 돌다리 놓기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해방전까지 성행하였으며 지금도 쌍개미동 마을에 여러개의 돌다리가 남아있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멀리는 건봉의 복원때도 대형석재를 이러한 목도로 운반하였다한다. 이 놀이는 정성드린 음식을 차려놓고 땅을 함부로 건드려 마을과 주민들이 화를 입는일이 없도록 치성을 드리는 지신제를 올리고 나서, 다리를 놓기 위해 장소를 고르고 발목과 채석을 한 후 64인조의 목도로 반석을 운반하여 다리를 놓는다. 다음은 완공된 돌다리가 영구 보존되어 신의 보살핌으로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아울러 주민의 안녕과 번영을 비는 준공제를 올린후 흥에 겨운 마을 주민들이 원로를 가마에 태우고 다리를 건너는 답교놀이를 한다. 그런다음 남녀노소가 어울려 흥에 겨운 춤을 추며 한마당 축제를 펼치면서 주민의 안녕과 협동화합을 기원한다.

고성명파돌다리놓기 (강원)



송파백중놀이

민속놀이

송파는 조선후기 전국 15대 향시중의 하나로 서울, 경기 일원의 중요한 상역지로서 보부상들이 전국에서 송파장으로 모여들어 270여호의 객주집이 성업성시를 이루었으며, 되쟁이, 말쟁이, 임방꾼(부두작업부) 잡심부름꾼등 갖가지 직업과 거부상들이 많아 그들이 추렴하는 기부금으로 대소 명절과 장날에 놀이판을 벌임으로써 송파장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장이 그 인근장에 비해 성시를 이루지 못한 듯 하면 백중난장을 7일까지 늘려 판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상인들이 추렴으로 보양(심부름꾼)을 띄워 명 연희자들을 불러들여 즐겁게, 씨름 붙이고, 소리하고 산대놀이판을 벌임으로써 장꾼들이 몰려 장이 훨씬 성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송파 백중놀이는 밀양백중놀이등과 같은 농민들에 의한 농촌형 백중놀이와는 달리 도시형(상역지) 놀이로써 직업적인 놀이패 즉 사당패, 소리패, 탈꾼패들을 불러들여 공연형태를 갖춘 놀이로써 1925년

송파백중놀이 (서울)



한강 대홍수로 송파지역이 모래사장으로 변해버린 이후 65년만에 송파백중놀이를 재현하게 된 것이다.

난장판을 벌이는 가운데 광대줄타기, 송파산대놀이, 씨름판, 그리고 경기 산타령 및 민요를 부른다.

공산민요

민요

유래

영남, 대구 일대에서 명산으로 우뚝 솟은 팔공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공산지역은 넓은 들과 비옥한 땅에서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농업노동의 관행인 두레, 품앗이 등의 풍속에 기초한 농업노동요들이 생겨났으며 이것이 지금껏 전승되고 있는 공산민요이다.

특색

(1) 선소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노래의 시작부터 끝까지 선소리꾼이 노래를 메기면 농부들이 받아서 뒷소리를 부른다. 전체적으로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부녀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논농사에 참여해야 했던 여자들은 힘든 노동에 지치게 되었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노동의 힘겨움을 노래에 실어 풀고 있다.

특히 모찌기노래와 모심기노래에 여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구성

(1) 어사용
(2) 가래질노래
(3) 망깨노래
(4) 도리깨타작노래
(5) 모찌기노래
(6) 모심기노래
(7) 논매기노래
(8) 전례와 칭칭이

내용

공산민요는 종류마다 가락에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 보인다. 그러나 어사용(나무꾼노래)과 벼베기노래는 같은 가락을 가진다.

특히 세벌논매기때는 선소리꾼이 노래를 주도한다. 선소리꾼이 북을 치면서 뒤에서 사설을 엮어 나간다. 이때 앞에서 논매기 하는 사람들이 뒷소리로 '어이오 오호 어이오호야'하는 후렴으로 받는다.

논매기노래가 끝나면 논을 매던 사람들은 둥그런 원을 그리며 모인다. 원이 만들어지면 모두 서로에게 전례를 한다. 이때는 '우아 전례'라는 소리를 지른다. 전례를 하고 나면 목나팔을 불고 칭칭이(쾌지나 칭칭나네)를 부르면서 논두렁으로 나온다.



공산민요 (대구)

큰머슴은 소 대신에 깽이자루를 타고 논두렁으로 나온다. 일꾼들 사이에 선 큰 머슴은 방아타령을 부르며 마을로 돌아온다.

마을로 돌아온 큰 머슴은 주인집에 들어가 마당에서 논매기 흉내를 내면서 논다.

이어서 판굿으로 한바탕 흥겨운 놀이마당이 열린다.

놀이기구

북, 장고, 징, 꽹과리 등.

31

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90. 10. 23 ▶ 10. 25
제주종합경기장주경기장, 한라체육관

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90. 10. 23.－10. 25.
제주도 종합경기장주경기장, 한라체육관

대통령상
서우젯소리(제주)－민요
국무총리상
연산백중놀이(충남)－민속놀이
문화부장관상
광산농악(광주)－농악
금릉빗내농악(경북)－농악
보성장좌기받이별신제(전남)－민속놀이
공산농요(대구)－민요
해주검무(황해)－민속무용
장려상
바위절마을호상놀이(서울)－민속놀이
마산두레농악(경남)－농악
군산용왕굿(전북)－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요왕맞이굿놀이(제주)－민속놀이
부산농악(부산)－농악
디딜발아액맥이놀이(대전)－민속놀이
신창탈놀이(함남)－민속극
재가승염불삼매놀이(함북)－민속놀이
단양띄뱃놀이(충북)－민속놀이
인간칠십고려장하직굿놀이(평남)－민속놀이
평안도다리굿(평북)－민속놀이
김포상두꾼소리(경기)－민요
공로상
정선지게춤물박장단(강원)
평안도 다리굿(평북)
주대소리와장치기소리(인천)
단양띄뱃노래(충북)
김포상두꾼소리(경기)
개인상
김한순(농악, 부산)
이국헌(민속놀이, 대전)
오경일(민속놀이, 제주)

서우젯소리

민요

유래

서우젯소리는 제주도 전역에서 전승되는 민요의 한 유형이다. 본래는 무의식에서 부르는 놀이무가로서, 선율이 유연하고 경쾌하며 구성져 민간에 전승되었다. 지금도 전문적인 직능자인 심방(무당)에 의해 신을 즐겁게 놀리고 기원하는 '석살림' 제차에서 춤과 함께 불려지고 있는데, 이 서우젯소리는 신놀림이라는 주술종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에 의해서 가창 전승되는 서우젯소리는 가락을 중심으로 즐겨 놀면서 불려져 왔다.

특색

서우젯소리의 유형은, 굿에서 신놀림을 위해 부르는 무의형, 김을 매거나 멸치 후리는 작업에서 일꾼들이 부르는 노동형, 일반 서민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부르는 유희형으로 구분되며 가창형식은 앞소리와 후렴의 기본형식으로 많이 불리운다. 또한 서우젯소리의 율격구조는 유연한 춤동작과, 김매는 작업과 멸치후리기 작업과의 깊은 연관성, 그리고 악절적 규칙성으로 말미암아 유장한 느낌을 주는 4음보가 기본율격을 이루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구성

(1) 첫째마당
군웅풀이, 영감놀이, 선왕풀이 서우젯소리.
(2) 둘째마당
김매기서우젯소리, 멸치후리기서우젯소리.
(3) 셋째마당

서우젯소리 (제주)



영등굿서우젯소리, 배방선서우젯소리, 춤판서우젯소리.

내용

서우젯소리의 여러 유형 중에서 노동형에 속하는 '멸치후리기서우젯소리'를 예로 들어본다. 이 노래는 멸치후리기 작업때 '멸치후리는 노래'와 함께 불리운다. '멸치후리는 서우젯소리'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어양어양 어양어양
어양어야 뒤야로고나
(후렴) : 아하아양 어허어양 어어요
산에가난 산신서낭
물에가난 용궁서낭
(후렴)
동해용왕은 광덕왕이요
서해용왕은 광윤왕이요
(후렴)
들붕에는 서와당가도
썰물에는 동바당이여
(후렴)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후렴)
허리떼밑에 화장이야
물떼나 점점 늦어진다
(후렴)
명지바당 심부름 불경
목포바당 앞으로 가자
(후렴)
어서도나 멘포정각
신거곤에 장사를 가자
(후렴)
물절또랑 배질호기는
선주사공의 놀음이여
(후렴)
붓대들렁 글잘호기는
서월선비의 놀음이여
(후렴)
잡대들럼 밧잘갈기는
농부한의 놀음입니다
(후렴)
놀고가저 쉬고가저
날도좋안 오늘이여
(후렴)
일기도 좋안 오늘이여
매일 장상 오늘이여
(후렴)
성도 언제나 가실소냐
어야뒤야 방에로고나
(후렴)
전승굿인 구월에나만
구월꽃도 내벗이여
(후렴)
날버리고 가던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뱅나고
(후렴)
어야뒤야 방에로다
어야뒤여 살장귀여
(후렴)
어야차 소리에 배를 놓고
뒤야차 소리에 닷을 걸어
(후렴)

연산백중놀이

민속놀이

연산백중놀이는 현 논산군 두마면 왕대를 중심으로 연산면 일대에서 전승되어진 민속놀이로서 구전에 의하면 조선조 성종때부터 서석 김국광(1415~1480 성종때 좌의정, 후에 좌리공신 광산부원군에 봉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생가가 있던 왕대리(현재 묘소가 있음)와 인근 27개 동리에서 농사일이 거의 끝나는 음력 7.15 백중절에 김국광의 묘에 참배를 한 후 두계천변에 모여서 난장을 트고 한마당 축제로 벌어진 대동놀이였다고 하며 해방전후 중단되었다가 40여년

연산백중놀이 (충남)



만에 발굴하여 재현되었다.

이 백중놀이는 각종 제의식, 효자효부에 대한 상과 불효자에 대한 벌을 논하고 그해 농사를 가장 잘 지은 머슴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당시의 풍습을 놀이로 재현하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은 맨 처음 세곳에서 각기(한 곳은 쌍용기)를 선두로 하여 놀이마당 중앙으로 집결하는 길놀이 진군, 용기와 쌍용기를 향해 절하고 용기와 쌍용기가 배례와 답례를 하는 기세배, 농신기를 꽂은 단앞에 제의식을 거행한 후 액막이 농사풀이 및 판굿을 하는 농신제, 효자효부와 불효자를 상벌하고 농사 잘 지은 머슴을 시상하는 상벌마당, 상벌마당이 끝난 후 농악을 중심으로 놀이판을 벌이고 좌상들의 양반춤과 광대들의 해학적인 춤으로 어우러져 한바탕 놀이마당의 난장을 벌이는 백중놀이, 마지막으로 뒷풀이를 한후 하직의 기세배를 올리고 각 동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구성된다.

광산농악

농악

광주직할시 광산구 광산농악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랜 옛날부터 농사를 생업으로 하면서 정월대보름에 마을마다 가가호호를 돌면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자생한 일종의 마을 굿놀이로서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당산굿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치는 걸궁굿, 농군들이 모심기나 김매며 치는 풍장굿(길지심), 구경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굿패들의 개인놀이로 벌리는 판굿등이 있는데 이를 호남의 우도농악이라 한다.

구성

광산농악 (광주)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농기와 한쌍의 영기를 든 기잡이와 꽹과리(쇠), 징, 장고, 북, 소고, 나팔등의 악기를 치는 놀이꾼과 잡색으로 부르는 대포수, 양반, 할미, 조리중 각시등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

복식은 상쇠 부쇠를 제외한 전원이 흰복장에 고깔을 쓰고 3색띠를 두르며 사용되는 악기에는 꽹과리, 징, 장고, 북, 소고, 나팔등으로 되어있다.

굿가락의 변화가 많아서 유연하고 흥겹고 구성진 반면에 진법의 기교보다는 가락의 기교가 서려있으며

설장고놀이와 같은 개인놀이가 발달되어 있을뿐 아니라 특히 다양한 가락 멋스러운 춤사위가 보는이의 흥을 돋운다.

내용

우도농악에는 문굿, 당산굿, 샘굿, 들당산굿, 날당산굿, 마당밟이굿, 판굿 등이 있는데 이번에 출연할 내용은 판굿으로 판굿에는 가진질굿, 오채굿, 벙어리삼채, 오방진, 일, 이, 삼채굿, 콩뚱지기, 호호굿, 구정놀이(개인놀이) 등이 있는데 이중 가진질굿, 오방진굿, 호호굿, 구정놀이굿 순으로 출연한다.

(1) 가진질굿(가진일체굿)

가진일체로 좌우치기를 하고 늦은 3채를 치고 구정놀이가락으로 끝을 맺는것으로 농악의 기본이되는 굿이다.

(2) 오방진굿

동살풀이(오방진가락) 가락을 치면서 오방진을 쌓고 적을 포위했다 푸는 과정을 연출하면서 자진머리가락에 의해 원진하는 굿이다.

(3) 호호굿(열두마치굿)

열두마치 가락을 치면서 원진을 쌓고 가진일체가락으로 되돌아가며 호호소리를 하면서 원을 그리며 돌다가 구정놀이 가락에 의해 배미래기를 하고 자진머리로 끝난다.

(4) 개인놀이(구정놀이굿)

잡색, 소고, 통북, 상쇠, 장고놀이등으로 개인장기를 자랑하는 놀이이다.

(가) 잡색놀이 : 대포수, 양반, 할미, 각시, 조리중등이 가면을쓰고 출연하는데 파계한 조리중이 각시를 농락하면 양반과 할미가 이를 말리는 놀이로 양반을 풍자하며 진행된다.

(나) 소고춤 : 남도 특유의 춤사위에 소고 '퍼넘기기' 돌리기등을 하면서 원진무를하는 개인놀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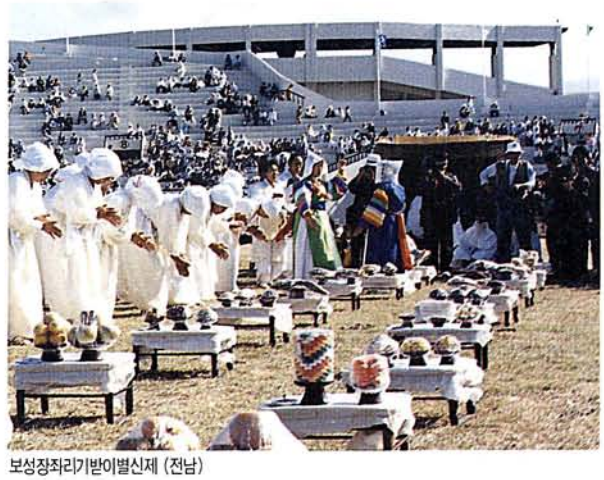
(다) 북춤 : 북춤은 4개의 북이 한손으로 통북을 치며 회전하면서 춤을 추다가 2개조가 되어 1진 2퇴를 반복하면서 기량을 발휘한다.

(라) 상쇠놀이 : 상모놀이는 외상모, 양상모, 사사이(4, 4, 2) 마상개, 좌우치기, 퍼넘기기, 돗대치기, 반드림 등 부포를 돌리고 상대방가락에 맞추어 부포를 세우고 반대로 반복하는것을 짝두름이라한다.

(마) 장고놀이 : 장고놀이는 4명이 하는 일채, 이채, 동살풀이, 굿거리 3채가락 순으로 치며 3진 3퇴, 회전무, 또는 연풍대등의 개인기를 연출한다.

보성장좌리 기받이별신제

민속놀이


보성장좌리기받이별신제 (전남)

유래

장좌리 별신제는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에서 행하는 민속 제의이다. 이 별신제는 7백 여년 동안 이어온 당제로 불교와 토속 신앙이 혼합된 형태이다. 매년 음력 정월 열흘부터 대보름까지 거행되며 상·중·하당에서 모두 세 차례 제사를 지낸다.

상당은 장좌도의 주산인 영구봉의 산신을 모시고 있는데, 고려 중엽 이 마을 사람으로 동래와 교역하던 낙안 김씨가 산신의 현몽으로 뱃길을 조심하여 큰 이득을 얻게 되어 이때부터 신단을 설치했다고 한다.

중당은 고려 때 사람인 선근이라는 여인이 묘향사 영불의 점지를 받고 남하하여 이 곳에 살면서 깊은 불심을 행해 왔는데 세상을 뜨면서 자신의 재산을 이 마을에 기탁하며 유언으로 고흥 가는 길에 돌다리를 놓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마을에서는 그 뜻을 받들어 다리를 놓고 그 다리 이름을 선근교로 지어 선근의 사후 60년 뒤부터 동신으로 섬겨 중당에 모셨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의 재산은 마을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제향의 비용에 충당하고 있다.

특색

남도 유일의 기받이 별신제로 수호신으로 오리를 받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구성

(1) 짐대(솟대) 세우기
(2) 소기받이
(3) 혼 맞아오기
(4) 원님놀이
(5) 별신제전 모시기
(6) 헌식
(7) 오방돌기
(8) 말밥·오방기 버리기

내용

이 별신제는 마을의 안녕과 무병무사, 풍농, 풍어, 다산, 부귀 등을 기원하고 마을의 협동심을 다지며 삶의 의욕을 생동하게 하는 축원제이다.

상당, 중당제가 정월 열나흗날 끝나고, 보름날에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여 하당제 굿판을 벌인다.

마을의 제의는 정월 6일에 회의를 열어 제주와 헌관 등을 뽑게 되며 7일부터는 온 마을과 집안을 청소하고 열흘날 아침에는 금토(禁土)를 깔게 된다.

열나흗날 밤 2경부터 영구봉에 위치한 상당과 중당에 제를 모시는데 이때 4곳의 마을 입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출입이 금지되어 엄숙하게 행한다.

보름날에 이르면 마을 입구 짐대(솟대) 밑에 마련된 '마실'에서 오방의 별신을 맞아와 하당제를 모신다.

보름날 오전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오색의 소기를 받들고 농악대와 어울려 짐대를 중심으로 돌면서 한 해의 무병장수를 빈다.

유시에 이르면 크고 작은 기와 농악대는 마을 앞들(안정들)을 돌며 별신들을 맞아오고, 이때 마을 입구에서는 고을 원님 주제하에 불효자와 패륜아를 잡아들여 태형을 집행한다.

원님 놀이가 끝나면 하당제가 모셔지고, 마을 광장에서 신명나는 농악이 펼쳐지면서 동구 밖을 돌며 헌식한다.

이때 젯상에 남은 음식을 모아 말밥을 만들어 오방을 돌며 그때까지도 마을에 남아 있는 모든 잡귀를 오방기로 쓸어낸다.

인시가 되면서 말밥과 온갖 잡귀가 붙어 있는 오방기를 동네 바깥 선근교까지 가지고 가서 만수가 된 물위에 떠내려 보낸다. 돌아오면서 신발이 벗어져도 줍지 않는다는 풍습이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소중히 이어

져 오고 있다.

해주검무

민속무용

유래

황해도 해주지방에서 추어져 왔던 검무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민속무용으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춤이다.

일명 검기무라고도 불리우는 이 춤은 전국적으로 몇 안되는 종류의 무용일 뿐만 아니라 세련된 춤동작을 가지고 있어 예술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다.

검무라는 무용이 처음으로 발생하게 된 유래에 대해서는 문헌비고와 동경잡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삼국시대, 신라사람들이 황창의 죽음을 애도하여 황창의 얼굴을 모방한 탈을 만들어 쓰고 춤을 추었는데 이것이 검무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검무라는 춤이 원숙한 형태와 동작을 지니기까지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칼춤과 유사한 원시무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오랜 옛날 수렵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원시사회에서 짐승과 물고기를 잡은 동작을 무용화한 수렵무용이나 무속의식에서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모습을 반영한 축사무용등이 그 예이다.

동경잡기 인물조에는 고려시대 말까지 검무는 가면을 쓴 동자가 춤을 춘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선시대 숙종 이후 고종 말까지 궁중에서 벌이는 향연때마다 지금의 춤의 양식과 비슷한 검무를 춘 사실이 궁중의례에 대한 기록에 나와 있다.(무녀가 추는 경우 이를 공막무라 했고 동자가 추는 경우 첨무라 불렀다.)

해주검무 (황해)



검무는 궁중악을 관장하던 장락원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던 지방관아의 교방계에 전파되어 오늘에 와서는 진주지방, 통영지방에 까지 전해지고 있고, 분단으로 말미암아 해주검무는 월남해 내려온 황해도 예능인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현재 보존되고 있는 고형의 검무는 이 세지방의 것뿐이며 이러한 춤들은 관에 예속되어 있던 관기들에 의해 전승 발전되어 왔고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게 되었다.

특색

해주검무는 반주음악에 있어서 염불장단이 없이 처음부터 '늦은타령'에서 시작한다.

춤동작을 보면 전립테에 한손을 대고 한손만으로 춤을 추며 연풍대는 원주상을 돌때 양손을 땅에 짚어서 한다.

칼춤은 뿌리는 동작이 비교적 적고 그 대신에 칼을 가지고 춤을 추는 사위가 많은 점이 타 지방의 검무와 비교할 때 색다르다.

구성

진행순서는 처음에 2인씩 마주보고 추는 2인 대무 방석돌이와 1열 대무로 이루어져 있다.

소요시간은 약20분 정도이며 춤의 구성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손춤의 경우 주된 춤사위로는 '부채사위' '한팔당길사위' '엎을사위' '도는사위' '앉은사위' '엎드려땅짚기' '양손땅짚고어르기' '전립잡고 손돌리기' 등이다.

칼춤은 '옆사위' '번개사위' '머리윗사위' '잡은사위' '모듬뺄사위' '좌우치기' '외칼연풍대' '외칼 양칼 연풍대' '양칼 땅짚고 연풍대' '어르는사위' '한발들고 뿌리기' '반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해주검무는 8인의 무원이 남쾌자와 전립으로 장식한 후, 양손에 칼을 갈라 쥐고 삼현육각의 늦은타령·빠른타령·연풍대장단에 맞추어 먼저 손춤을 추고 뒤에 칼춤을 추어 씩씩하고 구성지게 춤판을 벌인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민속놀이

바위절 마을(암사동)은 광나루에 있었던 나루터인 하진참에서 동방향에 위치한 바위에 9개의 절이 있어

구암사라 한데서 유래되었으며, 지금은 암사동 산1번지에 바위절터라고 쓰여진 돌기둥이 세워져 있고 주춧돌이 절터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암사동은 전통적인 농촌지역으로 1963년 서울시에 편입되기 이전까지만해도 옛 민속놀이인 상여놀이가 전래되어 왔다.

상여는 가정형편이 넉넉하며 오래살고 복이 많은 사람이 사망 하였을때 조립하게 되는데 출상전날 저녁에 빈 상여를 메고 선소리꾼과 상여꾼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만가를 부르고 받으며 발을 맞춘다. 상여꾼은 요령잽이(선소리꾼) 1명이 상여앞에서 이끌며 네줄로 36명이 메는데 10명 내외가 메는 보통 상여에 비해 대단히 크다.

상여가 집을 떠날때는 상여를 메기전에 요령잡기 소리와 집을 떠나면서 향도가등을 부르는데 이 마을 특유의 선소리를 부르고 받으며 상여가 뒤로 밀리는듯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강물이 출렁이는 모습과 같아 매우 흥겨로우며 성분을 다지며 부르는 갖은 덕담과 달구질 매김 노래인 방아타령은 이마을의 독특한 풍습이다.

바위절마을 발인행렬은 ①명정→②등롱→③스님→④요여→⑤공포→⑥만장→⑦북→⑧선소리→⑨상여꾼→⑩복잽이→⑪조객→⑫조문후객 순으로 진행한다.

마산두레농악

농악

일반 농악과는 달리 마산 두레농악은 농민들이 대단위로 운집하여 축제행사를 가지면서 농신에게 풍년을 기원하고 각자의 소원성취를 비는 축원 노작 농악이다.

마산시에 소재한 반용산의 유곡인 어복곡은 십리에 뻗친 깊은 계곡으로서 이 계곡 안에는 상투바위, 상사암, 무지개웅덩샘, 약수정 등 신화와 전설이 얽힌 명소가 많고 이 계곡의 무지개웅덩샘에서 목욕(7석약수)을 하면 질병을 막을 수 있고 상투바위에 축원하면 효험을 얻을 수 있으며 약수정의 금근수에 조청(엿)을 타서 먹으면 오래된 속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민간속설 때문에 해마다 음력 7월 15일이면 원근각처(김해, 진해, 창원, 함안, 창녕, 고성)에서 수만명의 주민들이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었다. 이와 더불어 산신제, 용왕제를 가정단위로 지냈으며 후에 크게 확대발전되어 결국 각 두레의 초군과 풍물패가 이곳에 운집, 종일 주식과 더불어 쟁기경합, 힘자랑, 농악놀이 등을 펼쳤다.

이 풍습은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발굴 재현하여 '마산두레농악'으로 명명하였다.

군산용왕굿

민속놀이

군산은 내륙과 도서지방의 연결지로써 예로부터 용신당이 형성되어 육지 및 해상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의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굿인 세습무들의 흥겨운 노래가락으로 용왕신을 달래는 용왕굿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현대화 과정에서 용왕굿을 하던 당집이 소멸되고 세습무의 굿도 그 맥이 끊겨 그동안 강신무와 법사들이 불교문화와 접목시켜 변형된 것을 현재에 이르러 원형을 찾아 옛모습을 재현하였다.

용왕굿의 진행과정은 굿의 시작인 산신과 용왕의 대내림굿, 농악과 신내림대가 마을을 돌며 무사태평과 수복강령을 비는 동네 걸림굿, 용신당에 당도한 신령에게 인간의 부정함을 사하여 달라고 비는 부정굿, 배의 주인산과 육지를 지키는 각시선왕과 애기선왕, 처녀선왕, 동자선왕 등 여러형태의 선왕을 달래는 선왕굿, 굿마당에 동참한 사람들을 신에게 축원하는 축원굿, 넋을 달래는 해원굿, 모셔온 신령을 제자리에 모시고 인간의 액을 꽃배에 실어 바다에 띄우면서 액맥이 하는 뒷풀이 굿으로 이루어진다.

군산용왕굿 (전북)



요왕맞이굿놀이

민속놀이

제주지방의 어부들이나 해녀들은 파도가 거세어지면 요왕신이 노한 까닭으로 여겨 자연히 요왕신을 모시고 제를 지내는 삶이 의식으로 전하게 되었다. 이 요왕맞이도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용왕을 청하여 부락의 안녕과 풍어를 빌고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굿인데 보통 정월에서 영등맞이와 함께 종합적인 의례로 치루어진다.

요왕맞이를 지내는 시간은 보통 '하늘머리 열릴때'라고 해서 해뜰 무렵이 되며, 요왕맞이 상차림은 요왕상, 사자상, 대령상, 보답상, 공싯상, 영신상, 액맥이상을 마련한다. 제물로는 메밥, 설귀(시루떡), 곤떡, 쌀, 팥등의 곡류와 미나리, 청각 등의 채소류, 감귤, 사과 등의 과실류, 술, 정화수, 꽃, 계란을 사용하며 바닷고기는 요왕님 스스로 거느리는 것이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이번 요왕맞이는 초감제를 시작으로 요왕신이 내림하는 군문열림, 요왕질침, 요왕문돌아봄 등으로 끝맺음을 하게 된다.

디딜방아 액맥이놀이

민속놀이

'목달미 디딜방아액맥이놀이'는 대전직할시 보문산 산폭에 위치한 대전직할시 중구 산서동 목달미 마을에서 전해오는 민속놀이로서 마을에 액운이 꼈을때 그 액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웃마을의 디딜방아를 훔쳐와서는 마을 삼거리에 디딜방아를 세우고 마을에서 액신을 몰아내는 제향을 지내며 마을사람들이 흥겹게 노는 놀이이다.

이 '디딜방아액맥이놀이'는 정월 대보름날 또는 마을에 경사스러운날이면 이웃마을의 디딜방아를 여러 사람이 상여소리를 내며 메고와서 마을 삼거리에 세우고 액신을 몰아내는 제향을 올리는데 여러 아낙네들의 속옷을 디딜방아에 걸쳐 절정에 이르렀을 때 과택의 속옷을 디딜방아에 걸치고 횃불을 피워 마을 잔치를 벌인다.

이때 액신을 몰아내기위한 춤사위나 각종 액신들의 율동이 특이하다.

재가승 염불삼매놀이

민속놀이

우리나라의 최북단에 위치한 함경북도는 산세가 험하고 산골이 깊으며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대륙과 접경하여 옛날부터 여진족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다.

8·15해방까지 함경북도 산간지대에 많이 살고있던 재가승들은 부락의 무사함과 아울러 각자 소원성취를 축원할 때 즐겨 '염불삼매놀이'를 하였다.

"일심불란하게 잡신을 없애 버리고 '백사위' 신장님을 청해서 모든 일에 장해없이 옹호해 주시고 신비롭고 씩씩한 큰 다라니를 주문하오며 대중은 엎드려 절하오니 도량이 티끌없이 깨끗하신 삼보철통은 이 법석에 왕림하시여 묘한 진언 외우는 것을 도와주고 부처님 평안히 앉아 이 감로다를 올리오니 기꺼이 받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공양을 원만히 받으셔서 경지의 풍치와 환경으로 살아 생전에 계신분은 일년내내 무병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신 성망 조상님들은 이 인연공덕으로 골 여이고 주락세계로 들게하여 달라"는 '등불써기'와 '탑돌이'로 축원한다.

이 의식은 '식당작법'의 불교의식 놀이에서 전승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양뗏노래

민요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의 삼도경계에 접해있는 단양은 태백, 소백의 웅위한 산세에 안기어 있고, 강원도 오대산에서 발원한 남한강이 이곳을 관류한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생활 방식과 관습에서도 남방, 북방의 방식이 혼융되어 있고 고어에 있어서도 경상, 강원, 충북과는 또 다른 독특한 방언이 형성되었다. 특히 남한강은 강원도 영월을 거쳐 단양에 흘러들어 오면서 연안 주민의 젖줄 구실을 했는데 상류에서는 목재를 묶어서 뗏목으로 흘려 내렸고 하류(충주, 경기지방)로 부터는 소금이나 그밖의 용품을 실은 띄

배가 올라왔다. 이 띄배는 연안 사람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배였으며, 그중에서도 소금은 아주 귀중한 것으로 소금배를 더욱 좋아하였다. 그래서 강가에는 배에 얽힌 노래들이 많은데, 이 단양 띄뱃노래는 소금배(띄뱃노래)와 관련된 민요이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지방의 민요는 강원민요의 영향이 크면서도 독특한 방언적인 요인이 포함된 화려하지 않고 잔잔하며 애상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인간칠십고려장 하직굿놀이

민속놀이

인간칠십고려장하직굿놀이는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서 행하여 지던 놀이굿으로서 한과 인생의 무상함을 그린 굿이다. 이 굿은 고구려때 늙고 병든 사람을 구덩이 속에 버려 두었다가 죽는 것을 기다려 장사 지냈다는 구전에 원류를 둘 수가 있는데, 재산이 넉넉하고 생활의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일흔이 넘은 노인이 있을 경우 살아 생전에 먹고, 쓰고, 동네 사람들과 즐겁게 놀고 즐길 수 있도록 굿판을 마련하고 만신(여자무당)들을 불러 이승과 저승의 길을 가르며 죽은 후의 장사치는 상례와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집안에서 가짜 무덤을 만들어 놓고 하는 놀이 형식의 굿이다.

이 굿은 대원군 이후에는 주로 만신들이 많이 하였다고 한다.

이 굿은 산신령과 산지신을 달래는 산신굿을 시작으로 신칠성·미륵칠성·바위칠성·용궁칠성을 위한 칠성굿, 산천대감을 즐겁게 하는 대감굿, 신어머니가 신딸에게 부업을 남겨주는 신떠오르는굿, 긴 난봉가·잦은 난봉가·병신 난봉가·엮음수심가·평양염불로 이어지는 인간칠십고려장놀이, 삼베·무명 등의 베를 가르며 이승과 저승의 길을 가르는 수왕굿, 가짜 무덤에 노인을 넣는 석장굿, 마무리로 구성된다.

지게춤물박장단

민속놀이

정선군은 태백산맥의 준령들로 둘러쌓인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 상류인 조양강과 지장천을 중심으로 일부 농경지를 이용하여 농경생활을 하는 경작민과 산간화전을 일구어 생업에 종사하는 화전민이 부락을 형성하여 살아왔다.

이 마을 남정들은 자연과 더불어 생활해 오면서 때로는 가난한 생활의 고달픔과 농사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산에 오를때 지게장단을 치며 아라리를 불렀고, 동네 아낙들은 밤새워 길쌈하던 분주한 삶의 피로를 한적한 우물가에 모여 물바가지 장단을 치며 삭였던 것으로 시작된 이 민속놀이는 점차 마을의 두레나 호무시게(호미씻이) 같은 마을의 경사나 모임에서 남·녀가 어울려 즐기는 놀이로 발전하여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놀이 과정은 전 4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게춤과 물박장단으로 흥겨운 한마당을 펼친다.

주대소리와 장치기소리

민요

주대소리와 장치기소리는 서해안 일대에서 어민들이 장치기 손질과 배에서 쓰는 줄을 들이면서 부르는 민요이다.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크므로 아름드리의 기둥을 장장띄(줄), 뒷장띄, 대앞줄, 귀빌이 등의 줄끝에 돌이 담긴 망태로 고정시킨 다음 기둥위에 여사를 걸고 장치기(일종의 정치망)라는 그물을 쳐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았다.

배에서 쓰는 줄은 그 용도에 따라 앙금줄, 아매줄 또는 비리줄, 닻줄 등으로 나뉘는데 앙금줄, 아매줄,

주대소리와장치기소리 (인천)



비리줄, 장장띄 등은 그다지 굵지 않으므로 짚을 섞어서 꼬았지만 닻줄과 여사는 굵고 질겨야 하므로 칡넝쿨을 많이 넣어 사용하였고 그 작업에 매우 힘겨워 집단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노래가 생겨났다. 이 노래는 일반 일노래의 창법과 같이 메기고 받으나 두 소리가 서로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

받는소리는 뱃노래의 노젓는 가락과 유사하고 메기는 소리는 노래에 따라 육지 아낙네들의 일노래 가락과 비슷한 것도 있는데, 서로 주고받아 한개의 가락으로 이어가는 노랫말을 주고받으므로서 사설적인 형태를 이루어가기도 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노래를 주고받기도 한다.

김포상두꾼소리

민요

김포 상두꾼소리는 이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민요로서 조상의 얼과 애환이 서린 미풍양속의 하나로 상례절차시 많이 불리워지는 소리이다.

행상이 나갈때 상여꾼이 부르는 소리와 성분 과정시 달구꾼이 부르는 소리(광중다지 및 회다지)를 포괄하여 김포 상두꾼소리라 이르는데, 상두꾼소리는 현실적 속박과 기반을 초극 환생하여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를 소원하는 현세 지향적 부활의식의 표현인 한국 고유의 풍습이다.

상례 절차중 치장순서는 득지택일, 개영역, 천광, 발인, 급묘, 내폄, 제주와 제주제, 성분, 반곡의 절차가 있었으나 이번 출연하는 김포상두꾼소리는 상례의식 중 발인에서 상행과정을 긴 가락으로 시작하여 잦은 가락으로 그리고 성분의 회다지 소리까지 이어지는데 선소리꾼의 선창에 따라 상여꾼과 달구꾼들이 후렴을 받는 민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포상두꾼소리 (경기)



32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91. 10. 16 ▶ 10. 18
여수 진남경기장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91. 10. 1-10. 18.
여수 진남경기장

대통령상
여수영당풍어굿(전남)-민속놀이
국무총리상
금산물페기농요(충남)-민요
문화부장관상
광산농악(광주)-농악
영암도포제줄다리기(전남)-민속놀이
구미발검들들노래(경남)-민요
해주검무(황해)-민속무용
북청돈돌날이(함남)-민요
장려상
소금밭일놀이(인천)-민속놀이
양반상례역귀몰이(대전)-민속놀이
안산둔배미놀이(경기)-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함안칠북화천농악(경남)-농악
망데기질드는소리(제주)-민요
평안도다리굿(평북)-민속놀이
횡성우밀어러리타령(강원)-민요
평양염불과제석방아찧기(평남)-민요
해주검무(황해)-민속무용
동래학춤(부산)-민속무용
대구건들방우치성굿(대구)-민속무용
재가승마을세시놀이(함북)-민속놀이
남이장군당굿(서울)-민속극
정읍농악(전북)-농악
공로상
남이장군당굿(서울)
횡성우밀어러리타령(강원)
괴산농요(충북)
정읍농악(전북)
망데기질드리는소리(제주)
개인상
권명화(대구건들방우치성굿, 대구)
박동욱(함안칠북화천농악, 경남)
정대북(평안도다리굿, 평북)

여수영당풍어굿

민속놀이

여수 영당풍어굿은 어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살아온 여수·여천 지역에서 지역민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례의식으로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성웅 이순신장군이 1598년 관음포 해전에서 운명하시자 이 고장 주민들은 공의 위업을 기리고 공을 바다의 수호신으로 모시기 위하여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서쪽 해구인 국포에 당우를 건립하고 공의 영정을 봉안했었다.

그로부터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장군의 영정앞에서 지역유림들은 유교식 풍어제를 올렸고 무당들은 용왕굿을 하면서 지역안녕과 풍어를 비는 이중구조의 특징있는 풍어굿이 행해져 왔다.

원래 영당풍어굿은 유림과 무당에 의해 이틀동안에 걸쳐 진행된 큰 굿으로 청신굿, 오신굿, 퇴신굿이 있으며 20여개 작은 굿거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당시의 원형을 주어진 시간에 함축성있게 재현하기 위하여 ①영당제 ②용왕맞이 ③고풀이 ④진생원굿 ⑤헌식굿 ⑥액송굿의 6굿거리로 재구성하여 이루어진다.

무가는 피리와 꽹과리, 징, 장고 반주에 의해서 굿거리에 따라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살풀이, 흘림 등의 장단에 맞춰 불러지고, 민요는 농악반주에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가창된다.

여수영당풍어굿 (전남)



금산물페기농요

민요

평촌 물페기 농요는 두레농사를 지으며 부르는 일편


금산물페기농요 (충남)


영암도포제줄다리기 (전남)

의 노래로 모심을 때 부르는 모심는 소리와 호미를 사용하는 아시매기 때의 일카산이야 소리, 손으로 애벌매기 때의 긴소리, 방에 소리, 쌈사는 소리, 장원질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심는 소리는 뒷소리가 없이 두서너명이 주고 받는 교창식이고 일카산이야 소리는 충남의 서부 평야지대의 소리와 동부 산악지대의 소리가 결합된 구조를 띠고 있는 선후창식이며 긴소리도 선후창식으로 초장, 중장, 말장이라는 뒷소리가 아주 발달된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농요권 분류에 독자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소리들은 처연하면서도 힘차고 담백한 음색을 자아내는데 이와같이 평촌 물페기농요가 독자성을 가지게 된데는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분기되는 지점에 위치하여 평야지대의 소리와 산악지대의 소리가 결합되어 발달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도포제줄다리기

민속놀이

영암군 도포마을의 '제(祭) 줄다리기'는 150여 년전 풍수지리설에서 마을터가 돼지형국이라해서 밥구시혈에 천제단을 설치하고 해마다 정월대보름과 7월 7석날에 제를 지내 지기와 지운을 향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 줄다리기'에 대한 설화는 마을터가 돼지산으로서 명당인데, 이 명당을 해치려는 서쪽 사자산과 북쪽 호산이 있어 이 맹수의 세력을 막기 위해 천신에게 제사하고 무사가 사자산을 겨냥하여 화살을 쏘는 주술의식 하고 동도포와 서도포가 편을 갈라 터누르기 제 줄다리기를 했다고 전해진다.

구성내용은 ①길놀이 ②진놀이 ③고걸이 ④제사 ⑤결전 ⑥대동마당으로 엮어져 양편이 줄머리와 농악에 의해 진군하여 고를 걸고 제단에 도착하여 동시에 제를 올린후 줄을 당겨 결전을 치룬다.

구미발검들들노래

민요

발검들은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의 대단히 넓고 기름진 앞들이다.

지산동은 약 120가구, 오백여명의 주민으로 이루어진 각성촌락이다. 이 마을은 옛날부터 공동농경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동작업에서 불렀던 들소리들을 조사하여 일괄하고 이를 엮어서 발표한다.

출연자들은 모두가 지산동에서 나서 살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고령자만 선발하여 구성하였고 평균연령은 65세 가량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민요들은 새로 조사 발굴된 것만을 모은 것이다. 특히 '영남아리랑'은 최근에 조사 발굴된 것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구미지방에는 옛부터 향랑설화와 더불어 '산유화가'—(속칭 뫼나리조)가 널리 불리워 지고 있어 오랜 전통을 가진 '뫼나리조'의 본 고장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도 하다.

선창자 백남진(68세)은 타고난 맑고 구성진 청으로 무리없는 창법을 구사하는 사람이다.

이 민요는 총 열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바, '영남아리랑'으로 시작하여 '어사용'을 주고 받으면서 시작된다. 다음으로 농사 짓는 순서를 따라 가래질소리, 망깨소리, 목도소리를 부르고 이러한 기초작업을 마친



구미발걸들 들노래 (경남)



북청돈돌날이 (함남)

후에 모찌기, 모심기, 논매기 소리를 메기고 받으면서 부르고, 이어 타작소리로 이어진다. 끝으로 풋굿이 베풀어질 마을을 향하여 상머슴을 깽이말(들채)에 태우고 흥겨운 칭칭이 소리를 부르면서 행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청돈돌날이

민요

'돈돌날이'춤은 누구든지 바가지 장단 또는 북 장단과 노래에 맞추어 춤판에 뛰어 들어 마음대로 춤출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랜 전승 과정을 통하여 놀이구성에는 일정한 형식이 갖추어졌다. 흰 모래판의 춤판을 둘러싸고 큰 원형을 이루면서 둘러 앉으면 그중 몇 사람이 한 복판으로 들어가면서 춤을 춘다. 이때 모여 앉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면서 흥을 돋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준비하였던 퉁소등의 풍악 반주가 뒤따르기도 한다. 이리하여 놀이판의 분위기가 고조되면 한 복판에 나간 사람들은 군중들의 손뼉 장단, 바가지 장단, 북과 징 장단 노래에 맞추어 명랑하고 경쾌한 '돈돌날이' 춤을 춘다. 그러면 모여 앉았던 사람들이 춤판에 뛰어 들어가 본격적인 군무가 벌어진다.

처음에는 제각기 춤을 추다가 점차 대열을 지어가면서 원형을 이룬다. 그 중심에는 무동, 꼽추, 유걸이 등이 나타나서 연희한다.

일제시대에는 한식 다음날 오후 2시경이면 북청군내의 여러 마을에서 부녀자들이 남대천 철교(신북청리) 아래로 모여들어 '돈돌날이'판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어수선하지만 점차 마을별로 부녀자들이 무리를 지어 놀므로 자연히 여러 집단의 '돈돌날이'팀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신나게 놀았었다.

돈돌나리 돈돌나리라 리라나리요 모래청산에 돈돌나리요

오막살이 초가집에 모래강산아 리라리라리 돈돌나리요

이강산 서산에 해가 떨어졌다 얼시구나 잘한다 자미가 쓸어진다

월출동산에 달이 솟아온다 얼시구나 잘한다 조선이 독립이라

봄철나비는 꽃을 따라서 거미줄에 걸려서 네발을 뻗는다

삼월제비는 찾아 왔다가 구월이라 구일날에 돌아가노라

우리 북청은 남대천에서 한식명절 즐기면서 춤을 추노라

오빠 떠나간지 십오년이 다 지나가도 편지한장없는 우리오빠 무정하고나

리라 리라리라 니라라리 니라라리요 니라라리 니리리리 니라라리요

대전양반상례 역귀몰이

민속놀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관혼상제를 엄숙히 여겼으며, 특히 양반의 고장이라 불러온 충청도에서는 4대의 례를 가장 중요시했으며, 그중에서도 상례를 가장 비

중이 큰 의례로 여겨 장례규모가 마치 가문의 세도를 나타내는 척도처럼 과시되기도 하였다.

이번에 출품한 민속내용은 대전의 이사동 사한리를 중심으로 고려말의 충절 송명의가 은거하여 가계를 형성시킨 이래 송준길, 송시열 등의 명사를 배출한 은진 송씨 가문으로 이조말 고종때 규장각 직각벼슬을 했던 송용재의 장례절차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상여가 행차할 때 험상궂은 방상시가 상여와 복인들을 배회하였으며, 이를 따르는 만장행렬은 공포, 명정과 함께 바람을 타고 하늘에 휘날려 화려하게 빛났다.

복인뒤에는 백등교와 나귀를 탄 조문객, 기타 조문행렬이 십여리 길이나 붐비었다. 당시 장례행차를 구경하려고 대전 시장가가 철시를 하는 혼잡을 이루었고, 목척교의 거리제와 문상객을 맞이하는데 어쩔수 없이 일본 순사까지 동원되어 질서를 유지시킬 정도로 장관을 이루었는데, 본 송진각 장례에서 볼 수 있었던 방상시는 57년만에 재현하는 것이다.

안산둔배미놀이

민속놀이

둔배미 마을은 초지동 백성산 동북쪽에 위치해 있던 둔전마을로 고려 및 조선시대에는 둔전병이 살고 있었던데서 둔배미라고 불린 곳이다. 전적에 의하면 안산군 와리면 원당리라 칭했는데, 포구가 제일 먼저 생겼다고해서 원포라고 또는 원당포로 불렀다.

안산 고장은 어업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포구마을마다 배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둔배미, 성머리 포구(현재의 성포동)및 와리쪽의 생산놀이가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후까지도 그 맥을 이어나왔다. 이러한 어로문화는 군자동의 능길, 수암동, 반월동, 독주골(성포동)의 농요와 어우러져 이 고장 특유의 노동문화를 이루는 기둥이 되었다.

특히 둔배미의 배치기는 원포의 당집에 뿌리를 둔 전통을 갖고 있으며, 이와 짝이 되는 농경문화 가운데 능길(군자동 신길리)의 농요는 현재까지도 옛날 가락과 소리말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둔배미놀이의 중핵을 이룬다. 이 놀이는 어업과 농사라는 두개의 생활근간이 한데 어루어져서 형성되는 기층민들의 대동축제이며, 그것은 이땅에서 면면히 삶을 영위해 나온 조상들의 땀과 한으로 빚어진 놀이이기도 하다.

안산둔배미놀이 (경기)



망데기 질드리는소리

민요

망데기(항아리) 질(길)들이는 소리는 남제주군의 중산간 마을 대정읍(신평, 구억, 무릉2리) 주민들에 의하여 구전되어 오는 노동요로서 생활도구인 망데기를 비롯 옹기를 만드는 과정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옛부터 이 지역(특히 신평리 일대)에는 도기를 빚을 수 있는 흙이 풍부하고 물이 좋은 관계로 도요지가 많았었는데 이러한 잇점으로 이 지역 대다수 주민이 옹기를 구워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었다.

이 민요는 마을에 모여사는 사람들이 합동으로 도기를 만들때 흙을 이기고 두드리며 질(길)들이는 작업의 고달픔을 잊기 위해 부르던 노래이다. 흙을 파는 작업을 시작으로 흙을 나르고, 이기고, 두드리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선소리꾼이 노래를 선창하면 훗 소리를 합창으로 뒤따라 부르는 형식을 취하여 그들 하루의 생활상을 소상히 재현한 작품이다.

특히 옛 도공들이 고된 일과를 이 지역 주민들은 강인한 인내력과 협동정신으로 이겨내면 보람찬 하루를 보냈음을 엿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대정읍 신평리등 일부 중산간 마을 노인들에 의해 불리워지고 있으나 이 민요는 학계등에서 체계적인 발굴을 통하여 보존대책이 요망되며 후세에 길이 전승해야 할 귀중한 노동요라 하겠다.

횡성우밀 어러리타령

민요

횡성 우밀 어러리 타령은 농경사회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서민들의 애창곡이 촌노들의 구전으로 전래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춘하추동 사계절의 소리가 각기 다르고 하루의 고단한 농사일을 해학적인 가사와 특수한 음률로 구성진 가락을 창출하였으니 선조들의·슬기와 발상을 재조명하는 듯 하다.

어러리 타령은 일명 두문사라고도 불리우며 심산 유곡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길손들의 발을 멈추게 한다.

시화연풍과 국태민안으로 국익을 신장하였으며 충효를 사랑하는 민족이기에 이 아름다운 노래가 전래된 듯 하다.

백의민족의 혼이 이 속에 깃들여 있는 노동요로 하루의 피곤함을 예술로 승화시켰던 협동정신과 종교의식까지 가미된 생활속의 민속놀이란 특징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평양염불과 제석방아찧기

민요

이 소리는 평양지방의 무가에서 민속화된 속가이다.

평양지방의 큰 무당과 기예가 뛰어난 기녀들이 널리 애창하던 소리로써 창법과 박자가 매우 어렵게 짜여 있다.

이 소리는 평안도 무속중 제석거리에서 부르기도 하지만 봄에 파종을 앞둔 가정에서 동네 사람들과 모여 12월 또는 1월 중에 농사가 있는 가정의 아낙네들이 동네의 정한 곳에 내린 눈을 걷어서 조금 큰 물동이 속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독의 입구는 짚을 이용하여 잘 봉한다음 부엌 뒤곁에 잘 묻어 두었다가 봄에 파종할 때 눈독을 꺼집어내어 파종할 종자를 그 물에 세번 담갔다가 말려서 파종하면 병들지 않고 잘 자란다고 믿고 여러 가구가 한집에 모여 복을 점지하는 제석님께 정성을 드리며 평양염불과 제석방아찧기를 불렀다고 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기능 보유자이셨던 그 김정연선생께서 사사한 서도소리 연구회 박정욱이 외 회원들과 평안도지방 만신 몇 사람과 재현한다.

건들방우치성굿

민속놀이

지금도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 시 기념물 2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건들바위는 기자신으로 영험이 있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비는 치성을 드리던 곳이다.

'건들방우치성굿'은 영남지방에 전해오는 치성굿중 무속춤만을 집약한 것이며, 부정굿, 칠성굿, 동살풀이, 산신청문경, 고풀이, 허개굿, 해원굿, 뒷풀이 등 여덟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고풀이에서는 인간세상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며, 허개(삼층등)굿은 청한 신들과 무당들이 함께노는 춤이며 해원굿에서 액을 풀어주고 마지막 뒷풀이에서 전굿중들이 각자 특징있는 춤을 추면서 치성굿을 마무리한다.

살풀이, 승무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주무 권명화를 중심으로 무속전업자 석주화, 김정자 부부등 20여명의 무격역과 대구, 장고, 북, 징 등의 제비로 구성된 전형적인 영남내륙지역의 전통무속춤을 복원하여 선보이게 된다.

남이장군당굿

민속놀이

남이장군 당굿은 일제치하에서도 명맥을 이어오던 중 1982년 경희대학교 김태곤 교수가 향토축제 심포지움에서 남이장군 당제를 조사 보고하면서부터 복원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1983년 원형이 복원된 남이장군 당굿이 연 3일에 걸쳐 대치성제 행사로 재현되었다.

이 당굿은 전례에 따라 매년 음력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년 3회를 행하는데 그중에서 4월 1일

은 전야제를 비롯하여 연 3일 동안 원근 남녀가 운집하여 큰 굿을 드리는데 이 큰 굿이 끝나면 각지 무녀를 초청 주민들의 무병건강, 소원성취, 신수재수, 안과태평을 빌며 한마당 축제의 절정을 이룬다.

또한 주민들은 우환병고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곳 사당을 찾아 해소, 쾌복을 빌고 있다.

괴산농요

민요

괴산군의 농요로는 모심는 소리, 모심다가 쉴참에 부르던 노래 몇가지 논매는 노래, 갈깍는 소리, 디딜방아 등의 농요가 있으나 괴산농요 중에서도 문광면 문법1구 마을민 전체가 전승되어 보존하고 시연할 수 있기 때문에 타 농요보다 전통적으로 민속농요로써 가치가 크다.

모심기 노래는 강원도 아리랑 류와 경상도 교창식 모 노래가 있는데 이곳 문광면 문법 1구 농요는 강원도 아리랑 류에 속한다.

강원도 아리랑은 메기고 받는 방법으로 가창 되는데 받음구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헤헬싸 에헤리송아와 그 외의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정읍농악

농악

정읍군은 오래전부터 단풍이 유명한 내장산과 동학혁명의 발상지인 황토현전적지, 만석보등 유서깊은 고장이며 호남평야의 중심지로 농경업이 발달되어 국악과 농악이 활발하게 육성되어 왔다.

1920년경부터 당시 보천교 교주 차경석이 정읍군 입암면 대흥리에서 터를 잡고 농악을 즐기며 생활하였는데 전국에서 이를 배우기 위해 수백명의 기능인들이 모여들어 정읍농악의 기틀을 잡아왔으며, 장고의 명수라고 손꼽는 김홍집씨를 이어 신기성, 이봉문, 이정범 등 작고한 명인들과 전사섭의 설장고등 그 맥이 그치지 않았으며, 풍농을 기원하고 각종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려는 의례적행사이며, 천재지변에 대한 공포감을 제거하고 일상생활에서 유발되는 불안심리를 극복해 보려는 공동체의식하에 신성한 삶을 추구해 보려는 순수한 농심에서 정월대보름, 칠월칠석, 팔월한가위등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술먹이를 하면서 행하여진 농악이며, 대표적으로 질굿, 오방진굿, 호호굿, 인사굿등으로 보는이와 연출하는 이의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하는 정읍농악은 일찌기 풍요로운 생활속에 욕심과 걱정이 없는 이 고장의 인심을 말해주듯 이 리듬이 다채롭고 발놀림이 구성지며 다양한 가락과 의상 구성짐은 정읍농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듯이 우도농악의 본산지로 그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정읍농악 (전북)





농악 상쇠

33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92. 9. 23 ▶ 9. 25
구미시민운동장, 공오공대체육관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92. 9. 25.
구미시민운동장, 금오공대체육관

대통령상
예천공처농요(경북)—민요
국무총리상
부여용정리호상놀이(충남)—민속놀이
문화부장관상
고흥농악(전남)—농악
화천나뭇꾼농목장치기(강원)—민속놀이
포천메나리(경기)—민속놀이
영동길쌈노래(충북)—민요
날뫼북춤(대구)—민속무용
장려상
인천소금밭일놀이(인천)—민속놀이
도안동농요(대전)—민속놀이
장안골편사놀이(서울)—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부산영산재(부산)—민속무용
광산들노래(광주)—민요
임실삼계고전상여소리(전북)—민속놀이
익산삼기농요(전북)—민요
금릉빗내농악(경북)—농악
밀양법흥상원놀이(경남)—민속놀이
화반놀이(제주)—민속놀이
해주검무(황해)—민속무용
평양검무(평남)—민속무용
성황부군도당굿(평북)—민속놀이
북청돈돌날이(함남)—민요
공로상
화반놀이(제주)
부산영산제(부산)
광산들노래(광주)
평양검무(평남)
밀양법흥상원놀이(경북)
개인상
한기식(금릉빗내농악, 경북)
김종문(임실삼계고전상여소리, 전북)
박계순(북청돈돌날이, 함남)

예천공처농요

민요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동강변 공덕동 마을에 전해지는 동요로 26회 대회에서 문공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280p 해설자료 참조)

용정리호상놀이

민속놀이

부여 용정리 상여소리가 불리워지기 시작한 시기와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마을노인들에 의하면 옛날부터 전해오는 상여소리로서 어릴적 부터 듣고 자연스레 배웠다고 한다.

실제로 이 상여소리의 요령장이이며 선소리꾼인 하운(80세)씨 본인은 20대에 배웠으며, 자신의 조부에게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특이한 상여소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용정리 상여소리는 상여를 멘 상여꾼들이 좌우 또는 전후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 소리를 주고 받는 짝수소리가 특징이다.

상여가 나갈 때 처음에는 진소리(긴소리)를 하다가 선창자가 "이번 소리 끝나거든 짝수소리로 걸러가세" 하면 두마디소리(짝수소리)로 넘어가게 된다.

이 짝수소리는 한 소리가 끝나면 후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뒷쪽에 일정한 연음부가 있어 이 연음부에서 다음의 소리가 시작된다. 즉 주고받는 형식에 겹쳐지는 소리부분이 있어서 겹상 소리가 된다.

단순히 두패로 나누어 후렴을 따라 부르는 선후창 형식이 아니고, 후렴 부분을 매개로 하여 전혀 다른 두 가사를 노래하기 때문에 고도의 가창력이 발휘되며, 다른 상여소리보다 애조, 장엄, 음악성이 두드러진다.

고흥농악

농악

고흥농악은 이 고장에 있었던 전라좌수영 5관, 5포 중 한 진포의 취청 출신인 취고수들에 의해 전승된 굿



고흥농악 (전남)

으로 300여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동작이 기민하고 활기가 넘친 웅장한 좌도의 우조가락 속성을 띠고 있는 월포리 농악의 특유한 고조는 임진왜란시 군영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적진을 공략하는 전략에서 유래된 농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흥겨운 가락과 진법은 신청출신인 김은선 선생으로부터 월포마을의 상쇠 최치선(작고), 최병도(남, 76세)씨로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다.

이번에는 60여분에 걸쳐서 연희되는 삼진삼퇴의 정문사채 원형을 15분으로 축소구성하고 이어서 새끼풀이, 태극진, 연풍대, 미지기, 고사리꺾기 등으로 접속하여 총 40분의 굿을 펼치게 된다.

나뭇꾼농목장치기

민속놀이

화천 나뭇꾼 농목장치기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화천지방에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지만 고구려때부터 전래된 것이라 한다. 거북둔지와 옹기전 두 마을의 젊은이들은 농사철을 앞에 두고 농목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산길을 오가면서 지게 행상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가로막고 장난과 익살스런 풍자를 곁들인 선소리 가락으로 노자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농목이 끝나면 그해 풍작을 기원하는 한마당 놀이로서 농목장치기놀이를 즐겼는데 두 마을 젊은이들은 양편에 무리를 지어 동네 아낙들이 내온 술과 음식을 들며 농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한껏 흥을 돋운다. 양마을을 대표하는 상노인의 꽹과리를 시작으로 양편의 젊은이들을 지게 작대기를 이용해 칡을 둥글게 엮어 만든 칡구리를 상대편의 농목더미 사이로 밀어넣는 경기를 벌였다.

"산기슭에 임시로 쌓아놓은 농목더미가 품질이 고르지 못해 서로가 보다 좋은 질의 나무를 차지하려고 승강이를 벌이다가 나무 방댕이를 지게작대기로 밀어넣다보니 재미가 있어 칡넝쿨을 감은 것을 나무더미 사이에 지게 작대기로 많이 넣은 마을이 이기게 되고 이긴마을이 좋은것을 먼저 골라 가지게 되었다"라고 길병근 씨(76)는 말한다.

싸움에서 이긴 마을의 젊은이들과 아낙들은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상대편의 젊은이들은 지게 작대기로 땅을 치며 분해한다. 농목장치기가 끝나면 힘을 합쳐 땀흘려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을별로 지게로 행상을 꾸린 후 농악에 맞춰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끝을 맺게 된다.

포천메나리

민속놀이

우리나라 민요의 대종을 이루는 노동요는 일의 성격, 일터의 환경,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로 다르게 불려진다. 포천은 산과 들이 고르게 펼쳐져 있어서 여러종류의 노동요가 전해오고 있으며, 특히 논일과 밭일에 대한 노동요가 많이 전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논맬 때 불려지는 '메나리'가 많이 불려졌는 데 힘차면서 구성진 가락이 흥겹고 내용도 매우 건전한 데다가 창법이 독특하다.

이 노래는 쉴참이나 일을 끝내고 놀이를 할 때도 다른 노래와 함께 불려졌는 데 이러한 노래들은 '나무꾼소리(입산소리, 하산소리)', '써레질소리(소몰이소리)', '열소리(모내기소리)', '애벌논매기소리(긴아리,

포천메나리 (경기)



자진아리)', '두벌논매기소리(메나리)'등 농사일과정에 따라 불려졌으며, 이 때에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메나리'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메나리가 메기고, 받고 하는등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포천메나리'는 메기고, 지르고, 받고, 내고, 맺는 등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부름으로써 한소리를 완성시키는 점이 특이하다.

포천군에서는 이 특색있는 노동요를 발굴 계승하기 위하여 동전문인을 초청하여 발굴, 연출하였으며 이를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하여 포천실업고등학교를 전통민속놀이 전승학교로 지정하고 농악 및 농요반을 구성하여 농요 보유자를 초청 전수시키고 있다.

영동길쌈노래

민요

영동 길쌈노래는 옛날에 충북의 남부에 자리한 영동지방에서 부녀자들이 길쌈을 하면서 부르던 부녀요이다.

길쌈은 옛날에 목화를 길러 만든 솜으로 실을 자아 무명을 짜는 일로 그 과정은 목화씨를 빼는 씨아질, 목화를 펴서 솜을 만드는 활질, 솜고치로 실을 만드는 물레질, 베틀에 걸 실을 도투마리에 거는 베매기, 실로 무명을 짜는 베짜기로 진행되는데 이때 부녀자들이 피로를 잊기 위하여 길쌈노래를 불렀으며 그 내용은 아낙네들이 시름과 애환을 노래한 까닭에 길쌈노래는 대표적인 부녀요이면서 내방문학이기도 하다.

영동길쌈노래 (충북)



영동지방은 목화가 잘 되어 옛날에는 길쌈이 성행하였고 특히 '길쌈두레'를 만들어 마을에서 공동으로 길쌈을 하였기 때문에 길쌈노래가 발달하였다.

영동지방의 길쌈노래는 씨아질노래, 활질노래, 물레질노래, 베매기노래, 베틀노래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그 가락은 두 장단을 묶어서 한귀를 이루나 귀의 첫음은 대개 길게 내기 때문에 높은 음으로 시작하고 두번째 장단에서 풀어주는 것이 특징이나 길쌈의 종류와 손놀림에 따라 가락은 느리다가 빨라지기도 하며 여럿이 길쌈을 할 때는 메기는 소리인 사설과 받는 소리인 후렴으로 나누기도 한다.

또한 길쌈을 하다가 밤참으로 개떡이나 국수를 먹으면서 개떡노래나 시집살이노래를 곁드려 흥을 내기도 한다.

이번에 출연하는 영동길쌈노래는 직접 길쌈을 하면서 민요를 부르기 때문에 길쌈의 현장성과 길쌈노래의 문학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인천소금밭일놀이

민속놀이

인천은 소금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다. 지금은 모두 매립되어 없어졌으나 1907년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이 주안에 생겼고 점차 그 면적이 넓어져 소금하면 인천을 연상하기에 이르렀다.

각사등록에 인천 서곶지방에서 많은 소금을 생산하여 전국에 판매한 기록과 소금 판매업자의 명단이 있다.

소금밭일놀이는 인천 서곶지방에서 바닷물을 염전에 퍼올려 갈고 소금물이 밴 흙을 소정에 넣어 나오는 염도 높은 물을 웅덩이에 저장하였다가 염솥에 넣어 불때는 자염과정에 의한 채염절차를 민속놀이로 구성, 재연한 것이다.

놀이의 구성은 깃발을 앞세우고 등장하는 드는마당, 쟁기로 밭을 가는 염밭갈이마당, 바닷물을 퍼올리는 물푸기마당, 염도가 높아진 바닷물을 퍼다가 솥에 붓고 조리는 자염마당, 소금이 완성되는 소금내기마당 등 모두 다섯마당으로 전개되는데 염밭갈이마당의 '염밭갈이노래', 물푸기마당의 '물푸기노래'의 가사는 주안 염전 염부였던 강계철 노인을 통해 발굴하였다.

〈밭갈이 노래〉

(메김) 어기어차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어기어차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메기꾼이 삼창)

(받음) 차산에 새로다
(메김) 어찌나 하니 일시에 놓고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받음) 밭갈이 하세
(메김) 강경활에 감돌아 든다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받음) 차산에 새로다
(메김) 홍단잎에 나돌아 든다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받음) 차산에 새로다 (받음) 차산에 새로다
(메김) 홍단활에 감돌아 든다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받음) 차산에 새로다
(메김) 박연하니 띠눈입구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받음) 밭갈이 하세
(메김) 평택 같이 흘러가는 물이라도 밭갈이 하세
(받음) 차산에 새로다
(메김) 간데 족족 정들어 놓고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받음) 밭갈이 하세
(메김) 아까운 청춘 다 늙었구랴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받음) 차산에 새로다
(메김) 아서야 말어야 괄세를마소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받음) 밭갈이 하세
(메김) 언제나 또다시 만나서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받음) 차산에 새로다
(받음) 차산에 새로다

〈물푸기노래〉

두레야 칭칭 당겨라 물넘어 갑니다
강산에 청산에 가자 나의 갈길 어드메냐
두레야 칭칭 당겨라 물넘어 갑니다
염밭찾아 이고생이 이내팔자 어디다가고
두레야 칭칭 당겨라 물넘아 갑니다
구만리 같은 이청춘 간끼절어 늙어가네
두레야 칭칭 당겨라 물넘어 갑니다
이내몸이 허기지니 덩어리 소금 먹짜뵈니
두레야 펑펑 쏟아라 물넘어 갑니다
백옥처럼 흰소금이 허어야 씨구 어허씨구
하나요(하나로구나)
한평생 좋은 세월 어디다가 다 버리구
둘이요(둘이로구나)
두손이 젓갈이 되도록 소금섬을 부여잡았네
셋이요(셋이로구나)
세놈에 꾐이나 내놈에 우둔이냐
넷이요(넷이로구나)
네놈에 꾐이나 내놈에 우둔이냐
다섯이요(다섯이로구나)
다소간에 식솔들을 떼어놓고
여섯이요(여섯이로구나)
염밭에 찾아들어 이 고생이 웬말이냐
일곱이요(일곱이로구나)
일가친척 보고지고 일가친척 보고지고
여덟이요(여덟이로구나)
팔팔한 세월이 반여든이 되었구나
아홉이요(아홉이로구나)
구만리같은 우리청춘 허송세월 하지말구
열이요(열이로구나)
열심히 일을 하여 만금쥐고 귀향하세

도안동농요

민요

대전직할시 서구 옥려봉 주변 가락리, 가둔리, 덕낭리 3개 부락을 지금의 도안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도안동 농요놀이의 정확한 연원은 밝히기 어려우나 유일한 증인인 현주민 박경식(85세) 노인이 11대손으로 생존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되신 마을노인들이 보고 듣고 직접 참여하였으며 지금도 농요와 두레를 직접 다루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약 350년 전부터 이 고장에서 성행했던 토속적인 놀이라 여겨진다.

이 농요는 메김소리와 받는소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모심는 사람끼리 서로 노래를 주고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타 지방과는 다른 지역성을 나타내고 있다.

농사철이나 대동의 행사나 제의를 거행할 때 영기와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치면서 흥겹게 행진하면서 마을의 안녕을 빌고 풍년을 기원하며 각종 놀이가 행하였는데 이 농요놀이를 통해서 3개부락의 협동하는 권농사상을 엿 볼 수 있다.

구성

입장

가락리의 상징인 영기와 대본을 쓴 농기를 앞세우고 영기의 신호로 호적(태평소), 농악, 농민 순으로 농악에 맞추어 흥겹게 춤을 추면서 모자리로 입장한다.

모심기

농기를 논뚝에 세워놓고 좌상이 큰 소리로 "자 여러분 이제 모를 심어 봅시다" 하고 외치면 "예"하고 농부들은 모를 손에 들고 못줄을 친 모판으로 들어선다.

선소리

농악이 끝나고 북장단에 맞추어 선소리를 메기면 농부는 모를 심으면서 다같이 후렴을 받는다. 선소리는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부른다.

논매기

농부들이 호미를 가지고 논을 맨다. 선창을 메기면 후렴은 농악을 치면서 다같이 받고 초벌, 두벌 메기가 끝나며 만물떼기로 들어간다. 노래가 점점 빨라지면서 일손도 빨리 움직여 좁혀 들어간다. 만물떼기가 끝나면 다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농악과 함께 흥겹게 춤을 추면서 놀다가 농기를 앞세우고 마을로 돌아온다.

제례

마을로 돌아와서 동구에다가 장승과 오릿대, 쌍디딜방아를 거꾸로 세워놓고 그 앞에 제단을 차린 다음 금줄을 치고 축문을 읽으며 세화년풍을 축원하는 제례를 지낸다.

방포 및 뒷풀이

날이 어두워지면 마을 주민들은 장수횃불과 각기 횃불을 밝혀들고 질병과 액운을 쫓는 방포를 3발(질병, 화재, 천재)을 쏜다.



장안골 편사놀이 (서울)

음 풍세와 사장의 정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구역 주장이 먼저 시사를 한 후 145미터거리 과녁판을 향하여 차례로 3순 15발의 화살을 쏜다.

화살이 과녁에 관중 또는 비껴 갔는지에 따라 거기 한량이 기를 흔들며, 장족한량은 맞춘곳을 표시하고, 획창한량이 소리를 내면 기생들이 지화자를 부른다.

궁사중에서 중대한 범과가 있을때에는 범과한 한량의 갓과 망건을 벗겨 뒤로 두팔을 제쳐매고 화살을 가득히 채운 전통으로 태장한 후 훈계 방면한다.

우승팀에 대한 시상이 끝나면 궁사들과 구경꾼들이 한데 어울리어 여흥을 즐기며 대동화합을 이룬다.

장안골편사놀이

민속놀이

장안골 편사놀이는 인조때부터 유래되었는데 활쏘는 선비들간의 교류를 목적으로한 일종의 유희로 볼 수 있으며, 해마다 봄 가을로 거행되어 왔으나 한일합방후 맥이 끊겨 구전으로 전해오던중 해방후 당시의 장석후옹(당 92세)께서 경기 및 인천지방에 편사를 재현하였으나, 많은 것이 변형되어 오다 본 경연대회 참가를 계기로 조선 궁술연구회에서 발행한 '조선의 궁술 : 이중화, 1928년' 초간본과 여러 사람의 증언과 자문에 의하여 72년만에 그 원형을 복원하게 된 것이다.

상촌의 백호정, 하촌의 석호정 등 서울 장안의 24정을 남촌과 북촌으로 구분하여 편을 가른다.

사정 1개소당 각 1명씩 24명으로 조직하는데 언행이 단정하고 활도 잘 쏘는 사람으로 선출한다.

사시에 앞서 고사를 지내는 등 여러 절차를 끝낸 다

부산영산재

민속무용

영산재는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예불의식의 일종으로 노래와 춤을 통하여 부처님을 찬양하며 중생들의 성불을 염원하는 불교예술이다.

소리공양으로서 범패와 동작을 통해 공양드리는 작법무로 나뉘며, 다채롭고 화려하게 펼쳐지는 의식으로 대중적 성격과 민속적 요소가 강하다.

부산 영산재는 통범소리(통도사 및 범어사)라 하여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왔으며, 1971년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으나 전수 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채 1973년 해제되었다가 김용운 스님(1971년 당시 동래 국청사 주지) 제자들에 의해 '91년도에 부산 영산재 전과장이 재현되었다.

부산 영산재의 소리공양중 범패는 주로 대구 팔공산 이남의 통범소리 계통에 속하며 경기, 호남의 웃녘소리와는 달리 영남지방의 아랫녘 소리 중에서도 동래



부산영산재 (부산)

금정산의 범어사 소리에 기원을 두고 있다.

부산 범패는 오래전부터 범어사에서 전래되어 왔으며 100여년전 대산스님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은밀하면서도 독창적 구성을 하고 있으며, 담백하고 엄숙한 멋이 특징으로 홋소리가 주이며 짓소리는 겹소리에 가깝다. 작법 무용은 바라춤의 내용과 구성이 특이하며 나비춤은 짓소리에 걸맞는 느리고 장엄한 춤사위가 특이하다.

경산소리를 주축으로 한 서울의 영산재는 진행과정, 범패소리, 작법무 등이 원칙론적인데 부산 영산재는 실질적 구성에 의해 간결, 소박하게 행해져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광산들노래

민요

광산 들노래는 무등산의 지맥인 분적산, 금당산, 화방산의 수맥원을 받아 지석강으로 유입되는 광산 대촌천 주변의 비옥한 농경지대의 들노래를 발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광산구 대촌동은 본래 광주(산)군 지역으로 유등곡면, 칠석면, 대지면, 계촌면의 4개면이 대촌으로 되었으며, 원산동 일대 고인돌과 집단 집터 및 칠석리 문화유적으로 보아 일찍부터 농경문화가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래구성은 들판에 들고 날때의 노래소리와 농경 도작 생산노동의 전 과정중 모심기, 논매기, 세화자소리, 장원질 노래소리로 되어있으며 가사적인 노랫말은 상부상조, 충효보은, 도덕적인 인간교육은 물론 남녀연정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도 서해안 내륙평야지대인 나주, 함평, 무안의 들노래와 같이 우도 영산강 농경 시나위 문화권의 노래로서 공통성이 있으며, 내용이 다양하고 가락이 풍부하며 연음화된 연창을 지니고 있다. 음악적 가락의 특징은 교대창이면서도 느리고 잦은 노래소리의 변화로 노동의 피로를 줄이고 경쾌한 율동감을 갖도록 되어 있다.

가창방법이 설소리로 메기고 받는 소리로 후렴창을 상호 교체창하면서 반복하는 경우도 있으며, 메김선율과 받음선율이 곧장 연이어 잉에 걸이로 이어지는 남도민요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들노래는 이장동, 지석동, 대지동과 고싸움놀이(무형문화재 33호)로 유명한 칠석동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6·25전까지 성행되어왔고, 1960년대에 일부 조사되었던 것을 현지 생존인인 정남진, 이인식씨 등에 의해 이번 대회에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임실삼계 고전상여소리

민요

임실 삼계 고전상여소리의 시작은 300여년전 이조 중엽으로 추정된다.

고려장의 악습인 고령장, 생매장제도를 철폐한 이조 개국 이후 민심을 충효의 사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민가의 장례풍습을 개혁하기 위한 관가의 장례의식에 당시 낙향한 관료들이 이 지방의 특색을 살려 구성지면서도 구슬픈 가락을 가미하여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수 있는 소리(가락)로 만들어 운상시에 부름으로서 시

임실삼계고전상여소리 (전북)



작되었다고 한다.

상여의 치장, 상례의 발전이 이조말까지 이루어졌으며 일제하에서도 저들이 느껴 보지 못한 엄숙한 장례풍속을 기히 여겨 철폐하지 못하던 중 기미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터 민중봉기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탄압을 가함에 따라 일시 명맥이 끊겼다.

이후 해방, 6·25동란 등 급격한 상황변화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장례는 간소화되고 세월이 흘러 전수자가 줄어들게 되어 자체가 소홀해지고 있던 차 '상례비요'와 옛어른들의 구전을 토대로 발굴하게 되었다.



평양검무 (평남)

밀양법흥상원놀이

민속놀이

밀양 법흥상원놀이는 경남 밀양 법흥마을에서 오랜 옛날부터 전해오는 세시풍속의 하나로서 원래 법고상원놀이였으나 이웃마을과 합쳐지면서 마을 이름이 법흥으로 바뀌어져 법흥상원놀이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이 놀이는 매년 정월 보름날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당산나무앞 넓은 마당에 모여 마을과 집안의 평안과 풍년을 비는 놀이로 오늘에 이어져 오고 있다.

해뜨기전 신북을 울려 마을의 안녕과 한해의 풍년을 비는 당산제, 지신밟기와 용왕풀이, 신랑다루기, 장작윷놀이, 달맞이를 할때 춤과 노래가 곁들여지는 데 법흥동민만이 참가하여 화합의 마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색이다.

구성

당산제

해뜨기전 신북이 울리면 온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모여 신북과 당산기를 앞세우고 마을을 한바퀴 돈 다음 당산앞에 모여 당산제를 올리며 부녀자들은 촛불과 소지를 올리고 이어 판굿과 한마당 놀이판을 펼친다.



밀양법흥상원놀이 (경남)

지신밟기

농악대원은 대문앞에서 "이집 대주 문여시오. 신북뫼셔 들어간다. 금년 한해 태평세월 복사시오, 복사시오, 이집 대주 복사시오."라고 외치면서 성주풀이, 조왕굿, 샘굿, 용왕굿 등을 한다.

헌신랑 다루기

갓장가든 신랑이 처가에 왔을때 처제·처족들이 밧줄로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 다루며 장모가 술상을 차려오면 풀어주는 단자놀이를 말한다. 새신랑을 소로 가장시켜 논갈이놀이를 할때, 왕고모부 내외는 허수아비 놀이, 고모내외는 우장을 입고 큰 머슴놀이를 한다.

장작윷놀이

어른, 아이 할것없이 남녀노소가 한데모여 편을 짜서 번갈아 윷가락을 던지는 '장작윷놀이'를 한다. 밤나무 또는 참나무로 만든 윷한가락의 길이가 50cm, 둘레가 20cm이며 한사람이 4짝을 모아 던지지 않고 네사람이 일렬로 서서 각기 윷 한가락을 똑같이 동시에 던지는 것이 특색이다.

다리밟기

정월 대보름날 달이 뜰무렵 다리밟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해 가리가 튼튼해지고 발병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양가집 부녀자는 동민이 붐비기 전에 하는데 나이 수대로 다리위를 오가며 주머니에 팥알을 넣어가 다리위를 한번 건널적마다 한알씩 물에 던지며 "내다리 쇠다리 되어주이소"라고 빈다.

달집태우기와 콩볶기

달이 뜨면 달집을 태워 모든 액을 불사르는데 불을 지르는 사람은 그 해의 신혼부부가 하며 이는 생남을 기원하는 뜻이다. 이때 부녀자들은 다리미에 콩을 달

집불에 볶아 나누어 먹음으로써 액을 물리치고 복을 빈다.

판굿

달이 산정에 떠오르면 한마당 판굿놀이가 시작되며 노래와 춤으로 온마을 사람들과 관중이 하나가 되어 대단원을 이룬다.

평양검무

민속무용

우리나라에서 칼춤의 기원은 신라 황창랑의 고사를 대는 경우가 많다. 신라의 소년 황창랑이 백제에 들어가 칼춤으로 이름을 낸 뒤에 칼춤으로 백제왕을 죽이려다 오히려 죽음을 당했다. 뒤에 황창랑의 탈을 쓰고 칼을 들고 춤을 추며 황창랑의 고사를 연출한데서 부터 칼춤이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구려 벽화에도 칼을 들고 추는 춤의 그림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 칼춤을 상고시대 전투무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칼을 들고 추는 춤에 공막무, 검기무, 항장무등이 있었으나 검무는 궁중과 지방 관아의 연례의식에서 연행되었고 또 민간의 향연에서도 추어졌던 만큼 가장 보편적인 춤의 하나로 꼽히었다.

검무는 경향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오는 동안에 지방마다 그 고장의 향토적 특색을 지닌 검무들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에 대부분의 지방에서 검무의 전승이 끊어졌다. 오늘날 그 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진주검무와 통영검무가 있다. 이 밖에도 호남검무와 서울 검무가 있으나 공연되는 일은 거의 없다.

평양에도 검무가 성행하였었다. 조선시대 평안감사 부임도에 보면 평양 연광정에서 검무가 공연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다행히 10대에 평양에서 검무를 배운 바 있는 이봉애여사가 평양검무를 잊지 않고 있어서 이를 복원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농악소북 자반뒤집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연도별 수상현황

제 1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58. 8.13－8.18.
육군체육회관(장충단)

대통령상
하회별신굿놀이(경북)－민속극

국무총리상
봉산탈춤(황해)－민속극

문공부장관상
양주산대놀이(경기)－민속극

미수상 참가작
꼭두각시(서울)－민속극
줄타기(서울)－민속놀이
안성답교놀이(경기)－민속놀이
춘향전(전남)－민속놀이
풍년놀이(전남)－민속놀이
농악(전남)－농악
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농악(전북)－농악
쾌지나칭칭나네(경북)－민요
안동놋다리(경북)－민속놀이
모내기노래(경북)－민요
성덕왕신종(경북)－민속놀이
통영오광대(경남)－민속극
효자무(강원)－민속무용
정선아리랑(강원)－민요
성황신제(강원)－민속놀이
강릉무당춤(강원)－민속놀이
무당춤(평남)－민속놀이
민요놀이(제주)－민속놀이
말뛰기놀이(제주)－민속놀이
무당춤(제주)－민속놀이
농악(충남)－농악
은산별신굿(충남)－민속놀이
농악(경남)－농악
배뱅이굿(평북)－민속놀이
민요와 놀이(함북)－민요

공로상
노덕팔(서울)
장용기(경남)
박지용(경북)
김진옥(황해)
김성태(경기)

개인상
한애순(판소리)
농악상쇠(충북)
윤영준, 박후식(사자춤, 함남)
강오체(장고춤, 전남)
최남영(무당춤, 평남)

제 2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61. 9. 24－9. 29.
덕수궁

대통령상
봉산탈춤(황해도)－민속극

국무총리상
농악(전북)－농악

문공부장관상
오광대놀이(경남)－민속극
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서도가요(평남)－민요
무용(평북)－민속무용
창(평북)－민요
배뱅이굿(평북)－민속놀이
무용(충남)－민속무용
창(함남)－민요
하회가면극(경북)－민속극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양주산대놀이(경기)－민속극
농악(강원)－농악
농악(충북)－농악
농악(충남)－농악
창(전북)－민요

공로상
양주산대놀이(경기, 김성태)
농악(강원)
사자놀이(함남, 윤영준, 마후섭)

개인상
김덕수(설장고, 충남)
임광식(농악상쇠, 충북)
김오재(설장고, 전남)

제 3 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62. 9. 11－9. 13.
덕수궁, 경복궁

대통령상
종합우승(경북)

국무총리상
농악(경기)—농악
문공부장관상
봉산탈춤(황해)—민속극
민요부(경북)—민요
다리굿(평남)—민속놀이
장려상
하회가면극(경북)
사자놀이(함남)
미수상 참가작
농악(전남)—농악
농악(충남)—농악
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농악(강원)—농악
민요(전남)—민요
농악(충북)—농악
쾌지나칭칭(경북)—민요
안동놋다리(경북)—민속놀이
상주모내기(경북)—민요
방아타령(경북)—민요
보리타작(경북)—민요
신방가정(경북)—민속놀이
오광대놀이(경남)—민속극
개인상
최다구(농악, 경북)
장재붕(오광대, 경남)
마후섭(사자놀이, 함남)

제 4 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63. 10. 7—10. 9.
덕수궁, 창경원

대통령상
함안농악(경남)—농악
국무총리상
가면극(서울)—민속극
문공부장관상
농악(전북)—농악
민속놀이(경북)—민속놀이
가면극(경남)—민속극
장려상
민속놀이(전남)—민속놀이
농악(충북)—농악
농악(충남)—농악
농악(경기)—농악
미수상 참가작
하회가면극(경북)—민속극
농악(강원)—농악
12발상모(전남)—민속놀이
진도아리랑(전남)—민요
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봉산탈춤(황해)—민속극
차전놀이(경북)—민속놀이
오광대놀이(경북)—민속극
살풀이(황해)—민속놀이
굿놀이(황해)—민속놀이
대감놀이(황해)—민속놀이
작두타기(황해)—민속놀이
농악(전남)—농악
안동놋다리밟기(경북)—민속놀이
공로상
백신행(배뱅이굿, 평북)
김진옥(가면극, 경기)
개인상
옥화홍(민속놀이)
박동욱(농악, 경북)
장재붕(가면극, 경남)

제 5 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64. 10. 29—10. 31.
경복궁 야외무대

대통령상
농악(전남)—농악
국무총리상
민속놀이(경북)—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농악(경기)—농악
하회가면극(경북)—민속극
장려상
민속놀이(제주)—민속놀이
농악(여성, 충남)—농악
삼천포농악(경남)—농악
미수상 참가작
장고춤(황해)—민속무용
북춤(황해)—민속무용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농악(강원)—농악
오광대놀이(경남)—민속극

입춘굿놀이(제주)—민속놀이
허벅춤(제주)—민속무용
상주모내기(경북)—민요
안동놋다리밟기(경북)—민속놀이
쾌지나칭칭나네(경북)—민요
봉산탈춤(황해)—민속극
양주산대놀이(경기)—민속극

공로상

농악(양인석, 전남)
양주산대(김성태, 경기)
봉산탈춤(이근성, 황해)

개인상

김병섭(농악, 전북)
최종식(농악, 경남)
김진중(농악, 충북)

제6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65. 10. 29—10. 31.
덕수궁

대통령상

동래야유(부산)—민속극

국무총리상

삼천포농악(경남)—농악

문공부장관상

민속놀이(경북)—민속놀이
봉산탈춤(황해)—민속극
농악(충북)—농악

장려상

민속놀이(제주)—민속놀이
민속놀이(충남)—민속놀이
가면극(강원)—민속극
농악(전북)—농악

미수상 참가작

농악(전남)—농악
제석방아놀이(평남)—민속놀이
사자놀이(함남)—민속극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하회가면극(경북)—민속극
농악(경북)—농악
쾌지나칭칭나네(경북)—민요
안동놋다리(경북)—민속놀이
상주모내기(경북)—민요
양주산대놀이(경기)—민속극
은산별신굿(충남)—민속놀이
입춘굿놀이(제주)—민속놀이
허벅춤(제주)—민속무용
멍석놀이(제주)—민속놀이

공로상

이주환(전남)
허호영(서울)
박정홍(평남)

개인상

김영옥(강강술래, 전남)
고영달(양주산대, 경기)
배갑문(고성오광대, 경남)

제7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66. 10. 22—10. 24.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

대통령상

농악(전북)—농악

국무총리상

차전놀이(경북)—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세경놀이(제주)—민속놀이
농악(충북)—농악
양주산대놀이(경기)—민속극

장려상

수레싸움(강원)—민속놀이
은산별신굿(충남)—민속놀이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항두계놀이(평남)—민속놀이
고성오광대(경남)—민속극
봉산탈춤(황해)—민속극

미수상 참가작

농악(경북)—농악
민속놀이(황해)—민속놀이
불꽃놀이(황해)—민속놀이
해녀놀이(제주도)—민속놀이
상주모내기(경북)—민요
하회가면극(경북)—민속극
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부산야유(부산)—민속극

공로상

항두계놀이(평남, 김정연)
은산별신굿(충남, 이오복)
강강술래(전북)

사자놀이(함남)
부산야유(부산박덕업)

개인상

김순석(민속놀이, 함남)
문백용(농악, 경남)
박상학(양주산대놀이, 경기)

제8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67. 10. 28－10. 30.
부산 공설운동장

대통령상

민속놀이(제주도)－민속놀이

국무총리상

양주산대놀이(경기)－민속극

문공부장관상

차전놀이(경북)－민속놀이
농악(전북)－농악
충무오광대놀이(경남)－민속극

장려상

들놀이(부산)－민속놀이
띄뱃굿놀이(전북)－민속놀이
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관노가면극(강원)－민속극
승전무(경남)－민속무용

미수상 참가작

해녀놀이(제주도)－민속놀이
농악(충남)－농악
농악(경남)－농악
다리굿(평남)－민속놀이
봉산탈춤(황해)－민속극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공로상

송파산대놀이(서울, 단체)
봉산탈춤(단체, 황해)

개인상

김준홍(다리굿, 평남)
김광숙(띄뱃굿, 전북)
이영철(농악상쇠, 부산)
양소운(봉산탈춤, 황해)
박설자(송파산대놀이, 서울)
김윤수(법고, 충북)

제9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68. 10. 18－10. 20.
대전공설 운동장

대통령상

차전놀이(경북)－민속놀이

국무총리상

영등굿놀이(제주도)－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은산별신굿(충남)－민속놀이
강릉성황제가면회(강원)－민속극

장려상

양주산대놀이(경기)－민속극
해녀놀이(제주)－민속놀이
민속놀이(황해)－민속놀이
농악(충남)－농악
농악(부산)－농악
농악(전남)－농악

미수상 참가작

함렬농기뺏기(전북)－민속놀이
농악(충북)－농악
아리랑무용(경남)－민속무용
봉산탈춤(황해)－민속극
북청사자놀이(함남)－민속극

공로상

함렬농기뺏기(전북)
농악(충북)
봉산탈춤(황해)
북청사자놀이(함남)
아리랑무용(경남)

개인상

박영희(영등굿놀음, 제주)
김은미(은산별신굿, 충남)
전춘옥(전남농악)
박철한(전남농악)
이영철(부산농악)
여재성(북청사자놀음, 함남)

제10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69. 10. 3－10. 5.
대구종합경기장

대통령상

고싸움놀이(전남)－민속놀이

국무총리상

한장군놀이(경북)－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영양모내기(경북)－민요
안동논매기(경북)－민요

답교놀이(서울)—민속놀이
해녀놀이(제주)—민속놀이
농악(전북)—농악

장려상

은산별신굿(충남)—민속놀이
농악(충북)—농악
농악(충남)—농악
농악(강원)—농악

미수상 참가작

민요(서울)—민요
성주풀이(제주)—민속놀이
민요(제주)—민요
영등굿놀이(제주)—민속놀이
농악(부산)—농악
농기뺏기(전북)—민속놀이
양주별산대놀이(경기)—민속극
오방성주풀이(부산)—민속놀이
목우희(경남)—민속놀이

공로상

오방성주풀이(부산)
민요(평남)
농기뺏기(전북)
목우희(경남)
양주별산대가면극(경기)

개인상

양신생(제주)
홍성연(전북)
이재준(경북)
이충선(서울)
정재형(충남)
유경성(경기)

제11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70. 10. 21—10. 23.
광주 공설운동장

대통령상

농악(전북)—농악

국무총리상

장흥보름줄다리기(전남)—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정선아리랑(강원)—민요
관등놀이(서울)—민속놀이
속리산탑돌이(충북)—민속놀이
농악(경기)—농악
강령탈춤(황해)—민속극

장려상

거북놀이(이미라, 충남)—민속놀이
수영야유(정대윤, 부산)—민속극
북청사자놀음(함남, 단체)—민속극
충무승전무(경남, 단체)—민속무용

미수상 참가작

노동요(제주)—민요
연평도노래푸집이(황해)—민요
남원용마놀이(전북)—민속놀이
한창군놀이(경북)—민속놀이
해녀놀이(제주)—민속놀이
연평도놀이(황해)—민속놀이
거문도뱃노래(전남)—민요
봉산탈춤(황해)—민속극
조리희(제주)—민속놀이
서도가요(평남)—민요

공로상

서도가요(평남)
거북놀이(충남)
조리희(제주)
진주검무(경남)

개인상

김창옥(거문도뱃노래, 전남)
김명자(연평도놀이, 황해)
양성옥(조리희, 제주)
최경명(봉산탈춤, 황해)
동주현(북청사자놀음, 함남)
태윤기(수영야유, 부산)

제1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1. 10. 28—10. 30.
전주 종합경기장

대통령상

아산줄다리기(충남)—민속놀이

국무총리상

진도들노래(전남)—민요

문공부장관상

베틀노래(충북)—민요
기와밟기(전북)—민속놀이
승전무(경남)—민속무용
농악(경북)—농악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장려상

해녀놀이(제주)—민속놀이
항두계놀이(평남)—민속놀이
동래지신밟기(부산)—민속놀이
농악(경기)—농악
남사당풍물놀이(서울)—민속놀이

미수상참가작

김매기노래(제주)—민요
해녀뱃노래(제주)—민요
어르마타령(전북)—민요
베치기노래(전북)—민요
익산농악(전북)—농악
탑돌이(충북)—민속놀이
서당놀이(경북)—민속놀이
연평도놀이(황해)—민속놀이
말뛰기놀이(제주)—민속놀이
하회가면무(경북)—민속극
강령탈춤(황해)—민속극
서도잡가(황해)—민요
강릉오독떼기(강원)—민요
애원성(함북)—민요
봉산탈춤(황해)—민속극

공로상

강릉오독떼기(강원)
애원성(함북)
서도잡가(황해)

개인상

신재순(강릉오독떼기, 강원)
조윤덕(진도들노래, 전남)
김희숙(해녀놀이, 제주)
문장원(동래지신밟기, 부산)
박갑근(봉산탈춤, 황해도)

제1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2. 10. 20—10. 22.
대전 공설운동장

대통령상

탄금대방아타령(충북)—민요

국무총리상

우수영 부녀농요(전남)—민요

문공부장관상

익산목발노래(전북)—민요
동래지신밟기(부산)—민속놀이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김천농악(경북)—농악

장려상

수심가엮음(평북)—민요
영변가(평북)—민요
애원성(함북)—민요
평양다리굿(평남)—민속놀이
어린이 농악(충남)—농악

미수상 참가작

황해도민요(황해)—민요
투호놀이(서울)—민속놀이
의성가마싸움(경북)—민속놀이
타구놀이(경남)—민속놀이
홍해룡의놀이(함북)—민속놀이
은율탈춤(황해)—민속극
삼삼이와 돈돌라리(함남)—민속무용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통영오광대(경남)—민속극
횃불쌈놀이(충남)—민속놀이

공로상

강릉농악(강원)
봉산탈춤(황해)
통영오광대(경남)
북청사자놀음(함남)

개인상

양도일(횃불쌈놀이, 충남)
이영숙(경기어린이농악)
김선봉(봉산탈춤, 황해)
오정두(통영오광대, 경남)
김미자(북청사자놀음, 함남)

제1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3. 10. 26—10. 28.
청주

대통령상

좌수영어방놀이(부산)—민속놀이

국무총리상

고성오광대(경남)—민속극

문공부장관상

안동논매기(경북)—민요
양주별산대놀이(경기)—민속극
대감놀이(서울)—민속놀이
남도농악(전남)—농악

장려상

연평도노래(황해)—민요
애원성(함북)—민요

등바루놀이(충남)—민속놀이
항두계놀이(평남)—민속놀이
입춘굿놀이(제주)—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입체공명가 및 영변가(평북)—민요
해녀놀이(제주)—민속놀이
농악(경북 김천농고)—농악
수영야유사자담보춤(부산)—민속극
소놀이굿(경기)—민속놀이
은율탈춤(황해)—민속극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전주승무(전북)—민속무용
차사영맞이(전북)—민속놀이
미호천방축노래(충북)—민요

공로상

미호천방축노래(충북)
임실들노래(전북)
강원농악(강원)

개인상

김종의(임실들노래, 전북)
조차기(안동논매기, 경북)
이징산(대감놀이, 서울)
양은자(남도농악, 전남)
박교웅(양주별산대놀이, 경기)

제1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4. 10. 24—10. 26.
부산

대통령상

고성오광대놀이(경남)—민속극

국무총리상

나주들노래(전남)—민요

문공부장관상

옥구들노래(전북)—민요
충무승전무(경남)—민속무용
거리제(강원)—민속놀이
수영야유(부산)—민속극
삼천포농악(경남)—농악

장려상

영변가놀량(평북)—민요
해주장굿놀이(황해)—민속놀이
서도소리(평남)—민요

미수상 참가작

황주난봉가(황해)—민요
톱질놀이(제주)—민속놀이
가래질노래(충북)—민요
태인민요(전북)—민요
괴산백중놀이(충북)—민속놀이
홍해룡의놀이(함북)—민속놀이
용득기(충남)—민속놀이
애원성(함북)—민요
동래지신밟기(부산)—민속놀이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어린이농악(경기)—농악
꼭두각시놀음(서울)—민속극
달구노래(제주)—민요
놋다리밟기(경북)—민속놀이

공로상

달구노래(전북)
용득기(함남)
놋다리밟기(경북)
경기어린이농악(경기)
꼭두각시놀음(서울)

개인상

차금순(애원성, 함북)
고판덕(옥구들노래, 전북)
김금화(해주장굿놀이, 황해)
문백윤(삼천포농악, 경남)
박남수(수영야유, 부산)

제1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5. 9. 13—9. 15.
서울

대통령상

영동설계리농요및 단양동요(충북)—민요

국무총리상

해남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봉기타령(충남)—민요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김제벽골제쌍용놀이(전북)—민속놀이
광주농악(전남)—농악
충무승전무(경남)—민속무용

장려상

애원성(함북)—민요
영동해랑제(강원)—민속놀이
안동웅굴놋다리(경북)—민속놀이
비바리(제주)—민속무용

강령탈춤(황해)—민속극
양주별산대놀이(경기)—민속극

미수상 참가작

서도입창(평남)—민요
한가위놀이(충남)—민속놀이
어린이농악(충북)—농악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수영야유(부산)—민속극
동래지신밟기(부산)—민속놀이
답교놀이(서울)—민속놀이
항두계놀이(평남)—민속놀이

공로상

영변가놀량(평북)
답교놀이(서울)
항두계놀이(평남)

개인상

서정숙(영동설계리농요및 단양동요, 충북)
김석출(동래지신밟기, 부산)
김귀수(수영야유, 부산)
이금옥(영동해랑제, 강원)
박양애(해남강강술래, 전남)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6. 10. 22—10. 24.
진주

대통령상

해남강강술래(전남)—민속놀이

국무총리상

멸치후리는노래(제주)—민요

문공부장관상

산유화가(충남)—민요
봉산탈춤(황해)—민속극
익산금마기세배(전북)—민속놀이
삼천포농악(경남)—농악
진주검무(경남)—민속무용

장려상

선소리산타령(서울)—민요
서도잡가(평남)—민요
경기농악(경기)—농악

미수상 참가작

고무산타령(함북)—민요
배따리기(평북)—민요
임실삼계농요(전북)—민요
도당굿놀이(서울)—민속놀이
항두계놀이(평남)—민속놀이
동래지신밟기(부산)—민속놀이
광주농악(전남)—농악
수영야유(부산)—민속극
강령탈춤(황해)—민속극
동래학춤(부산)—민속무용
안동저전동달개놀이(경북)—민속놀이
북청사자놀이(함남)—민속극
괴산농악(충북)—농악
강릉단오굿(강원)—민속놀이

공로상

안동저전동달개놀이(경북)
강릉단오굿(강원)

개인상

조차기(안동저전동달개놀이, 경북)
이종안(농악, 충북)
전호준(북청사자놀음, 함남)

제1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7. 10. 24—10. 26.
수원

대통령상

봉기풍어놀이(충남)—민속놀이

국무총리상

익산삼기농요(전북)—민요

문공부장관상

시선뱃노래(경기)—민요
청원농요(충북)—민요
평창백옥포농악(강원)—농악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진주검무(경남)—민속무용

장려상

강진땅뺏기놀이(전남)—민속놀이
영덕탈굿(경북)—민속극
대보름놀이(함북)—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서도잡가(평남)—민요
청도민요(경북)—민요
월정사탑돌이(강원)—민속놀이
상조계놀이(평북)—민속놀이
항두계놀이(평남)—민속놀이
익산금마기세배(전북)—민속놀이
강령탈춤(황해)—민속극
호미걸이소리(서울)—민요

황해도민요(황해)—민요
가산오광대(경남)—민속극
조밭다지는노래(제주)—민요
부산농악(부산)—농악

공로상

조밭다지는 노래(제주)
부산농악(부산)

개인상

김현규(호미걸이소리, 서울)
장용수(황해도민요, 황해)
한윤영(가산오광대, 경남)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9. 10. 19—10. 21.
춘천

대통령상

위도띄뱃놀이(전북)—민속놀이

국무총리상

평창농악(강원)—농악

문공부장관상

진도만가(전남)—민요
고성농요(경남)—민요
거북놀이(경기)—민속놀이
하회별신놀이(경북)—민속극
은율탈춤(황해)—민속극

장려상

애원성(함북)—민요
속리산탑놀이(충북)—민속놀이
동래지신밟기(부산)—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서도민요(평북)—민요
긴아리(평남)—민요
북평원님놀이(강원)—민속놀이
정수암화전놀이(제주)—민속놀이
대보름놀이(함북)—민속놀이
강령탈춤(황해)—민속극
평양다리굿(평남)—민속놀이
강릉관노가면회(강원)—민속극
보부상놀이(충남)—민속놀이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정선아리랑(강원)—민요
검질메는노래(제주)—민요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공로상

검질메는노래(제주)
북청사자놀음(함남)

개인상

라창주(정선아리랑, 강원)
이규석(보부상놀이, 충남)
문육지(송파산대놀이, 서울)

제2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9. 10. 25—10. 27.
대구

대통령상

예천통명농요(경북)—민요

국무총리상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문공부장관상

강문진또베기(강원)—민속놀이
불무노래(제주)—민요
보부상놀이(충남)—민속놀이
청도차산농악(경북)—농악
수영야유(부산)—민속극

장려상

아미산울어리(경기)—민요
양진명소오룡굿(충북)—민속놀이
한량무(경남)—민속무용

미수상 참가작

궐기타령(함북)—민요
선소리산타령(서울)—민요
서도입창(평남)—민요
애원성(함북)—민요
의성가마싸움(경북)—민속놀이
달구놀이(평북)—민속놀이
은율탈춤(황해)—민속극
고성농요(경남)—민요
거문도술비소리(전남)—민요
말천방농요(전북)—민요

공로상

거문도 숱비소리(전남)
말천방농요(전북)

개인상

이상수(고성농요, 경남)
김옥선(베짜기놀이, 평남)
지관용(강령탈춤, 황해)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0. 10. 29－10. 31.
제주

대통령상
방아돌굴리는노래(제주)－민요
국무총리상
밀양백중놀이(경남)－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매포민요(충북)－민요
등바루놀이(충남)－민속놀이
강령탈춤(황해)－민속극
필봉농악(전북)－농악
영변성황대제(평북)－민속놀이
장려상
한양풍물놀이(서울)－민속놀이
대동굿(황해)－민속놀이
조심기놀이(평남)－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서도민요(평북)－민요
정선아리랑(강원)－민요
배따라기(황해)－민요
그물당기는 노래(제주)－민요
용연기우제(제주)－민속놀이
궐기타령(함북)－민요
수영농청놀이(부산)－민속놀이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경기농악(경기)－농악
함평농요(전남)－민요
청도차산농악(경북)－농악
아미농악(부산)－농악
애원성(함북)－민요
공로상
애원성(함북)
부산아미농악(부산)
개인상
천학실(함평농요, 전남)
송창선(경기농악, 경기)
김오동(청도차산농악, 경북)

제2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1. 10. 22－10. 24.
인천

대통령상
현천소동패놀이(전남)－민속놀이
국무총리상
입석줄다리기(전북)－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집줄놓는노래(제주)－민요
용대기놀이(충남)－민속놀이
청단놀음(경북)－민속무용
제천두학농악(충북)－농악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장려상
용왕굿(인천)－민속놀이
강릉대보름농악(강원)－농악
동래학춤(부산)－민속무용
미수상 참가작
영변가(평북)－민요
두만강뗏목노래(함북)－민요
소놀이굿(황해)－민속놀이
영변성황대제(평북)－민속놀이
강화시선뱃노래(경기)－민요
밀양백중놀이(평남)－민속놀이
항두계놀이(경남)－민속놀이
봉산탈춤(황해)－민속극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공로상
봉산탈춤(황해)
북청사자놀음(함남)
개인상
정태기(강화시선뱃놀이, 경기)
하보경(밀양백중놀이, 경남)
김정연(항두계놀이, 평남)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2. 10. 26－10. 28.
광주

대통령상
삼동굿놀이(전북)－민속놀이
국무총리상
장산도들노래(전남)－민요
문공부장관상
저산팔읍길쌈놀음(충남)－민속놀이
대구고산농악(대구)－농악
감내게줄다리기(경남)－민속놀이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음성거북놀이(충북)－민속놀이
장려상

산신놀이(제주)—민속놀이
발방아놀이(평북)—민속놀이
수영야유(부산)—민속극

미수상 참가작

서도소리(평남)—민요
평양다리굿(평남)—민속놀이
화상싸움(경북)—민속놀이
경신역마놀이(인천)—민속놀이
은율탈춤(황해)—민속극
성주풀이(서울)—민속놀이
재가승주지놀이(함북)—민속놀이
춘성수레싸움(강원)—민속놀이
과천무동답교놀이(경기)—민속놀이

공로상

춘성수레싸움(강원)
과천무동답교놀이(경기)

개인상

이동안(성주풀이, 서울)
손해철(감내게줄다리기, 경남)
차금순(재가승주지놀이, 함북)

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3. 10. 17—10. 23.
안동

대통령상

의성가마싸움(경북)—민속놀이

국무총리상

금산농악(충남)—농악

문공부장관상

청도풍각농요(경북)—민요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놀이
양양패다리놓기(강원)—민속놀이
날뫼북춤(대구)—민속무용
완주부동농악(전북)—농악

장려상

태우만드는 놀이(제주)—민속놀이
까치내상여놀이(충북)—민속놀이
보성옥평농악(전남)—농악

미수상 참가작

애원성(함북)—민요
경신역마놀이(인천)—민속놀이
금릉빗내농악(경북)—농악
송파산대놀이(서울)—민속극
강령탈춤(황해)—민속무용
어베주지춤(함북)—민속무용
달래강망패싸움(평북)—민속놀이

공로상

아미산 울어리(경기)
달래강 망패싸움(평북)

개인상

신민수(마산농청놀이, 경남)
이봉례(베짜기놀이, 평남)
김한순(부산농악, 부산)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4. 9. 21—9. 23.
충주

대통령상

횡성회다지소리(강원)—민요

국무총리상

공주장승제(충남)—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목계별신굿(충북)—민속놀이
금마기세배(전북)—민속놀이
금릉빗내농악(경북)—농악
통영검무(경남)—민속무용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장려상

수영농청놀이(부산)—민속놀이
조심기놀이(평남)—민속놀이
북성포곶창굿(인천)—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밀양새터가을굿(경남)—민속놀이
서울답교놀이(서울)—민속놀이
온달성재밟기(충북)—민속놀이
주사손돌공진혼제(경기)—민속극
봉산탈춤(황해)—민속극
어베주지춤(함북)—민속무용
비산천왕메기(대구)—민속놀이
달래강망패싸움(평북)—민속놀이
청주농악(충북)—농악
용신맞이풍어굿(전남)—민속놀이
연신맞이굿놀이(제주)—민속놀이

공로상

용신맞이 풍어굿(전남)
연신맞이 굿놀이(제주)

개인상

임문구(비산천왕메기, 대구)

유재영(달래강망패싸움, 평북)
이중환(청주농악, 충북)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5. 9. 19.－9. 20.
강릉

대통령상
이리농악(전북)－농악
국무총리상
서산볏가리대놀이(충남)－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담양들노래(전남)－민요
예천공처농요(경북)－민요
이천거북놀이(경기)－민속놀이
진주포구락무(경남)－민속무용
명주하평 2 월답교농악(강원)－농악
장려상
불싸움놀이(제주)－민속놀이
비산농악(대구)－농악
동래학춤(부산)－민속무용
미수상 참가작
애원성(함북)－민요
인제땟목꾼소리(강원)－민요
편사놀이(인천)－민속놀이
양양귀애파기놀이(강원)－민속놀이
호랑이탈춤(평남)－민속극
강릉관노가면희(강원)－민속극
은율탈춤(황해)－민속극
송파답교놀이(서울)－민속놀이
낭성산판소리(충북)－민요
영변성황대제(평북)－민속놀이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공로상
낭성산판소리(충북)
송파답교놀이(서울)
개인상
이선호(영변성황대제, 평북)
나궁추(이리농악상쇠, 전북)
주철성(북청사자놀음, 함남)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6. 10. 17－10. 18.
천안

대통령상
강화용두레질노래(경기)－민요
국무총리상
저산팔읍길쌈놀이(충남)－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가거도멸치잡이소리(전남)－민요
화천농악(경남)－농악
양양상복골농요(강원)－민요
다천사작법(전북)－민속무용
평산지경닦기소놀음 및
작두그네뛰기(황해)－민속놀이
수영농청농요(부산)－민요
송파답교놀이(서울)－민속놀이
영변성황대제(평북)－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애원성(함북)－민요
서도입창(평남)－민요
양진명소오룡굿(충북)－민속놀이
범몰이(황해)－민속놀이
강령탈춤(황해)－민속극
정읍범패승무(전북)－민속무용
아웨기와 홍애기소리(제주)－민요
북성지구풍어노래(인천)－민요
공로상
아웨기와 홍애기소리(제주)
상주민요(경북)
비산농악(대구)
개인상
차영여(북성구지풍어놀이, 인천)
장보배(평산지정닦이,소놀음및 작두그네뛰기, 황해)
여재성(북청사자놀음, 함남)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7. 9. 29－9. 30.
수원, 안양

대통령상
여주쌍용거줄다리기(경기)－민속놀이
국무총리상
보은흰돌물다리기(충북)－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서해안일노래(인천)－민요
청단놀음(경북)－민속극
인제숯둔골숯굽기(강원)－민속놀이
연물놀이(제주)－민속무용

욱수농악(대구)—농악

장려상

다대포후리소리(부산)—민요
강진베틀놀이(전남)—민속놀이
용암포풍어제 (경북)—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재가승마을극놀이(함북)—민속극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놀이
해주검무(황해)—민속무용
서도소리경사거리(평남)—민요
김포두레농요(경기)—민요
울산물당기기놀이(경남)—민속놀이
경복궁지경닺이(서울)—민요
청양동화제(충남)—민속놀이
옥구상작농악(전북)—농악

공로상

경북궁지경닺이(서울)
청양동화제(충남)
옥구상작농악(전북)

개인상

김광숙(서도소리경사거리, 평남)
윤덕현(김포두레농요, 경기)
조규찬(울산물당기기놀이, 경남)

제29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88. 10.—21. 23.
전주

대통령상

봉서사영산작법(전북)—민속무용

국무총리상

송천달집태우기놀이(전남)—민속놀이

문공부장관상

옥천집터다지기는소리(충북)—민요
자인팔광대(경북)—민속극
비산동천왕매기(대구)—민속놀이
청양동화제(충남)—민속놀이
마산농청놀이(경남)—민속놀이

장려상

서도소리(평남)—민요
영변가(평북)—민요
동래고무(부산)—민속무용

미수상참가작

서울12지풍물놀이(서울)—민속놀이
대보름놀이(함북)—민속놀이
북청사자놀음(함남)—민속극
인천주대소리(인천)—민요
고창임리당산제(전북)—민속놀이
떼몰이놀이(제주)—민속놀이
소촌농악(광주)—농악
해주검무(황해)—민속무용
홍천물통방아놀이(강원)—민속놀이

공로상

떼몰이놀이(제주)
송포호미걸이(경기)
홍천물통방아놀이(강원)
소촌농악(광주)
해주검무(황해)

개인상

이희섭(떼몰이놀이, 경기)
신기현(옥천집터다지기는소리, 충북)
김원철(고창임리당산제, 전북)

제30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1989. 9. 28.—9. 30.
마산

대통령상

안성남사당풍물놀이 (경기)—농악

국무총리상

상주민요(경북)—민요

문공부장관상

인천주대소리(인천)—민요
청주웃다리농악(충북)—농악
고흥한적들노래(전남)—민요
감내게줄다리기(경남)—민속놀이
총각대방놀이(충남)—민속놀이

장려상

동김녕리해녀노래(제주)—민요
황해도민속범몰이(황해)—민속놀이
광산구마륵농악(광주)—농악

미수상 참가작

서도소리,제석방아찧기(평남)—민요
신창탈놀이(함남)—민속놀이
구정대보름놀이(함북)—민속놀이
마산농청놀이(경남)—민속놀이
영변성황대제(평북)—민속놀이
수영농청놀이(부산)—민속놀이
금척무(전북)—민속무용
고성명파돌다리놓기(강원)—민속놀이

송파백중놀이(서울)—민속놀이
대구공산민요(대구)—민요

공로상

수영농청놀이(부산)
대구공산민요(대구)
고성명파돌다리놓기(강원)
송파백중놀이(서울)
금척무(전북)

개인상

장종실(영변성황대제, 평북)
김기복(안성남사당풍물놀이, 경기)
윤문순(수영농청놀이, 부산)

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90. 10. 23.—10. 25.
제주도 종합경기장주경기장, 한라체육관

대통령상

서우젯소리(제주)—민요

국무총리상

연산백중놀이(충남)—민속놀이

문화부장관상

광산농악(광주)—농악
금릉빗내농악(경북)—농악
보성장좌기받이별신제(전남)—민속놀이
공산농요(대구)—민요
해주검무(황해)—민속무용

장려상

바위절마을호상놀이(서울)—민속놀이
마산두레농악(경남)—농악
군산용왕굿(전북)—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요왕맞이굿놀이(제주)—민속놀이
부산농악(부산)—농악
디딜발아액맥이놀이(대전)—민속놀이
신창탈놀이(함남)—민속극
재가승염불삼매놀이(함북)—민속놀이
단양띄뱃놀이(충북)—민속놀이
인간칠십고려장하직굿놀이(평남)—민속놀이
평안도다리굿(평북)—민속놀이
김포상두꾼소리(경기)—민요

공로상

정선지게춤물박장단(강원)
평안도 다리굿(평북)
주대소리와장치기소리(인천)
단양띄뱃노래(충북)
김포상두꾼소리(경기)

개인상

김한순(농악, 부산)
이국헌(민속놀이, 대전)
오경일(민속놀이, 제주)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91. 10. 1—10. 18.
여수 진남경기장

대통령상

여수영당풍어굿(전남)—민속놀이

국무총리상

금산물페기농요(충남)—민요

문화부장관상

광산농악(광주)—농악
영암도포제줄다리기(전남)—민속놀이
구미발검들들노래(경남)—민요
해주검무(황해)—민속무용
북청돈돌날이(함남)—민요

장려상

소금밭일놀이(인천)—민속놀이
양반상례역귀몰이(대전)—민속놀이
안산둔배미놀이(경기)—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함안칠북화천농악(경남)—농악
망데기질드는소리(제주)—민요
평안도다리굿(평북)—민속놀이
횡성우밀어러리타령(강원)—민요
평양염불과제석방아찧기(평남)—민요
해주검무(황해)—민속무용
동래학춤(부산)—민속무용
대구건들방우치성굿(대구)—민속무용
재가승마을세시놀이(함북)—민속놀이
남이장군당굿(서울)—민속극
정읍농악(전북)—농악

공로상

남이장군당굿(서울)
횡성우밀어러리타령(강원)
괴산농요(충북)
정읍농악(전북)
망데기질드리는소리(제주)

개인상

권명화(대구건들방우치성굿, 대구)

박동욱(함안칠북화천농악, 경남)
정대북(평안도다리굿, 평북)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92. 9. 25.
구미시민운동장, 금오공대체육관

대통령상

예천공처농요(경북)—민요

국무총리상

부여용정리호상놀이(충남)—민속놀이

문화부장관상

고흥농악(전남)—농악
화천나뭇꾼농목장치기(강원)—민속놀이
포천메나리(경기)—민속놀이
영동길쌈노래(충북)—민요
날뫼북춤(대구)—민속무용

장려상

인천소금밭일놀이(인천)—민속놀이
도안동농요(대전)—민속놀이
장안골편사놀이(서울)—민속놀이

미수상 참가작

부산영산재(부산)—민속무용
광산들노래(광주)—민요
임실삼계고전상여소리(전북)—민속놀이
익산삼기농요(전북)—민요
금릉빗내농악(경북)—농악
밀양법흥상원놀이(경남)—민속놀이
화반놀이(제주)—민속놀이
해주검무(황해)—민속무용
평양검무(평남)—민속무용
성황부군도당굿(평북)—민속놀이
북청돈돌날이(함남)—민요

공로상

화반놀이(제주)
부산영산제(부산)
광산들노래(광주)
평양검무(평남)
밀양법흥상원놀이(경북)

개인상

한기식(금릉빗내농악, 경북)
김종문(임실삼계고전상여소리, 전북)
박계순(북청돈돌날이, 함남)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 평가와 분석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의의

우리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임동권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문화재위원)

1. 민속예술경연대회의 의의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첫째, 향토 민속예술을 발굴 보존 계승하려는데 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생활하는 동안 각 지방에는 그 지방 특유의 민속예술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 지방의 자연환경이나 생산양식에 따라 농촌, 산촌, 어촌등의 생활양식이 성립되고 여기에 역사와 그 사회집단의 사고방식이나 관습이 조화되어 향토문화가 형성된다.

평야지대의 들녘에서는 농경위주의 민속예술이 형성되고 산촌에서는 그곳의 환경에 알맞는 민속예술이 형성되며 또 어촌에서는 어로생활이 반영되는 민속예술이 형성되어 지방마다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주었다.

향토민의 생활양식과 생활공감에 의해서 형성된 향토 민속예술이 우리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소멸되고 쇠퇴되고 소외되어 나날이 사라져가고 있다. 특히 일제는 민속예술이 한국인의 향토애를 조장하고 집단화하는 성향이 있다고 해서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민속축제를 열지 못하도록 억제 탄압하여 오래 전승된 민속예술이 중단 소멸되는 계기가 되기도했다. 또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인구가 도시 산업사회로 진출하게 되어 민속예술의 계승자가 줄었고, 서구의 물질문명과 텔레비젼이 보급되어 전통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외래문화를 도입하게 되어 민속문화는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여러 지방에서 "옛날에는 이러 저러한 민속예술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막상 현장에 가면 가시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노인들의 구전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에 노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기억과 경험을 되살려 발굴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기록하지 않고 전승자들이 사라지면 소중한 민족문화가 송두리채 소멸되어 문화단절의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위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민족문화 보존을 위해서 첫 과제로 향토 민속예술의 발굴에 있다고 하겠다.
들녘이나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무런 제약 없이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연희된다면 있는 그대로의 전통을 더 잘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보려는 사람들이 계절과 시간을 맞추어 현장에 가야한다. 그 시기를 놓치면 일년을 기다려 다음해에나 볼 수 있는 민속예술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 연구자나 관람자들은 생활상의 제약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의도적으로 정한 시기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내에 연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변동이 있다. 우선 현장을 벗어나서 좁은 마당 또는 무대에서 상징적인 셋트 몇개만 세우고 보여줘야하고 30분 또는 40분내에 놀아야 하기 때문에 연출력이 요청 된다. 고향의 현장에서는 밤새도록 또는 몇일 걸리는 일도 있는데 경연이기 때문에 정한 시간내에 마쳐야 한다.

농사철 놀이인 경우에는 모찌는 장면에서 모심고 풀뽑고 벼베고 타작하는 과정 즉 이른 봄에서 늦가을 까지를 같은 장소에서 짧은 시간 안에 놀아야 하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연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자료의 원형을 연출자가 효과적으로 재편성 하므로 효과적인 장면 위주로 하게 되어 원형 재현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회인 만큼 부득이한 일이다. 한자리에 전국에서 선발된 팀을 모아 두었으니 공평하게 시간과 공간이 제공되어야 했다. 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잃어가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우리 전통예술을 이해시키며 향토애 민족애를 고취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2. 향토문화의 발전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보다 외래문화에 관심을 두었고 어느 의미에서는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현대화가 더디고 장애가 되었다는 생각마저 갖게 되어 전통을 하찮게 여기는 그릇된 가치관이 유행 하였다. 즉 현대화 하려면 전통을 없애야 하며 전통이 발전을 방해하는 주범이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다. 이와같은 그릇된 가치관은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 것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는 원인이 된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민속예술경연대회는 향토문화에 관심을 돌리게 하고 우리의 전통예술 속에는 활력이 넘치는 기상과, 흥겹고 아름다운 예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케 해서 새로이 우리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민속예술이 원래에는 고향의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조촐하게 거행되는 것이었으니 그 주체는 대부분이 농민들이었고 때로는 하천계층에 의해서 연희되는 일이 허다했다. 그래서 민속예술에 관여했다면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으로 보여지고 그런 연유로 사회활동이나 출세 혼인에도 장애를 가져오는 일이 있었다. 오래 전승된 것이며 흥겹고 신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쓰라림이 있었다. 그래서 낮은 신분임을 세상에 노출시키지 않으려 좋은 예술작품을 사장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창기에는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하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수만은 군중 앞에서 천한 신분임을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는 이유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회가 해를 거듭하게 되고, 대통령상과 상금을 받고, 때로

는 국가지정의 무형문화재가 되어 인간문화재란 영광을 누리게 되고 세상의 인식도 달라져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사를 받게 되니 당사자들도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이제는 당당히 무대에 나와서 자기의 것을 보이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아무런 쑥스러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연희할 수 있어 국민들에 민족적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주어 민속예술경연대회가 민족의식, 향토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회가 한국인의 정신적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한 셈이 된것이다. 즉 민속예술경연대회는 민족적 긍지와 자신감을 심어준 정신사적 의미에서 높이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향토문화는 중앙의 도시문화에 눌려 위축되었고 때로는 천대를 받는 일도 있었다. 순수하고 조상들의 숨결이 담겨 있고, 솜씨가 나타나 있고 생활의 지혜가 반영 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서구 문물에 도취되고, 서구 문물을 숭상한 나머지 내 전통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착각이 현대인들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게 되어 자문화에 대한 긍지를 상실하여 향토문화는 위축 되었다.

향토문화의 발전은 향토에 대한 애착이 선행되어야 하고, 긍지를 가지고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재현해서 보존에 힘써야 한다. 여기에 민속예술경연대회가 공헌을 했다.

민속예술의 소재들은 도시가 아니라 주로 각 지방에 있다. 향에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왔는데 일제에 의해서 폐지되고 또 무슨 이유에서이건 소멸된 것을 찾아 발굴 해서 향의 전통으로 가꾸려는 의도에서 각 지방 향인들에 의해서 재연되고 있어서 향토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 일체감의 형성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각도에서는 도내의 여러 자료를 놓고 입상의 가능성 있는 것을 도정하고 그 자료를 대회의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 맞게 재편성해서 오랫동안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경험이 있어 참여 했거나 보고 들은 일이 있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하여 연습을 하게 된다. 민속놀이의 경우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동원 되는 일이 있고 그 수가 모자라서 인근 마을 사람들도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 지방 또는 한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서 연희하기 때문에 협동하고 단결하고 애향심을 기르게 되고 향토인의 긍지를 높혀주게 된다.

민속예술의 여러 경우 승부를 가린다. 승리한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패한 사람은 실망하고 수치를 느끼는 일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승리 하려고 노력을 한다.

민속예술경연대회는 각 시도에서 관내에 전승되는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재현해서 대회에 나오기 때문에 초창기에 있어서는 거의 새로 발굴한 종목 위주였다.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입상하려면 같은 종목을 재출연해도 한 두번에 끝이고 새 종목을 발굴해서 출연하는 열의를 보여왔기 때문에 대회의 목적의 하나인 발굴에는 큰 성과를 거두

었다.

발굴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지에 찾아가야하고 전승자를 찾아내야 하고 그 의미와 역사도 규명해야 한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상실된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 실제 연희했던 사람이 생존해 있으면 좋지만 모두가 이미 사망했을 때에는 발굴자의 어려움은 가중 된다. 33회에 이르는 대회를 통해서 300여종의 발굴이 있었으니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아니었더라면 대부분 사장되어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다. 지방 관공서나 학자 또 향토 사학가가 민속예술 작품의 발굴에 커다란 공을 세웠다. 우리 민족사를 통해서 이와같이 많은 민속예술 자료들을 33년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발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 대회가 갖는 발굴의 공은 높이 평가 되어야 한다.

둘째, 민속예술 자료를 발굴하는 일은 발굴의 노력 자체로도 의미있는 것이지만 큰 목적은 보존하고 육성해서 후대에 계승하는데 있다.

발굴해서 한번 놀고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발굴할 때에는 이미 그 의미를 인식해서 뜻있는 자료를 발굴 했을 것이나 발굴한 것에만 그치지 말고 후대에 전승시킬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민속예술의 성립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지역, 그 시대의 공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자료를 통해서 조상의 생활상과 의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민족사 정립에도 기여한다.

보존은 계승을 위한 첫 과업이다. 그동안 대회를 통해서 연희 되었고, 연희하자면 현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연습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민속예술의 향유층이 두터워졌고 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경하고 참여하였으므로 계승작업이 진행된 셈이다.

대회에 출연할 종목은 시 도 단위에서 선발 되었거나 이름 있는 종목이 선택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향토문화와 관련되어 역사성을 띠고 있다. 조상들의 생활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전승 되었다는 그 자체가 소중하다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대에 끊이지 말고 후손들에게 계승시켜 문화전통이 면면히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외래문화에 밀리거나 우리의 무관심 속에 소멸 된다면 오랜 문화전통을·간수하고 계승시키지 못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 그런 점에서 민속예술경연대회는 발굴한 민속예술을 보존 계승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는 향토 민속예술을 대회를 통해서 재현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과 이해를 촉진하게 하여 국민적 긍지를 높이고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향토 예술은 원칙적으로 그 고장에서 재현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시골의 자연과 관습 속에서 그 현장에서 재현되면 뜻도 맞고 분위기도 살아난다. 고향의 뒷산 산신당이나, 서낭당 그리고 고향의 출연팀으로 선정 되면 입상하려고 노력을 한다. 의욕이 중천하면 서로 협조가 잘 되어 열을 올린다. 그렇게 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각자가 맡은 배역이 있어 그 자리가 비면 전체의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다. 한 사람의 불참으로 다수가 연습을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빈축을 사고 때로는 비난도 받게 된다. 그러니 전원의 협동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민속예

술경연대회에 한번 참가하면 협동정신이 생기고 집단 훈련이 잘 된다고 한다.

좋은 연희는 입상이 가능하다. 출연한 사람들은 모두 가능하다면 상위입상을 바란다. 그러나 최상위 입상은 한 팀 뿐이지 여러 팀 일 수가 없다. 그래서 최상위 입상하려고 열심히 협동하고 합심해서 향토예술의 진수를 익히려고 땀 흘려 노력을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향토예술이 연마되고, 사람들은 제 고향에 전통있는 향토예술을 보존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긍지로 삼게 된다. 여기에서 향토예술은 이해되고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계승 발전할 수가 있다.

민속놀이나 농요의 경우 그 구성이 마을 단위이고, 이웃 마을과 우호를 다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결의 양상으로 진행 되는 일이 있다. 이런 경우 마을 소속원들은 자기 마을의 명예를 걸고 단결해서 대항을 하게 된다. 석전 줄다리기, 고싸움, 차전놀이, 기와밟기, 게줄다리기 등등이 그러하고 이 때에 농요는 자기네 편의 사기를 앙양하고 성원 독전 응원의 성격을 띠게 된다. 마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오기가 유감없이 발휘 되는데 바로 마을의 일체감 형성이다. 이렇게 해서 민속예술은 향토애와 나아가서는 애국 애족하는 마음을 기르는데 공헌했고 일체감을 기르게 되었다.

4. 민속예술 경연대회의 성과

①국민의 흥을 돋우어 주었다.

농경생활에 있어서는 세시풍속에 따라 명절 때마다 놀이가 있었다.

설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농군들은 농악을 치고 놀았다. 부자집 또는 대가집을 농악치며 찾아가면 일행에게 술과 음식으로 대접했고, 술김에 한참 농악치고 잡귀를 떨고 일년 신수대통하라고 고사도 지냈다.

정월 초사흘 무렵부터 상지사이에 여러 마을에서 동제가 있었다. 농악을 치고 행렬을 하고 동제 지낸 제찬을 내려 음복을 했다. 이 때에도 농요의 필수였다. 동제의 목적이 동네의 평안과 동민의 각 가정이나 개인 신수를 빌고 만사형통을 비는 것이니 축제 분위기에 젖어 신나게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흥을 내어 놀아 즐겼다. 지신밟기, 걸립, 지귀굿이 다 이무렵이다. 상지날의 줄다리기 장승제, 거릿제, 놋다리놀이, 차전놀이며, 석전 횃불싸움도 이 때에 이루어지니 한 없이 즐겁고 흥겨운 일이 계속되었다.

2월 1일은 머슴날이었으니 장정들이 하루 즐겁게 놀아 새로이 시작될 농사일에 활력을 주었으며, 3월 삼짇날에는 강남에서 제비가 찾아오니 반가운 일이어서 놀았고, 4월 초파일은 부처님 태어난 날이니 등불을 밝히고 놀았으며, 5월 5일은 단오일이라 단오제 지내고 굿하고 씨름하고 놀았으며, 6월 15일은 유두일, 7월 15일은 백중날이라 농군들이 하루 일을 쉬고 농악치고 신나게 소놀이, 거북놀이, 강강술래등으로 즐거웠다.

9월 9일은 중구일, 10월은 상달이라 가을 고사가 있었고 11월 동지일에 팥죽 쑤고, 11월은 연말이라 집안을 청소하고, 미해결의 일들을 모두 청산하고 흘가분하게 새해를 맞이하곤 했다.

명절 사이사이에 흥겨운 행사가 있었으니 봄에 산수 화전놀이가 있

었고, 여름에는 물놀이, 가을에는 단풍구경과 햇곡식 올벼송편으로 즐겼고, 겨울에는 연날리기, 윷놀이등이 있었다. 이러한 놀이들은 매년 계절에 따라 반복 하는 것이지만 신나는 한 마당을 연출 했다.

농사일은 고된 중노동이지만 수시로 계절마다 명절과 신명풀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흥을 내고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해서 흥겹게 신명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상실해 갔다. 앞서 지적한바 일제는 명절과 놀이가 애향심에 애국심을 북돋아주는 것을 두려워 소비적인 낭비라느니 미신행위니 하는 핑계로 제지에 나섰다. 우리 민속행사의 대부분이 일제하에 소멸되었다.

둘째는 60년대 이후로 농경에서 도시 산업사회로의 전환이다. 많은 수입을 올려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렸다. 농촌사회에서는 농자천하지대본이란 생각으로 살아 왔으나 장래를 위해서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에 집중하기 시작하여 농촌은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노인층만 남게 되고 활동적이고 놀이에 참여할만한 연령층이 빠져나가 전승된 민속놀이를 하고자 해도 참여층이 없다. 즉 민속놀이의 주체자들이 이제 농촌에서는 희귀해서 민속행사의 구성이 어렵게 되었다.

젊은이가 없으니 농악을 칠 사람이 없고 어쩌다 농악을 친다해도 가락에 맞춰 춤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농촌에서도 그 흥겨웠던 민속놀이는 옛날 이야기가 되고 흥을 잃게 되었다. 오랫동안 민족생활과 더불어 생성하고 발전하고 전승된 민족적 활력소인 민속예술이 상실 소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처음 시작한 것은 1958년이다. 당시는 6·25사변을 치루고나서 사회혼란이 아직 남았었고 통제적 침체가 심해서 실업자가 많았으며 모두가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이다. 이러한 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농악을 치고 옛 조상들이 했던 놀이와 노래와 춤과 굿으로 신명풀이 하였으니 국민들에게 흥을 돋우는 역할을 했다.

전국 각도에서 끼있고 솜씨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2, 30팀이 모여 흥겨운 마당이 벌어졌으니 사람들은 현실의 각박함도 잊고 내재했던 흥이 솟고 자기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한국인은 농악 소리가 울려오면 저절로 어깨춤을 춘다. 농악의 리듬은 우리의 공감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기에 우리의 흥과 율동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마을 사람을 모으고자 할 때에 농악을 쳤고 농악 소리만 들려오면 사람들이 모였으니 우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②문화재의 발굴 지정

국가에서는 민속문화를 보존 계승시켜 민속문화를 선양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무형문화재를 발굴하고 우수한 종목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육성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란 고정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심의와 정서와 슬기가 담겨있어서 민족생활의 추이를 알 수 있고 예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음악, 무용, 연극, 세시풍속 민족이상등이 대상이 된다. 문화재를 조사 발굴 보호하는 기관으로는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위원회가 따로 있어 업무를 관장 수행하고 있으나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발굴된 종목이 대회를 계기로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되어 주목을 받고 국가 지정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이 많으니 다음과 같다.

국가지정(34종)

서울 꼭두각시놀음
선소리산타령
송파산대놀이
경기 양주산대놀이
양주소놀이굿
강원 강릉단오제
강릉농악
충남 은산별신제
전북 이리농악
임실필봉농악
위도띄뱃놀이
전남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경북 안동차전놀이
한장군놀이
하회별신굿
예천통명농요
경남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진주농악
진주검무
승전무
밀양백중놀이
가산오광대
고성농요
부산 동래야유
수영야유
좌수영어방놀이
광주 고싸움놀이
황해 봉산탈춤
강령탈춤
은율탈춤
평남 서도소리
함남 북청사자놀음

지방지정(20종)

강원 정선아리랑
횡성회다지소리
충남 산유화가
전북 익산목발노래
전남 거문도뱃노래
남도노동요
현천소동패놀이

경북　청도차산농악
　　안동놋다리밟기
　　금릉빗내농악
경남　한량무
　　마산농청놀이
　　감내게줄다리기
제주　방앗돌굴리는노래
　　멸치후리는노래
부산　동래학춤
　　동래지신밟기
　　부산아미농악
대구　고산농악
　　날뫼북춤

이상 국가지정 문화재 34종 지방지정 문화재 20종에 이르는 전체 무형문화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제30회를 치룬 1989년까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총 92종목인데 그 중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발굴되어 지정된 종목이 34종으로 3분의 1일을 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화재가 경연대회를 통해서 발굴 되어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되고 흥을 고취시키고 학자들에 의해서 조사되고 연구되어 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되었으니 경연대회는 문화재발굴이 큰 공헌을 했고, 대회 목적의 하나인 향토예술의 발굴에는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그동안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통해서 발굴된 종목중에는 중앙과 지방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도 있어 경연대회의 문화재 발굴의 기여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③내외에 문화선양

민속예술경연대회가 결과적으로 내외에 우리 문화를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우리 국력은 날로 융성해서 1986년에 아시안게임을 치루었고, 1988년에는 올림픽을 개최했다. 그동안 경연대회를 통해서 발굴된 우수 종목들은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학교교육에서 재현되어 널리 국민들에 보급 되었다. 지방에 따라서는 발굴된 종목을 향토의 자랑으로 여겨 보존 계승을 위하여 학교나 마을을 지정하여 보존케 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중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된 종목은 탈춤, 고싸움, 차전놀이, 강강술래와 농악이었다. 많은 사람들에 흥을 돋우어 주었고 공감을 갖게 하였다.

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갖는 행사여서 이 기회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선보여 문화민족임을 입증해야 할 때에 경연대회를 통해서 발굴 되고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발휘하게 되었다. 만일 축적된 문화역량이 없었더라면 세계 만방에 개성있고 전통있는 문화민족임을 입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즉 민속예술경연대회가 결과적으로 내외로 문화선양에 공헌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문화민족임을 자신을 갖게 했고 대외적으로 문화민족임을 과시할 수 있게 하였다.

④재창조의 기틀 마련

민족예술은 각향에서 생성되고 연희되어 왔으며 그 마을의 축제로 전승되었다. 축제의 계절이 다가오면 마을의 노인들 유지 또는 제례를 맡은 유사 대주 제관 무녀들에 의해 무녀들에 의해서 준비가 진행되고 동네는 축제의 분위기에 쌓이게 된다. 동민들은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분담된 일을 즐겁게 수행하고 때로는 목욕제계나 금기를 지켜 정하게 맞이 하려는 마음 가짐과 노력을 한다. 축제의 신제례의 규모가 크고 성대할 수록 여기에 따르는 오신으로서의 놀이도 규모가 컸다. 신제와 관련 없는 민속예술에 있어서도 마을 사람들의 참여가 많을 수록 공감대가 형성되고 화합은 잘 이루어 진다.

축제는 그 마을의 문화전통이 집약되고 그 마을의 역사와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잘 나타난다. 그래서 지방마다 개성이 다른 향토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동안 발굴 되고 상위로 입상된 종목들은 모두 개성이 있어 향토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합심해서 축제를 진행하게 되니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나 대립을 극복하고 서로 화합하게 되어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된다. 화합은 활력소가 되어 재창조의 힘이 된다.

축제에 참여하면 모두가 한 편이란 생각이 들고 격의 없이 협조하게 되어 이것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창조의 힘을 발휘하게 되어 발전, 향상 전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민속예술의 현장에 가 보면 마을 노소가 협력하고 남녀가 어울려서 동참을 하는 일이 많다. 평상시에 생소했던 사람도 같이 땀흘려 동참하는 사이에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 여세로 문화의 재창조의 힘이 생긴다.

문화는 정체하지 않고 늘 살아 움직이고 있다. 더 나은 차원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에 의해서 움직인다. 역사성과 사회상을 가미시키면서 움직여 새 문화를 창조하게 된다. 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원형대로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승해서 후대에도 물려주어야하면서 한편 우리의 전통을 토대로 그 위에 폭넓은 새 문화를 창조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일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생산적으로 진행 되었다.

근래에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이 사회적으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윤리관의 붕괴, 전통적 가치의 상실 변질은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 텔레비전의 보급과 출판물을 통해서 감각적인 자극이 우리 생각과 생활을 뒤흔들어 혼란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발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사람은 궁극에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 그러자면 상호 존중되고 화합하고 협동이 있어야한다. 즉 새 시대에 필요한 재창조되는 문화는 미래의 민속예술이 지니고 축제 속에 내포된 화합과 일체감에서 찾고 서로가 융합하는 세계여야 한다. 따라서 민속축제가 지닌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정신위에 문화의 재창조가 바람직 하다. 마을 협동을 위해서 나아가서 인류애의 실현을 위해서 원래의 축제정신이 새 문화 창조에 기여해야 한다.

그동안 경연대회를 통해서 발굴된 마을에서는 보존에 힘쓰고 있다. 대상을 받은 곳에서는 상금으로 기금을 만들고 육성하는 곳이 있으며

또 한편 어렵게 발굴한 것을 보존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도처에서 일고 있으며 젊은 층에 전수되고 있어 재창조에 기여하고 있다.

발굴할 때에는 원형대로 기록하고 재현하려고 주력했으나 반복하는 사이에 시대감각이 첨가되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신제의 유적 공간이 사라졌고 당시의 기구가 없고 현대인은 생활이 쫓겨 몇일동안 하던 축제를 하루, 또는 몇 시간으로 단축해서 재현하게 되고, 때로는 원래 남역이었으나 사람이 모자라 여역으로 대처하는등 변화가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와같은 현실은 재창조가 본의이건 본의아니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는 재창조가 있어야 하고 재창조로 발전이 있기 마련이다. 경연대회가 민속예술을 발굴해서 일단 과거를 정립 또는 정리하고, 축제로 발전해서 재창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평가와 분석

민속의례

장주근
(문화재위원)

1. 민속의례의 출연 실황

굿과 동제, 불교의식등을 한마디로 묶어서 민속의례라 일컫기도 한다. 이 민속의례는 대부분 지금까지의 5개 부문, 즉 민속놀이, 민요, 무용, 농악, 민속극 중의 민속놀이 부문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소수 종목들이 기타 다른 부문으로 출연한 경우들도 있다. 이제 그 전체 실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33회 34년간에 걸친 수상 상황을 먼저 통계 숫자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민속놀이 173회
②민요 108회
③민속무용 24회
④농악 99회
⑤민속극 80회

이 통계는 지금까지 33회의 전체 자료가 보관되어있지 못해서 92년도 33회째 책자의 "연도별 수상현황" 일람표에서 추려낸 통계이다. 따라서 매년 아무 상도 수상하지 못한 2, 3개 정도의 종목은 빠져있는 수상종목만의 통계로서 완전하고 정확한 전체 통계는 못되고, 다만 대체적인 경향만을 파악한 통계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둔다. 그리고 이 일람표에는 91년도까지의 수상 종목들이 실려있는데 여기 92년도 출연 종목 20개가 첨가된 점도 단서를 붙여둔다.

여기 민속놀이 173회의 출연 중에서 민속의례 종목의 출연은 확인된 것만 58회에 이르고 있으며, 그 개황은 다시 후기하기로 하겠다. 다만 이러한 각부문별 출연 통계가 제시된 계제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 만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 지적해 두고자 한다.

위에서 민속극 80회는 86년도까지의 숫자이다. 주지하듯이 87년 이후는 지정문화재는 출연을 사양하게 되어서 사실상 모든 가면극이 지금은 다 지정되고 나니 출연이 단절되고 있으나 민속극 부문이나 그 장관상은 그대로 설정이 존속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만 참고 삼아서 언급하면 예컨대 북청사자놀이는 86년 28회까지 확인된 수상 횟수만 18회, 봉산탈춤은 14회에 이르고 있다.

한편 민속무용은 33회의 대회에 걸쳐서 수상 횟수가 24회인데 예컨대 충무 승전무 6회, 해주검무 4회, 진주검무 3회 기타 9종목이

1, 2회로 24회이다. 출연팀으로는 지금까지 12팀의 이름이 "연도별수상현황" 일람표에 보이는데 실제는 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상의 실정에 비교할 때에 민속놀이는 173회이고 그중 민속의례는 58회였다. 따라서 지금 아직 장관상이 설정되어 있는 민속극 부문에는 출연 종목이 거의 없고, 민속무용은 매번 매회마다 1, 2팀에서 많아야 3, 4팀이 출연하는데 민속놀이는 언제나 7, 8팀에서 10여팀까지 출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문 경연에서의 불균형이 이미 5년이나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이제는 민속극 부문을 폐지하던가, 민속놀이 부문은 이것을 민속의례와 민속놀이로 2분해서 5개부문을 설정해 볼 필요도 생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점을 일단 지적해보게 되는 바이다.

2. 민속의례의 출연 종류

민속의례의 출연 종목들은 그 내용으로 보아서 불교의식, 동제, 무속의례(굿) 등으로 3분류될 수가 있다. 먼저 간단한 불교의식부터 수상종목들을 가지고 살피면 다음과 같다.

○불교의식

속리산탑돌이(충북, 1970년 장관상, 1978년 장려상 수상)

다천사작법(전북, 1986년 장관상 수상)

봉서사영산작법(전북, 1988년 대통령상 수상)

부산영산재(1992년, 무용부문으로 출연)

불교의식은 수상현황 일람표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이상 4종목 5회 출연이 그 전부이다. 민속놀이 중의 민속의례는 대회를 거듭함에 따라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여 제11회인 70년부터는 이 불교의식에도 미치고 근래에 와서는 쇠잔되어가던 불교의 종합의례인 영산재를 호남 영남에서도 복원하고 출연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의 영산재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회에의 출연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지방문화재로서의 지정 보존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이 대회가 가진 하나의 자극이요 성과라 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봉서사 영산작법은 이 종합의례를 우아하게 잘 재현하여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이번 92년도 부산 영산재는 특히 무용부문으로 출연하여 바라춤 나비춤등의 춤사위에 유념하였고 한편으로 통범(통도사·범어사)소리의 체제 정비, 재현에도 기여하고 있다.

○동제

민속의 뿌리는 민속신앙이라고 흔히 논의된다. 특히 동제는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끼리의 지연(地緣)을 본위로 하는 대동화합의 성격을 지니기에 민속축제로서 민속예술경연대회에는 안성맞춤인 출연종목이 된다. 그런데 이 동제는 무당 굿으로 더욱 축제성이 강한 무속형과, 농악대가 나서는 농악형과, 무당도 농악대도 없어서 기원과 정성, 음복들만으로 끝내는 정숙형들로 일단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 무속형 동제는 따로 구분해서 다음의 마을굿들에서 보기로 하겠다. 무당도 농악대도 없는 정숙형은 이 대회에는 출연감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한에도 지금은 이런 마을이 더 많고, 특히 농악이 없던 평안도 함경도등 이북지방에서는 무당도 흔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 정숙형이 사실 동제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실

제로는 정숙형이었건 농악형이었건 간에 대회에는 농악을 동원해서 출연한 농악형 동제를 먼저 들어보리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무속적 요소들은 가미된다.

농악형 동제의 수상 종목
거리제(강원, 1974년 장관상 수상)
강문 진또배기(강원, 1979년 장관상 수상)
공주 장승제(충남, 1984년 장관상 수상)
임리 당산제(전북, 1988년 개인상 수상)
청양 동화제(충남, 1987년 공로상, 88년 장관상 수상)
보성 별신제(전남, 1990년 장관상 수상)

여기 거리제로 출연한 강원도 춘성군 동산면 조양리의 밭치리 마을에서도 농악이 없어진지는 오래 되어있었다. 그것은 1978년에 간행된 "한국의 민속예술"(문예진흥원 발행)간행 때 장관상 이상 종목들을 현지조사도 하고 해설하는 기회에 확인된 바 있었다. 그러나 정숙형 동제로는 출연감이 안되니 불가불 농악을 동원하고, 이러한 계재에 소멸되어가던 농악이 부활하게 되는 영향을 이 대회는 주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이 대회의 큰 영향과 작용 중의 조그마한 구체적인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 거리제, 강문 진또배기, 공주 장승제는 다 장승 솟대를 소재로 한 동제의 부속 제의이다. 그러나 부속제의인 장승제만으로는 구성이 단조로워서 동제와 농악들을 적절하게 곁들인 것인데, 요컨대는 동제에 부속되는 장승 솟대들의 소박한 원형을 발굴 재현한 원형에의 충실성이 평가되어서 장관상들을 수상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임리 당산제도 당산제에 솟대 세우기, 줄다리기를 하고 난 줄을 솟대에 감기등 좋은 소재가 재현되었다. 농악대도 물론 등장했다. 사실은 동제에, 농악대와 줄다리기의 3가지만 구비되어도 그것은 훌륭한 마을 축제이다. 여기에 솟대를 갈아세우고 줄을 감는 흥미로운 소재도 곁들여졌던 셈이다.

청양 동화제는 이러한 동제 후에 올리는 동화대(洞火台)의 가시나무짐의 불길도 흥미로웠으나 그 나무짐을 나르는 지게춤, 지게목발치기, 작대기치기, 나무타령, 산타령등 소박한 무용과 민요의 재현이 좋게 평가되었다. 또 지게 2개를 겹쳐서 지게 가마를 만들고 타는 지게가마타기와 거기 조화를 이룬 춤과 타령등이 소박한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보성 별신제에는 여덟 단계의 진행절차가 있었다. 그중에서 첫째긴 장대 끝에 나무 오리를 꽂아서 세우는 장대 세우기, 넷째 지난 1년간 제일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을 잡아다가 원님 앞에서 태형으로 다스리는 원님놀이, 일곱째 대와 짚으로 만든 죽마로 잡귀들을 몰아내는 5방돌기등이 이채로웠고, 모든 진행과 농악대의 놀이에 짜임새가 있어서 좋게 평가되었다.

○마을굿

여기서 마을굿이라고 한 것은 위에서 말한 동제에 무당이 사제자로 나서는 무속형 동제를 가리킨다. 무당도 농악도 없던 대부분 마을의 정숙형 동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축제 분위기가 다분히 필요한 동제

에서는 농악형보다도 이 무속형 동제가 사실상 제일 적격이다. 그래서 이 무속형 동제인 마을굿은 그 출연 종목도 제일 다양하고, 수효도 여기 그 어느 분류 종목보다도 압도적으로 많다. 연도순으로 출연한 그 개항을 먼저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은산별신굿(충남, 66년 공로상, 68년 장관상, 69년 장려상)
위도띄뱃굿(전북, 67년 개인상, 78년 대통령상)
영등굿놀이(제주, 67년 장관상)
영동 해랑제(강원, 75년 개인상)
강릉 단오굿(강원, 76년 공로상)
영덕 탈굿(경북, 77년 장려상)
영변 성황대제(평북, 80년 장관상, 85년 개인상, 86년 장려상, 89년 개인상)
대동굿(황해, 80년 장려상)
용왕굿(인천, 81년 장려상)
목계 별신굿(충북, 84년 장관상)
용신맞이 풍어굿(전남, 84년 공로상)
북성포 곶창굿(인천, 84년 장려상)
용암포 풍어제(평북, 87년 장려상)
요왕맞이 굿놀이(제주, 90년)
군산 용왕굿(전북, 90년 장려상)
여수 풍어굿(전남, 91년 대통령상)
남이장군당굿(서울, 91년 장려상)
성황부군 도당굿(평북, 92년)

이상 18종목 21회의 수상이 있었다. 여기서 필자로서는 본 것과 못 본 것이 섞여있어서 그 모두를 다 고루 언급할 수가 없다. 전반적으로 볼 때에 이 18개 종목들은 앞에서도 언급했으나 다 좋은 향토 축제감이라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가 있다. 실제로 이중에서 은산별신굿, 위도 띄뱃굿, 영등굿놀이, 강릉단오굿, 황해도 대동굿뱃 5종목은 중요무형문화재로 그후에 지정된 종목들의 굿 부분이다. 제주도 요왕맞이 굿놀이도 영등굿의 중심부분인 용왕맞이로 이름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정 종목들은 다 오랜 전통을 지니는 무속의례로서 거기에는 모두 기예가 뛰어나는 무당들이 중심 역할을 맡고 출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두 개인의 기예는 아무리 뛰어나도 출연 종목의 전체 구성이나 효과등 종합적인 성적은 반드시 거기 정비례하지는 못했기에 수상 성적은 반드시 다 좋은 것은 아니었다.

이상 마을굿들 중에서 영변 성황대제는 동일 종목이 4회로 마을굿 중에서는 제일 많은 출연을 하고있다. 이것은 특히 도당굿이 끝날 무렵에 수십척 높이의 그네에 수명의 무녀가 타고 꽃을 뿌리며 춤추는 꽃바구니를 매달고 끌어올려서 그 황홀함에 군중이 난무한다는 흥미롭고 매우 소재가 좋은 축제였다. 이러한 특이한 소재를 우연히 조선총독부 발행의 "부락제"(1937년 발행, pp. 94~96)에서 찾아보게 된 필자는 그 소재를 해당 도인 평안북도에 그 부분을 복사하여 준 바가 있었다.

이것을 곧 구성 연출했던 평안북도는 처음으로 한번 장관상을 수상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황홀한 꽃바구니는 아래서 올려다 보아야 황홀한 실감이 나는 것이겠는데 운동장 한가운데에 놓고 스탠드에서 멀리 내려다 보게 되니 좋은 소재가 발굴되었다는 느낌 정도에서 끝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도 이런 마을 단위의 민속놀이나 축제들은 실내체육관 정도가 알맞는 규모가 되고 실감도 더욱 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후로도 힘이 약한 이 실향민의 평안북도는 더구나 소재가 없던 상황에서 여러번 출연을 했으나 늘 무당만 50명 내외씩이나 동원하고 마을 민중은 적게 출연하여 전체적인 구성이 조화롭지 못한 면을 보여 주었다. 더구나 높은 그네를 매서 황홀한 효과를 올릴 실력이 모자라서 그 후 소재는 좋았어도 더 큰 수상 의욕이 늘 좌절되어 왔다.

○기타 각종 굿

굿놀이의 부분적 출연

세경놀이(제주, 1966년 장관상)

영감놀이(제주, 1967년 대통령상)

입춘굿놀이(제주, 1973년 장려상)

산신놀이(제주, 1982년 장려상)

연신맞이 굿놀이(제주, 1984년 공로상)

연물놀이(제주, 1987년 장관상)

떼몰이놀이(제주, 1988년 공로상)

화반놀이(제주, 1922년)

본토에서도 "대감놀이" "성주풀이"등 "놀이"나 "풀이"가 굿의 이름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기 출연된 놀이 굿들은 모두 제주도의 출연 종목들이다. 제주도의 각종 굿에는 그 한 부분으로 다분히 연극적인 굿놀이들이 10여 종이 있다. 여기 세경놀이, 영감놀이, 산신놀이, 떼몰이놀이들은 그러한 굿의 한 부분으로 부속 연희되는 연극적이거나 축제적인 놀이 부분만을 떼어서 구성, 연출한 출연 종목들이다.

이렇듯 굿 속에 연극적인 놀이굿 대목들이 끼어있는 것은 유난히 제주도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이기는 하다. 그러나 본토 각지방 굿에도 그런 경향들은 있다. 근래 탈춤들이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민속극 부문 출연 종목이 단절되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민속극 부문을 더 존속시켜 나간다면 이러한 연극적 놀이굿 대목들은 민속극 부문으로 소속시켜서 경연시켜 볼 일을 고려해 봄직하다.

단 여기서 떼몰이놀이만은 영등굿 뒤끝부분에서 지금은 조그만한 모형 짚배 하나만 띄우고 끝내는 마지막 송신의례의 옛 형태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역시 마지막 송신의례이지만 옛날에는 마을의 떼배들을 경주시키던 장쾌한 어촌 청년들의 보오트 레이스(boat race)였다고 한다. 3면이 바다인 한국에 그것은 의당히 있어야 할 지극히 바람직한 축제 종목중의 현존하는 유일한 것이고, 이 대회에서도 매우 좋은 소재의 복원, 발굴, 출연이었다. 그러나 운동장에서 떼배젖기 내기를 연출하게 되니 여건은 불리할 수 밖에 없어서 공로상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그 학술적 고증이 확실히 인정만 된다면 이 떼몰이놀이는 국가적 입장에서 지정 보존도 할 만한 자료일 것으로 생각된다.

입춘굿놀이, 화반놀이들은 굿의 연극적인 한 부분은 아니고 옛 문헌의 기록과 현지 노인들의 견문을 종합한 복원이라는 점에서는 이때몰이놀이와 같다. 그것은 각기 입춘굿, 화반(花盤)으로 옛책에 기록이 있는 것인데 거기 연희적 내지는 연극적 요소들이 있어서 "놀이"를 붙여서 출연 종목명으로 삼은 것이다. 입춘굿놀이는 수상현황 일람표에서는 한번만 확인되었는데, 제주도 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64년, 65년, 73년의 3회의 출연이 있었고, 다 장려상으로 그쳐서 성과는 좋지 못했다.

기타 각종 굿의 출연

다리굿(평남, 62년 장관상, 67년 개인상, 72년 장려상)
(평북, 90년 공로상, 91년 개인상)
오방성주풀이(부산, 69년 공로상)
대감놀이(서울, 73년 장관상)
장군굿놀이(황해, 74년 개인상)
양진명소오룡굿(충북, 79년 장려상)
평산소놀음굿(황해, 86년 장관상, 89년 출연)
고려장하직굿놀이(평북, 90년 공로상)
건들방우치성굿(대구, 91년 개인상)

마을굿인 대동굿을 제외한 일반 가정굿은 학계에서 흔히 다음 세가지 종류로 구분해오고 있다.

첫째 경사굿 또는 재수굿
둘째 우환굿 또는 병굿
셋째 지노기굿 또는 사령 극락왕생제

이상에서 빈도수가 제일 많은 것이 병을 고치기 위한 병굿이 되겠으나 이것은 성격상 이 경연대회의 축제성 분위기에는 맞지 않아서 자연히 출연한 사례가 없다. 경사굿은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굿이니 명랑한 분위기여서 이 대회에 성격이 맞고, 재래 농가에서 하던 이 경사굿의 전통적인 한 지방형이 평산소놀음굿이다. 이 평산소놀음굿에는 특히 쌍작두 그네타기의 전률감 넘치는 대목이 있어서 강한 호소력이 본래부터 있는데다가 중부지방에 분포하는 소놀음굿의 한 지방형도 옛 형태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이 연희자인 황해도의 월남 노무녀와 그 신딸들은 이때까지 강화도 구석과 일부 인천에서 소박하게 그 고형어린 굿을 자기들 나름으로 전승하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것이 이 대회에 처음 발굴 출연되자 곧 관중의 주목과 아울러서 전문학자들,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수년 후에 드디어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덕분이겠지만 쌍작두 그네타기는 첫 기능보유자인 장보배씨의 사망후 신딸 이선비씨(현 기능보유자)를 끝으로 후계자 없이 단절될 뻔했으나, 최근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갖춘 30대 여무의 후계자도 나서게 되었으니, 다 이 대회가 그 계기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굿의 기본형태와 제차는 경사굿이나 우환굿이나 같고, 지노기굿도 뒷부분에 가서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간단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서울시의 출연 종목인 대감놀이도 경사굿의 도회지형으로 여길 수가 있겠고, 황해도의 장군굿놀이도 경사굿의 한 지방형으로 볼 수가 있

을 것이다. 이들은 다 다년간 그 굿을 익히고 전승해오던 명무들이 출연했으나 대운동장 한 가운데에서의 연희이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서 성과는 좋지 못했다.

지노기굿도 경사굿만큼 명랑한 것은 못되나, 여기서는 특히 다리굿이 평안남도에서도 3회, 평안북도에서도 2회로 합계 5회를 거듭 출연해서 여기 민속의례 부문에서는 동일 종목의 최다 출연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다리굿은 평안남북도에 널리 전승되고 민중에게는 정감어린 사령의 천도의식이었다. 이런 사령 천도굿의 뒷부분에 사령을 저승으로 극락왕생하게 건네는 다리를 상징하는 무명 다리발은 중부 남부 제주도에까지도 널리 분포하고 전승된다.

이 다리굿에서 부모의 혼령이 무녀의 공수를 통해서 넋두리인 타이름으로 나타날 때 자녀들, 특히 시집간 딸들은 한없는 울음을 터뜨린다. 전라도의 씻김굿과 같이 다리굿은 사령과의 슬픈 이별의 굿이지만 거기에는 사람을 황홀경에 끌어넣는 예술성과 정신세계의 정화작용이 있다. 그러한 마음속 깊은 밀착이 이 다리굿을 다섯번이나 출연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넓은 운동장에서, 꾸며진 다리굿이 그러한 실감과 효과는 거둘 수가 없어서 성적은 대부분 좋을 수가 없었다. 고려장 하직 굿놀이도 사별을 전제로 한 무속의례라는 점에서는 다리굿과 성격은 유사하게 하고있다. 그러나 더욱 고증이 미흡해서 좋게 평가되지 못하였다.

3. 맺는 말

민속의례는 58회의 확인되는 한도 내에서는, 불교의식이 4회 있었고, 농악형 동제가 6종목 7회 출연되었고 그밖에 대부분은 전부 무속의례였다. 여기서 맺는 말 삼아서 몇가지 언급해두기로 한다.

①개인 기예능면

굿의 주무의 기예능들은 대체로 매우 뛰어난다. 73년도에 서울 대감놀이의 이지산씨 경우에는 심사위원진에서 무당이 민속예술인으로서 프로인가 아마츄어인가로 논의가 벌어졌다. 프로라면 민속예술의 개인상은 줄 수가 없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논의 결과로는 무당은 국악의 전업인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종교의 사제자(司祭者)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 후로는 별 논의 없이 전례에 의해서 김금화씨, 김석출씨, 장보배씨등 그 후에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명무들이 개인상들을 받게 되었다. 김석출씨는 75년도의 동래 지신밟기 팀의 호적수로 출연했는데 운동장에서의 호적소리가 하도 뛰어나서 개인상 감으로 이름을 알아보니 김석출씨였다. 그것이 호적이고, 하도 잘 불러서 그랬지 춤이나 노래면 대운동장에서는 잘 드러나기 어렵다. 개인적인 세기를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대운동장보다는 더 가깝게 실내체육관 정도에서 경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②민속극 부문과 민속의례 부문의 문제

위에서도 언급됐으나 민속극 부문에는 근래 6년간 탈춤이 다 지정되고 나서 출연 종목이 단절되고 있다. 그래도 계속 민속극 부문 설정을 지속한다면 굿놀이의 연극적인 부분만의 출연등을 비롯해서 연극적 요소가 많은 종목들을 민속극으로 소속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만일 그것이 실제로는 까다롭고 어렵다며는 민속극 부분은 폐지하고 민속놀이를 순수한 민속놀이 부문과 민속의례의 두 부문으로 재구분해서 5개 부문을 두는 문제도 고려할 만하다. 그 까닭은 전기한대로 민속극 출연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고 민속무용 부문은 수상현황 일람표에서 확인되는 한도 내에서는 12종목의 24회 뿐인데 반해서 민속놀이는 173회나 됐고, 그 중에서 민속의례만도 58회나 됐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도 민속의례는 민속무용보다 더 새로운 종목의 발굴 개발의 출연 가능성도 더 많기 때문이다.

③앞으로의 대회 진행 방향

예컨대 줄다리기 같은 2~300여명의 대형화한 민속놀이나 5~60명의 대형화한 농악 부문들은 대운동장에서의 공연이 보다 나을지 모른다. 민요 부문은 근래 많아진 100여명의 대형 상여소리나 강강술래 같은 것들도 대운동장이 나을지 모르나 기타 대부분 20명 내외인 민요도 실내체육관 정도가 더 적절하다.

우리 농촌의 마을 단위 규모의 것들이다. 그것은 사실 실내체육관 정도의 규모가 적격인 것들이다.

그것이 대운동장에서 경연을 벌여왔기 때문에 마을 단위 규모의 오붓한 민속예술들이 지나치게 대형화하며 한편으로는 그 본모습에서 일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형화 하고도 효과를 못올려서 늘 운동장 스탠드가 텅텅비는 모습들을 보여왔다. 한편 민속무용이나 민속극, 민속의례, 반수 이상의 원래 소형인 민요들은 대운동장에서는 효과가 안오른다. 그것은 실내체육관 정도가 관중의 반향, 효과도 좋으려니와 그 민속예술들의 세기를 잘 볼 수 있고, 감상이 되고, 흥이 더 잘 동반될 수가 있다.

필자는 공회당이나 극장같이 생긴 일본 청년회관 건물의 무대 위에서 일본청년단이 주관하는 일본의 전국 민속예능경연대회를 3일간 꼬박히 지켜본 일이 있었다. 그것은 실내체육관보다는 훨씬 보기가 불편한 무대 위였지만 줄다리기나, 각종 행렬들, 대형 민속예술들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 상금이 걸린 경연이 아니었고 다만 각현, 시마다 자기 고장의 전통예술을 연습해서 뽐내보고 스스로 즐김으로써 끝내는 전국대회였다.

우리의 경우 아직도 상금이 걸리는 경연은 지속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장소는 공회당 무대보다는 나은 실내체육관으로 옮겨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그것이 마을 단위의 모든 민속예술들의 규모에 알맞는 것이고, 그래야 춤 사위나, 놀이 동작, 노래 가락이나 가사 내용들의 흥과 멋이 잘 전달되고 공감되며, 민속예술의 세기들을 제대로 감상도 평가도 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평가와 분석

민속놀이의 변천

신찬균
(문화재위원 · 국민일보논설위원)

1. 민속놀이의 인적 구성의 변화

초기의 전국민속경연대회는 오늘날과 같은 큰 규모의 행사가 아니었다. 그 출연종목은 탈춤, 농악, 강강수월래 정도였으며, 그 출연인원도 많지 않아 덕수궁 뜰에서 조촐하게 치뤄져 왔었다. 이 대회가 대규모 행사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이 대회의 무대가 덕수궁에서 남산 야외 음악당으로 옮겨지고, '안동 차전놀이'와 같은 넓은 무대에 걸맞는 종목들이 출연하게 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출연인원이 많은 데다 박진감이 넘치는 차전놀이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민속놀이 뿐만 아니라, 민속예술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크게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제8회 때부터는 그 이전까지 서울에서만 개최되어 오던 이 대회를 지방도시로 순회하여 개최케 함으로써 이 대회의 열띤 흥취를 전국으로 파급시켜 나갔다.

'안동 차전놀이'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제9회 대회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본 궤도에 올려놓는 계기를 마련한 대회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런가하면, 이 대회는 민속놀이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변화의 기점이 되었던 대회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인적 구성에 있어서의 변화는 크게 민속놀이 주연 계층에 있어서 변화와 민속놀이의 규모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르킨다.

전국민속경연대회의 초기에는 인간문화재라고 할 만한 민속예술의 기능보유자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발굴되기도 했을 만큼 민속예술을 이해하는 계층이 주로 출연하여 왔다. 그런데 제9회 대회에 이르러서는 젊은 학생층들이 참여가 크게 늘어나 전체 출연자의 80%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출연인원이 많은 민속놀이에서 심하였는데, '안동 차전놀이'의 경우, 안동고교생 3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젊은 학생들의 참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세대교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강습을 받은 젊은 학생들이 우리의 고유한 민속을 얼마나 잘 소화해 낼 것이며, 또 이러한 학생들이 과연 우리 문화의 확실한 전승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대두시켰다.

이렇듯 민속놀이에서 젊은 학생층의 출연이 많아진 것은 당시 민속놀이가 대형화되고 매스게임화 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점차 민속놀이의 대형화와 매스게임화가 지양되면서, 제13회 대회를 즈음하여서부터는, 부분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하기도 하였으나, 민속놀이 전승자와 농부들의 출현이 눈에 띄게 늘어가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서는 현지주민들과 고로(古老)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 민속놀이의 원형이 더욱 충실히 재현될 수 있게 되었으며, 제30회 대회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젊은이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고로(古老)들의 참여가 늘어났다. 제30회 대회의 경우, 단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50세 이상의 출연자가 전체 출연종목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제33회 대회에서 또 다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년층 위주의 구성이 지양되고, 민속예술을 전수받은 청소년들의 참여가 늘어난 것인데,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우리의 민속놀이 전승에 희망을 안겨주는 바람직한 변화로 보인다. 남녀노소의 고른 참여 속에서 비로소 전통민속의 보존과 계승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동차전놀이'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게 되자, 민속놀이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또다른 변화가 생겨난다. 그것은 민속놀이가 출연인원수에서 크게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1970년 제11회 대회에 이르러서는 전북의 '남원 용마놀이'에 340명, 전남의 '보름줄다리기'에 300명, 충북의 '속리산탑돌이'에 200명, 경북의 '한장군놀이'에 200명이 출연하는 등 민속놀이의 대형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대형화 현상은 얼마간 계속되어 왔다.

민속놀이가 대형화 현상을 보이면서 제기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본래 민속놀이의 원형이 왜곡되어 간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민속놀이에 대한 확실한 고증을 거치지 않은 채, 그 출연 효과와 시위 효과만을 노려 부질없이 많은 수의 인원을 등장시킨 결과였다. 또한 부수적으로 민속놀이의 대형화 추세에 밀려 가면극과 같이 소수가 출연하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마련이었다. 이에 따라 민속학계에서는 가면극은 가면극에 맞는 소형무대에서, 민속놀이는 민속놀이에 맞는 대형 무대에서 발표케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민속놀이가 대형화되는 데 따른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제13회 대회를 즈음하여서부터는 '대량인원의 동원보다는 적은 수를 내세워 알차게 해 보자'는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차전놀이와 같이 수백명이 등장하던 대형 쇼적인 종목이 크게 줄어들고, 그 대신 30~40명이 즐길 수 있는 종목들이 늘어가면서 민속놀이의 대형화가 지양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예로 제13회 대회 때에는 충남의 횃불쌈놀이(300명), 경남의 타구놀이(140명)를 제외하면 대체로 30~40명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이 주류를 이루었고, 제14회 대회때에는 대체로 70명 이내의 인원이 공연을 벌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화 추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대형화의 문제는 80년대 중반까지 계속적으로 지적되곤 했다.

그런데 민속놀이의 대형화를 지양하려는 경향은 대회가 해를 거듭하면서 대회의 질적 수준도 그만큼 향상되어 간 데 따른 결과이기도 했다. 제17회 대회에서는 출연인원이 100명이 넘는 종목은 '익산금마

기세배'와 '해남강강수월래' 뿐이었으며, 오히려 적은 인원으로 원형을 재현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짜임새 있는 종목들이 많았다. 제19회 대회에서는 대형화와 전시효과를 추구했던 과거의 파행에서 벗어나, 출연팀들이 민속의 원형을 보존하는데 비교적 충실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제21회 대회에서는 '밀양백중놀이', '등바루놀이', '영변성황대제', '한양풍물놀이', '대동굿', '조심기놀이' 등 6개의 입상 종목 모두가 대형화를 지양하고 마을 단위의 소박한 놀이로 재현되어 그 전승의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후에도 해를 거듭하면서 민속놀이의 질적 수준이 더욱 제고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요컨대 민속놀이 전반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출연자들이 민속놀이의 원형을 충실히 재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감에 따라, 민속놀이의 대형화, 매스게임화 경향은 점차 지양되었던 것이다.

2. 민속놀이 내용 구성의 변화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공연된 민속놀이들은 크게 볼 때, 토속신앙이나 불교신앙과 관련되는 신앙성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성 놀이, 명절을 맞이해서 세시풍속의 하나로 놀이되는 명절놀이, 힘과 지혜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놀이, 그리고 기타 놀이로 분류될 수 있다.[1]

민속놀이의 내용은 그 다양한 소재의 모티브 만큼이나 다양하나, 대개는 고대사회에 있어 신을 섬기는 오신행사(娛神行事), 그리고 명절을 맞는 기쁨에서 놀이되어 왔던 오랜 관습에서 비롯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숫적으로 신앙성 놀이와 명절놀이가 전체 민속놀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출연한 민속놀이들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리굿', '동래 지신밟기', '입춘굿놀이', '대감놀이', '강릉 단오굿', '영등굿놀이', '속리산 탑돌이'등과 같이 제화초복(除禍招福)의 원시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한 신앙성 놀이와 '해남 강강술래', '횃불쌈놀이', '한장군놀이', '답교놀이', '거북놀이', '익산 금마 기세배', '놋다리밟기', '기와밟기', '등바루놀이'등과 같이 명절놀이를 비롯하여 '차전놀이', '고싸움놀이', '함열농기뺏기', '장흥 보름줄다리기', '의성 가마싸움' 등과 같은 경기놀이, 그리고 기타 '벽골제 쌍용놀이', '영동해랑제', '좌수영어방놀이', '시선뱃노래', '아미산 울어리', '베짜기놀이'등과 같이 전설을 놀이화하거나, 삶의 풍습 혹은 노동현장을 놀이화한 것들이 있었다.

대체로 이 시기에는 민속놀이의 원형에 가까운 신앙성 놀이, 명절놀이, 경기놀이가 그 대부분을 차지해 왔는데, 특히 이 시기에는 그 후의 시기와 비교해서 경기놀이가 크게 활성화되었던 시기로 특정지을 수 있다. 제9회 대회 때 '차전놀이'가 관중들의 큰 호흥 속에 대통령 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제10회 대회 때의 '고싸움 놀이', 제11회 대회때의 '장흥 보름 줄다리기', 제12회 대회 때의 '아산 줄다리기' 등 경기놀이들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휩쓸었는데, 이들 종목은 대개 출연인원이 많아 그 규모가 웅장한 데다 놀이 자체의 박진감과 흥미가 더하여 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운동장이라고 하는 무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큰 경기놀이들이 큰 호응을 받게 되면서 여타 종목들도 점차 그 규모가 대형화되는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민속놀이와 민요의 구분이 애매해지면서 민요적 성격이 강한 민속놀이가 등장하는가 하면, 전설을 놀이화하고 무대화한 작품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자의 대표적 경우로서 '좌수영 어방놀이'는 어민들의 부락 공동의 어로작업 때 부르는 민요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한 것으로서 민속놀이라기 보다는 민요에 가까웠으며, 어로작업의 노동과정을 놀이화한 작품이었다. 후자의 경우로서 '김제 벽골제 쌍용놀이'는 전북 김제군에 있는 사적 제111호 벽골제에 얽힌 전설이 민속놀이화 한 것이었으며, '영동해랑제'는 강릉 어촌의 해랑이라는 처녀에 얽힌 전설을 민속놀이화한 것이었다.

한편, 1970년대 말에는 노동현장에서 놀이의 소재를 발견하고 노동과정을 놀이화하는 노동놀이가 점차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제20회 대회(1979년)에 첫선을 보인 '아미산 울어리', '베짜기놀이'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아미산 울어리'는 마을 주민들이 겨울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협동작업을 한 다음 벌이는 길놀이와 마당놀이로 구성되어 있고, '베짜기놀이'는 목화에서 실을 뽑아 무명을 짜기까지의 과정을 놀이화한 것이다.

1980년대에는 신앙성 놀이와 명절놀이와 함께 노동과정을 놀이화하는 노동놀이가 그 비중을 더해가며, 민속놀이는 더욱 그 다양성을 더해 가게 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원형적 형태의 민속놀이들의 발굴이 대체로 마무리가 된 데 따른 것인데, 이것은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1970년대를 민속놀이의 발굴 단계라고 한다면, 1980년대는 민속놀이의 정착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등장한 노동놀이의 예로서 제22회 대회 때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현천 소동패놀이'는 모심기, 김매기 등 힘든 일에 마을 사람들이 두레를 짜서 협동하는 노동놀이였으며, 제23회 대회 때에 입상한 '저산팔읍 길쌈놀이'는 모시로 유명한 한산지방 아낙네들이 길쌈을 하며 소리를 부르고 노는 놀이였고, 제28회 대회 때에 '강진 베틀놀이'는 아낙네들이 길쌈하며 부르는 민요와 베짜는 모습을 놀이화 한 것이었다.

1980년대에도 민속놀이는 출연종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새로 발굴된 종목에 있어서도 그 수가 여타 종목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부문이기도 했다. 그만큼 민속놀이 부문이 크게 활성화되었는데, 그에 따라 출연 팀들이 종목선정 과정에서 인기가 있는 민속놀이에 편중하는 경향이 70년대에 이어 8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제27회 대회의 경우, '양진명소오룡굿', '범몰이', '영변성황대제' 등은 굿놀이라기 보다는 민속무용의 성격이 강했으며, 제30회 대회의 경우 민속놀이로 출연한 '명파 돌다리놓기'는 민요성이 강했는가 하면, '신창탈놀이'는 가면극으로 나오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민속놀이의 발굴이 대체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단순한 옛 풍속을 억지로 놀이화하는 경향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 결과 놀이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이 없는 민속놀이

를 연출하는 아이러니를 빚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최상수 님은 "이미 발굴이 대부분 끝나 정리 단계에 있는 것이 민속예술의 현실인데, 이러한 가운데 새 종목을 출품하려고 하다보니 민속놀이가 아닌 것을 억지로 꾸며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보았다. 그 예로서 전설을 소재로 하여 그 지방 민속관계자가 작품을 새로 만들어 나오는가 하면, 실제 민속의 내용과는 다른 왜곡된 형태의 민속예술 종목이 출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동아 85.9.28)

1990년대에 들어서의 민속놀이의 특징은 그 소재가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해졌다는 데 있다. 특히 죽음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관해서 임동권 교수는 "그동안 터부시해오던 상여소리 등 죽음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이번에(제31회 대회) 5개 팀이나 참가하여 죽음을 불길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한 과정으로 인식해 이승과 저승을 연계시키는 연희로 승화시킨 것은 큰 변화"라고 평했다.(서울 90.10.26) 죽음의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서 제31회 출연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김포 상두꾼소리', '인간칠십 고려장 하직굿놀이', '평안도 다리굿', 제33회 대회에 출연한 '부여 용정리 호상놀이', '임실 삼계고전 상여소리' 등이 그 예이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도 제32회 대회에 출연한 '인천 소금밭일 놀이'와 같이 노동현장을 놀이화 하는 노동놀이가 계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경향은 지금까지의 참가작들이 소재를 화려한 것에서만 구해오던 것과는 달리 소재 발굴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종목분류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제31회 대회에 민속놀이로 출연한 작품 가운데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민요성이 강했으며, '재가승염불삼매놀이'도 민속놀이라기 보다는 민속무용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입상 경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경연에만 치우친 운영방식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90년대에 들어서는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구체성과 다양성을 띠는 일반적 경향과 함께 민속놀이와 민요 부문에서 점차 예술성을 확보해 가는 경향 또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33회 대회의 출품작들은 전통 민속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단계를 지나 예술적 성취도를 지향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최종민 교수는 "과거에는 지역의 고유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중시했으나 이제는 예술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중시했으나 이제는 예술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조선 92.9.26)

3. 민속놀이의 발굴과 보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민속극, 농악, 민속놀이, 민요, 민속무용 등 5개 부문에 걸쳐서 각 지방의 전래 향토 민속을 축제와 경연형식을 병행하여 재현해 왔다. 이 5개 종목 가운데 출연종목 수, 새로 발굴된 종목 수, 그리고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작품수 등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민속놀이 부문이었다.

제33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작품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부문별 수상작품수

부 문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민속극	5종목	5종목
농 악	6종목	5종목
민속놀이	13종목	15종목
민 요	8종목	8종목
민속무용	1종목	
합 계	33종목	33종목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종목 가운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입상작품을 가장 많이 배출한 부문은 민속놀이 부문이었으며, 그밖에 출연종목 수나 새로 발굴된 종목 수에 있어서도 민속놀이 부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해 왔다. 이렇듯 민속놀이 부문이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은 우리 전통사회에서 민속놀이 자원이 그만큼 풍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민속놀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였으며 민속놀이 발굴을 위한 활동이 그만큼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속놀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종목은 제9회대회 때 대통령상을 수상한 '안동 차전놀이'이다. '안동 차전놀이'의 전파성은 실로 대단하여, 각 중고등학교의 운동회나 축제에서 학생들의 단결과 화합을 과시한 놀이로서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안동 차전놀이'가 큰 호응을 받은 후, 민속놀이는 가장 인기있는 부문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민속놀이의 발굴이 대체로 마무리되었다는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민요나 민속극적 성격이 강한 것들까지 놀이화하여 민속놀이로 출연함으로써 종목분류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민속놀이 가운데 일부는 국가 및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왔다. 〈표 2〉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민속놀이 가운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들을 보인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11개 종목으로서 전체의 34개 종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수의 종목들이 새로 발굴되고,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민속놀이를 비롯하여 민속문화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민속문화를 발굴하고 전승해 나가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렇듯 어렵게 발굴해 낸 민속놀이들이 현지에서 계승되지 못하고 사장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로 발굴된 민속놀이가 현지에서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는 산업화 과정 속에서 농촌사회의 사회적 기반이 와해되어 민속놀이의 장(場)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민속문화 보존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과,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민속문화 보존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통하여 발굴해 낸 민속놀이들이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놀이로서 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속놀이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놀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표 2〉 민속놀이 부문 무형문화재 지정 목록( )안은 지정번호

	국가 지정 종목	지방 지정 종목
부 산	좌수영어방놀이(62)	동래지신밟기(40)
광 주	고싸움놀이(33 : 광산)	
경 기	양주소놀이굿(70)	
강 원	강릉단오제(13)	
충 남	은산별신제(9)	봉기풍어놀이(12)
		저산팔읍길쌈놀이(13)
		연산백중놀이(14)
전 북	위도띄뱃놀이(82-3)	
전 남	강강술래(8 : 해남)	현천소동패놀이(7)
경 북	안동차전놀이(24)	안동놋다리밟기(7)
	한장군놀이(44)	
	하회별신굿놀이(69)	
경 남	밀양백중놀이(68)	마산농청놀이(6)
		감내게줄다리기(7)
합 계	11종목	8 종목

4. 맺음말

1958년 처음 개최된 이래 59, 60년을 제외하고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어 온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민속예술 복원의 역사였다. 이 대회는 시작 당시에는 건국 10주년을 경축하기 위한 일회성 행사로 개최되었으나, 60년대 이후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매년 개최되어 왔다. 67년부터는 이전까지 서울에서만 열리던 이 대회를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방침에 따라 지방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되었으며, 1983년부터는 지방 중소도시에까지 개최 범위가 확대되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지금까지 제33회를 맞는 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대회가 경연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경연방식을 취함에 따라 지나친 경쟁의식을 유발하면서, 출연종목들이 지나치게 무대화되고 작위적으로 꾸며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민속예술의 원형을 왜곡시켜 무분별하게 그 규모를 대형화시키거나, 학생들이나 전문인들을 출연시키는 등 무리를 빚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많은 긍정적 역할을

인정받아 왔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 대회가 민속문화 발굴의 산실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민속놀이의 발굴이 그 한계에 이르렀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매회 10여개씩의 새로운 종목이 끊임없이 발굴되어 선보였다. 그 결과 92년 현재 이 대회를 거쳐 295개 종목이 발굴되었으며, 그 가운데 '광산 고싸움놀이', '안동 차전놀이'를 비롯한 34종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동래학춤', '정선아리랑'을 비롯한 20종이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일제의 치하에서 대부분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전통민속놀이들이 이 대회를 통하여 다시 복원되어 온 것이다.

또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우리의 민속예술에 대한 국민적 긍지를 높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일제 식민지시기의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과 해방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근대화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우리의 민속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서울 올림픽 개·폐회식 행사에서 세계인을 감동시킨 '고싸움놀이', '강강술래', '농악', '바라춤'등은 모두 이 대회를 통해서 발굴된 작품이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많은 우리의 고유 민속문화 자산들을 발굴 복원해 내고 있다. 이제 이 시대의 과제는 그러한 민속문화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1)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의 민속놀이를 신앙성놀이, 명절놀이, 경기놀이, 기타 놀이로 구분한 것은, 임동권 교수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임동권, 『한국민속문화론』(집문당, 1983), pp. 382－384 참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평가와 분석

민속무용

정병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문화재위원)

머릿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민요, 농악, 민속놀이, 연극, 춤 등 5개종목에 걸쳐서 전국 각 시도에서 참가하게 된다.

이들 종목 중에서 민요, 농악, 민속놀이는 매년 참가 팀이 많았으나 춤과 민속극분야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춤인 경우 무용 종목은 적지마는 실제로 춤이 발견되고 재현된 것은 많다. 그것은 민요, 농악, 민속놀이, 민속극 등 모든 종목에서 상당한 부분을 춤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수록한 민속춤등은 이러한 경연종목에서 몇가지의 춤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른 종목에서 나타난 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대회를 통해 발표된 종목 중에서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 또는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한 종목 가운데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수상종목과 춤

〈1958년 제 1회대회〉

○하회가면극(1958년 제 1회 대통령상)

주지, 초랭이, 백정, 할미, 부네, 중, 양반, 선비와 같은 배역들의 춤이 있다.

○봉산탈춤(1958년 제 1회 국무총리상)

상좌, 먹중, 사당, 노장, 소무, 신장수, 원숭이, 취발이, 마부, 사자, 양반, 말뚝이, 미얄할미, 영감, 돌머리집, 남강노인 무당과 같은 배역 등의 춤이 있다.

○양주산대놀이(1958년 제 1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옴중, 상좌, 먹중, 연잎, 눈끔쩍이, 팔먹중, 노장 샌님 신할아비, 미얄할미와 같은 배역들이 춤이 있다.

〈1961년 제 2회 대회〉

○군산농악(1961년 제 2회 국무총리상)

호남우도농악에서 나온 쇠꾼의 부포놀이, 장고춤 북춤 소고춤 12발상모와 같은 춤이 있다.

○고성오광대(1961년 제 2회 문화공보부장관상)

문둥광대, 양반, 젓광대, 말뚝이, 중, 각시, 비비양반, 저밀주 영

감, 작은어미, 큰 어미와 같은 배역등이 추는 춤이 있다.

○해남 강강술래(1961년 제2회 문화부장관상)

강강술래를 비롯하여 여흥춤으로 청어엮자 남생아 놀아라, 기와밟기 등의 소리춤이 있다.

〈1962년 제3회 대회〉

○경기농악(1962년 제3회 국무총리상)

8법고춤, 쇠꾼의 부포놀이, 무동들의 깨끼춤과 나비춤이 있다.

〈1963년 제4회 대회〉

○함안농악(1963년 제4회 대통령상)

함안농악은 영남농악 계열의 쇠꾼의 부포놀이, 북춤, 소고의 채상모, 12발상모 등의 춤이 있다.

○정읍농악(1963년 제4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쇠꾼의 부포놀이와 발림, 설장고춤, 법고놀이춤이 있다.

〈1965년 제6회 대회〉

○동래야유(1965년 제6회 대통령상)

문둥이, 양반, 말뚝이, 영노, 할미 영감 등의 배역이 추는 춤이 있다.

○삼천포농악(1965년 제6회 국무총리상)

영남농악인 삼천포농악은 쇠꾼의 부포놀이, 장고춤 소고잽이들의 채상모놀이가 있다.

〈1967년 제 8회대회〉

○전주농악(1967년 제8회 문화공보부장관상)

호남 우도농악의 전주농악은 쇠꾼의 부포놀이, 설장고춤, 법고춤, 소고잽이의 채상모 춤이 있다.

○충무오광대(1967년 제8회 문화부장관상)

문둥이 양반 말뚝이 영노, 비비양반, 노창탈, 할미양반, 할미, 포수, 담보 사자등의 배역이 추는 춤이 있다.

〈1968년 제9회 대회〉

○영등굿놀이(1968년 제9회 국무총리상)

신칼춤, 감상기춤, 시왕맹감영기춤, 술잔들고 추는 춤, 할마니 다리들고 추는 춤, 가지갱이와 철죽대들고 추는 춤, 도끼들고 추는 춤, 산판들고 추는 춤 작대기 들고 추는 춤이 있다.

○강릉성황제 가면극(1968년 제9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지금의 강릉관노 가면회처럼 장자마리, 양반광대, 소매각시, 시시딱딱이 등과 같은 배역의 춤이 있다.

〈1969년 제10회 대회〉

○한장군놀이(1969년 제10회 국무총리상)

여성들의 원무와 꽃춤이 있다.

〈1970년 제11회대회〉

○강령탈춤(1970년 제11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사자, 원숭이, 마부, 말뚝이, 팔먹중, 상좌, 노승, 취발이 소무, 영감, 할미, 용산삼개집, 무당, 남강노인 등과 같은 배역의 춤이 있다.

〈1971년 제12회 대회〉

○북청사자놀음(1971년 제12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사자춤, 배역 전원의 장기 춤이 있다.

○충무승전무(1971년 제12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충무에서 전승되고 있는 북춤 (승전무)이 선 보인다.
〈1972년 제13회대회〉
○김천농악(1972년 제13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영남농악인 김천농악은 상쇠의 부포놀이, 소고의 채상모놀이, 등의 춤이 있다.
○송파산대놀이(1972년 제13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상좌, 옴중, 먹중, 연잎, 눈꿈쩍이 애사당, 팔먹중, 신주부 노장 신장수, 취발이, 샌님, 말뚝이, 쇠뚝이와 같은 배역의 춤이 있다.
○익산목발노래(1972년 제13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지게목발을 양손에 쥐면서 노래에 맞추어 추는 소리춤이 있다.
〈1973년 제14회 대회〉
○고성오광대(1973년 제14회 국무총리상)
문둥광대, 양반, 젓광대, 말뚝이, 중각시, 비비양반, 저밀주영감, 작은어미, 큰어미와 같은 배역들의 춤이 있다.
○대감놀이(1973년 제14회 문화공보부장관상)
방홍와 부채들고 추는 춤, 바라춤, 오방산장기춤, 소지들고 추는 춤, 버냥지들고 추는 춤, 한심춤 대신칼춤 등이 있다.
〈1974년 제15회 대회〉
〈1975년 제16회 대회〉
○광주농악(1975년 제16회 문화공보부장관상)
호남우도 농악계열의 광주농악은 주로 설장고춤 북춤, 법고춤과 쇠꾼의 부포놀이춤이 있다.
〈1976년 제17회 대회〉
○진주검무(1976년 제17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손춤과 칼춤 연풍대 등이 있다.
〈1977년 제18회 대회〉
○평창백옥포농악(1977년 제18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영동농악계의 평창농악은 팔법고춤, 무동춤, 쇠꾼의 부포놀이와 농악대 전원의 채상모춤이 있다.
〈1978년 제19회 대회〉
○은률탈춤(1978년 제19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사자, 헛먹중, 팔먹중, 양반, 말뚝이, 새색시, 원숭이, 노승, 휘발이, 말뚝이 영감, 할미광대 뚱딴지집, 무당과 같은 배역의 춤이 있다.
〈1979년 제20회 대회〉
○청도차산농악(1979년 제20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영남농악계의 청도차산농악은 쇠꾼의 부포놀이, 장고춤 북춤 법고춤 (채상모) 농사풀이춤 등이 있다.
○수영야유(1979년 제20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양반, 말뚝이, 영노, 할미, 영감 사자와 같은 배역의 춤이 있다.
〈1980년 제21회 대회〉
○밀양백중놀이(1980년 제21회 국무총리상)
오북춤, 범부춤, 병신춤, 양반춤 등이 추어졌다.
○필봉농악(1980년 제21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쇠꾼의 부포놀이, 장고춤, 법고춤, 수박치기 등의 춤이 있다.

〈1981년 제22회 대회〉

○현천소동패놀이(1981년 제22회 대통령상)

소고춤과 논매기 때의 소리춤이 나온다.

○제천두학농악(1981년 제22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쇠꾼의 부포놀이 소고잽이의 채상모 춤이 있다.

○예천청단놀이(1981년 제22회 문화공보부장관상)

광대, 양반 사대부 쪽박광대 주지, 지연광대 초랭이 탁발승 무동과 같은 배역의 춤이 있다.

〈1982년 제23회 대회〉

○남원삼동굿놀이(1982년 제23회 대통령상)

농악에서의 장고춤, 소고춤, 그리고 무동들이 있다.

○대구고산농악(1982년 제23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쇠꾼의 부포놀이, 북춤 소고잽이의 채상모춤이 있다.

〈1983년 제24회 대회〉

○금산농악(1983년 제24회 국무총리상)

금산은 충남지방이나 농악은 호남좌도 농악을 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곳의 농악은 쇠꾼의 부포놀이 설장고춤, 법고춤, 북춤등이 있다.

○완주부동농악(1983년 제24회 문화공보부장관상)

호남우도농악인 쇠꾼의 부포놀이 설장고 춤, 소고춤 무동춤이 있다.

○날뫼북춤(1983년 제24회 문화공보부장관상)

북춤, 장고춤 등이 있다.

〈1984년 제25회 대회〉

○금릉빗내농악(1984년 제25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수박치기, 기러기 춤 북춤등이 주종을 이룬다.

〈1985년 제26회 대회〉

○이리농악(1985년 제26회 대통령상)

상쇠의 부포놀이, 설장고춤, 법고춤, 소고잽이의 채상모, 등의 춤이 있다.

○명주하평농악(1985년 제26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영농농악계의 명주농악은 소고잽이의 채상모 쇠꾼의 부포놀이, 무동춤이 있다.

○진주포구락(1985년 제26회 문화공보부장관상)

궁중정재의 포구락을 민속화한 춤이다.

〈1986년 제27회 대회〉

○다천사작법(1986년 제27회 문화공보부장관상)

불교무용인 바라춤, 법고춤, 나비춤, 타조춤이 있다.

○화천농악(1986년 제27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영남농악계열의 춤으로 쇠꾼 부포놀이와 장고춤, 북춤 등이 있다.

〈1987년 제28회 대회〉

○욱수농악(1987년 제28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영남농악의 계열로써 북춤, 쇠꾼의 부포놀이, 소고잽이의 채상모가 있다.

〈1988년 제29회 대회〉

○안성남사당풍물놀이(1988년 제29회 대통령상)

쇠꾼의 부포놀이, 8법고춤, 북춤, 무동춤, 무동들의 깨끼춤 등이 있다.

○청주웃다리농악(1988년 제29회 문화공보부장관상)

경기 충청 농악 계열의 춤으로 쇠꾼의 부포놀이 소고잽이의 채상모, 무동춤들이 있다.

〈1990년 제31회 대회〉

○광산농악(1990년 제31회 문화공보부장관상)

호남 우도 농악 계열로 상쇠의 부포놀이와 발림춤, 설장고춤 법고춤 등이 있다.

〈1992년 제33회 대회〉

○날뫼북춤((1992년 제33회 문화부장관상)

북춤, 상쇠의 부포놀이 장고춤 등이다.

○고흥농악(1992년 제33회 문화부장관상)

호남좌도농악 계열로서 상쇠의 부포놀이 법고춤 장고춤 부춤 등이 있다.

나. 전승현황

문화부에서 개최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로 인하여 각시도에서는 민속예술인 민요, 농악, 놀이, 춤, 연극등을 발굴하여 참가함으로 이러한 예능속에 담겨있는 춤들이 복원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회에서 입상한 종목의 춤들은 지역의 행사나 문화재가 있을 때는 출연하게 됨으로 그 춤이 소멸되지는 않고 이어지는 수가 많다. 특히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 문화부장관상을 받은 종목의 춤들은 국가 지정이나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존하는 경우도 있다. 예로써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한 종목을 보면 농악에 전북 임실군 필봉마을의 '필봉농악' '이리농악' 강원도 '강릉농악' 등이 있고 탈춤 종목으로는 '봉산탈춤', '양주산대놀이', '동래야유', '수영야유' '고성오광대' '통영오광대' '강릉관노놀이' '북청사자춤' '하회별신굿' 탈놀이가 있다.

또한 소리춤인 경우 해남 '강강술래'가 있고 민속놀이 분야에서는 '밀양백중놀이'가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오북춤'을 비롯해서 병신춤, 범부춤과 같은 춤이 전승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회 입상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명절놀이라든가 시군면의 행사가 있을 때는 재현되는 등 상당수의 춤들이 복원되기도 하고 전승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로 인하여 춤이 발굴되거나 복원된 춤등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1. 농악춤

〈호남우도농악〉

①쇠꾼이 추는 뱃 상모의 부놀이와 발림춤.

②장고잽이가 추는 설장고춤

③소고잽이가 추는 법고춤과 채상모 춤

④소고잽이가 추는 12발상모놀이

⑤북잽이가 추는 북춤 (진도지방의 쌍북채로 추는 북놀이춤 포함)

⑥잡색들이 추는 장기춤(가면춤 포함)

⑦행진춤으로서의 진풀이 춤
⑧무동들의 춤
〈호남좌도 농악〉
①쇠꾼들이 추는 부들상모의 부포놀이와 발림춤
②장고잽이의 설장고춤
③북잽이의 북춤
④소고잽이의 법고춤과 채상모춤
⑤무동들의 춤
⑥잡색들이 추는 동물 가장춤, 일인이기춤 대포수 중 강시의 춤
⑦행진춤으로서의 진풀이
〈영남농악〉
①쇠꾼들이 추는 부들상모의 부포놀이와 발림춤
②북잽이가 추는 북춤
③장고잽이가 추는 장고춤
④소고잽이가 추는 법고춤과 채상모춤.
⑤소고잽이가 추는 12발 상모놀이
⑥소고잽이가 추는 농사풀이
⑦소고잽이가 추는 기러기춤과 수박치기
⑧행진무용인 진풀이
⑨잡색들이 추는 춤
〈영동농악〉
①쇠꾼들이 추는 부들상모의 부포놀이와 발림춤
②소고잽이가 추는 8법고춤
③소고잽이가 추는 농사풀이
④소고잽이가 추는 채상모춤
⑤무동이 추는 춤
⑥행진무용인 진풀이
〈경기및 충청도 농악〉
①쇠꾼들이 추는 부들상모의 부포놀이와 발림춤
②장고잽이가 추는 장고춤
③소고잽이가 추는 8법고춤
④소고잽이가 추는 채상모춤
⑤무동들이 추는 깨끼춤과 나비춤
⑥잽이가 추는 12발 상모놀이
⑦행진무용으로서의 진풀이
2. 탈춤
〈마을탈춤〉
①북청사자놀의 사자춤과 배역 전원의 장기춤
②예천청단놀음의 광대춤, 주지춤, 무동춤, 양반춤, 사대부춤, 초랭이춤, 탁발승춤, 지영광대춤, 쪽박광대 춤
③강릉관노가면희의 양반춤, 소매각시춤, 장자마리춤, 시시딱딱이춤
④화회별신굿놀이의 주지춤, 초랭이춤, 백정춤, 할미춤, 중춤, 부네춤, 양반춤, 선비춤
〈산대계 탈춤〉

①봉산탈춤의 사상좌춤, 먹중춤, 사당춤, 노장춤, 양반춤, 미얄할미춤, 원숭이춤, 취발이춤, 마부춤, 사당춤, 거사춤, 소무춤, 신장수춤, 말뚝이춤, 용산삼개털머리춤, 남강노인춤 무당춤.

②강령탈춤의 사자춤, 먹중춤, 양반춤, 노승춤, 영감춤, 미얄할미춤, 상좌춤, 마부춤, 말뚝이춤, 새악시춤 원숭이춤, 뚱딴지집춤, 취발이 춤

③은율탈춤의 사자춤, 먹중춤, 양반춤 노장춤, 영감춤, 할미광대춤, 상좌춤, 마부 춤, 말뚝이춤, 새색시춤, 원숭이춤, 뚱딴지집춤, 취발이춤

④양주산대놀이의 상좌춤, 옴중춤, 먹중춤, 연잎춤, 눈끔쩍이 춤, 팔먹중춤, 노장춤, 취발이춤, 신할아비춤, 미얄할미춤, 팔먹중춤, 샌님춤

⑤송파산대놀이의 상좌춤, 옴중춤, 연잎춤, 눈끔쩍이 춤, 팔먹중춤, 노장춤, 취발이 춤, 샌님춤, 말뚝이 춤, 미얄할미춤, 포도부장춤, 신할아비춤, 애사당춤, 쇠뚝이춤

⑥고성오광대의 문둥북춤, 말뚝이춤, 양반춤, 승무춤, 작은어미춤, 큰어미춤, 시골영감춤, 작은 각시춤, 비비춤, 젓광대춤, 각시춤

⑦통영오광대의 문둥이 춤, 말뚝이춤, 양반춤, 비비양반춤, 포수담보 사자춤

⑧가산 오광대의 오방신장춤, 문둥이춤, 양반춤, 중춤, 할미춤, 영감춤, 영노춤.

⑨동래야유의 문둥이 춤, 말뚝이 춤, 양반 춤, 영감춤, 할미춤, 영노춤

⑩수영야유의 말뚝이춤, 양반춤, 할미춤, 영감춤, 사자춤, 영노춤

〈사당패탈춤〉

①남사당 덧매기의 샌님춤 노친네들 취발이 춤, 말뚝이 춤 먹중춤 옴중춤, 피조리춤, 장쇠 먹쇠춤

3. 소리춤

〈남성소리 춤〉

①경기도의 김매기춤

②강원도의 고사라 꺾기

③전국 각지의 지게목발춤

〈여성소리춤〉

①진도 해남의 강강술래 청어엮자, 남생아 놀아라, 남원신선 도재기야, 덕석몰이, 담넘기, 바늘귀끼기.

②인천지역의 니나니타령, 배치기.

③신안군 흑산도의 두당기타령.

④경북 안동의 놋다리밟기, 둥둥데미, 실감기.

⑤경북 영덕의 월월이청청, 달람세, 재바재바 절구세.

⑥함경도 북청의 돈돌날이 춤

다. 모방춤

〈사람 흉내춤〉

①뻐다구춤, 난쟁이춤, 중풍쟁이춤, 배불뚝이춤,

②꼬부랑 할미춤, 떨떨이춤, 문둥이춤, 꼽사춤, 히줄대기춤, 봉사

춤, 절름발이춤, 해골병신춤.

③얼굴병신춤, 곰배팔이곱사춤, 오리발곱사춤, 뻗리춤, 안짱다리춤.

〈동물 흉내춤〉

①개구리춤 또는 두꺼비 춤

②학춤

③오리춤

다. 보존과 생활화

일제치하에서는 민속춤 절반이 허탈과 실의에서 자위적인 유락(遊樂)의 대상으로 명맥을 이어왔고 해방후에도 여전히 전통의식의 퇴조로 모든 문화예술이 몰전통(沒傳統)의 사관에 사로잡혀 온 것이다. 그러나 58년부터 문화부에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열면서 부터는 국민들이 우리의 민속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들을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게 됨으로 많은 민속예술들이 보존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보존적인 면에서는 성공하였지만 민속으로 계승시킨다는 면에서 평가했을 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데 민속춤의 춤판이라 할 수 있는 농경현장의 춤과 향토축제는 없어지고 민속춤의 주기능인 공동체적 정신도 없어져 버렸으며, 단순한 문화재로 지정된 보존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나 동원된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하여 추는 춤으로 변절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속춤을 일반국민들의 춤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정책등에 의한 강제보존의 차원뿐만 아니라 춤을 보존 계승할 수 있는 이른바 마을춤 진흥회와 같은 문화단체가 있어서 이들에 의해 자연보존의 방법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마을춤 진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민속춤을 마을문화로 정착시켜 생활화 시켜보자는데 있으며 마을춤의 성격은 마을사람들의 단합과 정서생활을 도모하는 춤이다.

민속춤을 문화재로 원형을 지키는 보존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현황과 관련을 맺으면서 재창조되는 가운데 문화적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변화 발전 하도록 자연적 보존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민속춤의 계승방법의 기본은 마을사람 스스로가 참여하여 추는 춤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농경생활과 결부된 춤이 사라진지 오래이므로 농경문화적 기능으로서의 보존과 생활화는 어려워 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민속춤을 오늘의 춤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축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도 농촌과 도시는 생활환경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농촌에 있어서는 지역 나름대로의 전통적 향토축제(동제나 세시풍속 등)를 통해서 가능하며 원형 그대로의 민속놀이 마을춤으로 계승 되었으면 하고 도시인 경우 향토적 축제가 없으므로 현대성을 띤 축제의 마을춤이 복원 창조되었으면 한다. 또한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그 축제나 축제의 방법도 현대성을 고려해야 하고 춤 또한 원형성을 기본으로 하여 현대인에 맞게 형식을 재창조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본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평가와 분석

농악

이 보 형
(문화재전문위원)

1. 농악의 개념

무릇 농악의 개념은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로 다르게 지어질 수 있다. 농악이라 하면 흔히 다음 네가지로 다르게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첫째는 순수음악의 입장에서는 꽹과리, 징, 장고, 북과 같은 타악기를 치는 음악을 가리키는데 이런 음악을 옛날에는 풍장이라 일렀고 풍장에 쓰이는 악기를 가리켜 풍물이라 일렀다.

둘째는 글자 그대로 농민들이 두레를 조직해 농사를 지으면서 치는 풍장 즉 두레풍장을 가리킨다.

셋째는 흔히 농악경연대회에 출연하는 농악은 판굿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판굿은 구경꾼을 위해서 순수 연희로 치는 일테면 놀이농악을 가리킨다.

넷째는 두레풍장이나 판굿은 물론이고 당산굿, 마당밟기, 걸립굿 등 의식농악 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농악을 총칭하는 경우이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민속놀이, 민요, 농악, 민속극, 민속무용 이렇게 5개 분야에서 경연을 부치는데 여기에서 농악분야는 세번째 개념인 팟굿을 가리킨다. 당산굿, 마당밟기, 걸림굿과 같은 의식농악분야나 또 두레풍장 및 호미걸이와 같이 농업농악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민속놀이 분야로 꼽으며 농악분야로 꼽지 않는다. 민속놀이, 민속극, 민요, 민속무용등 여러분야의 반주로 풍장이 쓰이지만 이런 경우도 농악분야로 꼽지 않음은 물론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이른바 농악분야로 출연한 판굿농악의 경연 내력을 살피고 아울러 민속놀이 분야로 출연한 의식농악 및 두레농악의 출연 상황을 살피고 나서 주요 상을 수상한 농악들의 특성과 전승현황을 살피고자 한다.

2.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농악의 수상현황

1958년에 개최된 제1회 전국민속경연대회부터 1992년에 개최된 제33회 대회에 까지 주요상에 입상했던 농악분야 즉 판굿농악의 출연팀을 1992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팜프렛에 실린 연도별 수상현황표에서 추려보면 제1회에서 제14회 까지는 전승지를 자세

히 밝히지 않고 종목명칭을 그저 농악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출연 시도만 알 수 있을 뿐 그 전승지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제15회 이후에는 종목명칭에 전승지가 밝혀져 있다.

제 1 회 : 전북팀과 전남팀에서 각각 장려상을 받은 것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농악팀이 출연한 것은 분명치 않다. 전북농악은 전승지를 알 수 없으며 김오채가 장고춤으로 개인상을 탄 것으로 봐서 전남팀은 호남우도 농악을 들고 나온 것 같다. 충북팀의 상쇠가 개인상을 받은 것으로 봐서 충북팀도 농악을 들고 나온 것 같으나 역시 전승지를 알 수 없다. 이들 팀이 모두 농악을 들고 나왔다면 3종의 농악이 출연한 것 같으나 상다운 상을 받지 못하였다.

제 2 회 : 전북팀이 농악을 들고 나와 농악으로는 최초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그런데 종목명칭이 그저 농악이라고만 되어 있어 그 전승지역을 알 수 없다. 김덕수가 충남팀으로 출연하여 설장고로 개인상을 받은 것으로 봐서 충남팀이 웃다리농악(京畿忠淸農樂)을 들고 나온 것 같고 또 임광식이 충북팀으로 출연하여 상쇠로 개인상을 받은 것으로 봐서 충북팀 또한 웃다리 농악을 들고 나온 것 같다. 김오채가 전남팀으로 출연하여 다시 설장고로 개인상을 받았는데 전남팀이 호남우도농악을 들고 나온 것 같다. 강원도가 농악으로 공로상을 받았으나 강릉농악으로 짐작될 뿐 전승지는 알 길이 없다. 그렇다면 제 2 회 경연에서 입상한 농악은 4개 팀으로 보인다.

제 3 회 : 경기농악이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경북농악이 출전하여 최다구가 개인상을 받았다. 경기농악은 안성 평택과 같은 이른바 웃다리농악으로 보이나 분명히 알 수 없고 경북농악은 대구농악으로 전해지나 이것도 분명히 알 수 없다. 2개 팀만이 입상한 것 같아 저조한 편이라 하겠다.

제 4 회 : 함안농악이 대통령상을 받아 농악분야로서는 최초로 최고상을 받게 되었다. 또 최초로 지역명칭을 밝힌 농악이기도 하다. 함안농악은 뒤에 많이 출연하는 삼천포농악과 좀 판이 달라 경남 좌도농악에 든다. 전북농악이 문공부장관상을, 충북, 경기, 충남농악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자세히 알 길이 없다. 농악팀에서 개인상을 받은 박동욱이 보이나 어느 팀인지 분명치 않다. 충북, 충남, 경기팀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으나 전승지를 알 길이 없다. 제 4 회에서는 5개팀이 입상하였고 또 최고상을 받아 농악분야가 풍성한 수확을 거둔 해이기도 하다.

제 5 회 : 전남팀에서 농악으로 대통령상을 받았고 경기팀에서 농악으로 문공부장관상을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전남팀은 호남우도농악으로, 경기농악은 웃다리농악으로 짐작된다. 전북에서 김병섭이, 경남에서 최종실이, 충북에서 김진중이 각각 농악으로 개인상을 받았다. 전북은 김병섭이 개인상을 받은 것으로 봐서 호남우도농악일 것이고 경남은 최종실이 개인상을 받은 것으로 봐서 경남우도농악인 것 같고 충북농악은 어느 지역농악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으나 웃다리농악일 것이다. 충남에서 여성농악이, 경남에서 삼천포농악이 장려상을 받았다. 삼천포농악은 경남우도농악이다. 제 5 회의 경우에도 6개팀

이 농악을 들고 나와 입상하였고 최고상을 받았으니 이때가 농악의 전성기이었던 것 같다.

제 6 회 : 삼천포농악이 경남팀으로 출전하여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전승지역을 밝힌 두번째 농악이 된다. 충북팀이 농악을 들고 나와 장관상을 받았고 전북팀이 농악을 들고 나와 장려상을 받았으나 어느 지역 농악인지 불분명하다. 삼천포농악은 경남우도농악이다. 제 6 회에서는 3종이 입상하여 저조한 편이다.

제 7 회 : 전북팀이 농악으로 대통령상을 받았고 충북팀이 국무총리 상을 받았으나 전승지가 불분명하다. 문백윤이 개인상을 받은 것으로 봐서 경남팀이 삼천포농악을 들고 경연에 참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제 6 회에서는 농악이 최고상을 받았지만 3종만이 입상하여 부진한 편이다.

제 8 회 : 전북팀이 장관상을 받았을 뿐 그 밖의 수상팀이 없어 매우 저조한 해라 하겠다. 전북팀은 호남우도농악으로 보인다.

제 9 회 : 전남농악, 부산농악이 각각 개인상을 받았고 충북농악이 공로상을 충남농악, 부산농악, 전남농악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들 농악의 전승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제 9 회에는 농악분야에 4개팀이나 출연하여 외견상 풍성하나 상다운 상도 받지 못한 해이기도 하다.

제10회 : 이 해부터 5개분야가 각각 문공부 장관상이 신설되어 매년 농악분야의 장관상이 나오게 되었다. 이 해 농악분야 장관상은 전북팀이 받았다. 호남우도농악으로 보이나 역시 불분명하다. 충북, 충남, 강원도가 각각 농악을 들고 나왔지만 모두 장려상에 그치었다. 고로 제10회는 4개팀이나 출연하였지만 성과는 부진한 편이었다.

제11회 : 전북팀이 대통령상을 받았고 경기팀이 장관상을 받았다. 역시 모두 전승지는 불분명하다. 2개팀 입상에 그쳤으나 최고상을 받은 해이기도 하다.

제12회 : 농악분야 장관상은 전북팀이 받았다. 역시 전승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전승지 불명의 경기농악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 해도 농악분야는 부진하다.

제13회 : 장관상은 경북팀으로 출연한 김천농악이 받았다. 김천농악은 경북우도농악으로 뒤에 빗내농악이라는 이름으로 수차 출연한다. 강릉농악이 강원도팀으로 나와 장려상을 받았다. 강릉농악은 영동농악에 든다. 역시 부진한 해이다.

제14회 : 전남팀이 남도농악이라는 농악을 들고 나와 장관상을 받았으나 남도농악이라는 명칭으로는 전승지역을 알 수 없다. 호남우도농악일 것이다. 역시 농악은 부진하다.

제15회 : 경남 삼천포농악이 장관상을 받았고 경기어린이농악이 개인상을 받았을 뿐 역시 부진하다. 삼천포농악은 경남우도농악에 들고 경기농악은 웃다리농악에 든다.

제16회 : 오직 장관상을 받은 전남 광주농악이 나왔을뿐이다. 광주농악은 호남우도농악에 든다.

제17회 : 장관상은 경남 삼천포농악이 받았고 충북 괴산농악이 개인상을 받았을 뿐 역시 부진하다. 괴산농악은 웃다리농악에

든다.

제18회 : 강원도 평창백옥포농악이 장관상을 받아 강원도농악이 처음 장관상을 받은 것이다. 평창농악은 강릉농악과 같이 영동농악에 든다. 부산농악이 공로상을 받았다. 부산농악은 경남좌도농악에 든다. 이 해도 농악이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19회 : 강원도 평창농악이 홀로 나와 국무총리상을 받았을 뿐이다.

제20회 : 오직 경북 청도차산농악이 장관상을 받았을 뿐이다. 청도농악은 경북좌도농악에 든다.

제21회 : 전북 필봉농악이 장관상을 받았다. 경기농악 송창선이, 경북 청도차산농악의 김오동이 각각 개인상을 받았다. 농악이 약간 활기를 찾는 듯하다. 필봉농악은 호남좌도농악에 들고 경기농악은 웃다리농악이다.

제22회 : 충북 제천두학농악이 장관상을 받아 충북팀으로 처음으로 농악분야로 장관상을 받게 되었다. 이는 웃다리농악에 든다. 강원도 팀이 강릉대보름농악을 들고 나와 장려상을 받았으나 이는 판굿이 아니라 민속놀이분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영동농악에 든다.

제23회 : 대구 고산농악이 장관상을 받았다. 대구 팀으로는 처음 농악이 큰 상을 받은 것이다. 이는 경북좌도농악에 든다. 이 해 대통령상을 받은 전북 삼동굿놀이는 민속놀이분야에 드나 광의의 농악에 든다.

제24회 : 충남 금산농악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 농악은 호남좌도농악에 든다. 이 밖에 전북 완주부동농악이 문공부장관상을 받았는데 호남우도농악이다. 부산아미농악이 출연하여 김한순이 장려상을 받았다. 경남좌도농악에든다. 이 해는 농악이 많이 호전되어 활기를 띤 해이기도 하다.

제25회 : 경북 금릉빗내농악이 장관상을 받았고 대구 비산동천왕매기의 농악수 임문구가, 청주농악의 농악수 이중환이 각각 개인상을 받았다. 금릉농악은 경북우도농악이고 대구농악은 경북좌도농악에 들며 청주농악은 대충 웃다리농악으로 짜여 있었다.

제26회 : 전북 이리농악이 대통령상을 받아 제11회 이후 15회만에 농악이 최고상을 받게 되었고 이 팀의 상쇠 나금추가 개인상을 받았다. 이리농악은 호남우도농악이다. 강원도 팀이 명주하평답교농악을 들고 나와 문공부장관상을 받았고 대구 비산농악이 장려상을 받았다. 명주농악은 영동농악에 들고 대구농악은 경북좌도농악에 든다. 이 해는 농악이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제27회 : 경남 화천농악이 홀로 나와 문공부장관상을 받은 것으로 그치어 농악분야는 다시 부진해지고 있다. 이 농악은 함안지역농악으로 경남좌도농악에 드는 것으로 보인다. 농악이 다시 부진해지고 있다.

제28회 : 대구 욱수농악이 문공부 장관상을 받았고 전북팀이 옥구상작농악을 들고 나와 공로상을 받았다. 대구농악은 경북좌도농악에 들고 옥구농악은 호남우도농악에 든다.

제29회 : 대구 비산동천왕매기가 문공부장관상을 받았고 광주 소

촌농악이 공로상을 받았다. 대구농악은 경북좌도농악에 들고 광주농악은 호남우도농악에 든다.

제30회 : 경기 안성농악이 대통령상을 받았고 충북팀이 청주웃다리농악을 들고 나와 문공부장관상을 받았고 광주 광산구라룩농악이 장려상을 받았다. 안성농악과 청주농악은 웃다리농악에 들고 광주농악은 호남우도농악에 든다. 제30회는 근래에 농악에 가장 활기를 띤 해로 꼽히고 있다.

제31회 : 광주 광산농악이 문화부장관산을 받았고 부산 아미농악팀의 상쇠 김한순이 개인상을 받았다. 부산아미농악은 경남좌도농악에 든다.

제32회 : 역시 광주농악이 장관상을 수상했다. 함안칠북화천농악 상쇠 박동욱이 개인상을 받았고 전북 정읍농악이 장려상을 받았다. 함안농악은 경남좌도농악에 들고 정읍농악은 호남우도농악에 든다.

32회동안에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함안농악(제 4 회), 전남농악(제 5 회), 전북농악(제 7 회), 전북농악(제11회), 전북이리농악(제26회), 경기안성남사당풍물놀이(제30회)로 모두 6개팀이다. 함안농악은 경남좌도농악이고 전남농악, 전북농악, 전북이리농악은 호남우도농악이며 경기농악은 웃다리농악이다. 호남우도농악이 4회나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보여 가장 성과가 좋았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팀은 전북농악(제 2 회), 경기농악(제 3 회), 삼천포농악(제 6 회), 평창농악(제19회), 금산농악(제24회)으로 모두 5개 팀이다. 전북농악은 호남우도농악이며 경기농악은 웃다리농악이며 삼천포농악은 경남우도농악이며 평창농악은 영동농악이며 금산농악은 호남좌도농악이다.

장관상을 받은 것은 전북농악(제 4 회), 경기농악(제 5 회), 충북농악(제 6 회), 전북농악(제 8 회), 전북농악(제10회), 경기농악(제11회),. 경북농악(제12회), 김천농악(제13회), 남도농악(제14회), 삼천포농악(제15회), 광주농악(제16회), 삼천포농악(제17회), 평창백옥포농악(제18회), 청도차산농악(제20회), 필봉농악(제21회), 제천두학농악(제22회), 대구고산농악(제23회), 완주부동농악(제24회), 금릉빗내농악(제25회), 명주하평답교농악(제26회), 화천농악(제27회), 욱수농악(제28회), 바산동천왕매기(제29회), 청주웃다리농악(제30회), 광산농악(제31회), 광산농악(제32회) 27개팀이다. 전북농악, 남도농악, 광주농악, 완주부동농악, 광산농악은 모두 호남우도농악이며 경기농악, 충북농악, 제천두학농악, 청주웃다리농악은 모두 웃다리농악에 든다. 경북농악, 청도차산농악, 대구고산농악, 욱수농악, 비산동천왕매기는 경북좌도농악이며, 김천농악, 금릉빗내농악은 경북우도농악이고, 삼천포농악은 경남우도농악이며, 필봉농악은 호남좌도농악이며, 평창농악, 명주농악은 영동농악이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우도농악은 8회로 가장 많고 웃다리농악이 6회, 경북좌도농악이 6회로 같고 영동농악이 2회, 경남우도농악, 경남좌도농악, 호남좌도농악, 경북우도농악이 각각 1회이다.

판굿 이외의 민속놀이분야로 출연한 동래지신밟기, 익산금마기

세배, 강진땅뺏기놀이, 충남용대기놀이, 음성거북놀이, 농청놀이, 총각대방놀이, 백중놀이, 삼동굿놀이와 같은 수많은 종목이 넓은 의미의 농악으로 꼽을 수 있다.

3. 농악의 특성과 전승문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농악을 지역 특성대로 분류하여 입상 빈도를 보면 호남우도농악이 가장 많았고 웃다리농악(경기충청농악), 경북좌도농악이 그 버금이며 이밖에 영동농악, 경북우도농악, 경남우도농악, 호남좌도농악, 경남좌도농악이 더러 출연하여 입상하였다.

호남우도농악은 전라도 서편지역에 전승되는 농악이다. 상쇠의 뱃상모, 꼬갈벅구, 홍동지기 복색, 설장고놀음, 오채질굿 오방진가락으로 특징짓는 농악이다. 느리고 감칠맛있는 가락이 많고 꽹과리와 장고에 치밀하고 변화있는 가락이 발달되어 있다. 이지역 농악에서 이리농악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웃다리농악은 경기도, 충청도 북부, 강원도 영서지역에 전승되는 농악으로 일테면 경기 충청농악이라 할 수 있다. 상쇠의 나비상모, 소고잽이의 채상, 복색에 가사(색띠), 무동, 동고리, 길군악칠채로 특징짓는 농악이다. 가락과 판굿이 분명하며 무동놀음과 동고리와 같은 곡예가 발달되어 있다. 이지역 농악 가운데 평택농악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경북좌도농악은 경상북도 동편지역에 전승되는 농악이다. 부들상모, 채상 또는 고깔, 길군악으로 특징짓는 농악이다. 징과 북이 많이 편성되어 음량이 매우 크고 씩씩한 가락이 많다. 빠른 가락이 많고 매우 박진감이 있어 좋으나 그대신 감칠맛이 덜하다. 이 지역 농악 가운데 대구 비산농악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경북좌도농악은 경상북도 동편지역 농악이다. 부들상모, 채상, 군진놀이로 특징짓는 농악이다. 이 지역 농악가운데 빗내농악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경남우도농악은 부들상모 채상으로 특징짓는데 채상소고는 가장 뛰어난다. 채상의 자반뒤지기는 이 지역 농악이 장기이다. 비교적 빠른 가락이 많고 활기가 넘친다. 이 지역 농악 가운데 진주농악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영동농악은 강원도 대관령 이동지역에 전승되는 농악이다. 가락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 소고와 벅구가 구별되는 지역이 많다. 무동놀음과 농사풀이가 많다. 이 지역 농악가운데 강릉농악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호남좌도농악은 전라도 동편지역의 농악이다. 부들상모, 채상소고, 홍동지기, 채굿, 연산가락으로 특징짓는다. 호남농악의 감칠맛과 경남농악의 씩씩함이 고루 지닌 뛰어난 농악이다. 이 지역 농악가운데 필봉농악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경남좌도농악은 경상남도 동편지역에 전승되는 농악이다. 이 지역 농악 가운데 부산아미농악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각지역 농악은 대개 하나씩 중요무형문화재나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평가와 분석

가면극

이두현
(서울대 명예교수 · 학술원회원)

건국 10주년을 경축하는 축전의 하나로 1958년 8월에 제 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열렸다. 그때 출연종목은 가면극 · 농악 · 민속무용 · 민요 · 민속놀이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이 대회의 개최 목적으로 "우리의 고유 민족예술을 다시 살리고 앞으로 이를 발전시키는 터전을 만드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제 33년사를 개관해 볼 때 대회의 전반은 가면극과 농악이 주도했고, 후반은 민요와 민속놀이가 주도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가면극의 경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3종목 외에는 더 발굴할 것이 없고, 같은 종목이 몇번이고 출연하여 관중에게 새로운 흥미를 줄 수 없었을 뿐더러 수상의 도수도 줄어들었다. 그간의 가면극 부문의 수상 기록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제 1회 (1958) 하회가면극 (대통령상), 봉산탈춤 (국무총리상), 양주별산대놀이(문화부장관상), 오광대놀이(문화부장관상), 제 2회 (1961) 봉산탈춤(대통령상), 오광대놀이(문화부장관상), 제 3회 (1962) 봉산탈춤(문화부장관상), 제 4회(1963) 송파산대놀이(국무총리상), 경남가면극(문화부장관상), 제 5회(1964) 하회가면극(문화부장관상), 제 6회(1965) 동래야유(대통령상), 봉산탈춤(문화부장관상) 제 7회 (1966) 양주별산대놀이 (문화부장관상) 제 9회 (1968), 제 10회 (1969) 강릉관노가면극 (문화부장관상), 제 11회 (1970) 강령탈춤 (문화부장관상), 제 12회(1971) 북청사자놀음 (문화부장관상) 제 13회 (1972), 송파산대놀이 (문화부장관상), 제 14회 (1973) 고성오광대 (국무총리상), 양주별산대놀이 (문화부장관상), 제 15회(1974) 고성오광대 (대통령상), 수영야유 (문화부장관상) 제 16회(1975) 북청사자놀음 (문화부장관상) 제 17회 (1976) 봉산탈춤 (문화부장관상) 제 19회(1978) 은율탈춤 (문화부장관상) 제 20회 (1979) 북청사자놀음 (국무총리상) 수영야유 (문화부장관상), 제 21회 (1980) 강령탈춤 (문화부장관상), 제 22회 (1981) 송파산대놀이 (문화부장관상), 제 23회(1982), 북청사자놀음 (문화부장관상), 제 24회 (1983), 북청사자놀음 (문화부장관상), 제 25회 (1984) 북청사자놀음 (문화부장관상)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의 대회에서는 가면극이 대통령상과 국

무총리상과 문화부장관상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고, 공로상으로는 하회가면극의 박지홍(朴枝洪), 봉산탈춤의 김진옥(金辰玉), 이근성(李根成), 양주별산대놀이의 김성익(金星益), 꼭두각시놀음의 노덕필(盧德弼), 북청사자 놀음의 윤영간(尹迎看), 이순변(李淳變)옹 등을 표창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의 고유 민속예술을 다시 살리는데 고무적인 기여를 하였다.

제1회 대회때 하회가면극은 1964년에 국보 제121호로 지정된 하회가면 보물을 쓰고, 유일한 연희자로 생존한 박지홍옹이 출연하였으나 전래한 그대로가 아니고 재구성한 것이 흠이었다. 봉산탈춤은 이때 김진옥씨를 중심으로 황해도 봉산군에서 월남한 고향 사람들을 모아 연습하고, 가면과 의상도 이때 새로 마련하였었다. 북청사자놀음과 오광대도 이때 처음 일반에게 선을 보였다. 황해·평남북·함남의 이북각도는 월남한 도민들의 망향심과 더불어 열성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진 상연이었던만큼 더욱 눈물겨운바가 있었다. 통영오광대도 이때 장재봉(張在鳳),장택수, 김삼성 제씨가 출연하여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으며 가면도 이때 이십일이나 걸려 새로 제작 하였다고 한다. 양주별산대놀이는 전해인 1957년 이화여고 노천극장에서 공연한 낯익은 멤버들이있으나 대체로 무난한 진행이었다.

1964년으로 제5회를 맞이하게된 경연대회는, 그간 대회 출연 목적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여 이를 길이 보존하고 발굴 향상시키는데 있음"을 재확인 하였는데 연이나 가면극과 농악과 각종 민속놀이등 전통 민속예술을 침체 상태에서 구하고 수많은 인간문화재를 세상에 알려 공로 표창 하였고, 연로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우리 것을 알리고 친숙케 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회를 거듭함에 따라 출연 종목과 출연자에 변화가 없어 답보상태에 빠진 느낌이 들고 그 격리에도 타성이 생겨가는 것 같았다. 그 근본 원인은 출연하는 민속예술의 대부분이 이른바 무형문화재로서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또 그 전통의 모체가 되는 고유민속 자체가 쇠잔하여 가는 추세여서 종목과 보유자의 수가 많음을 바랄수도 없다 하겠으나 아직 발굴과 육성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여 계속적인 성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 이 대회가 경연대회이므로 좋은 자극을 준 것도 사실이나 반면에 너무 입상에만 집착하여 해마다 우세한 종목과 출연팀을 출장시키게 되고, 여타의 종목이나 팀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여 실망이나 포기를 가져오게 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차등의 종목이나 팀에 대해서도 중앙출장의 기회를 주어 발굴과 육성이라는 주요 목적을 더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였다. 또 회를 거듭하는 동안 출연자도 그간 많은 인간문화재급의 노련한 계승자 들이 사망 또는 노쇄하여 출연하지 못하고 젊은 세대들과 교체된 것이 이번 대회에서 특히 현저하게 드러난 현상이었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존법에 의하여 1964년에만도 양주별산대놀이, 꼭두각시놀음,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가 각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종목들은 모두 경연대회에서 각각 입상한 종목들이다.

1966년의 제7회 경연대회를 마치고 느낀 소감은 이제 이 민속예

술경연대회도 궤도에 올랐다는 안도감이었다. 그것은 농악이나 가면극이 6종목인데 비하여 민속놀이 부분이 14종목이나 되어 현저한 진출을 보인 것과 가면극이나 민속놀이 부문에서까지 그 반수 이상이 젊은세대가 진출한 사실에서이다. 노장들의 숙련의 맛은 아직 없어도 그들이 해를 거듭하여 연마의 공을 쌓을때 우리의 민속예술도 길이 살리라고 생각되었다.

가면극부분에서 여전히 남은 문제는 대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일이었다. 가면무극(假面舞劇)인 만큼 탈춤에 치중해야 겠지만 한편 대사의 묘미가 전달되지 않으므로 해서 그 장소 효과는 반감되었다. 이점은 출연자나 주최측이 다 함께 그 개선을 위하여 연구해야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또 시간 제한때문에 어느 가면극의 경우나 그 전과장중 일부분만 상연하였는데 그 선택된 과장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촛점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지 못하였으므로 건성으로 이루어진 간략화가 아니면 한 과장의 지리한 계속이나 또는 조작을 가미한 쇼맨쉽의 발휘에 그쳤다. 가면극의 무대화는 물론 어려운 문제이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과해진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가면극 공연은 경연대회에서 제 7회 이후 60년대에 제 8회때 양주별산대놀이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70년대 들어서 제 14회 (1973)에 고성오광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이어 제 15회 (1974)에 대통령상을 받은 후로는 부진하여 제 20회(1979)에 북청사자놀음이 국무총리상을 받는데 그쳤다. 80년대에 들어선 민속놀이가 대거 진출하여 입상하고, 가면극은 한 종목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과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하지 못했다. 그나마 제 25회(1984) 까지는 가면극 종목에 한 종목이라도 출장하여 부문상인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나 제 26회(1985)부터는 전무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3종목의 가면극중 1964년에 지정된 앞서 열거한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외에 1967년에 강릉관노가면극과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유, 1970년에 강령탈춤, 1971년에 수영야유, 1973년에 송파산대놀이, 1978년에 은률탈춤, 1980년에 하회별신굿탈놀이와 가산오광대가 각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아울러 노장들은 예능보유자 인간문화재로 각각 지정되었다. 이들 종목은 늦게 지정된 가산오광대를 제외하고는 1989년의 제 30회 경연대회까지 번갈아 가면극에 출장한 종목들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1958년에 시작된 전국민속예술대회는 가면극에서는 13개 종목, 꼭두각시놀음까지 포함하면 14개 종목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문화재관리국으로 하여금 그 보존과 전승사업을 관리하게한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묻혀있는 고유 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한다"는 대회의 개최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전국민속예술축전으로서가 아니고 관주도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로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바라건대 이웃 일본의 경우처럼 청소년들에 의한 민간주도의 내 고장 사랑, 내 고장 자랑으로 내 고장의 민속예술을 살려 민간 주도의 전국민속예술대회축전에 출장하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민요

권 오 성
(한양대 교수·국악학)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서 여러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노래의 총칭이다. 다시 말해서 민요는 민간에 전승되는 기층민중의 노래로서 서민생활의 호소(呼訴)이며, 민족심음(民族心音)의 결정체이다. 이세상 어느 민족 어느 지역이건간에 민요가 있지만 우리민족과 같이 옛부터 민요를 즐겨부르던 민족도 드물 것 같다. 비록 민요는 아니지만 요즘에 성행하고 있는 노래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우리민족은 어느곳에서나 친구들과 어울리면 술잔을 기울이며 노래부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왔다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민족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민요부르기를 좋아했고 그만큼 풍부한 민요자료가 있었다.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노래부르는 화목한 분위기를 우리민족 특유의 생활모습이었다. 역사적으로 볼때 외래종교인 불교가 수입되어 좌선(坐禪)과 사색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유교가 들어와 점잖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생활 속에서 노래와 춤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준 면도 없지 않아 있어 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부 상류층에서의 일시적 현상이었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서민층에서는 원래의 우리들의 생활모습 즉 민요를 즐겨부르는 생활을 끈질기게 유지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요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향토의 생활양식과 향토전래의 생활전통 속에서 향토인들의 마음을 노래하기 때문에 때로는 구성지고,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기에 아무런 공감이 없거나 입에 맞지 않으면 부르지를 않는다. 서로 입에 맞고 서로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저절로 불려져 왔다. 여기에 민요의 진전한 의미가 있으며 이런 현상이 민요가 민중들이 마음속에 강렬한 지지공감(支持共感)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악보에 기재되지도 않았고 글로 쓰여진 바 없으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왔던 민요는 원래 어느 특정지역에서 일상생활의 기능과 더불어 전승되던 것이 본고장을 떠나 널리 전파되기도 하고 고정된 기능에서 벗어나 노래 그 자체가 되어 버리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동안에 민요는 민족의 정서를 집약하고 일제에 대

한 항거의 의지를 나타내는 역활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식(移植)된 상업주의의 산물인 유행가(대중가요)가 보급되고, 한편으로는 농촌사회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민요는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민요가 인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되면서 조금씩 옛 민요들이 발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1950년말에서 1960년대까지의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였던 민요들은 민속극, 민속놀이, 농악 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전문적인 민요창작자들이 부르던 풍속화(風俗化)된 민요들과 몇몇 지방의 모심기 소리나 논매기 소리등이 등장하였지만 거의 수상권에 들지 못했으며, 지방 참가자들의 민요에 대한 인식도 잘못되었던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강원도 정선의 아라리타령, 전남 여천의 거문도뱃노래 등을 필두로 하여 71년도에 진도들노래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부터 민요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많은 종목의 참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충북의 베틀노래, 강릉의 오독떼기등이 참가하였고 72년에는 충북의 농요가 중심이 된 탄금대방아타령이 드디어 대통령상을 차지하였다.

전남 해남의 우수영부녀요, 전북 익산의 목발노래, 안동의 논매기소리, 임실들노래, 충북의 미호천방축노래, 나주들노래, 옥구들노래, 영동설계리농요 및 단양동요, 봉기타령, 제주 멸치후리는소리, 충남 부여의 산유화가, 익산 삼기농요, 경기의 시선뱃노래, 진도의 만가(輓歌), 전북의 말천방농요 그리고 79년도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예천통명농요가 새로이 발굴되었었다.

60년대에 비해서 장족의 발전을 보인 70년대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민요부문은 새로운 종목의 발굴의 난 장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민요가 갖고있는 소박성이 점점 미약하게 표현되고 많은 인원이 등장하여 민속놀이를 하듯이 대형화되고 양식화되는 향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여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는 현상도 보여주었다.

물론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였거나 입상한 종목들만을 가지고서 일률적으로 우리민요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 종목들은 역시 향토민요를 대표할 만한 것들로서 현재까지도 각 지역별로 전승·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민요는 어느 특정인의 한해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서나 부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방에 따라 애창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그 지역의 생활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그 지방에 민요를 잘 부르기 때문에 잘 전승되고 보존되게 마련이다.

모내기소리, 논매기소리, 방아타령, 베틀가, 뱃노래, 목도소리등은 대개 농경작업, 어로작업, 잡역노동과 관련이 있다. 일을 하면서 그 일에서 오는 피로를 잇기 위해서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것이다. 나무하러 가면서 지게 목발로 장단을 맞추면서 흥에 겨워 혹

은 시름에 겨워 노래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층민중의 노래들이 민속예술경연대회와 같은 시간과 장소가 제한된 장소에서 부자연스럽게 연출되는 것은 민요가 갖고있는 순수한 멋을 표현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같이 바쁜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경연대회 형식을 빌리지 않고서는 사실상 그런 노래마당을 펼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서도 민요부문의 참가는 활발하였고 그 종목도 다양화 되었다.

제주의 집줄놓는노래, 전라남도 장산도들노래, 경북 청도의 풍각농요, 경기도의 아미산울어리등이 새로 선을 보였고 84년 충주에서 개최된 대회에서는 흔히들 기피하는 강원도 횡성의 회다지소리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흔히 상여소리나 무덤다지는 달구소리는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사람들이 모여 펼치는 축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지만 이 대회가 사라져가는 우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되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만큼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장례풍습과 관련된 민요들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들 노래들은 어떻게 들으면 한없이 슬픈노래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씩씩한 남성노동요의 일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서는 훨씬 다른 맛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 이후 이러한 장례풍습과 관련된 종목들이 자주 출연하고 있다.

그밖에 담양들노래, 충북의 산판소리, 양양상복골농요, 제주의 홍애기소리, 서해안일노래, 상주농요, 대구 공산농요등이 출연하였고 86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강화도 용두레질소리같은 것은 이미 사라져 버리기 직전의 민요자료를 발굴해 낸 것이다.

이같이 만인의 심금을 울려주면서 우리 조상들의 공감을 담아 오늘날 전해오는 민요도 요즘에 와서는 생활양식의 변화와 노작형태의 변화로 말미암아 잘 불려지지 않고 사라져가는 형편에 처해 있다.

옛날같으면 산길을 갈때에는 나뭇꾼들의 초부가(樵夫歌)를 들을 수 있었고 들길을 갈 때는 농부들의 힘찬 외침과 함께 논매기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동네 길가에서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베틀가를 들을 수 있었고, 바닷가에 가면 어부들이 만선의 기쁨을 노래하는 힘찬 노젓는 소리들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소리들을 좀처럼 듣기 어려운 아쉬움에 젖게 되는데 이들 민요들이 이러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불려지고 이것들이 녹음, 녹화등에 의해 기록되며 그렇게 기록된 것들이 학교 교실에서 혹은 마을의 젊은이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전승되어 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국규모의 대회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민요는 기능상의 구분에 따라서도 잘라지지만 지역마다의 특징이 각기 다르다. 민요의 음악어법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민요권(民謠)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요권은 방언권(方言)과도 거의 비슷하다. 흔히 서도민요, 경기민요, 남도민요가 뚜렷이

다르고 강원도와 경상도, 제주도의 민요도 각기 특유의 음악어법으로 불려진다. 경기민요는 충청도 일부에까지 불려지는데 단순하고 경쾌하며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경기입창으로 불려지는 산타령계통의 노래와 방아타령, 한강수타령, 경복궁타령이 그런 예에 속한다. 노랫가락 창부타령등은 전국에 널리 전파되어 많이 불려지고 있다. 남도민요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일대까지 불려지는데, 굵고 극적인 소리를 목을 꺾거나 굵게 떨면서 부르는 발성법에서 다른지역의 민요와 쉽게 구분된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판소리가 전라도지방을 중심으로 생겨나서 발전하였다. 농부가는 원래 민요였던 것이 판소리 춘향가에 삽입되고 다시 다듬어 졌다. 새타령 또한 판소리의 삽입가요가 되어 널리 불려졌다.

서도민요는 황해도와 평안도의 민요를 말한다. 콧소리를 가미하여 한탄스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느낌이 복받쳐 올라 울음 울듯 하기도하고, 떨어지는 듯 내질렀다가 다시 입속에서 앓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부른다. 이런 특징은 서도민요의 대표격인 수심가에서 잘 나타난다. 한탄스런 느낌은 한경도와 강원도 그리고 충북일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구슬프면서도 염불소리와 같은 느낌을 준다. 제주도민요는 육지와는 사뭇 다른 정취를 자아내는데 그 떠는 목이 색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에 따른 음악어법의 차이는 그지방 사투리나 사람들의 기질과도 연관되어지나 이들 지역의 통속화된 민요에서 더욱 그러한 특징들이 두드러진다. 이들 전문적인 창자들에 의해 전승된 민요들은 기층민중들의 각 지역별 노래에서 그 기본적인 음악어법을 취하여 좀더 세련되게 표현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통속화된 민요를 낳게한 각 지역별 기층민중의 민요들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향토민요의 발굴과 계승발전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몇몇 생존해 있는 노인들의 어슴프레한 기억속에 남아있는 소리들은 그 기억을 되살려 여러사람들과 함께 부를 수 있게금 하자니 자연히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만 하고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자는 명분을 내세워 각 지방의 민요들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대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중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다.

비록 30년의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10년단위로 나누어 60년대에는 민요부문이 되살아 나는 동기를 부여하였고 70~80년대에는 역기능이 있기는 하였지만, 다양한 민요들이 실제적으로 발굴 재현되는 데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여기서 발굴된 민요들이 각 지역별로 전승되어야 함은 물론 그 민요들을 바탕으로 현대감각에 맞는 우리민족의 새로운 노래들이 탄생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 새로운 노래들이 한데 어울려 불려질 수 있고 새로운 마당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갖고 있는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국무형문화재 현황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지정)

1992.11.16 현재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지정연월일
1	1	종묘제례악	서울시	1964.12. 7
2	2	양주별산대놀이	경기도 양주군	1964.12. 7
3	3	남사당놀이	서울시	1964.12. 7
4	4	갓일	전국일원	1964.12.24
5	5	판소리	전국일원	1964.12.24
6	6	통영오광대	경남 충무시	1964.12.24
7	7	고성오광대	경남 고성군	1964.12.24
8	8	강강술래	전남 진도군	1966. 2.15
9	9	은산별산제	충남 부여군	1966. 2.15
10	10	나전칠기장	강원도 원주시	1966. 2.29
11	11	농악	전국 일원	1966. 6.29
12	11-01	진주농악	경남 진주시	1966. 6.29
13	11-02	평택농악	경기도 평택군	1985.12. 1
14	11-03	이리농악	전북 이리시	1985.12. 1
15	11-04	강릉농악	강원도 강릉시	1985.12. 1
16	11-05	임실필봉농악	전북 임실군	1988. 8. 1
17	12	진주검무	경남 진주시	1967. 1.16
18	13	강릉단오제	강원도 강릉시	1967. 1.16
19	14	한산모시짜기	충남 서천군	1967. 1.16
20	15	북청사자놀음	서울시	1967. 3.31
21	16	거문고산조	서울시	1967. 6.16
22	17	봉산탈춤	서울시	1967. 6.17
23	18	동래야유	부산시 동래구	1967.12.21
24	19	선소리산타령	서울시	1968. 4.18
25	20	대금정악	서울시	1968.12.21
26	21	승전무	경남 충무시	1968.12.21
27	22	매듭장	서울시	1968.12.21
28	23	가야금산조 및 병창	서울시	1968.12.21
29	24	안동차전놀이	경북 안동시	1969. 1. 7
30	25	영산쇠머리대기	경남 창녕군	1969. 2.11
31	26	영산줄다리기	경남 창녕군	1969. 2.11
32	27	승무	서울시	1969. 7. 4
33	28	나주의 샛골나이	전남 나주군	1969. 7. 4
34	29	서도소리	서울시	1969. 9.27
35	30	가곡	서울시	1969.11.10
36	31	낙죽장	전남 담양군	1969.11.29
37	32	곡성의 돌실나이	전남 곡성군	1970. 7.22
38	33	고싸움 놀이	광주시 광산구	1970. 7.22
39	34	강령탈춤	서울시	1970. 7.22
40	35	조각장	서울시	1970. 7.22
41	38	조선왕조 궁중음식	서울시	1970.12.30
42	39	처용무	서울시	1971. 1. 8
43	40	학무	서울시	1971. 1. 8
44	41	가사	서울시	1971. 1. 8
45	42	악기장	서울시	1971. 2.24
46	43	수영야유	부산시 남구	1971. 2.24

중요무형문화자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지정연월일
47	44	한장군놀이	경북 경산군	1971. 3.15
48	45	대금산조	부산시 남구	1971. 3.28
49	46	대취타	서울시	1971. 6.10
50	47	궁시장	전국 일원	1971. 9.13
51	48	단청장	서울시	1972. 8. 1
52	49	송파산대놀이	서울시	1973.11.11
53	50	영산재	서울시	1973.11. 5
54	51	남도들노래	전남 진도군	1973.11. 5
55	53	채상장	전남 담양군	1975. 1.29
56	54	끊음질	전국일원	1975. 1.29
57	55	소목장	전국일원	1975. 1.29
58	56	종묘제례	서울시	1975. 5. 3
59	57	경기민요	서울시	1975. 7.12
60	58	줄타기	경기도 부천시	1976. 6.30
61	60	장도장	전남 광양군	1978. 2.23
62	61	은율탈춤	인천시 남구	1978. 2.23
63	62	좌수영어방놀이	부산시 남구	1978. 5. 9
64	63	북메우기	서울시	1980. 9. 1
65	64	두석장	경남 충무시	1980.11.17
66	65	백동연죽장	전북 임실군	1980.11.17
67	66	망건장	제주도 제주시	1980.11.17
68	67	탕건장	제주도 제주시	1980.11.17
69	68	밀양백중놀이	경남 밀양시	1980.11.17
70	69	하회별신굿탈놀이	경북 안동군	1980.11.17
71	70	양주소놀이굿	경기도 양주군	1980.11.17
72	71	제주칠머리당굿	제주도 제주시	1980.11.17
73	72	진도씻김굿	전남 진도군	1980.11.17
74	73	가산오광대	경남 사천군	1980.11.17
75	74	대목장	전국일원	1980. 6. 1
76	75	지지시줄다리기	충남 당진군	1982. 6. 1
77	76	택견	충북	1983. 6. 1
78	77	유기장	전국일원	1983. 6. 1
79	78	입사장	서울시	1983. 6. 1
80	79	발탈	서울시	1983. 6. 1
81	80	자수장	서울시	1984.10.15
82	81	진도다시래기	전남 진도군	1985. 2. 1
83	82	풍어제	전국일원	1985. 2. 1
84	82-01	동해안별신굿	부산시 동래구	1985. 2. 1
85	82-02	서해안배연신굿및 대동굿	인천시 북구	1985.12. 1
86	82-03	위도띠뱃놀이	전북 부안군	1985. 2. 1
87	82-04	남해안별산굿	경남 충무시	1987. 7. 1
88	83	향제줄풍류	전국일원	1985. 9. 1
89	83-01	구례향제줄풍류	전남 구례군	1985. 9. 1
90	83-02	이리향제줄풍류	전북 이리시	1985. 9. 1
91	84	농요	전국일원	1985.12. 1
92	84-01	고성농요	경남 고성군	1985.12. 1

중요무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지정연월일
93	84-02	예천통명농요	경북 예천군	1986. 11. 1
94	85	석전대제	서울시	1986. 11. 1
95	86	향토술담그기	전국일원	1986. 11. 1
96	86-01	문배주	서울시	1986. 11. 1
97	86-02	면천두견주	충남 당진군	1986. 11. 1
98	86-03	경주교동법주	경북 경주시	1986. 11. 1
99	87	명주짜기	경북 성주군	1988. 4. 1
100	88	바디장	충남 서천군	1988. 8. 1
101	89	침선장	서울시 성북구	1988. 8. 1
102	90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인천시	1988. 8. 1
103	91	제와장	전남 장흥군	1988. 8. 1
104	92	태평무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256-236	1988. 12. 3
105	93	전통장	경북 포항시	1989. 6. 15
106	95	제주민요	제주도	1989. 12. 1
107	96	옹기장	전국일원	1990. 5. 8
108	97	살풀이춤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14-2	1990. 10. 10
109	98	경기도 도당굿	경기도 부천시	1990. 10. 10

시도무형문화재

1992. 11. 16 현재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지정연월일
1	1	옻장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 APT 22-203	1989. 3. 12
2	1	고산농악	대구시 수성구 내곳동	1984. 7. 25
3	1	삼현육각	인천시 남구 숭의동 341	1985. 10. 23
4	1	남도판소리(흥부가·심청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동 657-23	1974. 5. 28
5	1	웃다리 농악	대전시 대덕구 법동 111	1989. 3. 18
6	1	계명주(엿탁주)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금남리	1987. 2. 13
7	1	정선아리랑	강원도 정선군(일원)	1971. 11. 16
8	1	청주농악	충북 청주시 강서 1동 169-5	1992. 10. 23
9	1	한산세모시짜기	충남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459	1974. 8. 31
10	1	익산목발노래	전북 익산군 삼기면 오용리	1973. 6. 23
11	1	거문도뱃노래	전남 여천군 삼산면 거문리	1972. 1. 25
12	1	안동포짜기	경북 안동군 임하면 금소리 563	1975. 12. 30
13	1	해녀노래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1971. 8. 26
14	2	서울송절주	서울시 강남구 우성APT 5-1007	1989. 8. 16
15	2	수영농청놀이	부산시 남구 수영동 258	1972. 10. 20
16	2	날뫼북춤	대구시 서구 비산동	1984. 7. 25
17	2	단소장	인천시 남구 주안동 938의 1	1985. 10. 23
18	2	판소리(감심제, 심청전)	광주시 서구 양동 119	1976. 9. 30
19	2	동동주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보라리	1987. 5. 14
20	2	삼척기줄다리기	강원도 삼척시(일원)	1971. 11. 16
21	2	지승제조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57	1978. 3. 31
22	2	판소리	전북 전주시 중앙동 4가 29의 5	1984. 9. 20
23	2	안동저전동농요	경북 안동군 서후면 저전리 446	1980. 12. 30
24	2、	용호놀이	경남 밀양군 무안면 무안리 81	1991. 11. 11
25	2	영감놀이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1971. 8. 26
26	3	송파다리밟기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0-1	1989. 9. 16

시도무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지정연월일
27	3	동래학춤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47의 5	1977. 12. 13
28	3	욱수농악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	1988. 5. 30
29	3	인천시 근해갯가노래뱃노래	인천 동구 만석동 9	1988. 12. 24
30	3	탱화장	광주시 광산구 용운동 46	1985. 2. 25
31	3	청자도공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수광리 323－4	1988. 12. 2
32	3	한산소곡주	충남 서천군 한산면 호암리	1979. 7. 3
33	3	거문고산조	전북 전주시 다가동 2가 125	1984. 9. 20
34	3	영해 별신굿놀이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409	1980. 12. 30
35	3	한량무	경남 진주시 판문남동	1979. 5. 2
36	3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탁주)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1990. 5. 30
37	4	연날리기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82	1992. 9. 29
38	4	동래지신밟기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산13의 3	1977. 12. 13
39	4	천왕매기	대구시 서구 비산동	1989. 6. 15
40	4	대금정악	인천시 중구 송월동 송월APT 11－606	1989. 12. 28
41	4	진다리붓	광주시 광산구 서창출장소 벽진동 512－2	1985. 2. 25
42	4	분청백자도공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수광리 633	1988. 12. 2
43	4	횡성정금리회다지소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849	1984. 12. 28
44	4	산유화가	충남 부여군 세도면 장산리 15	1982. 12. 31
45	4	대금정악	전북 정주시 연지동 343의 7	1984. 9. 20
46	4	청도차산농악	경북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 232의 3	1980. 12. 30
47	5	붓장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2－3	1992. 9. 29
48	5	충렬사제향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229의 1	1979. 2. 2
49	5	여창가곡	대구시 남구 대명 6동 576－2	1989. 6. 15
50	5	주대소리	인천시 남구 논현동 111	1992. 5. 15
51	5	청자도공	광주시 광산구 평동 출장소 연산동 870－1	1986. 9. 29
52	5	명주학산오독떼기	강원도 명주군 구정면 학산리	1986. 5. 18
53	5	가야금산조	전북 정주시 장명동 195－1	1987. 4. 28
54	5	남도노동요	전남	1977. 10. 20
55	5	문창제놀이	경남시 창원시 서상동	1980. 12. 26
56	5	송당리마을제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1986. 4. 10
57	6	조선장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453－9 칠성A 410	1992. 9. 29
58	6	부산아미농악	부산시 서구 아미동 1가 산 19	1980. 2. 22
59	6	령제시조	대구시 남구 대명 6동	1990. 5. 15
60	6	남도창안채봉	광주시 서구 서동 1－4	1989. 3. 20
61	6	원주전통자기도공	강원도 원주시 원동 산4－1	1989. 5. 1
62	6	보령남포벼루제작	충남 보령군 청라면 의평리 574	1987. 12. 30
63	6	향토술담기	전북 전주시 다가동 107	1987. 4. 28
64	6	화순한천 농악	전남 화순군 동복면 한천리	1979. 8. 3
65	6	예천궁장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69의 3	1982. 12. 30
66	6	마산농청 놀이	경남 마산시 상남동 107의 2	1983. 8. 12
67	6	납읍리마을제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1986. 4. 10
68	7	전통활쏘기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163－3	1992. 9. 29
69	7	다대포후리소리	부산시 사하구	1987. 7. 2
70	7	공산농악	대구시 동구 평광동	1990. 5. 15
71	7	남도의례음식장이연채	광주시 북구 중흥동 320－39	1989. 3. 20
72	7	백동연죽장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숭인리 294	1989. 12. 19

시도무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지정연월일
73	7	계룡백일주	충남 공주시 봉정동 339	1989. 12. 29
74	7	농악	전북 전주시 인후 2가동 236－31	1987. 12. 31
75	7	현천소동패놀이	전남 여천군 소라면 현천리	1982. 10. 15
76	7	안동놋다리밟기	경북 안동시 법상동 165의 3	1984. 12. 29
77	7	감내게줄당기기	경남 밀양시 내일동	1983. 8. 12
78	7	덕수리불미공예	제주시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2137의 8	1986. 4. 10
79	8	가야금산조	부산시 동래구 온천 1동 87－1	1989. 7. 6
80	8	판소리	대구시 남구 대명 5동 38－4	1992. 9. 8
81	8	광산농악	광주시 광산구 마륵동	1992. 3. 20
82	8	승무, 살풀이 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123－57	1991. 10. 19
83	8	공주탄천장승제	충남 공주군 탄천면 송학리	1989. 12. 29
84	8	가곡(남창)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26	1992. 6. 20
85	8	금릉빗내농악	경북 금릉군 개령면 광천리 1042	1984. 12. 29
86	8	판소리고법	경남 사천군 사천읍 정의리	1985. 1. 14
87	8	정동벌립장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1578	1986. 4. 10
88	9	줄타기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무갑리 333	1991. 10. 19
89	9	청양정산동화제	충남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1989. 12. 29
90	9	판소리 고법	전북 전주시 인후동 2가 232－15	1992. 6. 20
91	9	김천장정	경북 김천시 황금동	1986. 12. 11
92	9	판소리(수궁가)	경남 사천군 사천읍 정의리 391	1985. 1. 14
93	9	방앗돌 돌리는 노래	제주시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2261	1986. 4. 10
94	10	방짜유기장	경기도 군포시 당동 362－6	1992. 6. 5
95	10	서천대목장	충남 서천군 문산면 금복동 632	1990. 5. 24
96	10	예천공처농요	경북 예천군 풍양면 공덕리	1986. 12. 11
97	10	장력장	경남 진주시 상대동	1987. 5. 19
98	10	멸치후리는노래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동금녕리 1667의8	1986. 4. 10
99	11	아산연엽주	충남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 88번지	1990. 12. 31
100	11	김천과하주	경북 김천시 모암동	1987. 5. 13
101	11	숭선전제례	경남 김해시 동상동 826	1990. 12. 20
102	12	황도붕기풍어제	충남 태안읍 안면읍 황도리 24	1991. 1. 9
103	12	광양궁시장	전남 광양군 광양읍 목성리	1986. 9. 29
104	12	안동소주	경북 안동시 신안동	1987. 5. 13
105	12	진주포구락무	경남 진주시 신안동 15－24	1991. 11. 11
106	13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	충남 서천군 한산면 호암리 147	1991. 7. 9
107	13	상주민요	경북 영천시 교촌동	1987. 5. 13
108	13	함안 화천농악	경남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578	1991. 11. 11
109	14	연중백중놀이	충남 논산군 연산면 청동리	1991. 7. 9
110	14	나주반장	전남 나주시 영산동 141	1986. 11. 13
111	14	영양상여장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327－1	1988. 9. 23
112	15	아산옹기장	충남 아산군 도고면 금산리 산 20번지	1991. 7. 9
113	15	참빗장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1986. 11. 13
114	15	영풍장도장	경북 영풍군 풍기면 동부 2리	1990. 8. 7
115	16	금산물페기 농요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1992. 8. 17
116	16	옥공장	전남 목포시 죽교동 70	1987. 4. 27
117	16	무명짜기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리	1990. 8. 7
118	17	우도농악	전남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 171	1987. 8. 25

시도무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지정연월일
119	17	모필장	경북 김천시 남산동 63－1	1991. 3. 25
120	18	진도북놀이	전남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49	1987. 8. 25
121	18	문경호산춘	경북 문경군 산북면 대하리 460－5	1991. 11. 23
122	19	진도만가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267	1987. 8. 25
123	20	우수영부녀농요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1102	1987. 8. 25
124	21	장산도들노래	전남 신안군 장산면 공수리	1988. 12. 22
125	22	가거도멸치잡이놀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455	1988. 12. 22
126	23	담양 죽렴장(박성춘)	전남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164의 1	1990. 2. 24

색인

ㄱ

가거도멸치잡이소리 (전남/민요) ····· 298
가래질노래 (충북/민요) ····· 140
가면극 (강원/민속극) ····· 59
가면극 (경남/민속극) ····· 22
가면극 (서울/민속극) ····· 114
가산오광대 (경남/민속극) ····· 175
감내게줄다리기 (경남/민속놀이) ····· 351
강강술래 (전남/민속놀이) ····· 150
강령탈춤 (황해/민속극) ····· 88
강릉관노가면희 (강원/민속극) ····· 59
강릉단오굿(강원/민속놀이) ····· 161
강릉대보름농악 (강원/농악) ····· 232
강릉오독떼기 (강원/민요) ····· 108
강문진또베기 (강원/민속놀이) ····· 198
강진땅뺏기놀이 (전남/민속놀이) ····· 171
강진베틀노래 (전남/민속놀이) ····· 317
강화시선뱃노래 (경기/민요) ····· 167
강화용두레질노래 (경기/민요) ····· 296
거리제 (강원/민속놀이) ····· 134
거문도뱃노래 (전남/민요) ····· 92
거문도술비소리 (전남/민요) ····· 205
거북놀이 (충남/민속놀이) ····· 89
검질메는노래 (제주/민요) ····· 193
경기농악 (경기/농악) ····· 32
경복궁지경닦이 (서울/민요) ····· 322
경신역마놀이 (인천/민속놀이) ····· 242
고무산타령 (함북/민요) ····· 157
고성농요 (경남/민요) ····· 187
고성명파돌다리놓기 (강원/민속놀이) ····· 359
고성오광대놀이 (경남/민속극) ····· 130
고싸움놀이 (전남/민속놀이) ····· 70
고창임리당산제 (전북/민속놀이) ····· 336
고흥농악(전남/농악) ····· 380
고흥한적들노래 (전남/민요) ····· 349
공산농요 (대구/민요) ····· 360
공주장승제 (충남/민속놀이) ····· 261
과천무동답교놀이 (경기/민속놀이) ····· 244
관등놀이 (서울/민속놀이) ····· 86
광산구마륵농악 (광주/농악) ····· 356
광산농악 (광주/농악) ····· 364
광주농악 (전남/농악) ····· 364
괴산농악 (충북/농요) ····· 160
괴산백중놀이 (충북/민속놀이) ····· 141
구미발검들들노래 (경남/민요) ····· 373
구정대보름놀이 (함북/민속놀이) ····· 172
군산용왕굿 (전북/민속놀이) ····· 367
궐기타령 (함북/민요) ····· 204
그물당기는노래 (제주/민요) ····· 220
금릉빗내농악 (경북/농악) ····· 265
금마기세배 (전북/민속놀이) ····· 264
금산농악 (충남/농악) ····· 248
금산물페기농요 (충남/민요) ····· 372
금척무 (전북/민속무용) ····· 358
기와밟기 (전북/민속놀이) ····· 99
긴아리 (평남/민요) ····· 189
김매기노래 (제주/민요) ····· 102
김제벽골제쌍용놀이 (전북/민속놀이) ····· 145
김천농악 (경북/농악) ····· 115
김포두레농요 (경기/민요) ····· 320
김포상두꾼소리 (경기/민요) ····· 370
까치내상여놀이 (충북/민속놀이) ····· 255
꼭두각시놀음 (서울/민속극) ····· 19

ㄴ

나주들노래 (전남/민요) ····· 131
날뫼북춤 (대구/민속무용) ····· 252
남도농악 (전남/농악) ····· 380
남사당풍물놀이 (서울/민속놀이) ····· 101
남원용마놀이 (전북/민속놀이) ····· 91
남이장군당굿 (서울/민속극) ····· 376
낭성산판소리 (충북/민요) ····· 292
노동요 (제주/민요) ····· 90
놋다리밟기 (경북/민속놀이) ····· 34
농기뺏기 (전북/민속놀이) ····· 67
농악 (강원/농악) ····· 77
농악 (경기/농악) ····· 32
농악 (경남/농악) ····· 24
농악 (경북/농악) ····· 200
농악 (부산/농악) ····· 66
농악 (여성,충남/농악) ····· 21
농악 (전북/농악) ····· 22
농악 (충북/농악) ····· 50

ㄷ

다대포후리소리 (부산/민요) ····· 316
다리굿 (평남/민속놀이) ····· 33
단양띄뱃놀이 (충북/민속놀이) ····· 368
달구놀이 (평북/민속놀이) ····· 205
달래강망패싸움 (평북/민속놀이) ····· 257
담양들노래 (전남/민요) ····· 278
답교놀이 (서울/민속놀이) ····· 75
대감놀이 (서울/민속놀이) ····· 123
대구건들방우치굿 (대구/민속놀이) ····· 376
대구고산농악 (경북/농악) ····· 237
대구공산민요 (대구/민요) ····· 360
대동굿 (황해/민속놀이) ····· 218
대보름놀이 (함북/민속놀이) ····· 172
도당굿놀이 (서울/민속놀이) ····· 159

도안동농요 (대전/민요) 383
동김녕리해녀노래 (제주/민요) 353
동래고무 (부산/민속무용) 333
동래야유 (부산/민속극) 48
동래지신밟기 (부산/민속놀이) 113
동래학춤 (부산/민속무용) 232
두만강뗏목노래 (함북/민요) 233
등바루놀이 (충남/민속놀이) 214
디딜방아액맥이놀이 (대전/민속놀이) 368
떼몰이놀이 (제주/민속놀이) 337
띄뱃굿놀이 (전북/민속놀이) 182

ㅁ

마산농청놀이 (경남/민속놀이) 333
마산두레농악 (경남/농악) 367
말뛰기놀이 (제주/민속놀이) 24
말천방농요 (전북/민요) 206
망데기질드리는소리 (제주/민요) 375
매포민요 (충북/민요) 212
멸치후리는노래 (제주/민요) 152
명주하평 2 월답교농악 (강원/농악) 284
모내기노래 (경북/민요) 35
목계별신굿 (충북/민속놀이) 263
목우희 (경남/민속놀이) 80
미호천방축노래(충북/민요) 127
민요 (서울/민요) 78
민요 (제주/민요) 79
밀양백중놀이 (경남/민속놀이) 211
밀양법흥상원놀이 (경남/민속놀이) 386
밀양새터가을굿 (경남/민속놀이) 269

ㅂ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서울/민속놀이) 366
발방아놀이 (평북/민속놀이) 240
방아돌굴리는 노래 (제주/민요) 210
배따라기 (평북/민요) 157
배따라기 (황해/민요) 157
배뱅이굿 (평북/민속놀이) 25
베치기노래 (전북/민요) 104
베틀노래 (충북/민요) 98
보리타작 (경북/민요) 38
보부상놀이 (충남/민속놀이) 190
보성옥평농악 (전남/농악) 256
보성장좌기받이별신제 (전남/민속놀이) 365
보은흰돌물다리기 (충북/민속놀이) 311
봉산탈춤 (황해/민속극) 28
봉서사영산작법 (전북/민속무용) 326
부산영산재 (부산/민속무용) 384
부여용정리호상놀이 (충남/민속놀이) 380
북성지구풍어노래 (인천/민요) 306
북성포곶창굿 (인천/민속놀이) 268
북청돈돌날이 (함남/민요) 374
북청사자놀음 (함남/민속극) 197
북평원님놀이 (강원/민속놀이) 190
불무노래 (제주/민요) 199
불싸움놀이 (제주/민속놀이) 285
봉기풍어놀이 (충남/민속놀이) 164
비바리 (제주/민요) 147
비산농악 (대구/농악) 268

ㅅ

산신놀이 (제주/민속놀이) 240
산유화가 (충남/민요) 153
삼동굿놀이 (전북/민속놀이) 236
삼삼이와돈돌라리 (함남/민속무용) 374
삼천포농악 (경남/농악) 44
상조계놀이 (평북/민속놀이) 174
상주모내기 (경북/민요) 35
상주민요 (경북/민요) 345
서당놀이 (경북/민속놀이) 107
서도가요 (평남/민요) 137
서도소리, 제석방아찧기 (평남/민요) 137
서도소리경사거리 (평남/민요) 137
서도입창 (평남/민요) 137
서도잡가 (평남/민요) 156
서산볏가리대놀이 (충남/민속놀이) 277
서우젯소리 (제주/민요) 362
서울12지풍물놀이 (서울/민속놀이) 335
서해안일노래 (인천/민요) 312
선소리산타령 (서울/민요) 155
성주풀이 (제주/민속놀이) 79
성황부군도당굿 (평북/민속놀이) 216
성황신제 (강원/민속놀이) 59
세경놀이 (제주/민속놀이) 52
소금밭일놀이 (인천/민속놀이) 382
소놀이굿 (경기/민속놀이) 124
소촌농악 (광주/농악) 338
속리산탑돌이 (충북/민속놀이) 87
송천달집태우기놀이 (충북/민속놀이) 327
송파백중놀이 (서울/민속놀이) 359
송파산대놀이 (서울/민속놀이) 114
송포호미걸이 (경기/민요) 339
수레싸움 (강원/민속놀이) 53
수심가엮음 (평북/민요) 137
수영농청놀이 (부산/민속놀이) 267
수영농청농요 (부산/민요) 301

수영야유 (부산/민속극) 135
수영야유사자담보춤 (부산/민속극) 135
승전무 (경남/민속무용) 100
신창탈놀이 (함남/민속극) 357

ㅇ

아미산울어리 (경기/민요) 202
아산줄다리기 (충남/민속놀이) 96
아웨기와홍애기소리 (제주/민요) 305
안동놋다리밟기 (경북/민속놀이) 34
안동논매기 (경북/민요) 74
안동웅굴놋다리 (경북/민속놀이) 147
안동저전동달개놀이 (경북/민속놀이) 160
안성남사당풍물놀이 (경기/농악) 344
애원성 (함북/민요) 116
양반상례역귀몰이 (대전/민속놀이) 374
양양귀애파기놀이 (강원/민속놀이) 290
양양상복골농요 (강원/민요) 299
양양패다리놓기 (강원/민속놀이) 247
양주별산대놀이 (경기/민속극) 58
양진명소오룡굿 (충북/민속놀이) 203
어르마타령 (전북/민요) 103
어베주지춤(함북/민속무용) 256
예천공처농요 (경북/민요) 280
여수영당풍어굿 (전남/민속놀이) 372
여주쌍용거줄다리기 (경기/민속놀이) 310
영등굿놀이 (제주/민속놀이) 63
연물놀이 (제주/민속무용) 314
연산백중놀이 (충남/민속놀이) 363
연신맞이굿놀이 (제주/민속놀이) 272
연평도놀이 (황해/민속놀이) 108
영덕탈굿 (경북/민속극) 172
영동길쌈노래 (충북/민요) 382
영동설계리농요및단양동요 (충북/민요) 144
영동해랑제 (강원/민속놀이) 146
영변가 (평북/민요) 136
영변가놀량 (평북/민요) 136
영변성황대재 (평북/민속놀이) 216
영암도포제줄다리기 (전남/민속놀이) 373
영양모내기 (경북/민요) 72
예천공처농요 (경북/민요) 280
예천농요 (경북/민요) 280
예천통명농요 (경북/민요) 196
오광대놀이 (경남/민속극) 22
오방성주풀이 (부산/민속놀이) 79
옥구들노래 (전북/민요) 132
옥구상작농악 (전북/농악) 323
옥천집터다지기는노래 (충북/민요) 328
온달성재밟기 (충북/민속놀이) 270
완주부동농악 (전북/농악) 253
요왕맞이굿놀이 (제주/민속놀이) 368
용대기놀이 (충남/민속놀이) 227
용득기 (충남/민속놀이) 227
용신맞이풍어굿 (전남/민속놀이) 271
용암포풍어제 (경북/민속놀이) 319
용연기우제 (제주/민속놀이) 221
용왕굿 (인천/민속놀이) 231
우수영부녀농요 (전남/민요) 111
욱수농악 (대구/농악) 315
울산물당기기놀이 (경남/민속놀이) 321
월정사탑돌이 (강원/민속놀이) 174
위도띄뱃놀이 (전북/민속놀이) 182
은산별신굿 (충남/민속놀이) 64
은율탈춤 (황해/민속극) 188
음성거북놀이 (충북/민속놀이) 239
의성가마싸움 (경북/민속놀이) 246
이리농악 (전북/농악) 276
이천거북놀이 (경기/민속놀이) 281
익산금마기세배 (전북/민속놀이) 264
익산목발노래 (전북/민요) 112
익산삼기농요 (전북/민요) 167
인간칠십고려장하직굿놀이 (평남/민속놀이) 369
인제뗏목꾼소리 (강원/민요) 287
인제숯둔골숯굽기 (강원/민속놀이) 313
인천소금밭일놀이 (인천/민속놀이) 382
인천주대소리 (인천/민요) 347
임실삼계고전상여소리 (전북/민속놀이) 385
임실삼계농요 (전북/민요) 158
입석줄다리기 (전북/민속놀이) 225
입체공명가및영변가 (평북/민요) 136
입춘굿놀이 (제주/민속놀이) 44

ㅈ

자인팔광대 (경북/민속극) 329
작두타기 (황해/민속놀이) 41
장산도들노래 (전남/민요) 237
장안골편사놀이 (서울/민속놀이) 384
장흥보름줄다리기 (전남/민속놀이) 84
재가승마을극놀이 (함북/민속놀이) 243
재가승마을세시놀이 (함북/민속놀이) 368
재가승염불삼매놀이 (함북/민속놀이) 368
재가승주지놀이 (함북/민속놀이) 243
저산팔읍길쌈놀음 (충남/민속놀이) 297
전주승무 (전북/민속무용) 125
정선아리랑 (강원/민요) 85
정선지게춤물박장단 (강원/민속놀이) 369
정수암화전놀이 (제주/민속놀이) 190
정읍농악 (전북/농악) 377
정읍범패승무 (전북/민속무용) 304
제석방아놀이 (평남/민속놀이) 137
제천두학농악 (충북/농악) 230
조리희 (제주/민속무용) 93

조발다지는노래 (제주/민요) ····· 178
조심기놀이 (평남/민속놀이) ····· 219
좌수영어방놀이 (부산/민속놀이) ····· 122
주대소리와 장치기소리 (인천/민요) ····· 369
주사손돌공진혼제 (경기/민속극) ····· 270
줄타기 (서울/민속놀이) ····· 21
진도들노래 (전남/민요) ····· 97
진도만가 (전남/민요) ····· 184
진도아리랑 (전남/민요) ····· 41
진주검무 (경남/민속무용) ····· 170
진주포구락무 (경남/민속무용) ····· 282
집줄놓는노래 (제주/민요) ····· 226

ㅊ

차사영맞이 (전북/민속놀이) ····· 126
차전놀이 (경북/민속놀이) ····· 62
청단놀음 (경북/민속극) ····· 229
청도민요 (경북/민요) ····· 173
청도차산농악 (경북/농악) ····· 200
청도풍각농요 (경북/민요) ····· 249
청양동화제 (충남/민속놀이) ····· 331
청원농요 (충북/민요) ····· 169
청주농악 (충북/농악) ····· 348
청주웃다리농악 (충북/농악) ····· 348
총각대방놀이 (충남/민속놀이) ····· 352
춘성수레싸움 (강원/민속놀이) ····· 53
충무승전무 (경남, 단체/민속무용) ····· 100

ㅋ

쾌지나칭칭나네 (경북/민요) ····· 33

ㅌ

타구놀이 (경남/민속놀이) ····· 118
탄금대방아타령 (충북/민요) ····· 110
탑돌이 (충북/민속놀이) ····· 87
태우만드는 놀이 (제주/민속놀이) ····· 254
태인민요 (전북/민요) ····· 140
톱질놀이 (제주/민속놀이) ····· 139
통영검무 (경남/민속무용) ····· 266
통영오광대 (경남/민속극) ····· 22
투호놀이 (서울/민속놀이) ····· 118

ㅍ

편사놀이 (인천/민속놀이) ····· 289
평산지경닦기소놀음및작두그네뛰기 (황해/민속놀이) ····· 41
평안도다리굿 (평북/민속놀이) ····· 33
평양검무 (평남/민속무용) ····· 387
평양다리굿 (평남/민속놀이) ····· 33
평양염불과제석방아찧기 (평남/민요) ····· 376
평창농악 (강원/농악) ····· 184
평창백옥포농악 (강원/농악) ····· 184
포천메나리 (경기/민속놀이) ····· 381

ㅎ

하회별신굿놀이 (경북/민속극) ····· 18
한가위놀이 (충남/민속놀이) ····· 147
한량무 (경남/민속무용) ····· 204
한양풍물놀이 (서울/민속놀이) ····· 217
한장군놀이 (경북/민속놀이) ····· 71
함열놓기뺏기 (전북/민속놀이) ····· 67
함안농악 (경남/농악) ····· 40
함평농요 (전남/민요) ····· 222
항두계놀이 (평남/민속놀이) ····· 54
해녀놀이 (제주/민속놀이) ····· 76
해녀뱃노래 (제주/민요) ····· 103
해주검무 (황해/민속무용) ····· 366
현천소동패놀이 (전남/민속놀이) ····· 224
호랑이탈춤 (황해/민속극) ····· 292
호미걸이소리 (서울/민요) ····· 175
홍천물통방아소리 (강원/민속놀이) ····· 340
홍해룡의놀이 (함북/민속놀이) ····· 119
화상싸움 (경북/민속놀이) ····· 241
화천나뭇꾼농목장치기 (강원/민속놀이) ····· 381
화천농악 (경남/농악) ····· 40
황주난봉가 (황해/민요) ····· 138
황해도민속범몰이 (황해/민속놀이) ····· 303
황해도민요 (황해/민요) ····· 117
횃불쌈놀이 (충남/민속놀이) ····· 119
횡성우밀어러리타령 (강원/민요) ····· 376
회다지소리 (강원/민요) ····· 260

한국의 민속예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사

●

발행인 이수정
편집인 김광락
발행처 문화부

●

1992년 12월 21일 인쇄
1992년 12월 31일 발행
편집처 문화행동
인쇄처 태양종합인쇄

●

편집위원
임동권
장주근
이두현
신찬균
정병호
이보형
권오성
김재형

●

기획위원
박명규
강정태
김한규

●

비매품